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서해전역》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경제적의의가 대단히 클뿐만아니라 대자연개조사업의 관건적고리로 되는 서해갑문건설을 친히 발기하고 몸소 그 위치를 정해주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위치는 정해졌지만 건설부문일군들과 수리공학전문가들은 서해갑문과 같은 대갑문은 20년 이상 걸려야 완공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견해를 달리 하신다. 그이께서는 단 5년동안에 갑문건설을 완공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기는 한편 자신께서 몸소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신다.

하지만 20리 날바다를 막아 세계굴지의 대갑문을 건설하는 과정은 숱한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서는 과정이였다. 정세도 매우 긴장하였다. 갑문건설을 시작한지 3년째 되는 해(1983년)에는 준전시상태까지 선포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런 준엄한 정세에도 끄떡없이 갑문건설을 줄기차게 내미신다. 한편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군인건설자들과 일군들을 따뜻이 손잡아 이끄시여 그들 모두를 기적의 창조자—《포성없는 전쟁》의 영웅들로 키워주신다.

하여 마침내 서해갑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결심하신대로 단 5년동안에 훌륭하게 완공되여 오늘도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그것이 어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나를 보라, 내가 곧 그 대답이다!》 하고 말없이 웨치고있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송 철 만　갑문건설국장, 조선인민군 소장(후에 중장)

윤 상 설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리 영 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윤 건 호　조선인민군 대대장(윤상설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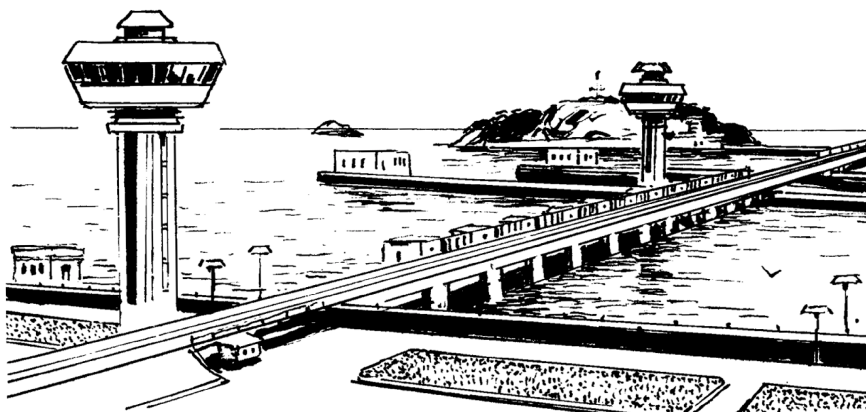
리 종 각　대대정치지도원

박 선 봉　조선인민군 초기복무사관

장 풍 산　조선인민군 사관

유　　정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윤건호의 애인)

귀　　금　박선봉의 안해

로베르 바넬　국제수리학협회 회장

서　장

해는 높이 떠올랐으나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다. 오전 10시경 금산포쪽에서 떠난 쾌속정이 배머리를 건뜻 쳐든채 밀려 오는 물마루를 타고 넘으며 광량만수역으로 건너 가고 있었다. 추진기가 용을 쓰는대로 살같이 내닫는 배머리에서는 흰물보라가 끊임없이 터져 오르고 갈라 진 물이랑은 좌우 현측으로 부채살처럼 퍼지였다. 그 《날개》때문에 희고 날씬하게 생긴 쾌속정은 마치도 파도를 걷어 차고 금방 하늘로 날아 오르려는 한마리의 억센 바다새를 련상케 하였다.

쾌속정은 광량만어귀에 당도해서야 속력을 약간 떨구었다. 배의 맨 앞자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망원경을 들고 앉아 계시였고 그 뒤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제는 수령님께서 항해를 마치고 무슨 결론을 주실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쾌속정은 벌써 두시간 가까이 같은 배길을 세번이나 왕복했던것이다. 그러나 봄외투차림으로 아까부터 줄곧 광량만입구며 린접한 남포시 령남리의 지형과 해안선을 살피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듯 다시 배머리를 돌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만입구에서 네번째로 돌아 선 배가 침로를 잡고 내달리기 시작하자 쌍안경을 놓고 앞상우에 펴놓은 대동강하류지역도를 들여다 보며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에게 의문되는 점들에 대하여 문의하시였다. 부위원장은 보통키에 이마가 약간 벗어지고 안경을 낀 외에 특징적인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수리건설분야에서는 1인자라고 할만큼 실무에 밝고 경험도 많이 쌓은 유능한 건설일군이였다.

《… 지질조건은 그렇고… 만일 여기에 갑문을 건설하는 경우 제방 이쪽의 감탕문제는 어떻게 되오? 광량만으로 드나드는 밀

물이 감탕을 여기로 날라 오겠는데…》

수령님께서는 색연필을 들어 지도우에 표시되여 있는 광량만입구의 령남리쿄숭이로부터 피도를 거쳐 은률군 끌살부리에 이르는 갑문건설예정선 바깥쪽을 둥그렇게 그려 보이시였다.

《얼마간 쌓이기는 합니다.》 부위원장의 대답이였다. 《하지만 간석지개간전망에 있는대로 여기 이쪽에 금성간석지제방이 건설되면 부유물형성원천지가 없어 지기때문에 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금성간석지제방이 건설된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데 의하면 광량만입구에서는 한해동안에 60센치메터의 퇴적현상이 일어 나지만 갑문바깥의 기본물길에서는 2～4센치메터정도로 그것도 갑문건설후 한해동안에 가장 많고 다음해부터는 점차 적어 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위원장의 설명을 재삼 음미해 보시는듯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묵묵히 지도를 들여다 보시다가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그렇다면 감탕문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만. 간석지는 막게 될거구…》

대동강하구에 현대적인 갑문을 건설하는것은 수령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시는 문제로서 그이의 국토건설의 총적구상속에서 중핵을 이루는 대상이라고 볼수 있었다. 그렇게 큰 의의를 가지는 대상이였지만 이제까지 실현하지 못한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이 응당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고 경제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정때문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 졌다. 나라의 경제형편에도 여유가 생기고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현대적인 갑문쯤을 능히 자체로 건설할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장담할수 있게 된것이다. 준비가 그렇게 된 조건에서 갑문건설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보시여 수령님께서는 이미 지난해에 실무 일군들에게 건설부지와 갑문위치를 선정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바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대동강하구류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중히 타산해 본데 기초하여 갑문언제위치를 선정하였다. 처음 선정된 곳은 대동강하구치고 강폭이 비교적 좁고

지질상태도 좋은 남포시 검산리와 은천군 안리사이의 횡단구간이였다. 그러나 이 횡단구간에는 건설비가 적게 들고 건설조건이 편리하다는 우점과 함께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다. 그것은 갑문이 건설된후 언제바깥에 감탕이 쌓일수 있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강어구에 갑문을 건설하면 갑문바깥수역에서 퇴적에 의한 지형변동현상이 일어 나며 이 지형변화가 때로는 수로운영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억만금을 들여 건설한 갑문을 줴버리거나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격으로 수로준첩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몇십년이 지나도록 갑문건설에 들인 돈을 빼내지 못하는 실례도 있었다.

감탕퇴적현상자체가 이렇게 심각한데다 아직은 그것이 가설인만큼 실지로 쌓이겠는가, 쌓인다면 얼마나 쌓이며 수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론쟁을 피할수 없었다. 밤과 낮을 이어 근 석달이나 계속되던 치렬한 론쟁은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들이 100여차례의 모의실험을 해본 끝에 선정한 위치에 언제를 건설하면 수로에 감탕이 많이 쌓이며 겨울에는 얼음의 영향으로 갑실운영까지도 불리하다는것이 증명되였다. 그래서 처음 선정한 위치를 포기하고 대동강하구로부터 바다쪽으로 썩 내려가 피도를 거쳐 남포시 령남리와 은률군 송관리 끝살부리를 련결하는 구간이 다시 설정되였다. 오늘 수령님께서 현지에 나오신것은 바로 그에 대한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힘들게 선정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억만금을 내여 조국의 부강과 후손만대의 재부를 마련하는 중임을 아래일군들에게만 맡겨 둘수 없으시였던것이다.

쾌속정은 벌써 상취라도와 하취라도수역을 지나 피도뒤쪽의 호장도를 가까이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배를 피도와 끝살부리사이에 가서 세우라고 하시며 다시 지도우에 시선을 떨구시였다.

《여기 이안의 평균 수심은 얼마나 되오？》

수령님께서는 끝살부리와 피도사이에 둥그런 원을 그려 보이시였다.

《가물막이를 바로 거기다 하게 됩니다.》

바람때문에 말귀를 삭갈린 모양 부위원장은 동문서답을 했다.

《아니, 아니… 평균수심말이요.》

부위원장은 그제야 바로 알아 들은듯 평균수심이 얼마라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렇단 말이지…》 하고 뇌이시더니 앞서 선정했던 검산리쪽의 수심을 물으시였다.

《거기는 제일 깊다고 해야 여기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수심으로도 그래, 구간도 그래, 검산리쪽보다는 공사가 곱절 방대해 지겠구만.》

《방대해질뿐아니라 공사조건이 매우 힘들어 집니다.》

《힘들어 지겠지. 바다를 통채로 막아야 하니까… 하지만 막는 경우 이안에 저수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오?》

수령님께서는 그냥 지도를 내려다 보며 오른손을 펼쳐 피도를 거쳐 령남리와 끝살부리에 이르는 갑문건설예정선을 쭉 그으시였다. 부위원장이 27억톤이라고 말씀 드리자 그이께서는 《27억…》 하고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더니 프랑스에 세계적으로 일러 주는 조수력발전소가 있다던데 그 발전소언제의 저수량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란스조수력발전손데… 일러준대야 저수량은 도무지 1억 8천만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그에 비기면 여기엔 그 열다섯배나 되는 물을 가둘수 있다는 소린데… 괜찮소. 물을 27억톤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라고 할수 있겠소.》

수령님의 그 말씀에 남포와 은률쪽을 가리키며 정무원총리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부자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세계 제1위의 억만장자라고 생각합니다. 록펠러재벌이나 선박왕으로 소문난 오나씨스에게 돈이 아무리 많단들 27억톤의 물을 사서 저장할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을 말입니다.》

김정일동지의 명쾌한 말씀에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부터 표시하시였다.

《옳은 말이요. 어느 자본가가 감히 바다를 막을 용단을 내겠소. 자본은 커도 인민의 복리를 위한 돈자리는 애당초 가지고 있지 않는 작자들인데… 다른것은 다 불문에 붙이고 단지 그때문에만도 우리는 여기다 갑문을 건설해야 할것 같구만. 응? 허허…》

그 어떤 결심이 느껴 지는 수령님의 말씀에 수행원들은 모두가 웃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는중에 정무원총리가 말씀을 드리였다.

《그렇다면 수령님께서는 갑문을 여기다 건설할 작정이십니까?》

수령님께서는 말씀에 앞서 생각 깊은 시선으로 배머리에서 갈라 지는 물이랑을 잠시 내려다 보시였다.

《퇴적현상도 없어, 저수량도 많아… 자리로서는 아주 맞춤한것 같소. 문제는 건설조건인데 조수차가 심한 이런 20리 날바다를 막자면 쉽지 않을거요.》

수령님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며 총리의 의견을 물으시였다. 총리는 자기로서도 위치상문제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공사조건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며 고견을 바라는 눈길로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았다.

《공사조건이 나쁘다는 말은 옳습니다. 말그대로 바다를 건너막는 조건이 어찌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과 건설능력이 그리 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조직비서는 찬성이라는거겠소?》

수령님의 물으심이였다.

《저는 찬성입니다. 모든 조건으로 보아 여기는 먼저 계획했던 검산리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다에 섬까지 꼈으니 풍치도 좋고… 힘은 들겠지만 건설을 해놓으면 능력에서나 규모에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갑문으로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쾌하면서도 분석적인 **김정일**동지의 사리정연한 말씀에 수령님께서는 긍정하시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조직비서의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반대 없소. 조직비서동무는

전부터 장소문제를 신중히 연구했으니 말이요. 좋습니다. 그럼 갑문을 여기다 건설하기로 합시다.》

갑문건설위치가 확정된 조건에서 수령님께서는 어물거릴 필요가 없다시며 올해 하반년도를 준비단계로 하는 총적건설방향을 그어주시였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기본설계와 계획안작성사업을 다그쳐 기초계획안에 한해서는 래달(7월) 하순으로 예견되여 있는 정치국확대회의에서 토론할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 과업을 국가건설위원회에 일임하시였다.

그로부터 달포가 지난 7월 초 어느 날 밤, 수령님께서는 전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올려 온 남포갑문형성시안을 보았습니다. 령남리와 피도를 련결하는 기본언제도 시원히 잘 뽑고 갑실배치도 잘하고 모든것이 다 좋습니다. 문제는 건설인데… 조직비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문을 몇년이면 완공할수 있겠습니까? 정치국회의에서 토론하재도 그래 인민경제계획으로 누르자고 해도 그래, 건설기한을 똑똑히 긋고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네, 저도 그걸 생각중입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보면 아직도 건설기일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것이 없었다. 그이께서 대답을 얼른 드리지 못한것은 그때문이였다.

《… 일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자신의 예견과 너무도 차이나는듯 《무어, 20년?…》 하며 놀라시더니 한참후 마치 남의 소리라도 하는것 같은 서글픈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20년이면 금세기안으로 힘들다는 소린데… 그러니 우리는 그 갑문이 완공되는걸 보지 못하겠구만. …》

《!…》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서늘하고 눈앞이 아뜩해 지는것 같

으시였다. 20년안이 자신의 견해는 아니라고 해도 수령님께서 이토록 실망하시니 그이로서는 당혹감과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20리 날바다를 막아 27억톤의 물을 가두고.》 마디마디에 한생을 기울이시는듯싶은 수령님의 천근무게의 어조였다. 《3천톤에서 5만톤까지의 대형짐배가 통과하는 갑문을 건설하는것이 어찌 쉽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렵다고 갑문 하나를 건설하는데 20년 세월을 바친다면 그건 잘하는 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20년이면 새로운 한세대가 자랍니다. 그건 또 앞선 세대가 간다는 소리기도 하고… 나도 이젠 늙었습니다. 날더러 만년장수하라고 인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주지만 나이야 어찌 속이겠습니까? 그래 인생길이 급해 졌다고 할지… 요새 나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조국땅우에 무엇이든 한가지라도 더 좋고 많은것을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내가 여러 기회에 말한바 있지만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는것은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분렬된 조국을 두고선 눈도 감지 못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원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지경이 그리 넓지 못해서 농토도 부족하며 산은 많으나 울창한 수림이 적고 산에 아직 꼬부랑소나무를 비롯해서 쓸모 없는 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산들의 나무수종을 다 바꾸고 다락논들을 정리하여 기계포전으로 만들고 간석지를 많이 막아 농토도 최대한 넓히자고 합니다.

갑문건설로 말하면 내가 전쟁때부터 구상하고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물려 주자던 국토건설계획입니다. 크고작은 강을 모조리 막아 발전소를 세우고 곳곳에 갑문을 건설하여 동해와 서해를 하나의 대운하로 련결시키면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것입니다. 그런데 남포갑문건설에만도 20년이 걸린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나는 우리 일군들이 남포갑문건설을 그렇게 실무적으로만 대하며 늦잡을줄은 몰랐습니다.》

일군들의 처사가 정녕 섭섭하신듯 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중이 괴롭고 복잡하시였다. 수령님을 이토록 섭섭케 하신 자책도 크거니와 문제의 20년안을 대신할 시원한 대답을 당장 드리지 못하는것이 또한 안타까우시였다. 아,100만 대적과 맞서서도 죽음에 대해서만은 생각지 않으셨다는 수령님이신데 얼마나 실망이 크면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시랴.

《수령님,저희들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미처 관심을… 이제라도 실무일군들과 토론하여 기한을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토론해 보시오. 날아가도 빠르다고 할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데 20년이라니… 전진속도가 그렇게 떠서는 후손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수령님의 어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섭섭함은 약간 가신듯 싶었다.

제 1 편

1

추지령에서 고성쪽으로 나가는 무인지경의 산협길로 풍을 씌운 군용승용차 한대가 전조등을 켠채 안개속을 달리고 있었다. 초여름의 흐리고 안개 낀 날 새벽이였다.

길이 나빠 자주 꽁무니를 들까부는 승용차 앞좌석에는 애어린 운전사와 몸이 틀지고 용모가 준수한 50대의 장령이 앉아 있었다. 선이 굵은 철색 얼굴, 붓으로 찍어 놓은듯 숱진 눈섭,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이 느껴 지는 눈빛, 큼직한 주먹코와 약간 빠르사한 턱… 사나이의 표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것 같은 이 장령으로 말하면 최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관련하여 벌써 며칠째 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전투동원태세를 검열하느라고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사령관 송철만소장이였다.

간밤 전선배비를 가상한 어느 보병부대의 기동준비상태를 판정하고 지금껏 눈 한번 붙여 보지 못한 그는 이제라도 좀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담배를 비벼 끄고는 좌석등받이에 목을 기대며 군모를 당겨 눈덕을 덮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피곤하고 자지 못한데 비해서는 정작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도 자야 한다고 자신을 강박하여 겨우 어설픈 잠이 들었는데 급제동이 걸리며 승용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도로 깨여 났다.

《왜 세웠나?》

짐작에 아직 남강계선에 도착하지 못했을것 같았다.

《저, 저게 뭡니까?》 운전사의 공포어린 목소리였다.

그제야 송철만은 눈덕에 덮었던 군모를 밀어 올리며 몸을 당겨 바로 앉았다. 그새 안개발은 좀 엷어 졌으나 아직도 주변의

지형지물은 분간하기 힘든데 승용차 전조등빛이 간신히 가닿은 바로 거기 십여메터 전방에 바위돌 같은 두개의 시꺼먼 형체가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처음 송철만은 그것을 산에서 굴러 내린 바위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위돌》이 움직이면서 형체를 바꾸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러니 짐승이란 말인가?… 벌써부터 수렵의 짜릿한 쾌감을 맛 보며 그는 급히 사냥총을 찾았다. 그러나 총이 없었다. 사냥계절도 아니지만 이번 길에는 그럴 겨를도 없겠기에 애당초 가지고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원, 저걸 살려 보내다니…》

눈앞에 짐승을 보면서도 쏘지 못하는 통분함에 그는 주먹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입만 쩝쩝 다셨다.

《그런데 저건 무슨 짐승들이 저렇게 큽니까? 길까지 떡 막구서…》

아직도 공포감을 다 가시지 못한 운전사의 물음에 송철만은 인차 대답을 주지 못했다. 전혀 예견 못한 《조우》이고 짙은 안개속에 묻혀 형체조차 분명치 않아서 그도 아직 짐승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이 지대에 흔한 노루나 여우는 저렇게 크지 못하다. 크기나 앉아 있는 모양새를 보면 꼭 곰 같은데 곰은 이 지대에 없다. 메돼지는 깊은 밤에만 활동하는것이고, 그렇다면 무엇이겠는가? 혹시 범?… 사냥을 많이 해보았지만 아직 범과 맞다들어 본적이 없었으므로 확신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째선지 꼭 범일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런데 운전사가 그의 이런 예감을 사실로 증명해 주었다.

《부사령관동지, 전 저게 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구?》

《듣지 못하셨습니까? 요새 도하대대의 어떤 하사관이 산에서 새끼범을 한마리 안아 왔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도하대대 정치지도원이 군부대정치부에 회의를 가다가 숲속에서 엄지범을 만나 죽을번 했답니다.》

운전사가 그런 말을 하는 사이에도 정체불명의 짐승들은 의연 길을 가로 막은채 버티고 앉아 이쪽을 노려 보는 형국이였다.

이제 와서 송철만은 그것이 새끼를 잃은 한쌍의 성난 범이라는데 대하여 더는 의심치 않았다. 하긴 범이 아니고야 어떤 짐승이 저토록 무엄하게 길을 가로 막고 앉아 사람과 대결하자고 하겠는가.

《범이라는것은 달리는 운수차적재함에 막 뛰여 오른다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범이 확실해 지자 운전사는 겁이 나는 모양 되돌아 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범이 아니라 천길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갈 길을 마다하고 돌아 설 송철만이 아니였다. 그는 냅다 밟아서 범이든 뭐든 바퀴로 깔아 뭉개라고 하며 권총을 꺼내 장탄하였다. 뭇짐승들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만났다가 그냥 헤여 진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여서 정황을 보아 권총으로라도 한번 《접전》해볼 심산이였다. 드디여 차가 움직이였다. 운전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얼마동안 조심스레 차를 전진시키더니 갑자기 변속지레대를 나꾸채며 가속답판을 힘껏 밟았다. 그바람에 놀란 말처럼 껑충 뛰여 오른 차는 이어 차체를 부르르 떨며 무서운 속도로 안개속을 내닫기 시작하였다. 송철만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채 권총쥔 손을 창턱에 의지하고 앞을 주시하였다. 거리가 줄어 드는데 따라 길을 가로 막고 앉은 두개의 시꺼먼 형체가 점점 뚜렷이 다가왔다. 하여 이제는 두 짐승이 형체로가 아니라 실물로 확연히 분간되자 그는 옆창으로 상체를 내밀며 권총으로 오른쪽 짐승의 미간을 겨누었다. 찰나 목표물이 갑자기 《따－응》 하는 소리를 쌍으로 지르며 바람처럼 가볍게 머리우로 날아 넘어 갔다. 뒤따라 옆창으로 확 풍겨 들어 오는 역스러운 노린내… 어망중에 발사순간을 놓친 송철만은 다시 기회를 얻으려고 날쌔게 돌아 앉으며 뒤창을 내다보았다. 승용차우로 날아 넘어 간 두마리의 범은 벌써 저만치 길우에 내려 차가 질주하는데 따라 형체가 점점 작아 지며 안개속에 묻히였다. 따라 오는것 같지 않았다. 아마 혼이 났던가 아니면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복수》의 목적을 포기해 버린 모양이였다.

(골통은 아니더라도 방아쇠는 당겨야 하는걸…) 권총인것을 고려하여 미간만 노리다가 발사순간을 놓친것이 아쉬워 송철만은

입을 쩝쩝 다시였다.

승용차가 목적지인 남강계선에 도착한것은 그로부터 한시간가량 지난 아침 5시경이였다. 안개가 끼기는 거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추지령쪽보다는 그리 짙지 않아 차가 전조등을 끄고도 달릴수 있었다. 송철만은 운전사에게 먼저 도하대대에 들어 가자고 하였다. 도하대대는 남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지막한 야산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승용차는 곧바로 직일관실앞에 가서 멈춰 섰다.

차소리를 듣고 대대직일관이 급히 뛰여 나왔다. 직일관의 보고를 받고 난 송철만은 직일관실에 들어 가 우선 전화로 군부대참모부에 자신의 행처부터 알리였다. 그리고 송수화기를 놓자 상위인 대대직일관과 시간을 맞춘 다음 드디여 명령을 내렸다.

《폭풍！》

마른 하늘의 벼락과도 같은 그 한마디에 고요속에 잠 자던 대대병영은 순식간에 벌둥지를 쑤셔 놓은것처럼 소란스러워 졌다. 전투경보를 알리는 신호나팔과 수동싸이렌이 다급히 울리는 속에 철갑모에 배낭을 메고 총을 쥔 군인들이 병실문이 메게 쏟아 져 나오고 멀지 않은 사택마을들에서는 대대장이하 군관들이 헐떡거리며 달려 나왔다. 안개속에서 장구들이 절칵절칵 부딪치고 사방에서 이름과 분대 혹은 소대를 부르거나 정렬하라는 구령들이 끊임없이 울렸다. 한 20분가량 계속되던 그런 소란이 잦아 들무렵 대대장이 달려 와 머리에 쓴 철갑모를 바로 잡고 전투비상소집이 완료되였음을 보고하였다. 송철만은 대대장에게 가상적정을 주고 전선진출을 위한 군부대의 남강도하를 보장할데 대한 임무를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정황에 따르는 전투임무가 수립되고 대대병영이 다시 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배떼니 부통이니 극복판이니 하는 중량물과 수중작업기재들이 차에 실리고 끌려서 정문을 빠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좀 산만하기는 해도 신속성만은 흠 잡을데 없군. …)

바줄퉁구리며 통나무를 실은 마지막수송차가 정문밖으로 사라지자 1차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송철만은 직일관실에 들어 가 전화로 주둔지가 그리 멀지 않은 땅크부대와 평사포부대를 찾아 한시

간안으로 각각 한개 중대의 땅크와 포를 도하지점에 도착시키라고 지시한 후 도하장이 전개될 남강으로 나갔다.

강변 뚝우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내린 그는 몸에 칭칭 감겨 도는 안개발을 끌고 도하장으로 내려 갔다. 거기서는 이미 배뗴무이가 시작되여 뚝딱거리는 망치질소리에 강변의 고요가 산산쪼각나고 안개속에서 일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얼른거렸다. 놀라운것은 벌써 배다리와 련결되는 기본도로가 백사장까지 거의 나가고 도하장으로 들어 오는 대피도로들도 뽑혀 있는것이였다.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배뗴무이였다. 이제 겨우 기슭을 떠났을것이라고 생각했던 부교가 안개에 묻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복판에 멀리 나가 있었다. 도하와 무관계하게 기동시간을 판단하기 위해 포와 땅크의 도하장 도착시간을 바싹 당겨 주었는데 이제 보니 서로의 임무완료시간이 리상적으로 맞아 떨어 질것 같았다. 예견이 틀리지 않아서 배다리가 강 건너 대안에 거의 닿을무렵 땅크의 발동소리가 울리고 뒤 따라 평사포중대가 도착하였다.

마침내 부교가 건너편 기슭에 이어 지고 도하준비도 완료되였다. 먼저 땅크중대의 도하를 지시한 송철만은 선두땅크에 올라 강을 건너 갔다. 그리고 거기 건너편 대안의 부교앞에 서서 긴장한 시선으로 강을 건너 오는 땅크며 포차들을 주시하였다. 마지막포차가 무사히 강을 건너 오자 시계를 보았다. 전투비상소집을 명령한 때로부터 꼭 한시간 오십분이 되였다. 부분적으로 결함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만하면 도하대대는 물론 땅크와 평사포중대의 동원태세도 원만한것으로 평가할수 있었다.

철수는 전개보다 곱절이나 빨랐다. 하여 대대가 도하장비를 걷어 싣고 병영으로 들어 와 식사까지 하고 난것은 안개도 거의나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떠오른 열시반경이였다.

대대장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던 송철만은 그제야 생각나서 누가 호랑이새끼를 잡아 왔다는게 사실인가고 물었다.

대대장은 사실이라고 하며 그를 정문보초소로 안내했다. 보초소옆에 토끼우리 같은것이 천막쪼각을 들쓰고 있었다. 대대장이 천막자락을 걷어 올리자 쇠살창안에서 뼈다귀를 뜯고 있는 범새끼

가 보였다. 생김새는 흡사 고양이를 닮았는데 머리와 발이 좀 크고 미간이 넓은것이 다른 점이였다. 송철만은 꺾고 앉았던 오금을 펴며 범새끼를 보초옆에 두는 까닭을 물었다. 그런데 대대장의 대답이 재미 있었다. 사택마을 개들이 병영에 들어 오는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는것이였다.

《이게 여기 있으면 개들이 못 들어 오나?》

《못 들어 옵니다. 저놈이 저렇게 작고 순한것 같지만 개만 보면 독을 쓰는데 커다란 개들이 당장 기가 죽어 오줌을 질질 갈기면서 내빼군 합니다.》

《허허, 과시 범은 범이로군!》

그는 보초소를 떠나 대대지휘부로 올라 가면서 대대정치지도원이(그는 군부대병원에 입원중이였다.) 호환을 당하던 이야기를 들었다.

《어슬녘인데》 하고 대대장은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말하였다.

《범이란 놈이 묵은 묘잔등뒤에 엎데 있다가 휙 달려 드는데 언제 총을 꺼낼새도 없더랍니다. 그래 이젠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하면서도 정찰병출신이라 날쌔게 옆으로 뻗으면서 발로 범의 불두덩을 힘껏 올리찼다는겁니다. 그게 아마 바로 찬 모양입니다. 범이란 놈이 갑자기 낑— 소리를 지르며 저만치 나가 몇고패 딩굴더니 정신없이 거기를 핥더라지 않습니까. 이때다! 하고 정치지도원은 권총을 뽑아 냅다 갈겼답니다.》 그러나 당황한 김에 맞히지는 못했는데 마침 가까이 있던 군부대 통신결속소 통신병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 오는 바람에 범이란 놈이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숲속으로 들어 가더라는것이였다.

《흠, 거 통신병들이 아니였으면 큰일 날번 했구만. 정치지도원도 담이 큰 사람이지만…》

송철만은 간밤 로상에서 당한 일이 생각나면서 범새끼를 그냥 끼고 있다가 또 무슨 화를 당하지 않을가 걱정하였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 대대장은 배포가 유했다. 정치지도원을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리유만으로도 그놈의 엄지범을 쏘아 잡겠

다는것이였다.

《…아무튼 저 새끼를 잘 리용하면 쉽게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대장의 자신만만한 계획에 송철만은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 말고 새끼범을 엄지에게 돌려 보내라고 하였다.

《?…》

대대장의 눈이 둥그래 지는것을 보고 송철만은 왜 범새끼를 놔주어야 하는가를 설명했다.

《범을 잡는다는게 그리 쉽지 않아. 그리구 새끼를 리용해서 어미를 잡는다는건 사나이들이 할짓이 못돼.》

적어도 범을 그런 식으로 잡는다는건 등뒤에 대고 총을 쏘는것보다 더 졸렬한 처사라고 하였다. 대대장은 그제야 리해가 되는지 얼굴에 열적은 웃음을 띠우며 알겠다고, 오후에 무장호위를 붙여 새끼범을 안아 온 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산탁을 깎아 내고 들여 앉힌 대대지휘부마당에 들어 섰다. 송철만은 마당끝에 있는 흡연장에 가앉으며 대대장더러 장기판을 가져 오라고 일렀다. 수도 높지만 공간시간만 생기면 어디 가서든 장기를 두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였다. 그러나 장기판을 내왔지만 대대장은 수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여서 감히 마주 앉지 못했다. 송철만 역시 그런 풋장기군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어서 대대적으로 장기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데려 오게 하였다. 대대장은 얼마후 초기군무사관을 한명 달고 나타났다. 사관은 키꼴이나 있고 어딘가 좀 싱거워 보이는 친구였는데 깨끗한 정복차림에 규정대로 거수경례를 붙이고 저만치부터 힘찬 정보로 걸어 오더니 갑자기 못 박히며 큰 소리로 보고하였다.

《소장동지, 초기군무 상사 박선봉 장기시합을 위해 왔습니다.》

군관이 아니라 초기군무사관이 나타난것때문에 속으로 (이놈의 대대엔 장기군이 정 없긴 없는가보다.) 하고 생각하였는데 제법 장기시합을 왔다는 소리도 어이 없거니와 다림발이 선 새 군복에 새 군화를 신고 면도까지 깨끗이 한 사관의 차림새가 류달라서 철만은 동문서답격으로 물었다.

《동무는 도하훈련에 참가하지 않은것 같구만?》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초기군무사관의 대답이였다.

《왜?》

그에 대해서는 대대장이 대답하였다.

《이 동무는 남포갑문건설에 추천되였는데 오늘 떠납니다.》

그래서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았다는것이였다. 리해되는 일이기도 하고 요새 총참모부명령으로 관하 구분대들에서 군무생활에서 모범적인 군인들로 남포갑문건설에 참가할 인원들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음을 아는터여서 철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관에게 말했다.

《남포갑문건설은 당에서 아주 중시하는 건설이야. 그래서 건설도 우리 군대가 맡은거구… 그러니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도 일을 잘하라구.》

《알겠습니다.》 사관은 가슴을 쭉 펴며 힘차게 대답하였다.

그제야 송철만은 장령복 바지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며 화제를 돌려 절반 롱담으로 사관더러 장기를 배운지 몇해나 되는가고 물었다. 그런데 사관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짜개바지를 입고 밥상밑으로 기여 다니던 때부터 배웠다는것이였다. 머슴방에서 아홉살때 배운 장기라고 력사를 자랑하는 송철만으로서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거짓말은 아니겠지?》

사관은 히쭉 웃더니 할아버지가 린근 아홉 동네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는 소문난 장기군이였는데 손자들에게 물려 줄것이 장기수밖에 없다면서 버들회초리로 종아리를 갈기며 배워 주는 바람에 재간없이 명수급이 되였노라고 하였다.

두 장기군은 흡연장 걸상우에 장기판을 펴놓고 마주 앉았다. 로련한 장기군들은 수를 쓰기전에 장기쪽을 쥐는 솜씨만 보고도 상대방이 장기를 얼마나 두었는지 그리고 수가 어느 정도겠는가를 판단한다. 사관의 장기쪽을 다루는 솜씨가 과연 서툴지 않았다. 장기쪽이 손끝에 척척 들어 붙는것이 두기도 많이 두었지만 만만한 자신심까지 느껴 졌다. 그렇다고 송철만은 별로 위구를 느끼지 않았다. 적어도 군부대에서는 자기를 이길 장기군이 없다고 단정하는

그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불과 몇수 써보지 못하고 장기판에서 일어 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대직일관실로 군부대참모부에서 전화가 왔던것이다.

송수화기를 드니 작전부장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저녁 열여덟시까지 총참모부에 도착해야겠습니다. 륙로로는 시간을 보장하기 힘드니 군부대사령부에 들리지 말고 현지에서 곧장 비행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직승기가 대기하고 있을겁니다.》

송철만은 알겠다고 하고 나서 물었다.

《그런데 총참모부에선 왜 부르는것 같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세가 정세인만치 전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를 직접 료해하자는것이 아닌지… 여기서는 그렇게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대대지휘부로 가면서 철만은 총참모부에서 부르는 리유를 따져 보았다.

(… 작전부장의 말대로 과연 정세와 관련된 전투준비상태의 료해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럼 왜 참모장이나 작전부장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부르는것인가? 내가 전투준비검열을 다니기때문에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고 보아선가? 아마 그때문일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전쟁이 림박했다는 의미는 아닐가?)

생각이 그렇게 돌아 가자 엊그제 군부대사령부를 떠날 때 읽어본 총참모부 적정통보가 떠올랐다.

통보에 의하면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최근 보다 현실적인 성격을 띠면서 각일각 실전에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신년벽두부터 이해를 《결전의 해》로 선포하고 2월에 미국대통령 레간의 호출로 백악관에 가서 남조선강점 미군철수계획을 백지화한데 맞도장을 찍고 괴뢰군《전력증강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른바 《방위공약》리행을 담보받은 전두환괴뢰역도는 백악관에서 돌아 오기 바쁘게 경주지역 《유지》들앞에서 80년대의 《승공》통일을 위해 집권 전 기간

오직 《국력강화에만 전력하겠다》고 뇌까리였다. 그런가 하면 포항제철에 가서는 《무력증강과 군수산업을 위해서 철강생산이 중요》하다고 떠벌이였다. 역도는 그로부터 달포가 지난 4월 괴뢰공군사관학교 제29회 졸업식과 괴뢰해군사관학교 제35기 졸업식에 련이어 나타나 이전 파쑈독재자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웨치던 버릇을 본따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능동적인 태세》를 갖추어 북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전두환의 이와 같은 전쟁열에 초점을 맞춘 미국상전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해 상반년에 들어 와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군사요원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전쟁모의를 하였다. 송사리들은 그만두고라도 1월에는 태평양 미공군 총사령관이,3월에는 미륙군참모차장,미공군참모총장,미제7함대사령관,미상원군사위원회 자문위원,4월에는 미륙군 물자전개준비태세사령관,미국방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부차관보 그리고 5월에는 전략공군사령관이 각각 남조선에 날아 들었다. 이들 고위군사요원들이 참가한 전쟁모의들에서는 《북침》을 예상한 이른바 《5일전쟁계획》,《9일 단기 맹타격전략》,《핵전쟁비상계획》 등 이미 짜놓은 전쟁계획들이 재검토되고 수정보충되였으며 《한미련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체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더욱 구체화되였다.

(… 그렇다면 이젠 포성을 울리겠다는것인가? 울릴테면 울리라. 우리도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으니…)

2

이른 새벽의 꿈속 같은 고요를 흔들며 어디선가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이 은은하게 흘러 왔다. 우주의 한끝에서 시작된듯 무한한 폭과 깊이를 가진 그 아름답고도 장엄한 선률을 무심히 들으며 문건을 번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그것이 새날의 시작

을 알리는 중앙방송의 개시음악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시였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였는가?…)

또 한밤을 지새운 피로감보다 초여름의 짧은 밤을 야속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 나 전등부터 끈 그이께서는 창가에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였다. 밤새 정화된듯 싶은 이른 아침의 맑고 신선한 공기가 물결처럼 흘러 들어 와 달아 오른 머리와 가슴을 식혀 주었다.

창문아래 정원은 아직도 정적속에 잠겨 있었다. 소소리높이 자란 백양나무들사이로 내다보이는 동평양쪽 하늘에서는 해돋이를 준비하는듯 붉은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지구의 자전이 저토록 빠른가 싶게 보는 사이에도 알리게 붉어 지는 하늘,마침내 그 하늘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광대한 폭의 선홍빛 노을을 펼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지중 미소를 지으시였다.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때가 많아서 자주 보는 광경이지만 볼수록 아름답고 장쾌함에 심신의 피로마저 잊게 되는 아침노을이였다.

이윽고 지평선우에 해가 떠올랐다. 가슴우에 얹었던 팔을 힘차게 풀어 내리며 집무탁으로 되돌아 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날의 일들을 계획하시였다. 아직 읽지 못한 문건과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오전중에는 다른 일에 시간을 바칠수 없으시였다. 오후 첫 시간에는 우선 수령님의 접견을 받아 10월로 예견하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 보고와 결정서작성방향을 토론하실 작정이였다. 그 다음에는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에게 당장 래달에 평양에서 열리기로 되여 있는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 농업상들의 토론회와 관련한 행사진행방향을 그어 주고 그것이 끝나는 차제로 당력사연구소에 나가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보존대책을 토론하여야 하였다. 그밖에도 오후에는 완공단계에 들어 간 순안국제비행장운영과 관련하여 민용항공국장을 만나야 하고 문화예술부장으로부터는 수령님탄생 70돐경축 대공연준비계획을 청취해야 하는 등… 토의와 료해와 결론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마침 그때 가벼운 문소리와 함께 책임서기가 들어 왔다.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획한 일과 즉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시간별로 쪼갠 사업일정을 설명하시였다. 책임서기는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기웃한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그렇게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어 버리지 않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송철만소장이 총참모부에 올라 와 대기하고 있답니다.》

《오－참, 그 동무를 오늘 만나기로 했지. 오전에는 안되겠고… 오후 세시경으로 계획합시다.》

《세시면 민용항공국장을 접견할 시간입니다.》

책임서기의 머리속에는 벌써 하루일정이 시간별로 정리되여 있었다.

《항공국장은 래일 만나도 되니 그 시간에 송철만소장을 부르시오. 무력부장동무와 같이…》

《알겠습니다.》

계획한 일정대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전시간을 집무실에서 보내시였다. 그리고 오후 첫시간이 되자 금수산의사당에 가시여 수령님의 접견을 받으시였다. 그이께서 의사당에 도착하셨을 때 수령님께서는 팔이 짧은 생모시 속적삼차림으로 정원에 나와 소풍을 하고 계시였다. 두분의 사업토의는 거기 정원 분수못가에서 진행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왼손을 허리에 올리고 초물부채로 슬렁슬렁 바람을 일구며 당전원회의준비와 관련한 **김정일**동지의 보고를 들으시였다. 다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내 생각엔》 하고 드디여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회의의정은 그대로 하면 좋을것 같소.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 붙어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는 포괄범위가 넓으면서도 구체적이고 자연을 대적한 선전포고처럼 힘도 있소.

문제는 보고서를 잘 만드는것인데 공뜬 소리를 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인입하여 목표를 과학적으로 세워야 하오. 결정서도 그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무원총리는 태천발전소와

남포갑문건설문제를 이번 회의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취급하자는 의향입니다.》

왼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부채질을 하며 솟구쳐 오르는 물보라를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문득 **김정일**동지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건 총리가 잘 못 생각하는거요. 태천발전소와 남포갑문건설은 대자연개조와 떼놓을수 없소. 태천발전소건설은 그자체가 대자연개조사업이고 남포갑문건설로 말하면 간석지개간이나 새땅찾기와 직결되여있소. 물… 물이 없고서야 서해안에 아무리 많은 간석지를 막은들 무슨 보람이 있겠소. 그러므로 나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포갑문건설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대동강하구에 대규모갑문을 건설하시려는 수령님의 의도속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와 큰 기대가 포함 되여 있었다. 대동강하구에 갑문을 건설하는것은 우선 대동강물을 잡아 서해지구의 간석지물문제를 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였다. 지금 평안남도 온천군과 증산군일대의 간석지논들에서는 물이 모자라 얼마든지 더 높일수 있는 알곡소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온천군 6월3일협동농장같은데서는 간석지를 막아 논을 푼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물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여 문덕군안의 협동농장들보다 논벼 정보당 수확고가 퍼그나 떨어 졌다.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일대에서도 관개용수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포갑문이 건설되면 평안남도의 논밭들은 물론 멀리 황해남도 재령, 안악, 신천, 은률군일대의 논밭들에도 물을 넉넉히 대줄수 있고 은파호를 비롯한 이 일대 저수지들의 물은 청단쪽으로 돌려 쓸수 있었다. 남포갑문은 또한 큰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이 집중되여 있는 대동강하류지대의 긴장한 공업용수와 먹는 물문제를 푸는데서도 의의가 크고 갑문을 건설하여 대동강과 재령강의 수심이 깊어 지면 남포로부터 순천, 덕천, 재령에 이르는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들이 하나의 대운하로 련결되여 수상운수발전의 넓은 전망이 열리게 될뿐아니라 갑문우에 철길과 자동차길을 놓아 서해안

에 륜환선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대의 교통운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될것이였다.

《그럼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결정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소.》 수령님께서는 부채를 바꾸어 쥐며 여유 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래야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도 그렇고 전체 인민이 당의 의도를 알고 그 관철에 적극 떨쳐 나설것이요. 문제는 건설기한인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20년이나 15년을 주장하고 있소?》

《많은 론의를 거쳐 10년안까지 나왔는데 그 이상은 더 어쩔수 없다는 견해들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5년동안에 건설할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5년에?》

수령님께서는 놀라운 눈길로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시였다.

《5년동안에 꽤 완공할수 있을가? 계산기초가 어쨌든 20년인데…》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을 군대가 맡은 이상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제야 긍정하시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지난번 정치국 확대회의 때 조직비서가 남포갑문건설을 군대에 맡기자고 강하게 주장한 까닭이 인제는 리해되오. 5년!… 비슷하오. 건설규모나 조건으로 보아 그이상 줄잡기는 힘들거요. 한데 전문가들이 접수할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만.》

《론의를 좀 해보았는데 받아 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가능성이 보이는것만큼 당의 결심으로 그냥 내밀자고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다시한번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당의 결심으로 내민다.… 결심이 그렇다면 나는 반대 없소. 좋소. 5년으로 누릅시다. 전원회의 결정에도 그렇게 찍어 밝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두분의 담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분이 조금 지나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써 집무실에 돌아 와 인민무력부장과 송철만소장을 접견하시였다.

3

《우리가 비단섬에서 만난것이 66년 여름이지요?》

오진우대장 다음으로 송철만소장의 손을 잡은 **김정일**동지께서는 감회를 금치 못하시며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8월 26일 오전 10시경이였습니다.》

소장은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되였구만. 하기는 그때 새파란 련대장이던 동무가 장령이 되였으니 세월을 덧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대견한 눈길로 큰 별이 박힌 소장의 견장이며 군모의 금줄을 살펴 보시였다.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당에서 손 잡아 이끌어 준 덕분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수령님의 손길이 아니고서야 어제날의 머슴군을 누가 장령으로 키우겠습니까?

우리는 수령님의 그 하해 같은 은정을 잊지 말고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다시한번 소장의 손을 힘 있게 잡아 준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 두 장령을 응접탁앞에 이끌어다 앉히고 자신께서도 건너편에 돌아 와 의자를 당겨 마주 앉으시였다.

《짐작은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는 철만동무에게 좀 류다른 일을 시키자고 이렇게 갑자기 불렀습니다. 당에서는 이번에 남포쪽에다 인민경제적의의가 대단히 큰 갑문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

업을 인민군대에 맡겼습니다.》

주려는 임무가 무겁고 생소한만큼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신심있게 받아 들이기를 바라며 그이께서는 말씀을 될수록 자상하게 의논조로 하시였다.

《우리가 남포갑문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긴것은 건설규모가 크고 공사조건이 어렵다는 사정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건설을 빨리, 다섯해동안에 결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수차가 심한 20리 날바다를 막아 세계굴지의 대갑문을 그것도 단 5년동안에 건설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설기한을 10년이나 15년, 지어 20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세계 수리건설력사에 비기면 우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혁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오래 불궈 두고 남포갑문을 건설할수 없으며 더구나 수령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쯤 말하면 철만동무도 이젠 짐작이 가고도 남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무를 남포갑문건설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송철만은 얼결에 벌떡 일어 났다. 그의 구리빛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였고 눈은 초점이 없이 허둥거렸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인채 입을 꾹 다물고 가슴앞의 응접탁모서리만 묵묵히 내려다 보았다. 자주 오르내리는 략장이 무겁게 달린 넓은 가슴과 한껏 긴장되여 가끔 저절로 꿈틀거리는 왼쪽 볼편이 내부에서 일어 나고 있는 그의 복잡한 심리를 말해주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구태여 대답을 재촉하지 않으시였다. 책임의식이 높고 집행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과업을 힘들게 받아 들이는 법이다. 하물며 군인이 군사적임무가 아닌 건설을 그것도 전혀 생소한 갑문건설과업을 받아 안는것이 어찌 쉬우랴.

이윽고 소장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 섰다. 략장이 한가득 달린 가슴을 쭉 펴며 웅글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의 신임에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소장의 군인다운 대답이 마음에 들어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나 한편 과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수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여 따져 물으시였다.

《군사적임무라면 몰라라 갑문건설이란 전혀 생소하겠는데… 뭐랄가. 좀 불안하게 생각되는 점은 없습니까?》

소장은 얼마간 시간을 끌고서야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당에서 결정한 이상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장은 과업을 단순하게 받아 들인것이 아니였다.

《당에서 결심한 이상 무조건 해내야 한다!…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달라 붙으면 두려울것이 없고 안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는 소장동무의 그 각오만으로도 벌써 갑문을 절반은 건설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너무 과분하게 들리는지 소장은 얼굴이 불그레해 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갑문건설국장으로 송철만소장을 선발한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원래 오진우는 갑문건설국장으로 강충일부총참모장을 점찍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장과 의견을 달리하시였다. 강충일부총참모장으로 말하면 건설경험도 많고 군사칭호도 중장이지만 건설현장을 책임지고 일하기엔 나이가 많은데다 그가 없으면 걸리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고른 사람이 바로 이 송철만소장이였다. 그이께서 송철만소장을 적임자로 보시는 것은 그에게 분대,소대로부터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인민군대의 모든 전투단위들을 지휘해 본 경력과 함께 비단섬건설때부터 파악된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강한 집행능력이 있기때문이였다. 지금 보아도 역시 그는 과업을 접수하는 태도부터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각오 또한 좋았다. 단지 약점은 갑문건설경험이 없고 그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인데 경험은 일하면서 차차 쌓는것으로 보더라도 이 기회에 신심만은 굳혀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소장동무가 갑문건설경험이 백지라는것때문에 우려하는 점은 리해됩니다.》

자리에서 일어 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응접탁앞을 거니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나 그때문에 불안해 하고 지레 겁을 먹을것까진 없습니다. 모르고 보면 갑문건설이라는것이 대단히 신비한것 같지만 바다나 강을 막아 간석지와 발전소를 건설하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철만동무에게도 경험이 전혀 없는것이 아닙니다. 동무야 비단섬을 건설하고 평양—원산간 도로건설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도로건설을 하구는 로력영웅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오진우의 말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럼 이젠 경험소리는 더 하지 말아야겠다고, 건설영웅앞에서 건설경험을 운운해서 안됐다고 하며 즐겁게 웃으시였다. 오진우도 벙글써 웃고 송철만은 부끄러운듯 얼굴이 붉그레해 졌다.

웃음을 거두신 그이께서는 화제를 돌려 다른 나라들에서 갑문을 건설하는 방식 즉 조사단계와 시험단계를 거쳐서야 설계단계에 들어 가고 시공은 설계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며 남포갑문건설기한을 2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러한 《국제기준》에서 답을 얻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론리를 전개하시였다.

《…그러나 우리는 건설을 그렇게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모든것을 동시에, 립체전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흥분이 고조됨에 따라 **김정일**동지의 안광에서는 광휘가 번뜩이고 가슴우에 얹었던 팔을 들어 허공을 베내치기도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원을 그려 말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거나 형상으로 듣는 사람의 리해를 도모하시였다.

《그러면 립체전의 방법으로 갑문을 건설한다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인가?… 그것은 필요한 인원과 기계수단을 총 동원하여 같은 시간안에 가물막이도 하고 언제공사도 하고 함형부재도 만들어 조립하는 식으로 모든 공사대상을 같이 밀고 나가는것

입니다. 물론 공사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앞세워야 할것이 있고 따라 세워야 할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후차도 궁극에는 이 동시전진이라는 원칙에 복종되게끔 작전되여야 합니다. 이걸 비유한다면 현대지상전에서 보병과 포병,비행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하나의 적을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일거에 공격하여 타격소멸하는것과 방식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한껏 고조되였던 감정을 급히 꺾어 질문으로 바꾸시며 기대어린 눈길로 송철만을 바라보시였다. 대답에 앞서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 났다. 긴장으로 굳어 져 있던 눈가장이 불그레 상기된것으로 보아 그도 퍼그나 흥분된것 같았다.

《그렇게 군사작전처럼 한다면… 별로 안될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심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직껏 생소한 건설분야라고만 생각했는데 타격소멸해야 할 하나의 작전대상이라고 보면 문제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렇다!… 허허허,그럼 됐습니다. 군대는 아무 일을 해도 군대식으로,다시 말하여 군인정신으로 해제껴야 합니다. 우리가 인민군대에 남포갑문건설을 맡긴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오진우도 자리에서 일어 났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군대가 사민들처럼 생각하고 일해서야 무슨 군대겠습니까. 이제부턴 총참모부도 남포갑문건설을 하나의 작전대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옳습니다. 남포갑문건설을 하나의 작전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요새 적들이 매일같이 화약내를 풍기며 전쟁열에 떠있는데 우리는 총포소리 없는 건설전으로 대답합시다. 총포소리가 더 위력한지 건설의 교향곡이 더 위력한지 어디 한번 겨루어 봅시다.》

이어 **김정일**동지께서는 내려 가면 우선 공사추진정형을 문건으로 만들어 올려 보내라고 하시며 화제를 돌려 소장이 현지에 나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정무원지휘부와의 관계,일만 일이라 하지

말고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 등… 앞으로의 사업에서 참고로 될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조언을 주시였다.

《… 그리고 한가지 잊지 말것은 해야 할 말이 있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총참모부를 통해서든 부장동무를 통해서든 지체없이 나한테 알리시오. 이제부터 나는 5년간 남포갑문건설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책임서기를 불러 맡겨 두었던 갑문건설자료들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자료는 복사하여 책으로 만든것도 있고 타자쳐 한쪽귀를 묶은것도 있고 여러가지였다.

《… 이건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하여 견해를 세우느라고 구해 들였던것들인데 철만동무에게 주겠으니 가져다 보시오.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갑문을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 철만동무는 갑문건설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설장에 과학자,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만큼 마음만 먹으면 배우는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송철만은 그이께서 밀어 주시는 자료묶음을 일어 나 정중히 받으며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말씀을 명심하고 힘껏 배우겠습니다.》

현관앞에서 두 장령을 바래우고 집무실로 들어 가려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발길을 돌려 정원으로 나가시였다. 바람 한점 없는 무더운 날씨였다. 쏟아져 내리는 땡볕에 생기를 잃은 정원수의 잎새 무성한 수목들속에서 매미가 울고 참새들이 재잘거리며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고 있었다. 화단가에서 금시 망울을 터친 장미꽃가지를 당겨 향기를 맡아 보신 그이께서는 그늘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작별에 앞서 송철만소장이 하던 말을 상기하시였다.

《지도자동지,남포갑문건설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군인들이 건설을 맡지 않았습니까.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5년후에 꼭 완공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장의 그 소박한 념려와 결의를 되새겨보느라니 불현듯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이 5년안을 납득하기 매우 힘들어 하

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그에 비하면 송철만소장은 얼마나 쉽게 납득되고 만만한 자신심으로 임무를 접수하였는가.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결심했으면 자기는 집행한다는것이 그의 신념이였다. 비단섬건설장에서 인연을 맺을 때만 해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한다는 일념으로 생각도 행동도 같이 할줄 알던 그들 두사람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문제가 달랐다. 송철만소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윤상설부위원장의 경우는 좀 달라진것 같았다. 남포갑문에 와서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것인가? 그이께서는 그들 두사람과 처음 알게 되던 열다섯해전 8월을 돌이켜 보시였다.

…그무렵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여 도내 인민경제의 전반실태를 직접 료해장악하고 계시였다. 그러나 여러날에 걸친 구체적료해결과는 아주 좋지 못하였다. 도당위원회는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발전하는 현실에 끌려 가는 수준이였고 신의주시를 비롯하여 도안의 중앙공업과 지방산업공장들은 생산에서 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엄중한것은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수령님께서 매우 중시하며 인민군부대까지 투입한 압록강하구에 있는 무명평갈밭건설이 도당위원회의 무책임성과 그리고 건설부문을 책임진 어떤 일군의 말, 즉 《무명평을 갈밭으로 만들어 거기서 천을 얻어 낸다는것은 하나의 때이른 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아직 간석지를 막을 능력도 기술도 없다.》는 주장에 따라 거의 중단상태에 처해있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속에서 피가 끓어 오르시였다. 도대체 누가 그따위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가? 간석지에 갈밭을 조성하여 인민들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는것이 왜 때이른 꿈이며 어째 아직 우리에게 간석지를 막을 힘과 기술이 없단 말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으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 사실을 수령님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실을 직접 확인할 결심으로 현지로 나가시였다. 장마철이라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씨였다. 배는 오전 열시경이 가까와서야 무명평에 도착하였다. 비는 그때까지도 그치지 않고 바람까지 몹시 불었다.

배에서 내려 쌓다만 감탕뚝우에 올라 선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발속에 알몸을 드러낸 섬을 둘러 보시였다. 놀랍게도 간석지건설장이면 응당 있어야 할 굴착기며 가설건물이며 전주며 하는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찾아 볼수 없었다. 남아 있는 것이란 가설건물을 앉혔던 자리와 전주대구뎅이들뿐이였다. 비로소 간석지건설기업소가 철수했음을 아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침내 격분을 터치시였다.

(나쁜놈들！ 수령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중시하시는 갈발건설을 이 지경에까지 몰아 가다니！…)

그이께서는 더 지체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돌아 가려고 몸을 돌리시였다. 그때 기슭을 물어 뜯으며 아우성치는 파도소리와 비바람소리사이로 어디선가 신호나팔소리가 들려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옷고깔을 제끼고 귀를 강구시였다. 틀림 없는 군대의 신호나팔소리고 그것도 비상소집곡조였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단 말인가？！…)

십분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이께서는 벌써 나팔소리가 들려 온 건너편 섬기슭을 향해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길이란 애당초 없고 밟으면 발목까지 잠기는 미끄러운 감탕판이여서 걷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여러번 미끄러져 넘어 질번 하시였다. 뒤따르던 도당일군이 그이를 부축해 드리려다가 같이 넘어져서 딩굴번도 하였다. 향방없이 불어치는 비바람에 비옷자락이 금시 찢어 질듯한 소리를 내고 속옷에까지 비물이 줄줄 흘러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옷이 젖고 감탕판에 부대낀 덕분으로 마침내 건너편 기슭에 이르러 군인들의 《야전천막촌》과 제법 형태를 갖춘 간석지제방을 볼수 있으시였다.

제방공사장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감탕매닥질이 된 군인들이 흙가마니를 메고 지고 바삐 뛰여 다니며 제방을 물어뜯는 파도와 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속에서 같이 갔던 일군이 부대지휘관을 찾아 데려왔다. 키가 크고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이였는데 군복상의를 입지 않은데다 얼굴과 온몸에 감탕이 게발려 나이도 군사칭호도 가늠할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지휘관은 아직 그이의 성함을 익히 들어 본적이 없는 모양 별로 반기는 기색도 없이 마지 못한 동작으로 그이의 손을 잡으며 《부대장 송철만입니다.》라고 무뚝뚝하게 한마디 할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런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가고, 수고가 많겠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무명평 갈발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덤덤히 듣고만 있던 지휘관의 숨결이 갑자기 거칠어 지며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믿으시고 기대도 크신데 어째서… 어째서 건설을 중도에서 줴버리고 건설자들을 철수시키는겁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장의 울분이 리해되시였다. 그의 울분이자 그것은 자신의 가슴속에서 끓고 있는 분노이기도 하였다.

《철수는… 수령님께서 지시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놈들의 작간입니다. 나도 오늘 여기 와서야 건설기업소가 철수한걸 알았습니다. 수령님의 결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무명평을 꼭 갈발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옷감을 해결하자는겁니다.》

울분은 여전했건만 부대장은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이의 랭철한 말씀속에 깔려 있는 심각한 의미를 리해한것 같았다.

《…어쨌든 그 문제는 조만간 달리 대책이 설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업소사람들은 저들만 떠나고 군인동무들은 그냥 남아있으라고 합디까?》

《같이 가자고 합디다만…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그건 어째서입니까?》

얼굴에 휘뿌리는 비방울을 손바닥으로 훑어서 던지시며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당으로부터 이 무명평을 갈밭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지 만들지 말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의 군인다운 대답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 짐을 느끼시였다.

《나는 부대장동무가 아주 옳게 생각하고 처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령님께 이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자들이 철수한건 잘못된 일이지만 군인동무들이 남아서 건설을 계속하는 사실을 아시면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입니다.》

그러나 부대장은 생각을 달리하였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갈밭건설이 이꼴인데 수령님께서 기뻐하신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제발 보고 드리지 마십시오. 갈밭이 다 되거든 그때 보고 드려 주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장의 투박한 말속에서 울리는 진정에 뜨거운 충격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당이 키워 낸 참된 군인이다. 당과 수령님께 충실한 이런 소박하고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 우리 군대가 강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장차 군대의 큰 재목이 될것 같다. 그이께서는 속으로 송철만의 이름을 몇번이나 다시 외워 보시였다.

그때 역시 감탕투성이여서 군인인지 사민인지 얼른 알수 없는 사람이 옆으로 다가왔다. 부대장 못지 않게 키가 크고 알이 동그란 구식안경을 낀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 입은 옷이 군복은 아니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 말씀도중에 안됐노라고 하고는 부대장을 보며 이젠 바람도 잦기 시작하고 그만하면 제방이 무사할것 같으니 군인동무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켜 천막에 들여 보내도 될것 같다고 하였다. 부대장이 그의 의견을 받아 들여 철수를 지시하는 사이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사민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시였다.

《알고 지냅시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김정일**입니다.》

상대방은 그이의 성함보다도 당중앙위원회에 있다는 소리에 놀란듯 대뜸 얼굴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저는 윤상설이라고…》 하고는 어째선지 뒤말을 더 잇지 못하였다. 그가 못다한 말을 부대장

이 대신해 주었다.

《철수한 간석지건설사업소 시공부장동문데 가다가 되돌아 와 우리의 기술고문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시공부장의 물에 젖은 찬손을 그냥 쥐신채 돌아 온 까닭을 물으시였다. 시공부장은 대답에 앞서 침통한 표정으로 한숨부터 내쉬였다.

《저는 수령님께서 이 무명평갈발건설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군인동무들만 떨궈 두고 주인들이 떠난다는게… 저로선 그게 량심에 걸려서, 차마 갈수 없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왜 표정이 굳어 지며 불안해 했는가가 리해되시였다.

《그래서 돌아 섰으면 기업소나 철수를 지시한 상부에선 부장동무를 곱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야 곱게 볼리 만무하지요. 아마 지금쯤 저는 벌써 시공부장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까짓 부장이면 어떻고 아니면 메랍니까. 저는 본시 기술자지 무얼 책임진다 어쩐다 하는건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당될가봐 걱정이 많습니다.》 부대장의 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연중 미소를 지으시였다. 철직에 출당까지 걱정하면서도 량심을 지키고저 애쓰는 그의 성실성앞에서 어둡던 마음이 활짝 개이는것 같으시였다.

《무얼 책임지고 지시하는걸 싫어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겸손이나 호인이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무관심이고 혁명적열정이 없는것으로 분석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부장동무가 기업소와 함께 철수하지 않고 돌아 온건 정말 잘했습니다. 상부의 잘못된 처사를 뻔히 알면서도 목이 두려워 아부굴종한다면 그게 무슨 진실한 당원이겠습니까? 출당문제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한 누구도 시공부장동무의 몸에서 당증을 떼내지 못할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김정일**동지께서는 믿음을 확신시키는 심정

으로 그때까지도 쥐고 있던 윤상설의 손을 다시한번 꽉 잡아 힘 있게 흔들어 주시였다. 그러는 손등우에 갑자기 더운 물방울이 떨어 졌다. 시공부장이 울고 있었던것이다.

이제는 비단섬으로 전변된 《무명평》… 그 옛 지명과 함께 질척이던 감탕판이며 마구 불어 치는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던 비줄기며 제방을 물어 뜯을듯 길길이 솟구치던 파도가 지금도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그때가 벌써 열다섯해전이라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렇게도 빨리 세월이 흘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4

끝살부리는 대동강이 서해와 합류되는 수역에서 20리 날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남포시 령남리가 건너다 보이는 은률군의 외진 바다기슭이다. 바다쪽으로 얼마간 삐여져 나간 새부리 같은 제 모양새의 이름을 겨우 가진 이 돌출부앞에는 자그마한 섬이 두개 있다. 둘레가 2～3백메터가량 되고 뒤집어 놓은 종바리모양의 큰것은 피도고 그옆의 작은것은 옥도인데 지리학명으로 《피도수도》라고 하는, 먼바다에서 송림과 남포항으로 들어 오는 배길이 그 섬과 끝살부리사이로 지나갔다. 그때문에 피도에는 등대탑이 있고 등대원의 집도 두어채 있지만 그밖에는 섬에도 뭍에도 더는 인가가 없어 어찌 보면 이곳은 완전히 세상의 버림을 받은것 같은 적막한 고장이였다.

하지만 세상이 내버린 땅이란 없는가보다. 해종일 보이고 들리느니 지나가는 배고동이 아니면 갈매기울음과 바람소리뿐이던 이 황량한 땅, 끝살부리가 갑문건설자－군인들이 들어 온 뒤로는 갑자기 천년잠에서 깨여 났다.

이른아침.

면내의바람으로 손에 세면도구를 말아쥔 한개 소대가량의 군

인들이 가설건물촌을 빠져 나와 끝살부리코숭이를 향해 달려 가고 있었다. 금방 기상하여 아직 잠기를 다 털지 못한데다 길까지 나빠서 군인들의 뛰는 동작이 좀 어색하고 대렬면모가 째이지 못한 감은 있지만 리해는 되였다. 그러나 지금 대오를 이끄는 박선봉에게는 그것이 참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래 눈을 붉히며—발을 맞추라, 거리간격을 좁히라, 왜 뒤꼬리가 늘어 지느냐 하고 그냥 잔소리를 하지만 별로 나아 지는것은 없고 높아 지는건 병사들의 헐떡거리는 숨소리뿐이였다. 그때문에 더욱 화가 난 박선봉은 달리던 대렬을 《제자리 구보롯!》시켰다. 그리고는 헐떡거리며 제자리뜀을 하는 대원들에게 무슨 군대가 이 모양인가, 동무들 본래 있던 부대에선 대렬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하고 한바탕 추궁을 한뒤 다시 대오를 출발시켰다. 선봉이 지금 그처럼 잔소리를 많이 하며 엄하게 대렬을 다스리는것은 그것이 군사규정상 요구인것도 있지만 다른 리유도 있었다. 그의 소대는 이미 와있던 구분대들과는 달리 인민군관하의 여러 부대들에서 와서 여기 건설장에 맞게 다시 한번 선발된, 주로 초기군무사관이 아니면 복무년한이 비교적 긴 구대원들로 무어 진 16해상돌격대소속의 연공소대였다. 새로 무어 진 소대이기때문에 처음부터 단단히 틀어 쥐지 않으면 대원들이 자기 부소대장을 우습게 여기며 제멋대로 놀아 날 요소가 있었다. 군대의 사관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그런 자존심과 선입견이 박선봉에게는 남달리 강하다고 할가? 하기는 그래서 이 아침 소대를 이끌고 끝살부리코숭이로 나가면서 그는 더구나 엄하게 대원들을 다스리는것이였다. 소대는 그새 병실건설을 끝내고 지금은 연공작업을 위한 견습을 받고있었다. 편성된지는 오래지 않지만 모두 선발된 구대원들이라 일솜씨가 걸싸고 서로에 대한 리해와 감정의 융합도 빨랐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 났다. 사건이라야 별것은 아니고 두 대원이 들어 오는 밀물이 더 세냐, 나가는 썰물이 더 세냐 하는 우스운 문제를 가지고 싱갱이를 시작한것이 발단으로 되여 나중에는 온 소대가 두 패로 갈라져 밀물이다, 썰물이다 하며 와짝 떠들어 댄것이 사건이라면 사건이였다. 박선봉은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량강도 삼수

내기여서 바다를 잘 모르기도 했지만 부소대장으로서 대원들과 같이 입씨름을 한다는것이 위신 없게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연공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밀물이 더 센지 썰물이 더 센지 반드시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견습을 받으면서도 그는 줄곧 그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끝내 방책이 떠오르지 않아 단념하고 말았는데 뜻밖에도 밤에 잠자리에서 전에 어디선가 들은,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얼핏 보기엔 얌전히 드나드는것 같지만 집채 같은 바위도 공기돌처럼 굴러 간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방법이 떠올랐다. 그는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옷을 주어 입었다. 그리고 낮에 문제를 야기시킨 두 대원을 깨워 밖에 나오라 하고는 먼저 나와 마당구석으로 갔다. 거기에는 병실작업때 트라스를 만들고 남은 백미리 산형강이 몇대 쌓여 있었다. 그는 두 대원이 나오자 그중의 한대를 골라 메워 가지고 끝살부리코숭이로 나갔다. 선봉은 그 산형강을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깊이로 바위짬에 단단히 꽂아 놓을 작정이였다. 그러면 밤사이에 조수가 들어 왔다 나가면서 산형강을 휘여 놓기가 십상인데 (밀썰물이 집채 같은 바위돌도 몇십리씩 굴려간다니까.) 어느쪽으로 휘였는가 하는데 따라 밀물이 더 센지 썰물이 더 센지 증명되리라는것이 그가 고안해 낸 방법이였다. 지금 소대는 세면을 하는 겸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였다. 소대가 물녘에 도착하자 선봉은 대렬을 헤치고 어제밤에 동행했던 두 대원을 불러 물가에 내려 가 산형강을 뽑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량손으로 허리를 짚은채 물건너 피도를 바라보며 결과를 점쳐 보았다. 과연 산형강이 밤새 휘였겠는가? 휘였다면 어느쪽으로 휘였겠는가? 차라리 혼자 나와 알아 볼걸 소대를 다 끌고 나오지 않았는가? 하고… 그런데 두 대원이 물가에서 뽑아 메고 오는 산형강을 보니 원 저런!… 휘여도 보통으로 휜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마구 비틀려 꼭 엿가락을 방불케 하였다. 그제야 대원들은 영문을 알아 차렸는지 산형강을 둘러 싸고 저마끔 떠들기 시작했다.

《여여, 이게 정말 꿋꿋하던게 맞긴 맞어?》

《맞지 않구. 병실마당에서 메온거라니까.》

《히야, 조수라는걸 우습게 알았더니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

는걸…》

《그래서 발전소까지 건설한다지 않는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는 그 마당에서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한것은 박선봉이였다. 제가 고안해 내고 어느 정도 예견까지 했던 일이지만 정작 손바닥처럼 두터운 산형강이 엿가락처럼 비틀린것을 보자 그는 밀물과 썰물의 세기를 두고 론쟁을 벌린것이 매우 필요한 일로 여겨 지면서 바다라는것 자체의 위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바다! 이것이 바다란 말인가? 조용히 드나드는 조수의 힘이 이렬 진대 해일이나 태풍의 바다는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것인가?… 그는 군관들이 마음의 준비부터 단단히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던 말의 참뜻이 비로소 리해되는것 같았다. 하기는 그래서 건설을 우리한테 맡겼을것이다. 우리야 돌격명령만 내리면 죽음도 떳떳이 맞받아 나갈줄 아는 영웅적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아닌가. 좋다. 어디 한번 겨루어 보자. 누가 못견디는지…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 선봉은 소대를 모엿시켰다. 그리고 병사들이 두줄로 횡대를 짓자 량손으로 허리를 짚은채 대렬앞에 버티고 섰다.

《동무네들 보라. 이게 바다란 말이야. 자! 저 산형강이 엿가락처럼 된걸 보면 알겠지만 밀물이 세다거나 썰물이 약하다고 하는건 애당초 문제거리로도 되지 않아. 다 세지…

그렇다고 동무네 바다를 무서워할건 없다는걸 알아야 해. 바다를 무서워 해서야 무슨 일을 치겠는가? 군대가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맡은 갑문건설이 얼마나 거창한가를 알아야 해.》

그는 자기가 뭘 말하자는것인지 알겠는가고 물었다. 대원들이 합창으로 알겠다고 대답하자 선봉은 그제야 흡족해 하며 다시 대렬을 헤쳐 세면을 시켰다.

끌살부리는 실개울조차 없는 메마른 고장이다. 산밑에 샘터가 몇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음료수로도 모자라는 형편이였다. 때문에 군인건설자들은 음료수를 절약하기 위해 세면이나 작업이 끝난뒤 손발을 씻는것은 다 바다물을 리용하고 빨래 같은것은 송관리 소재지 근방에 있는 저수지를 리용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대원들이 세면을 끝내자 선봉은 대렬을 정돈해

가지고 귀로에 올랐다. 다른 구대원들은 그때쯤에야 세면하러 나오고 있었는데 미구에 물녘은 세면하는 군인들로 하얗게 덮여 발 들여밀 짬조차 없을 지경으로 되였다.

선봉은 올 때처럼 구보로 달린다거나 늘어지지 말라는 식으로 대원들을 들볶지는 않고 자유롭게 걸으며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대렬뒤에서 걸었다. 한 대원이 대렬에서 떨어져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앞서 복무하던 군부대의 도하대대에서 갑문건설장에 함께 온것때문에 현재까지는 소대안에서 그중 통하는 친구였다. 그러나 선봉은 다른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체를 하지 않는다. 구성이 복잡한 소대안에서 사사로운 관계가 로출되면 규률을 세우는데 유해로운 작용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지금도 그런 리유로 왜 제멋대로 대렬에서 리탈하는가고 꾸중하려는데 대원이 먼저 《들었습니까？》 하고 밑도끝도 없이 묻는것이였다.

《뭘？》 선봉은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송철만부사령관동지가 우리 갑문건설국장으로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 선봉은 대뜸 눈이 둥그래 졌다.

《그거 누가 그럽데.》

《어제 국지휘부에 련락 갔다가 들었지요. 국장으로 임명받고 인계사업때문에 군부대에 내려 갔는데 며칠이내로 올거랍니다.》

선봉은 갑문건설장으로 소환되기 전날 전투준비검열차로 내려온 군부대부사령관과 장기판을 마주하고 앉았던 일이 생각났다. 비록 몇수 못 놓기는 했지만 일개 하사관이 장령과 마주 앉아 장기를 두었다는것은 그 자체로서 큰 자랑이 아닐수 없었다. 게다가 부사령관은 후에 승부를 겨루자고 약속까지 했었다. 그 약속을 실행 못해 보고 떠나는것때문에 아쉬워한바도 없지 않았는데 부사령관이 갑문건설국장으로 왔다면 어쨌든 좋은 일이다. 그는 우정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장기를 꼭 겨루어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는사이에 대렬은 야전천막들과 가설건물들이 있는 주둔지역 초입에 이르렀다. 저만치 십여메터 앞에서 대렬도 짓지 않은 여러명의 해병들이 마주 오고 있었다. 무심한 눈길로 그들,해병들을 바

라보던 선봉은 한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며 눈이 커졌다. 마주오는 그 해병들속에 신통히도 중학시절의 동무와 비슷한 중사가 있었던것이다. 지난해 휴가차로 고향에 가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한해사이로 군대에 입대한 동창생 역시 해병이고 중사였다. 하지만 군대에 한해 먼저 입대한 뒤로 지금껏 만나본적이 없었으므로 확신은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물쭈물할 박선봉이 아니였다.

《여, 해병중사. 동무 장풍산이 아니야?》

그러자 뒤에 섰던 해병들이 먼저 돌아다 보고 중사는 뒤늦게야 돌아 섰는데 잠시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드디여 환성을 올렸다.

《이게 누구야?… 선봉이!》

선봉은 달려 가 마주 서자마자 주먹으로 친구의 담벽 같은 가슴을 한번 내질렀다. 저쪽도 마주 웃으며 주먹을 들어 그의 가슴을 툭 쳤다. 그다음 둘은 어깨와 팔을 마주 붙안은채 서로 변한 모습을 뜯어보았다. 선봉은 친구가 중학시절보다 키는 별로 크지 못하여 자기보다 거의 한뼘은 작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작은 대신 옆으로 퍼진 단단한 체구에서는 억센 힘이 느껴 지고 깎아 다듬은것 같은 네모진 얼굴과 순하면서도 크고 검은 눈에서는 허투로 대할수 없는 위엄조차 풍기였다. 장풍산의 눈에 갑자기 장난 궂은 미소가 피여 났다. 선봉은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리라는것을 대뜸 짐작하였다. 아닐세라 풍산은 어떻게 알았는지 휴가 가서 장가 들었다는게 사실이냐고 따지고 들었다. 이럴 때는 맞받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선봉은 한술 더 떴다.

《장가?… 장가야 언제적 일이라구. 떡돌 같은 아들놈까지 봤는데…》

풍산은 눈이 다 퀭—해 졌다.

《어허, 그럼 벌써 아이아버지야? 나보다 나이가 우이지만 원 저런… 그래 색신 누구네 집 딸이야?》

《마을 인민학교교원인데… 처켠은 다 읍거리에 있지.》

《교원에 읍거리출신. 미인이겠군그래.》

《모르겠어. 미인인지 박색인지…》

선봉으로서는 그것이 처자랑을 하기 멋적어서 하는 소리만은 아

니였다. 로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죽기전에 장손며느리를 봐야겠다고 그냥 고집하는통에 초기군무사관으로 첫 휴가때 기일을 사흘 앞두고 장가를 들기는 했지만 교원이 몇이 안되는 산골학교여서 신부는 그 사흘동안에도 낮이면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보니 선봉은 겨우 사흘밤을 함께 지낸셈이라 지금도 안해를 생각하면 꿈에 본 사람처럼 아리숭하기만 할뿐 구체적인 표상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봉은 안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싶지 않아서 《그런데 말이야.》 하고 주동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동무네 해병들도 갑문을 건설하러 왔나?》

《갑문건설을 오지 않으면 놀러 왔겠나? 이제 두고보지. 우리 해병들이 없인 아무 일도 못하는걸…》

말하는 품이 풍산은 해병으로서의 긍지가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았다. 선봉은 속으로 좀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고 넌지시 물었다.

《동무네가 하는 일이 뭐게?》

《그야 잠수작업이지.》

《여, 잠수… 난 연공일세.》

《오-라 연공… 그러니 우린 다같이 갑문건설의 제일선을 맡은 셈이군그래.》

《그런것 같네. 하나는 물우에서, 하나는 물밑에서… 한번 본때를 보이자구.》

《그럽세.》

그들은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여졌다.

5

건설자들의 숙소며 식당들이 대체로 그런것처럼 령남리에 있는 인민군건설지휘부도 석비레블로크로 벽을 쌓고 지붕에 검은

방수지를 씌운 ㄷ자형의 가설건물이였다.

송철만소장이 강충일중장과 함께 부임차로 이곳 지휘부에 도착한것은 한낮의 무더위가 방금 시작된 오전 10시경이였다.

지휘부에서 그들 두 장령을 맞이한것은 몇명의 참모부군관들과 국정치부장 리응천이였다. 군사칭호가 대좌인 리응천은 큰키에 몸이 핑장히 나서 체중이 백키로가 넘는 거인인데 그 요란한 체구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가늘고 이목구비가 모두 자름자름하여 어딘가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였다. 바로 그 인상탓이랄지 일순 철만은 이 사람과 마찰이 없이 일해 낼수 있을가? 하는 전혀 타당치 않은 위구심까지 느꼈다.

《부국장은 어디 갔소?》

인사소개를 끝내자마자 강충일중장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기본언제공사장에 가 있습니다.》

정치부장 리응천의 대답이였다.

《그럼 난 가겠소. 부국장이 건너 오거든 정치부장동무가 인사를 시키오, 국장동무를. …》

《알겠습니다.》

강충일중장을 바래우고 정치부장을 따라 서쪽모서리의 자기방에 들어 선 송철만은 공사현장을 돌아 볼 셈으로 직일관에게 승용차를 부르게 하고 차를 기다리며 리응천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부장동무는 여기 배치되여 온게 언제요?》

《지난 7월초니까… 이젠 한달이 넘었습니다.》

《출신은 어디게?》

군인들은 흔히 《출신》이라고 하면 군종이나 병종 혹은 군부대를 념두에 둔다. 송철만도 그런 의미에서 물었고 리응천도 그렇게 알고 대답하였다.

《저는 출신이 좀 복잡합니다. 전쟁때부터 따지면 륙,해,공군 안있은데가 없으니까… 이번엔 공군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의 전직은 공군사령부 정치부장이였다. 하지만 송철만은 그의 전직보다도 전쟁참가자라는것에 더 관심이 씌여 전쟁때 복무한 부대명을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응천의 입에서는 안동

12사단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아니, 〈안동〉에 있었소?》

《〈서른하나〉 1대대에 있었습니다.》

《난 〈서른둘〉 3대대에 있었소. 양판기영웅을 낸…》

《아하, 그렇습니까? 원 이런 반가울데라구야. …》

리응천은 퍽그나 기뻐하였다. 송철만도 같은 심정이였다. 아직 리해가 깊지 못하고 첫인상에 장차 사업상 마찰이 생기지 않겠는가 위구심을 느꼈던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전쟁의 시련을 이겨 낸 옛 전우라는 개념이 마음의 간격을 메꾸어주는것 같았다. 소좌인 직일관이 들어 와 승용차가 왔음을 알려서 그들은 일어 섰다.

끊어졌던 대화는 차우에서 다시 이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풍을 친 전투용승용차가 지휘부 정문을 빠져 나와 바다기슭을 따라 달리기 시작하자 뒤좌석에 앉은 정치부장이 입을 열었다.

《국장동무는 전쟁때 부상을 두번이나 당했다면서요? 안동해방전투와 월비산계선에서…》

운전사와 나란히 앞좌석에 앉아 차창으로 비쳐드는 공사장일경을 살피던 송철만은 리응천의 말에 저으기 놀라며 반문했다.

《아니, 그건 어떻게 아오? 내 부상이라는것은 별치 않아서 그리 소문난것도 아닌데…》

리응천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명색이 정치부장인데 앞으로 같이 사업할 국장동무에 대해 그 정도도 모르고서야 됩니까? 나는 국장동무가 다리에 입은 부상처때문에 가끔 애먹기도 하지만 실은 허리의 파편상이 더 문제라는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송철만은 어이없어 웃고 말았다. 어디서 들은 소린지는 몰라라 정치부장의 말은 죄다 사실로서 지금도 그의 허리에는 콩알 같은 파편이 박혀 있어 과로하던가 환절기가 되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며 말썽을 부렸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다가는 재미없을것 같아 미리 방비해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아하니 정치부장동무도 〈안테나〉가 어지간히 높은것 같

은데 정보는 그리 정확치 못한감이 있구만. 몸에 그런 〈시한탄〉을 두개씩이나 차고 있으면 내가 영예군인으로 제대되였지 어떻게 아직까지 현역에 남아 있겠소. 남보기엔 심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미 시효가 너무 지나 터질 념려가 조금도 없는 〈시한탄〉이요.》

《그래도 건설장조건에서 극력 조심해야 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소리가 곧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송철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치부장의 지나친 관심이 고맙다기보다 오히려 불쾌하게 들렸다. 이 량반이 나의 부상처까지 알아내 가지고 첫날부터 무슨 잔사설이 이리 많은가? 체통도 작지 않아 백키로그람이 넘는다는 사람이… 옛 전우를 만나 기쁘던 감정이 졸지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였다.

길이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넓은 도로분기점이 나타났다. 리응천의 설명에 의하면 왼쪽으로 급히 꺾인것은 함형부재장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가닥은 남포로, 나머지 두갈래는 각각 기본언제건설장과 부두로 나가는 길인데 군인들속에서는 《5가로》로 불리운다는것이였다.

승용차는 기본언제건설장으로 가는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차가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한창 구조작업중에 있는, 두바퀴를 허공에 들고 길섶 도랑창에 모재비로 나자빠진 수송차사고현장과 맞다들린것이였다. 여러대의 자동차가 단번에 어길수 있게 넓은 굽인돌이도 아닌 길에서 왜 그런 사고가 일어 났는지 몰라라 쇠바줄에 허리를 묶인채 기중기차 견인고리에 매달려 허공에 뜬 수송차는 보기 처참하였다. 운전칸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는가 하면 왼쪽 앞바퀴덮개와 기관실옆구리가 험하게 쭈그러지고 전조등도 빠져달아나 소경의 눈처럼 우멍하였다. 실었던 통나무가 옆으로 쏟아지면서 적재함문짝을 돌쩌귀채 뜯어 놓아 대수리까지는 아니라도 중수리정도는 해야 운행이 가능할것 같았다. 구조작업은 얼굴색이 검고 군모밑으로 희슥희슥한 머리가 보이는 늙수그레한 상좌가 지휘하고 있었다. 리응천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어

보니 갑문건설에 동원된 총참모부직속 제5수송부대 부대장이였다. 송철만은 길섶에 나가 차가 구겨박혔던 도랑창을 내려다 보며 다친 사람이 없는가를 알아 보았다. 운전칸 시창이 깨지면서 운전사의 이마에 유리쪼각이 하나 박혔을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 그런데 이런 넓은 길에서 대낮에 차를 도랑에 꾸겨박는 원인이 뭐요？ 기술부족인가？》

《운전사가 졸았습니다.》 부대장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잘못이기라도 한것처럼 미안해 하며 한숨을 내불었다.

《요새 운전사들이 하루평균 몇시간이나 자오？》

《서너시간 자면 많이 자는 축입니다.》

부대장의 대답에 송철만은 할 말이 없었다. 열시간을 자라고 해도 싫어하지 않을 나이에 하루 다섯시간 정도 자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니 왜 졸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대로 수송의 긴장성을 말해주는것으로서 달리다 마주 충돌하여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것만도 다행이라고 할수밖에 없었다. 송철만은 견인차가 와서 도랑창에 구겨 박혔던 수송차를 끌고 가는것을 보고서야 정치부장과 함께 다시 차에 올라 사고현장을 떠났다.

《수송이 딸리는 모양이구만？》

《많이 딸립니다. 부국장동무가 그때문에 밤낮 신경이 돋아 가지고 있지만… 철길신세를 아직 지지 못하는데다 물까지 자동차로 실어다 먹고보니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 실어다 먹는단 말이요？》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여서 송철만은 은연중 놀랐다.

《이 령남리라는데가 워낙 메마른 고장이여서 아무리 파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대대단위로 리소재지근방에 있는 우물에서 실어다 먹는데… 하루 평균 60대의 자동차가 물운반에 동원됩니다. 우물은 도무지 두개뿐이고…》

《그럼 수도를 놓아 대동강물이라도 끌어 와야지 그냥 실어다 먹을 내기야 할수 없지 않겠소. 자동차가 남아 돌아 간다면 몰라도…》

《수도공사는 강관이 걸려서 못합니다. 최소한 200톤은 있어야 하는데… 강충일중장동무가 그걸 해결하자고 국가계획위원회 위

원장을 다섯번이나 만났지만 끝내 성사 못하고 래년 1.4분기에 받는걸로 락착되였습니다.》

《…》

송철만은 입을 꾹 다물고 앉아 묵묵히 시창만 내다보았다. 그에게는 리응천의 말이 단순히 자동차로 물을 실어다 먹는다거나 수도화에 필요한 강관을 받기 힘들다는 소리로만 들리지 않았다. 장차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암시처럼 울리면서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길이 나빠서 차가 몹시 들추었다. 파도에 부대끼는 쪽배마냥 좌우로 기울거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껑충 뛰여 오르는 바람에 리응천은 《억-쿠!》하며 정수리로 풍을 올리받고 떨어졌다. 순간 차체 어디선가 딱-하고 재미없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 내려가 보더니 스프링이 부러져 내려 앉았다고 하였다.

《내가 타지 말아야 하는걸…》

리응천의 말이였다.

《부러질라니 부러졌겠지 정치부장동무가 탔다고 부러졌겠소.》

《그래도 나야 백키로이상급이 아닙니까.》

그들은 승용차를 돌려 보내고 걷기 시작하였다.

송철만은 군모채양을 밀어 올리고 군복단추들도 몇개 뽑아 놓았다. 바람 한오리 불지 않는 무더운 날씨였다. 달대로 단 뜨거운 대기는 성냥을 그어 대면 불이라도 확 붙을것 같았다.

《저긴 무슨 공사장인데 왜 저리 조용하오?》

철만은 길 오른쪽 바다기슭에 면적을 넓게 잡고 감탕판을 파헤치던 기중기며 가설건물들도 드문드문 세웠지만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물었다. 리응천은 함형부재장이라고 하며 설명을 달았다.

《이제 저기 바다쪽에 반원으로 8.1메터 폭에 높이가 7메터인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안쪽의 감탕을 파올려서… 그러나 시작했다가 중지했습니다.》

《?》

《로력도 딸리고 기자재도 불충분하고… 어쨌든 일을 너무 넓어놓는것 같아서 기본언제를 좀 내민 다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함형부재공법이 처음이라는데 그렇게 늦잡았다가 후속공정과의 련계가 튀지 않겠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힘에 부치니 어찌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102부대가 말은 기본언제공사장구역에 들어 섰다. 버럭이 아니면 뿔부재를 박아 실은채 언제끝으로 나가거나 부리우고 되짚어 들어 오는 자동차행렬, 땡땡 종을 울리며 달려 가고 달려 오는 가소링차들, 밀차와 딸따리행렬, 사방에 꽂혀 펄럭이는 붉은기발들, 각종 구호판과 속보판들, 무엇을 들었거나 메고 끌며 바삐 다니는 군인들… 그런 혼잡속을 뚫고 두사람은 토취장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부국장을 만났다.

부국장 황석전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길숨한 얼굴에 좀 능청스러우면서도 서글서글한 인상을 주는 50대의 대좌였다. 련락을 받고 면내의바람으로 굴착기에서 내려 온 그는 초면인사를 나누고 손을 놓기 바쁘게 공사진행상황을 설명하자고 들었다. 그러는것을 리응천이 막았다.

《아니 황동무, 국장동문 부임한지 아직 두시간도 채 안됐는데 그런건 차차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황석전은 그쯤한 말에 꺾이울 성미가 아닌듯 고집을 세웠다.

《정치부장동무, 문제를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이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하지 못합니다. 차차라니… 이게 어디 간단한 건설입니까?》

철만은 부국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 이건 간단한 건설이 아니다. 당에서 매우 중시하는, 군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5년동안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설대상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시간을 최대한 아끼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겨우 건설장의 일각이나 보았을 정도이지만 그 일각만 가지고도 자신이 얼마나 거창하고 전례 없는 건설공사와 맞다들었는가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였다.

《내가 국장동무를 생각해 주려다가 부국장동무한테 오늘 단단히 한꼴 먹는군.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장으로 내려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리응천의 말이였다. 그리하여 세사람은 토취장을 떠나 언제공사장으로 내려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국장이 주로 말하고 송철만과 리응천은 듣기만 했다.

《아시겠지만 건설은 여기 령남리와 끝살부리 두개 지역에서 세개의 공사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언제공사와 함형부재생산 그리고 가물막이공사… 이 세 대상중에서 현재 그중 잘 나가고 자리잡힌것은 기본언제공사라고 볼수 있는데 정무원지휘부에서 건설기자재를 잘 밀어 넣어 주는것도 있지만 담당한 102부대가 일을 잘합니다.》

《가물막이공사는 왜 잘 나가지 못하오?》

《철배생산이 걸렸습니다.》

《철배는 어디서 생산하오?》

《그건 남포조선소에서 합니다.》

리응천의 대답이였다. 부국장이 설명을 달았다.

《그런데 조선소에서는 아직 생산준비도 똑똑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편이 그러면 어떻게 조선소를 달구쳐서라도 빨리 만들게 해야지 우리만 녹지 않겠소?》

《녹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공측이고 그건 정무원지휘부에서 할 일입니다. 책임을 따지면…》

책임한계가 그렇게 나뉘여 있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 송철만이였다. 달구쳐야 할것은 결국 정무원지휘부사람들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정무원지휘부의 존재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공사현장도 현장이지만 오후에는 거기 가서 철배보장대책부터 토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언제공사장이 가까와짐에 따라 수송로는 더더욱 붐비고 소란스러워졌다. 그들 일행은 길가녁으로 빠져 나와 한창 침목을 깔고 있는 인입선철길뚝우에 올라섰다.

철길뚝을 따라 띠염띠염 붉은기발과 구호판들이 꽂혀 있고 그

사이로 전투속보와 속사한 그림들을 붙인 게시판들도 늘어 서 있었다. 공사장이면 의례 있게 마련인 풍경이여서 무심한 눈길로 그것들을 일별하던 철만은 병풍식으로 만든 색다른 그림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림이라기보다 차라리 설계에 가까왔다.

《대형함형부재라…》

철만은 그림판우에 가로쓴 제목을 소리내 읽고는 철길공사장에 함형부재그림을 붙여 놓고 있는 까닭을 물었다. 그러나 리응천은 물론 부국장도 의외인듯 얼른 대답을 못하였다. 얼마간 지나서야 부국장이 해명했다.

《이 인입선공사를 하는 구분대가 함형부재장공사를 하던 522군부대소속입니다. 아마 거기서 쓰던걸 그냥 가지고 넘어 온 모양입니다.》

그때 저만치 침목작업을 하는 어방에서 면내의바람의 군관이 자갈을 걷어차며 바삐 뛰여 오더니 너덧걸음앞에 못박혀 서서 힘차게 보고했다.

《소장동지, 대대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대대장…》

《가만, 이게 누구야？》 철만은 구분대장의 모색이 낯익었다. 그래 마주 다가가 무작정 상대방의 땀에 젖은 량어깨부터 덥석 잡으며 물었다.

《너 윤상설의 아들이지？》

대대장은 벌쭉 웃기부터 하였다.

《그렇습니다. 소장동지, 제… 건홉니다.》

《옳아, 건호… 음 벌써 대대장이 됐구만.》

반갑기도 하고 대견키도 해서 송철만은 거듭 윤건호의 어깨를 두드리다가 말고 부국장과 리응천에게 소개해 주었다.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건설대학에 다니다가 판문점 《도끼사건》때 입대하였는데 벌써 대대를 지휘한다고…

《내 나오기전에 전화로 아버지를 만났는데 건혼 아직 장가를 안갔다며？》

《장가야 뭐… 갑문을 건설한 다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갑문도 건설해야지. 그러나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심정도 리해해야지.》
장가 가라는 소리가 듣기 거북한지 건호는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태천발전소건설장에 나가신답니까?》
《음, 태천도 여기 못지 않게 중요한 대상이니까…》
《그래두 전 갑문건설장에 오면 아버지를 만날줄 알았습니다.》
《그랬겠지. 하지만 섭섭해 할건 없어. 아버지는 발전소를 건설하구 아들은 갑문을 건설하구…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철만은 군모채양을 밀어 올려 땀밴 이마를 드러낸 다음 손으로 허리를 눌러 짚었다. 대화가 동강난 틈을 타서 리응천이 윤건호에게 의문의 함형부재모형도를 그려붙인 까닭을 물었다.
《그건》 건호는 얼핏 부재모형도에 눈길을 주더니 말했다. 《우리의 차후임무는 함형부재생산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전사들이 함형부재가 어떤건지 알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자는 의도에서 그려 붙였습니다.》
송철만은 리응천이 보내는 《어떻습니까? 별치 않은 일같지만 생각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는 시선을 받았다. 그렇다는 의미로 철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제야 리응천이 말했다.
《좋소, 아주 좋아! 정치사업이란 바로 이렇게 하는게요. 안 그렇습니까? 부국장동무.》
부국장도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새삼스럽게 부재모형도를 바라보았다.
그러루한 이야기를 좀더 나누고 헤여지기에 앞서 철만은 대대장에게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
《철길공사를 빨리 끝내자면 수송부대에서 침목과 레루를 현장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야 그래야지.》
《그러나 지금은 하차장에 부리워 놓고 저마끔 날라 가라고 하는데 우리 대대 같은건 거리가 2키로나 됩니다.》
건설장의 기본물동수송은 총참모부에서 배속받은 제5수송부대

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송대의 능력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물동량을 보장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국 지휘부는 수송차의 능률을 최대한 높일 목적으로 철길을 따라 몇군데 중심하차장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자체로 날라가게 하는데 하차장이 가까운 단위들은 별문제이지만 윤건호네처럼 운반거리가 먼 단위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러니 건호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나?》

생각을 많이 해본듯 건호는 즉시 대답했다.

《우리처럼 운반거리가 먼데는 차가 현장까지 날라다 주던가 아니면 수송대 차를 한대씩 배속시켜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철만은 건호의 말이 옳지 않는가? 하는 눈길로 부국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부국장은 벌써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겐 하지 못합니다. 지금 방법으로도 물동을 겨우 보장하는데 차를 뜯어 나누어 줄내기 해야 수송체계나 헝클어 뜨립니다. 하지만 이 동무네만은 현장까지 날라다 줍시다. 거리가 특별히 먼것도 있고 국장동무와의 안면도 봐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모두 웃었는데 윤건호의 경우는 너무 좋아서 입이 다 헤작해 졌다.

6

철길뚝을 따라 언제공사장쪽으로 내려가는 국장의 일행을 이윽히 바라보며 윤건호는 생각했다.

(젠장, 큰 문제를 하나 풀었다. 침목과 레루만 현장에 운반해 주면야 철길공사는 땅짚고 헤염치기지. …)

뒤에서 자갈돌을 걷어 차며 누군가 바삐 걸어 왔다. 대대정치지도원 리종각이였다. 윤건호가 몸이 칼칼하고 이목구비들이 자름자름한 《모엿!》형이라면 리종각은 이마와 미간으로부터 턱과 어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크고 굵고 널직널직한 《헤쳐

갓!》형으로 군사칭호는 대위였다.

《아니 대대장동무, 새로 오신 국장동지를 어떻게 그리 잘 압니까? 듣자니 뭐 〈야, 너 아무개 아들이지?〉 하니 대대장동무는 〈예, 제 아무개올시다.〉 이랬다면서요?》

전사들과 같이 침목을 메나르다가 온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익고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친구되는분이요.》

건호는 허리춤에서 수건을 뽑아 목덜미의 땀을 씻으며 부대장시절의 송철만소장과 아버지가 함께 비단섬을 건설한데 대해, 그 인연으로 지금도 소장은 평양에 출장오면 꼭 집에 들리며 중학시절 방학때면 자기도 강원도에 있는 소장네 집에 가서 며칠씩 놀고 오던 이야기를 하였다.

《오-호, 그러니 알아도 이만저만 잘 아는 사이가 아니구만요. 됐습니다. 이젠 국장동지한테 직접 제기해서 해결 받읍시다.》

윤건호는 리종각의 말을 직접 제기해서 수송차를 배속받자는 뜻으로 알고 금방 부국장이 국장과의 안면을 봐서 《특별취급》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리종각은 전혀 다른 문제를 말하는것이였다.

《〈소금밥〉 문제 말입니다. 안면이 사촌보다 낫다구 혹시 알겠습니까? 물운반차를 한대 뚝 떼줄런지…》

윤건호는 어이없었다.

《답답한 소리 마오. 지금 어디 음료수타발을 할 때요? 물동운반이면 몰라라… 난 〈소금밥〉을 먹더라도 침목이나 제때에 실어주면 좋겠소.》

그러자 리종각은 당장 정색해 졌다.

《대대장동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됩니다. 곤난을 극복한다는것과 〈소금밥〉을 먹는다는건 문제가 다릅니다. 전사들이 진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밥이야 온전한걸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난 새로 오신 국장동지에게 우선 이 문제부터 제기해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금밥》이란 음료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

아 바다물로 끓인 밥을 의미하였다.

끌살부리도 물이 바른 고장이지만 령남리는 그에 비할바가 아니여서 구분대단위로 10리가 넘는 리소재지 우물에서 자동차로 음료수를 길어다 먹고 있었다. 그나마 수원이 발아서 차가 우물에 가서 몇시간씩 기다리기가 일쑤인데 그럴 때면 식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불 바다물을 퍼다 밥을 하였다. 밥을 소금물로 하면 수수밥처럼 시뻘겋게 되면서 풀기가 싹 없어지고 씹으면 찝찔하여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다. 먹고나선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 리종각은 전사들에게 그런 밥을 먹이는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윤건호의 경우도 그것이 가슴아프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밥맛같은건 아무렇든 참을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용납하기 힘든것은 대대에 한대밖에 없는 자동차가 물운반에 발목이 잡혀 (물운반도 그잘나게 하면서…) 공사에 전혀 리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였다. 생각 같아서는 물운반같은건 아예 걷어치우고 자동차를 공사에 돌려 작업실적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리종각이 절대 반대하였다.

《어쨌든 그 문제는 좀 두고 보기요. 우리가 제기 안해도 다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니…》

그러는 사이에 점심시간이 되고 수송차에 끌려 가마차가 현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화식장은 점심밥과 함께 한가지 재미 없는 소식을 보고하였다.

대대 우물작업장에 웬 녀자가 나타나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한다는것이였다.

건호는 대뜸 신경이 돋았다. 구분대에서 파고 있는 우물로 말하면 바다물이 려과되여 염도가 좀 낮아진 물이라도 얻을가 하여 그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조직한, 말하자면 수송차를 공사에 돌리는가 못돌리는가 하는 철길공사의 운명과 직결되여 있는 우물이였다. 그런데 한창 파들어 가는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한다니 신경이 돋지 않을수 없었다.

《그건 웬 녀잔데 우물은 왜 파지 말랍데？》

《사민녀잔데 좀 곱살하게 생기구… 그 뭐라든가… 골… 골…》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는지 화식장은 그냥 골,골 소리만 련발하더니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건호는 짐작이 가는것이 있어서 골재장이 아닌가고 퉁겨주었다. 그제야 화식장은 무안한중에도 기쁜지 히쭉 웃으며 옳다고,골재장구역이기때문에 우물을 파면 안된다고 한다는것이였다.

(골재가 언제 들어온다고 벌써부터 골재장타령인가. 게다가 사민이…)

그는 중대장들을 불러 대원들에게 식사를 시키라고 지시하고는 곧장 우물작업장으로 들어 갔다. 작업장은 병실들이 위치한 광량만쪽 언덕밑에 있었다.

윤건호는 책임진 하사관이 보고하려는것을 그만두게 하고 문제인 사민녀자와 마주섰다.

수수한 곤색 작업복차림에 나이는 스물너덧쯤 될가,키는 약간 큰축이고 걸맞게 몸매도 좋았다. 얼핏 마주 보고 피하는 서늘한 눈빛,기미 한점 박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시원히 빠진 목과 단단해 보이는 도두룩한 가슴,한마디로 잘나고 도고해 보이는 녀자였다. 아마 그때문일것이다. 한순간 윤건호는 위압되는듯한 감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인차 그러한 감정에 도전하듯 우정 발을 넓게 벌려 짚고 왼손으로 군관혁띠를 눌러 짚었다.

《나는 이 동무들의 지휘관인데 동무는 누굽니까？》

인상이 그리 밝지 못한것으로 보아 그 녀자는 이미 전사들과 말싸움깨나 한것 같았다.

《전 수리공학연구소,아니 여기 갑문건설에 동원된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 있어요.》

윤건호는 정무원지휘부에 그런 이름을 가진 과학자돌격대가 있어 남포갑문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맡아 풀어 준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같은 갑문건설에 나온 동업자들이였다. 그 녀자의 본직장은 수리공학연구소인것 같았다.

《그런데 과학자돌격대는 군인들이 우물파는 일을 간섭하게 되여 있습니까？》

윤건호는 내심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며 처음부터 고압적

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 녀자는 이쪽에서 필경 그렇게 나오리라는것을 알고라도 있은듯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내지 않았다.

《군관동무는 뭔가 오해하는것 같군요.》 그 녀자의 쌀쌀하면서도 침착한 대꾸였다.

《전 여기가 골재장구역이기때문에 우물을 파선 안된다고 했을뿐이지 군인동무들의 일에 간섭한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동무!》 건호는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였다.

《그게 바로 간섭이란 말이요. 동무한테 무슨 상관이요? 사민들이…》

그러나 상대방은 놀라기는 커녕 오히려 입귀에 엷은 비웃음을 띄워 올렸다.

《사민이 군대일에 웬 상관이냐구요?》 하고 그 녀자는 걸고드는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상관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거예요. 군대도 갑문을 건설하러 왔으면 건설장규정을 지켜야지 않겠어요?

다시 상기시키지만 여긴 골재장구역이예요. 상부의 승인없이 제멋대로 망탕 파헤쳐선 안돼요. 이건 군대도 례외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긴 파야 물이 나오지 않는곳이예요. 군인들도 그쯤한 상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건호는 일순 말문이 막혔다. 이 근방이 골재장구역이고 워낙 메마른 고장이여서 파야 물이 잘 나오지 않으리라는것을 그도 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수도 없어 혹시나 해서 우물파기를 조직한것이다. 음료수를 자체해결함으로써 물운반에 발목이 잡혀 있는 자동차를 공사에 돌려쓰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이 녀자는 남의 고충은 알지도 못하고 기계적으로 건설장규정만 따지고 있다. 뭐 군대도 례외가 아니다?… 상식이 있어야 한다?…

건호는 모욕감을 느꼈다. 모욕에는 모욕으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니 동무는 우리가 아무런 상식도 없고 무식해서 골재장이라는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몇가지 좀 물어봅시다. 동무는 〈소금밥〉을 먹어 보았소? 짠물에 세면하

고 내의를 빨아 입어 본적이 있소? 그래 음료수문제가 비본질적문제로 보이오?》

《…》

낯색이 약간 붉어 지며 입술을 깨무는것으로 보아 그 녀자는 그래본적이 없는 모양이였다.

(그럴테지!…)

하고 랭소를 지으며 건호는 결정적인 공격으로 넘어 갔다.

《동무, 우리한테 건설장규정을 따지겠거든 가서 〈소금밥〉을 먹어 보던가 침목을 몇대 메날라 보고 오시오. 그때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났기에 한마디 해두는데 학자선생이라고 군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오. 군대에 어떤 명언이 있는지 아오? 〈제공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전쟁의 승패는 지상에서 결정된다.〉 이건 비행기나 로케트의 위력도 발로 걸어 다니는 보병에 비길수 없다는 소린데… 이제 두고 보시오. 이 남포갑문을 일떠세우는것이 그래도 동무가 〈상식없다〉고 보는 우리 군인들이지 동무네 〈상식 있는〉 과학자선생님들일것 같소? 천만에!》

평소에 녀자들과 마주서면 늘 부자연스럽고 말이 모자라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으로 말이 슬슬 잘 나가는것이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였다. 하지만 걸불안이라고 그 녀자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였다.

《그렇다면 저도 몇마디 해두어야겠군요.》 하고 그 녀자는 다소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하였다.

《물론 저는 이 남포갑문건설에서 군인동무들이 하게 될 수고나 역할에 대해 조금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나 지금 군관동무가 상상하는것보다 더 큰 역할이나 수고를 하게 될수도 있을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동무들은 이건 똑똑히 알아야 해요. 과학을 무시하고 뚝심만으로는 결코 갑문을 건설하지 못한다는것을…》

윤건호는 반박할 말이 인차 떠오르지 않았다. 일격을 가해 완전히 넘어 뜨렸다고 생각한 적수로부터 여무진 반공격을 받은 기분이였다. 마침 그때 저만치 함형부재장으로 나가는 길우에서 이쪽을 보며 《유정동무-》 하고 큰 소리로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

이 자기 이름인지 그 녀자는 얼핏 돌아다 보더니 《그럼…》 하고 깍듯이 례절을 표시한 후 등을 돌리며 걸어 갔다. 소금기가 내밴 희슥희슥한 감탕판에 자라오른 해재기를 밟아 넘어뜨리면서 오연히 걸어가는 그 녀자—유정의 뒤모습을 잠시 쏘아보다 말고 윤건호는 쓰겁게 중얼거렸다.

(흥, 꽤 유식한체하는군. 과학자라구…)

그는 대원들에게 겁낼것이 없으니 우물을 그냥 파들어 가라고 지시한 다음 되짚어 철길공사장으로 나갔다.

한편 그에 앞서 함형부재장으로 나가는 길우에서 유정이를 찾은 사람은 역시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 있는 과학자로서 그 녀자와 함께 함형부재장 뚝막이공사의 기술적지도를 담당한 양동무였다. 보통키에 선량하게 생기고 도수높은 안경을 낀 그는 유정이가 길우에 올라서기를 기다려 놀라운듯이 물었다.

《떠난지 오랜것 같은데 왜 아직 여기 있소?》

《군대동무들과 〈싸움〉을 좀 하느라구요.》

유정은 발을 탕탕 굴러 신발에 묻은 감탕을 털며 흔연히 대꾸했다.

《아니, 그럴수가 있나? 군대들과 싸움을 하다니?…》

유정의 말이 토끼가 범과 싸웠다는 소리처럼 놀랍게 들리는지 양동무는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았다. 유정은 걸음을 내짚으며 군인들이 골재장구역에 우물을 파길래 단속하던 이야기를 했다.

그제야 양동무는 본래의 평온하고 선량한 얼굴로 되돌아 가며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군인동지들이 납득합디까?》

《납득하는게 다 뭐예요. 도리여 군대가 하는 일에 사민이 웬 참견이냐, 그런 참견을 하겠으면 가서 〈소금밥〉을 먹어 보고 침목이랑 메본 다음 오라는거예요.》

《흠, 역시 군대로군. … 한데 〈소금밥〉을 먹어 보라는건 리해되지만 침목은 왜 메보라는걸가?》

그는 두뇌가 명민하고 탐구심이 강하여 30대에 벌써 학위를 가

진 실력가지만 생활상문제에 들어가선 많은것을 모르거나 극히 단순한 완곡된 표현도 리해하지 못해 일화가 적지 않은 사람이였다. 지금 하는 소리도 그러한 성격의 발로여서 유정은 웃음이 나왔지만 참고 친절하게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다.

《침목을 메보라는거야 무거운걸 메며 땀을 흘려 봐야 우물을 왜 파는가 하는걸 알수 있다는거겠죠.》

《그때문일가?… 혹시 다른 뜻에서 말한건 아닐가?…》

유정은 상대가 현학자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마디를 놓고 지나친 《학구심》을 보이는것이 민망하여 우정 사업상 이야기를 꺼냈다.

《이봐요 양동무, 책임자동지가 무슨 일로 찾아요?》

점심식사후 그들은 같이 함형부재장으로 나오려고 했었다. 그러나 막 떠나려는 때에 돌격대 대장이 찾아서 떨어졌던 그였다.

《아하, 내가 아직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구만. 대장동무가 찾은건 부재장 제방폭을 줄이는 문제때문이였소. 군대건설지휘부에서도 동의한다고… 설계는 따로 만드느라 하지 말고 시공규정만 변경시켜 주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술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요.》

《어-마, 그러니 이젠 부재장뚝막이도 년중에 끝낼수 있게 되였군요. 축하해요. 양동무!》

유정은 부러운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송전선공사와 인입선철길공사는 힘든대로 년중에 끝낼수 있지만 함형부재장 뚝막이만은 안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새로운 력량투입에 의한 대대적인 《인해전술》도 상정되고 땅이 언 조건에서의 뚝막이를 래년으로 넘기는 문제도 론의되였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방도가 아니여서 책임일군들은 몹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런데 이때 전혀 뜻밖의 방향인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서 대안이 나왔다. 초기설계가 제방의 안전한계를 너무 많이 보았기때문에 제방뚝의 폭을 1.9메터만 축소하면 대사리에 태풍을 동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동반은 드물었다.) 안전성에 지장이 없을뿐더러 근 5만립방메터의 감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학적담보였다.

그것을 착안제기한 주인공이 바로 양동무였다. 물론 이 제안은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찬반의 론의를 불러 일으켰고 나중에는 제안자 자신이 의견을 철회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두고 동요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진리는 어차피 시련을 이겨내기 마련이니 오늘 드디여 시공에 도입하기로 결정된것이였다. 양동무의 그러한 과학적성공이 남의 일같지 않게 기쁘면서도 유정은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알싸한 점도 없지 않았다. 사실 본래의 설계가 안전성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제방폭을 필요이상 넓게 잡았다는것을 발견한것은 그 자신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발견을 실용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더우기 공사를 년말까지 끝내는 문제와 련결시키지 못했다. 그것을 실현한것이 바로 양동무고 그래서 착안이 그의 성과로 된것이였다. 과학사업이외의 일에 퍼그나 덜퉁한 양동무도 그 점에서는 미안한바가 없지 않은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유정동무요. 동무가 안전한계와 제방폭간의 모순점을 발견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내겠소.》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봐요. 양동무, 어디 가 제발 그런 소릴랑 하지 말아요. 그쯤한 모순이야 누군들 발견 못하겠어요. 중요한건 그걸 발전시켜 공사에 도입하구 다문 얼마라도 갑문건설을 앞당길수 있게 된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정은 이번에 아주 귀중한것을 배웠었다. 다시 말하여 과학적발견이란 결코 책상머리에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며 산 현실에서 얻어 진다는것을 실제로 체험했던것이다.

7

초급당총회가 끝난뒤 자기 방으로 돌아 온 윤상설은 책상우에 사업노트를 놓기 바쁘게 구석의 원탁앞에 가서 물부터 마셨다. 한

고뿌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한고뿌 더 마셨다. 그제야 답답하던 가슴이 좀 열리고 가슴속에 여유도 생기는것 같아 쏘파에 주저앉았다. 벌써 퇴근을 하는 모양 옆방들에서 문여닫는 소리가 울리고 복도에서 두런두런 말소리도 들려 왔다.

여느때 같으면 함께 퇴근하자고 찾아 오는 이웃들도 있으련만 이 저녁에는 아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다. 하기야 엄중한 과오로 조직문제까지 상정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며 퇴근길을 같이 걷자고 하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해임이나 철직되여 영영 출퇴근길을 같이 못할 사람으로 치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자 그는 스스로 벼랑끝에 몰린 존재처럼 느껴 지며 처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즉 이제 나에게 무슨 책벌을 적용할것인가? 권리정지?…아니 해임하기 쉽다. 해임이면… 아, 한생을 건설로 살아 오다가 남포갑문에 와서 이런 꼴이 되다니…)

국가건설위원회가 남포갑문건설기한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당의 의도를 받들지 못한 문제가 이번 당총회의 기본론점으로 되리라는것은 이미부터 예견한바였다. 그 책임의 일부 몫을 자신이 짊어 지고 비판도 받게 되리라는것을 모르지 않은터여서 상설은 품을 들여 미리 토론준비도 착실하게 했었다. 그러나 정작 총회가 시작되여 초급당비서의 보고가 남포갑문건설문제에 이르러 그는 회의 분위기가 자신이 예견했던것보다 더 심각하다는것을 깨달았다. 아직도 귀전에 징징 울리는것 같은 초급당비서의 보고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다.

…당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중앙기관의 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력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간 남포갑문건설예산안작성사업을 책임지고 한 당원 윤상설동무는 당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게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동무는 우선 예산작성에서 주체적립장과 객관성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혹심한 경험주의자, 주관주의자로서의 자기를 드러내 보였다. 그 단적인 실례는 당이 그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건설기한을 설정함

에 있어서 나라의 현실적요구와 아래일군들의 혁신적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주관적견해에 맞춘 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그것도 두번씩이나) 당의 의도와 맞지 않아 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윤상설동무의 사업과 생활에서 발로된 결함은 이뿐이 아니다. 남포갑문건설이 시작된 초기 위원회 행정과 정무원 해당 부서에서는 건설상무그루빠를 책임지고 나갈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갑문건설장에 나가 당장에는 할 일이 없다느니, 지금은 태천발전소가 더 급하다느니 하면서 끝내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윤상설동무에게 한가지 묻지 않을수 없다. 남포갑문건설이 어떤 건설인데 거기 나가 할 일이 없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라의 건설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당이 그처럼 중시하는 건설대상을 왜 이렇게 외면하는가?…

이것은 동무가 자기의 비현실적견해 즉 20년안이 기각된데로부터 출발한, 당에서 제기한 5년안에 대한 거부의식의 발로이며… 당의 건설정책에 대한 일종의 도전…

비판을 달게 받으라는 말은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며 또 그렇게 받을수 있다는것은 솔직한 말이 못된다. 문제의 엄중성앞에서 윤상설은 가슴이 서늘했고 등골로는 땀이 흘렀다. 당원대중의 비판은 보고보다도 더 신랄하였다. 개중에는 상정된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 책임일군으로서의 작풍상 결함을 건드리는 축들도 있고 따로 조직문제를 볼것을 정식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연탁앞에 서서 근 한시간가량 그러한 비판의 포화를 들썼다. 그러나 해명을 요구하는 몇가지 질문들에 답변한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변명을 하는 따위의 구차한짓은 하지 않았다.…

전화종이 울렸다. 위원장이 아니면 당위원회에서 오는 전화일것이라는 짐작으로 일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는데 뜻밖에도 안해의 목소리가 울렸다.

《뭣때문이요?》

심경이 편안치 않은데다 처가 집에 들어앉아 직장에 전화질하는것이 못마땅해서 그는 저절로 말투가 퉁명스러워졌다. 그러나 안해는 이쪽의 말투 같은건 상관도 않고 도리여 제편에서 볼부은 소

리였다.

《아니, 열시가 다 됐는데 여적 사무실에서 무얼 하시우? 웃집 김국장은 아까 밝아서 들어 오던데…》

윤상설은 어이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혹시 집에 손님이라도 와서 기다리는가 했더니 결국은 퇴근이 늦다는 소리다. 할 일이 없으면 누워 잠이나 잘게지… 하면서도 요새는 둘째가 맹장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는데다 경공업대학에 다니는 막내딸마저 백두산견학을 가고 없어서 집에 혼자 있을 안해의 심정이 얼마간 리해되여 인차 들어가겠노라 하고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는 안해의 전화가 아니였어도 인차 들어 갈 작정이였는데 이제 와선 괜한 심술로 다시 쏘파에 앉아 천천히 담배 한대를 더 태우고야 일어 났다.

저상된 기분상태가 로출될가봐 그는 될수록 흔연한 표정을 꾸미며 집에 들어 섰다. 안해가 문간에서 가방을 받으며 왜 이리 늦었는가 하는 물음에도 그저 회의가 있었노라고 범상히 대꾸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 갔다. 그러나 안해의 눈을 속이기는 힘들었다. 벌써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안해는 방안으로 따라 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했다는 회의가 무슨 회의냐고 따지고 들었다. 그바람에 상설은 다시 한번 신경이 돋아 양복소매에서 팔을 빼다 말고 안해를 노려 보았다.

《당신 점점 없던 버릇이 생기누만. 남이 무슨 회의를 했기로서니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 상관이요?》

젊었을 때 같으면 그쯤한 어성을 높여도 두말 못했을 안해인데 역시 나이탓인지 이제는 제깍하면 맞대거리를 하자고 드는것이였다. 지금도 그랬다.

《아니, 내가 뭘 못 물을걸 물었소? 아, 비밀이라면 몰라도 무슨 회의를 했는가 하면 여사모사한 회의를 했다면 될걸 뭐 돈이 들어 못하우 힘이 들어 못하우?》

안해가 이쯤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든가 지는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녀편네들과는 지는것이 이기는것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됐소, 됐소. 당신 말이 다 옳소.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가서

밥상이나 빨리 챙기오.》

내과의사라 배가 고파 죽을지경이면 위장이 어떻게 된다는것을 너무 잘 아는탓에 안해는 두말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그러나 나가면서도 거기 책상우에 맏이한테서 온 편지가 있다는 소리는 잊지 않았다.

집에 들어 오면 옷을 갈아 입고 찬물로 발을 씻는것이 습관이지만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아들의 편지부터 읽었다. 읽지 않으면 안해가 또 이상히 여기며 직장일을 캐고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편지 앞머리에서 식구들의 안부를 물은 다음 이렇게 아들은 쓰고 있었다.

…아버님.

저는 지금 군사분계선 가까운 부대의 진지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전투장인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따라 저희 구분대가 여기 건설장에 온지도 어언 5개월, 그동안 력량편성, 작업대상확정 등을 거쳐 우리는 신덕역에서 들어 오는 인입선철길공사를 끝내고 지금은 부대에 돌아 와 함형부재장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가 끝나는 차제로 인차 시험부재생산에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다라고 하면 랑만과 서정으로 출렁이는 세계로만 알아 왔습니다. 어린시절의 바다가야영, 영화, 텔레비죤화면, 또한 많은 시들과 책을 통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다를 다스리는 결전장에 나서고보니 바다는 랑만과 서정만을 주는것이 아니라 보다 많이는 횡포하고 가장 심술궂은 야수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횡포한 바다를 길들여 놓고야 말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전투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님, 결의가 아무리 높다 해도 욕망만 가지고는 갑문을 건설하지 못한다는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스스로 터득한 진리는 아니고 여기 건설장에 있는 한 과학자가 저

에게 해준 말입니다. 저로서는 처음에 그 말을 모욕으로 받아 들인 바도 없지 않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학자의 말이 옳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많이 생각해 본 끝에 이제부터 수리공학을 공부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되여줄분들은 여기 과학자돌격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것은 교재인데 그건 아버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구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오늘 편지를 하는건 그때문…

(공부해서 남포갑문을 건설한다?…)

윤상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아들의 편지는 그의 불안과 번민을 더욱 휘저어 놓는듯 싶었다.

뜻밖에 아들이 남포갑문건설장에 가 있다는 사실부터도 그랬고 편지의 구절구절에 울리는 뜨거운 열정과 숨결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자기자신을 되게 후려 갈기는듯 하였다.

편지를 책상우에 놓고 일어나 전실로 나온 그는 상앞에 올방자를 틀고 앉으며 술이 있으면 가져 오라고 했다. 그러나 안해의 관심은 술보다도 아들의 편지에 있었다.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교재는 구할수 있겠지요?》

《술을 가져 오라는 소리 듣지 못했소?》

상설은 공연한 역증을 내며 눈까지 부라렸다.

한마디 더 했다가는 무슨 벼락이라도 맞을것 같은지 안해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더니 30프로짜리 창광술을 가지고 들어 왔다. 상설은 병마개를 따서 사발에 부었다. 그것 역시 전에 없던 일이라 무얼 어쩌자는것인지 몰라 멍청히 보고만 있던 안해는 그가 사발을 들어 입에 가져 갈 때쯤에야 깜짝 놀라며 정신이 있느냐, 빈속에 사발들이를 하면 위가 어찌 되느냐고 야단을 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설은 사발을 절반나마 비우고야 울화를 터뜨렸다.

《뭐 대학교재를 구해 보내?… 흥, 그 자식한테 이렇게 써보내오. 어리석은 생각 말구 대대장노릇이나 착실히 하라구… 남포갑문이라는게 뭐 대학교재나 공부해서 되는 일인줄 알아? 투자액이

자그만치 50억원이요. 움직여야 할 물동량은 천만톤이구, 천만톤…》
그는 오른손바닥을 펴서 안해의 코앞에 바투 내대고 흔들었다.
그리고는 벌써 의식의 혼란과 동작의 부정확을 어렴풋이 느끼며 다시 술사발에 손을 가져갔다. …

8

한 여름의 무더운 낮이 가고 밤이 왔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들끓는 건설장이지만 그래도 밤은 역시 밤이여서 무시로 울리던 발파소리며 온갖 소음들이 한결 설펴 지고 깊어 가는 어둠과 함께 때로 고요를 느낄수 있었다.
그 시각 송철만은 군복 웃동을 벗은채 맨머리바람으로 불빛이 흘러 나오는 국지휘부마당가에 서서 멀리 어둠속에 잠긴 바다를 내다보았다.
(고요한 바다, 잠든 바다…)
그의 입에서는 부지중 시구절 비슷한 감탄이 새나왔다. 까마득한 병사시절에 외워 두었던 시구절이 불쑥 튀여 나온것인가. 그런 일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딱히 기억에 없었지만 어쨌든 무연한 바다, 잠든 바다를 부감하노라면 매번 새라새롭게 감회를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고 송철만은 그런 감탄에 이어 인차 가슴 조이는듯한 까닭모를 불안과 함께 숨가쁨과 전률 비슷한것을 느끼는것이였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자기가 바다를 잘 모르며 또한 생소한데서 오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날이 가고 바다와 익숙되면 그런 감정은 차츰 사라지리라 믿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안과 전률감은 더해만 가는것 같았다. 이즈음에 와서야 송철만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바다와 대결하게 된데서 오는 비장감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비장감, 이는 송철만이와 인연이 없는 딴 세계이다. 불비 쏟아지는 락동강을 떼를 무어 타고 건늘 때도 그렇고 수적으로나 화력에서 몇배, 몇십배에 달하는 적을 상대로 무명고지를 대대 단독으로 고수하는 싸움에서도 그렇고 그 톱날같은 아호비령을 자로 긋듯이 째나가는 평양—원산간의 500리 새 도로를 건설할 과업을 받았을 때에도 언제 한번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 본적이 없었다.

지어 복부에 치명상을 당하고 야전병원의 중환자 격리실에서 4일동안이나 생사를 모르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도 어찌다 눈을 뜨고는 자기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켜 보는 군의와 간호원에게 오히려 제편에서 왜 그러느냐고 의아해한 송철만이였다. …

송철만은 부질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 버리려는듯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방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겸 침실로 리용하는 크지 않은 국장방은 대패자리가 생생한 책상과 장탁, 벽을 따라 판자를 펴놓은 긴 걸상 몇개로 꽉 차 있었다. 의자에 주저 앉은 그는 무심결에 책상우의 담배갑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 물고 불을 붙이려다가 놀란듯 흔들어 불을 꺼버렸다. 불현듯 안해생각이 났던것이다.

《여보, 잠자리에 들기전 흡연은 아주 해롭대요.》

기관지가 시원치 못해 자주 신고하는 남편을 념려하여 노상 뇌이던 안해의 말이였다. 그것은 지청구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운것이였다. 그날밤 부임되는 차제로 갑문건설장에 나왔다가 사업인계차로 강원도의 평강지대에 있는 집에 갔을 때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때에도 송철만은 담배를 꼬나물고 불을 켰다가 황급히 손을 흔들어 불을 꺼버렸다.

《왜 래일 아침 일찌기 떠나신다면서 쉬지를 못해요？》

《…》

송철만은 얼핏 벽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벌써 밤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뜻없이 한식경이나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는것을 느끼였다.

《갑문을 건설하는 일이 이만저만하지 않는 모양이죠？》

《뭐라고 할가. 굉장하고 거창한 일이요. 허나 못해낼 일은 아니요.》

송철만은 안해에게 돌아 앉으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였다. 어쩐지 그는 안해에게 편안치 못한 자기의 속심을 드러내보인것 같았던것이다. 안해는 빤히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 보다가 옆에 놓았던 초약이 든 고뿌를 그에게 건네였다. 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초약을 절구로 찧고 가루를 내여 꿀에 재운것이였다.

그는 고뿌를 받아 쥐다가 얼결에 안해의 손을 띄여 보고는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여느때나 다름없이 치마폭 무릎에 놓인 터실터실하고 거치른 커다란 손… 처음 보는것도 아닌데 왜 오늘따라 안해의 손이 눈뿌리를 아프게 찌르는것인가.

중앙난방이며 가스곤로며 늪창이 달린 현대적아빠트 같은것은 텔레비죤이나 책에서나 보아 오며 별반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도 않았고 한생을 남편따라 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차례지는 산간의 수수한 단층집에서 늙어 오는 안해였다. 명색이 세대주이며 아버지일뿐 많지도 않은 아들딸 두 남매가 어느새 자라서 인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하게 되였는지 통 모를뿐더러 집안의 크고작은 일은 말할것도 없고 방안에 못하나 변변히 박아 주지 못한 남편이였으니 어떻게 안해의 손이 험하게 되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그랬건만 안해는 언제 한번 얼굴을 흐려 본적이 없었으며 남편이 맡겨 진 군무에 충실하기만 바랄뿐이였다.

다음날 집을 나서면서 송철만은 안해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또 수고를 하게 되였소. 물론 내가 곁에 있다고 별로 도움이 될것은 없겠지만…》

《언제 또 오시겠어요?》

《아마 이번에는 인차 오게 될것 같지 못하오.》

안해는 놀란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 5년…5년쯤 기다리오.》

기대와 호기심이 어렸던 안해의 맑은 눈이 금시 흐려지며 이

슬이 맺히였다. 안해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맥없이 까닥인 다음 인차 고개를 돌리였다. 군인의 안해로서 이런 일을 여러번 당해왔으나 역시 가슴저리게 하는것이였다. 그것도 여느때와는 달리 며칠,몇달도 아니고 5년이라니? 5년이라는 말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들렸지만 더우기 남편의 말투에서 울린 비장감이 어쩔수 없이 눈물을 자아내는것이였다. 그 보기 좋던 머리숱도 어느덧 버성겨 지고 귀밑머리가 희끗해진데다 어깨도 좁아지고 몸매도 작아진듯한 안해였다.

안해는 허둥거려지는 그속에서도 승용차에 오르는 남편을 위해 조용히 웃음을 지어보였다.

차를 타고 남포로 달려 오면서 송철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안해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던가고 생각해보았다. 이렇다 하게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5년이라는 말을 해서 부질 없이 안해를 울리였는가고 랭정하게 따져 보았다. 무엇이라고 설명할길이 없었다. 그대신 그는 다만 가슴가득차있는 그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불안과 초조를 주는 비장감을 느끼였을뿐이였다.…

송철만은 무심결에 또다시 책상우의 담배를 쥐여 물었다가 도로 놓았다. 그리고는 가슴속에 열탕같은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해! 너는 태고적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음이 없이 제멋대로 광란과 횡포를 자행해 왔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을것이다. 이미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결심하시고 무적의 우리 인민군대가 전격전에 들어선 이상 너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 어차피 너는 우리의 의지를 따르게 될것이다.)

그때 밖에서 누군지 성급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온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부리부리한 눈에 열기가 번뜩이는 40대의 건장한 대좌였는데 거수경례와 함께 16해상 돌격대장 정대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

철만은 일어나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앞상에 마주 앉으며 물었다.

《그러니 동무넨 가물막이공사를 담당했겠구만.》

《그렇습니다.》

《동무네한텐 래일 가보려했는데… 그래 공사는 잘되고 있소?》

《잘되지 않습니다. 철배가 보장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철배란 김철에서 나오는 12미리메터 후판으로 만든 수천톤짜리 거대한 정통묶음을 말하는데 수심이 깊은 끝살부리와 피도 사이의 5리 구간을 그러한 원통식 묶음철배로 둘러막아 언제를 축성하는것이 곧 가물막이공사였다.

《철배는 남포조선소에서 만든다는데 왜 그렇게 보장 안되오? 후판이 걸리는가?》

《후판이 문제 아닙니다. 지금 조선소에서 10월 10일에 진수할 1만 5천톤급 대형짐배를 건조하느라고 우리 철배같은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수가 있나? 사정이 그렇다면 문제를 세우던가 하다 못해 부대를 이끌고 나가 제손으로 만들어라도 와야지. 앉아서 보장해 주기만 기다리면 부지하세월이지 공사는 언제 한단 말이요?》

철만은 저도 모르게 신경이 돋아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철은 흥분하여 주먹으로 앞상을 탕- 치기까지 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번만 제기한줄 압니까? 조선소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가서 만들어 오겠다, 그러면 조선소사람들도 견해를 바꿀게다, 우린 용접력량을 다 모아 돌격조까지 조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국장동무가 어디 승인합니까? 저는 사실 그때문에 왔습니다.》

《부국장동무는 왜 승인 안하오?》

《전례를 만들어 버릇을 굳힐 필요가 없다는거지요. 10월 10일에 배를 진수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내원…》 이미 감정마찰이 좀 있었는지 정대철은 부국장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철만은 생각에 잠겼다. 정대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부국장의 견해를 옳은것이라고 볼수 없었다.

《알겠소. 또 무슨 문제가 있소?》

《우리도 공사용 자동차가 한 서너대 더 있어야겠습니다. 명칭이 해상돌격대라고 예선이나 잠수배같은것만 있으면 되는줄로 아는지 자동차를 영 주지 않는데 기재를 운반하자 해도 그래 차를 쓸 일이 끝없이 제기됩니다.》

《지금 거기서 가지고 있는 차는 몇대나 되오?》

《가지고 있는건 한 열댓대 되지만 그건 후방물자나 음료수 운반을 하재도 모자랍니다.》

철만은 책상에 가서 사업노트를 가져다 첫장을 번져 정대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간략하여 써넣었다.

《또 어떤 문제가 걸렸소?》

《걸린것들은 많지만 중요한건 철배와 자동차입니다. 이 두가지는 당장 풀어 줘야 일이 될것 같습니다.》

철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토론해서 가능한껏 해결하자고 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해상돌격대장과는 배짱이 맞을것 같다.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일욕심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목표를 알려 주면 걱정할것이 없다.

그런데 그 일감이 문제아닌가?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직 속단할것은 못되지만 이 며칠간의 인상만 가지고도 생각했던것보다 일이 그리 잘된다고 볼수 없었다. 강충일중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령남리와 피도를 련결하는 15리구간의 기본언제공사와 1기, 2기로 나뉘는 대형함형부재생산, 끝살부리와 피도사이의 바다를 둘러막는 가물막이공사는 갑문건설의 《삼두마차》였다. 그런데 그 세개의 마차중 두개 즉 함형부재생산과 가물막이공사는 아주 멈춰 섰거나 멈춰 설 운명에 처해 있었다. 건설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되였다. 그것은 우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립체전의 원칙과 맞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해서는 당에서 바라는대로 갑문을 제 기일내에 완공할수 없을것이였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 그는 자신이 건설국장으로서 무엇부터 해야 할것인가가 떠오르면서 선이 그어지는것 같았다. 정대철이 돌아

간뒤 철만은 부국장 황석전을 불렀다.

《정무원 지휘부와 공사추진문제를 협의하자고 한게 언제요?》

황석전이 사업노트를 놓고 걸상을 당겨 앉기를 기다려 철만은 담배부터 권하며 물었다.

《모레 오후로 계획되여 있습니다.》

《모레? 그걸 래일 오전으로 당기시오. 그리고 그 협의회에서 우리는 중단된 함형부재장공사를 다시 살리고 16해상돌격대에 철배를 빨리 보장해 주는 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해야겠소.》

《아니, 함형부재장을 다시 살린단 말입니까?》

황석전은 놀라운지 눈이 다 둥그래졌다.

《나는 그래야 한다고 보오. 갑문을 5년동안에 완공하자면…》

《그건 그렇다 해두 지금 형편에서 함형부재를 살린다는것이 곧 기본언제공사를 그만큼 죽이는걸로 됩니다.》

《기본언제를 좀 늦추더라도 부재장은 살려야겠소. 모든 공사대상들을 다같이 밀고 나가면서 립체전을 하라는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세워 주신 원칙이요. 벌써 강조한바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에서 바라는 완공기일을 보장하지 못하오. 이걸 명심하시오.》

철만은 범상한 어조로 간단히 말했지만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세워 주신 립체전의 원칙을 기어이 관철할것이며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부국장도 그것을 느꼈는지 심중한 표정으로 묵묵히 담배만 피울뿐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송철만은 갑문건설국장으로서의 첫 결심채택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한 다음과 같은 명령서를 작성하여 관하부대들에 떨구게 하였다.

1. 함형부재생산을 담당한 522군부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입선 철길공사장에 한개 대대 인원만 떨구고 기본력량을 부재장건설과 함께 시험부재생산준비에 진입할것.
2. 기본언제공사를 담당한 102군부대는 현재의 공사속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두개 대대력량을 투입하여 10월 10일까지 토량확보를 위한 6만산대발파준비를 완료할것.

3. 가물막이공사를 담당한 16해상돌격대는 연공들과 잠수병들을 제외한 기술인원들로 철배생산돌격대를 조직할것.

4.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 제5수송대참모부는 수송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것이며 빈차운행을 없애고 수송편대활동을 강화할것.

— 각 군부대, 독립구분대 참모부들은 음료수운반에 동원되는 수송차대수의 절반을 떼서 제5수송대에 넘겨줄것.

— …

상기 명령서를 작성하면서 특히 수송차문제와 관련하여 송철만은 두사람과 부딪쳤다. 부국장 황석전이 그 첫사람이였다.

《수송문제야 총참모부를 쑤셔서 수송대를 하나 더 받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전망적으로 봐서도…》

부국장은 총참모부에서만도 근 30년을 복무하면서 참모일군으로 언제나 타산이 밝고 예견이 정확하였다. 그러나 송철만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총참모부를 쑤셔 봐야 안되오. 나도 행여나 해서 어제밤 전화질 좀 해봤는데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 기동준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군사위원회명령까지 떨어져서 안된다오.》

《그렇다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려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런 론의가 오늘 처음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부국장은 수송문제는 우로부터 해결 받아야 한다는 립장이였다. 그러나 송철만은 견해를 좀 달리하였다. 갑문건설이 한두해에 끝날 일도 아니거니와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이게 걸렸소, 저걸 풀어 주시오 하고 우에 손부터 내민다는것이 우선 마음싸지 않았다. 그것은 또 전술적으로도 잘하는 일이라고 볼수 없었으니 군대가 맡은 이상 남포갑문건설은 반드시 승리로 결속해야 하는 하나의 큰 《전투》로서 그 자신으로 놓고 볼 때 이 《전투》에도 예비대가 필요하였다. 그는 그 예비대를 바로 우에다 손을 내밀어 부족되는 건설력량이라든

가 건설기자재 같은것들을 받는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험있고 로련한 사령관은 전선에서 많은 희생이 있고 지어 전선을 돌파 당하면서까지도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예비대는 아끼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포갑문건설전투의 결정적시각은 아직도 멀리 앞에 있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에는 예비대를 사용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그런만큼 서둘러 지금부터 예비대를 요구해서는 안되였다. 부국장이 벌써 여러번 총참모부를 쑤셔 수송부대를 하나 더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직 국장으로서 그에 응하지 않고 있는것은 바로 그러한 나름의 타산이 있기때문이였다. 한마디로 현단계에서는 걸리는 문제를 될수록 우에 손을 내밀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로 풀자는 립장이고 그렇게 할 방도가 노상 없는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부국장을 그렇게 납득시키니 이번에는 정치부장 리응천이 깜짝 놀란듯 눈이 둥그래져 가지고 달려 왔다.
《아니, 국장동무, 전사들을 몽땅 간물에 절궈낼 작정입니까?》
《…》
철만은 그가 벌써 무슨 말을 하자는것인지 짐작이 가서 대꾸하지 않았다.
《예순두대가 뛰여도 〈소금밥〉을 먹는 구분대들이 많은데 거기서 절반을 떼내면 차가 없는데선 물을 등짐으로 져 날라야지 않겠습니까?》
《등짐으로 져다 먹더라도 공사를 내밀자면 별수 없소.》
정치부장앞에서 그렇게 드티지 않고 말한 송철만은 참모장을 불러 이렇게 지시하였다.
《국지휘부에 음료수를 보장하는 수송차도 두대를 오늘중으로 5수송대에 넘기시오.》
《그럼 참모부군관들이 〈소금밥〉을 먹습니다.》
《먹기요. 전사들이 〈소금밥〉을 먹는데 우리라고 안 먹으면 되겠소? 집행하시오.》
《알겠습니다.》

9

집무실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창문으로 흘러 든 오후의 해빛이 주단을 깐 바닥과 벽들을 환히 비쳤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보신 문건들을 비준하여 밀어 놓고 중앙기관일군들의 혁명과업수행정형자료를 당겨다 펼치시였다. 읽어 보신 결과 자료의 대부분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이룩한 성과와 그 과정에 발휘된 훌륭한 소행들이였다.

부정자료의 경우에는 좀 무겁다는것도 정치적성격을 띤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주로 조직생활의 빈틈이나 사업작풍 아니면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를 잘못한데서 발생한 실무적 결함들이였다. 한마디로 종합된 자료는 우리 일군들이 당조직생활에 매우 성실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도 맡은바 책임을 다 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이의 기쁨은 인차 놀라움으로 바뀌였다. 한 일군의 생활자료가 심각한 문제들로 일관되여 있었기때문이였다. 당사자는 다름아닌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이였다. 사업상 성과나 우점은 단 한줄도 없이 옹근 두세페지에 걸쳐 결함뿐인 자료를 요약해 보면 그는 우선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매우 무책임하였다. 남포갑문건설 예산안작성은 지난 봄 건설부지를 확정하던 날 수령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과업이였다. 그러나 그는 이 책임적인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것은 물론 예산안 자체는 건설기한이 (초기의 20년으로부터 15년,10년으로까지 압축되기는 했지만)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종내 기각되는 결과를 빚어 냈다. 그가 범한 또 하나의 실책 역시 남포갑문건설과 련결되여 있었다. 즉 그는 정무원지시로 31,32화학건설련합기업소에서 남포갑문건설장에 넘겨 주기로 된 콘베아수송선과 모래압송기를 《갑문건설장에는 아직 이런 기계가 필요없

다》고 하면서 정무원 해당 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주관적으로 태천발전소건설장에 돌려 놓음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뿐만아니라 그는 남포갑문건설을 시작한 초기 현지에 나가 정무원 지휘부를 책임지고 일할데 대한 위원회행정의 요구에 《갑문건설장에는 당장 나가야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상기 두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조직은 그것을 당이 매우 중시하는 대상건설에 대한 불손한 태도, 요컨대 아주 좋지 못한 사상경향으로 분석하면서 집행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업과 생활을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남포갑문건설장에 내보내여 일정한 기간 혁명화시킬것을 제의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의 마감페지를 그냥 펼쳐 놓은채 일어나 천천히 집무탁앞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윤상설부위원장으로 말하면 그이께서 벌써 오래전 비단섬건설장에서부터 알고계시는 파악이 깊은 일군이고 그 자신 한생을 수리건설에 바쳐 오면서 일도 많이 한 사람이였다. 그런 일군이 남포갑문건설에 이르러 수령님의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하여 말밥에 오르고 책벌문제까지 론의되니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위원장이 범했다는 과오들을 되새겨 보시였다. 그가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과업인 남포갑문건설예산안을 잘못 작성함으로써 심려를 끼치고 기각된 문제는 이미 알고도 계시거니와 그와 관련해서는 리해되는바도 있으시였다. 리해되지 않는것은 남포갑문건설에 대한 무관심성이였다. 무엇때문인가?

왜 그토록 갑문건설에 랭담한 태도를 보이는가? 혹시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만든 예산안이 부결되고 5년안이 채택된데서 어떤 불만감을 느끼거나 우리의 의도를 받들 생각이 없는것은 아닐가? 당사자가 20년안을 주장하던 사람이고 보면 나타난 현상을 그렇게 분석하여도 무방할것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문제를 그렇게 일면적으로 보고 싶지 않으시였다. 물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윤상설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은 매우 엄중하게, 해당 당위원회가 평가하듯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사상경향의 발로로 분석될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건설위원회 당조직의 분석이나 책벌제의는 원칙적이라는 점에서는 탓할바가 아니였지만 일면적으로 문제를 너무 랭혹하게만 보며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것이였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혀 달리 론리를 세우시였다. 그렇다. 윤상설부위원장의 소행을 꼭 과오라고 보는것은 지나치며 원칙에 모순되는바도 없지 않다. 왜 그것이 과오로 되는가?

한 일군이 수령님의 원대한 뜻과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자신의 견해를 미처 따라 세우지 못한데서 생긴 일시적착오라고 보아도 충분할것이 아닌가. …

보매 윤상설은 아직도 자기의 묵은 견해에서 채 탈피하지 못하고 당에서 제기한 5년안에 대한 확신도 못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능력 있는 건설일군이였다.

특히 수리건설분야에서는 견줄 상대가 없을만큼 깊은 지식과 실천경험을 겸비한 사람이였다. 그런 능력자를 직무에서 떼내는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볼수 없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우에 엇걸었던 팔을 풀며 집무탁에 다가가 송수화기를 드시여 리영선부부장을 찾으시였다. 리영선은 건설운수사업을 담당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였다.

《부부장동무는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동무가 이런저런 결함들을 범하고 그때문에 당총회에서 되게 비판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범한 실책속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부장의 어조에서는 주눅이 느껴 졌다.

《그렇다면 좀 들어 봅시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조직에서는 그의 사업을 정지하고 결함들이 주로 산생된 그 남포갑문건설장에 내보내 혁명화시키자고 제의해 왔는데 부부장동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를 꼭 그렇게 처벌해야 할것 같습니까?》

심중한 물음이고 또 쉽게 대답할수 없는 문제여서 부부장은 적

지 않게 시간을 끌고서야 그것도 매우 힘들게 입을 열었다.

《윤상설동무가 그렇게 된데는 제때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한 저와 부서의 책임도 많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더구나 갑문건설장에서 혁명화를 시킨다는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너무 가혹하다.… 그럼 부부장동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리영선은 또 잠시 시간을 끌고서야 조심스레 대답하였다.

《꼭 혁명화를 시켜야 한다면… 거기 건설장 정무원지휘부에 내보내여 시공지도라도 하게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부장의 생각이 자신의 의도에 점점 가깝게 접근해 오는것이 기쁘시여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부부장동무, 이렇게 하면 어떨것 같습니까?

내보기에 윤상설동무는 아직 낡은 계획안에서 채 벗어 나지 못하고 또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할수 있다는데 대한 신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갑문건설장에 내보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신적고충은 또 얼마나 크겠고… 나는 그가 상무그루빠를 책임지고 나갈데 대한 조직적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은것도 그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를 태천에, 태천발전소건설 〈고문〉으로 내보내 현장에서 지도사업도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정신도 배우고…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지도자동지! 정말 명안입니다. 윤상설동무가 알면 아마 몹시 감사해하며 결심도 새로와 질것입니다.》

부부장은 깊은 감동속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윤상설부위원장의 문제를 그렇게 결속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바꾸어쥐고 함께 화제를 돌려 인민군설계연구소에서 맡은 남포갑문설계추진정형에 대해 문의하시였다. 부부장은 군대의 설계가들이 그간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기본언제설계를 비롯한 소요되는 설계의 근 70프로를 완성하여 국가심의에 제출

했거나 시공자들에게 넘겼다고 하였다.

《벌써 70프로를 완성했으면 대단하구만.》

《대단합니다. 2년분 과제를 다섯달 남짓한 기간에 수행한것으로 됩니다.》

《2년분 과제를 다섯달에… 역시 군대가 다릅니다. 인민군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이 정말 큰 일을 해제꼈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잊지 말고 때가 되면 표창도 잘해야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송수화기를 바꾸어 쥐며 의논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부부장동무, 나는 그 설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완성된 설계를 말입니까?》

예견못한 문제라 부부장은 사뭇 의아한 어조로 반문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미 시공에 들어간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기본언제설계를 비롯해서 아직 시공에 들어가지 않은 설계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것은 이건 설계자들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검토가 아니라는것입니다.》

《?…》

《나는 송철만소장에게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할 과업을 주고 무엇으로 어떻게 그를 도와줄가 하고 그새 여러모로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성되였다고 하는 설계들속에 예비 특히 시간예비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는데… 부부장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혹시 품만 들이고 수확을 못 거두는 농사처럼 되지 않을가요?》

《급히 작성한 설계들이여서 검토해 보면 수확이 아주 없진 않을것 같습니다. 갑문건설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설계를 검토시키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검토가 객관성을 띠고 건설에도 실질적리득을 줄것입니다.》

부부장과의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10

《2월17일과학자돌격대》숙소는 정무원지휘부에서 얼마 멀지 않은 령남리의 나지막한 언덕밑에 자리잡고 있었다.

낮 2시경, 돌격대 대장으로부터 출장임무를 받고 숙소로 돌아 온 유정은 려행가방부터 꾸려 놓고는 침대우에 거울이며 수건이며 화장도구를 벌려 놓고 앉았다.

한호실에서 생활하는 정무원지휘부 타자수처녀 능금이가 들어온것이 바로 그때였다. 능금이는 남포시내의 어느 기관에서 동원되여 온, 아직 소녀티를 다 벗지 못한 중발머리의 애숭이였다. 그렇다고 이 처녀를 철부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당돌한가 하면 생활상 물계에 들어서는 막히는데가 없어서 유정이조차 많은것을 묻고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녀성호실의 《장관》이였다.

《어마나! 이게 어찌된 일이예요?》

능금은 놀라움을 드러내며 건너편 자기 침대에 와 이쪽을 향해 걸터 앉았다. 유정은 그가 왜 놀란다는것을 알면서도 《뭘?》하고 딴전을 피웠다.

《언니가 화장을 다 하니 말예요.》

《왜, 난 화장하면 안되니?》

유정은 연필끝으로 입술가생이의 선을 그으며 무심히 물었다.

《안될건 없지만 언니 같은 미인이 화장까지 하고 나서면 나 같은 밉상이야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자신도 인정하는것처럼 사실 그는 똑똑하고 성격이 좋은데 비해 용모가 별로 곱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유정은 처녀를 고무하였다.

《애, 그런 말 말아. 네가 왜 밉상이야? 넌 미간이 약간 넓은건 흠이지만 그대신 뺨과 입은 얼마나 곱게 생겼니… 세상에 미

인으로 소문난 이딸리아의 쏘피아 로렌이라는 녀배우가 뭐랬는지 아니? 〈어떤 녀성이나 자기의 용모에 신심을 가지면 어느때든지 인정받게 된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밉게 본다.〉 그러니 너도 자신을 곱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피, 암만 그런다고 이 안장코 능금이가 미인으로 될가?…》

《자신심이… 중요하다니까…》

연필끝으로 입술가생이를 긋느라고 유정의 말은 토막으로 끊기였다.

《그게 사실이면 신심을 가져는 보겠어요. 그런데 언닌 갑자기 웬일이예요? 혹시 곱게 차리구 어디 애인 만나러 가자는게 아니예요?》

쪼끄만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다. 유정은 거울에 화장이 끝난 얼굴을 이쪽 저쪽 비쳐보며 건성 대꾸했다.

《출장 간단다.》

《어딜요?》

《평양에…》

유정은 당장 래일부터 한달 가까이 인민대학습당 열람실에 박혀 방대한 과학기술문헌들을 뒤져야 하였다. 최근 10여일간 갑문건설에 동원된 과학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받들어 시공중에 있는것을 제외하고 국가심의를 걸쳐 내려 온 설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 많은 합리화안들이 나오고 자재와 로력, 시간예비가 발굴되였는데 그중에서도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들이 기본언제설계에서 발견한 만년주기 대홍수를 예견하여 기본언제에 배치한 보조무넘이를 갑실쪽에 이동 배치할데 대한 착안은 수리공학사상 전례가 없는 매우 대담하고 독창적인것이였다. 만일 이 방안이 과학적증명을 거쳐 실천에 도입되는 경우 수만톤의 강재와 세멘트, 수십만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게 되는것은 물론 시공기일을 근 1년반가량 단축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방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현실에 도입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았다. 잘못하면 1년반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잃어 버

릴지도 몰랐다. 그렇다해도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서는 그 귀중한 착안을 실천에 옮길 목표를 세우고 착안자들인 수리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을 기본으로 30명의 연구집단을 무었다. 유정이도 그 연구조에 배속되였다. 그가 받은 당면한 과제는 외국어에 능한 림도환박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추세로 되고 있는 무넘이언제의 배치형식을 수집조사해 오는것이였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것 같아 몸에도 계절에도 꼭 맞는 미색양복을 떨쳐 입은 그는 능금이의 바래움을 받으며 숙소를 나와 수송부대를 향해 걸었다. 거기 가면 남포역으로 나가는 군대수송차를 쉽게 얻어 탈수 있었다. 그러나 구태여 수송부대차고까지 가지 않아도 되였다. 남포화물역으로 나가는것이 분명한 마주 오는 《태백산》호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인차 세워 주어 운전칸에 오를수 있었다. 수송차가 달리는 길 좌측으로는 공사중인 인입선철길이 뻗어가고 우측에서는 군인들이 한창 송전선공사를 하고 있었다. 마가을바람을 안고 힘차게 나붓기는 오색기발들, 구호판과 속보판의 숲, 방송차에서 울려 나오는 격동적인 호소…

《젠장!》

운전사가 역증을 내며 제동기를 밟는 바람에 유정은 옆창에서 눈길을 떼고 앞을 내다보았다. 저만치 길 한복판에 신호기발을 든 군인이 서 있었다. 그 군인의 코앞까지 접근하여 차를 세운 운전사는 옆창으로 상반신을 내밀며 거칠게 물었다.

《뭣때문이야?》

차앞을 막아 선 군인은 신호기발로 뒤쪽을 가리켰다.

《길을 끊었네. 잠관을 묻느라구…》 그러니 한시간가량 기다려야 한다는것이였다.

《젠장, 하는수 없지. 기다리는수밖에.》

운전사의 배포유한 소리에 바빠난것은 유정이였다. 벌써 4시가 넘었다. 평양으로 들어 가는 신의주행을 타려면 한시간반의 여유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기차가 떠날 시간에나 역에 도착하기 십상이였다. 무슨 방도를 찾아야지 안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차에서 내려 도로가 끊어 진 지점으로 가보았다. 그러

나 길은 아직 다 끊기지 않고 지금 한창 파들어 가는 중이였다. 신호병은 한시간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잠관을 묻고 길이 열리자면 좋이 두시간은 걸려야 할것 같았다. 유정은 곡괭이질을 하다가 방금 구뎅이에서 나온 내의바람의 군인에게 접근하여 지휘관의 행처를 물었다.

《대대장동지는 저기 계십니다.》

군인의 손이 가리키는 저만치 구뎅이 건너편에 두 군관이 지도 같은것을 땅바닥에 펴놓고 마주 앉아 있는것이 보였다. 흙무지를 돌아 그들 두 군관에게로 다가간 유정은 남의 일을 방해하는것이 미안하여 잠시 머뭇거렸다. 마침 그때 한 군관(대위였다.)이 인기척을 느끼고 쳐다보는 바람에 유정은 얼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부터 하였다.

《누구한테 왔습니까?》 대위의 물음이였다.

《대대장동무를…》

대위와 마주 앉았던 군관은 그제야 얼굴을 들었다. 처음에 유정은 그 군관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저 (어디서 본것 같은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뿐이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찌르는듯 예리한 눈길을 받는 순간 그는 놀랐다. 놀랄수밖에 없는것이 그 군관은 다름아닌 언젠가 골재장구역에 우물을 파는 문제때문에 서로 다툰적이 있는 바로 그 소좌였다.

《안녕하세요?》

당황한 자신을 재빨리 수습하며 유정은 알은체를 했다. 그러나 소좌는 전혀 초면인것처럼 일어나며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엇때문입니까?》

우물사건때문에 축적된 감정도 있겠다 나오는 태도를 보아 십중팔구 거절당할것이 틀림없다고 미리 단정하면서도 이왕 내친걸음이라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소좌는 벌써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을 띄우며 거절할 말을 찾느라고 그러는듯 잠간 고개를 돌려 주변의 흙무지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1중대장을 불렀다. 이마에 땀이 번질거리고 삽자루를 쥔 내복바람의 군관이 왔다.

《한쪽 가녁을 도로 메우고 이 녀성동무의 〈승용차〉를 통과시켜 주라구.》

상관의 지시라 알겠다고 접수는 하면서도 속은 편안치 않은지 중대장은 돌아서며 얼핏 흘겨 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고마워요.》

유정은 《우물사건》때 다툰 미안함까지 포함하여 진심으로 사례하였다. 그러나 소좌는 묵은 감정을 풀려고 하지 않는듯 싶었다.

《그런 인사치레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

녀자손님이 저만치 멀어지기를 기다려 정치지도원 리종각은 이왕이면 왜 말을 그렇게 비문화적으로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건호는 그의 불만을 리해할수 없어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고 되짚어 물었다.

《그럼 그게 잘한 말입니까? 침묵이 금값이라구. 정 말하기 싫거든 가만히나 있을게지 고맙다는데다 면박을 주니… 대대장동무는 그게 결함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구야 처녀들이 무슨 재미루 상종하자겠습니까?》

녀자문제에선 덮어놓고 자기를 잘못한다고 비난하며 훈계가 많은 정치지도원이였다. 그러나 오늘만은 수하관병들도 있고 해서 아주 신중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건호였다.

《남의 사정을 모르면 좀 가만 있소. 이자 그 녀자 누군지 알기나 하며 그러우? 그게 바루 전번에 우물터에서 싸웠다는 그 연구사란 녀자요. 그런 녀자한테 기차를 타게 해줬으면 됐지 뭐 인사대접까지 해보내겠소?》

리종각은 그제야 깨도가 된듯 벌써 저만치 수송차앞에 가 있는 녀자손님의 뒤모습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겨냥해 보는것이였다.

《저쯤한 녀자라면야 한번 싸워 볼만도 하지요.》

윤건호는 (이 량반이 또 무슨 《녀성론》을 펼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닐세라 그는 벌써 표정부터 심각해 지며 괜찮

은 측면은 대략 세가지로 분석할수 있는데 첫번째 우점은 우선 녀자가 아주 쌀쌀해 보이는것이 좋다는것이였다.

《초겨울날씨처럼 저렇게 쌀쌀한 녀자일수록 일단 사랑을 시작하면 무섭게 뜨겁습니다. 부모들이 혼사를 반대한다고 애인과 같이 보따리를 싸들구 집을 나간 녀자들이 있었다는 말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부모들도 후에 다 리해하지요. 열렬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종당에 가서 승리하는 법이지요.》

건호는 허망한 소리라고 생각되면서도 귀맛은 당겨서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고 반박하지 않았다.

마침 휴식이 선포된데다 리종각은 그가 잠자코 담배만 피우는것이 납득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본격적으로 자기의 《리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녀성의 미는 대략 세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정신미와 성격미와 육체미로… 이 세가지 아름다움을 다 갖춘 녀자란 실지 드문데 이자 그 녀자에게서는 어쩐지 바로 그 세가지 미가 다 있는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녀자와 함께라면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더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수 있다지 않습니까.》

건호는 그의 말에 공감되는바도 없지 않았다.

우물문제때문에 싸울 때도 얼마간 느껴 지기는 했지만 오늘 보니 그 녀자는 이게 그때 그 녀자가 옳은가 하고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다. 그때에는 가시같이 보이기만 했는데 밝고 부드러운 성정이 어린 그의 얼굴모습이 오늘은 몹시도 가슴을 흔드는것이였다.

《그런들 어찌겠소. 그림속의 선녀지. 아마 저런 녀자의 애인은 못해도 학사쯤은 될거요. 과학자니까…》

자격지심의 발로라고 할지 건호는 저절로 한숨이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리종각은 그건 녀성들의 세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단호히 부정했다.

《아닙니다. 단언하는데 이자 그 동문 아직 애인은 없습니다. 그 눈을 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애인이 있는 녀자의 눈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한데 대대장동무는 우선

사랑에 대한 견해와 관점부터 옳게 세워야겠습니다. 저쪽이 과학자라고 먼 하늘의 별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고르다간 정말 바보처녀한테 장가 들기 쉽습니다. 과학자면 뭐 어떻단 말입니까. 저런 녀자일수록 사나이다운 사나이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과학이나 리론하구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건 감정과 정열로 하는겁니다. 이걸로…》

리종각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요컨대 사랑의 원천은 심장에 있다는 소리였다.

건호는 그의 달변에 감탄할수밖에 없었다. 제 말대로 리종각은 그야말로 《녀성전문가》였다.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그에게는 처음 보는 녀자들이라도 열이면 아홉의 나이며 취미를 알아 맞추는 재간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곡절과 결혼후 자식들의 일까지 예언할줄 알아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가문안에 《관상쟁이》가 있는 모양이라고 비웃어 주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실은 입대전에 어느 견방직공장에서 기대수리공으로부터 시작하여 녀성들속에서 사로청사업을 한데다 군관이 되여서는 부대참모중대 정치지도원을 몇해 하면서 녀성들과 하도 많이 대상해 본 경력이 그런 괴이한 능력을 키워준것이였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한번 접근전을 해보십시오. 정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전권을 위임해도 좋고…》

설복의 힘이란 이런것인가?… 건호는 아직 딱히 무어라고 찍어 말할수 없는 어떤 희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것을 느꼈다. 이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사랑을 감정과 심장으로만 이룰수 있는것이라면 한번 접근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십중팔구는 실패할것이다. 하지만 어이 알랴. 운명이 도와서 혹시 뜻밖의 성공을 거둘련지…

《전권을 위임한다면 정말 자신이 있소?》

리종각은 히죽 웃기부터 하였다.

《대대장동무, 우선 한가지 물읍시다. 대대장동무가 아예 손을 들고 말았던 3중대 오명남이를 누가 모범전투원으로 만들었습니

까? 사람과의 사업에서 부대적으로 성과를 올린것이 내가 무슨 수완이 있어서겠습니까. 진심이면 모든게 풀린다는 믿음이 있어서지요.》

《거야 그렇지. 하지만 사랑문제야 다르지 않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데는 다 같습니다. 진심, 정열… 그러니 자신 있는가 없는가 하는건 최종적으로 대대장동무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마음에 차는가 안차는가 하는건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윤건호는 그가 자기를 너무 수준이하로 보는것 같아 약간 화를 냈다.

《여보, 난 뭐 눈이 먼 놈인줄 아오? 저런 녀자를 싫어 할 사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그의 고백은 진정이였다. 초면에 서로 모욕적인 말까지 해가며 다투기는 했지만 그 다툼이 오히려 마음속에 자취를 새겼다고 할지, 그날 이후로 그 녀자와의 언쟁을 회상할 때마다 그는 감정이 좀 이상해 지는것을 느꼈다. 뿐더러 간혹 지나가는 사민녀성들속에 혹시 그 녀자가 있지 않을가 해서 은근히 살펴 보기도 하는 자신을 깨닫고는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며 쓴 웃음을 지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럼 됐습니다. 내게 한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걸루 신세부터 한번 지고 봅시다.》

리종각은 군복 웃주머니에 허리를 접은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저녁에 부대정치부에 갔다 올 일이 있다기에 부쳐 달라고 한, 집에다 수리공학교재를 빨리 구해 보내라는 건호의 독촉편지였다.

《그거 가지구 뭐 어쩐다는거요?》

《오늘 밤이면 이 편지도 그 녀자도 다 대대장동무네 집에 도착할겁니다. 그다음부턴 문제가 다르게 발전하지요.》

리종각은 자신 있는 걸음으로 벌써 저만치에 가 있었다.

그러나 건호는 믿지 않았다. 집에 편지는 전해 줄수 있겠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11

여기는 서해변의 어느 초대소이다. 오늘 이곳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및 비서들이 참가한 모임이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참석하시여 오후 시간이 다 걸린 모임에서는 당 제6차대회이후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총화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1년간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승리의 1년이였다고 긍지높이 평가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이 옳으시였다. 돌이켜보아 지난 1년간 우리의 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더욱 철통같이 뭉쳐졌다. 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는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풍모로 되고있다.

지난 1년간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 3년분 과제를 이미 1980년에 앞당겨 끝낸 우리의 공업은 지난 1년간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적극 다그쳐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10대 전망목표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비약의 발판을 튼튼히 마련해 놓았다. 특히 지난 10월 초순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당,전국,전민을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에 불러 일으키고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을 당결정으로 채택한것은 특기할 사변이였다. 전원회의가 제시한 이 4대과업이 실현되면 조국은 또한번 자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게 될것이였다.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당 제6차대회 이후 **김정일**동지께서 당, 국가사업전반을 장악하고 비상한 정력과 세련된 지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 결과라고 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거듭 강조하시였다. 모임은 저녁 5시경에 끝났다.

수령님께서는 직업동맹 6차대회와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한 준비때문에 초대소에 며칠 더 묵을 예정이여서 정원에 나와 평양으로 들어가는 김일 부주석과 기타 상무위원들을 바래워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 따로 말씀드리고 결론 받을 문제가 있으셨던것이다.

《무슨 문제입니까?》

마감으로 인민무력부장의 승용차가 초대소 정문을 빠져 나가자 수령님께서는 몸을 돌리며 물으시였다.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인들간의 대화가 끝났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오?》

기다리던 소식이여서 수령님께서는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들의 방해책동속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린 회합과정과 행사일정을 개괄하여 설명하시였다.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목표한 이번 해내외동포, 그리스도교인들의 대화는 원래 스위스의 크와트에서 진행하기로 되여 있었다. 해외《공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괴뢰들은 많은 특무들을 파견하여 회합을 파탄시키려고 꾀하였다. 그래서 부득불 대화장소가 오스트리아 윈으로 옮겨지게 되였는데 적들은 거기까지 따라와 대화 주최측의 핵심인사들을 유인랍치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실패하자 비렬하게도 서부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주변나라들에 있던 반공모략

단체의 행동대원들을 끌어다 《시위》를 벌리는 등 온갖 모략과 추태를 다 부렸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어제 전두환역도는 〈국토통일원장관〉을 불러 이번 대화를 파탄시키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북으로 쏠리는 해외동포들의 민심을 원천적으로 막을데 대해 지시했다고 합니다. 〈배달민족회〉 의장 최덕신선생이나 최홍희, 김성락선생들에게 하던 놀음이 수백만 해외동포전체를 상대로 보다 확대심화될것 같습니다.》

대화가 성과적으로 되여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안광에 노기가 어리였다.

《덜된 놈들. 피가 어떻게 돼먹었는지 통일의지는 조금도 없고 온통 비렬한 짓만 일삼거든. …》

괴뢰들은 지난 여름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인 김성락선생이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공화국의 발전모습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에 대해 소개했다고 하여 현지 《공관원》들을 내세워 그를 《불순인물》이니 뭐니 하고 중상모해하였다.

그런가 하면 괴뢰들은 《배달민족회》 의장 최덕신선생의 조국방문설이 나돌자 그를 비방중상하다못해 그가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 가자 서울에 있는 그의 둘째 아들을 《해외취업사기행위》로 몰아 체포령을 내리고 두 딸도 부당한 구실을 붙여 박해를 가하였다. 지어 놈들은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에 대해서는 암살까지 기도하였다.

《…적들의 기도가 그렇다면 선손을 써야 하오. 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데서 성명을 발표하여 놈들의 비인간성, 분렬주의적본성을 폭로단죄할 필요가 있소.》

수령님의 말씀이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합에 갔던 허정숙의장이 돌아오면 인차 기자회견도 가지게 하고 중요하게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옳소. 그게 적들의 면상을 후려쳐 얼떨떨하게 만들고 주동에 서는 방법이요.》

후날 《범민족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수백만 해내외 동포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조국통일운동선상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민족의 대 통일축제는 벌써 이 시기부터 실체를 보이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초대소를 떠나시기에 앞서 수령님께서는 물으시였다.

《6기 4차전원회의 보도가 나간후 중앙통신사에서 입수한 외국사람들의 반영자료를 보았소?》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오. 흥미 있소.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해서는 의문들도 많고… 국제수리학협회 회장 같은 사람은 아주 로골적인데 자기는 인간의 기적을 잘 믿지 않지만 조선에서 남포갑문을 금세기안으로 건설하면 기적으로 일러 주겠다오.》

국제수리학협회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말투는 다분히 야유적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갑문을 완공하면 잊지 말고 그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해다 보여야겠습니다.》

《옳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오. 보고 나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두고 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날이 아주 어두워서야 초대소를 떠나시였다. 차가 한참 달리도록 모임에서 론의된 문제들이며 수령님과 나눈 담화에 대한 생각을 하시던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내 등을 켜게 하고 당 제6기 제4차전원회의 보도에 대한 여러 나라 통신사들의 반향자료를 읽으시였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전달 4일부터 6일사이에 결쳐 진행된 전원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후 전망을 나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

나마 매우 린색하여 어떤 자료는 석출도 되나마나한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원회의에서 결정으로 채택된 우리의 대자연개조사업의 방대함과 결정서에 밝힌 수자들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결과를 부정하는 견해들도 있었다. 에이에프피통신이 전하는 프랑스 수리공학자 로베르 바넬의 발언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한때 세계과학자련맹 프랑스 상주대표직에도 있었고 현재는 국제수리학협회 회장으로서 프랑스와 영국을 련결하는 도바해협 해저횡단 철도를 구상설계하여 세계 일류급의 수리공학자로 인정 받고 있다는 로베르 바넬은 에이에프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최근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남포갑문을 단 5년동안에 건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 인민조선이 계획하고 있는 남포갑문이 어떤것인지 다 모를수 있지만 나는 언젠가 국제수리학토론회에 참가한 조선의 한 전문가로부터 그 건설계획의 륜곽을 들은적이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건설조건이 불리함으로 말하면 6만여명의 희생자를 내며 건설한 빠나마운하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때 나는 그 조선전문가에게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에서는 그 남포갑문을 몇십년동안 건설할 계획인가고 물었다. 나로서는 적어도 반세기는 걸릴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대답이 20년,최소한 15년까지도 예견하고 있다는것이였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어리석은 궤변으로,고무풍선을 타고 별을 따러 가겠다고 하는것처럼 실현불가능한것으로 생각했지만 례절상 그럴수는 없어 이렇게 말해 주었다. 만일 당신들의 계획대로 남포갑문을 20년이나 15년동안에 완공한다면 그것은 세기의 기적으로 될것이라고.…

그런데 조선로동당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완공한다고 공포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할것인가. 내가 현재 할수 있는 말이란 만일 인민조선이 그런 방대한 규모,그런 어려운 건설조건에서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완공한다면 그것은 현세기에 두번 없을 기적중의 기적이라는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리스도교도로서 인간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느님만이 창조할수 있기때문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쓴웃음을 지으시였다.

(이 로베르 바넬이라는 사람은 조선사람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기적은 하느님만이 창조할수 있다?… 이제 두고 보라, 우리의 인민군전사들이, 조선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창조해 내는가를!…) 비록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제 다섯해후면 남포갑문이 반드시 그 웅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일것이다.

승용차는 귀성과 신덕을 지나 벌써 남포시내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갑문건설장에 들려 보기로 작정하신것은 바로 그때였다. 사업이 바빠 자주 나와 보지 못하는데 남포까지 왔다가 그냥 가기엔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시였다. 밤이고 들어 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오래 지체할수는 없다 해도 군인건설자들의 겨울나이차비라도 알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것 같으시였다.

12

…건설장구역에 들어 서면서 도로는 더 나빠 졌다. 주변에서 발파가 있은 모양 가뜩이나 울퉁불퉁한 길우에 돌멩이와 흙버럭이 널려 있어 승용차는 몹시 들추며 힘겹게 전진했다. 웅뎅이를 넘어 설 때면 차밑이 땅에 닿는 소리도 가끔 들렸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로가 그렇게 험하고 차가 들추는데는 개의치 않고 흙먼지를 말아 올리며 분주히 오가는 수송차들과 멀리 불빛으로 구획이 그려 지는 건설장일경만 주의깊이 내다보시였다. 밤인것이 아쉬우시였다.

낮이라면 새로 부설한 인입선철길도 볼수 있고 파헤쳐 진 땅들과 가로세로 뻗어 간 송전선과 도로와 군인건설자들의 작업모습도 볼수 있으련만 지금은 그 모든것들이 어둠속에 잠겨 보이느니 불빛뿐이였다. 하지만 밤하늘의 은하수가 내려 앉은듯 처처에서 야외등무리가 명멸하고 사방에서 발파소리가 울리며 시퍼런 용접광이

장검마냥 어둠을 가르는 건설장의 밤풍경은 또 그것대로 볼 멋이 있었다.

수송차행렬이 좀 떠진 사이로 저만치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는것이 보였다. 무심한 눈길로 그것을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차가 가까이 다가와 전조등불빛속에 들자 앞에 앉은 책임서기에게 물었다.

《저게 리영선동무의 차가 아니요?》

《비슷한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저쪽에서도 무슨 기미를 느낀듯 길섶에 차를 급정거시켰다. 차에서 리영선부부장이 내리였다.

《그러잖아도 같이 왔으면 했는데 마침 잘 만났습니다.》

차는 뒤따르게 하고 부부장은 그이의 승용차에 옮겨 앉았다.

《송철만동무가 이쪽에 있는것 같습디까?》

그이께서는 가능하면 그도 만나보고 가실 작정이였다. 그런데 리영선은 국장이 건설장에 없다고 하였다.

《…갑문건설장으로 들어 오는 물동이 사리원역에서 많이 지체되는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풀자고 오후에 사리원으로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리원역에서 물동이 지체되면 그건 그만큼 갑문건설이 늦어진다는 소린데… 철도부장에게 이야기해서 갑문건설장으로 들어오는 물동을 먼저 뽑아 주는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리영선은 그이의 말씀대로 인차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도로가 갑자기 세가닥으로 갈라 졌다. 부부장의 설명에 의하면 가운데 길은 토취장과 6만산발파현장을 결쳐 기본언제공사장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발전소와 중량부재장,우측 갈래는 대형합형부재장과 련결되여 있었다. 승용차는 우측길로 꺾어 들었다.

건설자들의 생활구역에 빨리 가닿자면 그쪽이 보다 가까왔다.

그러나 차는 얼마 못 가서 멈춰 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작업복차림에 군모를 쓴 웬 어린 전사가 도로복판을 막고 서서 손에 쥔 신호기발을 추켜 들어 차를 세웠던것이다. 리영선이 차문을 열고

한쪽 발로 땅을 짚고 서서 전사에게 사유를 물었다. 전사의 대답이 인차 발파를 하기때문에 차고 사람이고 일체 통행금지라는것이였다.

《전사동무, 바빠서 그러는데 발파전에 얼른 통과하면 안될가?》

리영선이 한번 사정을 들여보았다. 그러나 차단병은 두말 못하게 딱 잘라맸다.

《안됩니다. 기다려야지…》

《허, 이 동무 봐라, 바빠 그런다는데…》

그 말에 차단병은 한술 더 떴다.

《헹, 암만 바쁘면 우리보담 더 바쁘겠습니까? 우린 이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해야 합니다. 뭐 눈코 뜰새나 있는줄 압니까?》

말하는 품이 록록치 않은 전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부장에게 사정해 봐야 통할것 같지 않으니 기다리자고 말씀하시며 차에서 내려 차단병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리영선부부장이 길을 안내하듯 몇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전조등을 마주한 관계로 전사는 눈을 꺼벅거리다가 어둠속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온분들이니 례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듯 끈을 목에 걸어 배앞에 드리운 물통을 허리옆에 돌려붙이고 차렷자세를 취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의 인사에 수고한다고 답례하시며 무슨 발파인지 밤에 하자면 위험하겠다고 걱정하시였다. 그런데 전사의 대답이 자못 대범하고 호기로왔다.

《뭐, 위험하다고 할 일을 못하겠습니까? 일없습니다. 우리 갑문건설장엔 밤과 낮이 따로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밤낮이 따로 없으면 잠은 언제 자나?》

《일이 되는걸 봐서 교대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구… 뭐 드레 없습니다.》

그렇게 《드레없이》 자는 잠이 하루에 몇시간이나 되는가를 알아보니 보통 서너시간, 많이 자야 다섯시간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작업강도가 매우 높다는것을 의미하였지만 한창 잠이 많은 나이에 그 정도로 자며 일하자면 헐치 않을것이였다.

《그건 그렇고…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소대나 중대의 다른 군인들도 그렇고… 동무들은 당에서 결정한대로 이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꽤 건설할수 있다고 보오?》

그러자 이제껏 싹싹하던 전사의 얼굴에 대뜸 못 마땅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갑문을 5년동안 건설하지 않으면 몇년동안 건설하겠습니까?… 우리 구분대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대장동지 보군 절대 그런걸 묻지 마십시오. 야단납니다.》

건설자들의 정신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자 한마디 물었는데 전사가 이외로 심각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그이께서는 잠시 어리둥절 할밖에 없으시였다.

《흠… 그렇게 야단할 일이라면 삼가해야지. 한데 난 모르겠구만. 대대장이 야단하는 리유를…》

그제야 전사는 이쪽에서 자기네 대대장을 잘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지 시뜩하던 기상이 약간 덜어 지며 그 까닭을 설명하는것이였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인민군대가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한다고 욱욱하기는 하는데 결과는 두고봐야 안다, 총이나 대포로 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갑문건설은 과학과 기술로 푸는 고등수학이다. … 뭐 이런답니다. 우리 대대장동지는 아직 총각이고 성격이 면도칼인데 이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당분자처럼 봅니다.》

《음, 대대장이 그런 동무구만. 리해되오. 리해돼. …》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의 소박한 말속에 비껴 있는 갑문건설자—군인들의 높고 깨끗한 정신세계에 감명을 금할수 없으시여 발파가 끝나고 차가 다시 떠나자 리영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군대에 갑문건설을 맡긴건 확실히 잘한것 같소. 저런 자존심과 각오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소.》

길이 여전히 나쁜데다 조금전에 진행된 발파에서 날려 온 바

위쪼각들과 버럭이 널려 있어 승용차는 천천히 힘들게 전진하였다. 공사장이 가까와짐에 따라 작업도구들과 침목따위를 메고 지고 든 인원들의 왕래가 잦아 졌다. 도로가 반나마 끊기였는가 하면 레루를 운반하는 목도군들도 있었다.

전조등앞에 나타나는 그들 군인들의 모습을 주의 깊은 눈길로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한가지 의문점을 포착하시였다. 그것은 적지 않은 군인들이 작업공구나 짐을 진 외에 물통을 메고 있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방금 만났던 그 차단병도 물통을 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땀을 많이 흘리는 무더운 때도 아니고 찬기운이 느껴 지는 마가을의 쌀쌀한 밤에 불편스레 물통을 메고 다닌다는것은 잘 리해되지 않는 일이였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 리영선에게 물어 보셨지만 건설장에 자주 나와 본다는 그도 《글쎄말입니다.》 하고는 더 다른 말을 못하였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그이께서는 물통을 메고 마주 오는 한 전사옆에 차를 세우게 하시고 직접 알아 보시였다. 그런데 전사의 대답이 더욱 리해할수 없는것이였다. 《소금밥》을 먹기때문에 물통을 메고 다니지 않으면 물 먹으러 다닐래기 일을 못한다는것이였다.

《〈소금밥〉이라는건 어떻게 지은 밥이요?》

밥에 약밥도 있고 초밥도 있고 별의별 밥이 다 있지만 소금밥이라는 소리는 들어 보느니 처음이시였다.

《그건… 바다물을 퍼다 한 밥입니다.》

《아니, 밥을 바다물로 한단 말이요?》

《뭐, 음료수를 제때에 못 실어 오니 별수 있습니까? 일은 해야겠구…》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이 없다고 할지 기막히다고 할지 알수 없는 심정이시였다. 이곳 령남리지구에 워낙 물원천이 없는데다 수만명의 건설력량이 갑자기 들이닥친 관계로 음료수 사정이 어렵다는것은 그이께서도 알고 계시였다. 하지만 제 아무리 물이 바른 고장이고 형편이 어렵기로 간물에 밥을 지어 먹는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밥을 그렇게 하면 세면이나 빨래 같은건 어떻게 하오?》
《거야 뭐… 다 바다에서 합니다.》
전사는 가던 길을 가고 승용차는 다시 움직였다. 도로와 부설중의 철길교차점이 나타났다. 거기서 차를 세우게 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영선과 함께 내리시였다.
《여기 어디 군인들의 식당 같은것이 있을것 같은데 들어 가 봅시다. 저-기 저… 저게 혹시 식당이 아닐가?》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도로 웃쪽으로 백여메터쯤 떨어 져 불빛이 환한속에 천막들이 보이고 그 한쪽에서 솟아 오르는 김인지 연기인지를 가리키시였다.
《식당인것 같습니다.》
짐작이 옳았다. 길을 찾아 올라 가 보니 그것은 철길공사를 하는 어느 대대의 야외식당이였다.
저녁식사는 끝난지 오래고 아침준비를 하다가 황황히 일어 서는 두 식당근무병의 젖은 손을 잡아 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이 오르는 야전용밥가마며 다듬다 만 배추무지며 가마차옆에 쌓아 놓은 된장목통들이며 하는것들을 찬찬히 둘러 보신 다음 저녁밥이 남은것이 있는가, 있으면 가져 오라고 하시였다. 둘중 보다 구대원인듯한 전사가 부뚜막앞에 가더니 늄식기에 정히 밥을 담아 왔다. 그이께서는 밥그릇을 받아 조리대끝에 놓고 유심히 들여다 보시였다. 얼핏 보기에도 간물로 끓인것이 알리는, 색갈이 불그레하고 쌀알들이 잘 퍼지지 않아서 오골오골한 밥이였다. 숟가락을 달래서 한술 떠 맛을 보니 찝찔하고 풀기가 전혀 없어 모래를 씹는것 같으시였다. 전사들이 이런 밥을 한두끼도 아니고 줄창 먹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이께서는 가슴아픔과 함께 지휘관들에 대한 노여움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동무도 숟갈을 가져다 맛을 보라시며 리영선에게 밥그릇을 밀어 놓은 그이께서는 지휘관을 찾아오라고 한명을 보내고 남아 있는 전사에게 물으시였다.
《하루 세끼 다 이런 밥을 먹소?》
《세끼 다는 아니고 물당번들이 제때에 길어 오면 일없습니다.》
소금밥을 먹는것이 제 잘못이기라도 한듯 전사는 얼굴을 붉히

며 고개를 숙였다.

《물당번들이 길어 오다니, 음료수를 자동차로 실어 오지 않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물차가 없어서 물당번들이 도람통으로 메 길어 옵니다.》

《물차는 왜 없소?》

《침목을 실습니다.》

《침목?…》

그때 투덕투덕 급히 달려 오는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눈빛이 예리하고 칼칼하게 생긴 서른살안팎의 애젊은 소좌가 헐떡거리며 취사장 유개밑으로 들어섰다. 그도 역시 물통을 메고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대대장 윤건호… 부르심을 받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숨이 차 뒤말을 잇지 못하는 대대장에게 됐다고, 수고한다시며 20분쯤 전에 있은 발파가 동무네 대대에서 한것인가고 물으시였다. 소좌는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 소좌가 갑문건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은 다 반당분자로 취급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던 그 대대장이였다. 전사의 말을 들으며 성격이 좀 과격한 측면이 있던가 메마를것으로 예측하셨는데 두번째부류에 보다 가까울것 같은 사람이였다. 왼손으로 허리를 짚은 그이께서는 흙바닥을 내려다보시며 잠시 대대장앞을 오가시였다. 노여운 생각 같아서는 전사들에게 《소금밥》을 먹인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고 싶으셨지만 전사들과 같이 물통을 메고 다니며 일을 위해 애 쓰는 심정이 리해되시여 생각을 돌리시였다.

《물운반차를 침목수송에 돌린것이 언제요?》

《지난… 8월부터입니다.》

《8월이면 〈소금밥〉을 석달이나 먹었구만.》

그이께서는 상급참모부나 국지휘부에서 대대의 이런 사정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대대장은 안다고 하였다. 알뿐아니라 음료수운반차를 침목수송에 떼돌린것은 국지휘부가 취한 조치라는것이였다.

《국지휘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소금밥〉을 먹는 구분대가 동무네만은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원래 건설장적으로 60여대의 자동차가 음료수 운반을 했는데 절반이상을 물동수송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수송차가 부족하다는 소리구만. …》

《부족합니다. 저희 대대만 해도 수송차로 음료수를 실으면 철길 침목을 5리가 넘는데서 어깨로 메 날라야 합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팔을 엇걸어 가슴우에 얹으시며 생각에 잠겨 다시 천천히 대대장앞을 오가시였다. 국지휘부,구체적으로는 송철만소장이 물운반차들을 물동수송에 떼돌린 까닭이 리해되시였다. 수송차가 부족하고 전사들이 5리가 넘는 거리에서 철길침목을 메날라야 하는 조건이라고 보면 리유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조건이 나쁘고 타당한 리유가 있다 해도 군인들에게 《소금밥》을 먹이는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할수 없었으며 풀어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였다.

《…음료수문제가 결국은 수송문제에 귀착되는구만.》 하고 그이께서는 리영선에게 말씀하시였다.

부부장은 송철만국장에게 이야기해서 음료수운반차들을 복귀시켜야 할것 같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수송차들을 음료수운반에 돌리면 그만큼 건설이 지장을 받을것이고 또 그것은 건설장의 물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되지 못하는것이였다.

《무엇이 걸려서 건설장에 수도를 놓지 못합니까?》

《강관이 걸립니다. 200톤가량 있어야 하는데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래년 1.4분기에나 넣어 줄 소리를 합니다.》

강관 200톤이면 적은 량이 아니였다.

《그럼 군인들을 온 겨울 그냥 〈소금밥〉을 먹이고 빨래와 세면을 바다에서 시키겠습니까?》

《…》

부부장이 대답을 못하는 가운데 대대장이 한걸음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대대장 윤건호 한가지 말씀 드려도 좋

습니까?》

《말해 보시오.》

《저희들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겨울이라도 일없습니다. 저희들은 군인입니다. 극복할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겠다?… 물론 군인에게는 그런 극복정신이 있어야 하오. 그러나 군인의 참다운 정신은 단순히 어려운 조건이나 난관을 극복하는데만 있지 않고 그 어려운 조건과 난관자체를 대담하게 짓부셔 버리고 보다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줄 아는 거기에 더 많이 귀착되오. 그런 의미에서 대대장동무는 나나 이 부부장동무에게 빨리 물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요구해야 하오. 알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대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사이에도 머리속으로는 건설장의 수도화에 필요한 강관해결방도를 모색하시였다. 5년이라는 짧은 건설기한만 아니라면 겨울동안 건설을 좀 죽이더라도 수송차를 뚝 떼서 전사들의 고생을 덜어 줄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건설을 죽일수는 없었다. 그이께서는 국가계획을 조절하여 물운반용수송차를 보장해 줄 생각도 해보시였다. 당면하여 한 사오십대면 음료수문제도 그렇고 수송의 긴장성도 얼마간 풀릴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생산이 제한된 조건에서 그렇게 되면 인민경제의 다른 어느 부문이 지장을 받을것이였다. 그런대로 그중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200톤의 수도공사용 강관인데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래년 봄에 넣어 주겠다고 하는것을 보면 그것도 여유분이 없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렇다면 온 겨울동안 그냥 전사들이 《소금밥》을 먹게 하고 바다에서 세면과 빨래를 시켜야 하는가?… 과연 그렇게밖에 다른 방도가 없단 말인가?…)

《갑시다. 가던 길에 제강소에 들려 봅시다.》

그이께서는 마지막방도로서 제강소 로동계급들에게 호소해서 풀어 보실 작정이였다.

환절기면 영낙없이 찾아 온다는 신경통때문에 제강소지배인은

병원에 있었다. 하여 담화는 거기 제강소병원의 깨끗하고 조용한 입원실에서 진행되였다.

제강소지배인은 허우대가 크고 쇠물로 주조해 낸듯 얼굴의 선들이 모두 굵직굵직하게 그어 진 사람인데 그와는 아주 구면으로 롱담도 하시는 사이였다. 하지만 정작 원탁에 마주 앉아 강관문제를 꺼내자니 어째선지 말꼭지를 떼기가 쉽지 않으시였다. 제강소라고 무슨 여유가 있으며 없다면 군인건설자들이 닥쳐 오는 겨울을 어떻게 나랴 하는 걱정과 우려가 혼탁된 무거운 마음탓인듯 싶었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한동안 제강소의 일생산정형이며 김장용 남새공급형편이며 하는 강관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만 화제에 올리시였다.

《…용해공들의 영양제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류와 닭알은 제대로 보장됩니까?》

《그런건 다 제대로 공급해 주는데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왜?… 부업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한데 이젠 좀 낡아서…》 배가 낡아서 용해공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는것이 리치에 맞지 않음을 깨달은듯 지배인은 말꼬리를 삼키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낡았으면 새로 만들어야지요. 강철을 쥐고 있겠다, 남포에 조선소가 있겠다, 부업선쯤 몇척 만드는거야 뭘 문제될게 있겠습니까?》

지배인은 알겠노라고, 래년도계획에 물려 건조하겠노라고 하였다. 이야기는 거기서 잠시 동강났다.

《저… 한가지 말씀 드려도 일 없겠습니까?》

지배인의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물음이였다.

《괜찮습니다. 어서 하시오.》

그이께서는 선선히 응낙하시였다.

《지도자동지께선 아직 제강소에 왜 오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생산실태나 용해공들의 영양제공급형편때문에 오신건 아니겠는데… 혹시 저희들이 뭘 잘못한 일이라도 있으면 지적

해 주십시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지배인은 언제 봐야 이렇게 솔직하고 명백한 사람이였다.

《잘못이야 제강소에서 무슨 잘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그래서 온것이 아니라 실은 강관을 좀 해결 받을수 없을가 해서 들렸습니다.》

《?…》

그리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갑문건설장의 어려운 물문제와 그때문에 군인건설자들이 어떻게 고생하며 200톤의 강관이 왜 필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자상히 설명해 주시였다.

《그런 문제면 전화를 하셔도 되는걸 그랬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그는 아마 그이께서 평양에서 우정 나오신줄로 아는 모양이였다.

《암만 바빠도 군인들이 〈소금밥〉을 먹는줄 알면서야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지배인은 감동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 사실… 지도자동지께서 〈소금밥〉이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제 자식들이 〈소금밥〉을 먹고 있다면 가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사실이 가슴에 걸려 내려 가질 않아 이렇게 왔습니다만… 해결할수는 있겠습니까?》

지배인은 고개를 기웃하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몸자세를 바로 잡았다.

《가열로가 보수중에 있다 보니 오늘래일로는 안되겠는데… 로가 살아 나면 우선 갑문건설장에 줄것부터 뽑겠습니다.》

《로가 언제면 살아 납니까?》

《늦어 한 열흘이면 될것 같습니다.》

《열흘…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획대상들에서 가만 있자고 하겠습니까? 국가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을게고… 계획규률을 어겨선 안됩니다.》

그이께서 아까부터 선뜻 강관문제를 꺼내지 못하신것도 실은 그에 대한 담보가 없는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런 문제는 일 없다는듯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계획규률은 일 없습니다. 로보수가 열흘후에 끝난다 해도 그건 보름이상 앞당긴것으로 되니 계획외의 증산이나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과연 소문에 들으신바 있는, 한번 《아니》하면 정무원부총리들도 더 어쩌지 못한다는 성미가 드센 지배인다운 배심이였다.

《허허… 듣고 보니 그럴상싶기도 한데…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만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정 시끄럽게 굴면 나한테도 알리시오. 둘이 힘을 합치면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배인은 그이더러 걱정 마시라고, 자기 혼자도 자신 있는데 뭘 지도자동지께까지 걱정 끼치겠는가고 하며 힘자랑이라도 하듯 팔을 접었다 폈다 하였다. 그 바람에 그이께서도 유쾌하게 웃으시고 지배인도 벙글써 웃었으며 곁에 앉아 있던 리영선이도 감심한 표정을 지으며 시뭇이 웃었다.

13

군부대에 있을 때만 해도 송철만은 군사지휘관(특히 부대장)들이 회의를 많이 소집하는것을 지휘능력의 부족으로 보면서 그런 회의꾸러기들을 경멸하였다.

현대적통신기재가 있고 참모부와 정연한 지휘체계가 있는데 모여 앉아 입씨름으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 까닭이 무엇인가, 조직사업은 명령이나 지시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며 장악과 통제는 일보와 참모일군들을 통해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이다.

그래도 회의를 해야 한다면 총화사업 같은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경험이나 교훈을 찾아 일반화할것이 없는 순

총화를 위한 총화회의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회의 일반에 대한 그의 지론이였다.

하지만 그는 요새 자기도 회의꾸러기가 되여 간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느끼면서도 어쩔수 없었으니 건설은 역시 건설이였다. 명령이나 지시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데다 세개의 기본공사를 동시에 추진시키다 보니 그만큼 문제거리도 늘어 나 그렇게도 안한다 안한다 하는 회의가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는 식으로 그냥 꼬리를 물고 련속되는것이였다.

지금 황석전부국장이 한참 보고를 제기하고 있는 건설관리국 산하와 배속된 각 부대의 부대장들과 참모장들이 참가한 이 회의 역시 엊저녁까지도 전혀 계획에 없다가 불시에 오늘아침 소집한 회의였다. 공사대상들이 가뜩이나 뜻대로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판에 일부 단위들에서는 불리한 정황,조건들을 과감히 이겨 나갈 생각들은 하지 않고 조건타발만 하면서 맹랑하게 시간을 잃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송철만은 이에 경종을 울리고 지휘관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드디여 황석전이 보고를 끝내고 앉았다. 송철만은 그한테서 보고문을 달래서 앞에 놓고 술렁거리는 회의참가자들을 엄엄한 눈길로 둘러 보며 보고에 의견이 있으면 제기해도 좋다고 선언하였다.

키가 크고 강마르게 생긴 16해상돌격대장 정대철이 걸상에서 덜커덕거리며 일어 났다. 낯색을 보아 심사가 편안치 않은것 같았다.

《이자 부국장동무는 철도인입선에 레루를 다 놓지 못한것은 우리한테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였다고 했는데 문제는 다른데도 있다고 봅니다.》

남포조선소에서 철배생산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물막이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가지 못했기때문에 16해상돌격대는 송관역에서 끌살부리로 들어 오는 철길인입선공사를 한구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거요?》

송철만은 정대철을 생전 처음보듯 시커먼 두눈섭을 미간에 모으며 눈 여겨 쏘아 보았다.

《그건 운반수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부대장의 대꾸였다.

결국은 수송차를 보장해 달라는 소리이고 그걸 보장 못한 국지휘부가 책임지라는 속대사였다.

송철만은 랭소를 지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진목적이 바로 부대장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깨버리자는데 있었다.

《물론 동무네가 레루를 다 깔지 못한 원인은 수송차에도 있고 그걸 보장 못한 국지휘부에도 있소. 그러나 부대장동무, 동무는 당에서 남포갑문건설을 우리 군인들에게 맡긴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오? 그건 공사조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군인들만이 자기 고유의 특성인 군인정신으로 그걸 이겨 낼수 있다고 보아서가 아니겠소. 그런데 동무는 군인이 아니라 부자집 도련님처럼 말하고 있소. 뭐 수송차가 보장 안된것이 원인이다? 수송조건으로 말하면 〈오백 스물둘〉도 동무네나 꼭 같소. 그런데 거기선 철길공사를 다 끝내고 벌써 기본공사에 진입했소. 저기 부대장동무도 앉아 있지만 저 동무들은 부족되는 수송차를 이 어깨로 해결했소. (그는 자기 어깨를 두드렸다.) 자동차수송으로 침목이 보장 안되니 부대장이하 온 부대가 떨쳐 나 남포화물역에서부터 40리길을 한대씩 메날랐소. 어디 침목뿐이요? 레루도 그렇게 날라다 놓았소. 군인정신이란 바로 이런게요. 정대철동무가 이런줄은 몰랐소. 동무네처럼 자동차만 쳐다보다간 어떻게 되겠소?》

《…》

정대철은 할 말이 없는지 아니면 접수되는지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다. 배짱도 세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니 그쯤했으면 당장 오후부터 부대를 끌고 《어깨수송》을 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송철만은 또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제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16해상돌격대장이 찍소리 못한데다 522군부대의 모범이 자극으로 된듯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앞에 놓은 부국장의 보고서를 번지던 송철만은 함형부재장 바닥치기를 하고 있는 102군부대 참모장을 불러 세웠다. 참모장은 키가 작고 몸이 가로 퍼진 사람이였다. 부대장이 일시 결원된 관계로

부대는 그가 지휘하고 있었다.
《동무넨 뚝막이와 철길공사는 괜찮게 했는데 바닥공사는 이게 뭐요. 년중에 못한다던 뚝막이를 과학자들이 풀어 주었는데 바닥공사는 왜 이 모양이요? 콩크리트가 얼어 붙기를 기다리는거요?》
첫 서리가 내린지도 벌써 여러 날 되고 밤이면 기온이 령하로 내려 가 아침이면 땅거죽이 꾸덕꾸덕해 진다. 아직 공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바닥공사가 늦어 져 혼합물이 얼기 시작하는 날엔 그야말로 큰 난사였다. 그러나 참모장은 얼어 붙는걸 기다리는건 아니라고 볼 부은 소리를 하였다.
《얼어 붙는걸 기다리지 않는다면 왜 실적이 이 모양인가 말이요. 하루에 5백평방도 타입 못해서야 언제 8만평방을 다 타입하겠소. 그렇게 앉아 뭉개는 까닭이 뭐요. 혹시 동무넨 압송기나 콘베아 같은 기계수단이 들어 오기를 기다리며 먼 장을 보고 있는게 아니요?》
빠져 나갈 틈이 없게 둘러 막으며 철만은 무섭게 다그어 댔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어쨌든 압송기나 콘베아도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 타입면적이 8만평방이면 어떻게 됩니까?》
송철만은 신경이 곤두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참모장이란 사람이 본래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추궁을 모면하려고 우정 어리숙한체 하며 요술을 부려 보는겐가?… 그는 두번째 경우라고 단정하였다.
《여보, 동무는 아까부터 그 무슨 갈래판 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거요. … 좋소. 8만평방의 타입면적이 그렇게 아름차 보이고 압송기나 콘베아가 있어야 되겠다면 동무는 이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없으니 돌아 가시오. 가서 자신이 군인이 옳은가 아닌가를 따져 보고 옳거든 군인정신부터 배우시오.》
결김에 참모장을 보고 그렇게 면박을 준 송철만은 총참모부의 조치로 배속되여 온지 얼마 안되는 무력부직속 제7수송대 대장을 불러 세우고 수송실적이 낮은 원인을 따졌다.

그러나 수송대장보다 더 먼저 입을 연것은 그때까지 서 있던 102부대 참모장이였다.

《국장동지, 전 아직 할 말을 다 못했습니다. 따져 보는건 보더라도 할 말은 마저 하고 갑시다.》

(흥, 퇴각은 해도 영예로운 퇴각을 하겠다는거지. …)

그는 속으로 코방귀를 뀌면서도 상대가 교섭을 걸어 오는 이상 응하지 않을수 없어 고개를 끄덕여 언권을 주었다. 참모장은 손에 쥔 사업노트에 눈을 박고 서서 할 말을 고르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물론 우리가 공사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앉아 뭉개는건 군인정신이 부족한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장동무가 우리 부대를 16해상돌격대와 같이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동무는 〈522〉에서 어깨를 잘 쓴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전사들의 어깨도 그들의 어깨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됐소, 알겠소, 동무네가 수고한다는건.》

닦아 세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자는것이 목적인것만큼 송철만은 참모장과는 더 상종하지 않고 다시 수송대 대장을 불러 세우고 뛰고 못뛰는 자동차대수와 수송실적에 대해 따졌다.

그런데 부대장이 물음에는 얼빤히 대답하고 부속품공급체계가 이렇소, 다이야형편이 저렇소 하며 제 말만 구구히 늘어 놓는 바람에 송철만은 그만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다. 바로 그때 정치부장 리응천이 황황히 달려 들어 와 오진우대장의 도착을 알렸다.

송철만은 바삐 일어 나 문간으로 나갔다. 그러나 대장은 그가 문간에 채 이르기도 전에 벌써 방안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군관들이 일제히 일어 나 그를 맞이했다.

《무슨 회의요?》

오진우는 앞쪽의 몇몇 군관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장탁앞에 가 앉으며 물었다. 송철만은 회의취지를 설명하고 이제는 끝내려던 참이라고 하였다.

《하다면 부대지휘관들은 다 모인셈이겠소?》

《그렇습니다. 정치일군들을 내놓고는…》

송철만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인 대장은 가방에서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놓고 긴장하게 앉아 있는 군관들을 둘러 보더니 관하구분대들에서 전사들이 소금물로 밥을 해먹고 있는 단위의 지휘관들은 다 일어 나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눈들만 둥그래졌을뿐 일어 나는 사람이 없었다. 《소금밥》을 먹는 단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격으로 묻는 뜻도 모르고 일어 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통된 심리가 작용한것 같았다.

《그럼 바다물로 밥해 먹는 구분대가 전혀 없단 말이요?》

아무도 일어 나지 않는것을 보고 오진우는 다소 어성을 높였다. 곁들어 송철만이 어서 일어 나라고 군기침을 깇으며 눈짓했다. 그제야 여기저기에서 일어 나기 시작했는데 일어 나지 않은것은 결국 우물을 한개씩 가지고 있는 두개 단위, 즉 522군부대 참모장과 제5수송대 대장뿐이였다.

《동무들은 어떻게 물을 먹소?》

대장의 물음에 522군부대 참모장이 일어 나 다행히 주둔구역안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물고생을 덜하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저희들도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들이 물을 먹다 보니 남들한테 선심을 쓰지 못합니다.》 수송대장의 대답이였다.

송철만은 대장이 갑자기 나와서 《소금밥》문제를 파고드는 까닭을 판단하려고 애 썼다. 지금까지 오진우는 갑문건설과 관련한 수령님의 교시와 새로 제시된 당의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공사추진정형을 직접 알아 볼 목적으로 건설장에 나오군 했다. 그것도 총참모부를 통해 미리 통지를 하고서… 그런데 오늘은 그런 통지도 없었거니와 나오자 바람 《소금밥》문제부터 파고드니 영문을 알수 없었다.

오진우는 엄엄한 눈길로 일어 선 사람들을 둘러 보다 말고 모두 앉으라고 하더니 앞에 놓았던 노트를 펴들며 자리에서 일어

났다.

《동무들.》 대장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조건이 어렵다는 리유로 지금껏 음료수보장대책을 똑똑히 세우지 않아 군인들이 〈소금밥〉을 먹게 한 사실을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심려의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민군전사들을 믿고 남포갑문건설을 시작했는데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음료수 같은 제일 초보적인 생활문제도 풀어 주지 않은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우리 다같이 군인건설자들에게 면목이 없게 되였다고… 사죄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였습니다.》

송철만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뜨거운 인정과 사랑이 흐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겸허한 사죄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커다란 자책에 잠기게 하였다. 내가 이 무슨 엄청난 실책을 범했는가. 음료수문제, 아니 《소금밥》문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이처럼 큰 심려를 끼쳐 드릴수 있다는것을 왜 생각지 못했는가.… 돌이켜 보면 생각할 기회는 있었다. 음료수 공급차를 수송에 떼돌린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부장 리응천이 전사들을 다 간물에 절궈 낼 작정이냐고 하며 못마땅해 할 때 좀 자중했어도 일이 이처럼 심각하게 번지지 않을수 있었다. 윤건호를 통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시여 군인들이 《소금밥》을 먹는데 대해 깊이 관심하신 사실을 알고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며 당장 수송차들을 다시 음료수운반에 돌리자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용단을 내리지 못한것은 가뜩이나 처지는 공사실적이 더 떨어질것 같은 우려때문이였다.

《하지만 동무들.》 하고 오진우는 본래의 무겁던 어조를 바꾸어 밝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비판의 말씀만 주신것이 아니라 물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 주시였습니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에게 호소하시여 수도공사에 필요한 강관 200톤을 계획외에 더 생산하여 남포갑문건설장에 보내줄데 대한 대책을 취해 주신 사실과 전사들에

게 수도물을 먹일바엔 거리가 좀 멀더라도 물이 좋은 신덕샘물을 끌어 오도록 하시였으며 다른 수원지에도 관을 늘이도록 해주신 것을 얘기했다.

《…물문제가 이렇게 풀리면 수송이 걸려서 애 먹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며 앞으로 기본건설에 들어 가 쓸 건설용수때문에도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번에 만사를 제껴 놓고라도 건설장의 수도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근저에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그런 전망적인 해결책도 포함되여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장은 수도공사에 필요한 강관과 련관설비들은 다음주부터 들어 오게 되므로 오늘 모인김에 저리 작전을 잘해 가지고 땅이 얼기전에 와닥닥 해제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술렁거렸다. 저저마다 감동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사업노트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내용을 적어 넣느라고 바쁜가 하면 흥분하여 주먹으로 무릎을 치고 손세를 써가며 옆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감격을 주체할수 없어 고개를 숙인 군관들도 있었다. 그때 문옆에 앉아 있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여 더욱 우람차진듯한 리응천이 일어 서더니 오진우대장한테 다가가 몸을 숙이며 뭐라고 하자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리응천은 끓어 오르는 격정을 삼키느라고 몇번 갑자르다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휘관동무들… 저녁에… 각 구분대 단위로 군무자총회를 열어야겠습니다. 보고나 토론 같은건 따로 준비하지 맙시다. 금방 전달받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베풀어 주신 은정… 그걸 전달하고 자기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충성의 결의들을 다지면 되겠습니다.》

응당 그래야 한다는 뜻으로 오진우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책과 격동의 소용돌이속에 깊이 잠겨 있던 송철만은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 할바를 깨달으며 지도를 가져 오려고 급히 일어 나 칠궤앞으로 다가갔다.

14

(현장에 나가 로동안전기사나 하면 좋을 사람이군. 설계하는 본새가…)

국가건설위원회 3층 끝방인 자기 사무실에서 태천발전소의 구조물설계를 검토하고 있던 윤상설은 설계자가 구조물의 안전성만 지내 추구한것이 불쾌하여 혼자 시까슬렀다. 화김에 그는 심의의견서에 이렇게 휘갈겨 써넣었다.

※ 동무, 보조언제 웃폭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태천발전소만 건설하자고 국가가 세멘트와 강재를 생산하는것이 아니요. 현지를 밟아 보고 개작하여 다시 제기할것…

그는 또 다른 도면을 펼쳐 놓았다. 역시 태천발전소 구조물설계로서 마평언제 에프롱(물받이)립체도였다. 검토해 본 결과 먼저번 설계와 비슷한 결함 즉 지질상태가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필요이상 추구하고 있었다.

(이 《전력설계》량반들속에 요새 《소심병》이라도 도는가보다. 설계마다 이 모양일적엔…)

그러면서 도면을 다시 들여다 보는 순간 그는 불현듯 설계문건이 어쩐지 자기가 작성하였던 남포갑문설계안으로 착각되는것이였다. 그러니 소심병이라고 랭혹히 꾸짖어야 할 대상이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자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의의견서에 의견을 쓰려던 손가락이 굳어 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인차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렇게 처신하려는것 자체가 소심병이고 보신주의다. 비록 지난 시기 내게 그런 불영예스러운 《병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견대로 써넣어야 한다. 그것이 당적량심인것이다. 이러며 의견서에 막 글을 쓰려는 찰나에 탁상우의 전화기가 울었다. 정문접수실에서 걸어 온 전화였는데 손님이 왔다는것이였다. 점심시간이 다된 때에 웬 손님인가 싶어 어

디서 온 누구냐고 물으며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니 시간은 11시 45분이고 접수원의 대답은 뜻밖이였다. 손님은 인민군장령인데 이름은 송철만이라는것이였다.

《아, 그렇소?》

울적했던 상설의 마음은 금시 밝아 지는것 같았다.

《알겠소.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오. 내 이제 곧 내려 가겠소.》

부문이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송철만과는 그 전날 비단섬에서 맺은 우정을 변함없이 간직해 오는 윤상설이였다. 마침 점심시간도 되였겠다 아예 집에 데리고 갈 작정으로 상설은 집 가까이에 있는 구역병원 내과과장인 안해에게 제창 전화를 걸었다. 귀한 손님이 왔은즉 빨리 들어 가 뭘 좀 준비하라고… 그런 다음 서둘러 검토하던 설계며 부속문건들을 거두어 철궤에 넣고 막 방을 나가려는데 접수실에서 기다리는줄 알았던 송철만이 시물시물 웃으며 문간으로 들어 섰다.

《원 급하기란, 내려 가려는데 힘 들게 올라 오긴…》

윤상설은 반갑다는 소리를 그렇게 지청구로 대신하며 바삐 문간에 나가 송철만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윤동무가 사무실에 틀고 앉아 관료주의를 하는것 같아 우정 올라 왔소. 비판 좀 하자구…》

그러면서 짜장 어느 구석에선가 관료주의잔재라도 찾아 낼것처럼 두릿두릿 살피는 송철만을 쏘파에 이끌어다 앉힌 상설은 책상에서 담배갑과 재털이를 가져다 중간에 놓고 마주 앉았다.

《송동무는 여전하구만. 혈기왕성한걸 보니…》

《나야 만년병사가 아닌가. 병사는 죽어도 병상에 누워 죽는게 아니라 전장에서 돌격해 나아가다 쓰러지는것이지. … 그러나 이젠 맘뿐이고 나이는 어쩔수 없는가보이. 이 머리를 보게나. 허허허.》

송철만은 군모를 벗어 탁자우에 놓고서는 한손으로 바투 깎은 머리를 쓸었다. 귀밑머리어방이 희끗희끗한것이 알리였다.

《그게 오히려 장령의 풍채에 어울리오. 난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무너져 나가는 판인걸.》

《그거야 박사의 머리가 아닌가.》

두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늘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사업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한해에 한번, 어떤 때는 몇해만에 한번 있을 정도였다. 그만치 두사람의 상봉은 기다려 지고 그만큼 만나면 더없이 반가운것이였다.

《아무러나 마침 왔소. 래일 아침차루 태천에 들어 가려댔는데 오늘 안왔더면 또 몇해를 못볼번 했소.》

《태천엔 뭣하러 가오?》

손을 내밀어 담배갑을 집어 가는 송철만의 물음이였다.

《뭣하러 가다니? 거기다 새로 큰 발전소를 건설하는걸 모르우?》

상설은 성냥을 그어 송철만의 담배에 불을 붙여 주고 자기도 붙이며 되짚어 물었다.

《그건 아오. 하지만 윤동무야 발전소보다 갑문에 손을 붙여야지 않소? 남포에 와…》

《오, 그 소리요? 허허… 하긴 나도 그랬으면 좋겠소만… 난 갑문을 건설할 재목은 못되는가 보우. 능력이…》

그는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하여 자신이 범한 실책들과 그것이 문제시되여 책벌까지 받을번 했다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커다란 신임으로 태천발전소건설을 책임지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려다가 그만 두고 화제를 송철만에게로 돌려 놓았다.

《그래 어떻소. 일은 잘돼 가오?》

《잘되는게 다 무어요. 벌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심려까지 끼쳐 드리였소.》

《아니 어쩌다가?》

《사연은 이렇소.》

송철만은 수송문제를 푸느라고 물운반차를 수송에 떼돌림으로써 숱한 군인건설자들이 《소금밥》을 먹게 된 사정이며 그때문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크게 심려하시면서 수도공사에 필요한 강관은 물론 련관설비들까지 다 풀어 주시여 온 갑문건설장이 수도공사로 끓어 번졌던 사연을 흥분속에 자상히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뒤를 맺았다.

《…나로선 이번에 정말 깨달은바가 크오. 정신도 단단히 차

리게 됐구…》

《음, 그런 일이 있었구만.》

감동도 크거니와 생각되는바도 많아서 윤상설은 여러번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송동무로선 자책이 많고 후회도 막급했겠지만… 덕분에 어쨌든 큰 횡재를 했소. 신덕물을 먹으며 남포갑문을 건설하리라고야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해보았겠소.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요. 일을 잘해서 그분의 은덕에 꼭 보답하오.》

《글쎄 그래야겠는데… 일이 어디 맘 먹은대루 되우? 갑문건설이라는게 생각과는 영 딴판이구만.》

고충과 함께 어딘가 조급성이 느껴 지는 송철만의 말이였다.

《그래두 소문은 다르더구만. 벌써 준비건설을 다 끝내구 기본공사에 진입했다면서?》

《그런들 어찌하오. 공정계획을 그냥 미달하는데…》

송철만은 무슨 자랑거리이기라도 한것처럼 미달된 공정계획들을 렬거했는데 윤상설이로서는 내심 놀라움이 컸다. 놀라지 않을수 없는것은 송철만이 두달 혹은 석달이상씩 늦어 졌다고 하는 공정들로 말하면 건설예산안을 만들던 당시 그들로선 빨라서 래년말이나 후년쯤에 가서나 추진될것으로 보던 단계였다. 하지만 그것은 10년이나 15년안에서 본 계획이고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결코 빠르다고 할수 없었다.

《아무튼 송동무가 수고를 많이 하게 됐소. 그 남포갑문이라는게 워낙 헐치 않은 대상이니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거요.》

《잡도리가 든든해야 한다는 말이 옳소. 내가 오늘 윤동무한테 온것두 바로 그때문이요. 도움을 받자구… 윤동무도 잘 알다싶이 내야 뭘 아는게 있소? 총대밖엔… 강아지도 못본 장님이 호랑이를 그릴 과업을 받은 격이랄지. 그러니 좀 도와 주우.》

《도와야지. 한데 내가 뭘루 어떻게 송동무를 돕는다? 군민일치라면 몰라도…》

노리고 기다리던 소리가 그것이기라도 한듯 송철만은 눈빛을 번뜩이며 한무릎 바투 다가앉기까지 하였다.

《윤동무가 날 돕는거야 뭐 힘 들게 있소. 간단하지. 내 방법을 하나 내놓으라오?》

《들어 보기요.》

《우리한테 와서 가끔 시공지도를 좀 해주오. 비단섬때처럼 말이요. 윤동무만 있으면 난 산을 진 거북처럼 든든할것 같은데… 할수 있겠지?》

윤상설은 대답이 궁했다. 그는 송철만이 도와 달라는 소리를 극상해서 건설기자재를 보장해 달라는것으로 알았고 그것이라면 힘자라는껏 도와 줄 생각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자신을 그것도 시공지도를 해달라니 난처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뭐라고 해야 적당한 대답으로 되겠는가?

《거기 우리 김부위원장이 정무원지휘부 책임자로 나가 있는데 시공지도는 왜 또 필요하오?》

《그 량반은 안되겠소.》

《왜?》

《사람이 소심한데다 결단성까지 없구… 한마디로 배짱이 맞지 않소. 펀펀하게 잘 생기기는 했던데…》

《허허허…》

상설은 어이 없어 웃고 말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송철만은 정색하여 조이고 들었다. 자, 어서 대답하라, 어쩔셈이냐? 김부위원장이란 량반하구 바꿔 앉는 문제는 걱정할것이 없다, 무력부계통으로 당에 제기해서 소환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 하고… 보매 그는 이쪽의 딱해 할 사정이며 빠져 나갈수 있는 구멍까지 다 예견하고 온것 같았다.

윤상설은 심중해 지지 않을수 없었다. 털어 놓고 말한다면 사실 그에게는 직분으로 보나 친분관계로 보나 송철만의 요청을 거절할 조건이 없었다. 게다가 남포갑문으로 말하면 건설로 늙어 오는 자신의 한생을 거기서 총화 지으리라 계획했던바도 있는 대상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기한을 20년이나 15년으로 보던 때의 계획이고 지금은 문제가 달랐다. 갑문건설기한이 5년으로 그어진것이였다. 5년, 움직일수 없는 기정사실로 이미 세상에 공포되

기까지 한 그 5년동안에 남포갑문을 반드시 완공할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그는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당이 결심해서 못해낸 일이 무엇인가? 없다. 그렇다면 5년안도 성공을 믿어 틀림 없지 않겠는가? 믿자. 믿어야 한다. 너는 당원이 아니냐?…) 그는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고 지어 강박까지 하며 5년안을 받아 들이고자 애썼다. 하지만 자신을 속일수는 없었으니 20년으로 굳어진 그의 견해로도 15년,10년까지는 접근했지만 5년안만은 정녕 확신하기 힘 들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건설장에 나간다는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고 또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것이였다. 윤상설은 그 모든것을 고백함으로써 송철만이 스스로 리해하고 단념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물음을 던져 보았다. 남포갑문건설기한을 10년이나 지어 20년까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고.

송철만은 들었노라고 하였다.

《…국장으로 임명될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씀하시더구만. 일부 그러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다구.》

하지만 그것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심리가 이쪽을 건너다 보는 그의 눈에 씌여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일부 전문가들〉속에 이 윤상설이도 끼워 있소. 사실을 말하면…》

먹붓을 잘라 붙인것 같은 송철만의 시꺼멓고 수북한 눈섭이 쭝깃 일어 섰다. 놀라운 모양이였다. 그런 놀란 눈길로 한동안 이윽히 건너다 보더니 이윽고 싸움이라도 걸듯 따지고 들었다.

《하니 그 〈다른 견해〉때문에? 안되겠다 그거요?》

너무 직선적이여서 듣기 좀 거북했지만 이쪽의 의도는 충분히 리해한것 같았다.

《뭐 꼭 그래서라기보단… 어쨌든 견해가 옳게 서구야 일도 되는게 아니겠소.》

실망을 금할수 없는지 아니면 돌변한 정황앞에서 대처할 방도를 찾느라고 그러는지 송철만은 량무릎우에 팔굽을 놓은채 발부리를 내려다 보며 묵묵히 담배만 피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

조가 무거웠다.

《나 보기엔 윤동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것 같소.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그렇다 해도 이제야 생각을 바꾸고 출발을 새롭게 해야지 그냥 묵은 견해를 붙잡고 있어야 무슨 필요 있소.》

상설은 송철만이 리해해 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송철만은 눈을 치뜨며 화를 내는것이였다.

《아니, 거기 힘 들건 또 뭐가 있소. 〈나 윤상설이나 또 다른 누구의 생각은 저렇지만 당의 뜻이 이러니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결사관철하는게 직분이다!〉 문제를 이렇게 세우면 되는거지 뭘 그리 옴니암니 복잡하게 생각하냐 말이요. 아낙네들처럼…》

《…》

상설은 송철만의 그 단순성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부러우면서도 자신은 그처럼 단순해 질수 없는것이 또한 안타까왔다.

《자, 그래 어쩔테요. 추진시키라오? 우리 계통으로…》

앞서 한 말에 반응이 없는것을 동의하는것으로 생각하는지 송철만은 최후통첩이라도 하듯 바투 들이 댔다. 상설은 황황히 고개부터 저으며 급급히 부정했다.

《아니, 그러지 마오. 갑문에는 안되오. 난… 나는 태천에 가야 하오. 이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요.》

《?…》

하여 상설은 오늘 될수록이면 말하지 말자고 했던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몇달어간에 자신의 신상에서 벌어 진 일들을 한줄로 꿰여 쭈—욱 이야기하고는 한숨과 함께 이렇게 덧붙였다.

《…한마디로 난 남포갑문을 건설할 자격을 상실한 놈이요. 자격을… 갑문이 건설되면 무슨 렴치로 그걸 보겠는지 벌써부터 두려운바도 없지 않소. 하지만 어찌겠소. 운명이 그렇게 주어진걸…》

송철만은 꾸역꾸역 담배연기만 토해 낼뿐 오래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푹 잠겼으면서도 어딘가 노여움이 풍기는 목소리였다.

《태천으로 가는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라면 난 더 할 말이 없소. 하지만 이건 말해야겠소. 오늘 보니 윤동무는 이전의

윤동무가 아니요. 달라 졌소. 내 말을 알겠소? 비단섬을 건설하던 때의 윤상설이 아니란 말이요. 아낙네들 같은데가 없나, 옛날 소시민냄새가 풍기질 않나…

내 말을 명심해 듣소. 윤동무는 자기의 실책이 어떤 견해상 차이에서 출발한것처럼 말하는데 내 듣기엔 그게 아니요. 당을 받드는 립장에 문제가 있소. 사상의 빈곤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기 립지를 명백히 하오. 어물거리며 뗑—해 있다간 이 사무실도 지켜 내지 못하오!》

군인이라 총을 쏘듯 그렇게 탕탕 말해 버린 송철만은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마구 눌러 던지고 벌떡 일어 났다. 탁자끝에 벗어 놓았던 군모를 집어 쓰고 뚜벅뚜벅 나들문쪽으로 걸어 갔다. 거기 문간에서 비로소 생각난듯 문고리를 쥔채 고개만 약간 돌리더니 집어 던지기라도 하듯 투박스레 말하였다.

《건호는 잘 있소. 직무수행도 잘하구…》 그러고야 문을 밀고 나갔다.

상설은 무거운 쇠몽둥이에 뒤통수를 얻어 맞은것처럼 뗑— 하여 일어 나 그를 붙들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문이 닫기는 소리를 듣고야 바삐 일어 나며 소리 질렀다.

《아니 여보, 어딜 가오? 집엔 안갈라우?》

15

오늘은 일을 좀 못하더라도 신원동에 갔다 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아침부터 벼른터여서 유정은 저녁 6시가 되자 다른 방에 가서 림박사한테 말하고 나서 서둘러 책들을 바치고 열람실을 나왔다. 평양에 들어 와 인민대학습당출입을 시작한지도 벌써 사흘이나 된다. 하지만 아직도 남포갑문건설장에서 받아 가지고 온 군관의 편지를 집에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였다.

대동교정류소에서 팔동교행 무궤도전차를 탄 그는 거기서부터

걸어 갈 작정으로 신서다리정류소에서 내렸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분기점인데다 한창 퇴근시간이여서 거리에는 차와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렀다. 혼잡속을 거쳐 다리목계단을 내려 가는 때였다. 등뒤에서 누군가 찾기에 돌아다 보니 뜻밖에도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녀동무 봉희였다.

새까만 원피스에 그물처럼 구멍이 송송한 흰 쟈케트를 걸친 그는 한손에 파일이 솟아 오른 비닐구럭을 들고 다른 손에는 다섯살짜리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연구실은 다르지만 둘 다 고향이 함흥이고 같은 수리대학 선후배인 까닭에 그들은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남포에선 언제 들어 왔어?》

가운데 세운 어린것의 손을 갈라 쥐고 걷기 시작하자 봉희가 물었다.

《한 사날 됐어요.》

《그런데 연구소엔 왜 나타나지 않았어?》

《일이 바빠서요. 같이 온 선생들과 대학습당이 가까운 려관에 들었어요.》

수리공학연구소는 동평양교외에 있었다. 때문에 갔다 오자면 하루시간을 바쳐야 하였다.

《무슨 일이 그다지나 바빠서 연구소에 왔다 갈 짬도 못내니?》

《짬이야 내면 내죠.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일을 끝내구 나가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진척되지 못해요.》

그는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따라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자재와 시간예비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보조무넘이수문을 없애는 문제가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며 자신을 포함한 일행이 무슨 일로 왔는가를 알아 들을만하게 설명해주었다. 봉희는 어지간히 놀란듯 눈이 둥그래 졌다.

《아니 얘, 그 보조무넘이를 없애는것이 시공기간을 1년 단축하는 폭이면 그럼 갑문을 4년동안에 건설할수 있다는거냐?》

그에 대한 견해는 확실치 않아서 유정은 보조무넘이가 갑문건설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런지 모르지만 기본언제시공기간이

그렇게 단축된다는건 확실하다는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도 봉희는 흥분하여 유정이까지도 포함해서 성공하면 모두 공훈과학자가 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 다음 둘은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유정은 문득 봉희네 집이 신원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99반이 어느 근방인지 아는가 물었다. 편지를 전해야 할 집이 거기 99반에 있었던것이다. 봉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방은 안다고 하며 설명해주더니 물었다.

《그런데 거긴 뭣하러 가니?》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사실을 까밝히기는 어쩐지 별나서 얼결에 유정은 그건 비밀이여서 말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인차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봉희는 연구소녀성들속에서 《호기심보따리》라는 별명을 듣는 녀자다. 게다가 입까지 헤퍼서 재미 없는 사건을 빚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때문에 유정은 친한 사이면서도 봉희에게 속을 다 털어 놓지 않고 감추는 개인비밀들이 있었다. 그런 《호기심보따리》에게 좋은 반찬감을 준셈이니 이제부턴 제 구미에 맞게 료리를 하기 십상이였다. 아닐세라 봉희의 눈에서 벌써 호기심이 불꽃처럼 번쩍거렸다.

《얘, 나한테도 감출게 있니? 좋아,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면 말하지 말아. 하지만 난 벌써 다 짐작하고 있다. 네가 어디로 뭣때문에 가는지를…》

《그럼 어디 맞춰 보죠?》

봉희의 으름장에 조금도 놀랄 유정이 아니였다.

《정말 맞추라니?》

《맘대로 해요.》

봉희는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즉시 자기의 짐작을 내놓았다.

《신원동, 거기는 말이다. 중앙기관간부들의 집이 많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 유정이 같은 멋쟁이처녀가 거길 뭣때문에 가겠니. 하긴 벌써 내적으로 처녀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때, 내 말이 맞

지? 어느 간부댁 도련님 만나러 가는게?》
유정은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봉희인것이고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그러니 이 위험천만한 말썽군을 어떻게 하면 좋담?…
한가지 명백한것은 봉희의 억측을 지금 막지 않았다간 연구소에 나가 무슨 소문을 낼지 모른다는것이였다. 그는 사실을 까밝힐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왕이면 골려 주려고 흥정을 걸었다.
《비밀을 지킬수 있어요?》
봉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마 처녀의 개인비밀을 듣게 되리라고 넘겨 짚은 모양이였다.
《아니 유정이, 너 나를 몰라서 그러니? 비밀을 지키는 문제라면 난 혀도 물어 끊을수 있는 녀자다.》
유정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무슨 류다른 말을 들으면 옮기지 못해 몸살을 앓으면서도 혀를 끊을 자신까지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맹세는 맹세여서 그는 기차시간때문에 갑문건설장에서 군인들한테 어떤 미안한 신세를 졌고 또 그때문에 집에 전달해 달라는 편지부탁을 거절할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며 믿지 않을것 같아 가방속에서 편지까지 꺼내 보여주었다. 대포를 쏘아서 참새를 잡은격이라 봉희는 다소 메사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저 물러 서기는 아쉬운듯 편지를 부탁한 군관이 나이는 몇살쯤 되더냐, 군사칭호는 뭐냐? 어떻게 생겼더냐 하는 식으로 소경막대질하듯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묻더니 더는 얻을것이 없다고 생각된 모양 제 편에서 한숨을 내불었다.
그들은 봉희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엄마를 찾아서야 헤여질 때가 되였음을 알았다. 봉희는 유정의 팔을 잡았다. 집에 들어 가 저녁밥을 해먹고 가라는것이였다. 유정이로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너무 늦으면 집을 찾기 힘들겠기에 성의를 마다하고 어린것의 야들야들한 볼을 쓸어 주고는 봉희와 헤여졌다.
편지를 전해야 할 집은 생각했던것보다 찾기 쉬웠다. 신원동

에 들어 서자마자 학교에서 돌아 오는 한무리의 중학생들을 만나 인민반을 물어 본 뒤로는 곧장 편지봉투에 씌여 진 주소의 문앞에 이를수 있었다. 초인종단추를 누르자 눈이 억실억실하고 트레머리를 한 50대의 풍신 좋은 녀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

유정은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왔노라면서 양복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주었다. 녀인은 편지를 받아 봉투의 주소를 읽으면서도 의심하는듯한 표정을 풀지 못하였다. 아마 생각지 않던 편지를 받게 된 때문이던가 아니면 군대에 있는 아들의 편지를 낯모를 사민처녀가 가지고 온것이 이상해서 그러는 모양이였다. 이랬든 저랬든 유정은 제 할바를 다 했으므로

《그럼 전…》 하고 한걸음 물러 섰다.

그제야 주인은 아들의 손님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는지 펄쩍 놀라며 유정의 팔소매를 움켜 잡았다.

《아니, 가다니? 주인의 체면도 생각해 줘야지. 이렇게 문전에 섰다 가는 법이 어디 있나? 들어 오라구, 어서…》

유정은 아직 더 들려야 할데가 있으므로 빨리 가야 한다며 뒤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런 소리쯤은 들은체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잡아 끌었다. 정 바쁘다면 오래 붙잡지는 않을테니 들어 와 앉았다라도 가야지 그냥 가는것은 례의가 아니라는것이였다. 주인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들어 가지 않는것도 손님으로선 실례되는 일이라 유정은 정말 잠간 앉았다 갈 작정으로 마지 못해 문턱을 넘어 섰다.

주인이 이끄는대로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유정은 곧 질문의 소나기를 맞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살이냐?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알게 되였느냐? 본직장은 어딘가?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 녀자들은 많으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은 몇년이나 했느냐? 아들이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무슨 다른 말은 하지 않더냐? 등 유정은 그 모든 물음에 일일이 대답하느라고 땀이 다 날 지경이였다.

《가만, 내 이 정신 보지? 손님을 앉혀 놓구서…》

손님을 앉혀 놓고 뭘 잘못했다는것인지 주인은 잠간 혼자 앉

아 있으라고 하며 황황히 방을 나갔다. 유정은 혹시 자기때문에 저녁밥이라도 지으려는게 아닌가 싶어 불안했지만 《잠간》 앉았다 갈 계획이고 주인이 들어 오면 곧 일어 나리라는 생각도 있어 안심하였다. 그러나 얼마후 볼 일을 다 보고 들어 온 주인은 그가 미처 딴 궁리를 할새도 없이 《부모님들이 함흥에 계시면?》하고 다시 물음보따리를 터쳐 놓았다.

《예서 합숙생활을 하겠구만?》

유정은 그렇다고, 연구소 합숙에 있다고 하였다.

《나도 의대를 졸업하고 처녀적엔 합숙신셀 좀 졌어. 5년씩이나… 거기선 몇해 됐어요?》

《전 겨우 3년째예요.》

《3년이면 합숙생활도 그만둘 때가 됐지. 실례지만 약속한 사람은 있어요?》

유정은 대답이 궁했다.

《아직.》

《아니, 아직두 약속한 사람이 없다니?》

화제가 점점 별난데로 번진다는 생각이 들어 유정은 대답을 피하고 시계를 보았다. 15분을 앞둔 8시였다. 그만하면 할말도 다 하고 일어 설 때도 된것 같아 망설이는 중에 마침 주인쪽에서 자리를 일기에 결들어 일어 났다. 그러자 이제껏 그리도 친절하던 주인어머니의 눈에 갑자기 노여움이 떠올랐다.

《이거 왜 이러나, 응? 어린 애도 아니면서…》

유정은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인어머니는 들은둥만둥 무작정 어깨를 눌러 앉히더니 이제 제꺽 뭘 들여 온다면서 이거나 보고 있으라며 과자통과 함께 책꽂이에서 두툼한 사진첩을 꺼내다 주고는 부엌으로 건너 가버렸다. 유정은 어이없이 무릎앞에 놓여 있는 사진첩만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편지 한통을 날라 준 값으로 남의 집에서 식사대접까지 받고 가는것이 처녀의 체면으로는 용납하기 우스운 일이였다. 그렇다고 그냥 뿌리치고 가버린다면 집주인에게 모욕으로 될것 같아 그럴수도 없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애당초 들어 오지부터 말았어야 하는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은

때 늦은 후회였다.

(별수 없지. 집안에 들어 왔으니 주인의 뜻을 따를수밖에…)

유정은 무심중에 사진첩을 끄당겼다. 다 보자면 몇시간이 걸릴 꽤 두툼하고 장정도 호화로운 사진첩이였다.

첫장에는 퍼그나 오래되여 누렇게 변색한 조선복차림에 두루마기를 입은 로인내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짐작에 유정이를 《억류》하고 있는 이 집 어머니의 시부모들인것 같았다. 색이 바랜 낡은 사진들은 다음장과 그 다음장에도 있었는데 쌍태머리처녀시절의 주인어머니의 약혼사진이며 결혼사진들도 있었다. 사진은 비록 《늙었》지만 사진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청춘이였다.

네번째 장에는 과거에서 갑자기 현실로 돌아 온것 같은 대폭의 천연색가족사진이 붙어 있었다. 집안엔 늙은이나 어린이는 없는듯 여름옷차림의 풍신 좋은 주인내외가 뒤에 숙성한 네 아들딸들을 주런이 세우고 찍은 사진이였다. 자식들중에는 대학생차림만도 둘인가 하면 맏이로 짐작되는 소좌의 견장을 단 군관도 있었다. 그런데 그 군관의 모색을 무심히 들여다 보던 유정은 저도 모르게 《어마！》하고 놀랬다. (아니, 이 사람？！…) 그는 자기가 착각이라도 하지 않는가 해서 눈을 슴벅이며 재삼 확인하고 혹시 하는 생각에 뒤장의 다른 사진들과 대조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대조확인해 보아야 사진속의 군관은 우물때문에 다투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날 수송차를 통과시켜 준 대대장이지 편지를 부탁하던 대위가 아니였다. 유정은 어이 없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껏 누구네 집에 들어 와 있으면서 누구네 집으로 알고 있었는가… 속히워도 아주 깨끗이 속히운셈이였다. 서로 다툰 사이에 편지를 부탁하자니 그럴수도 있으리라 리해는 되면서도 어쩐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괘씸한것은 그 능청스러운 대위였다. 본인당자는 말 못할 처지라 해도 그야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다툰 일 때문에 내가 부탁을 거절할가봐？ 그래서일수 있다. 하지만 녀성에게는 그것이 우롱이고 모욕으로 된다는것을 왜 그들은 생각지 못하는가？ 아마 그들 두 군관은 나를 감쪽같

이 속여 넘기고선 지금과 같은 경우까지 예견하며 통쾌하게 웃었을 것이다. 웃기만 했을가? 어쩌면 그들은 나를 사나이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 갈수 있는 허랑한 녀자로 인정했을런지도 모른다. 하기는 내가 바보노릇을 했지. 오다 가다 길가에서 만난 사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으니…

전실 저쪽에서 문소리가 들려서 유정은 얼른 사진첩을 번졌다. 거기에는 온통 대대장의 사진들뿐이였다. 다시 몇장 넘기는 사이에 주인어머니가 기름내를 풍기며 들어 왔다. 들어 오는 길로 이젠 국만 끓으면 된다면서 아까 책상우에 놓아 두었던 아들의 편지를 집어 들고 앞에 와 앉았다.

《보나마나 교재독촉이겠는데.》

편지를 뜯으며 하는 주인어머니의 걱정어린 소리였다. 그리고 짐작이 틀리지 않는지 다 읽고는 《원 성미두, 누가 있는 교잴 안보내 주나?》하고 아들을 나무람했다. 남의 집안일이라 못들은척 하려고 했지만 딱 마주 앉아 말하는데다 군관이 집에 교재를 독촉한다는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유정은 어망결에 댁의 아들은 무슨 교과서를 왜 요구하는가고 물었다.

《공부하겠다는거야. 무식해선 남포갑문건설을 못한다구… 그래 언제부터 수리대학 교과서들을 보내달라는데 어디 쉬 구할수가 있어야지. 령감까지 없다보니…》

《！…》

유정은 고까운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군관의 몸으로 갑문건설현장에서 대학과정을 독학할 결심을 했다는 자체가 퍼그나 놀랍게 생각되였다.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소좌, 성격이 꽤 메말라 보이고 군인의 명예와 자존심만 떼내면 남을것이 별로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우물사건》때 내린 결론이였다.) 그 대대장의 가슴속에 그런 큰 포부와 지성이 간직되여 있었는가?…

《그런데 교재가 있다고 공부를 꽤 해낼수 있을가요? 기초지식이 어느 정돈지…》

《해낼거야. 한번 한다 하면 그앤 해내고야마는 성미니까. 그

애두 한땐 대학생이였어. 건설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때 군대에 나갔지. 중학시절엔 수재라는 소리도 좀 들었구…》

주인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유정은 자신이 공연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중학시절에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실력이 뛰여 나고 건설대학 2학년까지 다녔다면 독학이 충분히 가능할것 같았다. 하기는 그만한 학력과 자신이 있으니 그런 결심도 했을것이다. 교재는 자기가 도와 줄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혹시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 싶어 조심스레 의향을 비쳤다. 그러나 주인쪽에선 오해는 커녕 외려 환성을 올렸다.

《옳지,수리대학을 나왔다고 했지. 그렇구만. 원 이렇게두 쉽게 풀리는걸… 가만 이름도 모르고 있었구만.》

《유정이라고 불러 주세요. …》

녀주인은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라 하더니 벌떡 일어 나 부엌으로 달려 나갔다. 무엇인지 타는 냄새가 났던것이다.

16

점심시간이다.

박선봉은 오늘따라 별로 밥맛이 당겨서 식당근무에게 한주걱 더 달래 먹고서야 식당문을 나왔다. 휴식장에는 벌써 장기판이 펼쳐지고 장기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둘러 서서 담배를 피우며 한담을 나누거나 패로 갈라 져 무릎싸움을 하는 축들도 있었다. 《곱배기》를 한뒤라 묵직해 진 배를 슬슬 문지르며 휴식장에 들어 선 선봉은 바지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쥔채 훈수군들의 머리너머로 기웃이 장기판을 내려다보았다. 마주 앉은것은 수가 비슷하여 서로 밤낮 제가 이긴다고 다툼질이 잦은 2분대장과 3분대장이였다. 형세는 3분대장쪽이 좋고 대신 2분대장은 쪽수가 많았다. 언제 봐야 수는 적게 쓰고 먹는데만 옴하는 친구다. 그가 형세가 불리해 지는것도 모르고 또 상대방의 말을 어째볼가 하여 졸을 내미는걸 보고 선

봉은 훈수 삼아 한마디 시까슬렀다.

《여, 2분대장. 졸을 당기고 말이 나가라, 말… 흉년에 장기 배운 놈처럼 먹을내기만 하지 말구.》

《흉년에 배웠어두 많이 먹으니 좋기만 하다. 젠장.》

겨루어 볼 엄두조차 못내는 명장기군의 훈수라 졸을 당기고 말이 나가면서도 2분대장은 대꾸질은 대꾸질대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세가 좋은 3분대장이 왕청 같은 수를 쓰는 바람에 선봉은 기가 막혀 《에에, 보리장기들.》하며 장기판을 떠나 이야기판에 끼우고 말았다.

누가 어디에서 물어 온 소식인지 화제는 령남리쪽에서 어제까지 수도공사를 완료하고 수도꼭지에서 신덕샘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리였다. 선봉이로서는 처음 듣는 소식이라 귀가 번쩍 띄여 당장 이야기판을 가르고 나서며 따져 물었다.

《여, 그게 사실이야?》

《사실 아니구요. 오늘 오후에 정식 개통식을 한답니다.》

그렇게 말하는것은 연공중대의 기통임무를 담당한 2분대 상등병이였다. 소식은 아마 그가 가져 온것 같았다.

《젠장, 이게 무슨 꼴이야. 남들은 벌써 수도물이 나온다는데 여기선 아직 땅만 파고 있으니…》

선봉은 개탄하며 우거지상을 지었다. 그들이 사는 끌살부리에서는 이도포리저수지를 수원으로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관은 다 묻었지만 아직 침전못이 다 되지 않아 연공들까지 동원되여 땅파기를 하는 형편이였다.

《어쨌든 령남리치들은 호강하게 됐어. 신덕샘물까지 먹으니 말이야.》

누군가의 그 소리에 선봉은 물었다.

《여, 그 신덕샘물이라는게 그렇게두 좋은가?》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 그 물을 마셔 보지는 못한 그였다.

《말두 말라요.》 상등병은 제법 아는체 하며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신덕샘물을 먹어 보고는 저마끔 조선에서는 신덕샘물만 팔아 먹어도 당장 부자가 될거라구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허 그치들, 조선사람이 뭐 봉이 김선달인줄 아는 모양이지?》
하면서도 그는 조선사람으로 태여나 외국인들까지 그처럼 감탄한다는 신덕샘물을 맛 보지 못했다는것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다.

오후에는 소대가 남포조선소에 철배 가지러 가야 한다. 가는 길에 령남리에 들려 개통식도 구경하고 신덕샘물을 맛 볼수 있지 않을가? 기껏해서 한시간만 지체하면 될것이다. 그런다고 문제될것은 없지 않는가.… 생각이 그쯤에 이르러 행동으로 넘어 가지 않으면 박선봉이 아니다. 그는 하사관들중에서 그중 배짱이 맞는, 금방 장기를 지고 뿌여니 장기판에서 쫓겨 나온 2분대장에게 생각을 비쳐 보았다. 다 이긴줄 알았던 장기를 량수 겸 장훈으로 지고 밸이 났던 김이라 그는 대뜸 찬성이였다. 문제는 철배 끌러 가는 400마력 예선 선장을 어떻게 삶겠는가 하는것이였는데 2분대장이 그건 제가 책임지겠노라고 해서 쉽게 풀렸다.

일이 착착 맞아 떨어 져 한시간 조금 지나 연공소대는 벌써 령남리로 건너 가는 400마력 예선우에 앉아 있었다. 박선봉은 군모를 벗어 쥔 손으로 허리를 눌러 짚고 배머리에 서서 검푸른 물결이 늠실거리는 바다를 둘러 보았다. 밀물때라 바다는 수위가 높고 물흐름이 빨랐다. 건설장에 처음 와서 밀물이 세냐, 썰물이 세냐 하고 다투던 일이 생각난다. 몇달전 그때가 아득한 옛적처럼 느껴 진다. 이제 그들은 이 바다에 저 피도와 끌살부리사이에 둘레가 5리 넘는 거대한 가물막이제방을 축성하여야 했다. 그들 연공들의 임무는 남포조선소에서 생산한 수백톤짜리 대형철배를 물길로 날라다 침강시켜 조립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건설이 시작되여 근 반년이 되는 최근에야 철배운반과 조립을 시작한 형편이고 그나마 연공들의 기능미숙으로 하루에 평균 두개를 조립해야 하는 철배를 사흘이나 닷새에 겨우 한두개씩 침강시키는 정도였다. 연공소대 부소대장이고 작업조장인 박선봉에게는 철배조립의 이 부진현상이 정말 참기 힘든것이였다. 그는 워낙 활동적이고 떠들썩하고 무슨 일을 하든 남들보다 잘하고 우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속이 편해서 조용해지는 성격이였다. 허나 요새 그가 겪는 안타까움은 단순히 성격

과 현실간의 불일치에서 오는것만은 아니였다. 그한테는 하나의 남다른 꿈, 갑문건설장에서 반드시 영웅이 되리라는 야심이 있었다. 그가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한것은 10여일전 국정치부에서 발간하는 신문인 《남포갑문》에서 친구인 장풍산이 소속되여 있는 잠수병소대가 영웅소대가 될것을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였다. 선봉은 신문기사를 읽으며 놀라도 크게 놀랐다. 아따, 이 머구리친구들 봐라. 대단한걸. 분대두 아니구 소대전체가 영웅이 되다니?… 영웅이라는것이 아무나 되는것이 아니지만 설사 된다해도 수십명의 소대전체가 영웅이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상도 못해 본 그로서는 어리둥절하여 잘 믿어 지지 않았다. 그는 신문기사를 세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는 저녁때 장풍산이를 만나러 급히 잠수소대 병실로 찾아 갔다.

《뭐 영웅이 되겠다고 결의했다면서?》 어째선지 신문을 읽었다는 소리는 하기 싫어서 그는 어디서 듣고 알게 된듯이 말했다.

《소대가 했지.》

푸른줄무늬의 해군샤쯔바람으로 배구를 치다가 나온 장풍산은 바지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며 심상히 대꾸했다.

《그래 자신은 있나?》

《뭐 말인가?》

《영웅이 되는것 말이지.》

장풍산은 대답 대신 담배를 내밀었다.

《글쎄… 소대가 되면야 나도 되겠지.》

선봉은 맞불을 붙여 한모금 빨고는 또 물었다.

《그런데 말야, 한개 소대가 몽땅 영웅이 된다는게 꽤 가능할가?》

《왜 불가능해 보이나?》

장풍산은 웃으며 되물었지만 어조에서는 든든한 배심이 풍겼다. 그것을 느껴선지 선봉은 대답이 좀 서슴어 졌다.

《뭐 꼭 그런건 아니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을게거든.》

《물론 쉽지야 않겠지. 사실 말해서 우리 같은게 영웅이 될 꿈을 언제 꾸어 봤나? 하지만 이 남포갑문건설장은 우리모두에게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고 있네. 그 요구를 받아 들여 우리는 결의를

다졌을뿐이네.》

장풍산의 이 말을 선봉은 잘 음미해 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일종의 질투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선봉은 잠자리에 들어 오래동안 뒤치락거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장풍산이 영웅이 된단 말이지. 학교때엔 공부밖에 모르던 샌님이… 그렇다면 나는 왜 영웅이 못되겠는가? 그것도 연공이 말이다. 연공영웅이 얼마나 많은가?… 난 온 끝살부리적으로 병실을 제일 먼저 짓고 비록 기본공사는 아니였지만 《로동신문》에 사진까지 게재된 일이 있다. 그러한 일들이 쌓이고쌓여 남들의 공로보다 크면 영웅이지 별것이 영웅이겠는가?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남이 된다면 나도 되는거지 나라고 영웅이 못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

영웅이 되리라는 열망은 남이 다 자는 깊은 밤에 그의 가슴속에서 이렇게 싹 터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철배조립이 그토록 락후하게 진행되고 가물막이가 부진상태에 있으니 영웅은 고사하고 어디 가 연공이란 말을 하기조차 부끄러운 형편이였다.

배는 드디여 령남리부두에 들어 섰다. 부두에는 끝살부리로 건너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배에서 내린 연공들은 질서 있게 두줄로 서서 수도개통식이 거기 어디서 있을것이라는 짐작으로 국지휘부가 있는 령남리소재지쪽으로 올라 갔다. 지나가는 군관에게 알아 보니 아뿔싸! 개통식은 점심시간에 벌써 했다는것이 아닌가.

《한심하군. 연공동지들도 참가 안했는데 저들끼리 해치우다니…》

2분대장이 두덜거렸다.

《됐어. 그대신 신덕샘물이나 실컷 맛 보지. 뭘.》

개통이 끝나고 보면 국지휘부쪽으로 올라 갈 리유가 없어서 선봉은 소대의 행군방향을 왼쪽으로 꺾었다. 오래간만에 령남리에 건너와 보는 연공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새롭고 놀라왔다. 바다 한가운데로 뻗어 나가기 시작한 기본언제며 지진이 뒤흔들어 놓은것 같은 13만산발파현장이며 거기 토취장으로부터 바다기슭언제공사장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 진 수송차행렬… 끝살부리에서도

그러루한 일들이 벌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령남리쪽에 비하면 일판이 어방없이 작았다. 확실히 여기는 판이 크고 공정도 많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연공들은 저마끔 두리번거리며 놀라움과 감탄을 련발하였다. 그러는 대원들을 보다 못해 선봉은 (실은 자기도 마찬가지면서) 눈을 흘기며 촌놈들처럼 놀지 말고 뭘 봐도 좀 눈치 있게 보라고 추궁하였다. 그러면 대원들은 얼마간 입을 다물고 범상한체 하다가도 이내 제 도루메기가 되여 떠들며 두리번거리는것이였다. 갈림길이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가야 옳겠는지 몰라 망설이는중에 앞서 가던 한개 분대가량의 병사들이 오른쪽 길로 꺾어 지는것을 보자 선봉은 《여, 삼촌네들!》 하고 롱조로 불러 세우고는 공동수도를 빨리 보자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연공들은 멀지 않은 어느 부대 주둔구역에서 공동수도를 찾아냈다. 무엇때문에 이런 곳에 수도를 설치했는지 몰라라 가까이에는 병실들도 없고 물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 물맛 보기에는 안성맞춤이였다. 대렬을 헤치기에 앞서 선봉은 소대원들에게 정치사업을 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에, 이제부터 물을 먹겠는데.》하고 그는 중대한 행사를 시작할 때처럼 자못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물을 먹기 전에 각자는 이게 어떤 물인지 그것부터 똑똑히 알아야 해. 전사 채병기!》

앞줄 맨끝에 키가 작달막하고 볼이 사과알처럼 빨간 전사가 힘차게 대답했다. 선봉은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물이 무슨 물인가고 물었다.

《전사 채병기 대답하겠습니다. 유명한 신덕샘물입니다.》

선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틀렸어, 상등병 강혁두!》

뒤줄 중간쯤에서 《예.》하고 굵은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예, 그건… 신덕샘물인건 사실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남포갑문건설자들이 물고생을 하는걸 아시구 특별히 보내주신 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의 샘물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바라던 대답이여서 선봉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비슷해, 바로 그거란 말이요. 거기다 한가지 보충한다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가 신덕샘물을 맛 있게 먹으면서 일을 더 잘할것을 바라신다는거… 그걸 알아야 하오. 알겠는가?》
《알았습니다.》
휴식구령과 함께 와… 하고 흩어진 대원들은 저저마끔 수도꼭지에 달라붙었다. 서로 밀치고 닥치며 한바탕 복새판이 벌어 졌다. 다른 때라면 선봉은 대원들의 그런 무질서한 현상을 묵과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렸거나 1분대순서로 질서정연하게 수도꼭지를 리용하도록 부소대장의 권리를 행사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어째선지 지금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대원들이 저마끔 수도꼭지를 먼저 차지하느라 이마싸움을 하고 웃고 떠드는것이 가슴 벅차게 느껴 지며 코허리가 찡 저려 왔다.

×

불리한 기상조건과 연공들의 기능부족으로 가물막이철배조립이 늦어 지고 있을 때 장풍산중사의 잠수조는 수심이 20메터가 넘는 바다밑에서 수중발파를 위한 폭파통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들 잠수병들의 임무는 연공작업의 선행공정인 철배가 놓일 자리를 마련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부단히 드나드는 깊은 바다밑을 평평하게 고룬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우묵진곳은 투석선으로 막돌을 실어다 채우는데 정확히 투석되였다 해도 잠수병들이 물밑에 내려 가며 평방메터를 일일이 고루어 주어야 하였다. 만일 투석이 자기 위치에 정확히 되지 못한 경우에는 옹근 한배의 크고 작은 돌들을 일일이 안아서 혹은 굴려 다가 우묵진곳을 메워 주었다. 반면에 바다면보다 높고 두드러진곳은 발파로 까버리는데 그것은 우묵진 곳을 메우기보다 훨씬 어려운것은 물론 위험까지 동반하는 일이였다.
장풍산의 작업조가 맞다들린 작업구역이 바로 그러한 돌출구

역이였다. 작업대상이 그런만큼 작업조의 임무는 교대시간에 수중발파를 위한 열개의 폭파통구멍을 마련하여 다음 교대에 넘겨주는것이였다. 하지만 장풍산의 잠수조는 자기 교대에 발파까지 다 해치울 결심으로 달라 붙어 애쓴 보람이 있어서 교대를 한시간 앞둔 지금 발파구멍들을 준비하고 폭파통까지 설치하는 참이였다.

이윽고 마지막폭파통이 밀페되자 잠수병들은 잠수정으로 올라왔다. 이어 발파가 시작되였다. 교대작업을 시작해서부터 근 여섯시간동안 물밑에 내려 가 있은 장풍산은 (규정에는 한 잠수공이 하루에 2시간 잠수하게 되여 있었다.) 마지막검열잠수까지 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쳐 손가락을 움직이기조차 싫었지만 작업조장의 책임감으로 바줄퉁구리에 몸을 기대고 앉은채 눈을 감고 바다밑에서 울려 오는 발파음을 세였다. 발파가 너무 깊은 곳에서 진행되다보니 물기둥 같은것은 애당초 일어 나지도 않았다.

(…서이, 너이… 일곱…)

여덟번째 발파음은 퍼그나 사이 뜨게 울렸다. 아홉번째는 울리지조차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불발인가? 설치한 폭파통은 열개였다. 경험으로 발파가 끝났음이 명백해 지자 풍산은 매 잠수병들이 자기가 들은 발파음수를 발표케 하였다. 역시 모두 여덟발이라고 하였는데 개중에는 일곱까지 센 잠수병도 있었다. 그 일곱은 무시해버린다 해도 두발은 확실히 불발이였다. 수중발파도 굴진막장에서의 남포질이나 같아서 이런 경우 불발된 폭파통을 제거하거나 재발파를 해야 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것이다. 다르다면 발파로 물이 흐려 불발된 폭파통을 찾는것이 매우 힘들고 제거하는 과정에 폭발이 일어 날 위험성도 있는것이였다. 지칠대로 지친데다 교대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발파에서 불발이 나고 보니 풍산은 맥이 풀려 말조차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맥을 놓고 주저앉을수도 없는 정황이여서 그는 일어나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다. 조원들은 저마끔 제가 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풍산은 그러한 조원들이 고마왔지만 양보할수는 없었다. 그들은 아직 불발된 폭파통을 다룰만한 잠수기능과 경험을 가

지고 있지 못한 햇내기들이였다. 그러나 조원들은 이런 때 경험을 쌓지 않으면 언제 쌓겠는가고 하며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 결국 펌프공을 두명 떨구고 나머지 셋이 (잠수조는 다섯명이였다.) 같이 잠수하기로 하였다. 잠수《투구》의 나사를 조이고 연추를 목에 걸자 세 잠수병은 구령과 함께 차례로 물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수심 10메터와 20메터 계선에서 그들은 각각 15분가량씩 머물렀다. 높아 가는 수압에 육체를 적응시키지 않으면 심장이 견디여 내지 못하기때문이였다.

드디여 세 잠수병은 잠수구역인 바다밑에 내려 섰다. 발파직후라 물이 뿌옇게 흐려서 불과 1메터앞도 정확히 가려 볼수 없었다. 폭파로 하여 부서진 바위돌들이 여기저기에 칼날처럼 예리한 모서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풍산은 발파전의 돌출부위가 어떠했던가를 곰곰히 상기하면서 바위돌들이 부서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다. 불발지점이 비슷이 짚이면서 어느덧 불발된 폭파통을 찾을수 있었다.

다른 한개도 그런 방법으로 찾아 냈다. 말 없는 신호에 따라 세 잠수병은 공기변을 조절하며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올라 오면서도 그들은 수심 20메터와 10메터 계선에서 15분씩 머물렀다. 머무름이 없이 그냥 곧추 부상하면 심장을 비롯하여 높은 수압을 받던 인체의 장기들이 순간에 파렬되는것이였다.

세 잠수병이 물우에 떠올라 보니 벌써 해가 지고 교대작업조가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결국 이날 장풍산은 규정에 하루 2시간 하게 되여 있는 잠수작업을 무려 일곱시간이나 하다나니 녹초가 되였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원들의 어깨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뻤다. 기쁘지 않을수 없었다. 어쨌든 두 교대분의 잠수작업과제를 한 교대동안에 다 해제꼈던것이다.

이날밤 서해안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새벽기온이 령하 4도까지 내려 갔다. 갑문건설자들로서는 매우 반갑지 않은 《겨울손님》이였다.

17

철판으로 만든 질통을 등에 진 윤건호는 삽으로 뜬 세멘트혼합물이 잔등을 울려 주는 수자를 속으로 세고 있었다.

(셋… 다섯… 여덟.)

건호는 돌아 보지 않은채 소리쳤다.

《한삽 더!》

《됐습니다.》

《빨리 하나 더!》

건호는 숨을 크게 들이 그으며 타입장을 향해 내달렸다.

혼합장에서 타입장까지 200메터… 1중대가 담아 주고 나머지 대대전체가 질통,맞들이,목고 하는것들을 지고 들고 멘채로 바삐 뛰여 다닌다. 모두들 벌겋게 달아 올라 헐떡거리고 흰 면내의들이 땀에 푹 젖어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 오는 찬바람도 그들의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혀 주지 못한다. 선동원이 힘찬 구호를 웨쳤다.

《동무들,조국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다. 힘을 내여 더 빨리 달리자!》

그에 화답하여 《달리자!》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달음질이 더욱 빨라지는것이였다.

윤건호는 앞서 가는 질통군들을 따라 잡으려고 입술을 사려 물었다. 그러나 타입장에 다 이르도록 종시 따라 잡지 못한채 달리던 속도로 질통의 혼합물을 쏟아 던지고는 다시 돌따서 혼합장을 향해 내달렸다. 그는 헐떡거리며 연방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손바닥으로 훑어 내려서는 땅에 뿌려 던졌다. 목에서 겨불내가 일고 심장이 금시 목구멍으로 튀여 나오는것 같았다. 부대와 떨어 져 철길공사를 할 때만 해도 철길공사를 대단히 힘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철길공사를 끝내고 돌아 와 부재장타입작업을 해보니 철

길공사는 또 아무것도 아니였다. 하지만 힘든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것은 더 추워 지기전에 빨리 바닥공사를 끝내고 함형부재 시험생산에 들어 가는것이다. 바닥공사는 아직도 일주일가량 해야 결판이 난다. 함형부재의 대형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고 중시하시는 새 공법의 실현을 당장 눈앞에 보고 싶었다. 뒤에서 누가 찾는 소리에 돌아 보니 정치지도원 리종각이였다. 그도 질통을 졌는데 헐떡거리며 뛰여 오더니 목에 건 수건으로 얼굴의 땀부터 씻으며 물었다.

《부대에서 총화모임이 있다던데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지금 몇시게?》

혁띠에 달아맨 시계를 꺼내보니 벌써 네시반이 넘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회의시작전까지 부대지휘부에 닿기 힘들것 같았다.

(젠장, 부대장한테서 추궁을 받게 됐군.)

부대장은 회의시간을 지키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여 만장앞에 세워 놓고 질책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였다.

혼합장에 도착하여 질통을 벗어 놓기 바쁘게 그는 물통에 엎드려 세면을 대충 하고 전투가방을 찾아 쥐자 부대지휘부를 향해 반달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서둔 보람도 없이 도착하여 보니 회의는 이미 시작되고 부대참모장이 한창 총화보고를 하는중이였다. 다행스러운것은 회의장소인 부대장의 방이 비좁아 여러 사람이 출입문밖 복도에까지 걸상을 놓고 앉은것인데 맨뒤쪽 걸상에 마침 2대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가 내주는대로 걸상 반쪽에 엉뎅이를 붙인 건호는 이제는 거의 마감고비에 이른듯 싶은 참모장의 총화보고를 듣다 말고 귀속말로 2대대장에게 물었다.

《부대장이 야단하지 않습데?》

《안할리가 있소? 하지만 걱정 마오. 1대대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였으니 이젠 욕을 안할게요.》

《보고에서 메랍데?》

《뭐 말은 많이 했는데… 쥐여 짜면 어려운 조건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철길공사를 앞당겨 끝내 부대

의 영예를 빛내고 함형부재생산을 공정대로 밀고 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다는건데… 하여튼 굉장히 평가했소.》

이번 총화회의에서 철길공사를 공정계획보다 거의 한달 앞당겨 끝낸 대대의 성과가 일정하게 론의되리라는것은 예견한바이지만 그처럼 높은 평가를 받게 될줄은 몰랐던 윤건호는 기쁜김에 얼굴까지 화끈 달아 올랐다.

이윽고 참모장이 총화보고를 끝내고 앉자 부대장은 보고에 대한 의견여부를 물었다. 대위인 3대대장이 자기 단위의 작업실적이 보고에 지적된것보다 높다는것을 해명한 뒤로 더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내가 좀 몇마디 합시다.》

부대장은 우선 1대대 즉 윤건호의 대대가 철길공사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금 높이 평가한뒤 매 구분대별로 작업실태를 분석하면서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교훈을 찾아 주거나 경고도 하였다. 그것이 끝나자 참모장이 다시 일어 나 부대앞에 나선 새로운 전투과업인 함형부재시험생산과 관련한 공정표를 제시하고 매 대대의 전투임무들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윤건호에게는 대대에 분담된 전투임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대대는 타입을 맡은 3대대에 콩크리트혼합물을 대주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일선 돌격조가 아닌 보장조였다. 반년가까이 부대와 떨어 져 부차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 또 그런 시시한 일을 시킬셈인가? 적어도 1대대를 말이다. 감정 같아서는 당장 일어 나 사유를 밝히고 임무를 바꾸어 줄것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따로 조용히 해결하는 편이 옳은 방법일것 같아 참았다.

총화회의가 끝나고 구분대장들이 몰려 나가자 건호는 부대장의 방으로 들어 갔다. 부대장의 책상앞에 바투 다가가 뻗치고 선 그는 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쳤다.

《부대장동지, 부대에선 왜 우리 대대를 이렇게 이붓자식처럼 취급합니까?》

담배를 피우며 참모장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 있던 부대장은 눈이 어웅해서 마주 쳐다보더니 이쪽의 감정에 말려 들지 않고 실

무적으로 되물었다.

《말하자는게 뭐요?》

《우리 대대는 근 반년동안이나 부대와 떨어 져 철길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혼합물보장이나 하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혼합물보장이 어째서?》

《우린 타입을 하겠습니다. 1대대야 어쨌든 앞에 서는게 원칙이지요.》

부대장은 의미 있는 눈길로 참모장을 돌아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1대대장이 일은 잘하는것 같은데 눈치는 무디구만.》

《?…》

건호는 부대장이 말하려는 취지를 가늠할수 없었다. 역습을 당한 기분이였다.

《이보라구 대대장, 동무는 대대에 독립적인 임무가 제기되면 전투력이 약한 중대를 고르나?

건설에선 보장이 힘들지 일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는건 아니야. 철길공사에서 보인 실력도 있겠다 그래서 우정 보장에 배치했는데 이붓자식으로 취급하다니…》

《…》

부대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적당히 얼려 넘기자는것인지 몰라 건호로서는 할 말이 없고 또 듣기에 나쁘지도 않았다. 거기에 참모장이 설명을 달았다.

《여보 대대장동무, 부대장동무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건 부재생산이 시작되면 인차 알게 될거요. 한두달 해보고 성차지 않으면 제기하오. 타입에 돌려 줄테니…》

그것은 귀맛이 당기는 소리였다.

《알겠습니다. 두달로 약속합시다.》

거수경례와 함께 부대장의 방을 나온 건호는 대대를 향해 걸었다. 날은 이미 어둡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 겨울에 잡히면서 벌써 두번째로 오는 눈이다. 피도에 기지를 둔 서해해양기상대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

가 일찍 들이 닥쳐 12월 하순경부터 바다가 얼것이 예견된다더니 틀리지 않는것 같았다.

대대지휘부에 들어 서니 정치지도원 리종각은 책상에 붙어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월 정기당총회보고서와 결정서를 써야겠다고 며칠전부터 벼르더니 오늘 저녁에야 시작한 모양이였다.

《회의에 가서 뭐 비판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글은 글대로 쓰며 하는 리종각의 말이였다. 눈이 녹으며 털이 젖어 이리저리 나눕은 군모를 벗어 걸고 걸상에 앉으며 윤건호는 좀 희떠울사한 어조로 대꾸했다.

《비판이 뭐요. 철길공사를 잘했다구 칭찬만 받다 왔는데…》

그는 총화회의과정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시험부재생산과 관련하여 대대가 콩크리트혼합물보장을 하게 된데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아하, 그렇다면 이 결정서도 내용이 좀 달라 져야겠는데요?》

《달라 져야지. 기본사상이 〈철길공사에서 발휘한 대대의 전투력을 함형부재생산에서 다시 한번 떨치자!〉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할것 같소.》

《옳습니다. 거기에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하는 사상을 앞에 붙여 주면 결정서의 종자가 아주 뚜렷해 집니다. 허허허…》

결정서를 다시 써야 하는 수고보다 종자가 뚜렷해 진것이 더 기쁜듯 리종각은 너털웃음을 터쳤다. 그는 만년필을 놓고 아주 돌아 앉았다. 앉자마자 《아, 내가 중요한걸 잊었구만.》 하며 도로 일어 나 걸상을 치우고 책상밑에서 지함을 끌어 냈다. 높이도 그래 사방으로 두어뼘 정도 될 아담하게 생긴 지함인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책상우에 올려 놓는걸 보니 꽤 무거워 보였다.

《자, 받으시오. 대대장동무가 학수고대하던것입니다.》

지함을 앞에 밀어 놓아 주며 하는 리종각의 말에 건호는 눈이 덩둘해 졌다.

《이게 뭐인데?》

《이런겁니다.》

리종각은 제손으로 지함뚜껑을 이리저리 제껴 주었다. 지함을 들여다 본 윤건호는 얼결에 벌떡 일어 나며 발꿈치로 걸상다리를 걷어 찼다. 지함속에 들어 있는것은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던 수리대학교재였다. 손에 잡히는대로 꺼내 보니 《구조물시공》이고 다른것을 꺼내 보니 《수리구조물》이였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났소?》

《집에서 보내 왔지요. 어머니가 보내더랍니다.》

《가져 오기는?》

《왜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정이라는 녀성연구사… 만나면 인사나 잘하십시오. 내가 초벌은 했지만…》

윤건호는 그새 철길공사를 마감하느라고 감감 잊고 있던 그 녀자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떠올랐다. 다툼질로 시작된 사이였다. 한데 이제는 수고를 해준 고마운 녀자로 되지 않았는가. 《만나면》이 아니라 우정 찾아 가서라도 인사를 하고 싶었다.

건호는 앉은 자리에서 책상우에 널린 책들을 이것저것 뒤져 보았다. 우선 함형부재의 대형화에 대한 서술부터 찾고 싶었다. 그러다가 그는 중얼거렸다.

《이거 어데도 함형부재를 구체적으로 전개한건 없구만.》

리종각은 없기야 왜 없겠는가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없을수도 있다고 제가 한 말을 부정하였다.

《… 왜 없을수 있는가? 교과서라는건 실천속에 검열된 진리들만 골라 넣는게지요. 그런데 함형부재공법이야 남포갑문건설에서 우리가 처음 해보는 새 공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직 실천의 검열을 받지 못한 셈이지요.》

《하긴 그렇구만.》

《그러나 실망할건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좋구 없으면 우리가 검열해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젠장, 그러니 함형부재공법은 교과서를 위해서두 반드시 성공시켜야겠구만.》

윤건호는 새삼스럽게 어깨가 무거워 지는것을 느끼며 먼저 공부할 책을 몇권 골라 내놓았다.

18

쇠붙이에 장갑짝이 떡떡 얼어 붙는 12월의 추운 날씨였다.

아침에 끌살부리로 건너 와 송관역 모래하차장에서 오전시간을 보낸 송철만은 점심때가 다 되여서야 가물막이공사장으로 들어갔다.

병사용누비솜옷우에 장령반외투를 덧입고 검은 가죽장갑을 낀 그는 가끔 외투주머니에서 손을 뽑아 귀를 비비면서도 오랜 군무생활의 습관대로 털모자귀덮개는 끝내 내리우지 않았다.

현장지휘부에 들어 서니 모두 식당으로 갔는지 16해상돌격대 대장 정대철이 혼자 전화기앞에 뻗치고 서서 어덴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워낙 목소리도 크지만 저쪽이 어딘지

《동무, 동무네 갑문을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옳은가? 옳다면 왜 당의 방침관철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안되오. … 래일 아침에 띄우지 못하면 문제가 설줄 아시오. …》 등 과격한 말마디들을 마구 내던지며 상대방을 무섭게 다불러대는것이였다.

난로를 끌어 안다싶이 하고 몸을 녹이던 송철만은 정대철이 전화를 끝내고 난로옆에 오자 어데다 그런 전화를 하는가고 물었다.

정대철은 걸상을 끌어 당겨다 놓고 앉으며 상대방이 남포조선소 생산부기사장인데 11호철배를 모레쯤에나 내놓을 소리를 하기에 좀 을러멨노라고 하였다.

《9호는 오늘중에 침강시킬수 있을것 같소?》

《바다상태로 보아 이번에는 성공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9호철배는 애꾸러기였다. 벌써 사흘째 다섯번이나 침강시키다가 실패하여 이제 4시간후에 오게 될 여섯번째 정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기온이 령하 16도요. 저녁무렵에는 더 내려 가겠는데 연공들이 동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겠소.》

《알겠습니다. 벌써 귀와 손발이 언 동무들이 여럿됩니다.》

《그것 보오. 겨울이 인제 시작인데 잘못하단 연공들을 싹 얼궈 죽이겠소.》

그때 문밖에서 누군가 규정대로 들어 갈수 있는가고 문의하였다. 정대철이 들어 오라고 하자 나드는 문을 왈칵 잡아채며 웬 초기군무사관이 문턱을 넘어 섰다.

《소장동지, 16해상부대 연공소대 부소대장 박선봉 만날수 있습니까?》

조심성은 적으나 군인다운 절도에선 나무랄데 없었다.

《저는 부대, 아니 국지휘부에 한가지 의견을 제기하자고 합니다.》

높은 상관들앞에서 주눅이 들가봐 우정 그러는듯 사관은 필요이상의 당돌함을 보여 주었다.

송철만이 입을 열기전에 성미 급한 정대철이 못마땅한 기색으로 낮으나 엄하게 쏘아 붙였다.

《여 상사, 동무한테는 직속상관도 없는가? 어데 와서 망탕…》

그는 수하의 일개 사관이 자기의 직속상관을 뛰여 넘어 국장한테 의견을 들고 온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철만은 놔두라고, 무슨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것 같은데 들어보자고 하였다. 그러기 바쁘게 박선봉은 주먹에 입을 대고 마른 기침을 깇더니 가슴을 쭉 펴며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리 연공작업조는 1호와 4호를 운반해다 침강조립했고 지금은 9호철배와 씨름질하고 있습니다.》

《오… 9호가 동무네거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거지만… 여러날 헛침강을 하며 교대작업을 하다 나니 이젠 주인이 애매해 졌습니다. 전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배조립공정과 교대작업에 대한 구체적표상이 없어선지 송철만은 사관의 의도가 얼른 짚이지 않았다. 정대철이 또 먼저 입을 열었다.

《동무, 무슨 소리요? 거기 뭐가 바로 잡을게 있소?》

《있습니다.》 말하는 품이 사관은 자기의 정당성을 믿어 의

심치 않는것 같았다.

《전 우리 연공들이 서툴어서 철배조립을 잘하지 못하고 그때문에 전반적인 가물막이공사가 공정보다 많이 뒤떨어 졌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자면 매 철배에는 해당한 주인들, 다시말하여 한 작업조가 운반으로부터 침강조립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한 조가 실패하면 그 조는 무조건 철배를 내리게 합니다. 전 이것부터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송철만은 사관이 무엇을 말하자는것인지 인제는 좀 리해되는것 같았다.

《하니까 동무는 침강이 실패하면 그 실패한 작업조가 다음 정조때까지 그냥 철배우에 있다가 다시 해봐야 한다 그거겠소?》

《옳습니다. 국장동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소장이 자기의 말을 리해해 주는것이 기쁜지 사관은 벌쭉 웃기까지 하였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그게 어느 소설책에도 씌여있던건데 사실 성공이라는거야 실패를 겪어 본 다음에 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패맛을 보고 〈다음번에는 성공할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려와 난로옆에 앉아 있고 다른 생뜨기 작업조가 교대해 나가선 또 실패하고… 매번 봐야 이런 식인데 운반해 올 때부터 보면 개개의 철배는 제가끔 특징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매 작업조에 철배를 하나씩 맡겨 주어 이건 너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 기능도 높아 지고 경쟁적으로 침강도 더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만은 이 박선봉이라는 초기군무사관이 철배조립과 관련하여 나름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시기적절한 때에 아주 요긴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며 정대철을 건너다 보았다. 무슨 깨달음이 있는듯 부대장도 종전의 못 마땅한 기색을 지워 버리고 신중한 표정으로 달아오른 난로허리를 이윽토록 쏘아 보더니 눈길을 들어 마주 보는데 그 시선은 명백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참고할 가치가 있는것 같습니다.》

송철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관을 쳐다보았다.

《좋은 의견이요. 만일 매 작업조에 철배가 분담되면 그건 동무의 의견이 관철되였다는것을 말하며 또 그것이 성과를 거두면 동무를 표창하겠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며 철만은 아까부터 그가 어쩐지 낯 익다는 생각이 있어서 갑문건설을 오기전 어느 부대에 있었는가고 물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도하대대에 오셨다가 장기를…》

그는 생각났다.

《그러니 옛전우를 만난 셈이구만. 장기친구를… 허허허.》

송철만은 아무튼 반갑다고 하며 정대철에게 박선봉과 같은 군부대출신이라는것, 상사의 할아버지가 어떤 장기군이며 여섯살짜리 어린 손자에게 왜 장기를 배워 주었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사관에게 시선을 돌리였다.

《좋아. 이제 기회를 봐서 한번 승부를 겨루어 보자구.》

사관은 거수경례를 붙이며 규정대로 가도 좋은가고 하였다. 송철만은 돌아 가도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막 돌아 서는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가만!》하고 멈춰 세웠다.

《동무네 그 도하대대에서 잡아 왔던 새끼호랑이는 어떻게 했나?》

박선봉은 벌쭉 웃기부터 하더니 도하훈련이 있은 날 오후에 한개 분대의 무장호위를 붙여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는것이였다.

《그래 엄지범이 새끼를 데려 갔는가?》

《데려 갔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새끼는 없고 그 자리엔 엄지범이 싼 똥만 한무지 남아 있더랍니다.》

《허-어. 그놈 아주 고약하군. 새끼를 돌려 줬으면 이쑤시개루 수염이라도 몇대 뽑아 놓을것이지 똥만 싸놓고 가다니…》

그러나 상사는 범똥이 약이라고 하였다. 술미치광이한테 범똥을 술에 타서 먹이면 술버릇이 뚝 떨어 진다는것이였다. 그 소리에 송철만은 물론 사관을 못 마땅하게 여기던 정대철이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한바탕 웃었다.

다섯번의 실패끝에 마침내 성공한 9호철배의 침강작업을 마감

까지 보고 난 송철만은 정대철과 같이 해상지휘선을 타고 곧장 피도로 건너 갔다. 피도에는 제5잠수편대지휘부가 있고 또한 거기서는 가물막이 하류제방접속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남은 오후 시간에 그 두 단위의 사업을 료해하고 필요하면 협의회도 가질 작정이였다. 그러나 섬기슭정박장에서 배를 내려 둔덕에 올라 서자마자 그는 예상치 못한 정황과 맞다 들었다. 거기 섬에서 아스라니 바라보이는 령남리기슭에서 떠나 바다를 꿰질러 피도를 향해 전진해 오고 있는 기본언제공사장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잠잠해 있었던것이다.

《여보, 저 〈백공둘〉이 왜 저렇소? 쥐 죽은듯 잠잠한게… 내가 눈이 잘못 됐는가?》

하지만 잘못된것은 눈이 아니였다. 정대철도 눈을 부릅뜨고 이윽히 건너다 보더니 같은 소리를 하였다. 수송차나 투석선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무엇때문인가? 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순간이라도 정지가 있을수 없는 언제공사장이였다.

철만은 피도와 언제공사장간 무선통화의 가능성여부를 물었다. 정대철은 거리가 좀 멀어서 감도가 시원치 않지만 통화는 할수 있다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무선통화기를 벗어 넘겨 주었다. 안테나를 뽑고 전원단추를 누르자 감도가 나쁘다는것이 즉시 알렸다. 그런대로 출력을 최대로 놓고 《백공둘》을 찾으니 한참만에 잡음의 혼탁속에서 마침 부대참모장이 응답하였다. 공사장이 왜 잠잠한가 하는 철만의 물음에 참모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얼음때문입니다. 얼음장들이 몽땅 언제끝에 몰려 들어 수송차가 물동을 쏟아 부을수 없고 투석선들도 투석위치에 접근할수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납득이 잘되지 않아서 철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그래서야 까닭이 명백해 졌는데 밀물을 따라 들어 온 얼음장들이 언제끝에 걸려 빙빙 돌면서 떠나지 않기때문에 뿔부재와 토량을 처리할수 없는 상태가 조성된것이였다.

철만은 행동계획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무선통화기의 전원을 꺼서 정대철에게 주고 말했다.

《10호철배부터는 아까 박선봉이 말하던대로 하오. 분명 성과가 있을거요.》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한시간이 채 못되여 송철만은 벌써 령남리에 건너 가 있었다. 썰물때 리용하는 광량만쪽 부두에서 배를 내린 그는 곧장 함형부재장으로 들어 갔다. 바다쪽을 6메터 높이의 감탕제방이 성벽처럼 둘러 막고 있어서 부재장안은 바람기도 한결 약하고 오후작업이 방금 시작된 때라 강추위속에서도 작업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주변에 세멘트창고며 통나무더미며 철근무지며 휘틀제작장이며 하는것들을 거느리고 두개의 시험부재가 서로 키다툼을 하며 나란히 솟아 오르고 있었다. 한개가 자그만치 80여세대분의 5층아빠트와 맞먹는 건물이다. 미끄럼식휘틀을 쓸줄 몰라서 200명의 군인들이 평양의 어느 건설장에 들어 가 배워 가지고 나온것이 10여일전인데 벌써 3메터가량 키가 자라 올랐다. 1호부재타입장으로 올라 간 송철만은 지휘관을 불러 오전에 타입한 실적을 알아 보았다. 2호부재도 그렇고 휘틀이 전반적으로 반메터가량 이동한 폭이였다. 도시의 어느 주택건설장에서 령하 17도의 추위속에서 반나절동안 휘틀을 그만큼 밀어 올렸으면 아마 기적이 일어 났다고 떠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갑문건설장에서는 그것을 성과라고 말할수 없다. 성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굼뜨다고 추궁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였다. 겨울의 바다가라는 악조건은 도대체 고려에도 넣지 않는다. 문제는 그렇게 빨리 밀어 올려도 공정기일이 자꾸 처지며 공정계획 대 실적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것이였다. 그 차이를 메꾸기전에는 어떤 성과도 감히 성과라고 말할수 없었으니 함형부재생산과 관련한 송철만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벌어 지는 그릇바구니를 어떻게 메꾸겠는가 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혼합기가 돌아 가지 않는것이 보였다. 2호부재의 동쪽벽 타입을 보장하는 혼합기였다. 골재운반용 벨트콘베아도 돌아 가지 않았다.

웬일인가. 철만은 대번에 신경이 곤두섰다. 한창 일자리를 내야 할 시간에 기계들을 세우고 있다니.

무슨 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참을수 없는 현상이여서 그는 기본언제공사장으로 넘어 가려던 걸음을 돌려 혼합장으로 들어 갔다. 원인을 따져 보고 문제를 단단히 세울 심산이였다.

《기계를 세워 놓고 뭣들 하오?》

철만은 가까운 1호혼합기에 다가서며 엄하게 물었다. 즉시 함마질소리가 멎고 배출구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대를 잡았던 군관이 일어 섰다. 대대장 윤건호였다.

《혼합물보장을 동무네가 맡았던가?》

소좌는 그렇다고 하며 베개통처럼 굵게 붕대를 감은 왼손을 슬며시 허리뒤로 감추었다. 거기에는 개의치 않고 송철만은 기계들을 멈춰 세운 리유를 물었다.

《몰탈이 혼합기안에서 몽땅 얼어 붙었습니다.》

《물을 끓여서 하겠는데 왜 얼궈붙여?》

윤건호는 그 원인을 타입장에 밀었다. 타입을 맡은 3대대에서 혼합물을 제때에 받아 주지 않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아마 용접력량이 걸려 철근골조를 선행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용접공문제라면 송철만은 할 말이 없었다. 함형부재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끝살부리가물막이공사장에서도 용접공을 많이 요구하지만 풀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것이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나?》

《요새는 거의 매일이다 싶이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서너번씩 까낼 때도 있습니다.》

송철만은 미간을 찌프리였다. 혼합기안의 몰탈이 하루에 서너번씩 얼어 붙는다면 그것을 까내는데만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소비되고 타입은 타입대로 또 얼마나 늦어 지겠는가.… 하지만 해결방도는 없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추위가, 아니 겨울이 빨리 물러가고 봄이 와주는것인데 봄은 아직도 멀리에 있었다.

《한데 그 손은 왜 그렇게 싸맸나. 다쳤나?》

붕대를 베개통처럼 감은걸 보니 상해도 크게 상한것 같았다. 소좌는 대수롭지 않게 살가죽이 벗겨 졌을뿐이라고 하면서도 붕대감은 손을 내놓기 꺼려하였다. 그것이 수상하여 재차 따져 물어서야 그는 정대에 손바닥이 얼어 붙은줄 모르고 집어 던졌는데 손바닥살가죽이 통채로 정대에 묻어 떨어 졌다는것이였다. 그러고 보니 손을 베개통처럼 싸맨것이 대대장뿐이 아니였다. 여러 전사들이 손을 그렇게 싸매고 있었는데 알아 보니 다 비슷한 원인으로 얻은 부상들이였다. 겨울상처는 워낙 잘 아물지도 않지만 자칫하면 동상으로 번져 괴저를 일으킬수도 있다. 때문에 사실 그들모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였다. 하지만 송철만은 그들더러 병원에 가보라는 말은 못하고 얼지 않게 손건사들을 잘하라는 소리만 하고 혼합장을 떠났다.

몰아치는 바람이 입김에 젖어 꾸득꾸득해 진 털모자끈을 날리며 볼편을 얼얼하게 후려쳤다. 그는 모자끈을 모아 입에 물고 걸었다. 바람은 제방끝으로 나갈수록 더 세차졌다.

송철만은 언제끝단에서 부대참모장을 만났는데 그는 아주 괴이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 워낙 키가 작고 가로 퍼진 사람이 웬일인지 털모자를 쓴 우에 백포를 둘둘 휘감아 마치도 과학환상소설에 나오는 우주인 같았다.

《왜 이런 꼴을 하고 있소?》

참모장은 병사용장갑을 낀 손으로 오른쪽 볼편을 툭툭 때렸다.

《망할 놈의 이발이 쏴서 그러지 않습니까.》

《쏘는 이발이면 뽑아 버릴게지. 아까와 건사하고 있소?》

《부은게 내리면 뽑긴 뽑아야겠습니다.》

철만은 일을 몇시간째 못하는가고 물었다. 벌써 다섯시간 되였다고 하며 참모장은 썰물이 져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언제밑을 가리켰다.

《저걸 보십시오. 저 얼음을… 물이 찌니 덧쌓이기까지 합니다.》

참모장이 가리켜 보이는 언제단면에는 밀물에 들어 오며 걸리고 썰물이 나가며 걸린 집채 같은 얼음장들이 무지무지 쌓여 있었다. 제방이 전진하지 못하는것은 바로 그 얼음때문이였다. 제

방밀에 얼음장들이 묻히면 안되였다. 봄에 나가 녹으면 제방뚝이 꺼져 내리면서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빚어 낼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백명의 군인들이 바닥에 내려가 나무나 철장대로 얼음덩이들을 까서 끌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개미역사나 다름없어 내려다 보기조차 답답하였다.

《저걸 폭파로 활 날려 버리면 안되오?》

그의 물음에 참모장은 고개부터 가로 저었다. 한번 해봤는데 덩이얼음이라 방향발파는 안되고 이쪽 언제경사면에 날아 와 박히면서 오히려 일에 지장을 준다는것이였다.

송철만은 폭파문제는 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 저렇게 해서야 무슨 일을 하겠소? 달리 방법을 찾아야지.》

《전사들이 해보자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참모장의 말이였다.

《?》

《저렇게 언제끝에 얼음이 걸려 쌓이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말입니다. 밀물이나 썰물이 지면서 얼음이 떴을 때 아예 밀어 버리자는것입니다.》

《그러자면 사람이 물에 들어 가야지 않소?》

《들어 가야지요. 실은 그때문에 용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철만은 주먹등으로 왼쪽허리를 눌러 짚은채 참모장앞을 오고가며 골똘히 생각하였다. 방법자체는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그런데 이 한겨울에 전사들을 바다에 들여 보낸다는것이 문제다. 누비솜옷과 외투까지 입고도 견디기 힘든 추위에 바다물속에 뛰여 들어 얼음장을 밀어 낸다는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불과 몇분사이에 사지가 얼어 가드라 들고 더욱 나쁘기는 물속에서 심장마비가 오는것이다.

동상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니 그만두어야 하는가? 과연 단념할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이건 힘 들어 피하고 저건 위험해서 단념하는 식으로 해서야 어느 세월에 제방을 저 먼 피도까지 밀

고 나가겠는가. 시오리 저쪽의 피도는 한바다우에 떠있는듯 아득히 바라보이는데… 그러자 그는 갑자기 자신이 불만스러워 졌다. 이 무슨 나약한 생각인가? 왜 단념한단 말인가? 방법이 아주 없으면 몰라라 있는 이상 무엇이 두려워 주저한단 말인가?…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 철만은 참모장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결심을 내놓았다.

《한번 해보기요. 물이 들어 올 때도 됐으니.》

《무얼 말입니까?》

《그 얼음을 밀어 내는 방법말이요. 전사들이 제기했다는…》

참모장은 당장 눈이 퀭해 졌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가 말하는 사고란 물론 심장마비나 동상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철만은 이미 결심한바를 변경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죽는게 그리 두려워서야 싸움은 어떻게 하겠소. 사고는 나지 않을거요. 전사들이 제기한 문제면 그건 그들자신이 이겨 낼만한 용기와 심장이 있다는걸 의미하오. 조직하시오.》

참모장은 더 다른 말은 않고 이윽히 제방아래만 내려다 보더니 갑자기 볼을 싸쥐였던 손으로 허공을 내리쳤다.

《젠장, 그렇다면 해봅시다. 전쟁인셈치구…》

참모장은 목에 둘러 감았던 백포를 풀어 헤치며 신호수를 불러 철수나팔을 불라고 하였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던 새가 급히 땅으로 내리 꽂히는것 같은 나팔소리가 몇번 울리자 제방밑에서 얼음을 까내던 군인들이 지레대며 쇠망치며 바줄이며 하는 작업도구들을 둘러 메고 제방우로 올라 왔다. 그런데 그 전사들속에 뜻밖에도 정치부장 리응천이 끼여 있었다.

《물이 들어 오자면 아직 이른데 왜 벌써 철수합니까?》

쇠망치질을 하다가 얼음덩이에 얻어 맞았는지 이마에 시퍼런 혹이 돋고 눈섭에 고드름이 달린 리응천의 물음이였다.

《전투를 좀 다른 형식으로 해야 할것 같소.》

송철만이 그 다른 전투형식에 대해 설명하자 리응천은 대뜸 찬성해 나섰다.

《옳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해보니 까내는 놀음은 틀렸습니다.》

전사들에게는 참모장이 설명했다. 일이 일 같지 않아 맥만 나던 차에 자신들이 제기한 작업방법이기까지 해서 전사들모두는 환성을 올리며 벌써 군복단추를 벗기거나 팔다리운동을 하는 축들도 있었다.

하여 야전천막이며 장작이며 갈아 입을 내의에 모포며 더운 물이며 술이며 하는것들이 준비되였다.

리응천의 지시로 국정치부방송차도 달려 왔다.

또 그러는 동안에 물이 들어 오면서 얼음장들이 뜨기 시작하여 1진의 한개 중대 군인들이 솜옷을 벗고 동내의우에 구명조끼만 입은채 물에 들어 갈 차비를 하였다. 그 1진에 끼우려고 송철만이 솜옷을 벗고 있을 때 리응천은 벌써 구명조끼를 고르고 있었다. 체중이 백키로그람이 넘는 사람이라 몸에 맞는것이 없는지 한참 이것저것 쥐였다놓았다 하던 그는 마침내 하나 골라 쥐고 기뻐하며 팔을 꿰다가 그제야 띠여본듯 바삐 다가왔다.

《아니 국장동무, 그 몸으로 뭘 어쩌자는겁니까. 그만 두십시오. 물에는 내가 들어 가겠으니 국장동무는 여기서 지휘나 하십시오.》

리응천이 고집을 부릴것 같아 철만은 우정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무슨 소릴 하오. 전사들을 물에 들여 보내고 나는 구경이나 하란 말이요? 내 걱정은 말고 저기 방송차에 가 선동연설이나 하오. 정치일군은 이런 때 마이크를 쥐는게 옳소.》

그런다고 물러설 리응천이 아니였다.

《물론 선동연설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물에도 내가 들어 가야 합니다. 국장동무야 몸에 총상도 있고 더구나 타박상까지 가진 영예전상자가 아닙니까?》

《그건 또 무슨 그런 당치 않은 소리를 하는거요.》

철만은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리응천을 흘겨 보았다. 흘겨 보며 속으로 이렇게 힐난했다.

이 량반이 처음 만나서부터 그 소리더니 그냥 이럴내긴가? 체통도 작지 않은 사람이. … 그는 남의 건강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실

례로 된다는것을 알려줄 필요를 느끼며 감정적으로 말했다.

《여보 정치부장동무, 그 말은 감사하오. 한데 동무는 어째 남의 부상처를 자꾸 건드리면서 그러우? 명백히 말해 두는데 난 〈영예군인〉도 아니고 더구나 부상처는 아무일 없소. 그러니 앞으로 더는 그런 말을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의 말만 들어도 모욕감에 입을 다물겠는데 리응천은 그러지 않았다.

《그럼 〈영예전상자〉는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말을 다시 안할순 없을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사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국장동무의 건강을 책임질데 대한 〈특별과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제가 쉬라면 쉬고 병원에 가라면 가고… 복종까진 아니라고 해도 거부하진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국장동무의 부상처를 왜 자꾸 건드리는지 이젠 알겠습니까?》

《?!》

철만은 가슴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그런 관심까지 돌려 주시다니… 이 평범한 전사에게… 그는 감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쯤하면 안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리응천은 더 다른 말은 않고 돌아 서더니 씨엉씨엉 방송차 있는데로 걸어 갔다.

뒤이어 체구에 비해서는 그리 우렁하지 못한 그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 나왔다.

《동무들! 보는가? 지금 우리의 돌격로를 얼음바다가 막고 있다. 저 얼음장들을 적의 땅크나 장갑차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 뒤에는 조국이 있다. 당중앙이 지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해야 옳겠는가? 대답하라. 물러서야 옳겠는가?…》

그러자 병사들이 격동된 목소리로 화답한다.

《아니다!… 물러설수 없다!…》

《나가자!… 짓부시자!…》

웨침과 함께 틀어 쥔 주먹들이 불끈불끈 솟아 하늘을 찌른다.

《그렇다. 동무들! 돌격해야 한다. 우리모두 리수복영웅처럼

싸우자!》

피를 끓이는 불 같은 호소와 함께 리응천은 리수복영웅의 시를 격조높이 읊기 시작하였다.

나는 해방된 조선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송철만은 제1진의 군인들과 함께 바다에 뛰여 들었다. 리응천의 격동적인 선동도 있었거니와 주저하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병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청춘의 의기와 군인의 용감성을 뽐내느라고 태연히 웃는가 하면 주먹을 들어 떠나온 제방우에 격려를 보내는 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과 랑만은 인차 엄습하는 랭기를 이겨 내느라고 지르는 윽— 윽— 소리로 변하였다. 저마끔 각이한 동작으로 첨버덕 첨버덕 헤염치며 기합을 쓰며 악— 악— 소리를 지른다. 그러한 혼잡속에서 각자는 목표한 얼음장들에 다가가 떠밀기 시작하였다.

물에 감히 뛰여 들기는 했지만 빠르지는 못해 어쩔수 없이 뒤떨어 진 철만은 저만치 큰 얼음장에 혼자 달라붙는 전사가 보이자 그쪽으로 헤염쳐 갔다.

《같이… 밀자구.》

벌써 이발이 덜덜 맞쪼이며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대로 그는 어깨로 얼음장을 떠밀며 전사에게 정 못 견디겠으면 자

기에게 매달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사는 제법 당돌하였다.

《아 아닙니다. 구… 국장동지가… 나를 부,붙드십시오.》

단숨과 함께 토막토막 끊어 져 나오는 전사의 말에 송철만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턱이 얼어 붙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사방에서 울리던 악— 악 소리가 차차 《영차!》소리로 바뀌였다. 미구에 그것은 여럿의 소리로 합쳐 지면서 서로 먹이고 받는 하나의 곡조로 전환되였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언제우에서 나팔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미 약속된 교대가 준비되였으므로 1진은 나오라는 신호였다. 송철만은 나팔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얼음장을 떠밀기에 여념이 없는 전사의 어깨를 건드려 고개짓으로 제방쪽을 가리켰다. 그제야 전사는 얼음장에서 떨어졌다. 리응천을 선두로 한 제2진이 벌써 저만치에서 오고 있었다. 얼어 마비된 팔다리를 간신히 놀려 헤염치며 송철만은 제방우를 바라보았다. 제방우에서는 검은 연기를 뿜어 올리며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충천하는 화광을 배경으로 벌써 대기하고 있던 수송차행렬이 움직이며 뿔부재와 흙을 쏟아 부었다. 경사면을 힘차게 굴러 내린 부재와 흙이 제법 사태를 이루며 수면을 부글부글 끓인다. 끓어 번지는 바다우로 투석선행렬이 예선에 끌려 지나 가며 련달아 막돌을 투석한다. 그때마다 하늘을 찌르며 길길이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다. 올랐다가는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 솟구치는 시뻘건 흙물기둥의 숲… 그것은 하나의 전장이였다. 철만은 전쟁때 전선에서 그런 전장을 체험한바 있었다.

그런 기억탓인지 전쟁때 부상당한 다리며 허리가 못 견디게 아파났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씹어 삼키며 강잉히 미소를 지었다.…

이날부터 기본언제공사를 담당한 102부대전사들은 그렇게 하루 네번씩 교대제로 바다에 뛰여 들어 몸으로 언제를 한치한치 밀고 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간고한 전투속에서 갑문건설을 시작한 두번째 해—1982년이 저물고 새해가 왔다.

제 2 편

1

이 저녁에도 **김정일**동지의 넓은 집무탁우에는 많은 문건들이 쌓여 있었다.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에서 올라 온 수십건의 보고, 사업계획서, 각종 실태보고, 3월초로 예견하고 있는 시, 군인민회의대의원선거와 관련한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중앙통신사에서 올라 온 국제정세분석자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에서 제안한 비상확대회의 계획… 당과 국가사업전반이 응축된 그 모든 문건들은 사사건건이 다 나름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근 30분가까이 읽으신(여러군데 가필도 하시며) 적들의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당보에 내보낼 시사론평에 해당한 의견을 써 밀어 놓은 그이께서는 총참모부 적정통보를 읽으시려다 말고 중앙통신사에서 올려 온 통신자료를 당겨다 펼치시였다.

—따스통신, 남조선주둔 미군이 《필요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는 미륙군참모총장 메이어의 도발적폭언 규탄.

—신문 《쁘라우다》,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가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 폭로.

—신화통신, 일본총리 나까소네의 아메리카주, 남조선행각 론평. 미국이 일본에 최신형조기경보기 2대를 제공.

(유피아이통신)

—미국대통령 레간이 26일 국회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군사비를 대폭 늘일것을 요구.

—그리스총리 자기 나라는 나토의 군사연습에 참가하지 않을것

이라고 언명.(아테네 통신)

…

그때 가벼운 목소리와 함께 책임서기가 문간에 들어 섰다.

《총참모장동지가 급히 보고 드릴 문제가 있다고 왔습니다.》

(총참모장이 급히 보고할 문제？… 전연에서 무슨 새로운 정황이라도 발생했는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며 통신자료를 밀어 놓고 응접실로 나가 만나 보니 예견하신 그대로였다.

《룡연반도상공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공군 전투기가 적들의 고사포사격을 받았습니다.》

총참모장은 침착하려고 애 쓰면서도 어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의 흥분을 눅잦혀 주시려고 그이께서는 우정 담배갑에서 한대 꺼내 총참모장의 손에 쥐여 주시였다.

《그게 언제 일어 난 사건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20시 40분경입니다.》

20시 40분경이면 그이께서 적들의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폭로규탄한 《로동신문》대장지의 시사론평을 읽어보실 때쯤이였다. 우연히 일치되는 그 시공간속에 어떤 피할길 없는 대결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피해상황을 물으시였다.

《다행히도 비행사가 아주 유능한 동무여서 제때에 사격권을 벗어 났다고 합니다.》

《적들이 포탄을 몇발이나 쏘았답니까？》

《비행사의 추측과 지상관측소의 감시결과가 같은데 300발이 넘습니다.》

총탄도 아니고 포탄을 300발이상 쏘았다면 그것은 도발치고도 큰 도발이였다. 무엇을 위한 도발인가？ 《팀 스피리트 83》이라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앞둔 놈들이 그 전야에 이런 도발로 우리를 자극하여 가뜩이나 긴장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진의도가 과

연 무엇인가?

《총참모부에서는 적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도발을 걸어 왔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적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팀 스피리트〉 군사연습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타진해 보자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며칠후부터 연습을 시작해야겠는데 우리가 아무런 립장도 표시하지 않으니 아마 좀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이께서는 총참모부의 정황분석이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대응방도에 대해 문의하시였다. 총참모장은 적들의 도발목적이 명백한것만큼 보복타격으로 강경반응을 보이자는 결심이라고 하였다.

《보복타격이라는건 무엇을 념두에 둔것입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총참모장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힘을 주어 말을 이었다.

《요새 적들의 〈SR－71〉 고공정찰기가 수시로 우리 령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가 이달에만도 열여섯번이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강령반도상공이나 고성 동쪽령공을 침범하는것으로 그쳤는데 이제 연습에 정식 들어 가면 좀 더 깊이 들어 올것 같습니다. 그놈을 한대 격추해 버리자는것입니다. 〈EC－121〉처럼 말입니다.》

《EC－121》이란 십여년전에 우리 공화국령공에 깊이 들어 왔다가 아군비행사들의 령활무쌍한 전술에 걸려 옴짝 못하고 공중분해된 미국간첩비행기였다. 그 격추사건때문에 한때 세계가 들썩거리고 정세가 전쟁접경에 이르렀던것도 사실이지만 적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이 얼마나 자기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방위에 빈틈없이 준비되여 있는가를 알게 한 성공한 작전이였다.

《적들의 도발에 반응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나도 반대가 없습니다. 반응이 약하면 적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더 큰 군사적모험에 매달릴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경일변도만 해선 안됩니다. 그러니 대응문제는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당면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놈들을 끌어 내여 되게 다불러 세워야 하겠

습니다. 자기의 령공에서 정상적인 근무수행중에 있는 비행기에 포사격을 가한 놈들의 죄상을 따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들의 도발과 관련한 론의를 그것으로 일단락 지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연에서 경계근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적들이 달려 들면 즉시에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전군이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문제, 군인교양 등 정세의 긴장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강조하신데 이어 남포갑문건설정형에 대해 문의하시였다. 총참모장은 최근 긴장한 정세에 쫓겨 갑문건설에 관심을 못 돌렸노라고 하며 공정계획 대 실적이 점점 더 차이나는것 같다는것, 겨울철이여서 이러저러한 공사들이 중단된 상태라는것 등 일반적인 소리밖에 더하지 못하였다.

《그건 그렇고. … 갑문건설장에서 작년 가을부터 보조무넘이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론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선 무슨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전체 갑문건설자들과 함께 그이께서도 상당한 관심으로 결과를 기다려 오시는 과학론쟁이였다.

《정식 보고는 되지 않았는데… 강충일동무의 말에 의하면 론쟁은 기본상 끝나고 본래의 설계를 개작하는데로 의견이 모아 지는가 봅니다.》

《그러니 혁신안이 승리하는것 같구만. 그게 제대로 되면 갑문건설에서 1년반이라는 큰 시간을 더 얻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겁니다. 아직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과학자들이 큰 일을 해낼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퍽그나 기쁘시였다. 세계에서는 아직 그 방법조차 모르는 수리공학적문제를 풀어 내려는것도 그렇지만 갑문건설에서 1년반이라는 시간을 공짜로 얻어 낸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성과가 아닐수 없었다. 함형부재생산이나 가물막이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 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거기서는 아직 이렇다할 희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 보조무넘이문제를 국가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

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상설부위원장동무가…》

《그건 잘…》

《관계자가 아니라고 혹시 제외했을수 있는데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원래 일이 제대로 되려면 그 동무를 과학론쟁에도 참가시켰어야 했습니다. 갑문건설기한과 관련한 견해는 우리와 좀 다른 바가 있었댔지만 그건 지난 일이고… 그래도 수리공학분야에서는 그 동무만한 실력자가 없습니다.》

《알아 보고 이제라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참모장은 송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시했다는 말은 본인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의견이 객관적이 못될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총참모장이 돌아 간 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 덮인 정원으로 나가시였다.

창문에서 흘러 나온 불빛때문에 백야처럼 희끄무레하게 드러나는 정원에서는 이따금 질풍이 휘파람을 불며 낮에 내린 눈을 이리저리 날라 옮기고 있었다. 량손을 올려 허리를 눌러 짚은 그이께서는 눈우에 발자국을 찍으며 사색을 펼치시였다.

(…총참모장의 말이 옳다. 적들은 확실히 우리의 침묵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것이 도발로 나타난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입을 열게 하자는데만 목적이 있겠는가? 우리가 강경하게 반응하리라는것을 알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구실을 만들자는 책략은 아니겠는가?)

《팀 스피리트》라는 명칭을 달고 1970년대 중엽부터 시작되여 년년이 계단식으로 규모를 확대해 오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합동군사연습은 이해 1983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만큼 확대되고 성격에서는 완전한 실전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적들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며칠후(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와 태평양

지역, 남조선 등지에 배비되여 있는 미군무력중에서 일부와 《신속반응무력》, 미제7함대 해상전투부대, 미태평양공군전략전술 공수작전부대, 항공모함전투단 등 19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참가할 계획이였다. 규모가 이처럼 큰가 하면 연습자체의 내용적성격 또한 극히 위험하였다.

위험성은 우선 훈련이 종래의 《방어》위주(세상의 여론을 속이기 위한 표방이기는 하지만)라는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완전한 공격위주형의 훈련으로 그 실체를 보이고 있는 점이였다. 그것은 전두환괴뢰역도자신이 최근 어느 비밀군사모의장에서 《과거의 방어위주의 소극적인 훈련이 지금은 반격작전을 가미시킨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방어훈련이라는것이 특히 고무적》이라고 줴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립증할수 있었다. 다른 또하나의 보다 심각한 위험성은 적들의 이번 군사연습이 핵전쟁을 가상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정찰자료에 의하면 놈들은 이번 군사연습에 남조선주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이외에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각종 미싸일과 오끼나와주둔 미해병사단에 소속된 핵무기취급전문부대의 무력까지도 명령만 내리면 즉시 기동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최근 남조선에 기여 든 미륙군참모총장 메이어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 나면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꺼리낌없이 폭언하였다. 그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진의도를 공개한것이자 미제의 핵광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주는 산 증거였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상공에 항시 떠도는 핵《비》를 품은 먹장구름이였다. 조선의 대기중에는 화약내가 짙게 떠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군비행기를 목표로 도발을 걸어 오니 그것은 전쟁을 하자는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적들이 과연 우리와 그렇게 큰 도박을 놀아 볼 배짱이 있겠는가?) 하고 그이께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사색의 갈피를 펼치시였다.

물지 못하는 개일수록 크게 짖고 약자일수록 팔뚝힘을 자랑하며 위세를 뽐내보려고 애 쓰는 법이다. 심장이 든든치 못하고 의지가 굳세지 못하면 약자의 그런 허세에 기가 꺾이기 쉽다. 고금동서의 국가간 정치사에는 적의 허장성세를 군사적실력으로 오판하고 수십만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굴욕적인 강화조약에 서명하였거나 항복사절을 파견한 례들이 적지 않다. 멀게는 프리드리히대왕의 호언장담에 놀라 싸우면 능히 이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한 오스트리아제국의 교훈이 그렇고 가깝게는 제2차 세계대전때 적지 않은 동유럽나라들과 룩셈부르그가 히틀러의 이른바 《전격전》에 겁을 먹고 단 한방의 총소리도 내보지 못한채 무조건 항복하였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저 유명한 《마지노》방어선까지 구축해놓은 프랑스 역시 초기 실패에 인차 항전의지를 꺾고 굴욕적인 강화에 응하였다. 어느 한 지방도시의 렬차간에서 조인된 그 강화협정으로 프랑스는 국토의 절반이상을 도이췰란드에 양도하고 별로 싸워 보지도 못한채 수십만대군을 해체하는 참담한 수치를 맛 보았다. 하기는 《도망칠수 있는 자는 다 도망치라.》는 우스운 격언을 인류전쟁사에 남긴바도 있는 프랑스인들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미국놈들이 바로 그런 식의 수법으로 우리를 손쉽게 제압하려는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렇다면 대응책은 명백해 진다. 당면하게는 신문과 통신, 방송을 통해 적들의 도발상과 음흉한 전쟁기도를 폭로규탄하는것으로써 적들을 수세에 몰아 넣고 주동에 서야 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선량한 량심들을 쟁취하고 먼저 도덕적승리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실력은 그 다음 보여주어도 늦지 않았다. 방위력은 그 자체가 정치전략상의 《예비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이이시였다.

(그렇다. 적이 제아무리 오만하고 막강한 군력을 가졌어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인민,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자고 죽음을 각오한 불굴의 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키지 못하는 법이다.

조선인민은 바로 그 성스러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인민이다.

참다운 령도자가 없었던 탓에 오랜 세월 침략자들의 발굽밑에 짓밟히며 노예를 강요당했던 인민… 그러나 오늘은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조선민족이 다시는 외세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푼전을 쪼개가며 마련한 강력한 자위의 국방력이 있다. 하거늘 이제 어떤 놈들이 감히 조선인민의 존엄을 모독하려 든단 말인가? 안된다.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원의 눈보라속에서 그렇게 사색을 매듭 지으신 그이께서는 집무실에 들어 서는 길로 송수화기를 들어 강령반도상공에서 발생한 적들의 도발사건을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준절한 어조로 《덜된놈들!》하고 한마디 하셨을뿐 오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레간이 명년도 군사비를 14프로 늘일것을 국회에 요구한 통신을 보았습니까?》

《예,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가 레간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것 같습니까?》

《저는 레간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국내에서 적자가 2,000억딸라가 넘는 심각한 재정경제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비를 14프로 늘인다는것은 허망한 공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간이 공담이나 하고 있을 경황은 못되는거고… 세계의 어느 곳엔가 열점을 만들려는,불경기의 출로를 거기서 찾으려는 의도를 국회에 한번 던져 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단이 비슷합니다. 결국 레간은 그 열점을 조선에 만들려고 꾀하는것 같습니다. 실현불가능한 군비증강으로 국회를 한번 놀래워 놓고 그 다음 전쟁을 일구면 레간으로서는 아주 편리해지고 군수산업계의 재벌들은 돈소나기를 맞게 될것입니다. 한마디로 레간이 이번 국회에서 군비를 대폭 늘일것을 요구한것은 남더러 피를 흘리게 하고 저들은 돈을 벌어 보자는… 장사군의 광고나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수령님의 견해가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시며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모든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쟁을 피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적들이 작년에는 근 17만을 동원시켰는데 금년에는 19만으로 확대했습니다. 19만…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적들의 〈팀 스피리트〉 군사연습은 올해가 최절정입니다. 수령님께서도 말씀하시다 싶이 레간은 지금 〈사회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만큼 재정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년, 아니 래년쯤부터는 틀림없이 훈련규모를 줄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절정기인 올해를 레간이 그저 넘기려 하지 않고 모험을 하기 쉽다 그거구만.》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윽토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문득 이렇게 물으시였다.

《그래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입니까?》

《수령님, 정치국회의를 열고 좀 토론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2

거인이 팔을 벌려 바다를 안은것 같은 광량만 하늘가에서 뿌옇게 색이 바랜 저녁해가 마지막빛을 뿌리고 있다. 수평선을 기준으로 순간에도 한뼘씩 처져 내리는 백광의 불덩이… 마침내 일몰이 시작된다.

바다의 일몰은 대지의 그것처럼 장쾌한 멋은 없다. 그저 아름답고 황홀할뿐이다. 바다가 끓어 번진다. 끓는 바다우에서 하늘이 불붙는다.

미구에 해는 수평선너머로 사라지고 대기가 알리게 차진다. 마

치도 창공에서 맵짜고 쌀쌀한 찬 공기를 지상에 쫙 내려 뿌리는 것 같다.

송철만소장은 기차방통과 수송차들이 흙을 싣고 분주히 드나드는 토취장어귀에서 102부대 참모장을 상대로 상차능력을 높일 방도를 토론하고 있었다. 여전한 차림새로 누비솜옷우에 장령반외투를 덧입고 암회색양털모자를 쓴 그는 대좌인 부대참모장의 대책안을 듣다 말고 고개를 저으며 자기 주견을 내놓았다.

《그 상차대 만드는 방법은 틀렸소. 상차대 하나에 80립방메터씩 밀어넣고야 무슨 수로 통나무를 당하오. 함형부재생산도 겨우 하는 판에…》

끈을 목에 걸어 가슴앞에 드리운 대공전화기에서 호출신호가 울리는 바람에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송신단추를 누르고 응답하였다.

《1번 듣는다.》

《나 2번이다. 국지휘부로 들어와 주기 바란다.》

2번은 부국장의 대호였다. 송철만은 리유를 물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왔다. 방금 륙로로 도착하였다.》

《？！…》

하도 뜻밖의 소식이여서 기쁨보다도 놀라움이 컸다. 이전에 몇해씩 평원도로건설 같은데 나가 있어도 언제 한번 찾아 온 일이 없는 안해였다. 그만큼 군관의 안해로서 도리를 지켜 오는터였다.

(혹시 집안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도？…)

일종의 위구 비슷한것이 가슴을 죄였지만 그는 애써 누르며 말했다.

《알겠다.》

대공전화기의 전원을 꺼서 가슴앞에 드리운 그는 본래의 화제로 되돌아 갔다.

《…좌우간 상차대는 통나무가 들어 오는 형편을 봐서 만들기로 하고 당장은 굴착기바가지를 개조하오. 바가지당 0.25립방 더 얻는다는게 어디요.》

《먼저 두석대가량 시험해 봐야 하지 않을가요？》

참모장은 바가지를 개조함으로써 굴착기에 생기는 기계적부하

를 우려하였다.

《부하야 좀 커지겠지. 하지만 굴착기운전공들도 타산이 있어서 개조하자고 했을테니 이삼일내로 끝내 치우오.》

《알겠습니다.》

그는 참모장과 헤여져 국지휘부를 향해 걸었다. 해가 진 이맘때면 기온이 떨어 지기 마련인데 날씨가 푸근한걸 보니 눈이 오려는 모양이였다. 지휘부정문에서 그는 보고하러 나온 직일관에게 회의차로 총정치국에 올라 간 정치부장이 돌아 왔는가를 알아보았다. 직일관은 아직 돌아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저건 뭘 저기다 저렇게 쌓아 놨소?》

점심식사후 지휘부를 떠날 때만 해도 반반하던 현관옆에 배가 뚱뚱 부른 가마니며 마대짝들이 둥그렇게 쌓여 있었다.

《지원물잔데… 다 아주머니가 가져 온것들입니다.》

직일관은 자루감이 몇개요, 어깨받치개는 또 몇개요 하고 품종별 개수를 렬거하였는데 어느것이나 수자가 천단위를 넘었다. 송철만은 뒤짐을 지고 짐무지를 한바퀴 돌았다. 그러니 집안에 별일은 없고 안해가 건설장에 지원삼아 온게 분명하였다. 그때 현관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들 경호가 뛰여 나왔다.

《오, 네가 왔구나. 어머니도 왔다며?》

그새 키가 한뽐이나 더 큰것 같은 아들은 인사를 굽석 하고는 얼른 뒤를 돌아 보았다. 그가 돌아 본 현관에서 부국장이 나오고 뒤따라 새까만 외투차림에 희고 긴 털수건을 목에 걸어 가슴앞에 드리운 안해가 나타났다.

《제가 이렇게 나타날줄은 몰랐지요?》

그리움에 젖은 눈길로 올려다 보는 안해의 얼굴에는 큰일을 해낸 기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몰랐소. 그런데 이걸 다 당신이 가져 왔다는게 사실이요?》

《아니예요. 우리 군부대사령부 군관가족들이 마련한거예요. 제가 갑문건설장에 간다는걸 알고 사령부에서 차까지 내주어서 전 싣고 오기만 했을뿐이예요.》

안해의 말끝에 아들 경호가 끼여 들었다.

《그래도 어머니, 처음 생각해 내고 시작을 뗀거야 어머니가 아니나요. 정치위원아저씨가 가족회의를 열고 도와 주자고 호소한건 그담이구…》

《얘, 무슨 소리 하니. 이걸 그렇게 보아선 안된다. 난 아버지한테 맨손으로 올수 없어 〈벙어리장갑〉을 깁구 산에 가 물푸레를 몇대 찍어 왔을뿐이다.》

《중요한건 바로 그거예요. 그 물푸레나무와 벙어리장갑…》

여러 사람의 수고에 어머니의 공로가 묻힐가봐선지 아들은 한사코 주견을 굽히지 않았다.

《잰…》

안해가 눈을 흘기며 아들을 꾸중하려 드는것을 보고 부국장이 중재를 맡아 나섰다.

《하－아, 그만두십시오. 이러다간 모자간에 〈분쟁〉이 일어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들어 보면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옳고 경호는 경호대로 옳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는 다 제나름으로 옳다.〉 허허, 우리로서는 그저 감사할뿐입니다.》

딸 경옥의 생각이 나서 물으니 안해는 따라 오겠다는걸 겨우 떼놓고 왔노라고 하였다.

송철만은 웃기만 하고 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기쁨이 밀물처럼 차올라 출렁이고 있었다. 어쨌든 5년후에야 다시 만나게 되리라 생각했던 안해를 보게 된것이 기뻤고 옛 군부대사령부 군관가족들이 지원물자를 마련해 보내온것도 그렇고 지어 아들 경호와 안해가 서로 주견을 세우며 다투는것조차 더없는 기쁨으로 여겨 졌다.

마침 저녁식사시간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서 부국장도 포함하여 일행은 식당으로 갔다. 식사후에는 송철만의 방에 돌아 와 세식구가 난로를 둘러 싸고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자동차로 먼길을 오느라고 피곤한지 경호는 하품을 몇번 하더니 걸상에 앉은채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다. 그러는 아들을 침대에 데려다 눕히고 돌아 오니 안해는 집에서 가져 온 아구리를 싸동인 사기단

지며 배가 부른 종이봉지들을 장탁우에 펼쳐놓고 있었다.

《이안에 들어 있는건 뭐요?》

송철만은 종이봉지를 하나 집어 들고 속을 들여다 보았다.

《돌꽃뿌리예요. 술에 우려 마시면 신경통에도 좋고 부상처가 도지는것도 막고… 좋은데가 많다 해서 만들어 왔는데 한번 잡숴 보세요.》

고뿌를 가져다 안해가 단지에서 떠주는것을 마셔 보니 술이라기보다 씁쓰레한 맛이 강한 약물이였다. 그런대로 알콜기운도 약하지 않아 한고뿌 더 달라고 하자 안해는 안된다고 딱 잡아 떼며 단지아구리를 싸맸다. 하루 세번 꺾어 꼭 한고뿌씩 마셔야지 극약이나 같아서 량을 넘기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것이였다. 안해는 매 종이봉지속에 들어 있는 돌꽃뿌리의 사용에 대해서도 시시콜콜이 설명하였다. 송철만은 듣기만 하다 말고 동문서답격으로 물었다.

《부대에선 어떻게들 지내오. 전연에서 적들과 맞불질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데?》

《그런 소린 듣지 못했는데 팀스피리트지 뭔지 하는것때문에 여간 볶이우지 않아요. 자동차에 위장을 씌우고 군관들이 모두 전투복차림으로 다녀요. 가족들도 소개훈련을 하고… 금방 전쟁이 일어 나는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안해는 단지며 돌꽃뿌리가 들어 있는 종이봉지들을 서랍밑에 가져다 놓고 돌아 와 난로앞에 마주 앉았다.

《형편이 그 정도면 여긴 오지 않아도 되는걸 그랬소. 군인가족들은 정세가 긴장할수록 집에 있으면서 부대와 떨어 지지 말아야 하오.》

《저도 그러자곤 했는데… 애가 갑문이라는걸 어떻게 건설하는지 보고 싶다 하고 아버지와 토론할 문제도 있고 해서…》

《토론할 문제라는건?》

안해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병색이 약간 있는 창백한 얼굴에 신중한 표정을 담고 한창 달아서 불그레한 빛이 도는 난로허리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경호가 올여름에 졸업이예요. 학교에선 벌써부터 매 학생들

의 지망을 장악하는 모양인데…》

《허, 그애가 벌써 중학교를 마치게 되였는가?》

아들이 그런 나이에 이르렀다는것을 감감 잊고 있던 송철만은 세월의 무상함과 한가정의 가장된 책임감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내 결심을 모르고 있었소?》

《그래두 한번 당신의 생각을 들어 봐야 하지 않아요.》

안해는 젊었을 때처럼 살짝 눈을 할기였다.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도 남는다는것이였다.

《당신은 아직도 대학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안되오. 경호는 내 뒤를 이을 애요. 그러니 반드시 군대복무를 시켜야 하오. 활동적인 성격으로 봐도 그래 분렬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해도 그래 그 애는 군인으로 키워야 하오. 요새 미국놈들이 하는 짓을 보오. 저놈들이 이번 군사연습에 인원을 얼마나 동원하는지 아오? 거의 20만이요, 20만… 그런 력량이면 하나의 전쟁도 할수 있소. 이런 자들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요.》 바로 그때문에만도 경호를 군인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철만은 력설하였다.

안해는 아무 대꾸없이 난로허리만 이슥히 바라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갑자기 웃었다. 웃다 말고 또 이런 우스운것을 묻는것이였다.

《이봐요, 경호아버지. 경호를 낳았을 때 병원에 와서 하신 말 생각나세요?》

《내가 뭐랬게?》

《아들이라는데도 그냥 기저귀를 헤치더니 〈옳긴 옳구만. 됐소. 이런 아들을 한개 분대만 더 낳소. 알겠소? 그럼 내 무슨 수를 써서든 당신이 군공메달을 받게 하겠소.〉 이랬지요.》

《허허, 내가 그랬던가?》

경호가 태여났을적이면 17년전 일이겠는데 생각나지는 않았다. 그대신 전혀 다른 생생한 기억으로 처녀시절의 안해를 처음 만나던 일이 생각났다.

전쟁이 끝난지 이태째 되던 여름이였다. 당시 부대는 강원도 창

도군에 주둔하고 있었다. 29살의 로총각으로 대대장이던 철만은 그날 부대에서 소집한 군관회의에 참가하려고 아침 일찌기 대대를 떠났다. 부대지휘부까지는 40리가 잘되였는데 날이 무더운데다 시간이 그리 넉넉치 못하여 빨리 걷다나니 20리도 채 못미처 벌써 잔등이 땀에 화락하니 젖고 목이 말라 들었다. 마침 그때 길에서 얼마쯤 들어 가 산밑에 외따로 있는 초가집에서 감장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녀인이 옆구리에 물동이를 끼고 나오는것이 보이길래 철만은 무작정 그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녀인은 거기에 우물이라도 있는듯 곧장 집앞의 둔덕밑으로 내려 갔다. 그러나 정작 가보니 우물은 아니고 작은 샘터였는데 녀인은 이미 샘물가에 앉아 바가지로 동이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처녀였다. 검고 윤기흐르는 치렁치렁한 머리태,저고리에 감싸인 동그란 어깨와 끈오리로 둘러맨 가는 허리… 앉아 있는 뒤맵시가 꽤 곱다 했는데 바가지로 물을 떠주며 고개를 외로 비트는 처녀의 얼굴은 더욱 어여뻤다.

(아니,이 산골에서 이런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는가?…) 첫눈에 처녀에게 반해 버린 철만은 물을 먹고 바가지를 돌려 주자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동무,몇살이요?》

처녀가 대답할리 없었다. 그래도 또 물었다.

《동무 이름이 뭐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처녀는 물동이를 이고 일어 나더니 총총히 집쪽으로 가버리고 마는것이였다. 그러는 뒤모습은 또 얼마나 고운가.… 철만은 손목을 돌려 시계를 보았다. 빠듯한대로 시간여유가 좀 있었다. 그래 무작정 처녀를 따라 산밑의 초가집마당으로 들어갔다. 그새 벌써 부엌으로 들어 갔는지 처녀는 보이지 않고 집주인인듯한 허우대 큰 령감이 토방그늘에 앉아 새끼를 꼬다가 의심쩍은 눈길로 맞아 주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철만은 토방끝에 걸터 앉으며 밑도끝도 없이 물었다.

《아바이,이자 들어 온 처녀 아바이 딸입니까,손녑니까?》
령감은 마뜩지 않은 눈길로 힐끔 보았을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

았다. 꼬던 새끼를 초리까지 다 비벼 올리고 엉뎅이를 들어 새끼를 당겨 놓고서야 거칠게 내밸는것이였다.

《아무게면 어쩔텐가?》

《난 대대장이구 총각입니다. 이 집 처녀가 마음드는데 주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빙빙 에돌거나 군소리를 싫어하는 성미라 철만은 곧은목으로 내밀었다. 령감은 어이 없는지 잠시 멍하니 쳐다만 보더니 《허ㅡ엇 참.》하고 한마디 김빠진 소리를 하고는 짚을 뽑아 썩 썩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철만은 속이 달았다. 령감이 너무 꿋꿋해서 휘기도 힘들거니와 부대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는것이 더욱 문제였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보이지 않고 재차 들이댔다.

《지나가던 헌놈한테 처녀를 맡기는것 같아 겁이 나시우? 그런 걱정은 말고 주시오. 곱게만 놀면 포대기에 싸업구라두 다니겠으니…》

포대기에 싸업구 다니진 못한다 해도 그때 철만은 맘드는 처녀만 얻으면 그렇게 사랑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들었는지 말았는지 령감은 그냥 한본새로 새끼만 꼬더니 문득 입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말투가 순하였다.

《쟌 내 손녈세. 애비,에민 미국놈폭격에 다 죽구… 동생들서껀…》

《하니 그건 손녀를 주겠다는겁니까?》

《좋두룩 하게나. 이 곰같은 사람…》

령감이 너무도 선선히 승낙하는 바람에 철만은 일순 어리둥절해 있다가 움쭉 일어 나 토방밑에 넙적 엎드렸다.

《고맙습니다, 할아부님…》

그는 일어 나 처녀를 한번 더 보고 갈 생각으로 부엌문앞에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 당겼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처녀가 토방에서 오가는 말을 다 듣고 문을 닫아 걸었던것이다.

《동무, 그래야 필요 없소. 내 지금은 바빠서 그냥 가겠지만 기다리고 있소. 오다 들리겠으니…》

철만은 저녁때 부대에서 돌아 오던 길에 다시 들렸다. 그리고

사흘후에는 벌써 부대장도 포함한 대대군관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였다.

한집에서 같이 살다가 팔순에 세상을 뜬 안해의 할아버지는 손녀사위가 부대장이 되였어도 그냥 《곰대대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날 철만이 오다 들리겠노라 하고 바삐 떠나간 뒤 손녀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난것 같다. 사내란 저래야 한다. 게다가 얼마나 의젓하게 생겼느냐?… 이제 두고봐라만 큰사람이 될게다.》

…

잠시 추억속에 빠졌던 철만은 별로 말이 없다 싶어 보니 안해는 걸상등받이에 포개얹은 손등에 볼을 놓은채 웃는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연약한 몸으로 수백리길을 왔으니 왜 피곤하지 않으랴. 그는 일어나 안해옆에 가서 허리와 오금밑에 손을 넣어 조심히 들어 안았다. 몸이 어찌나 약한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안해는 그제야 잠을 깨며 미안하다고, 못다 들은 이야기는 아침에 마저 듣겠노라고 하면서 순순히 몸을 맡겨 아들곁에 누웠다.

《경호 아버지는요?》

《난 이제부터 일을 좀 해야겠소.》

그는 모포를 당겨 안해의 섬약한 몸에 덮어 주었다. 안해는 애정에 찬 눈길로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피곤에 몰려 잠이 들었다.

책상에 마주 앉은 송철만은 어째선지 요새 자주 둔한 아픔이 느껴 지는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일보를 들여다 보았다. 예상한대로 종합된 공사실적은 높지 못하였다. 그런대로 현상을 유지하는것은 함형부재생산뿐이고 가물막이나 기본언제공사는 어제보다도 실적이 또 떨어 졌다. 더 볼 필요가 없어 그는 일보철을 접어 밀어 놓고 생각에 잠겼다. 안타까운것은 공사전반이 침체에 빠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잃는것이였다. 추위가 물러가면 실적이 좀 오르겠지만 이미 잃어 버린 시간은 어디서도 보

상할 길이 없었다. 특히 문제인것은 가물막이공사였다. 년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결정에 의하면 가물막이 공사는 원래 작년(1982) 장마철전까지 끝내기로 되여 있었다. 그런데 예정기일보다 반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도 공사를 끝내지 못한것은 물론 장차 시일을 얼마나 더 끌어야 결속할수 있겠는가 하는 예측조차 똑바로 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송철만은 30여년간의 군사복무기간 오늘처럼 난감한 처지에 빠져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다른 공사들은 뒤로 미루거나 잠시 묵이면서까지 세개의 기본공사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초기에는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타나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기본언제공사, 가물막이, 함형부재장… 3개 대상건설이 모두 제자리걸음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송문제는 여전히 긴장되였고 철근이며 수천수만장에 달하는 마대 등 자재가 떨어 졌다는 소리가 때없이 튀여 나왔다. 더욱 가늠하기 어려운것은 바다날씨였다. 춘하추동 한해치고 겨울 계절이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그 랑만적인 여름계절도 바다날씨는 심술사나운 계집애처럼 아침한겻은 미소를 머금은듯 잠풍하다가는 갑자기 폭풍을 몰아 오거나 폭우를 내리퍼부음으로써 공사일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것이였다. 더구나 지금은 《동장군》이 활개치는 겨울이다.

일이 안될수록 송철만은 병사들속에 들어 가 살았고 어떻게든 세개 기본대상건설을 내밀려고 안깐힘을 썼다.

그런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라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 드리는게 옳지 않겠는가? 나라는 사람은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만큼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고. …)

지금도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며 앉은채로 아픈 다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다가 깜빡 잠들었다. 자면서 꿈을 꾸었다. 무슨 전투인가를 잘못 지휘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어떤 회의에서 추궁을 받는 꿈이였다. 주석단에는 강충일중장과 윤상설의 얼굴도 보였다. 자신은 무어라고 소리를 치느라고 하였는데 말이 나가지 않았다. …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흔드는 감촉에 그는 악몽에서 깨며 눈을 떴다. 옆에 안해가 와 있었다.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하시니…》

《허, 내가 그럽데?》

철만은 별생각없이 꿈이야기를 했다. 안해는 듣더니 표정이 심중해졌다.

《일이 몹시 힘드신가 보군요.》

안해가 벌써 다 짐작한 눈치기도 하고 구태여 감출 필요도 없어서 철만은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털어 놓았다.

《아닌게 아니라 힘이 드오. 당으로부터 직접 받은 과업이니 목을 내대고라도 해제껴야겠는데 이 갑문건설이라는게 정말 군사와는 다르구만. 작전을 짜면 작전대로 되나 그렇다고 돌격전같은거라도 할수 있나… 날은 자꾸 가는데 일자리는 시원히 나지 않지… 정말 골치 아프오. 내가 이러다 무슨 패전장군의 감투라도 쓰는게 아닌지 모르겠소.》

《형편이 그렇게두 나쁘세요?》

철만은 말이 아니라고 하며 말끝에 꺼지게 한숨까지 내불었다. 안해의 얼굴에 당장 걱정이 떠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혹시 이 갑문을 당에서 바라는 기한내에 완공하지 못하는게 아니세요?》

《글쎄, 그게 문제요. 기한이… 벌써 두해가 지나갔소. 지금 같아서는 남은 세해동안도 그저 이러다 말것 같은데 정말 야단났소. 여보, 차라리 일이 더 찌뿌러지기 전에 이제라도 스스로 국장자리를 내놓는게 옳지 않을가?》

전에 없던 일로 철만은 이 밤 어쩨선지 안해앞에서 자신의 번뇌를 감추고 싶지 않았다.

안해는 해쓱해진 낯색으로 생각에 잠겨 이슥히 달아 오른 난로허리만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담담하게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저도 들었어요. 이 남포갑문이라는게 세상에서 제일 크구 그래서 건설하는것두 전쟁을 하는것처럼 어렵다는 소리를… 그러니 무슨 일인들 없겠어요. 제 생각에도 먼저 자리를 내놓는게 옳을

것 같애요. 자신의 체면보다 갑문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당앞에서 면목은 잃는다 해도 갑문건설을 망쳐 놓는 일이야 없어야지 않겠어요? 경호 아버진 건강도 좋지 못해요. 일이 잘되지 않는것도 그렇지만 몸이 우선 견디지 못할거예요.》

한순간 철만은 전류 같은것이 찌르르 가슴 한복판을 꿰고 어디론가 줄달음쳐 가는 느낌을 체험하였다. 천성이 몹시 순해 빠진 사람이여서 시집 온 이래 오늘까지 언제 한번 남편을 《당신》이나 《여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섬약하고 어질기만 하던 안해였다. 그런데 그 안해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리해와 대범하고 꿋꿋한 정신력이 깃들어 있는것인가!

《당신말이 옳소. 중요한건 내가 아니라 갑문이요. 이 송철만이는 실패해도 일없지만 갑문건설이야 실패하면 안되지.》

그는 안해에게 할수 있는껏 해보다가 그래도 일이 여의치 않으면 주동적으로 사임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들 부부는 깊어가는 겨울밤과 더불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날이 샐녘까지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정치부장 리응천은 아침에 돌아 왔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는 외투도 없이 시퍼렇게 얼어 가지고 방에 뛰여 들어서는 가방도 놓기 전에 난로부터 끌어 안으며 《엇 춥다.》 소리만 련발하는것이였다.

《외투는 어쩌하고 그렇게 얼면서 다니오?》

송철만의 물음에 리응천은 진담인지 함형부재장에 희사했노라고 하였다.

《…오다보니 전사들이 저마끔 모포를 걷어 안고 부재장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새벽기온이 예견보다 내려 가서 어제 타입한 구간이 얼수 있다고 보온대책을 세우러 간다는겁니다. 따라가 보니 부대장이하 온 부대가 덮고 자던 모포며 외투며 천막을 몽땅 걷어내다 부재에 씌우고 있습디다. 그래 나도 벗었지요.》

송철만은 급히 전화기를 끌어 당겨 피도에 있는 서해기상연구소에 일기상황을 알아 보았다. 직일연구사의 대답이 씨비리에서 발생한 찬전선의 영향으로 금일 새벽부터 앞으로 10여일간 기온이 평

년보다 4～5도가량 떨어 질 예견이라는것이였다.

(설상가상이라더니…)

기온이 그렇게 떨어 진다는것은 그만큼 공사실적이 떨어 진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참 국장동무.》 얼었던 몸이 좀 녹았는지 리응천은 걸상을 뒤로 떠밀며 비로소 생각난듯 물었다.

《부인이 지원물자를 한자동차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면서요?》

《그건 어디서 벌써 들었소?》

《나야 소식통이 아닙니까. 아무튼 대단합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다는데 한차가 어딥니까.》

남편으로서 안해가 칭찬을 받는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면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서 철만은 지원물자가 마련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래도 리응천이 한본새로 안해에 대한 치사만 하기에 철만은 우정 화제를 돌려 총정치국에서 진행한 회의에 대해 물었다.

《정세와 관련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리응천은 총정치국에서 있은 회의정신과 받아 온 통보서의 내용 그리고 당면한 정치사업방향을 추려 얘기하더니 이렇게 꼬리를 달았다.

《…한마디로 정세가 매우 긴장합니다. 총참모부에서는 적들의 〈팀 스피리트〉 전쟁연습이 십중팔구 실전으로 번질수 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철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적들의 이번 군사연습이 례년에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정세가 매우 긴장해 지리라는 예견은 했지만 그것이 실전으로 번질수 있다고까지는 생각지 못한 그였다.

《형편이 그 정도면 혹시 우리도 건설을 중지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 가는게 아니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소?》

《뭐 딱히 들은 소리는 없는데 총정치국의 분위기를 봐선 그런 문제가 나설것 같기도 합니다.》

총정치국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총참모부에서는 벌써 명령서를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강충일부총참모장은 왜 이런 때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것인가? 하기는 바쁠것이다. 그렇다면 귀

뗌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될게 아닌가?… 이제 와서 그는 남포갑문 건설을 중지하고 현지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던가 필요한 기동을 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이 급해 났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질러 예견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강충일중장을 만나려고 전화기를 끌어 당기다가 그런 신중한 문제를 전화로 말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도로 밀어 놓고 일어나 부국장을 찾았다. 무슨 통계맞추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 황석전은 손에 전자수판을 쥔채로 나타났다.

《오늘 저녁 정무원지휘부와 공정계획을 토론하자고 했던것말이요.》

책상에 마주 앉아 서랍에서 백지를 꺼내 놓고 글쓸 차비를 하며 철만은 명령조에 가까운 어투로 말했다.

《그건 취소하고 독립부대장들과 군부대참모장이상급 지휘관들을 불러야겠소.》

그는 리응천이 하던 소리를 되풀이하고는 정세의 요구에 따르는 준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런데 흥분이 빠른 사람이라 눈이 둥그래지며 어지간히 놀라리라고 생각했던 황석전이 뜻밖으로 태연하였다. 그는 갑문건설을 중지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가는것은 너무도 지당하여 놀랄 여지도 없다는듯한 인상이였다.

《아직 공식지시가 없는데… 너무 서두르는게 아닙니까?》

리응천의 말이였다.

불씨는 제가 가져 왔지만 정작 불질이 일어 나게 되니 좀 불안해지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철만은 이미 결심이 확고하였다.

《서둘러서 잘못될건 없을것 같소. 20만이요.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놈들인데 20만을 동원했다가 그냥 물러나겠소? 본전이라도 뽑자고 하겠지. …》

판단과 결심이 그러했던만큼 그는 아침식사후 아들도 듣는데서 안해를 앉혀 놓고 이렇게 말했다.

《정세가 아주 좋지 못하오. 차를 내줄테니 오늘중으로 돌아 가도록 하오.》

아들은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고 안해는 밤새 성에가 허옇게 불린 창가에 눈길을 준채 이슥토록 말이 없었다.

《가겠어요. 하지만 가기전에 건설장을 돌아 보도록 해주어요. 가면 모두 물어 볼거예요.》

《그건 걱정마오.》

철만은 안해가 그렇게 선선히 응해 주는것이 내심 고마왔다.

3

금수산의사당 소회의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예상한 적들의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비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면 어떤 전쟁이고 평화면 또 어떤 평화인가?… 준엄한 선택의 마당이여서 수령님을 모신 정치국위원모두의 얼굴에는 무거운 긴장이 어려 있었다.

외교부장이 주변나라들의 정국과 동향을 기본으로 전반적 국제정치정세를 통보한데 이어 총참모장이 적들의 합동군사연습의 배경과 구체적실상, 군사연습이 실전으로 번지는 경우를 예상한 전군의 작전적기도에 대하여 근 한시간가량 설명하였다.

그 한시간동안 앞에 놓은 자료를 가끔 번지거나 회의실 뒤쪽 빈 공간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총참모장이 지도앞을 떠나 자리로 돌아 간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내가 보기에도》 하고 드디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레간이란놈이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을 칠 심산인것 같소. 말하자면 군사적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던가 아니면 실력으로 아예 짓뭉개버리겠다는거요. 어리석은 놈!》

전혀 분별을 모르는 미국대통령 레간의 소행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신듯 수령님의 안광에서는 한순간 번개불 같은 섬광이 번쩍 지나갔다.

《모든 징조로 보아 전쟁을 피할수 없을것 같소. 피하는 길이 하

나 있기는 한데… 요새 어떤 사람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과 타협하라는 권고를 해왔소. 자기들이 가운데서 중재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중재조건이 뭔지 아오? 우리더러 붉은기발을 절반쯤 내리우고 자본주의세계를 향해 문도 반쯤 열라는거요. 그러면 미국이 〈팀 스피리트〉 군사연습도 그만두고 봉쇄도 풀고 〈원조〉도 주고 모든것을 다 줄것이라고 하오. 나는 그런 〈고마운〉 권고를 가져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소. 〈우리는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비굴하게 사느니 존엄을 지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다. 타협을 하겠거든 당신들이나 하라.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붉은 기발을 내리우고 미국사람들의 돈주머니에 매달려 살지 않겠다.〉 하구. … 아까 외교부장동무도 말했지만 이른바 우리의 〈사회주의동지〉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혁명가이기를 그만 두었거나 정치거간군으로 전락되여 미국에 아부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소. 우리는 그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오.》

이미 전쟁을 각오하신듯 수령님의 말씀에서는 비장한 음조가 느껴 졌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하며 좌중을 둘러 보시였다. 하지만 정치국위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들을 짓고 앉아 있을뿐 의견을 선뜻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를 깨고 백발이 성성한 김일 부주석이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물었다.

《여보 대장, 적들이 무력침공을 한다면 언제쯤으로 예견되오?》

《총참모부는 4월중순이나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적들의 군사연습이 최절정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고약한 놈들! 한창 농번기에…》 그런 말을 앞세운 부주석은 걸상앞에 걸쳐 놓았던 지팽이를 당겨 짚고 무겁게 일어 섰다. 근간 신병으로 노상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부주석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었다.

《수령님, 적들의 침략기도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대책도 명백하다고 봅니다. 적들이 도발을 걸어 오기만 하면 주동적으로 쳐갈깁시다. 동족상쟁은 유감스러운바이지만 미국놈들을 몰아 내고 조국통일의 숙원을 풀자면 아무래도 피를 좀 흘려야 할것 같습니다.》

《도발은 벌써 시작되였소.》

수령님께서는 회의직전에 보고 받으신 강령반도상공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아군비행기가 적들의 고사포사격을 받은 사건을 공개하시였다.

김일 부주석은 《저런놈들 봤나. 바다와 땅에서 쏠라닥거리다 못해 이젠 하늘에서까지…》 하며 분노에 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김일동무의 의견대로 한다면 전체 인민군대에 전투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는건데… 오진우동문 어떻게 생각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무력부장의 답변도 답변이려니와 그의 정신상태를 살피시려는듯 오진우를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오진우는 곧추 자리에서 일어 나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조선인민군 전체 무력은 일당백의 기세 높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즉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것입니다.》

워낙 말투가 뜨직뜨직하던 오진우한테서 어떻게 그런 총알 같은 말이 쏟아 져 나오는지 놀라왔지만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뿐더러 이 엄숙한 분위기에는 그것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여기였다.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을 들어 오진우에게 앉으라고 알리였으나 오진우는 이 력사적인 순간을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 두려는듯 얼마간 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다. 오진우가 앉은 다음 수령님께서는 시선을 다른 정치위원들에게로 돌리시였다.

《인민군대에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다니 좋고… 또 다른 의견이 없겠습니까?》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른 의견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을것이라는 찬동의 표시일것이다. 그런 속에서 정치국위원들의 시선은 자연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쏠리였다.

그이께서는 정치국위원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시며 자리에서 일어 서시였다.

《저는 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인민군대만 아니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전체 인민을 전쟁에 총 동원시키자는것을 제의합니다. 한것은 놈들이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두차례의 된타격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을 영영 조국의 남쪽땅에서 몰아 내기 위한 성전으로 되게 해야 할것이기때문입니다. 놈들은 심히 오산하고 있습니다. 감히 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곧 놈들의 시체와 무덤을 의미할것입니다.》

그이의 철의 의지와 담력앞에 정치국위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경탄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다소 흥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조직비서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요. 옳소. 그럼 결정합시다.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래달 2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기간 준전시상태에 들어 갈데대한 명령을 하달할 결심입니다.》

김정일동지를 포함하여 정치국위원모두가 수령님의 제의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어 회의에서는 나라가 준전시상태로 넘어 가는 환경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비롯한 사회생활전반을 전시체계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여기서 한가지 론점을 이룬것은 인민무력부장에 의해 제기된, 나라가 준전시상태에 들어가는 조건에서 남포갑문건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나가 있는 10만여명의 군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오진우무력부장은 그들모두를 소환하여 본부대에 편입시키던가 아니면 부대자체를 새로 편성하여 총참모부 통제권안에 넣겠다는 요구였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것을 응당한 일로 여겨 론의거리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것이 **김정일**동지께서 바로 그 문제를 심중히 토의해야 한다고 이의를 보이신것을 계기로 문제가 심각해 졌다. 그이의 견해는 준전시상태의 선포가 경제건설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군인들을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럼 남포갑문건설장에 가 있는 군인들만이라도 소환합시다.》

오진우의 절충안이였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도 접수하기 힘드시였다.

《나는 오히려 막부득하면 다른데서는 철수하더라도 갑문건설장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력부장동무,왜 꼭 거기서 철수해야 합니까?》

《거기에 옹근 두개 군부대격의 력량이 들어가 있기때문입니다. 전쟁이 림박한 조건에서 그런 군집단을 경제건설장에 남겨 둔다는것은 너무도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이 깊어 지시였다. 인민무력부장이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소환하자는 요구자체는 탓할수 없으시였다. 그러나 남포갑문이 과연 어떤 갑문이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것을 단 5년동안에 건설할 아름찬 목표를 내세웠는가. 첫째로는 수령님께서 그것을 절절히 원하시기에,후손만대에 길이 물려 줄 나라의 큰 재부를 우리 세대에 마련하시려는 수령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저 내세운 목표였다. 다른 한가지 목적은 정치적측면에 있었다.

금방 80년대에 들어 선 세계정치정세는 극한점을 향해 줄달음치는 동서《랭전》의 소용돌이속에서 매우 종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핵무기를 주패장으로 하는 렬강들의 치렬한 군비경쟁,이른바 《인권옹호》를 표방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봉쇄소동,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둘러 싼 대국들간의 암투,아프리카나라들에서의 끝없는 종족분쟁,급속히 대형화되여 가는 테로와 정치적공갈행위… 부단히 동요하는 이러한 정치적혼잡속에서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은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은 지금까지 국제정치무대에서 로골적인 대결과 군비경쟁을 일방으로 하고 타방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주입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부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여 왔다.

근래에 이르러 제국주의자들은 종래의 방향을 약간 수정한바도 없지 않았다. 즉 사회주의나라들이 일시 경제적곤난을 겪고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돈으로 개별적나라들의 《민주주의적이행》

을 사기 위해 애쓰면서 사회주의적체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에 매달리고 있었다. 불행은 적지 않은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량면술책을 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이 춤추는것이였다.

쏘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 최근 동향을 놓고 보아도 그렇고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울려 나오는 《시장경제》리론을 들어 보아도 사태는 이미 수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였다. 장차 시간이 누가 진정한 혁명가이고 누가 붉은기를 집어 던진 배신자인가를 갈라 주겠지만 현재로서도 반제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싸우는 조선은 사회주의운동의 마지막전호—사회주의의 보루나 같았다.

제국주의의 초대국인 미국에 있어서 그러한 조선은 눈에 박힌 가시였다. 그 《가시》를 뽑아 던지려고 미국은 지금껏 무던히도 애써 왔다. 그러나 위협이나 공갈로써는 사회주의조선을 굴복시키기 힘들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은 미국은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방법을 달리하여 이른바 《고사정책》으로 넘어 갔다. 말하자면 군사정치적압력과 경제적봉쇄로 말려 죽이겠다는것이였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가는 시간이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에게 가르쳐 줄것이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시간보다 앞서 적들자신이 조선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며 더구나 말려 죽이지 못한다는것을 스스로 알게 해줄 결심이시였다. 그 주패장을 바로 남포갑문이라고 보시였다. 따라서 5년이라는 건설기한은 그것이 단순한 시간개념이기전에 당의 의지, 국력의 시위였다.

그런 갑문건설을 정세가 긴장하다는 리유로 중단한다면 정치적면에서는 벌써 손해를 보는것이나 다름 없었다.

사색이 거기에 이르러 그이께서는 결심이 보다 명백해지는것 같으시였다.

《남포갑문건설을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는 래일 당장 전쟁이 터진다 해도 오늘밤 12시까지는 건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적들을 치

는 무기가 꼭 비행기나 땅크만일수는 없습니다.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높이 울리는 평화적건설의 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땅크나 총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리해해야 합니다.》

철의 의지가 풍기는 그이의 정력적인 말씀은 여운을 끌며 회의장안을 감돌았다. 그런속에서 오진우가 두손으로 책상을 꾹 눌러짚으며 정중히 일어 섰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남포갑문건설을 계속하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남포갑문 같은 대건설을 계속한다는건… 적들로서야 얼마나 두렵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한테는 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 지는 일입니까?… 아마 몇개 군단을 새로 편성하여도 그보다는 큰 힘을 주지 못할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니 무력부장은 의견을 철회한다는거요?》

수령님의 물으심이였다.

《그렇습니다. 철회합니다. 남포갑문이나 북부철길은 물론 사회주의건설장에 나가 있는 10여만 군인전체를 다 그냥 두고 예비대로 삼겠습니다.》

《그렇다! 아주 좋소. 10여만 정규군을 예비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쟁은 벌써 이긴거나 같소, 허허허.》

회의실안에 가득 차서 이벽저벽 부딪치며 공명을 일으키는 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김정일**동지께서도 웃고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다.

4

간밤 서해안지역에서는 태풍이 불었다. 그리 강한 태풍은 아니여서 끝살부리 가물막이공사장에서 대기중의 철배가 고정삭을 끊은 소소한 사고가 있었을뿐이였다. 16해상돌격대 대장 정대철과 함

께 그 표류한 철배를 구조하느라고 사고현장에서 꼬박 새우고 새벽녘이 다 되여서야 국지휘부로 돌아 온 송철만은 반외투만 벗어 걸상에 던져 놓고 침대에 눕자 곧 잠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른다. 누군가 마구 흔들어 깨우기에 눈을 간신히 떠 올려다 보니 부국장이였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보돕니다. 최고사령부 보도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송철만은 놀라며 벌떡 일어 났다.

《최고사령부 보도라니?… 전쟁이요?》

《아닙니다.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답니다.》

준전시상태면 전쟁이나 같고 같은 소리다.

《빨리 저 고성기를 트오.》

부국장이 고성기가 매달려 있는 구석으로 달려 가는 사이에 송철만은 급히 일어 서려다가 피곤이 몰리면 의례 그러기 마련인 뜨끔거리는 허리의 부상처를 손으로 눌러 잡으며 침대를 내려 걸상에 가앉았다. 고성기에서는 벌써 《유격대행진곡》의 힘찬 선률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남과 동시에 방송원의 격동된 목소리가 최고사령부 보도를 다시 반복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준전시상태에
들어 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

미제국주의자들은 2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남조선괴뢰도당과 함께 남조선전역을 중심무대로 하여 《팀 스피리트 83》이란 력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다.

…

미제침략자들이 미친듯이 감행하는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적전쟁책동의 계단식확대이며 조선의 평화를 유린하고 우리 나라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 가는 공공연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조국에는 새

전쟁의 엄중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어느때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하에 놓이게 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로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적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2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간 준전시상태에 들어 갈데 대한 1983년 2월 1일부 명령 001호를 하달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조선인민경비대,로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적들의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도 제때에 짓부셔 버릴수 있는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조국의 하늘과 땅,바다 그리고 자기의 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킬것이며 적들이 끝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즉시 맞받아 나가 단호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송철만은 틀어 쥔 주먹으로 책상을 탕— 내리쳤다. 치고는 우르르 떠는 주먹에 지그시 힘을 주며 격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내 이럴줄 알았소. 덜된 놈들… 달리될수 없는 현실이요!》

《그런데 총참모부에서 왜 여태 아무 지시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응천이 하는 소리였다.

《경황이 없겠지. 지금 같은 정황에서 누가 갑문건설장 같은 걸 생각하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나 외투를 입고 가방안에 필요한 보고자료들을 골라 넣으며 말했다.

《내 총참모부에 갔다 오겠소. 그새 각 단위들에 동원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부국장동무와 토론해서 최고사령부명령관철을 위한 군무자총회를 포치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언제쯤 돌아 오시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소. 시간이 급하면 전화를 걸겠소.》

그로부터 한시간 채 못된 열시반경에 그는 벌써 총참모부정문 접수실에 서 있었다. 긴박한 정세의 반영인듯 접수실은 여느때없이

붐비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거나 문으로 바삐 드나드는 군관들과 장령들의 얼굴에는 근엄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런속에서 출입증을 받아 쥐고 접수실을 나온 그는 전투복장에 철갑모까지 쓴 보초병들앞을 지나 강충일중장의 방으로 올라 갔다. 그가 방에 들어 섰을 때 중장은 책상에 마주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퍼그나 바쁜듯 인사도 없이 안경너머로 얼핏 쳐다보더니 앉으라는 뜻으로 걸상을 가리키고 다시 글줄에 눈을 가져 가며 말하였다.

《〈아바이〉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는데 5분이면 되오.》

《아바이》란 총참모부안에서 통용되는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별칭이였다. 송철만은 중장의 그 별치 않은 언행에서조차 총참모부의 바쁘고 긴장된 분위기를 실감하며 장탁끝에 가방을 놓고 앉아 신문을 당겨 읽기 시작하였다.

5분이면 된다던 자료를 중장은 10분이나 썼다. 그리고는 자료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바삐 나가더니 한참 지나 돌아 왔다. 담배와 재털이를 가져다 놓고 장탁 건너편에 앉으며 강충일은 물었다.

《그래 무슨 일때문에 올라 왔소?》

《… 뢰관에 불을 달 때가 된것 같은데 아무 소식도 없길래 답답해서 왔습니다.》

《뢰관에 불을 단다는건?》

한생 군복을 입고 있어도 전문분야가 건설이고 보니(그는 항만건설전문가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중장은 군사지휘관들이 쓰는 경구나 결말을 얼른 리해 못할 때가 있었다. 건설분야에서는 대단한 박식가이지만 군사실무에 들어선 부대장급이나 될지말지한 이 중장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지 몰라 송철만은 내심 혀를 차다가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여 물었다.

《뢰관에 불이 당기면 총탄이나 포탄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 발사되지.》

《총포탄은 언제 발사됩니까?》

《그야 실탄사격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때지.》

중장이 산수를 배우는 어린애처럼 곰상곰상 대답하는것이 재미도 있고 어이도 없어 송철만은 시뭇이 웃었다.

《내 말은 바로 그 전쟁이 눈앞에 박두한것 같다 그 소립니다.》

중장은 아주 심오한 리치라도 깨달은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두했지. 그래서 준전시상태도 선포된거구… 작전부에선 4월 중순으로 보는것 같소.》

모든것이 예견한 그대로라고 생각하며 송철만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젠 임무를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무를 바꾼다는건?》

송철만은 중장이 완곡된 표현을 도무지 리해 못하는것이 은근히 화가 났지만 참고 다시 한번 인내성을 발휘하여 임무를 바꾼다는 말의 의미를 풀이해 주었다. 그런데 아주 신중하게 듣고 총참모부에서 예견하고 있거나 이미 결심된 방향을 알려 주리라 생각했던 중장은 뜻밖에도 허허… 하고 헤식은 웃음을 웃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른 머리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려고 했구만. 결국… 하긴 총참모장동무나 〈아바이〉도 같고 같소만…》

(이 령감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것인가? 두 머리로 한가지를 생각했다는건 또 무슨 소린가?…)

송철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강충일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표정이 아주 심각해 졌다.

그는 이마로 받을듯이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평소의 그답지 않게 진지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보 소장, 갑문건설장에서 빠질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소. 중지가 뭐요? 더 와짝 추진시켜야 하오.》

송철만은 중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아니, 전쟁이 당장 일어 나겠는데 갑문건설을 그냥 한단 말입니까?》

《그냥 해야 하오. 이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제의에 따라 엊그제 있은 정치국비상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요.》

《?!…》

놀라움이 하도 커서 송철만은 할 말을 찾지 못한채 중장의 안경낀 얼굴만 멍청하니 바라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

의한 문제라면… 그럼 전쟁은 아니란 말인가? 아니라면 준전시상태는 왜 선포했겠는가?… 어느 한쪽에서 돌멩이만 집어 던져도 당장 전쟁이 터질 상황이던 《푸에블로》호사건당시에도 준전시상태는 선포되지 않았었다. 조선이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되는가 아니면 미국에 사죄각서를 내게 될것인가 하고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 보던 《EC－121》격추사건때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포되였다. 그것은 지금의 정세가 《푸에블로》호사건이나 《EC－121》격추사건당시에 비할수 없이 긴장하며 그만큼 무력충돌의 위협이 크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사민도 아니고 군대가, 그것도 갑문건설장의 군집단만이 아니라 10여만 장병들을 소환하지 않고 그냥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남겨 둔다니 정녕 놀랍기 그지 없었다.

《… 동무로선 아마 놀라울거요. 하긴 나도 처음엔 그랬소. 리해도 잘 안되구. 사실말이지 지금 같은 환경에서 10만장병을 국방과 관계 없는 일에 남겨 둔다는게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 딴 생각 말고 건설을 와짝 내미오.

설사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 난다 해도 오늘밤까지 건설을 한다는게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고 결심이시오.》

《！…》

송철만은 마음속에서 산악 같은것이 솟아 오르는것을 체험하였다. 그는 더 앉아 있을수 없었다. 그는 움쭉 일어 나 출입문쪽으로 걸어 갔다. 거기 문옆에 서 있는 옷걸이에서 군모를 벗겨 쓴 그는 작별인사를 할 생각도 잊어 버린채 문을 밀고 나갔다. 강충일중장은 바삐 일어 나며 소리쳤다.

《여보, 이 가방은 두고 갈셈이요?》

《참 그렇지.》 철만은 돌아 섰다. 《그러지 않아 가지고 온 보고자료두 거기 있는데.》

그는 되돌아 와 선채로 서류가방에서 몇가지 문건을 꺼내 놓았다.

《가만, 좀 진정하고 앉소. 10분만.》

강충일의 권고에 송철만은 자기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걸상에 앉았다.

중장은 숫제 정세따위는 잊은 사람처럼 갑문건설에서 제기되는 몇몇 문제들을 묻다가 이렇게 말했다.

《참 개작설계 있지 않소.》

《개작설계라니요?》

송철만은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였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말하기요.》

강충일은 무엇인가를 부정하듯 손을 홱 내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런 정세속에서도 기본언제개작설계문제를 알아 보시고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계셨소.… 리영선부부장이 아무 소리 없습데?… 아니, 왜 사람을 뻔히 보기만 하오? 개작설계문제는 처음 듣는 소리두 아니겠는데… 그 개작설계를 정무원지휘부에 다시 넘겨 줘야 하겠소.》

《그건 왜 그럽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완벽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요.》

강충일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같은 정세속에서도 그 개작설계를 관심하시여 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에게 그걸 검토시키고 의견을 받아 보도록 조처하셨소. 그러니 두말 말구 가면 설계를 정무원지휘부에 도루 넘기오.》

《알겠습니다.》

송철만은 한꺼번에 너무나 벅찬 느낌을 받아 안아서인지 여느때없이 묵묵히 작별인사를 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5

태천에 나가 있으면서 평양에 왔다 간지 석달도 넘어서 윤상설은 위원회며 집에 들려 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간리

역에서 제창 기차를 갈아 타고 남포로 내려 갔다. 렬차가 역에 도착한것은 2월의 짧은 해가 벌써 한천쪽 바다를 내려다 보는 오후 3시경이였다. 역두에 나서면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련락을 받았으므로 그는 서둘지 않고 마감에 내렸다. 태천발전소건설장에 나가 있은지 이제는 1년이 썩 넘어서 얼굴이 볕에 타서 시꺼매 지고 적잖게 거칠어 졌지만 밤빛다후다솜옷에 수달피모자를 쓰고 옆구리에 가방을 낀 그의 몸에서는 어디라 없이 중앙기관 책임일군다운 무게와 위엄이 풍기였다.

표 받는 곳을 나서다 누군가 찾는 소리에 얼핏 고개를 들었더니 뜻밖에도 리영선부부장이 나와 있었다.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원 이렇게 마중까지…》

《무슨 말씀을… 귀중한 손님인데.》

리영선은 저로서도 《손님》이라는 말이 이상했던지 그 말을 지우듯 황급히 말했다.

《아니, 시간이 좀 바빠서…》

만나본지 어지간히 오랜 그들은 피차 소원한 감정도 없지 않았으나 여느때의 그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승용차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자 윤상설은 좌석등받이에 몸을 제끼며 옆에 앉은 리영선에게 물었다.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태천에 련락온것은 그저 렬차편으로 빨리 남포에 도착하라는것, 역에서 승용차가 기다린다는것뿐이였다.

윤상설은 오면서 속으로 짐작하기를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조건에서 남포갑문건설을 중지하고 군대들이 철수할수 있고 그것때문에 장차 이곳의 건설문제로 자기를 부를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영선의 대답은 뜻밖이였다.

《남포갑문기본설계를 개작했다는 소릴 들었습니까?》 듣느니 처음이여서 윤상설은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기본설계를 개작하다니?… 뭐가 달라 진게 있습니까?》

《달라 져도 크게 달라 졌지요. 그걸 보라고 오라 한겁니다.》

한순간 상설은 좌절감 비슷한것을 느꼈다. 남포갑문기본설계는 건설예산초안과 함께 그자신이 책임지고 만든것이였다. 그때 설계그루빠에 망라된 실무일군들은 기본설계가 그렇게밖에는 달리 될수 없게 훌륭히 완성되였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리영선부부장의 견해이기도 하였다. 그런 완벽한 설계를 개작하였다니 놀랍기도 하거니와 의혹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건 왜 꼭 내가 봐야 합니까?》

《부위원장동무야 국가건설위원회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심사에 제기됐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심사는 이미 한거나 같고 그저 보고 의견만 내면 됩니다.》

《나는 부부장동무의 말은 듣구두 모르겠구만요. 심사까지 한 설계라면 구태여 보고 의견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히 복잡한 문제나 야기시킬수 있는데…》

《그거 뭘 복잡하게 생각할건 없고 좌우간 잘 보고 의견을 내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가는 후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의문이 풀린건 아니였지만 상설은 더 묻지 않았다. 부부장의 말로 미루어 심사는 거쳤지만 개작설계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던가 시공에서 일부 불합리성이 나타나서 자기의 객관적의견을 듣자는것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승용차는 갑문건설장구역에 들어 섰다. 얼기설기 뻗어간 길우로 황토먼지를 구름처럼 피워 올리며 끊임없이 달려가고 달려 오는 수송차행렬, 누비솜옷차림으로 통나무니, 철근이니 각목이니 삽과 곡괭이니 하는것들을 쥐고 들고 멘채로 바삐 오가는 군인들, 사방에 솟아 오르는 흙더미들과 갖가지 규격의 전주대들, 여러 줄기로 뻗은 인입선철길과 허리에 《갑문》이라고 쓴 전용화차를 끌고 가는 내연기관차들… 극히 제한된 시창으로 보이는 인상만 가지고도 상설은 이곳 갑문건설장이 태천발전소건설에 비할바가 아니게 방대하며 겨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활력이 차넘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특히 준전시상태에서도 갑문건설은 중단없이 진행된다는 부부장의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쳤다.

세 동의 긴 가설건물본채,창문이며 처마밑으로 김이 꾸역꾸역 몰려 나오는것으로 보아 식당이고 목욕탕일것이 분명한 부속건물, 드넓은 건설장에 비해 어딘가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정무원지휘부마당에 승용차가 들어 서며 멈춰 섰다.

문에 《종합분과》라는 패쪽이 붙은 방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간 리영선은 방에 모여 무슨 토론인가 하던 여러 지휘부성원들을 소개하며 인사를 시켰다. 그러나 구태여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 정무원지휘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거의 아는 사람들이고 모를 사람이란 종합분과장외에 불과 몇명이였다.

인사소개를 끝내자 리영선은 먼 길을 온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좀 쉬고 설계는 래일부터 볼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잠시라도 빈둥거릴 멋은 없었다. 그래서 윤상설은 설계는 밤에 보겠으니 지금은 우선 건설장부터 돌아 보자고 하였다.

그는 김부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3,300메터 계선에 이른 기본언제끝단에도 나가보고 기중기가 숲을 이룬 함형부재전투장도 돌아 보았다. 돌아 보는 과정에 그는 내심 놀라기도 하고 감탄도 적잖게 했다. 그가 보기엔 군인들이 그새 일을 상당히 많이 해제꼈으며 설명으로 들은 가물막이까지 포함하여 공사전반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것 같았다.

짐작컨대 현재 남포갑문건설이 도달한 계선은 그들이 기초설계를 만들 때 적어도 5년이나 6년은 걸려야 가능하다고 본 결과들이였다. 그런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과제를 갑문건설경험에서 백지나 다름 없는 송철만이 수하관병들을 지휘하여 그동안에 해냈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건설자— 군인들의 일솜씨앞에서는 놀라움이나 감탄보다도 차라리 면구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함형부재장에서 그는 한 대대장에게 교대당 타입실적을 물은바 있었다. 군관의 대답이 잘하면 1,200립방메터까지도 제낀다는것이였다. 날씨는 이곳도 태천이나 다름없이 령하 15～16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속이다. 한개 대대의 인원으로 그만한 타입실적을 올린다는것은 태천발전소건설장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

다. 어제 태천에서 떠날 때 13화력발전소건설기업소가 담당한 마평보조언제공사장에서 기업소적인 하루실적으로 겨우 200립방메터를 타입하고 이럴바엔 차라리 로동자들에게 휴가를 주자는 지배인의 의견에 동의까지 하고 온 그였다.

볼것을 다 보고 저녁에 지휘부에 들어 와 식사를 하고 나니 날이 아주 캄캄해 진 8시경이였다. 그때부터 보려고 김부위원장의 방에서 설계며 기초계산자료들을 벌려 놓고 앉았는데 자갈돌로 두드리는것처럼 되알지고 성급한 문기척이 울려 응답했더니 들어온것은 뜻밖에도 아들 건호였다. 아버지앞에서도 아들은 군인답게 깍듯이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오후에 함형부재장을 돌아 보다가 얼핏 만나 보기는 했지만 작업장이다보니 이야기도 변변히 못해본 까닭에 상설은 아들이 찾아 온것이 기뻤다.

《거기 앉아라. 저녁은 먹었니?》

《예.》

장탁끝에 와앉은 아들은 군모를 벗어 놓고 두손을 깍지 끼여 쥐더니 수긋하고 잠시 거기만 내려다 보았다.

객지에 나와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찾아 온 아들이라기보다 마치 손아래일군이 사업상 문제를 제기하러 온것 같은 자세였다. 이 녀석은 낮에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말뚝을 삼킨 놈처럼 뚝해서 통 웃을줄을 모르더니 지금도 그 본새군… 지휘관으로서 속에 무슨 근심이라도 품고 있는듯 싶어서 사유를 물으니 아들은 자기에게는 아무 근심거리도 없노라고 하였다.

《그럼 인상이 왜 그 모양이냐? 지휘관이 그렇게 얼굴에 구름이 껴가지구야 대원들이 좋아 하겠니?》

그래도 아들은 한본새로 뚝한 표정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얼굴에 구름이 꼈다구 대원들에게 비를 쏟지는 않습니다.》

《지휘관이야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는 속으로 (망할녀석, 군대밥을 먹으면서도 그 엇드레질하는 버릇은 다 못고쳤구나.…) 하고 욕을 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세서 부모한테는 물론 간혹 선

생님앞에서조차 잘 수그러들지 않는 버릇때문에 매도 적잖게 맞으며 자랐다. 인민학교적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모란봉아래 창전동에서 살던 때인데 하루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안해가 아들을 세워 놓고 문초하고 있었다. 워낙 장난이 드세찬 놈이라 상설은 또 무슨 그러루한 일이겠지 하고 처음에는 별치 않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저 그러루한 일》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엇선것이 문제시되여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교양을 잘해야겠다는 의견이 왔다는것이였다.

선생님한테 엇서다니? 그는 당장 신경이 곤두서서 아들을 넘겨 말았다. 선생님한테 대든것이 명백한 이상 사유를 캘것도 없어 그는 파리채를 돌려 쥐고 무작정 잘못부터 토설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종아리에 굴뱀이 지도록 얻어 맞으면서도 용서를 빌지 않았다.

초달이 통하지 않으니 아버지로서는 난처한 일이였다. 그렇다고 이런 때 어른쪽에서 양보하면 아이의 버릇은 오히려 굳히는 법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을 받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그는 잠옷바람에 아들녀석을 끌고 대동강으로 나갔다. 강가물녘에 아들을 세워 놓고 아직도 엇설테냐, 강물에 집어 던져 고기밥이 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도 아들이 잘못을 빌지 않자 상설은 그만 악이 나서 아예 물에 빠뜨려 고기밥을 만들겠다며 아들을 끌고 철벅철벅 강물로 들어 갔다. 물이 가슴노리를 치는데까지 들어 가서는 이제도 잘못을 빌지 않으면 너같은 자식은 집에 필요 없으니 정말로 죽여 버릴테다라고 을러 멨다. 그러나 아들녀석은 낯색이 파랗게 질려 가지고도 입을 꽉 다문채 끝내 잘못을 빌지 않아 결국 아버지쪽에서 지고 말았다.

《전 아버지한테 뭘 좀 말씀드릴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하긴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다.》 그가 아들한테 하자는 말은 결혼문제였다. 건호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않고 있는것은 그것대로 문제지만 더구나 문제는 그밑에 있는 딸이였다. 재작년 그러께 대학을 나와 경공업과학원에 다니는 딸은 벌써 26살이고 애인까지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오빠가 결

혼하기전에는 절대로 시집을 안간다고 나눕는 판이였다. 그때문에 안해가 노상 걱정을 놓지 못하는것도 있거니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 아들의 입에서 결혼문제를 부모의 결심에 맡긴다는 소리라도 받아 내고야 말 심산이였다.

《하자는 말이 뭐인지 어서 하려무나.》

《제가 말하자는건… 왜 아버님이 발전소건설장에 나가 계시는가 하는건데… 아버진 원래 예산안작성도 하고 여기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인생을 총화짓겠다고 말씀하신적도 있지 않습니까?》

《?…》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던 상설은 일순 얼떠름할수밖에 없었다.

《하니 너는 내가 태천이 아니라 여기 갑문건설장에 와 있는것이 옳다, 그걸 말하자는거냐?》

《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리유는 뭐냐?》

상설은 이 저녁 아들이 그저 범상한 이야기나 하자고 온것이 아님을 비로소 의식하며 은연중 긴장해 졌다.

《리유란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저는 우연한 기회에 우리 남포갑문건설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가 어떠했다는걸 알게 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저는 그때야 비로소 아버님이 태천에 가계시는 까닭을 알게 되는것 같았고 또 그때부터 아버지 계실곳은 태천이 아니라 우리 남포갑문건설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상설은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낮에 현장에서 잠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 저녁 아들의 얼굴에 왜 구름이 꼈는가 하는것이 비로소 리해되였다. 망할 녀석, 제 할 일이나 똑똑히 할게지 별데 다 신경을 쓰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무관심할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 너그럽게 말했다.

《네가 어디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것 같구나. 물론 나도 포함해서 한때 우리 위원회의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잘못 가졌던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5년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에는 론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다.》
《그럼 아버진… 지나간 일이고 론의할 가치가 없다고 그것으로 이젠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설은 아들이 묻는 의미가 얼른 짚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버릇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아버님이 당앞에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말씀하다 싶이 잘못된 견해를 가졌던건 사실이고 그때문에 당의 의도를 옳게 받들지 못한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 그건 죄다 사실이다. 하니 네가 말하자는건 결국 내가 이 갑문건설장에 와서 자신이 범한 과오를 씻어야 한다 그거냐?》
한순간 상설은 아들의 눈에서 불꽃이 반짝 튀는것을 보았다.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닙니까? 글쎄 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갑문이 완공되여 준공식을 하는 날 손님으로 오신 아버지가 아니라 건설자로서 떳떳한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건호는 간곡하게 말했다.
《음…》
상설은 아들의 념려가 고마왔다. 아버지된 립장으로 당의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해 자식으로부터 거북한 소리를 듣는것이 기쁜 일은 아니라 해도 한편 아버지앞에서 어려운 말을 서슴없이 할수 있게 성장한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다.
남포갑문으로 말하면 몸은 비록 태천에 가 있어도 늘 가슴속에 간직되여 있는 잊지 못하는 곳이다. 아들이 말한것처럼 예산을 세우느라 애도 많이 썼고 건설일군으로서의 한생을 거기서 총화지으리라 계획도 했던 대상이였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는 생각이고 가슴속에 감추어 진 희망으로서 당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응할 마음의 준비도 되여 있었다. 하건만 스스로가 그것을 제기할수 없는 문제였다. 그처럼 당에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갑문건설에 나서게 해달라고 할수 있는것인가. 당의 의도대로 갑문을 과연 5년동안에 완공해 낼수 있겠는가 하

는 불안의 끄트머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내심을 아들에게 털어 놓을수 없었다. 그래 변명삼아 적당히 이렇게 말했다.

《네 말이 다 옳다. 너의 심정도 리해되고… 하지만 태천도 중요대상이니 거기서 손을 떼고 여기로 옮겨 앉는건 내 마음대로 이러구 저러구 하기 힘든 문제다.》

아들은 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수굿하고 앉았다. 그제야 아버지는 아들앞에서 느끼는 이상한 압박감에서 풀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건 그렇고… 건호야, 너는 다른 대대장들보다 다르지 않니… 재작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뵈온 그 영광이 오늘도 네 가슴속에 끓고 있는줄 안다. 그러니 꼭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걸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게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착잡하게 얽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진척되지 못했으나 그 어느때보다도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보다 깊이 리해하는듯한 심정이였다.

×

아들이 들어 올 때처럼 문간에서 거수경례를 붙이고 방을 나가자 상설은 번거로운 생각을 묵묵히 담배와 함께 태워 버리고 설계검토에 달라 붙었다. 낮에 돌아 본 인상도 합치면서 령남리와 피도를 련결하는 기본언제부분을 살피던 그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다. 벙벙해 질수밖에 없는것이 언제중간쯤해서 피도쪽으로 약간 치우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리도 많은 론쟁과 타산을 거쳐 거기에 배치한 만년주기대홍수를 예견한 보조무넘이언제수문이 반영되여 있지 않았던것이다. 기억이 맞는다면 본래의 설계에는 거기 보조무넘이언제에 61개의 수문이 배치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 개작설계에는 단 한개도 배치하지 않고 있으니 만년주기대홍수때의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자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의혹은 한참후에야 풀렸다. 보조무넘이언제와 함께 없어 진 수문은 대폭 축소된 형태로 피도와 끝살부리사이의 갑실언제열에 가 있었다. 설계를 개작했다는것이 바로 그것인것 같은데 그로서는 놀랄수밖에 없었다. 기본언제에서 보조무넘이수문을 없애고 그것을 갑실쪽에 가져 가는것으로 말하면 갑문건설에서 구조물의 단순한 이동배치가 아니라 갑문건설의 기본공식을 부정하는것이였다. 갑문건설의 시조라고 하는 프랑스나 도이췰란드에선 홍수피해를 예견한 보조무넘이수문을 다 갑실과 떨어 진 기본언제에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종전의 남포갑문기본설계도 외국의 그러한 경험과 원칙에 근거하여 보조무넘이수문을 언제부분에 배치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이 개작설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성리론을 무시하고 보조무넘이수문을 기본언제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으니 성공만 하면 이것은 갑문건설분야의 일대 사변이라고 할수 있었다.

61개의 수문대신 갑실열에 낸 이 세개의 큰 수문과 작은 수문 다섯개로 만년주기대홍수를 감당해 내겠는가?… 만년주기대홍수란 양덕과 맹산을 비롯한 대동강류역의 모든 지역에서 연 3일동안 1,000미리메터의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흘러 내리는 물량은 초당 4,200립방메터로서 만일 이 물을 제때에 뽑아 내지 못하면 평양을 포함하여 대동강류역 전체가 물바다에 잠기게 되는것은 물론 갑문언제자체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갈수 있었다. 대동강류역이 물바다에 잠기는것도 그렇고 국고를 털어 건설한 갑문이 터져 나간다는것은 상상조차 하기 무서운 일이였다. 설계를 개작한 사람들이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을리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였기에 이동배치했겠지만 그로서는 설계가들의 대담성앞에서 정녕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설계를 밀어 놓고 기초계산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과정에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설계자들이 만년주기대홍수때에는 축소하여 이동배치한 수문들과 함께 갑실문을 모두 열어 놓으면 종전의 61개의 수문을 충분히 대신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것이였다. 종전설계는 대홍수때에도

갑실문은 닫아 놓는것으로 되여 있었는데 열어 놓고 보니 구태여 닫아 둘 필요가 없었다. 원,이런 단순한 리치를 모르고 그런 군더더기 같은 수문을 잔뜩 배치하다니…

그가 비상한 흥분속에 근 100매 가까운 기초계산자료의 마지막페지를 넘겼을 때에는 새벽 5시경이였다. 결국 한밤을 꼬박 새운 셈이지만 그는 피곤보다는 좋은 설계를 보고 난 기쁨이 더 커서 마음마저 흥뜨는것 같았다. 몇가지 부분적인 결함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설계가 매우 대담하고 합리적으로 개작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덧 날이 활짝 밝았다. 리영선부부장은 엊저녁에 끌살부리로 건너갈 소리를 하더니 언제 되건너 왔는지 그때쯤에야 추위에 얼굴이 시퍼렇게 얼어 가지고 나타났다.

《어떻게？… 초보적인 파악은 했습니까？》

걸상을 끌어다 난로가까이에 앉으며 그는 물었다.

윤상설은 이윽히 설계를 들여다 보다 말고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제 보기엔 그만하면 설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개작된것 같습니다. 한가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는것 같은데… 보조무넘이를 없앤건 좋지만 지금처럼 하면 장마때에 재령강에 고이는 물을 빼지 못합니다.》

황해남도일대의 논농사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갑실문을 열어 놓는것으로 해결 안될가요？》

리영선의 말이였다.

《갑실문을 여는거야 만년주기홍수때의 일이고 보통 장마에야 열면 안되지요. 장마뒤에 안정수위를 보장 못할수 있으니까요.》

안정수위를 잃으면 농사에 지장을 주기는 매일반이였다.

《수문턱을 전반적으로 좀 낮추어 주면 해결될상 싶기는 한데…》

그것은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아니고 개작설계의 약점을 알게 되자 모색한 방책으로서 아직 확신은 가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장은 금시 확 달아 올랐다.

《수문턱을 낮춘다… 아니,그게 아주 비슷한 방법이 아닙니까？

간단두 하구. 전문가가 아닌 내 생각에도 그건 참…》

《글쎄요. 실천적으로 가능하겠는지…》

《왜 가능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수문턱이야 필요하면 낮출수도 있고 높일수도 있는건데… 토론해 봅시다. 가능할것 같습니다. 역시 부위원장동무한테 설계를 보이길 잘했습니다. 보고 드리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몹시 기뻐 하실것입니다.》

갑자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 드린다는 소리에 상설은 어안이 벙벙해 졌다.

《아니, 여기선 이런 실무적인것도 다 보골 드립니까?》

《보고 드리지 않구요… 그이께서 보조무넘이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크신지 압니까? 이제는 알아도 일없겠기에 하는 소린데 사실 이 개작설계가 나오게 된 경위도 그렇고 부위원장동무에게 설계를 보이는것도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에 따른것입니다. 그이께선 다름아닌 부위원장동무를 찍었단 말입니다.》

《네?!》

윤상설은 가슴이 뭉클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남포갑문건설기한을 당의 의도에 맞게 바로 정하지 못하여 수령님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드린것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며 자식앞에서조차 떳떳치 못하던 자기였다. 그런 불충불효한 자신에게 태천발전소건설과업을 맡겨 주신것만 해도 고맙기 그지 없는데 여전히 잊지 않고 믿음을 주시니 상설은 그저 목이 메일뿐이였다.…

6

적정통보자료의 마감페지를 넘기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들어 총참모부 작전실을 찾으시였다. 마침 작전국장이 전화를 받았다.

《〈엔터프라이즈〉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엔터프라이즈》호는 이른바 미국의 《전략외교관》으로 전세계를 작전무대로 한다는 초대형 핵항공모함이였다.
《현재는 일본 요꼬하마에 머물러 있지만 인차 포항쪽으로 건너올것 같습니다.》 작전국장의 대답이였다.
《그 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통보에서 빼지 말고 보고해야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전화기, 수령님의 집무실과 련결된 직통전화기의 종이 울려서 급히 통화를 끊고 송수화기를 바꾸어 쥐며 일어 나시였다.
《오늘은 조직비서의 생일인데 정 바쁘지 않으면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하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수령님의 자애 넘친 말씀이였다.
《고맙습니다. 수령님, 그런데 시간이…》
김정일동지께서는 죄송한 심정을 금치 못해 하시며 시간을 낼수 없는 사연, 이제 20분후에는 최고사령부 작전조성원들을 만나야 하고 남포갑문건설정형과 개작한 기본설계를 료해하기 위해 송철만국장과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을 부른 사실 그리고 그들을 만난뒤에는 인민무력부장과 같이 전선동부의 어느 대련합부대 기동준비상태를 보기로 한데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날이 벌써 저무는데 아직도 그렇게 할 일이 많으면 안되겠구만.》
수령님의 어조에는 섭섭해 하는 마음이 그대로 풍기였다.
그러나 인차 헌헌한 음성으로 알겠다고, 일복을 타고 난 사람에게는 사계절이 없다는데 생일이 있겠는가고 롱담을 하시더니 화제를 돌려 적들의 군사연습상황에 대해 문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방 보신 총참모부의 적정통보내용을 추려서 말씀 드리였다.
《… 한마디로 적들은 해외기지들로부터 병력과 장비의 수송을 끝내고 제2단계, 즉 〈본격적인 작전단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들은 포항과 전선 중동부에서 상륙이니 륙전대 투하니

공중기습이니 하는 군종별 훈련만 하고 있을뿐 우리를 향한 공격집단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아직 요꼬스까항에 머물러 있는것으로 보아 적들은 2단계 작전을 좀 늦추는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들으신 모든것을 머리속에서 다시 분석하고 종합해보시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문득 신중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적들이 그렇게 작전을 늦추는 까닭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총참모부에서는 우리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기때문에 적들이 전년 〈80〉때 같은 상황이 조성될가봐 조심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신 《80》때란 3년전에 있은 적들의 《팀스피리트 80》군사연습 당시를 념두에 둔것이였다.

당시 적들의 합동군사연습은 3월에 이르러 《실전단계》(일명 절정기)로 넘어 갔다. 하여 15만 4,000명에 달하는 적의 대병력이 하늘과 땅,바다에서 군사분계선을 향해 급속도로 진출해 왔다.

적의 이처럼 강력한 진출에는 든든한 방어로 맞이하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리 생각하시였다.

(… 적들은 허장성세하고 있다. 요란한 진출로 아군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일뿐 실전을 벌릴 용단은 못 가지고 있다.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말은 바로 지금 같은 때 해당되는 말일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총참모부로 하여금 놈들이 최전방 가까이로 접근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맞받아 아군부대들의 대기동을 조직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적들로서는 전혀 예견할수 없었던 잘 준비된 아군부대들의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대기동이 시작되였고 이에 질겁한 적들은 훈련비상으로부터 《뎁콘-4》라는 전투비상으로 넘어 가느라고 일대 소동이 벌어 졌다. 결국 적들은 우리가 진행한 대기동연습을 공격집단편성을 위한 부대기동으로 오판했던것이다.

후날 이 일을 두고 적들자신이 의사들의 《오진》과 같은것이였다고 고백한 사실만 보아도 적들이 이번에 조심하는 까닭이 리해

되는 바가 있었다.

《총참모부의 판단이 옳을수도 있습니다.》 수령님의 신중한 말씀이였다. 《그러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근 반세기동안 상종해 본데 의하면 미국놈들이란 허장성세 뒤에서 딴 꿍꿍이를 잘하는 흉물들입니다. 요새 일본수상 나까소네가 워싱톤과 서울을 자주 싸다니는걸 봐도 그렇고 순간도 각성을 늦춰선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최고사령부 작전조성원들과 만나야 할 시간이 박두했으므로 그이께서는 서둘러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저녁 일곱시를 몇분 앞두고 책임서기와 함께 교외에 있는 초대소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에는 이미 남포에서 들어온 송철만소장과 리영선부부장 그리고 별도로 부르신 윤상설부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찬 일을 맡겨 놓고 변변히 도와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만나본지 벌써 이태나 되는, 그새 퍼그나 변모된 송철만소장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죄부터 하신 그이께서는 소장에 비기면 조금도 달라진것 같지 않은 윤상설부위원장에게는 이런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개작한 갑문설계를 보고 황해남도의 논농사와 관련한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령님께서도 아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그이께서 오늘 그를 특별히 부르신것은 바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완성된 개작설계를 료해하자는 의도도 없지 않으시였다.

《변변치 못한 의견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그이께서는 부위원장이 말하는 《부끄럽다》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에 더욱 밝은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게 왜 변변치 못한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마주 서서 이

런 말을 하기는 별스럽지만 사실 부위원장동무니 설계의 그런 약점을 제꺽 포착하지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일행은 책임서기를 따라 초대소 아래층의 어느 방으로 들어 갔다. 바닥에 꽃무늬를 돋친 비닐레자를 깔고 벽에 풍경화 한점을 걸었을뿐 가구도 별반 없이 소박하게 꾸려 진 방안 한가운데는 빙 둘러 걸상이 꽂힌 크고 묵직한 원탁이 놓여 있었다. 그 원탁을 둘러 싸고 일군들이 모두 앉자 그이께서는 먼저 건설형편부터 들어 보자고 하시였다.

송철만소장이 준비해 가지고 온 실태보고자료를 들고 일어 섰다. 자료의 부피로 보아 시간이 너무 길어 질것 같아 그이께서는 미리 선을 그어 주시였다.

《이것저것 다 꺼들지 말고 기본언제면 언제, 가물막이면 막이… 공정보다 앞서 나갔으면 얼마 앞섰고 떨어 졌으면 얼마나 떨어 졌다, 앞선 리유는 뭐고 떨어 진 원인은 뭐다, 전망과 대책은 이렇다, 하는식으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뭇 당황해 하는 눈치였다. 아마 준비를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왔던가 아니면 길게 준비한 보고를 20분으로 압축하는것이 난감한 모양이였다.

《그럴것 없이 이렇게 합시다.》

그이께서는 소장의 고충을 헤아려 한가지 손쉬운 방도를 생각해 내시였다.

《내가 한가지씩 묻겠으니 대답만 하시오. 먼저 기본언제… 현재 몇메터계선까지 전진했습니까?》

《어제 현재로 3,310메터 나갔습니다.》

《3,310메터면… 공정계획대 실적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5개월정도 떨어 진걸로 됩니다.》

《기본언제는 그만하면 공사조건이 좋은 셈인데 왜 다섯달씩이나 늦어 집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장은 쥐고 선 보고자료만 내려다 볼뿐 인차 대답을 못하더니 얼마간 시간을 끈 뒤 힘들게 입을 열었다.

《원인은… 제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옳바로 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

소장이 그런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 못하셨던 까닭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얼핏 리영선부부장을 건너다 보시였다.

그 시선을 어떻게 리해했는지 부부장은 일어 섰다.

《기본언제공사가 처지는 까닭은 여러가지로 볼수 있겠지만 기본은 언제가 전진하는만큼 바다가 깊어 지고 수송로도 멀어 지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송철만은 십분 옳은것 같은 부부장의 견해를 즉석에서 부정하였다.

《아닙니다. 기본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국장으로서 응당 그 모든 불리해 지는 조건을 예견하고 공사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철만동무！》 그이께서는 엄한 어조로 소장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의 심정은 리해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은 그 누구의 자기비판을 듣자는것이 아니고 공사실태를 알고자 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정에 흐르지 말고 될수록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렇게 함형부재를 비롯한 각종 중량부재 생산정형을 청취하고 가물막이공사형편도 료해하시였다. 건설기자재 보장까지도 포함하여 어느것이나 다 형편이 시원치 않았다. 처진대로 공정계획에 그중 바투 접근해 있는것이 함형부재 생산이고 가물막이공사같은것은 근 1년이나 떨어진 폭이였다.

더욱 문제는 그렇게 처진 공사일정을 추켜 세울만한 대책이 없고 있다고 해야 시원한 방책이 못되여 전망을 락관할수 없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남포갑문건설은 현재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침체의 징후조차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정세가 좀 풀리고 짬이 나는대로 현지에 나가 보다 전면적으로 실태를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

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럼 이젠 설계를 봅시다.》

송철만소장이 앉고 원탁우에 설계도면이 펼쳐 졌다.

먼저 리영선이 설계의 개작경위와 그 합리성을 설명하고 이어 윤상설이 보조무넘이 수문턱이 재령강수위와 황해남도의 논농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충하였다. 물론 그 모든것은 **김정일**동지께서도 이미 보고 받아 륜곽적으로는 아시는 문제였다.

《멋있습니다. 보조무넘이수문을 갑실쪽으로 옮겨 놓으니 령남리와 피도를 련결하는 이 기본언제가 더 미끈해 지고 갑문이 전반적으로 탐탁해 졌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시공만 해놓으면 이건 갑문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라고 해야 옳을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한번 설계개작에 이바지한 과학자들과 윤상설의 수고에 대해 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두 일군더러 앉으라고 하시였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왜 그런지 부위원장은 한참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수리공학연구소동무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이 개작설계가 나오게 된건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설계를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약점이 있는줄을 어떻게 아셨는지… 하는겁니다.》

《내 아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송철만동무를 도와 주려는 마음에서였다고… 물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 설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이던 조국에 필요하고 인민이 원하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언제나 할수 있다, 해도 빨리 해야 한다는 원칙에 선다고 할가?…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할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들의 사상적각오와 혁명적열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언제나 사상론자입니다.》

부위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부위원장동무도 대동강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여간 담이 크지 않았더군요.》하고 그이께서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

씀하시였다.

《그건 어떻게？…》

화제가 갑문설계로부터 갑자기 대동강발전소건설문제로 전환되여선지 부위원장은 어지간히 당황해 하였다.

《얼마전에 나는 장서배치정형을 알아 보느라고 인민대학습당에 나갔다가 부위원장동무가 10년전에 내놓은 학위론문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총론밖에는 읽어 보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위원장동무가 그때 보수주의자들과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겠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것은 어느 나라의 과학자인가는 와서 석회암지대인 대동강상류에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은 평양의 머리우에다 홍수를 준비하는것과 같다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석회암강바닥에 시추를 해서 콩크리트기둥을 세우고 언제를 일떠세웠으니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조선사람의 일본새고 우리 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남포갑문건설에서는 그런 용기와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는가고 꼬집어 묻지는 않으셨지만 부위원장은 그이의 말씀속에 비껴 있는 아쉬움과 기대를 리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듯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창밖이 캄캄해 지고 시간은 벌써 여덟시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그때 책임서기가 들어 와 무엇인가 준비되였음을 알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런가고, 준비되였으면 들여오라고 하며 원탁우에 펴놓았던 개작설계를 접으시였다. 리영선이 재빨리 일어나 도면을 거두어 건사하는 동안 원탁우에는 간소한 주안이 차려 졌다. 그이께서는 오늘은 기쁜 날인데 말잔치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손수 잔에 술을 부어 세 일군앞에 놓아 주고 자신의 잔에도 조금 부으시였다.

《자, 어서 드시오. 들면서 이야기합시다.》

잔들이 비자 리영선이 그이께 부어 올리려고 술병을 쥐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잔을 치우시며 인민무력부장동무와 함께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시며 병을 달래서 세

일군의 잔을 다시 채워 주시였다. 그들이 너무 송구스러워 하는 것이 딱하시여 그이께서는 자신의 걱정은 말고 어서 들라고 하시며 화제를 돌려 윤상설에게 태천에 나가 있으면서 1년에 집에 얼마나 들어 오는가고 물으시였다. 부위원장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중요한 회의나 있으면 들어와 본다면서 다 합치면 한달이 될지 말지 하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출창 나가 있다는 소린데… 집식구들이 퍼그나 그리워 하겠습니다.》

《뭐 이젠 습관들이 되여서 일없습니다.》

《그리움에 습관되자니 오죽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자손들이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손자는 아직 없고 아들 둘에 딸이 하납니다.》

《아니 왜 아직 손자가 없습니까?》

《제 맏이되는놈이 성미가 좀 괴벽해서…》

집안일을 말하자니 별난지 부위원장은 열적은 기색을 지었다. 맏아들의 괴벽한 성미때문에 손자가 없다는것이 잘 리해되지 않아서 그이께서는 맏아들이 몇살이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캐물으시였다.

《인민군대군관인데… 글쎄 서른두살이나 먹은것이 언제는 조국통일을 하기전에는 장가를 안간다고 하더니 요샌 갑문을 다 건설하구야 간다는겁니다.》

《오, 아들이 갑문건설부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함형부재생산을 담당한 522군부대 대대장인데 윤건호라구… 지도자동지께서 만나보신적이 있는 동뭅니다.》

송철만의 말이였다.

《나를 만나보았다?… 가만, 부부장동무, 그게 혹시 전년 언젠가 〈소금밥〉때문에 만나 본 그 대대장이 아니요? 갑문건설에 대해 이러구 저러구 하는 사람을 다 반당분자로 본다던 동무…》

《옳습니다. 그 동무 이름이 윤건호였습니다.》

부부장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때 본 대대장의 생김새며

지어 전사들과 같이 물통을 메고 있었다는것까지 생각해냈다.

《맞소, 여기 배에다 이렇게 물통을 드리우고… 허허, 세상이 넓고도 좁다더니 그 대대장이 윤상설동무 아들이였구만.》

생활이 빚어 낸 우연의 오묘함을 새삼스럽게 느끼시며 그이께서는 친근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 남포갑문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의 정신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들은 지금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자기들이 맡아 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는데 수령님께서도 무척 대견해하십니다. 세상에 군대가 많지만 과연 어느 나라 군대가 우리 군인들처럼 그런 고상한 정신과 혁명적기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군대가 제일이고 우리 군인들이 제일입니다. 문제는 그 대대장, 부위원장동무의 아들이 결혼을 안하겠다는것인데… 갑문을 다 건설할 때까지면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서른다섯살이 되는데… 그전에 아무렇게나 꺾어서 장가를 보내겠습니다.》

《아니, 암만 자식이라도 결혼문제를 그렇게 생나무 꺾듯 해서야 됩니까? 잘 납득시켜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윤건호대대장에게 내 말을 전하십시오. 갑문도 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가정도 제때에 건설할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도중에 그이께서는 시계를 내려다 보시였다. 정각 9시, 벌써 인민무력부장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된것이였다.

《동무들, 난 이젠 가야겠기에 솔직히 말합시다. 사실 내가 오늘 동무들을 부르고 또 굳이 여기로 오라고 한건 갑문건설정형이나 개작설계를 료해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보다는 이렇게 동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도 나누며 식사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천천히 식사도 많이 하고 오늘밤은 모두 여기서 자고들 가시오. 꼭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럼…》

따라일어서는 세 일군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신 그이께서는 힘찬 걸음으로 방을 나와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7

장풍산중사의 잠수조는 피도에 기지를 두고 가물막이공사장에서 초반고르기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3,300메터계선까지 전진한 토언제 끝과 피도사이에서 지반보호작업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령남리에서 시작된 기본언제가 피도쪽으로 전진함에 따라 바다폭이 좁아 지면서 조류가 세지였다. 따라서 밀물과 썰물에 의한 바닥패임현상이 심해 졌다. 이 패임현상을 막기 위해 량쪽에 레루장을 감아 떨구는 방법으로 70여만평방메터의 마대천을 바다밑에 깔아야 하였다.

이 임무가 바로 장풍산이 소속된 잠수편대에 떨어 졌다. 원래 물에 살얼음이 지는 초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기간에는 잠수작업을 하지 않는것이 상식으로 되여 있었다. 작업과정에 공기호스가 얼어 붙고 육체가 찬 기운을 이겨 내지 못하여 마비를 일으킬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갑문건설장의 잠수병들은 그러한 위험이나 상식을 잊어 버린지 오래며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이후부터는 겨울조건이라는 그자체를 무시하고 잠수작업을 계속 하였다.

《잠수병들이여,조국은 지금 미제원쑤들과 포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심장의 불길로 얼음장을 녹이며 후속공정을 보장하자!》

《잠수초소 이상 없다. 돌격앞으로!》

잠수병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심정과 의지를 전투속보에 반영하였고 또 실지 그렇게 일하며 생활하였다.

오전 아홉시반경이였다. 이미 사십분전에 단독으로 바다밑에 들어 온 장풍산은 그 시각 잠수정에서 바다밑에 떨군 마대천들이 펴진 상태를 검열하고 있었다. 량쪽에 무거운 강철레루장들을 감았다고 해도 마대천은 떨어 지는 과정에 겹치여 바로 펴이지 않거나 물살에 밀려 왕청 같은데 떨어 지는수가 많았다. 그래 마대천을 떨군

뒤에는 교대로 한명씩 검열잠수를 하는데 오늘 장풍산은 초소장으로 첫 잠수를 하였던것이다. 가물막이공사장에 비해 수심은 그리 깊지 않아 13메터밖에 안되는데도 빛이 미치지 못하고 감탕이 일며 물까지 흐려 한치 앞도 정확히 가려 볼수 없었다. 오늘따라 겹친곳들이 많았다. 투하구역을 벗어 나 멀리 가서 떨어 진것들도 여러장 되였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장도 놓칠세라 손더듬,발더듬으로 책임적으로 마대천들이 펴진 상태를 검열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는데 따라 두터운 잠수복을 거쳐 엄습하는 랭기에 몸이 점점 떨려 오고 팔다리가 잘 움직여 주지 않았다. 게다가 벌써 밀물때가 되였는지 몸이 자꾸 웃쪽으로 쏠리였다.

마침 그때 지휘전화기에서 소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오라,교대시간이 되였다.》

장풍산은 대답을 못하고 얼어서 뻣뻣한 입술만 감빨았다. 짐작에 검열 못한 곳이 한두구간 되는것 같은데 그때문에 다른 동무가 또 잠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마저 하고 올라가려고 결심을 알린 그는 물살에 밀리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며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였다. 겹쳐 진 마대천이 또 나타났다. 더듬어 보니 서로 반대편에 가 있어야 할 두개의 레루장들이 마대천중간쯤에 모여 ×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우에 놓인 레루장부터 제자리에 끌어 다 놓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물흐름이 더욱 빨라 지는것을 느꼈다. 처음의 위치로 다시 돌아 온 그는 남은 반대쪽 레루장을 들어 올렸다. 먼저 옮겨 놓은 레루장이 물살에 들려 일어서며 마대천을 끌어다 등뒤로부터 그를 덮쳐 버린것이 바로 그 순간이였다.

《악!》소리와 함께 그는 레루장을 안고 앞으로 푹 꼬꾸라지며 몇바퀴 딩굴었다. 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레루장에 가슴을 짓눌린채로 자루모양이 된 마대천속에 휘감겨 번듯이 누워 있는게 아닌가. 이런 때 당황하여 헤덤비면 안된다. (그래 그래,덤비지 말자. …)

마대천이 몸을 꽁꽁 휘감고 레루장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서 팔다리를 움직일수 없는데다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런대로

공기호스와 지휘전화기가 살아 있는것이 천만다행이였다.

넘어질 때 지른 비명을 들었는지 수화기에서는 벌써 소대장의 놀란 목소리가 귀따갑게 들려 왔다.

《풍산이, 풍산이… 웬일인가? 빨리 말하라! 빨리…》

풍산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가슴을 짓누른 레루장때문에 숨이 막혀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는 빨리 레루장을 밀어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팔을 움직여 보았다.

그런데 마대천이 얼마나 꽁꽁 휘감아 놓았는지 전혀 움직여 지지 않았다. 손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왼쪽으로 몸을 뒤틀어 가슴을 짓누르던 레루장의 무게를 오른쪽팔에 받았다. 숨쉬기는 한결 헐해 진것 같았다. 대신 흉곽이 압축되여 부서지는것 같은 무서운 아픔이 뒤따랐다. 그 아픔에서 벗어 나려고 풍산은 이발을 으드득 갈며 몸을 다시 뒤틀었다. 그러자 아픔이 조금 물러가는듯 싶더니 이내 또 숨이 막혀 왔다.

그가 죽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생각한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러나 그는 즉시 (… 아니, 안된다. 이렇게 죽을수는 없다! 내 나이 몇이고 영웅이 되겠다던 결의는 어디다 두고 벌써 죽는단 말인가?… 안된다! 살아야 한다!)하고 단호히 죽음을 부정해 버렸다. 그는 다시 안깐힘을 써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몸을 뒤틀었다. 역시 숨쉬기는 조금 나아졌으나 이내 흉곽이 부서지는듯한 아픔이 뒤따랐다. 하여 그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또 몸을 뒤틀었다. 그러기를 몇십번… 전신에 땀이 질펀히 내배도록 하도 몸을 뒤트니 감탕바닥이 패우면서 차차 레루장이 가벼워 졌다. 됐다, 이젠 살았다!…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는 뒤틀기를 몇번 더하여 마침내 레루장이 더는 몸을 짓누르지 못하는 정도로 감탕바닥을 파고 들어 갔다. 죽음의 첫 문턱은 그렇게 멀어 졌으나 이제는 더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소대장과 잠수선에 남아 있는 작업조원들이 몹시 걱정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입을 놀릴 기운조차 없어 그냥 번듯이 누워 있었다. 질펀하게 내배였던 땀이 식으면서 인차 몸이 떨려 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대로 기력을 얼마간 회복하자 그는 입을 간신히 놀려 소대장을 찾았다. 그러나 소대장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경

황없이 《아니, 풍산이, 동무 풍산이가 옳긴 옳은가?》 하고 다우쳐 물었다. 부대장의 목소리였다.

장풍산은 그렇다고 하며 자신이 처한 형편을 더듬더듬 말하였다. 《…알겠다. 풍산이, 구조잠수가 찾지 못하고 올라 왔다. 다른 잠수조가 또 내려 갔다. 지금 찾고 있는중이니 맥을 놓지 말라! …》

풍산은 알겠다고 하며 시간을 물었다. 정대철의 대답이 열두시반이라는것이였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열두시반이면 자기가 마대천에 휘감긴지도 거의 세시간이 된다는 소린데 레루장과 싸우는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구조잠수가 아직도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지휘전화기의 통화가 두절된 이후 인차 구조대책을 취했겠는데 여직껏 나타나지 않는걸 보면 잠수병이 방향선택을 잘못했거나 조류에 밀려 지금 왕청같은데서 헤매고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구조잠수를 누가 내려 왔는지 알아 보려고 했다.

그러나 방금전까지만 해도 덜덜 떨리던 턱이 꽉 굳어 져 도무지 말을 할수가 없었다. 이러다간 동상을 입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장화목에 꽂혀 있는 잠수칼을 뽑으려고 애써 보았다. 칼만 손에 쥐면 마대천을 찢고 빠져 나갈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가슴우에 레루장이 비스듬히 가로질러 있어 상체를 움직일수 없는데다 빠른 물살이 마대천을 압착하는 힘에 아무리 애써도 잠수칼이 꽂혀 있는 장화목다리에 손이 닿지 않아서 끝내는 단념해 버렸다. 그러느라고 맥을 다 뽑고 시간도 적지 않게 흘렀지만 구조의 손길은 의연히 와닿지 않았다. 몸이 너무 얼어 들어 이제는 팔다리에 아무런 감각도 느껴 지지 않았다. 정신마저 흐리마리해지는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바다밑에서 구조잠수병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죽을수도 있다. 물살이 이렇게 세고 바다물이 이렇게 흐린데 마대천을 휘감고 감탕바닥에 누워 있는 나를 누가 어떻게 발견한단 말인가? 설사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다음번 정조때이고 그때면 나는 이미

살아 있지 못할것이다！…)

그는 뜨고 있을 기력조차 없어 지그시 눈을 감아 버렸다. 그러자 짙은 안개 같은 기억속으로 나서자란 고향 삼수땅이 떠오르고 그 땅에서 시작된 스물여섯해의 길지 않은 생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아버지, 형님과 누이동생의 정다운 모습도 떠올랐다. 학창시절의 친근한 벗들과 잊지 못할 선생님들, 가슴을 두근거리며 맞이하던 학기말시험과 졸업시험장, 소년단야영소에 갔던 일, 바다가 밤하늘을 불 태우던 우등불과 난생처음 바라보던 수평선, 해빛넘치는 백사장…

친근하고 다정하고 잊을수 없는 그 모든 생활과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채 죽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였지만 피할길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이렇게 맥없이 죽을수는 없었다. 가능하다면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고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도록 생을 영웅적으로 끝내고 싶었다. 그는 눈을 감은채 이발로 경직된 혀와 입술을 천천히 짓씹었다. 피가 나는지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입안에 끈적끈적한것이 고여 목구멍을 넘어 왔다.

그것을 삼켜 버리자 굳어 졌던 턱이 얼마간 풀리는것 같았다.

《잠수정！ 나… 풍산… 나를… 찾지 말라. 나는… 찾지 않아도 좋다. 마대를 뗠구라. 시간을 잃지 말고 작업을 계속 해달라. 부탁이다. … 동무…들, 부디…》

만신의 기력을 짜내 그렇게 말하며 풍산은 소대장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려 온것은 소대장의 목소리가 아니고 귀에 선웅글고 엄한 질책의 소리였다. 《동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안된다. 나 국장이다. 명령한다. 맥을 놓지 말라！ 용기를 내라. 동무에 대해선 당중앙에 보고되였다. 동무를 무조건 구원하라는 과업이 내렸다. 지금 2, 3, 4잠수편대가 다 구조작업에 들어 갔다. 신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알았는가？》

아！… 장풍산은 목구멍으로 울컥 치받쳐 오르는 격정을 삼키며 더운 눈물을 주르르 쏟았다. 당중앙에서 나를… 나같은 삼수

내기촌바우가 글쎄 뭐라고… 터져 나오는 울음때문에 그는 송철만국장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국장이 거듭 《알겠는가? 장풍산, 대답하라!》고 독촉해서야 간신히 알았다고, 열시간이든 백시간이든 싸워 이기겠다고 목 메인 소리로 대답하였다.

제2편대의 구조잠수병들이 의식을 잃고 꽁꽁 얼어 심장의 박동만 겨우 알리는 그를 찾아 내여 잠수정에 끌어 올린것은 잠수한 때로부터 9시간, 마대천에 휘감기운 상태로부터는 일곱시간만인 오후 다섯시경이였다. 그때까지도 잠수정을 떠나지 않고 있던 송철만과 정대철은 중사의 몸에서 잠수복을 벗기자 저마끔 끌어 안고 놓을줄을 몰랐다.

8

여섯대의 12인치 양수기가 사방에서 바다에 물을 토해 내고 있는 철배꼭대기로 모포에 싼 늄밥통과 국통이 바줄끝에 매달려 끌려 올라가고 있다. 밑에서는 식사를 날라온 두명의 당번이 고무뽀트에 앉아 올려다 보고 철배우에서는 연공들이 장갑 낀 손으로 바줄을 당겨 올린다.

수면에서 철배꼭대기까지는 근 20메터… 드디여 밥통과 국통이 연공들의 손에 와 닿았다. 뒤쪽에서 바줄을 사리던 연공이 익살스럽게 소리쳤다.

《자, 용감한 바다의 수리개들… 식사 모엿!》

그러자 여기저기서 양수기며 스위치며 정통안의 수위감시를 담당했던 연공들이 모여 들어 국통과 밥통을 둘러 쌌다. 바줄퉁구리를 깔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작업조장 박선봉은 맨 나중에야 왔다.

《젠장, 또 얼었구나. 꾸둑꾸둑한걸 보니.》

모포를 풀고 밥통뚜껑을 열어 본 친구의 말이였다.

《그래도 국은 좀 괜찮네. 살짝 얼음만 졌은즉…》

《까짓… 아이스크림 먹는셈 치지 뭘…》
《왜 아이스크림이야, 어른스크림이지.》
젊음이 좋았다. 그렇게 살얼음이 건너간 국이고 언 줴기밥일망정 연공들은 둘러 앉아 웃고 떠들며 맛스럽게 먹었다. 먹고나서는 누군가의 발기에 따라 밥통속에 이런 글쪽지를 써 넣어 내려 보냈다.
《여, 뜨뜻한 부뚜막에 앉아 있는 식당근무 도깨비들아. 동지애를 발휘하여 저녁에는 밥을 좀 더 많이 보내라. 많이 먹고 배가 불러야 열이 많이 난다는 생리법칙을 모르는가? 제1작업조.》
뽀트에서 그릇을 받았다는 신호로 철배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연공들은 바줄을 도로 끌어 올리고 둘씩, 둘씩 짝을 무어 쇠발판을 구르며 《발바닥차기》를 시작하였다.
《하낫, 둘, 셋, 넷…》
《둘, 둘, 셋, 넷…》
…
추위는 어느 공사장에서나 고운 대접을 못 받지만 날바다우에서 철배와 씨름하는 연공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원쑤였다.
남포조선소에서 생산된 움직이는 섬과 같은 대형철배를 가물막이 공사장까지 운반해 오자면 보통 4시간, 맞바람이 부는 날에는 다섯시간까지도 걸린다. 그 4～5시간동안 물우로 솟아 오른 부분이 자그만치 20메터가 넘는 철배우에서 한겨울의 추위와 맵짠 바다바람을 이겨 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연공들은 그래도 처음엔 씩씩하게 노래를 부른다. 개중에는 검푸른 바다를 굽어 보는 장쾌함에 취해 멀리 남포시내나 은률쪽의 산발을 향하여 《어―허―허―허》하고 목청껏 소리를 보내고는 돌아 오는 메아리를 들어 보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나 철배가 와우도를 뒤에 떨구고 밤섬이나 오리섬수역쯤에 이르면 노래도 메아리도 저절로 없어 진다. 있느니 덜덜덜… 이발 맞쫏는 소리 아니면 엄습하는 추위를 이겨 내느라고 쇠발판을 구르는 소리와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윽―윽― 내지르는 기합소리뿐이였다.

그렇게 운반해 온 철배를 바다에 가라 앉히는 작업은 보다 활동적이였다. 끝나는 차례로 철배에서 내려 와 시뻘겋게 단 난로를 안아 볼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서 운반에 비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나 그것도 기상조건이 웬간해서 침강이 잘될 때의 일이다. 바람새가 사납고 파도가 높아 침강을 성사 못하면 그냥 철배우에서 여섯시간후에 다시 오는 정조를 기다려야 한다. 때로 그 기다림은 련속으로 세번,네번 혹은 며칠씩 이어 지는 수도 있는데 태풍예보나 정 추운 경우가 아니면 연공들은 그냥 철배우에서 먹고 자며 침강을 성공시킬 때까지 철배를 내리지 않는다.

요새 박선봉상사의 작업조가 거듭되는 실패로 벌써 사흘째 그렇게 철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지금 그는 매우 불안한 심정이였다. 추위에 떨고 언밥을 먹으며 철배에서 내리지 못하는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였다. 문제는 침강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한 그 사흘동안에 다른 작업조들이 자기들을 따라 앞서 나간다는데 있었다.

첫 철배를 띄운 재작년 늦가을부터 지난 12월까지 그들의 작업조는 운반과 조립에서 단연 앞서 나갔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 서면서부터 사정이 달랐다. 실적차이가 어지간해서 (너희들 암만 날구 뛰여야 우리를 따라오자면 멀었다.)고 생각하던 작업조들이 설을 쇠고 나자 엉뎅이를 걷어 찰듯이 따라오더니 이즈막에 헛침강을 몇번 하는 사이에 실적이 서로 어슷비슷해 지고 말았던것이다. 남들보다 우수해도 월등우수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선 못배기는 선봉이여서 그러한 사태를 용납하기 힘들었다. 그래 어떻게든 사태를 역전시켜 보려고 무진 애를 쓰던중 이 47호철배와 맞다들어 또 골탕을 먹고 있는것이였다.

《양수기… 스위치 떼라. 10메터야 10메터…》

수위감시병의 목소리였다. 이어 양수기가 멎고 철배우에는 갑자기 정적이 찾아 왔다. 박선봉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다에 휘-집어 던지고 일어나 묶음원통들을 돌아 보았다. 어느 원통이나 물면높이를 알려 주는 표식이 틀림없이 10메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는 양수기를 철수하고 배기중기를 불러다 철배를 들어 올려

야 하며 사방에 부통을 매달아 고정시키는 역사를 벌려야 하는것이다. 헛침강을 하고보면 어쩔수 없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시끄러운 공정들을 생각하자 선봉은 저으기 화가 동해 올랐다. 작업규정을 누가 이따위로 까다롭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물을 꼭 10메터까지만 퍼야 할 리유가 뭐 있는가? 한 절반 더 퍼내치면 철배가 저절로 떠오르면서 침강때 다루기도 쉬워 질것이 아닌가.

그것은 오늘 화김에 처음 해보는 생각이 아니고 벌써 작년 그러께 떠오른, 그때문에 《2월 17일과학자돌격대》에도 찾아 갔다가 퇴빵을 맞고 온 그나름의 착안이였다. 그때 그를 만나준 나이지숙한 연구사는 설명을 듣더니 차근차근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상사동무, 물론 세상에는 절대기준이란 없소. 그리고 현재 우리 건설장에서 적용되는 많은 공법과 기술규정들이 완성되지 못한것도 사실이요. 그러나 정통에서 물을 10메터이상 푸면 안된다는건… 그건 계산과 실험을 통해 얻어 진 결과요. 말하자면 진리지.》

그렇게 설복당하고 돌아 온 이래 선봉은 다시는 그에 대해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깨끗이 잊어 버린줄 알았던 묵은 생각이 오늘 또 되살아 나면서 자신을 설복하던 그 연구사에 대한 반발심까지 불러 일으키는것이였다.

(뭐 물을 10메터까지 푸는게 진리라구? 그게 무슨 진리야. 그리고 그도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 공사장에서 적용되는 많은 기술규정들이 완성된건 아니라고…)

선봉은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은 욕망에 몸이 달아 올랐다. 성공만 하면 조립실적을 빨리 올릴수 있는것은 물론 매 작업조에 철배를 하나씩 책임지우자는 제기를 해서 (지금도 그가 제기한 작업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소문났던것처럼 이번에는 《박선봉작업조철배띄우기》라는 새로운 공법을 창조하여 더 굉장히 소문날수도 있을것 같았다.

(좋다, 해보자! 세상에 절대적기준은 없다지 않았는가. …)

그는 양수기운전을 맡은 대원더러 다시 스위치를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양수기운전을 맡은 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며 선뜻 응하지 않았다.

선봉은 사나운 눈길로 흘겨 보며 쏘아 붙였다.

《여,어카긴 뭘 어캐? 누가 동무보고 그따위 걱정을 하라는가? 세상에 절대기준이란 없는거야. 이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문제야. 천리마운동시기 공칭능력만을 운운하던 사람들이 다 개조대상이 되는걸 영화에서랑 보지 못했어?》

과학자돌격대연구사에게서 들은 소리와 영화에서 본것을 제좋을대로 얼버무려 내뜨리며 선봉은 빨리 스위치를 넣으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대원에게도 고집이 있었다.

《아니 상사동지,접때 2센치 더 폈다고 욕먹은 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이치 봐라.… 여,그렇게 겁이 많아 가지구 연공은 어떻게 됐어? 참모중대 치마쟁이들한테나 갈게지.》

녀자들한테 가라는 소리가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전사는 눈이 까부장해서 반박했다.

《쳇,누가 뭐 겁나 그래요? 여태 그런 기술규정대로 일했으니 그러카는거지.》

《여,기존경험에만 매달려선 이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하지 못해.》

박선봉의 어조는 타이르는 투로 넘어 갔다. 그래도 전사가 선뜻 응하지 않는것을 보고 선봉은 성난 기상으로 양수기옆에 다가가 대원을 밀어 내고 제 손으로 스위치를 넣었다. 육중한 3극스위치에서 시퍼런 불이 펑끗 일어 나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아구리가 한아름되는 12인치 양수기가 물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만일의 경우를 예견하여 조원들에게 부통을 설치할 준비를 하라고 이른 다음 앉아서 물이 쭈는대로 철배모서리를 타고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 가는 바줄의 눈금을 살폈다. 눈금이라야 먹으로 수자를 써서 바줄에 촘촘히 끼워 넣은 천오리였다.

박선봉은 불안이 영 없지 않았으나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였다. (수압이 암만 쎄기루 아무렴 이 두터운 철배가 터지겠는가.) 양수기가 물을 토한지도 거의 30분이 되고 수위는 3메터가량 더 낮아졌다.

그래도 철배에는 별다른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글쎄 그렇다니까…) 선봉은 흡족해 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한치한치 더 내려가는 수위를 보며 자기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푸고 다음번에 좀 더 푸자. 새로운 공법이 단번에 탄생할수야 없지 않는가.)

바로 그 순간이였다. 딱히 어디서 일어 나는 소리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돌연 짜앙—하는 예리한 금속성과 함께 철배가 우르르 몸을 떨었다. 선봉은 불길한 예감에 급히 양수기스위치를 떼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뛰여가 스위치에 막 손을 대려는 찰나 철배밑에서 또 한번 수중폭파라도 하듯 펑 하는 둔중한 소리가 울리더니 급기야 원통속의 바다물이 왈칵 치받쳐 올라 왔다.

그것은 거의 한순간에 벌어 진 일이여서 선봉은 피하고 어쩌고 할새도 없었다. 단마디로 악— 소리를 지르며 본능적인 동작으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현하지 못한채 자기가 무서운 힘으로 올리뿜는 물기둥에 휘말려 공중으로 날아 오른다는것을 마감으로 느꼈을뿐 더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무렵 먼바다에 나갔던 남포수산사업소 고기배 한척이 피도를 에돌아 포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바다에 여러날 나가 있은 관계로 선원들은 그새 달라진 가물막이공사장을 구경하느라고 모두 갑판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갈앉아 있는가 싶던 철배쪽에서 갑자기 쿵—하는 둔한 소리가 울리더니 굵은 물기둥이 분수마냥 하늘을 찌르며 솟구쳐 오르는것이였다. 물기둥의 높이는 어림짐작으로 한 30메터가량은 되는것 같았다.

(무슨 물이 저렇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솟아 오르는가?)

선원들은 모두 눈이 둥그래 졌다.

《저기 저 분수속에 섞이여 꺼뭇꺼뭇하게 보이는게 사람 아니야?》

눈이 밝은 어느 선원의 말에 다른 선원이 대꾸했다.

《맞아, 사람같애.》

《그럼 사곤가?》

《사고난게 분명하다. 조타! 배머리를 돌리라! 키 우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고기배는 급히 선수를 돌렸다. 그리고 물기둥이 떨어져 허연 거품이 떠도는 구역에 접근하여 재빨리 고기그물을 둘러치고 네활개를 펼친채 물우에 기신없이 떠있는 군인들을 건져 올렸다. 다 건져 올려 선실에 들여다 눕히고 세여 보니 일곱명이였다. 모두 의식은 없었지만 물을 많이 먹지 않고 심장이 멎은 사람이 없는것이 천만다행이였다.

군의소 구급실에서 정신을 차린 선봉은 자신이 무엇때문에 군의소침대에 와 누워 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자 우선 대원들의 생사여부부터 물었다. 모두 무사하다는 군의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자 그는 벌써 이렇게 생각하였다.

(…인명피해가 없으니 됐다. 파공된 철배는 수리하면 될게고 문제는 그새 작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는것이다. 젠장, 무슨 놈의 수압이 그다지도 센가. 망할놈의 바다 같으니. …)

그에게는 일어 난 사고에 대한 근심보다도 파공된 철배를 수리하느라고 떨어 질 조립실적을 보충할 일이 더 걱정스러웠다. 사고는 이미 저질러 놓은것이니 추궁을 받으면 되는것이지만 떨어 진 조립실적을 끌어 올린다는것은 추궁 받기보다도 훨씬 힘들었다. 이제부터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철배우에서 얼며 말그대로 간고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선봉은 그러한 고생이 결코 두렵지 않았다. 영웅이 되는 길이 어찌 평탄한 길이겠는가. 사고도 있고 일시 뒤떨어질 때도 있고 오늘처럼 죽을번 할수도 있는것이다. 여기서 교훈만 찾으면 된다.… 그는 불안해 지는 마음을 그렇게 위안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사고가 장차 영웅이 되는 날에는 하나의 일화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될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연공들은 오후에야 려단군의소장으로부터 부대에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소문이 났는지 그들이 령남리부두에서 금시 떠나려던 련락정을 뒤걸음질시켜 오르니 배우에 타고 있던 사민들과 군인들이 저마끔 시물시물 웃으며 쳐다보는

것이였다. 그중의 풋낯이나 있는 잠수편대의 한 해병상사는 롱담까지 걸어 왔다.

《어, 이거 바다에서 고기그물로 건져 낸 연공들이 아닌가? 그래 어떻습데? 룡궁구경은 하고 왔나?》

대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대꾸를 못하였다. 그러나 태연히 맞대거리를 한것은 박선봉이였다.

《여, 룡궁구경만 한줄 아는가? 임당수에 가서 심청이와 악수까지 하고 왔다. 심봉사네 고운 외딸말이야. …》

그 소리에 배우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말을 해놓고 보니 선봉은 스스로도 제가 너무 허장성세하며 부끄러운줄도 모르는것 같아 씨엉씨엉 앞으로 나가며 거기를 피했다. 그런데 정작 배가 끝살부리에 도착하여 소대병실에 들어 서니 상서롭지 못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선봉은 벌써 부소대장도 아니고 작업조장도 아니였다. 부대장의 명령으로 그는 이미 중사로 강직되고 연공소대의 식당 고정취사원으로 임명된것이였다. 이 엄한 처분에 선봉은 기가 막혀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였다. 뒤늦게야 그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하구나. … 철배 하나를 파공시켰다구 글쎄… 인명피해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선봉은 한숨을 쉬였다. 결코 자신을 기만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웬간한 일에는 크게 놀라지 않는 그것을 마치나 사내다운것으로 치부하던 자기의 진지하지 못한 성격이 무슨 결과를 빚어 냈는가를 괴로운 심정으로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었다.

9

교대를 앞두고 정치지도원 리종각이 또 한번 대원들앞에서 준전시상태에 들어 갈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랑독하고 간단한

선동연설을 한 다음 윤건호는 대대를 작업에 진입시켰다. 벨트콘베아와 혼합기들이 으르렁거리며 돌기 시작하고 자갈더미에 삽날이 박히는 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하며 어둠이 깃을 펼치는 혼합장상공으로 메아리쳐 갔다. 대대가 야간작업에 들어간 첫 한시간동안 그는 작업능률의 높고낮음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자기 대대혼합장과 3대대 타입장을 련결하는 기중기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두 작업장간의 련계가 원만해 지자 신호를 책임진 소대장에게 호각과 신호기발을 넘겨 주고 벨트콘베아에 모래를 퍼싣는 일에 달라붙어 전사들과 함께 이마에 땀이 질펀히 내배도록 삽질을 했다. 그제야 바쁜 일에 쫓겨 계획한 학습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래일 아침에는 유정《선생》의 《추궁》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싸움끝에 사귄다는 격으로 그새 유정이와의 관계는 예상외로 좋게 발전하고 있었다. 발전의 계기로 된것은 대대정치지도원 리종각의 《책략》이 가져 온 《교재사건》이였다. 처음 건호는 교재를 받아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머니나 누이동생이 구해서 보내준것이겠거니 하고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교재를 뒤적거리던 그는 우연히 판권이 찍힌 마지막페지 아래구석에서 한자로 내리쓴 유정이라는 두 이름자를 발견했다. (유정！… 어떻게 되여 이 교재에 그 녀자 이름이 씌여 있는가？ 그렇다면 혹시 이 책은 그 녀자의？…)

그는 벌떡 일어 나 침대밑에 쌓아 두었던 교재들을 꺼내놓고 판권이 있는 마감페지를 일일이 들춰 보았다. 예견한 그대로 어느 책을 물론하고 왼쪽 아래구석에 꼭 같은 내리글로 유정의 두자이름이 단정히 씌여 있었다.

(일인즉 그렇게 된거였구나！…)

누군가 교재를 아주 정히 보았다는(교재를 이렇게 정히 보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공부도 잘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주인공이 유정일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터라 그는 어이 없는 김에 천정을 쳐다보며 바보처럼 허허 웃고 말았다. 교재가 어떻게 되여 자기 손에 들어 오게 되였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다 알수 없었으나 마치도 맞붙어 싸우던 적수로부터 갑자기 검을 선사받은 기분이

였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더구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감동되는바가 있으면서 그 녀자의 새로운 인간면을 보는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다음날 아침 건호는 이 사실을 리종각에게 《보고》했다. 종각은 《보고》를 청취하고는 무릎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됐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루한 문제거리를 만들자고 연구하던중인데 제절로 풀렸습니다. 이젠 찾아 가 교재를 구해 준데 대해 사례하면서 〈선생님〉이 되여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남녀관계란 그러한 교제속에서 정이 깊어 지고 그러다 적당한 기회에 어느 한쪽이 선창을 떼면 결혼이 이루어 진다는것이였다.

건호는 그가 사랑문제를 너무 실무적인 결합으로 묘사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교재를 해결해 준데 대한 사례와 강의청탁을 하는것은 옳다고 보아 저녁때 찾아 가리라 작정했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못한 일로 바로 그날 오후에 그 녀자자신이 제발로 대대에 나타났다. 함께 온 부대참모장은 그들이 초면인줄로 알고 마주 인사를 시키더니 이렇게 말했다.

《… 오늘부터 이 연구사선생이 동무네 대대에서 〈기술고문〉으로 있게 되오. 기술적방조도 주게 되고 작업이 기술규정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독통제할 권한도 있으니 그면에서 절대복종해야 하오. 알겠소?》

참모장이 인차 돌아 가고 둘만이 남자 그들은 피차 어색한 감정에 휩싸였다. 건호는 주인된 립장에서 무슨 말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황이 너무 돌변한탓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다행히도 유정이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전 대대장동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것 같군요.》

《그렇소?… 그럼 맞춰 보시오.》

《과학자돌격대에 유능한 남자들도 많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시끄러운 녀자가 배치되여 왔을가?… 어때요, 맞지요?》

말끝에 그 녀자는 가볍게 웃었다.

(흠, 잘두 알아 맞히는군. …)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도 그는 마음이 훗훗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틀렸습니다. 나는 오히려 동무가 우리 대대에 배치된걸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난 동무를 찾아 가려던 참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요? 그건 어째서요?》

그 녀자의 표정에 엷은 긴장이 어렸다.

《교과서를 빌려 준데 대해 인사도 할겸 부탁할것도 있고 해서…》

교과서문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 그 녀자는 일순 《엄마!》하며 가볍게 놀라더니 제편에서 도리여 미안한 표정이 되였다.

《그까짓 낡은 교과서 몇권이 뭐라고…》

《교과서가 낡았다고 정리나 법칙도 낡았겠습니까? 어쨌든 요긴한 방조를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건호는 진심으로 사례했다. 그리고 이왕 내친김에 정치지도원이 시켜 주던대로 지도교원이 되여 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말았다. 그런데 순조롭게 흘러 가던 대화가 거기서부터 힘겹게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뜻밖의 부탁앞에서 그 녀자는 당황해 하는듯 싶었다. 그러나 인차 자신을 수습하며 표정이 심중해 지는것이였다.

《유감이지만 저로선 대대장동무의 부탁을 들어 주기 힘들것 같군요. 저는 누구를 가르칠 수준도 되지 못하지만 저자신 아직 배우는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는 너무 매정하게 잘라 버리는것이 미안한듯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 수리공학분야의 로련한 전문가들이 많으므로 바란다면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동의를 쉽게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처럼 깨끗이 거절당할줄은 몰랐던 까닭에 건호는 실망보다 우선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그 녀자의 랭정한 거절속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여 있는것 같았다. 그렇다. 이 녀자는 분명 나의 부탁을 남자가 녀성에게 접근하는 수법이라고 넘겨 짚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처음부터 매정하게 나오는것이다. 정을 주고 싶은 녀자인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오늘의 부탁과 관련해서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꼬물만치도 없고

지극히 청백하였으므로 그는 이 문제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혹시 동무는 내가 어떤 딴 목적을 품고 동무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까?》

낯색이 붉어 지는것으로 보아 유정은 그가 말하는 《딴 목적》이 무엇이라는것을 리해한것 같았다. 황황히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의 부탁을 그런 의미에서 접수하기 힘들다고 말한건 아니라면서 앞서 한 설득력이 덜 느껴 지는 말, 즉 자기 역시 배우는 사람이라 남을 가르칠 형편이 못된다는 소리를 되풀이하며 그것이 부탁을 들어 줄수 없는 중요한 리유임을 납득시키려고 애 썼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너무 감정에 흐른것인가?…)

어쨌든 건호는 그것으로 도움을 받으려던 계획은 물론 인간적 리해를 깊이 해볼수 있는 계기마저 파탄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방조를 구하려다 감정만 상한 그 불쾌한 담화가 있은 때로부터 거의 한달가까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무렵이였다. 밤작업을 하는 주간이여서 대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나온 건호는 교대시간을 기다리며 휴계실에 홀로 앉아 교재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조선서해북부에서 력사적인 최대물높이는 1923년 8월 13일에 나타났다. 이때 강한 태풍이 중국연안을 따라 우리 나라의 압록강어구를 지나면서 초당 20～25메터의 센 바람을 일으키고 이 센 바람에 의한 물높이와 사리가 겹쳐 높은 해일이 일어났다.

남포지점에서 1923년 8월 12～14일 기간 최대물높이(222센치메터)는 13일 낮 11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크기의 물높이는 평안남도연안에서 100년정도, 평안북도연안에서는 250년정도의 재현주기에 해당… 교재내용에 심취되여 시간의 흐름마저 망각하고 있던 그는 문득 몸에 와닿는 누군가의 지꿎은 시선을 륙감으로 느끼며 눈을 들어 나들문쪽을 바라보았다. 아닐세라 거기 문가에 유정이가 서 있었는데 학습을 방해해서 안됐노라고 변명하는것이였다. 건호는 교대시간이 다됐으므로 안될것도 없다면서 교재를 덮고 그 녀자에게 의자를 권했다.

방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정은 문열의 장의자에 앉으며 교대작업에 들어 가면서 군인들에게 강조해 주었으면 하는 기술지표와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제기하였다. 건호는 《그럽시다.》하고 선선히 응하였지만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다. 방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였는데 한참후 그 침묵을 먼저 깨친것은 역시 유정이쪽이였다.

《한가지 물어도 좋겠어요?》

건호는 어서 그러라고 선선히 응낙하였다.

《전 대대장동무가 어떻게 되여 군인의 몸으로 이런 건설장에서 수리공학을 공부할 결심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군요.》

예견하지 못한 질문이였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무식과 우둔으로야 갑문을 건설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물사건》때 그 녀자가 한 말이였다. 처녀는 버릇처럼 아래입술을 감쳐 문채 잠잠해 있더니 가벼운 한숨을 내불었다.

《그러니 그때 그 말이… 전 그런줄도 모르고…》

건호는 그 녀자의 《그런줄 몰랐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자 가슴이 높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부탁을 받아 들인다는 소리, 다시말하여 《선생님》이 되여 주겠다는게 아닌가. …

그날 이후로 두사람은 단순히 대대장과 《비편제》기술고문이라는 직무상관계만이 아닌 배우고 배워 주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리해를 보다 깊이 할수 있었으며 차차 스스럼 없는 사이로 되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것일뿐으로 다른 그 무엇은 아니였다. 《선생님》이 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것처럼 건호는 결코 배우고 배워 주는 관계속에 이성의 감정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유정이쪽에서 그것을 바라지 않는 이상 자신이 먼저 다른 감정을 로출시킨다면 그야말로 도덕적참패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이제는 근 두해가까이 상종해 오며 인간적리해면에서도 상당히 가까와 졌건만 그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관계가 건호는 불만스러웠다.

이에 대해 본인당자보다 더 속을 쓰는것은 역시 리종각이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고 채근하였다. 오늘도 그저 공부만 했는가? 정치적수양정도는 어떻던가? 당에 입당할 준비는 하고 있던가?… 하여튼 별것을 다 묻고 따지고 들었다. 그런뒤에는 꼭 래일은 이렇게 말해 보고 그 다음엔 또 저런걸 알아 보라는 식으로 조언을 주는데 윤건호한테서 응당한 반응이 없으면 화가 나서 두덜거렸다. 세상에 나서 이렇게 이성에 둔감한 목석들은 보다 처음이라고… 그러나 결가마가 아무리 끓어도 건호는 같이 끓지 않고 착실히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물론 그자신도 스스로 쌓아 놓은 담벽을 허물어 버리고 싶은 경우가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설사 사랑을 고백한다 해도 이 《사제》관계가 끝난 후에 동격의 인간 대 인간으로 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으며 일에 파묻히고 공부에 전심하였다. 유정이와의 관계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는가는 아직 사업상문제나 공부이외의 다른 일때문에 그 녀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본적이 없다는것만 가지고도 알수 있었다. 정 모를것이 생겨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될 경우조차 그는 다른 초면의 과학자를 찾아 가면 갔지 유정의 숙소에는 가지 않았다. 그것은 남들의 오해가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녀자자신이 자기를 무절제한 사나이로 볼것 같아서였다. …

7호혼합기 외등밑에서 누군가 대대장의 행처를 찾았다. 건호는 콘베아에 자갈을 퍼싣던 삽을 세우고 여기 있노라고 소리치며 그리로 갔다. 찾는 사람은 3중대장이였다.

《〈기술고문〉동무가 좀 만나잡니다.》

콘베아소리때문에 그는 고함 지르듯 말했다. 건호도 마주 소리질렀다.

《어디 있소?》

《저기 휴계실에요.》

중대장에게 삽을 넘겨 준 그는 장갑 낀 손을 탁탁 마주쳐 먼지를 털며 휴계실로 내려 갔다.

유정은 이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늘 입고 다니는 군인들의 군복과 색갈이 거의 같은 누빈 솜옷차림에 흰 양털수건을 목에 감은채 난로옆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추운데 수고 많겠어요.》
신문을 접어 장의자끝에 밀어 놓으며 하는 그 녀자의 인사였다. 건호는 걸상을 끌어다 그 녀자의 건너쪽에 놓고 앉으며 스스럼없이 말했다.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될걸 그랬구만.》
인간적리해가 깊어 짐에 따라 그는 언제부터인가 그 녀자와의 대화에서 경어도 반말도 아닌 중간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왜요? 인젠 〈선생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였는가요? 혹시 준전시상태가 돼서요?》
건호는 그럴리야 있는가고 하며 실은 숙제를 못해서 그러노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바삐 지냈는가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변명으로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대대장동무도 자신이 세운 생활규칙을 어길 때가 있긴 있군요. 하긴 준전시상태니까… 하지만 전 사실 숙제검열을 온건 아니예요.》
다른 급한 일이 제기되여 당분간 대대에 나올수 없기때문에 그걸 알리러 온것이였다.
《출장입니까?》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접때 우리 집단이 개작설계에서 황해남도의 논농사를 고려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고 그것이 수문턱을 낮추면 해결된다는 이야길 했지요?》
건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유정이에게 사업상 원칙에서 크게 탈선되지 않는 이상 과학자돌격대에서 론의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가능한한 알려 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론의를 아는것 자체가 교재에서는 습득할수 없는 하나의 귀중한 공부였던것이다.
《림박사선생님과 함께 제가 그 수문턱높이를 계산하고 심사에 제출할 기초안을 만들라는군요.》
《그럼 시일이 좀 걸리겠구만?》
《못해두 한 열흘은 걸릴거예요.》

《열흘…》

열흘이면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동안 처녀를 보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어쩐지 서운하였다.

밤.

책상우에 축척 1대 2만 5천의 공사작전도를 펴놓고 앉은 송철만은 벌써 한시간 가까이 줄곧 한가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 한가지 생각이란 공사전반의 속도보장 즉 어떻게 해야 공사실적을 공정계획에 맞추겠는가 하는 말하자면 암중모색이였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여 짜도 이렇다 할 대책안은 떠오르는것이 없고 있느니 예측할수 없는 암담한 전망과 자신의 무능에 대한 모멸감뿐이였다. 지나간 온 겨울 그는 봄을 기다렸다. 봄이 오면 공사조건이 좋아 질것이고 그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써서 공정을 맞추며 공사전반을 새롭게 활성시키리라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처럼 고대하던 봄이 오고 4월도 벌써 중순에 들어 섰건만 공사장들에서는 만족할만한 변화가 일어 나지 않았다. 그런대로 간신히 공정계획을 맞추는것은 함형부재생산이였다. 3천 500메터계선에 이른 기본언제와 가물막이공사는 순계획을 겨우 절반이나 수행하는 폭이였다. 기본언제공사가 그렇게 처지는 원인은 언제가 뻗어 나가는데 따라 물목이 좁아지면서 조수의 흐름이 빨라 지고 쇄굴현상이 일어 나는데 원인이 있었다.

가물막이를 뜻대로 하지 못하는 리유는 계절풍때문이였다. 바다가라 워낙 바람이 많이 불지만 서해지구에는 봄철의 오후면 언제나 서북풍이 터지고 파도가 높았다. 철배운반과 조립으로 그 실적이 결정되는 가물막이공사는 이 바람과 파도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애를 먹고 있었다. 오늘 오후 중형철배를 끌고 남포조선소에서 떠난 두척의 400마력예선이 가물막이공사장까지 거의 왔다가 맞바람에 은률쪽대안까지 되밀려 가서 예선이고 철배고 다 파손될번한 사실이 바로 그 일단이였다. 투석선을 끌던 800마력예선을 급히 파견하여 간신히 파국은 면했지만 최소한 세개를 조립해야 할 오후의 계획은 그 한개의 철배로 목이 메였다. 만사가 매양 이

련식이니 야단이 아닐수 없었다.

깊어 가는 밤을 놀래우듯 어디선가 발파소리가 울려 왔다. 방향으로 보아 102군부대구역에서 토량을 확보하느라고 발파를 하는 모양이였다. 그 발파소리가 아직 다 멎지 않았는데 다급한 문기척과 함께 직일관이 들어 와 강충일중장이 왔음을 알리였다. 철만은 (이 밤중에 웬일인가?…)하고 의아한 생각부터 앞세우며 자리에서 일어 났다. 중장은 벌써 문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무얼 하댔소?》

장탁우에 가방을 놓고 걸상을 끄당긴 중장은 인사 삼아 물었다. 철만은 같이 장탁에 마주 앉으며 대답했다.

《나야 고민밖에 더 할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정계획에 공사속도를 맞추겠는가… 요샌 눈만 뜨면 그저 그 생각이지요.》

중장은 리해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 무슨 희망이 좀 보이오?》

철만은 자기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여 쓴 웃음을 지었다. 희망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전도가 더 암담하게 느껴 질뿐이였다.

《부총참모장동무한테니 하는 말입니다만… 사실 난 요새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갑문을 제기일에 건설해 낼수 있겠는가? 못하면 어찌 되는가? 나라는 인간은 패전장군의 운명을 쓴다치고 조국의 체면이 깎이고 당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것은 무엇으로 보상하는가?… 더 늦기전에 스스로 자기의 무능을 폭로하고 직무를 내놓는게 옳지 않겠는지… 정말 별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리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중장이 뜻밖에도 화를 벌컥 냈다.

《여보, 동문 요새 무슨 그따위 말같지두 않은 소리를 자꾸 하는거요? 접때두 그래… 고충이야 많겠지. 난 뭐 없는줄 아오?… 그래두 어떻게 뚫고 나갈 잡도리를 해야지 나자빠질 생각만 하면 건설은 뭐가 되오?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오. 참모일군들이나 전사들이 알면 뭐라 하겠소.》

《그래서 중장동무한테만 말한다질 않습니까?》

철만은 볼이 부어 퉁명스레 대꾸했다.

《난 뭐 누구 하소연이나 듣기 좋아 하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관둡시다, 뭐…》

그는 중장이 자기의 고충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아는 사람이면 지금처럼 매정한 말을 할수 없었다.

《내 말을 명심해 듣소. 자리를 내놓으라면 내놓는것이지만 제 먼저 굽지는 말란 말이요. 가뜩이나 부장이 동무를…》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중장은 갑자기 말허리를 끊어 버리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꼬리 없는 말만 가지고도 철만은 신경이 바싹 켕기였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 두는가? 부장이 나를 무얼 어쨌다는것인가?… 그는 깨여진 사기그릇쪼각을 주어 붙이는 심정으로 중장이 한 말마디며 어조를 종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만들어 냈다.

《혹시… 부장동지가 내 후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동무 역시 그때문에 오고…》

그는 자신의 짐작을 틀리지 않는다고 믿으면서도 중장이 그것을 부정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강충일은 내심을 감출줄 모르는 사람이라 벌써 놀라며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 갔다.

《아니 여보, 동무가 그걸 어떻게 아오?》

《알지요. 저는 벌써 지난 여름부터 이런 날이 오리라는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각오한바도 있구요. …그러니 나를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만은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에 쓸쓸한 음조가 비껴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하였다.

강충일은 깍지껴 장탁우에 놓은 손만 묵묵히 바라볼뿐 오래도록 말이 없더니 이윽고 엷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각오까지 하고 있는 사람앞에서 무얼 감추겠소. 옳소. 부장이 동무의 후임자를 생각하고 있소. 내가 그때문에 나온것도 사실이고… 날더러 갑문건설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고자료를 만들어 오라는거요. 아마 그걸 보고 결심하려는것 같소.》

철만은 담배생각이 났다. 그러나 정작 불을 달아 피우자니 담배연기가 소태처럼 써서 재털이에 눌러 넣고 일어나 뚜벅뚜벅 무거

운 걸음으로 창문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캄캄칠야… 먼 공간속에서 외로운 야외등이 깊어 가는 4월의 밤을 지키며 조을고 있다.

등뒤에서 강충일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 왔다.

《난 할말을 다했소. 그러니 이젠 동무가 결론하오. 어쨌으면 좋겠소？》

그것은 실태보고서를 어떤 취지에서 만들면 좋겠는가 하는 일종의 아량과 동정이였다. 하지만 철만은 그러한 동정이나 아량을 받아 들일수 없어서 이렇게 잘라 말했다.

《이미 말했지만 나는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모든걸 사실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송철만이라는 한 개인과 조국의 명예를 바꿀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기는 하오만…》

중장은 괴로운 한숨을 내불었다.

10

봄날의 저녁무렵 경쾌하면서도 묵중해 보이는 승용차 한대가 먼 배경으로 불 붙는 노을을 자락처럼 끌며 평양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차에는 어디 가거나 오실제면 언제나 그렇듯이 **김정일**동지께서 무릎우에 문건을 놓고 앉아 계시였다.

지금 그이께서 심취되여 보시는 문건으로 말하면 정무원에서 올라 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정형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구체적인 수자와 사실들로 일관된 실태보고는 당이 전원회의에서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토의결정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그 관철에로 불러 일으킨것이 옳았으며 지난 2년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실증해 주고 있었다.

한마디로 성과는 컸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다 성과만 거두고 있는것은 아니였다. 일부 잘 진척되지 않는 건설대상도 있었는데

남포갑문건설이 바로 그러하였다.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남포갑문건설은 착공초에 준비건설을 3개월 앞당기고 기본건설에 들어 간 이래 현재까지 시공실적을 계획대로 올려 본적이 거의 없었으며 그렇게 미달한 계획을 총계해 보면 건설이 전반적으로 1년가까이 늦어 지는 폭이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남포갑문은 여러가지로 설명되는 그 자체의 절박한 필요와 함께 이미 세상에 공포한 5년이라는 건설기일도 있어 늦어 지면 안되는 중요건설대상이였다. 그런데 지난 2년동안에 1년분의 시공계획을 미달했으니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건설기한의 절반을 잃은 셈이였다.

(…그렇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어떤 결정적인 대책을 그것도 시급히 찾지 않으면 안된다.)하고 생각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실태보고서의 앞표지에 비스듬히 누운 글씨로 복사하여 정치위원들에게 배포할데 대한 지시사항을 써넣으시였다.

승용차는 벌써 시내에 들어 와 가루개언덕을 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로 곧추 들어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인민무력부장부터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신것은 바로 그때였다.

마침 오진우는 인민무력부청사의 자기 방에 있었다. 대장이 응접실로 갔으면 하는것을 여기도 좋다시며 한쪽에 작전지도들이 쌓여 있는 앞상밑에서 걸상을 뽑아 앉으신 그이께서는 우선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문의하시였다. 오진우는 적들의 군사연습이 마감단계에 이른만큼 움직임이 매우 부산스럽다는 전제와 함께 구체적실상을 추려서 설명하였다.

《〈엔터프라이즈〉는 아직도 포항쪽에 있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이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차 진해에 내려 가 거기서 일주일간 휴양을 한다나 봅니다.》

《핵항공모함을 끌고 다니며 휴양을 한다?… 양대가리를 걸어 놓고 말고기 판다는 격이구만.》

《옳은 말씀입니다. 전두환이 래주에 련합군사령관 윅캄을 대동하고 훈련성과를 축하하러 진해로 간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대규모군사연습을 모의할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정일**동지께서도 총참모부로부터 이미 보고 받아 아시는 문제이므로 적들의 그 새로운 군사연습에 대처한 인민무력부의 결심을 물으시였다. 오진우는 현재의 전투준비상태를 그냥 유지하면 될것 같다고 하였다.

《옳습니다. 어리석은자들의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경각성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전시상태도 5월말까지 해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군사문제에 대한 론의를 그것으로 일단락 지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남포갑문건설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 평양시 주변농촌들의 봄씨붙임준비때문에 걱정하시길래 방금 주변농장에 갔다 왔습니다. 오는 길에 정무원에서 올라온 전원회의결정관철보고서를 좀 료해해 보았는데 4대과업중에서 다른 대상들은 다 제대로 나가고 있지만 유독 남포갑문만이 시공계획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부장동무는 갑문건설이 이렇게 전진이 굼뜨고 앉아 뭉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진우는 표정이 심중해 졌다.

《제 잘못이 큽니다. 정세만 정세라고 그새 갑문건설에 거의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부장동무.》 그이께서는 엄격한 어조로 오진우의 말을 막으시였다.

《잘못으로 말하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자기비판을 할내기나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것은 일이 잘못된 원인을 찾는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취할게 아닙니까?》

오진우는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국장을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침묵끝에 나온 대장의 말이였다.

《국장을 바꾸다니, 송철만동무를 다른 사람과 교체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갑문건설을 그 동무한테만 맡겨두었다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강충일동무를 거기 보내서 실태를 좀 알아 보게 했는데 일을 잔뜩 벌려만 놓고 걷어 쥐지 못하는가 하면 이렇다 할 수습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바꿉시다. 군대에야 전투가 실패하면 지휘관을 바꾸는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선을 돌려 창밖의 먼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물론 그것은 일을 바로 잡는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군대에만 한한 원칙이라고 할수도 없다. 하지만 송철만소장을 꼭 다른 사람과 바꾸어야만 문제가 풀리겠는가? 다른 해결방도는 없겠는가?… 일이 안된다고 사람을 바꾸는 놀음을 그리 좋아 하지 않는 그이이시였지만 해결방도가 달리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그 문제는 좀 두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문제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남포갑문건설이 실패에 직면했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적〉의 요새가 너무 견고해서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일시 애를 먹고 작전이 지연되고 있을뿐입니다. 나는 문제를 그렇게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안되겠습니다. 암만 바빠도 현지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왜 일이 안되는지… 건설자재가 걸렸는지, 아니면 조건이나 지휘에 문제 있는지, 부장동무도 같이 나갑시다. 래일… 아니, 래일은 안되겠습니다. 모레로 계획합시다. 모레면 18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보다 중요하고 긴박한 여러가지 사업들때문에 예견한 18일에 현지로 나가지 못하시였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여 남포갑문건설장에 대한 그이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4월 20일에야 실현될수 있었다.

11

그날도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았다.

김정일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여러 수행원들과 함께 배편으로 남포갑문건설장에 도착하신것은 오전 10시경이였다.

령남리 부두에는 인민군 건설관리국 지휘관들과 정무원지휘부 일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들속에는 오늘의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김정일**동지께서 별도로 부르신 윤상설부위원장의 얼굴도 보였다.

구면이기도 하고 초면이기도 한 그들 책임일군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시간이 그리 넉넉치 못한것을 고려하여 령남리쪽에서 함형부재장과 기본언제공사를 보장하는 토취장 그리고 뿔부재장만 돌아 보고 토언제공사정형은 끝살부리로 건너 가는 배우에서 료해하시였다.

일정을 그렇게 당기고 부차적인 공정은 뛰여 넘었는데도 쾌속정이 끝살부리부두에 도착한것은 점심때가 다 된 11시 40분경이였다. 그때문에 수행일군들속에서는 벌써 초조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느 현지에 가실 때나 마찬가지로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현장을 돌아 보기전에 우선 군인건설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시며 어느 한 구분대병실로 들어 가시였다.

그것은 16해상돌격대 잠수편대 병실이였는데 군인들은 다 작업을 나가서 없고 남아 있는것은 애젊은 직일병뿐이였다. 그 어린 병사를 상대로 매 군인건설자들에게 차례지는 침구수자로부터 일과생활과 목욕,세탁조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신 그이께서는 병실을 나오려다가 어쩐지 침대가 짧아 보여 직일병더러 신을 벗고 침대에 올라 가 누워 보게 하시였다. 아닐세라 직일병은 키가 그리 큰 축이 아닌데도 발이 침대끝에 거의 와닿으

며 여유가 별로 없었다. 그이께서는 중대에서 누구의 키가 제일 큰가고 물으시였다. 직일병의 대답이 중대에서 제일 큰것은 자기네 분대장인데 자그만치 1메터 83이라는것이였다.

《동무는?》

《전 1메터 65입니다.》

《그러니 분대장은 18센치나 더 크다는 소린데… 발이 침대를 넘어 나겠구만?》

직일병은 그렇다면서 침대를 넘어 나는 분대장의 발이 생각나는지 흰이를 드러내며 벌씬 웃기까지 하였다.

《허허, 프로크루스테스가 알았으면 그 분대장의 발을 침대에 맞춰 잘라 버린지 오랬겠군. …》

프로크루스테스란 고대그리스신화로 전해 지는, 사람을 훔쳐다가 침대에 눕혀 보고 짧으면 당겨 늘구고 길면 긴만치 잘라 버렸다는 이상한 도적의 이름이였다. 송철만소장쪽으로 몸을 돌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롱담을 섞은 진담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괴상한 도적처럼 사람을 침대에 맞출수는 없으므로 침대를 늘궈야 할것 같다고 하시며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생활을 부모나 형이 된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병실을 나와 다시 식당에 들어 가신 그이께서는 두명의 취사병을 상대로 부식물공급형편과 음료수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였다. 취사병들의 대답으로 미루어 수도화가 실현된 이후로 음료수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부식물공급사업은 그렇지 못한것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영선부부장에게 갑문건설장의 부식물공급문제에 관심을 돌릴데 대해 말씀하시고 두 취사병에게 과자나 사탕을 언제 먹어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취사병들은 서로 마주 보기만 했을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간식은 먹지 못한다는 소린데…》

그이께서는 정무원총리를 찾으시였다. 기웃이 검식함을 들여다 보던 총리가 몸을 돌려 바삐 다가왔다.

《총리동무, 여기 갑문건설장에 당과류공급체계를 세워 주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까?》

《당과류공급체계를 세우자면…》 총리는 말꼬리를 끌며 무엇인가 심중히 생각해 보고야 다시 《사리원곡산공장에서 나오는 당과류를 떼돌리면 좋겠는데 사리원시민들이 의견을 가지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조건부적인 방도를 내놓았다.

《모르면 의견을 가질수 있지만 알면 일없습니다. 옳습니다. 사리원곡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사탕, 과자를 당분간 남포갑문건설자들에게 돌립시다. 그러되 탁아소, 유치원분은 꼭 떼놓아야 합니다.

사리원 시민들에게는 량해를 구합시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리원곡산공장에 원자재를 보장하는 문제는 정무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총리의 말이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구분대를 한두곳 더 돌아 보고 싶으셨지만 시간도 많이 갔고 인민무력부장의 의향도 그래서 취사장을 나와 가물막이공사장으로 향하시였다.

일행은 송철만소장이 안내하는대로 끝살부리와 피도사이 중간지점인 제방끝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는 바다건너 령남리 함형부재장 그리고 피도를 향해 3,500메터계선까지 뻗어 나온 토언제가 뽀얀 운무속에 륜곽으로 보였다.

제방끝에 바투 나가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왼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공사장전경을 부감하시였다. 첫눈에 들어 오는것은 끝살부리와 피도를 련결한, 물속에 허리를 잠그고 총총히 늘어 선 웅장한 강철기둥들이였다. 해금강의 총석정을 련상케 하는 그 강철제방우에서는 꼬리를 문 수송차행렬이 사슬고리마냥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한창 썰물이 지는 때여서 철배조립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장은 들끓었다. 견인선에 끌려 남포쪽에서 둥둥 떠나오는 원통묶음의 철배, 수십메터의 긴팔을 하늘로 뻗친채 견인고리에 강철시판을 달아 올리고 있는 배기중기, 막돌을 부리고는 시뻘건 물기둥을 그대로 들쓰며 예선에 끌려 다시 호장도쪽으로 멀어 져 가는 투석선들, 제방을 들이받고는 흰갈기를 털며 물러갔다가 다시 밀려오는 파도…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모든것을 한눈에 바라보시며 불

현듯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시였다.

《가물막이제방이 총 몇메터고 남은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송철만소장이 여느때의 그답지 않게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총 연장길이는 2.4키로고… 도중에 마감막이를 포함해서 남은 구간이… 700메터가량 됩니다.》

《그러니 1.7키로를 막았다는 소린데… 3천 5백메터계선에 이른 저 토언제공사도 그렇고 그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자리를 잡아 주실 때만 해도 거칠것 없는 허허날바다였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집무실에서 문건상보고를 받을 때는 다 몰랐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작 나와 보니 상상했던것과는 다릅니다.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이의 과분한 평가가 뜻밖인듯 송철만국장이 몹시 당황해 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고 오진우는 다소 흠이라도 들추어내듯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공정계획상으로 보면 거의 1년이나 늦어 졌습니다.》

《늦어 진건 이제 당기면 되지요. 그건 괜찮습니다. 중요한건 공사를 내밀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된것입니다. 나는 신심이 생깁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그새 정말 많은 일을 해제꼈습니다.》

오진우는 빙그레 웃으며 건설국장을 건너다 보았다. 송철만은 그대로 그이의 거듭되는 높은 평가에 얼굴이 붉게 상기되여 몸 둘바를 몰라하였다.

이어 **김정일**동지께서는 수행일군들과 함께 미리 준비되여 있던 종합사판앞에서 송철만국장으로부터 진행중의 공사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였다.

보고청취는 근 한시간 걸렸다. 그 한시간동안 도중에 매 공사대상에 따르는 력량배치와 기자재분담에 대해 물으셨을뿐 시종 주의깊이 듣기만 하신 그이께서는 소장이 실태보고를 끝내고 한걸음 물러선 뒤 이윽토록 종합사판을 들여다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였다. 소장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줘여 짜면 갑문건설은 현재 총 공사량의 3분의 1을 수행한 폭이고 계획상으로는 거

의 1년분을 미달하고 있었다. 다섯해를 계획한 건설에서 2년동안에 1년분 시공계획을 미달하고 공사량의 3분의 1을 수행했다면 산수적 계산으로도 남은 3년동안에 완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이였다. 게다가 점점 난관이 많아 지는 공사조건은 앞으로의 전망을 락관할수 없게 하였다.

책상모서리를 넓게 벌려 짚고 공사작전도를 주의깊게 들여다 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고 책상앞에서 한걸음 물러서며 손에 휴대용 소형록음기를 들고 있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으시였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동무 생각에는… 건설공사가 옳게 진행되고있는것 같습니까?》

신중한 물으심이였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공사도를 들여다 보며 한동안 생각을 굴려 보고서야 견해를 내놓았다.

《제 보기엔 공사가 기본적으로는 옳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진행공정이 계획보다 처진것이 문젠데… 그건 로력과 기술수단을 더 넣어 주면 해결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결국 그는 계획에 비해 공사실적이 떨어 지는 원인을 로력과 기술수단의 부족으로 보고 있었다. 오진우에게는 그의 견해가 불만스럽게 들리는지 퉁명스러운 어조로 로력을 보충해야 한다는건 무슨 소리냐? 갑문을 하나 건설하는데 전군을 통채로 밀어 넣어야겠는가고 반박했다. 그런 반박이 있을줄을 예견 못한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어리둥절해 하더니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말하는 로력은 군인들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설기업소 로력을 념두에 둔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정일동지께서 웃으시며 공사에 대한 오진우의 견해를 묻지 않았던들 두사람사이에 좀 더 말이 오고갔을수도 있었다.

《공사가 처지는 원인은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오진우의 대답이였다. 《여기 현장지휘관들의 지휘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중요하게는 정무원에서 건설자재와 기계수단을 제때에 보장해 주지 않기때문입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뭘 달라면 제기일에 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질질 끌면서… 도대체 남포갑문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다기보다 그는 이 기회에 속에 품고 있던 분풀이를 하려는 잡도리 같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는 오진우에게 정무원일군들이라고 왜 남포갑문을 빨리 건설하자는 생각이 없겠는가고 두둔하시며 기본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러니 무력부장동무의 견해는 자재와 기술수단만 제대로 보장되면 현재 하는 식으로 공사를 내밀어도 일없겠다 그겁니까?》

《딴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일이 처진 봉창은 그걸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말씀과 함께 왼손으로 허리를 짚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작전도앞을 오고가시다가 (가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도 쓸어 넘기시며) 불현듯 송철만소장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중시해야 할 공사대상이 어느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송철만은 갑자르면서 힘들게 생각을 내놓았다.

《움직여야 할 물동량이나 갑문건설이 총적으로 거기서 끝나는걸 타산하면 기본언제공사를 중시해야겠지만 후속공사들이 많은걸로 보면 가물막이도 중요하고…》

그는 스스로도 자기 견해에 모순이 느껴 지는지 뒤말을 삼키며 얼굴을 붉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지금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모순점을 더 확실히 느끼게 하려는 의도에서 완곡하게 물으시였다.

《함형부재생산은 왜 중요치 않겠습니까? 기본언제와 직결되여 있는데…》

《…》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말 못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갑문건설의 부진이 시작되였음을 재삼 확신하시면서 현장지휘관들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포갑문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이 그새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해수로 3년째지만 날수로 따지면 2년밖에 안되는데 기본언제를 3,500메터 내밀고 가물막이를 지금정도로 추진했다는건 사실 대단한 성과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에 대해 응당한 긍지를 느끼며 내놓고 자랑해도 부끄러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정을 계획에 따라 세우지 못하는것인데 그건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겠지만 내보기엔 전투조직과 지휘에 기본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전투조직과 지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였는가?… 하고 물음을 던져 놓으신 그이께서는 현지일군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듯 천천히 종합사판앞을 거니시며 스스로 해명하시였다.

《그건 한마디로 건설공사의 주공목표를 똑바로 정하지 못하고 평균주의를 한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 어느것 하나 놓치지 말고 다같이 골고루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떻게 되여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되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옳은 원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포갑문건설을 전면전,립체전의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한건 그렇게 주공목표도 없이 평균주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건달군을 키워 내게 되고 사회의 발전속도가 떠집니다. 같은 리치로 건설에서 평균주의를 하면 우선 전진속도를 잃게 되며 그것이 궁극에는 아까운 시간랑비로 이어 집니다. 〈잃어 버린 시간만큼 력사는 뒤걸음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일이 꼭 그렇게 되였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볼 때 남포갑문건설은 하나의 큰 전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년간으로 선포한 이 전역에도 전략과 전술은 승리의 기본조건으로 되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변화되는 현실과 리치에 맞게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더는 평균주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포갑문건설에서는 가물막이공사와 물빼기,갑실,무넘이언제공사를 기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물막이공사가 특히 중요하며 그건 갑문건설의 돌파구라고 말할수 있습

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현실을 제때에 포착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가물막이공사가 갑문건설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돌파구로 되는 리유를 설명하면서 뒤말을 이으시였다.
《돌파구… 립체전과 전면전에는 매 작전대상에 따르는 주공목표, 전술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합니다. 돌파구가 없으면 립체전이나 전면전이 탄력을 잃고 궁극에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처음부터 한본새로만 나가며 이 점을 놓치다 보니 이것저것 일을 많이는 했지만 종심이 깊지 못하고 목표도 아직 멀리에 있는것입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누르며 확신 있게 울리는 그이의 명쾌하고 현명한 말씀에 오진우와 수행일군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송철만을 비롯하여 현지일군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범한 착오때문에 깊은 자책감을 느끼는듯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구태여 그들의 실책을 파헤치거나 추궁하려하지 않으시였다. 일을 하느라면 실수도 할수 있고 착오도 생길수 있는것이다. 하물며 남포갑문과 같은 대건설전투를 하면서 만사를 다 잘해 나갈수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일군들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겠기에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기세가 아무리 높아도 전투조직과 지휘를 옳게 하지 못하면 공사전반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립체전, 전면전을 벌림에 있어서 류의할 문제들, 또한 인원과 기자재편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그럼 동무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올해안으로 가물막이공사를 결속하는것입니다. 물론 가물막이를 올해안에 끝낸다는건 말처럼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올해안으로 결속해야 합니다.》
《올해말이라도 거의 1년반이 늦어 지는 폭입니다.》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우려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 없다고, 돌파구만 잘 형성되면 공격성과가 확대되기 마련이므로 뒤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몸을 돌려 송철만소장에게 물으시였다.

《어떻습니까. 국장동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송철만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에 앞서 가슴부터 쭉 폈다.

《지도자동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심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껏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것도 알리고 전망도 보이고… 모든것이 다 환해 지는것 같습니다.》

《신심도 생기고 전망도 보인다… 좋습니다. 그렇다니 나도 기쁩니다. 나는 혹시 국장동무가 힘들다는 소리라도 할가봐 은근히 걱정이였는데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벌써 오후 1시를 가까이하고 있었다. 수행한 일군들중에는 초조한 기색으로 자주 시계를 내려다 보는 사람도 있었다. 초조할수밖에 없는것은 오후 3시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김정일**동지께서 거기에 참석하시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게 되여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시간 같은것은 까맣게 잊으신듯 제기되는 문제들에 결론을 주시기에 여념이 없으시였다.

《…송철만동무의 말을 들어 보면 아직도 기계수단이 모자라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만 자는 범을 깨워 놓은 격이 되였다. 송철만소장은 이미 백번도 더 머리속에 굴려 본듯 매 공사장들에 현재 있거나 소요되는 기계수자들을 거침없이 쏟아 놓았다.

부족되는 기계대수들이 결코 적은 수자가 아니였다. 큼직큼직한것만 꼽아도 골재운반용 디젤기관차가 여섯대고 화차는 근 200량이나 요구되였다.

막돌운반용 배와 견인선은 각기 20척, 《자주》호 자동차는 100대이상… 그밖에도 잠수정과 기중기선을 비롯하여 걸리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국장의 요구가 너무 욕심스러워서(리해는 되면서도) 수행한 일군들은 물론 건설기자재를 잘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정무원사람들한테 불만이 많던 오진우대장마저 저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눈길로 흘겨볼 정도였다. 그러한 주변의 분

위기를 느낀듯 송철만소장이 입을 다물자 이번에는 부국장 황석전이 국장이 못한 말을 내가 한다는 식으로 300마력불도젤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일이 이쯤 커진판에 입을 다물고 있을 정대철이 아니였다. 그는 가뜩이나 큰 키를 쭉 뽑아 올리며 병사들식으로 제기하였다.

《제16해상돌격대장 정대철 한가지 말씀 드려도 좋습니까?》

《어서 하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선히 허락하시였다.

《지금 저희들은 잠수기재가 부족되여서 애 먹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잠수기재…》

그이께서는 수행한 당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책임일군을 돌아보시며 다른건 몰라도 잠수기재만은 외화를 내서라도 사와야겠다고 하시였다.

16해상돌격대장이 걸린 문제를 뜻밖으로 쉽게 해결하는것을 보고 몇몇 부대장들이 또 애로조건을 제기하였다. 역시 기계수단을 달라는 소리였다. 그통에 난처해 진것은 오진우대장이였다. 그는 거듭 편안치 않은 몸동작을 하며 오만상을 찌프리더니 마침내 《어－험!》하고 으름장 같은 기침을 하였다. 거기에 정신이 든듯 더는 입을 여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시간은 벌써 오후 2시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기다리는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더 지체할수 없어 그이께서는 현지지도를 결속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적지 않지만 가능한껏 풀어 보자고, 결론은 후에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 그러나 동무들은 꼭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현대적기계수단을 믿고 건설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건설을 하는가? 우리는 인민군군인들의 높은 열의와 불굴의 투지를 믿고 이 거창한 대건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포갑문과 같은 대자연개조공사는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전투력이 비상히 강한 우리 인민군대만이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인민군군인들처럼 사상이 붉고 당의 령도와

수령에게 충실한 군인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포갑문건설을 처음 시작할 때 유럽 어느 나라의 수리공학자는 조선에서 남포갑문을 금세기안에만 건설해도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교도로서 인간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도 나름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몰랐는가? 그는 우선 조선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모릅니다. 또 우리 인민군대가 이 방대한 건설을 사상으로 해낸다는데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알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계가 아닌 사상으로, 불굴의 의지와 충성심으로 이 갑문을 건설해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것만 명심하면 두려울것이 없고 많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 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감으로 지휘관들이 건설자 군인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잊을번한 생각으로 건설장에 나와 있는 기록영화촬영가들의 활동정형을 문의하시였다. 그에 대해서는 국정치부장 리응천이 말씀 올렸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영화촬영가들이 자기할바를 다하고 있는것 같았다.

《…인민들이 갑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영화를 빨리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지지도는 그것으로 끝났다.

12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인줄은 몰랐습니다.》

쾌속정이 침로를 잡고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오진우대장이 그이의 곁에 다가서며 밑도끝도 없이 하는 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전란간을 잡고 서서 배가 달리는데 따라 급속히 멀어 지는 건설장일경을 살피시다 말고 몸을 돌리며 누가 그렇게 미련한가고 물으시였다.

《송철만동무 말입니다. 디젤기관차를 여섯대 달라, 〈자주〉 호 100대에 화차는 200량, 어디 그뿐입니까? 견인선 20척에 기중기니 불도젤이니… 이게 미욱한 사람이지 어디 령리한 사람입니까?… 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오진우는 정무원에서 건설기자재를 제때에 넣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던 사람 같지 않게 송철만소장을 나무람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장이 현장지휘관들이 너무 많은걸 제기한다고 군기침을 깆으며 편안치 않아 하던 일이 떠올라 부지중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때문에 미련하다고 욕을 하면 송철만동무가 억울해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자니 걸리는것은 많아, 모처럼 마련된 기회에 입을 다물고 있을수도 없어… 송철만동무더러 공사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음 놓고 제기하라면 아마 아까 말한것보다 곱절은 더 부를겁니다.》

《그건 그렇다 해두 당장에야 어떻게 그 많은걸 다 풀어 주겠습니까? 온 나라가 건설로 끓고 저마다 손을 내미는 형편에…》

오진우는 갑문도 갑문이지만 나라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것이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렇다 할 해결방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한테야 수령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을 업은 거부기에 돌진 가재라고 나는 우리의 경제력을 믿습니다.》

그이께서 송철만소장을 비롯한 현지 지휘관들이 제기한 문제를 다 받아 들이고 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오진우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차 다른 화제를 꺼냈다.

《송철만동무 말입니다. 현직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일전에 하던 론의의 계속이기도 하였다.

《나도 그새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 구태여 교체할 까닭은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건설을 낫게 지휘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남포갑문건설을 그중 깊이 파악하고 경험도 많은 사람은 송철만소장입니다. 말하자면 실전을 체험한 〈구대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신것처럼 그는 변화되는 정황에 따라 제때에 주공방향을 정하지 못했고 공사조직과 지휘도 원만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민도 아니고 군인이 돌파구도 바로 정하지 못하니…》

오진우는 어이 없어 말이 다 안 나간다는듯 쓴골을 지었다.

《그 문제는 리해합시다. 착오야 나나 부장동무도 범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아직 짐작이지만)그 문제에선 정무원 지휘부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철만동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라 착오를 범할수 있겠다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무원지휘부는 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지 못했는가 하는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장동무는 혹시 내가 송철만소장을 너무 두둔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남포갑문건설이 그 동무에게 있어서 군사복무의 마감장으로 될수도 있겠는데 그 마감장식을 잘하도록 힘 써주는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생을 군대에 복무하면서 전쟁을 체험하고 비단섬과 그 어려운 평원도로를 건설한 영웅이 남포갑문에서 패전장군이 된다면… 그건 그 혼자의 실패이기전에 우리모두의 잘못이고 실패라고 봅니다. 나는 송철만동무를 비단섬에서 련대장을 하던 때 만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허무히 잃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이의 진정이 가슴에 충격으로 마쳐 오는지 오진우는 감동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한참이나 묵묵히 있다가 두손을 모두어 잡으며 경건한 자세로 말했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 잘 도와 주어 갑문을 다 건설하고 준공식을 하는 날 그가 개선장군으로 수령님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힘껏 돕겠습니다.》

송철만소장의 문제를 그렇게 아퀴 지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공사방향을 제때에 바로 잡지 못한것은 분명 정무원지휘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보시며 이물쪽에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남포쪽을 손짓하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찾으시였다.

위원장이 곁에 와 안전란간옆에 서자 그이께서는 란간에 팔굽을 놓으며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누가 남포갑문건설장에 나가 있는가를 알아 보시였다.

위원장은 동원된 사람들은 여럿이지만 부직간부들중에서는 부위원장이 한명 나가 상무그루빠를 책임지고 있는데 주로 설계검토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 시공이나 건설전반에 대한 장악은 누가 합니까?》

《그건 인민무력부에서 건설을 맡은 관계로 아마…》

질문의 취지를 몰라서던가 아니면 자기 말에서 스스로 어떤 모순이 느껴 졌는지 위원장은 말꼬리를 삼키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몇마디 대답을 통해 벌써 국가건설위원회가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하여 립장이 명백치 못하고 피동적인 위치에 서 있음을 직감하시였다.

《갑문건설을 인민무력부에서 맡았다고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설계기술분과사업이나 보면서 건설전반을 책임지지 않는다는건 그리 잘하는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포갑문건설을 인민무력부에 맡긴건 건설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군인들이 아니면 5년동안에 해낼수 없다는데서 그렇게 한것이지 국가건설위원회가 둘러리나 서라고 그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엔 갑문건설은 군인들이 맡아 하지만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가건설위원회고 따라서 공사전반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리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기색이 심각해 졌다.

《저희들이 갑문건설을 인민무력부에서 맡아 한다는데로부터 여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은것 같습니다. 곧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가 있다는 그 부위원

장동무는 안되겠습니다.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건설장에 나가 있으면서 공사방향이 삐뚤어 진것도 바로 잡지 못한것을 보면 능력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그이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 오는 지금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점을 비로소 찾은것 같으시였다. 하나의 건설대상에 두개의 건설지휘부가 있다는것은 원칙적으로 모순이였다. 그러나 남포갑문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군대와 사민을 뒤섞어 하나의 건설지휘부로 만들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지휘부는 호상 긴밀한 협동으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보매 지금 두 지휘부간의 련계와 협동이 그리 잘되고 있는것 같지 않았다. 정무원에서 건설기자재를 제때에 넣어 주지 않는다고 인민무력부장이 불만해 하는것이나 실무가들이 있으면서도 건설방향이 삐뚤어 진것을 바로 잡지 못한 사실이 그에 대한 반증이였다. 그것은 앞으로 더 나쁜 결과도 초래할수 있는 근원으로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이께서는 그 대책을 생각해 보시였다. (이것은 주의나 주고 강조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두 지휘부를 하나로 융합시키면서 서로 자기의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조절하고 통솔할 기능을 가진 어떤 기구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구체계를 내와야 그러한 조절통솔자적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수 있겠는가? 당지도소조?… 그렇다. 군대와 사민을 다같이 포섭통솔하게 하자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당지도소조가 필요하다. 그 지도소조에는 부부장급의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포함되여야 하며 유능한 건설실무일군도 들어있어야 한다. 물론 그 당지도소조는 두 지휘부의 머리우에 군림하여서는 안될것이다. 그러자면 송철만소장과 정무원지휘부 책임자도 같은 지도소조성원으로 포함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건설도 같이 하고 책임도 함께 느끼는 산 조직체계로 될것이다.)

그이께서는 당지도소조에 내보낼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서는 리영선부부장을 점 찍으시였다. 리영선은 갑문건설에도 많이 관계했거니와 조직력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폭이 넓은 사람이였다. 그러

나 사업대상이 갑문건설인 조건에서 당지도소조의 전권을 안받침할 건설실무일군이 있어야 하며 그는 군대, 구체적으로는 송철만소장의 좋은 방조자가 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렇다면 실무일군은 누구를 인입해야 하는가?… 맨 먼저 짚이는것은 국가건설위원회 윤상설부위원장이였다. 그이께서 아시는 한 수력발전소나 간석지 같은 수리건설분야에서는 그와 어깨를 견줄만큼 실무에 밝고 경험도 많은 일군이 없었다. 손탁도 드셌다. 지금 태천발전소건설이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데는 그의 실력과 수완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객관의 평가는 옳은것이였다.

(…윤상설동무가 우리의 5년안에 자신심을 못가졌던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두해전 일이다. 그새 그는 많은것을 생각해 보았을것이며 당이 왜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웠고 또 군대까지 투입하여 준전시상태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내밀었는가를 깨달았을것이다. 그러니 이젠 그를 갑문건설에 인입해도 일 없지 않겠는가. 그는 리영선동무와도 손이 잘 맞을것이며 비단섬건설때부터 잘 아는 사이니 송철만소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조자로 될것이다.)

많은 생각끝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윤상설부위원장이 태천발전소에서 손을 떼는 경우 걸릴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 보시였다. 위원장은 태천은 이젠 자리가 잡혀 크게 문제될것이 없는데 발전소건설을 여러 단위가 맡아 하는 조건에서 자재싸움을 좀 하면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젠 윤상설동무를 갑문건설에 돌려 놓읍시다. 왜 놀랍니까?… 물론 그는 5년안에 자신심을 못 가졌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러한 견해에서 다 탈피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의 견해상 문제때문에 할일을 안할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동무도 알다싶이 그는 자기가 주관하여 만들었던 남포갑문기본설계를 부정한 개작설계를 아주 높이 평가했고 황해남도의 논농사와 관련된 귀중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건 그가 나라의 건설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고 당적량

심도 매우 깨끗하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당지도소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뒤를 이으시였다.

《… 나는 윤상설동무를 그 지도소조의 성원으로 다시말하여 전권을 가진 대표로 임명할 생각입니다. 윤상설부위원장을 남포갑문건설에 참가시키는것은 그의 정치적생명을, 과학자로서의 명예를 끝까지 보살펴 주는 길이며 인생의 말년을 꽃 피워 사회와 인민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포갑문건설을 자기의 〈졸업작품〉이라고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 나는 그가 수령님앞에서 직접 남포갑문건설에 대한 과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송철만국장이 수령님께 완성의 보고를 드릴 때 그도 나란히 서서 보고 드려야 할게 아닙니까. 지난날에 그랬던것처럼 그가 오늘도 래일도 마지막까지 수령님께 충성다하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위원장은 여러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감심한 어조로 말하였다.

《윤상설동무가 기뻐할겝니다. 사실 그 동무가 그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당지도소조성원으로 전권까지 받으면 그 동무 솜씨에 호랑이가 날개까지 얻는 셈이 되니 크게 한몫 할겁니다.》

김정일동지의 믿음도 바로 그러하였다.

(… 그렇게 되면 지도력량은 아주 튼튼해 진다. 벌써 이렇게 하여야 할것이였다. 하다면 건설장에 소요되는 기계수단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그이이시였다.

13

우등불이 타오른다. 널직널직 반원으로 길게 배치된 여섯개의 불무지에서 솟구치는 불길이 불찌를 날리며 허공을 핥는다. 굵게

타래진 희뿌연 연기발은 무거운듯 비스듬히 누워 별이 총총한 밤하늘로 기여 오른다.

여기 령남리 토취장의 넓은 공지에서는 지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군인건설자들과 《2월17일과학자돌격대》를 비롯한 정무원지휘부산하 건설자들의 궐기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불빛에 드러나는 수만명 군인들의 가슴은 격동으로 들먹거리고 눈에는 굳은 맹세가 어려 번쩍거린다. 먼저 송철만소장이 보고대신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과정을 깊은 감동과 흥분속에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구호때문에 여러번 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보답하자, 보답하자, 보답하자!》

《명령은 내렸다. 올해안으로 가물막이를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피 끓는 심장에서 나온 수만의 목소리는 한덩어리로 합쳐져 뢰성마냥 대지를 울리며 밤하늘로 울려 퍼진다. 토론자들은 더 격동적이였다. 피를 토하고 불을 뿜어 내는것 같은 그들의 토론속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각오가 울렸고 가장 어려운 임무앞에 자기들을 불러 달라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갑문건설이 끝나는 날까지 제대를 미루겠다는 결의와 호소도 있었다.

…

모임은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부대별로 돌아 가도 좋다는 부국장의 지시가 방송에서 울리자 대대를 앞세우고 속보로 가면서 윤건호와 리종각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대대장동무, 이거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리종각이 무엇인가 하자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관철을 위해 어떤 혁신적인 일을 발기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였다.

《그러기 말이요. 나도 어제부터 줄창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데… 마음은 끓는데 당장 신통하게 떠오르는게 없구만. 끝살부리로 건너가 보긴 틀렸구.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온 갑문건설장이 기쁨과 감격으로 끓어 번지고 있는속에 함형부재생산과 기본언제공사를 담당한 령남리쪽의 부대참모부들에서는 국지휘부의 력량재편성계획에 따라 어제부터 가물막이공사장으로 건너 가게 될 구분대들을 선발하고 있었다.

건호는 이 기회에 대대와 함께 끝살부리에 건너 가 가물막이전투에 참가하리라 결심하였다. 리종각이와 의견을 나누어 보니 그도 찬성이여서 그는 즉시 부대참모부에 제기하고 내적으로 이동준비도 추진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부대에서는 다른 대대를 가물막이공사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건호는 분했다.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차라리 송철만국장의 《힘》을 빌어 부대에 《내리먹이는》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틀리고 원망할것은 부대참모부밖에 없었다.

《대대장동무.》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걷던 리종각이 문득 입을 열었다.

《대대군인들을 다 용접공으로 만들수 없을가요.》

남은 신경이 올라 죽을 지경인데 이건 또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린가 싶어 윤건호는 정치지도원을 흘겨 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대대전체를 용접공으로 만들어선 뭘하오?》

리종각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걸음만 옮기더니 평소의 그답지 않게 심중한 어조로 내심을 털어 놓았다.

《나는 간밤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지지도과정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신것처럼 지난 기간 우리가 일을 많이 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니 해놓은 일이나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럼 만족하게 일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난 이젠 대담하게 3대대와 작업장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대는 그들의 대대가 보장해 주는 콩크리트혼합물을 받아 타

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타입능력이 높지 못하여 늘 타입실적이 낮은가 하면 윤건호네 보장조를 골탕 먹이기가 일쑤였다. 지난 겨울 온 대대가 겨우내 혼합기안에서 얼어 붙은 콩크리트를 까내느라고 고생한것, 교대당 혼합물보장립방수에서 떨어 지는것 등은 바로 그런 실례였다. 물론 3대대가 그렇게 일을 제끼지 못하고 앉아 뭉개는것은 대대지휘관들의 능력과 전투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하게는 용접력량이 딸리는데 기본원인이 있었다. 윤건호가 3대대때문에 골탕을 먹고 작업장을 바꾸든지 무슨 마련을 보아야지 안되겠다고 노상 두덜거리면서도 종시 용단을 내리지 못한것은 바로 그 용접력량때문이였다. 용접력량이 딸리고 보면 그의 대대라고 용빼는 수가 없고 3대대나 같은 처지에 빠지기 십상이였다. 리종각이 대대전체를 용접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무슨 수로 대대군인전체를 용접공으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 안될가요? 가령… 어디서… 기술자를 초청해다 강의를 받게 한다거나… 용접기 같은걸 구해서 실습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건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방법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였다. 하지만 그는 리종각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대대를 어떻게 그 과업관철에로 불러 일으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름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은 그렇지 못했었다. 력량조절에 끼여 가물막이공사장으로 건너 가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면서 들떠 있었던것이다. 이제는 2대대에 선수도 떼운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함형부재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3대대와 작업장을 바꾸고 대대를 용접공대대로 만들자는건 나도 찬성이요. 그러나 기술자를 초청해 오고 용접기를 얻어다 실습이나 하는식으로야 언제 되겠소. 그럴바엔 차라리 남포시내에 한개 중대씩 내보내 배워 오는게 낫지.》

리종각은 자신이 생각하던것보다 방법이 정반대고 너무 적극

적이여서 얼른 납득이 안가는지 벙벙해 있더니 급기야 리해가 된듯 감탄해 마지 않았다.

《옳습니다. 바로 그게 방법입니다. 역시 대대장동무는 머리가…》

《갑자기 머린 또 무슨 머리요. …》

둘은 함께 웃었다.

리종각은 당장 래일 한개 중대를 남포시내에 내보내자고 서둘렀다. 그러나 건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선 한개 중대를 작업에서 떼내면 그들이 맡았던 혼합기를 누가 돌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했고 또 《기술전습》의 비밀보장도 생각해야 하였다. 혼합기는 남아 있는 중대들에 적당히 분배해서 어떻게 돌릴수 있겠지만 대대가 타입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자체로 용접기술을 전습한다는것이 부대참모부나 3대대에 알려 지면 일이 아주 복잡해 지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갈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잘 타산하고 면밀히 짜고 들어 감쪽같이 해치우자면 중대장들과 협의를 해보아야 하였다.

이윽고 대대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건호는 대렬을 헤치려다 말고 각 중대단위로 2렬횡대를 짓도록 하고는 앞에 나서서 용접기술이 얼마간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대렬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나온 병사는 몇이 안되였다. 한개 중대에 고작 두세명정도, 3중대는 겨우 한명이 나와 섰다. 대대군인들의 용접기능수준이 예상외로 낮은데 실망을 금치 못하며 윤건호는 이른바 《용접기능자》들에게 용접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일일이 알아 보았다. 알아 본 결과 용접공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한명도 없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심심풀이로 익혔는가 하면 중학시절 실습시간에 배운 정도였다.

《동무는?》

마감으로 3중대에서 나온 중사앞에 다가서면서 윤건호는 그래도 분대장이니 좀 나을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그런데 어쩐지 중사는 고개부터 숙이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

《저… 사실 전…용접을 할줄 모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윤건호는 어이 없는 속에 화가 나서 어

성을 약간 높였다.

《그렇다면 나오긴 왜 나왔소?》

중사는 죄송한듯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인차 숙였던 얼굴을 들며 사정하는것 같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대대장동지, 전 우리 대대가 타입장으로 진출하지 못하는건 용접력량이 걸리기때문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용접기능을 알아 볼 땐… 대대장동지, 전 배울 결심입니다. 열흘동안만 시간을 주면 제 꼭 훌륭한 용접기술자가 되겠습니다.》

《!…》

윤건호는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 얼마나 령리하고 성실한 하사관인가. 이런 병사들을 보고 생각이 극히 단순하여 시키는 일이나 할줄 알고 지휘관들의 고충을 알지 못할것이라고 단정한다면 그런 모욕이 없을것이다. 그는 손을 들어 분대장의 어깨를 힘있게 눌러 잡으며 말했다.

《좋아, 배우자구. 배워 가지구 타입장으로 진출하자구!》

대렬을 헤쳐 휴식시키도록 지시한 그는 중대장들만 불러 가지고 대대부에 들어 가 이미 리종각이와 론의한 대대의 타입장진출과 용접기술전습문제를 론의에 붙였다. 3대대때문에 불만이 많던차라 중대장들은 즉시에 호응해 나섰고 기술전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서도 매우 협조적이였다. 하여 결국 이렇게 결정되였다.

첫째, 1중대는 남포시내의 건설장과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용접기술을 배워 오되 3급기능공이상 되여야 하며 매 중대의 전습기간은 12일로 한다.

둘째, 기술전습을 하는 중대의 혼합기는 현장에 남아 있는 중대들에서 각각 두대씩 맡아 돌린다.

셋째, 비밀보장을 위해 타입장진출문제는 군관들만 알고 대원들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

(개인본위로 하지 말고 집체적협조정신을 발휘하며 판정은 분대단위로 한다는것을 별도로 강조했다.)

건호는 비밀준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만일 이 비밀이 탄

로되는 날이면 타입장이고 기술전습이고 다 수포로 돌아 가며 처벌과 망신을 면치 못한다고…

그러나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다음날로 벌써 유정의 귀에 들어 갔다.

《〈기술고문〉은 대대의 손님인가요?》

그것은 저녁식사후 학습과제검열을 하러 온 유정의 질문이였다.

《손님이기는 왜 손님이겠소. 주인도 아주 주인이지요.》

건호는 그 녀자의 질문속에 감추어 진 뜻은 아직 판단 못했지만 천연스럽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저한테도 한개 중대가 작업에서 떨어 질수 있다는것쯤은 알려 주어야 옳지 않아요?》

그제서야 건호는 벌써 비밀이 새나갔음을 알고 신경이 돋았다.

《그거… 누가 그런 말을 하며 다니오?》

그는 《배신자》를 찾아서 단단히 버릇을 가르칠 심산이였다.

《대대정치지도원동무가요.》

(?!…)

건호는 기가 막혀 말이 다 나가지 않았다. 그 느렁뱅이 같은 사람이 어느새 벌써 이 녀자한테 가서 그걸 발설했는가? 발설한 까닭은 또 무엇이며…

유정은 재미 있다는듯 얄궂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쥐고 있던 작고 얄팍한 책을 책상우에 올려 놓았다. 《이 책을 구하자니 별수 없었지요.》

책을 끌어 당겨 표제를 보는 순간 윤건호는 저도 모르게 (아―하!) 하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용접기술》이라는 번역판기술참고서였다. 그는 리종각의 선견지명과 적극성앞에서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거 좌우간 고맙소.》

그러나 유정은 웃으면서 고맙다는 말은 오히려 자기가 해야겠다고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고 궐기모임에까지 참가했지만 자신은 아직도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오늘 정치지도원한테서 대대군인들의 결의를 듣

고야 자기 할바를 깨닫게 되였다는것이였다. 건호는 답례삼아 그 말을 꼭 성공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노라고 하면서 책상빼람에서 수리공학교재를 꺼내놓았다. 그때 비로소 생각난듯 유정이 밑도끝도 없이 《참 아세요? 윤상설부위원장동지가… 아버님이 오신걸…》하고 물었다. 《?…》 건호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그 녀자를 바라보았다.

《모르시는군요. 윤상설부위원장동지가 갑문건설에 〈정무원전권대표〉로 임명되여 왔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건호로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였다.

《정말 아니문…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과학자돌격대에 와서 부임인사까지 하고 간걸요.》

어쨌든 건호는 기뻤다. 유정이가 아니라면 일어 나 당장 아버지한테로 달려 가고 싶은 심정이였다.

14

대상설계를 주관하여 만들었고 또 그새 이런저런 사정으로 몇번 와보기도 해서 윤상설은 갑문건설장이 결코 생소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거기에 경험도 합쳐 그는 사흘이나 나흘정도면 건설장전모를 대체로 파악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정작 해보니 예상과는 달라서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 가물막이와 기본언제 그리고 함형부재장 같은 기본공사대상들을 겨우 료해했을뿐 중량부재장이요, 호장도채석장이요, 옥도 10만산발파준비현장이요 하는 부속단위들에는 아직 발길도 못해 본 형편이였다. 료해를 기다리는 대상은 령남리와 끝살부리에만 있지 않았다. 철배생산을 담당한 남포조선소에도 가봐야 하고 갑문건설에 배속된 만달리채석장과 파일군 모래장에도 다녀 와야 하고 하루 수천톤씩 물동량이 들어 오는 남포화물역과 철광, 사리원청년역에도 나가보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당면해서는 령남리나 끌살부리지구의 공사실태부터 근원적으로 료해하는것이 급선무여서 그는 오늘도 늦점심을 먹자 《갱생》에 앉아 마영에 있는 중량부재장으로 나갔다.

마침 부재장에는 송철만국장도 와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로 줄창 가물막이공사장에만 붙어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건너 왔을가 싶어 물으니 뿔부재때문에 왔노라고 하였다. 기본언제에 기초로 넣는 뿔부재가 미처 보장되지 않아 공사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것이다. 윤상설은 놀랐다.

《… 아니, 이렇게 많이 만들고 저렇게 기차방통으로 실어 내가는데도 모자라오?》

운동장처럼 넓은 부재장에는 양생중의 뿔부재가 꽉 차있고 기중기가 먼저 양생된 부재들을 여러개씩 묶어 부지런히 화차에 싣고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기전까지는 여기 부재장에서 오히려 현장에다 대고 호통질이였소. 자리가 좁은데 빨리 실어 내가지 않는다구… 그런데 현지지도를 받자마자 이렇게 달라 지지 않았겠소.》

자랑과 걱정이 뒤섞인 송철만의 말이였다.

《그렇다면 빨리 생산면적을 늘여야겠구만. 앞을 생각해서라두.》

《나두 지금 그걸 생각던중인데… 다른 대책은 없겠지?》

두사람은 중량부재생산을 책임진 부대장과 기술인원들을 불러 새로 늘굴 부재장면적도 확정하고 생산을 떨구지 않으면서 확장공사를 단시일안에 끝낼 방도도 협의하였다.

《…자, 그럼 이젠 제 할일을 하시오. 나도 가겠으니…》

군말을 싫어 하는 사람이라 송철만은 협의가 끝난것으로 보고 단칼로 자르듯 그렇게 말하며 일어 섰다.

윤상설은 차 있는데까지 같이 나가면서 료해과정에 의문으로 남겨 두었던 문제인 가물막이공사와 관련한 력량재편성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고 또 매우 심사숙고한탓으로 머리속에 생생한듯 송철만은 인원과 기재의 조절원칙은 각각 어떻게 했고 어느 공사장의 어느 부대에서 얼마만한 인원을 떼서 어

디에 무슨 일로 배속 혹은 독립적인 임무를 주었다는 식으로 상세히 쭉 내리 엮었다. 상설은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며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려 물었다.

《…언제에서 2천, 함형에서 천칠백… 인원은 그렇고 기재들은 어떻게 조절했소?》

《기재는… 수송차와 견인선 같은거나 추려 내고 다른것들은 좀 두고 보자는거요.》

《두고 본다는건?》

《현지지도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것들이 있지 않소.》

《하니까 그 약속한 기재들이 들어 오면 넝기루 하구 조절은 하지 않겠다 그게구만?》

송철만은 그렇다고 하였다.

《허허허…》

상설은 어이 없어 그만 웃고 말았다. 웃고 나서 앞으로 몸을 당기며 정색해서 말했다.

《이보 송동무, 내 이거 안할 소리를 하는진 모르겠소만 제기하란다구 해서 저저마끔 〈이걸 풀어 주시오, 저것도 걸립니다.〉하고 손을 내밀면 그이께서 어떻게 그 모든걸 일일이 다 풀어 주시겠소. 건설기계를 어디다 쌓아 둔게 있는가 하우?》

《…》

《전년에 있은 6기 4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느라고 지금 온 나라가 자연개조사업에 떨쳐 나섰소. 불도젤이나 굴착기는 물론 기중기 한대도 노는게 없소. 그건 송동무도 알겠지만 여기 갑문건설장에 들여 온 기계들만 해두 각 건설기업소들에 내리 멕여서 힘들게 뽑아 낸것들이요. 그렇다고 계획에도 없는걸 당장 만들수는 없는게구… 형편은 이렇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송철만은 수굿하고 서서 묵묵히 담배만 빨았다. 한참 지나서야 자책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날 확실히 너무했지?》

《너무하다마다. 막 미욱을 부리는것 갈두만. 오대장이 생콩 씹

은 인상을 하구 그냥 불편한 기침을 하는걸 몰랐소?》
《알기야 알았지. 하지만 난 그때 궁지에 빠져 있었구 기계가 없으면 건설기한을 보장 못한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하기는 립장이 바뀌였으면 나도 달리 어쩌진 못했을거요만… 어쨌든 제기한 문제들에 기대를 너무 걸진 마오. 자재라던가 다른거면 몰라라 건설기계는 정말 여유가 없을게요.》
어느 건설기업소에 굴착기와 기중기가 몇대 있고 어데 있는 모래압송기는 어째서 못 쓴다는것까지 대략 알고 있는 윤상설이여서 요구한다면 설명해 줄수도 있었다. 그러나 송철만은 그 정도로도 납득이 가는지 더 주장을 세우지 않고 현재 건설장에 들어 와 있는 범위내에서 조절하는데 동의하였다.
《역시 윤상설이 괜치 않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철만이…》
《허허허…》
송철만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어 댔다.
《왜 웃나?》
《왜 웃는가? 윤동무와 또 같이 일하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그저 기뻐서 그러네.》
이러며 송철만이 윤상설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난 또… 사람두, 하하하…》
윤상설이도 송철만의 팔굽을 쥐고 흔들었다.
그때 《갱생》차 한대가 부재장으로 들어 와 현장지휘소앞에서 머무르는가 싶더니 인차 차머리를 돌려 그들이 서 있는데로 달려왔다.
차에서는 정무원지휘부에서 내부사업을 말아 보는 종합분과장이 내렸다. 분과장은 인사는 송철만에게 하고 말은 윤상설에게 했다.
《강선제강소 지배인동지가 왔습니다.》
《?…》
자기 손님이 아닌것 같아 상설은 국장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도 덤덤한 표정이였다. 제강소지배인이 무슨 일로 왔는가고 윤상설이 물으니 분과장은 더욱 알수 없는 소리를 하였다.
지배인자신은 건설장을 참관하러 왔다는것이였다.

《참관이라니？… 그건 나두 처음 듣는 소리요.》
송철만의 말이였다. 어쨌든 강선제강소 지배인이면 작은 손님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로 왔을것이 분명하여 두사람은 같이 정무원지휘부로 들어 갔다.

《이거 주객이 바뀐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들을 합네다. 모두…》
종합분과에 앉아 건설현장신문인 《남포갑문》을 읽다가 일어서며 하는 제강소 지배인의 인사였다. 윤상설은 지배인과 풋낯이나 있는 사이여서 먼저 인사를 하고 송철만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송철만은 지배인의 손을 잡기 바쁘게 신세를 많이 지고서두 인사가 늦어 미안하노라고 사과부터 하는게 아닌가？
지배인도 그런 사과는 예견 못했던지 의아쩍어 했다.
《신세？… 국장동무가 나한테 무슨 신셀 졌겠소？》
《져도 크게 졌지요.》 지배인의 손을 그냥 잡은채 송철만은 말했다. 《재작년 그러께 강관 200톤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우리는 수도화를 실현하구 신덕샘물까지 먹게 되였습니다.》
《허,그 문제라면 인사는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려야 합니다. 그이께서 밤길을 마다하구 오셔서 갑문건설자들이 간물로 밥을 끓여 먹는다고 몹시 가슴 아파하시며 강관 200톤만 있으면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고 하실 때 난 죄스러운 심정에… 그래 우린 한바탕 전투를 해서 강관을 뽑아 보냈을뿐이요. 그런즉 감사야 백번천번 그분께 드리는게 옳지 않겠소？》
《그런 사연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어쨌든 강선로동계급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좀 늦기는 했지만…》
두사람이 그런 말을 주고 받으며 걸상에 앉자 상설은 담배를 꺼내 놓으며 제강소 지배인에게 갑문건설장에 오게 된 까닭을 물었다. 그런데 지배인이 미처 입을 열기전에 지휘부 종합분과장이 다시 들어 와 이번에는 대안중기계공장 지배인과 승리자동차공장 지배인이 왔다고 알리였다. 그래 다시 일어나 두 지배인을 맞아 들

여 인사를 나누자 상설은 내놓고 물었다.

《우린 아무 통지도 받은게 없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여기서 무슨 회의라도 있습니까?》

《회의는 무슨 회의, 갑문건설장참관이라던데…》

승리자동차공장 지배인의 뭉툭한 대꾸였다. 거기에 강선제강소 지배인이 설명을 달았다.

《옳소. 중앙당에서 나한테도 그렇게 련락이 왔두만. 갑문건설참관이 있으니 네시까지 꼭 도착하라구…》

그런즉 중앙당에서 무슨 특별참관을 조직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한텐 아무런 통지도 해주지 않는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의문이 채 풀리기도전에 남포조선소 지배인이 또 오고 몇십분 간격으로 황철지배인과 금성뜨락또르공장 지배인이 도착하였다. 그때가 오후 세시반경이였다. 현지에 나오려면 며칠 더 걸려야 할것 같다던 리영선부부장의 승용차가 한대의 중형뻐스와 같이 지휘부마당에 들어선것이 그 무렵이였다. 뻐스에서도 지배인들이 내렸다. 6.4차량공장과 7월6일철도공장 지배인의 얼굴이 보이는가 하면 멀리 김철 지배인이며 락원기계공장 지배인의 얼굴도 보이고… 전국의 크다고 하는 1급 혹은 특급기업소 지배인들은 거의 다 온것 같았다.

리영선부부장이 윤상설과 송철만을 따로 부르더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남포갑문건설에 관계되는 전국의 중요 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을 불러 건설장을 참관시키도록 급히 조치를 취하신데 대해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윤상설은 생각했다.

(그러니 이 갑작스러운 참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말그대로의 단순한 참관은 아닐것이다. 참관 뒤끝에 무슨 회의를 하려는것인지…) 분명 그럴것 같았다.

이윽고 참관이 시작되였다. 송철만소장은 손님들을 함형부재장으로 안내하였다. 거기서 근 한시간가까이 부재생산과정을 돌아본 일행은 토취장으로 넘어 가 3,700메터 계선까지 전진한 제방공사장을 보았다. 그 다음은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던 련락선편으로 끝살부리에 건너 갔다. 마침 가물막이공사장에서는 수천톤짜리

대형철배 침강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다에 뜬 섬과도 같은 대형철배가 불과 몇십분 사이에 그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잠그며 가라앉고 뒤이어 속채움작업으로 이어 지는것을 본 지배인들은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군대동무들이 정말 일을 잘하오. 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서야 누가 저런 수천톤짜리 거물을 몇십명의 군인들이 다룬다고 하겠소. 그것도 물우에서…》

송철만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윤상설이 나서서 말했다.

《그러자니 고생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날씨라도 좋으니 그렇지 파도가 높거나 겨울 같은 땐 며칠씩 저 철배우에서 밥을 바줄에 달아 올려다 먹으며 내리지 못한답니다.》

한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쪽에서는 강선제강소 지배인을 비롯한 여러 지배인들이 둘러서서 갑문건설을 도와 줄 공론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갑자기 그런 의논을 하게 된것은 군인들이 모아 붙어 뚝심으로 강철시판(가물막이 제방밑으로 물이 새는것을 막는데 쓰는 기재)을 운반하는것을 보고 강선제강소 지배인이 저런건 제방우에 기중기를 한대 세우고 달아 옮기면 될걸 군인들에게 공연한 고생을 시킨다고 한마디 한것이 계기로 되였다. 그에 대한 송철만국장의 대답이 여러 지배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저런 작업에까지 돌릴 기중기가 없어 그러지요.》

《아니, 기중기 같은거야 왜 없단 말이요?》

강선지배인의 그 놀란 물음에는 윤상설이 대답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보셨으니 알겠지만 기중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가 함형부재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중기들이 어떤 기중기들인지 아십니까? 정무원 지시로 전국의 각 건설기업소들에서 몇대씩 동원시킨것들입니다. 그러니 부족을 느낄수밖에 없지요.》

강선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족되는 기중기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송철만은 한 삼사십대가량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지배인은 《삼사십대면 그리 많은것은 아닌데…》하고 혼자소리를 하더니 저쪽에서 제방아래를 내려다 보며 열이 올라 무슨 이

야긴가 하는 김철과 황철지배인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오자 말했다.

《여기 건설장에 기중기가 삼사십대 더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겠소? 우리 〈흑색금속〉이 도와 줘야 옳지 않소?》

《기중기 같은거야 못 도와 주겠소? 만들어 줍시다. 당에서 크게 중시하는 건설대상이고 군인들이 이토록 수고하는데 무얼 아끼겠소? 우리가 한 20대 맡겠소.》

김철 지배인의 시원한 대답이였다. 꽉지를 제가 떼놓은지라 강선지배인은 나머지 20대는 자기가 맡겠다고 하였다. 같은 《흑색금속》으로 황철지배인도 지려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레루를 맡지요. 대당 50메터 정도로 보고 래달 말까지 2천메터를 뽑아 보내리다.》

건설장에서 현재 기동하고 있는 대수와 거의 맞먹는 기중기가 즉석에서 이렇게 해결되였다.

일이 이쯤 커지자 다른 지배인들도 가만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금성뜨락또르공장 지배인이 물었다.

《국장동무, 불도젤은 필요치 않소?》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던 리영선부부장이 어이 없었던지 한마디 끼여 들었다.

《원 지배인동무두, 말자체가 건설장인데 불도젤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럼 불도젤은 우리가 맡겠소. 석달이내로 75마력 여섯대와 300마력 4대를 보내주겠으니 운전사들이나 양성해 놓으시오.》

리영선은 아마 고맙다는 소리를 하려고 했을것이다. 그러나 한발 앞서 지배인들중에서 그중 나이 많은 승리자동차공장 지배인이 판을 가르고 나섰다.

《여보시오, 어르신네들! 머리가 크다만 량반들이 이거 뭐 일을 이리 좀스럽게들 하시오. 기중기가 어떻소, 불도젤이 어떻소… 여보 국장동무, 부족되는게 뭐구 요구되는게 뭔지 쭈—욱 얘기하오. 선택은 우리 각자들이 할테니…》

《옳소, 그게 좋겠소.》

여러 사람이 호응하는 바람에 송철만은 군복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모자라거나 필요한 기재 사항들을 내리 렬거하였다.

윤상설이 듣기에 그것은 얼마전 현지지도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풀어 달라고 제기한 내용들이였다.

《〈자주〉호가 50대면 좀 아름차기는 한데.》 손으로 턱을 어루만지며 심중히 생각해 본 뒤에 하는 승리자동차공장 지배인의 말이였다.

《해결해 봅시다. 20대는 3.4분기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년말에 보내도록 하겠소.》

6.4차량공장 지배인은 7월6일철도공장 지배인과 무슨 토론인가 심중히 하더니 드디여 소신을 표명하였다.

《골재운반화차는 우리가 120량하구 7월6일에서 80량을 말아 년말까지 200량을 보장하겠수다. 국가계획으로 받은건 합쳐 150량이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지배인들이 다 능력껏 지원을 결의해 나섰다. 리영선은 수첩을 꺼내여 지배인들이 약속한 지원항목과 수자를 재빨리 적었다.

김철—기중기 20대

강선제강—기중기 20대 계 40대

황철—기중기대차용 레루 2,000메터(래달중으로)

금성뜨락또르—75마력 6대,300마력 4대(3개월이내로)

승리자동차—《자주》호 50대(3.4분기 20대,나머지 년말까지)

6.4차량—골재운반용화차 120량

…

×

지배인들의 상기 결의내용은 그날 밤중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보고되였다. 타자칠 짬도 없었던 모양 리영선부부장이 자필로 써가지고 온,20여종이나 되는 매 지원항목과 수자밑에 손수 밑줄을

그어 가며 일일이 따져 보신 그이께서는 마침내 연필을 놓으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 로동계급속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역시 심장이 뜨겁고 통도 큽니다. 됐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갑문을 건설하고 있는가를 목격하면 틀림없이 무슨 반영이 있을것 같아서 참관시켰는데… 솔직히 말하여 나는 지배인동무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동무가 내리 먹이며 억지로 짜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건 다 지배인동무들자신이 스스로 내겠다고 결의한것들입니다.》

리영선은 강선제강소 지배인이 처음 기중기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승리자동차공장 지배인에 의해 판이 더욱 커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니 강선지배인이 역시 선코를 뗐겠구만. 승리자동차 지배인도 그렇고… 모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이께서는 정녕 기쁘시였다. 현지지도때 송철만국장이 제기하던 건설기계들을 풀어 주지 못해 많이 고심하던차에 관계부문 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이 군인들의 헌신적로력투쟁을 목격하게 되면 도와 나설수 있을것 같아 참관을 조직하도록 했는데 예견이 맞아떨어져 또 한가지 난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것이였다. 그러고보면 문제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인민이 쥐고 있는셈이고 수령님께서 튼튼히 마련해 놓으신 자립경제의 토대야말로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얻을수 있는 마를줄 모르는 재부의 샘이였다.

15

…예선… 미속으로… 좀더… 좋다!… 철배… 준비하라. 준비…

휴대용무선전화기와 쌍안경을 가슴앞에 드리우고 입에 호각을 문 16해상돌격대장 정대철은 량손에 갈라 쥔 신호기발로 예선과 연

공들을 교감시키면서 철배를 서서히 침강위치에 접근시켰다. 긴장된 순간이였다. 자칫 실수에 일껏 들인 공력이 죄다 허사로 되고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정적인 시각이였다.

《예선! 전진. 그만! 철배… 주의!》

드디여 철배는 앞서 조립한,지금 한창 모래채움이 진행되고 있는 철배의 련결고리에 퉁 무겁게 부딪치며 부르르 몸체를 떨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 정대철은 오른손에 높이 들었던 신호기발을 힘껏 내리그음과 동시에 볼이 터지게 호각을 불었다.

연공들이 잽싸게 련결고리에 달라붙어 축심을 맞추고 끝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번에는 들어 올렸던 왼손의 신호기발을 내리그으며 정대철은 다시한번 호각을 길게 불었다. 그것은 침강변을 열라는 신호였다. 찰나 천톤이 넘는 거대한 철배가 움씰 몸을 떨며 한쪽으로 기울듯하더니 곧 수평을 유지하며 서서히 내려 앉기 시작하였다. 철배우에서 만세소리가 터져 올랐다. 마침내 침강이 성공한것이다.

황철에서 지원물자로 보낸 기중기대차용레루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철광역에 나갔던 송철만국장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온것은 바로 그때였다. 방금 제방우에서 철배의 성공적인 침강을 목격한 뒤라 그는 정대철을 만나기 바쁘게 《오늘 몇개째요?》 하고 실적부터 물었다.

《네개짼니다.》

철만은 시계를 보았다. 4시 30분,잘하면 남은 시간에 두개는 더 놓을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기상조건이 나빠 지지 말아야 하는데 둘러봐야 멀리 수평선 하늘가에 재빛구름이 얼마간 떠올랐을뿐 바람이 터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늘따라 바다는 이상할 정도로 잔잔하였다.

《오늘 기록을 돌파해야겠소. 충분히 가능하오.》

송철만은 왼손으로 허리를 눌러 짚으며 이마가 훤히 드러나게 군모채양을 밀어 올렸다.

《돌파하겠습니다. 어두울 때까지 하면 세개는 놓을것 같습니다.》

정대철은 야심만만한 표정이였다.

《욕심을 너무 부리진 말고 두개만 더 하오. 두개만… 속채움이 따라 서지 못하오.》

《속채움은 일없습니다. 따라 세우기로 거기 부대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록을 갱신하자고 아예 잡도리를 했구만.》

《했지요. 16해상돌격대가 위력을 한번 보이자는겁니다.》

《좋구만, 좋아. 본때를 보이오.》

철만은 정대철에게서 쌍안경을 달래서 쥐고 바다 건너 기본언제 건설장을 살펴 보았다. 거리가 먼데다 운애까지 껴서 선명치는 않았으나 공사장상공에 서린 뿌연 배기가스와 언제코숭이에서 연해 연방 솟구쳐 오르는 흙물기둥 그리고 호장도와 이어 진 투석선들의 움직임은 알아볼수 있었다. 투석선들이 그렇게 부절히 움직이고 언제코숭이에서 흙물기둥이 끊임없이 터져 오르는것만 보고도 철만은 일이 괜찮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도 실적이 어제만 못지 않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보이지는 않으나 함형부재장도 다를바 없다고 확신하며 쌍안경을 내리웠다.

그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것이 불과 달포전이였다. 그 달포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전변이 일어 난것인가. 가물막이에서는 철배조립속도가 배이상으로 빨라졌다. 전에는 정조시간에만 철배를 침강시키는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상조건이 웬만하면 밀물이나 썰물때에도 대담하게 철배를 침강시킨다. 정조시간에는 단꺼번에 두개의 철배를 련속침강시켜 조립한다. 력량을 재편성하면서 인원의 절반을 여기 가물막이공사장에 보낸 함형부재장에서도 이전의 수준을 크게 떨구지 않고 있었다.

기본언제공사장은 력량재편성때 기본공사수단인 수송차를 많이 잃었다. 그래도 거기서는 날마다 공사실적이 높아 지고 있었다. 어제의 실적이 오늘 반복된다면 부끄러운 일로 된다는것이 건설자들 전체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그 모든 성과, 변화는 두말할것없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잘못된 공사방향과 지휘체계를 바로 잡아

주시고 온 나라에 지원의 불길을 지펴 올리신 덕분이였으며 그이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군인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

등뒤에서 누군가 자갈돌을 마구 걷어 차며 걸어 오는 소리가 났다. 보니 이번 력량재편성때 부대와 함께 함형부재장에서 건너 온 부대장이였다.

그런데 어째선지 그는 퍼렇게 성이 나서 앞에 와 인사시늉을 하기 바쁘게 울분부터 터뜨리는것이였다.

《국장동지,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붓자식처럼 취급합니까?》

《무슨 소리요? 누가 동무네를 이붓자식으로 취급한단 말이요?》

철만은 엄격한 어조로 되물었다.

《펌프장말입니다. 언제는 꾸려서 쓰라 하고 이젠 도루 뺏으니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펌프장이란 전년에 수도공사를 할 때 건설했지만 쓸모가 없어져서 내쳐 두고 있던것을 꾸려서 현장지휘부로 쓰라고 그의 부대에 넘겨 준 건물이였다. 령남리에서 건너와 현장지휘소가 없어서 애먹던 차라 부대장은 그새 한개 소대인원으로 건물에 새로 현관까지 덧달아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걸 도루 내라고 하면 부대장으로선 신경이 돋아 달려 올수밖에 없을것이였다. 하지만 철만은 건물을 쓰라고 주었을뿐이지 내놓으라고 한적은 없었다.

부대장은 당장 눈이 둥그래졌다.

《그럼 국장동지는 모릅니까?》

《모른다니까…》

《그래도 국장동지와 토론한것처럼 말하던데요?》

《누가?》

《누군 누구겠습니까. 전권대표라는 사람이지요.》

《전권대표?…》

철만은 어안이 벙벙한속에 《전권대표》가 건물을 내라고 하는 까닭을 물었다.

《태천발전소건설장에서 가물막이기술자들이 온다는지… 좌우간 그 사람들 숙소로 써야 한답니다.》

부대장의 볼 부은 소리였다.

《으―응?…》

철만은 어리둥절할수밖에 없었다. 태천에서 가물막이기술자들이 온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그였다. 그러자 그는 인차 윤상설이 자기 모르게 무슨 일을 벌리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쳐 은연중 신경이 긴장되였다. 이 량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사유는 있겠다 쳐도 아무런 토론도 없이 외지에서 기술인원을 끌어 들이고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내라 어쩌라 하는 자체가 우선 거슬렸다. 태천에서 온다는 가물막이기술자들문제도 리해로만 그칠 일이 아니였다. 알아 보고 마땅치 않으면 막아야 옳을것 같았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소?》

《아직 우리한테 있을겁니다.》

《가기요.》

정대철에게 쌍안경을 돌려 준 철만은 부대장을 달고 가물막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펌프장까지 다 가지 않아도 되였다. 도중에 마주 오는 윤상설을 만났던것이다.

철만은 돌아가 차후지시를 기다리라고 해서 부대장을 보내고 윤상설을 길녘으로 데리고 나가 마주 서자마자 따지고 들었다.

《태천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단 뭘 어쩌자는거요?》

윤상설은 적당한 대답을 찾느라고 우정 그러는듯 천천히 웃주머니에서 담배갑부터 꺼냈다. 그리고 여유작작하게 담배에 불까지 붙이고야 입을 열었다.

《어쩌긴 뭘 어찌겠소. 도움을 좀 받자는게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토론을 안했는데 달리 생각진 마오.》

그것으로 이쪽에 진 《빚》을 다 갚았다고 보는듯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웠다. 그때문에 철만은 더욱 불쾌해서 그만 참을성을 잃어 버렸다.

《도움?… 왜, 누굴 믿지 못하겠다는 소린 하기 싫소?》

그제야 윤상설의 얼굴에서 태연함이 사라졌다.

《아니 여보, 기술자를 몇십명 데려 오는걸 가지구 뭘 그리 별스럽게 생각하오. 미리 토론 못한건 내 불찰이라 치기요. 하지만

갑문건설자체가 온 나라의 지원을 받는 판에 기술자지원이라구 받지 못하겠소. 난 그들이 오는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건 하나두 없을것 같구만.》
《나쁘오！》 철만은 단호히 부정했다.
《뭐가 나쁜가！… 우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군인들의 의기가 꺾일수 있소. 동무는 군인이 아니니 전사들의 의기 같은건 념두에두 없겠지만 군대에서는 그게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에 속하오.》
윤상설은 입가에 웃음을 띄워 올렸다.
《하니 그 〈의기〉라는게 꺾일가봐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게요？》
《그것만도 아니요. 그 태천사람들이 가물막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뒤에서 누군가 찾아서 말을 끊고 돌아다 보니 현장지휘처 종합참모였다.
《서해기상수문대에서 태풍경보를 보내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경에…》
철만은 더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알겠다며 고개를 돌려 동강났던 말허리를 다시 이었다.
《나는 그 태천사람들이 여기 와서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거라고 보오. 우리처럼 바다조건에서 철배로 가물막이를 하던 사람들이라면 몰라라 그들이야 산을 헐어 강이나 막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치겠소. 오히려 방해될수도 있소.》
철만은 그가 군인이 아니니 의기문제는 리해 못한다쳐도 이 두번째 조건이야말로 실질적이여서 할 말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윤상설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송동무가 그 태천사람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우？ 가물막이에 들어선 〈하나〉하면 〈열, 스물〉을 헤는 〈귀신〉들이요. 그들이 여기 일에 익숙되는데는 단 며칠이면 되오. 그건 내가 장담할수 있소.》
《…》
송철만은 대응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동시에 이 입씨

름에서 자기가 점차 몰리고 있음을 의식하였다. 그의 그러한 심리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듯 윤상설은 결정적인 공세에로 넘어왔다.

《송동무, 거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이 태천사람들문제는 나한테 맡기오. 그들때문에 군인들이 신경을 쓸수 있다면 가물막이에는 개입시키지 말기요.》

《가물막이를 안 시킬바에야 데려단 뭘하우?》

《마감막이준비를 시키지. 지금 모두 철배조립만 끝나면 가물막이가 다 되는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소. 가물막이기술은 마감막이에서 발휘되오. 리영선부부장의 의견도 그렇고… 어쨌든 태천기술자들문제는 우리한테 맡기고 송동무는 요새처럼 철배조립이나 와짝 내밀어 주오.》

리영선부부장까지도 같은 의견이라는 소리에 송철만은 더 할말이 없었다.

그 기회에 종합참모가 끼여 들어 공사장들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태풍방비대책부터 세워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감막이소리에 말문이 막힌데다 종합참모까지 곁들고 나서는 바람에 송철만은 그만 화가 벌컥 나서 사나운 눈길로 그를 쏘아보았다.

《동무, 태풍을 처음 당해 보오?… 바람이 분다고 일을 그만두면 갑문은 언제 건설한단 말이요?》

《그래두 방비야 좀 해야지 않겠소? 태풍인데…》

윤상설의 말이였다. 그러나 송철만은 화김에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시했다. 공사장들에 태풍경보는 알려 주되 작업은 중지시키지 말라고.

16

점심식사가 끝나 식당이 조용해 지자 취사모를 벗어 내친 선봉은 배식구에 쌓인 식기들을 늪버치에 와락와락 떨구어 담아가지고 고무호스로 한바탕 물총을 쏘는것으로 설겆이를 대신해 버

렸다. 제창 저녁준비에 들어갔다. 식사인원이 과히 많지 않아서 여느날 같으면 한잠 늘어지게 자고 해도 되지만 오늘은 《장》을 보러 령남리에 갔다 와야 하기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식당근무를 같이 수행하는 전사에게 쌀을 일게 하고 자신은 염장무우를 들여다 어느 익살군이 규정한것처럼 《서까래감으로도 쓸수 있게》 굵직굵직 썰어 물에 담그었다. 이어 출고 받은 돼지다리를 도끼로 몇토막 내서 가마에 넣고 호스를 끌어다 물도 푼푼히 채웠다. 그쯤하면 저녁준비가 기본상 되였으므로 선봉은 쌀을 일고 있는 전사에게 자기가 돌아 올 때까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준 다음 병실에 들어가 군복을 갈아 입었다. 그는 《수고함》을 떼가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 령남리에 가서 사올 상품목록을 작성했다.

연공소대에는 편성된 초기부터 내려 오는 하나의 자체규정이 있었다. 그것은 끝살부리에 군인상점이 없는 조건에서 한달에 두번씩 식당근무성원이 건너가 소대원전체의 생활용품을 사오는것이였다. 그러나 갈적마다 일일이 알아본다 어쩐다 하는것이 번잡스러워 병실구석에 자그마한 나무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써넣으면 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사오도록 하였다. 그래 남을 위해 수고한다는 뜻에서 《수고함》이라고 하는것이다.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자 그는 부두가로 나갔다. 일이 되느라고 부두에 도착하니 령남리를 걸쳐 남포선박수리공장으로 기관수리를 가는 배가 마침 발동을 거는 참이여서 무작정 뛰여 올랐다. 이윽고 배가 떠났다. 좋은 날씨였다. 멀리 수평선상의 하늘가에 재빛을 띤 구름이 몇덩이 널려 있을뿐 바람도 불지 않아 잔잔한 물결우에서는 해빛만 제멋대로 뛰놀고 있었다.

선봉은 고물쪽 갑판에 사려 놓은 견인바줄퉁구리를 깔고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가물막이공사장을 바라보았다. 정조가 멀지 않은 때라 련속침강을 하려는지 바다우에는 두개의 대형철배가 견인선에 이끌려 각기 대기상태에 있고 가물막이뚝우에서는 앞서 조립한 철배의 모래속채움과 버럭뒤채움을 하느라고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기관선이 가물막이현장에 좀 더 가까와 지는데 따라 철배우에서 움직이는 연공들의 얼굴조차 가려 볼수 있게 되였다.

(아니, 저치들까지 련속침강을 해대는 판인가?)

두 철배우의 연공들이 누구라는것을 알아 본 그는 저으기 놀랐다. 지금 철배우에서 침강준비를 하는 작업조들로 말하면 그의 작업조가 한창 기록을 세우고 있을 때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 오던 친구들이였다. 그런 《매재기들》까지 상당한 기능과 대담성이 요구되는 련속침강을 하니 놀랄수밖에 없었다.

(젠장,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자마자 모두 저렇게 룡이 되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내 꼴은 이게 뭔가? 아직도 위생복을 벗지 못하고 식당에만 박혀 있으니…

하지만 조급할건 없다. 이제 잠수병으로 돌아 앉으면 잃은것을 다 되찾을수 있다. 그러니 인내성 있게 참고 견디야 한다. 영웅의 길이 어찌 순탄하기만 하랴.)

부대장의 명령에 의해 중사로 강직된 초기만 해도 그는 처벌이 의외로 가혹한데 놀라기는 했으나 결코 절망하지는 않았었다. 비록 사고는 쳤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시시한 사고》를 쳤다는것 그리고 공사장에서 항시적으로 연공들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조건에서 이미 실력이 잘 알려 진 자기처럼 우수한 작업조장을 식당에 오래 처박아둘수 없다는것, 따라서 규정상 군사칭호는 인차 올려 주지 못한다 해도 기껏해서 보름이나 한달가량 지나면 처벌을 해제하고 다시 철배를 태울것이라는것 등 나름의 자기 위안적인 타산이 있어 눈을 꾹 감고 식당근무에 전심했다. 그러나 예견한 보름이 지나고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는것은 물론 두달째부터는 관심을 돌리거나 동정해 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동안 부분대장이 조장으로 된 그의 작업조는 철배조립실적에서 앞자리를 내놓고 맨 뒤꼬리를 다투는 정도로 락후해 졌다. 게다가 앞서 나가는 작업조와 뒤떨어진 작업조와의 실적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철배를 다시 타게 된다 해도 떨어 진 실적을 회복할것 같지 않았다. 떨어 진 조립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영웅은 고사하고 총화때 남의 수훈을 부러워 하며

박수나 치게 될것이다.

(… 그렇다. 연공으로 영웅이 되기는 이젠 코집이 글렀다. 그럴바에야 철배를 다시 타려고 애 쓸 필요가 무엇이며 연공으로 남아 있어야 할 까닭은 또 무엇인가?…)

그는 연공으로서의 자기 존재는 이젠 없어진것이나 같으므로 보다 중요한 다른 일판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보다 중요한 다른 일판을 모색하던 끝에 마침내 선택한것이 잠수병이 되는것이였다. 잠수병이라면 연공보다 오히려 더 중시되고 기능을 요하는 《특수병》이였다. 잠수병들이 영웅소대가 될것을 결의한것도 그리고 우에서 간부들이 내려 오면 연공들은 찾아 보지 않아도 잠수병들을 꼭 만나 보는것도 그때문이였다. 게다가 친구인 장풍산이 아주 유능한 잠수초소장인만큼 그의 도움을 받으면 잠수기술을 습득하는것도 문제될것이 없었다. 결심을 그렇게 세운 그는 어느날 장풍산을 찾아 가서 의향을 비쳐 보았다. 그런데 장풍산은 의외로 기뻐하면서 기술전습은 념려 말라고, 그건 자기가 책임 지고 한두달어간에 한다하는 잠수병으로 만들어 놓겠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소문난 연공을 쉽게 놓아 주자고 할가? 연공도 바랄텐데…》

선봉은 그건 념려 말라고 했다. 송철만국장의 도움을 받으면 잠수병으로 소속을 바꾸는것쯤은 그리 문제로 될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부터 짬이 생기는대로 잠수공개별전습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달 가까이 되여서는 벌써 장풍산이와 어울려 수심 20메터까지 잠수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연공으로부터 잠수병으로 소속을 바꿀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 선봉은 어느날 밤 송철만국장을 찾아 갔다. 일이 되느라고 마침 국장은 현장지휘부의 자기 방에서 지도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면밀히 짜가지고 온 각본대로 거수경례를 절도 있게 붙인 그는 능청스러운 성미 그대로 벌쭉 웃었다. 웃으며 전에 련합부대에 있을 때 도하대대에 와 장기를 두다 말고 후에 승부를 가르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니까 승부를 갈라 보자고 왔나?》
요즈음 일이 잘되기때문인지 국장은 사뭇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예, 머리도 쉬우는겸 한수 배워 주십시오.》
국장은 시계를 보더니 시간도 있는 모양 직일관실에 가서 장기판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선봉은 거의 두해만에 다시 송철만소장과 장기판을 마주하고 앉게 되였다.
그쯤하면 첫단계의 기도는 아주 멋들어지게 실현된 셈이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장기수로 우세를 보이다가 저절로 몰리게 되면 좋고 그렇게 안되는 경우 기술적으로 피동에 빠지면서 국장의 기분이 아주 한껏 떴을 때 《용무》를 내놓을 계획이였다. 일은 계획대로 되여 갔다. 역시 국장은 《코끼리》와 포를 잘 썼는데 그 두 협공에 선봉은 아직 그럴 계획이 아닌 때에 벌써 차와 말을 바꾸게 되고 공으로 졸까지 하나 더 잃었다. 아직 승패는 가늠할수 없어도 그로서는 아주 불리해 지고 국장은 벌써 승리를 예감한듯 여유작작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까지 권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선봉은 졸을 무모한 공격에로 내몰아 스스로 함정을 파면서 넌지시 자기가 사고를 치고 처벌을 받은데 대해 상기시켰다.
예견한대로 국장은 그가 밀어 놓은 졸 뒤등에 말을 옮겨다 붙였다.
《면포를 좀 달래 볼가?… 그래 무슨 사고를 쳤나?》
능히 살릴수 있었지만 선봉은 포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하면서 침강실적을 올리느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47호철배를 파공시켰노라고 하였다.
《그걸 파공시킨게… 포는 먹고… 동무였나?…》
《잡수십시오. 전 말을 달래겠습니다.》
속으로는 살점을 떼운만치나 아팠지만 선봉은 흔연히 말했다.
《면포를 먹었으니 말이야 줘야지… 한데 무슨 처벌을 받았나?》
선봉은 중사로 강직되여 석달이상 철배도 못 타고 식당에 박혀 있는 사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한걸음 더 들이 짚었다.
《국장동지, 절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 줘야지. 자, 상이 나간다. 그런데 내가 뭘루 동무를 도

울수 있을가?》
이제는 승부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지 국장은 아주 흡흡한 표정으로 여유 있게 물었다. 선봉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드디여 운명의 장기수를 내놓았다.
《우리 부대장동지한테 이야기해서 저를 잠수편대에 옮겨 주십시오. 전 사실 연공보다 잠수기술이 더 높습니다.》
국장은 장기판을 내려다 보며 심상한 표정으로 《그래?…》하고는 고개만 끄덕이였다. 선봉이로서는 그것이 부탁대로 해주겠다는건지 아니면 그저 알만하다는 뜻인지 도무지 의미를 료량할수 없었다. 그러던차에 국장은 갑자기 상을 들어 그의 차를 덮치며 큰소리로 《장훈!》을 불렀다. 선봉은 얼결에 궁을 집어 들었지만 살펴 보니 옮겨 놓을 자리가 없었다. 그는 비로소 량수겸장에 걸린것을 알았고 장기는 그것으로 결판이 났다. 국장은 한번 더 둘테면 두자고 하였다. 선봉은 두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두번 지기도 싫거니와 장기바람에 떠서 힘들게 꺼내 놓은 자신의 운명문제가 유야무야될 위험도 있어서 오늘은 수가 안나온다는 핑게로 쪽을 모으며 다시한번 뒤를 다졌다.
《…하지만 제 부탁은 꼭 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의 되물음이 천만뜻밖이였다.
《동무가 무얼 부탁했더라?…》
선봉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런체는 못하고 잠수병이 될수 있게 부대장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국장은 일어나며 재털이에 담배재를 털더니 장기판에 마주 앉았을 때와는 판다르게 무뚝뚝한 어조로 군사복무를 몇년째 하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묻는 의도가 명백치 않아서 선봉은 금년이 8년째라고 어물어물 대답했다. 그러자 국장의 먹붓 같은 시꺼먼 눈섭이 쫑깃 일어 섰다.
《군사복무를 여덟해나 하면서 아직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도 몰라?》
《?!》
《돌아가서 식당근무나 착실히 서면서 부대장의 명령을 기다리는게 좋아. 동무가 잠수병이 되는게 옳은지 그냥 연공으로 있는게 옳

은지… 그걸 제일 잘 아는건 동무네 부대장이야. 알겠나?》
그 말에 선봉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서 국장의 방을 나섰다. 나와서야 금방 닫은 문을 흘겨 보며 장기를 져 준 값도 못했다고 두덜거렸다. 그러나 따져 보면 노상 실패했다고는 볼수 없었다. 이런 일에서는 첫짝지를 떼기가 가장 힘든 법인데 국장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희망을 알게 만든것은 성과라고 할수 있었다. 그는 시일을 좀 끌다가 다시한번 국장을 찾아 갈 결심이였다. 백번 찍어 넘어 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그렇게 두번 세번… 다섯번을 반복하느라면 시끄러워서라도 잠수공으로 돌려 줄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열흘전 일이였다.
(가만, 저게 37호 아니야?)
령남리부두에서 배를 내려 부대지휘부쪽으로 올라 가던 선봉은 뜻밖에도 관리국 군상창고앞에 서 있는 부대장의 승용차를 보자 대뜸 반가움부터 느꼈다.
부대장차의 운전사와는 허물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가보니 운전사는 방수포 같은것을 깔고 차밑에 번듯이 누워 무슨 수리를 하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선봉은 차가 한창 뛰여야 할 대낮에 차밑에만 드러누워 어쩔 셈이냐고 희떱게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자 차밑에서 《누구야?》 하고 거친 대꾸가 터져 나왔다. 목소리를 듣건대 친구는 심사가 편안치 않았다.
《날세. 물건너 끝살부리 사는 박서방…》
그제서야 운전사는 좀 삽삽해 져서 《어, 〈통장훈〉인가?》 하고 알은체를 하였다. 《통장훈》이란 갑문건설장으로 오는 렬차칸에서 풋내기장기군들을 죄다 통장훈으로 지워 버리고 얻은 명성이였다.
《그런데 뭘 그렇게 올려다 보나? 배꼽이라도 궤졌나?》
《배꼽이나 궤졌으면 좋게.》 차밑에서 기여 나온 운전사의 말이였다. 《목대가 부러졌네. 조향련결대 목이…》
친구는 아주 난색이였다. 태풍피해를 막기 위해 부대장이 회의를 소집한 짬에 자유주의를 하다가 이런 꼴이 됐다는것이였다.

《그러게 자유주의는 될수록 하지 말아야 해… 태풍은 언제 분다나?》

선봉이로서는 태풍소리가 금시초문이였다.

《필리핀에서 오늘 밤 10시에 온다네. 그놈의 태풍만 아니라도 부대장이 찾지는 않을텐데…》

선봉은 곤경에 빠져 울상이 된 친구가 가엾었다. 가능하면 도와주어야 할것 같았다.

《여, 사정이 그렇게 급하면 부러진걸 때불이던가 무슨 마련을 봐야지 앉아 우는 소리나 해서 문제가 풀리는가?》

자동차물계는 잘 모르지만 부러졌으면 용접으로 해결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선봉은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니 용접기가 어디 있는가?》

《아무렴 부대후방부에 용접기가 없겠는가?》

《하긴 그래… 한데 용접기술은 좀 있나?》

운전사의 물음에 선봉은 아주 노여워 하는체 하며 연공을 어떻게 보구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이래뵈두 6급용접공이라고 흰목을 뽑았다. 6급공이라는건 좀 과장이지만 웬간한건 때고 붙일줄 아는 그였다.

《그렇다면 이거 좀 살려 주게나. 내 형님으로 모실테니…》

《그런 소린 말라구. 친구지간에 어려울 때 서로 돕는거야 례상사가 아닌가.》

알아 보니 용접기는 군상에도 있었다. 그래 둘이 밀고당기며 차옆에 끌어다 놓고 운전사가 다시 차밑에 들어 가 조향련결대를 분리하는 사이에 선봉은 용접기를 련결할 전원선을 찾아 보았다. 상품창고 바로 옆에 차단기가 달린 변대가 있었지만 올라 가기 싫어서 조명선이 들어 온 창고처마밑을 훑었다. 마침 피복창고라고 써붙인 출입문웃턱에 야외등을 설치하려고 뽑아 낸 전기선이 있어서 걸어 보니 용접기가 울었다. 그때쯤하여 조향련결대도 분리되였다.

《그런데 거 조명선이 부하를 꽤 받아 낼가?》

운전사의 걱정이였다.

그런 우려가 선봉이에게도 없지 않았으나 변압기가 가깝다는 것으로 무시하고 용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초 안되여 창고안에서 딱—소리가 나더니 용접기의 숨이 꺼졌다. 역시 조명선이라 부하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딘지 약한 고리가 튄것이였다.

결국 조향련결대는 변대에 기여 올라가 차단기 3극위치에 전원을 걸고서야 때붙일수 있었다. 용접부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운전사는 그 정도도 대만족이여서 제자리에 조립해 맞추고는 즉시 차에 발동을 걸어 상점마당을 한바퀴 빙 돌았다.

《됐네. 아주 멋 있어.… 한데 이 신셀 뭘루 갚는다?》

선봉이의 머리속에서 (이 친구라면 혹시 내 문제를 쉽게 풀어줄수도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싹튼것이 이때였다. 부대장차의 운전사면 힘도 없지 않다. 부대장도 운전사의 말이면 들을수 있다. 부대장이 듣지 않으면 부대대렬과를 쑤셔 볼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결심을 그렇게 세운 선봉은 우선 상대방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았다.

《나도 신세질 일이야 있지만 동무한테 뭐 힘이 있겠나?》

예견한대로 친구는 즉시 눈이 꼬부장해 지며 자기가 그리두 둘러막힌 놈 같애 보이는가고 섭섭해 하였다.

《그럼 진짜 좀 도와 주겠나?》

《글쎄 말하라니까.》

빚진 종이라고 친구는 신세에 몰려 바지라도 벗어 줄 잡도리였다. 그쯤하면 감정조직이 충분히 되였다고 보아 선봉은 자기의 고충을 털어 놓았다.

친구는 눈을 꺼벅거리며 듣더니 물었다.

《하니까 잡수편대로 돌려 놓기만 하면 되나?》

선봉이 그렇다고 하니 저쪽은 아주 대수롭지 않아 하는 인상이였다.

《난 또 무슨 힘든 문젠가 했구만.… 됐어. 그건 내게 맡기라구. 열흘어간으로 요구대로 해주겠으니…》

대답이 너무 씨원해서 선봉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러나 친구는 걱정을 꽉 놓으라고, 만일 약속을 실행 못하면 자기는 인간

이 아니라고까지 확언하는것이였다.

《그렇다면 믿겠네.》

(젠－장,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걸…)

선봉은 벌써 잠수병이 다 된 기분이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들뜬 기분끝에서 어떤 참담한 결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17

깃드는 어둠과 함께 잠투정을 하는 어린애마냥 뒤채기며 불안을 호소하던 바다는 밤 10시가 되자 벌써 안정을 잃고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미구에 태풍이 몰아 온 파도의 산악은 기슭에 이르러 수천만마리의 사나운 맹수로 변하여 닥치는대로 들이 받고 물어 뜯으며 하늘마저 삼켜 버리려는듯 길길이 솟구쳐 올랐다. 밤하늘은 먹장구름이 짝 덮여 한줄기 빛조차 찾아 볼수 없었다. 암흑에 눌려 무겁게 내려 앉은 그 하늘과 광란하는 바다사이를 독차지한 질풍은 밤 12시를 가까이 하면서 더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기승을 부렸다.

휘－유, 휘－유, 쾅－철썩－우르르 쾅－휘－유…

송철만은 갑문건설장에 온 이래 태풍을 여러번 당해 보았지만 이런 강한 태풍은 겪느니 처음이였다. 11시 30분경까지 끝살부리 현장지휘부에서 유선 무선전화를 통해 각 공사장들에서 들어 오는 정황을 처리하던 그는 16해상 돌격대장 정대철이로부터 저녁에 늦게 조립하여 속채움을 다 못한 철배가 파도에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자 벌떡 일어 섰다. 머리우에서는 방수지를 씌운 지붕처마가 바람을 안고 들리다가 트라스우에 내려 앉는 소리가 텅－텅 울리고 있었다. 책상빼람에서 손전지를 찾아 쥔 그는 군모끈을 늦춰 턱에 걸며 급히 방을 나섰다. 그러나 불과 서너발자국만에 불어

온 바람에 떠밀려 금방 밀고 나온 나들문에 뒤잔등을 쾅—부딪쳤다. 문고리에 짓쪼았는지 왼쪽 어깨박죽이 얼얼하였다. 그는 바람곬이 좀 바뀌기를 기다려 상체를 꺾어 숙이고 다시 걸음을 내짚었다. 순간 불과 몇걸음앞에 쇠붙이 같은것이 날아 와 떨어 지며 지동치는 소리를 냈다. 다가가 전지불을 비쳐 보았다. 두어평방 잘되는 두툼한 세멘트혼합용철판이 한쪽귀가 땅에 박혀 구픳거리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했다. 바람곬을 보느라고 몇초 지체했기 망정이지 아차했으면 철판이 정수리에 바로 떨어 져 황천객이 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였다.

가물막이공사장에서는 낮에 조립한 철배에 속채움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자주》호 적재함에서 쏟아 지는 모래가 절반만 철배알통속에 들어 가고 나머지는 몽땅 날아 가 바다에 떨어 졌지만 철만은 속채움작업에 관심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정대철을 불러 정황을 알아 보았다. 정황은 매우 심각하였다. 저녁때 마감으로 침강시킨,지금 한창 모래채움을 하고 있는 철배가 파도에 흔들리면서 련결고리를 끊고 혼자 넘어지던가 더 나쁘기는 앞서 조립한 철배까지 끌고 넘어 질 위험이 조성되고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것 같소?》

그의 물음에 정대철은 바람소리때문에 듣지 못했는지 고함치듯 되물었다.

《뭐라구요?》

철만은 손나팔을 만들어 그의 귀에 가져다 대고 같이 고함을 질렀다.

정대철이 손을 오그려 붙이더니 귀가에 가져 왔다.

《견뎌 보다가… 안되면 선손을… 써야지요.》

그가 선손을 쓴다는것은 련결고리를 폭파시켜 끊고 움직이는 철배를 떼버린다는 소리였다. 그렇게 되면 철배를 하나 내버리고 숱한 공력이 허사로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폭파준비는?…》

《하는…중》

질풍이 파도의 비말을 날라다 그들의 얼굴에 휘뿌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떼버리는걸… 서둘건 없소. 그전에 속채움을 최대한 다그쳐 보기요.》

《나는 잠수정에… 가 있겠습니다. 잠수병들이… 지금 철배밑에서 지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도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송철만은 휴대용무선통화기를 들어 현장지휘부에 남아 있는 부국장을 찾았다. 어딘가와 전화중이던 모양 황석전은 알았다고 하며 무선통화에 응답해 나왔다. 철만은 가물막이현장의 정황부터 설명했다. 그리고 정황설명을 끝내자 전지불로 시계를 보고 나서 이제부터 20분이내로 작업중이 아닌 끝살부리의 모든 구분대군인들을 비상소집하여 (빈배낭을 가지고) 송관역 모래하차장에 집결시키라고 지시했다. 《인해전술》에 《배낭작전》을 해서라도 가능한껏 흔들리는 철배를 구원해 볼 계획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려던 그 《배낭작전》을 황석전에게 인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송관역에 도착하자마자 령남리에 있는 함형부재장제방뚝이 터질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았던것이다. 그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으며 눈앞이 아뜩해 지는 감을 느꼈다. 부재장제방이 터져 바다물이 부재장을 휩쓰는 날이면 이미 타입을 끝냈거나 지금 한창 타입중에 있는 숱한 함형부재들이 저절로 뜨면서 서로 부딪쳐 다 마사질수 있었다. 결국 그것은 지난 2년동안에 해온 모든 일들이 죄다 수포로 돌아 가고 수천만원어치의 막대한 자재와 로력을 잃어 버리는 외에 전반적인 갑문건설완공기일이 그만큼 늦어 진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빨리 령남리에 건너 가 수습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파국적인 사태가 벌어 질지 알수 없었다.

모래하차장을 떠나 다시 가물막이현장으로 되짚어 나온 그는 잠수정에 올라 가 정대철에게 배를 한척 불러 오라고 지시하였다. 정대철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배는 불러다 무얼 하려는가고 물었다. 철만은 함형부재장에 조성된 정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옆에서 포탄이 터져도 놀랄것 같지 않던 정대철이도 이때만은 눈이 퀭해졌다.

《아니, 그럼 저 파도에 건너 가자는겁니까?》
《건너 가야겠소. 피도에서 기본언제쿄숭이만 극복하면 별일 없을거요.》
《그러다 뒤집히면 어쩝니까?》
《뒤집히면야 별수 있소? 죽어야지.》
그것은 롱담이라고만 할수 없는 말이였다. 말이 충분히 현실로 되기 십상인 정황이였다. 정대철은 만류해야 보람이 없음을 깨달았는지 다른 말을 않고 800마력 예선을 불렀다. 그리고 얼마후 예선이 도착하자 제가 먼저 뛰여 오르더니 선실에 들어 가 구명조끼를 찾아 입었다. 송철만은 뒤따라 선실에 들어 서며 그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까닭을 물었다.
《죽을 일이 생기면 동무해 죽자고 그럽니다.》
혼자만 보낼수 없으니 같이 타고 건너 가겠다는 소리였다. 철만은 화를 낼수밖에 없었다.
《쓸데 없는 생각을 걷어 치우고 빨리 내리오. 여기도 정황을 처리할 사람이 있어야지 않소?》
정대철에게도 할 말이 없지 않았다.
《여기야 부국장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부국장은 부국장이고 동문 철배를 보란 말이요! 철배…》 그는 어성을 높이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래도 같이 건너 가야 한다고 그냥 고집을 쓰는 정대철을 가까스로 내려 놓고 배가 떠나자 철만은 구명조끼에 팔을 꿰며 조타실로 올라 갔다. 선장은 동갑벌이 돼보이는 듬직하고 말수 적은 사람인데 며칠째 수염도 밀지 못했는지 시꺼먼 구레나룻이 볼에 덮여 있었다. 문옆에 붙여 놓은 걸상에 앉으며 송철만은 담배갑을 꺼내 붙여 선장에게 권하고 자기도 피워 물었다.
《어디서 동원되여 왔습니까?》
《서해 항만이우다.》 컴컴한 시창을 내다 보며 선장이 대답했다.
송철만은 선장더러 이런 파도에 배를 몰아 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선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처음이면… 무섭지 않습니까?》
선장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왜 안 무섭겠수. 해두 국장어른이 타고 있으니 좀 안심이 갑니다.》
《허허, 나는 오히려 선장동무를 믿고 있는데요. …》
밖은 캄캄칠야여서 파도를 볼수 없었지만 배가 오르내리는 느낌만으로도 바다가 점점 더 사나와지고 있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한순간 파도마루에 올라 서는듯 곧추 쳐들리던 배머리가 갑자기 꺼져 내리며 선미쪽에서 기관총련발사격 같은 날카롭고 메마른 소리가 울려 왔다. 그것은 추진기가 물밖에 나와 헛도는 소리였다. 인차 《기관총사격》은 멎었지만 대신 선체 어디선가 쿵—하고 둔한 충격이 느껴지는 찰나, 배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밤하늘을 향해 다시 곤두서는 배머리… 무시로 배전을 넘어 와 선실지붕이 아니면 조타실유리창을 두드리고는 좌르르 부서져 내리는 파도… 명주필이 찢기는것 같은 앙칼진 바람소리… 그런 혼돈속에서도 철만은 밀려 드는 피곤을 이길수 없어 조타실벽에 잔등을 붙이고 끄덕끄덕 졸았다.
졸다가 배가 몹시 들까부는 바람에 조타실바닥에 나떨어져서야 정신이 들었다. 걸상에 올라 앉은 그는 배의 위치를 물었다. 선장의 대답이 조금전에 토언제코숭이를 지나 왔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일 없을것 같다는것이였다. 느낌에도 파도가 좀 약해 진것 같고 배도 덜 흔들리는것 같았다. 여기서라면 함형부재장과 통화도 가능할것 같아 그는 휴대용무선통화기를 동작시켰다.
《6번, 6번, 나 1번이다. 정황을 보고하라.》
아무 응답도 없었다. 다시 찾아 보았지만 역시 응답이 없어서 아직 송수신거리가 안되는가부다 하고 기본언제공사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함형부재생산을 책임진 부대장의 숨찬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1번, 나 6번이다. 정황을 보고하겠다. 제방이 못 견딜것 같다. 파도에 제방 바깥쪽이 계속 패워 나간다. 여기저기 터진 구간은 막고 있지만 얼마 지탱하지 못할것 같다. 부재장에서 기재

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을 달라. …》

기재를 철수하다니? 그건 제방을 포기할수도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사태가 그렇게 위급하단 말인가? 하지만 제방을 포기해서는 안되였다.

그는 누가 기재철수를 제기하는가고 물었다. 전권대표의 의견이라는 대답이 왔다.

(전권대표?…)

《6번, 들으라. 기재를 철수하느라고 인원을 분산시키지 말라. 제방에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 30분이내로 도착하겠다. 그때까지 무조건 견지하라. 알겠는가?》

《알았다, 견지하겠다.》

통화를 끝낸 철만은 초조감에 쫓기며 선장더러 만속을 놓으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배는 이미 자기마력을 다 내고 있었다.

《국장이 뭐라오.》

부대장이 통화를 끝내자 상설은 손에 든 홰불방망이를 바꾸어 쥐며 성급히 물었다. 그러나 바람소리때문에 알아 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되물어 왔다. 그래 입을 귀에 대고 다시 소리를 질러서야 저쪽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받아 고함을 질렀다.

《철수하지 말고… 견지하랍니다. 견지…》

《어떻게 견지한다는거요?》 윤상설이 소리쳤다.

《아무튼 견지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란 말입니다.》

국장과의 무선통화가 있기전에 철수문제때문에 벌써 의견이 충돌한터여서 두사람의 말속에는 피차 감정이 깔려 있었다.

《여보… 동무는 지휘관이란 사람이… 왜 아까부터 답답한 소리만 하오. 국장은 여기 형편을 다 몰라서 그런다치고… 동무야 현장책임자로서… 정황을 랭정하게 판단해야 할게 아니요?》

상설은 어차피 터지기마련인 제방을 붙안고 헛수고를 하기보다 인원들을 기자재철수에 돌림으로써 있을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자는 생각이였다. 그가 보기에는 제방의 운명이 이미 경각에 달해서 견지한다는것은 무모한것이였다. 견지하느라고 시간

을 끌다가 량쪽이 먼저 무너지는 날엔 인원철수도 못하고 수천의 생명이 물에 휘말려 들수도 있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디선가 또 뚝이 터진다는 다급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 상설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여럿이 다급히 소리칠 때에는 뚝이 터져도 이만저만하게 터지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다. 철수를 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발등에 떨어 진 불부터 끄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벌써 저만치 가 있는 부대장의 뒤를 따라 천방지축 내달았다. 머리우에서는 쥐고 있는 방망이홰불이 이리저리 나누우며 푹 젖어 물이 줄줄 흐르는 머리와 몸을 어룽어룽 비치였다. 흙가마니를 메고 지고 끌고 헉헉 단숨을 뿜으며 달려 가고 달려오는 군인들과 이리저리 부딪치며 한참 가느라니 터진 제방구간이 나타났다. 파도에 깎이워 소로길처럼 가늘어 진 제방 웃폭이 10여메터 뚝 잘려나가고 잘린 구간으로는 벌써 물이 넘고 있었다. 그런대로 뚝이 심부까지 아주 잘리지 않은것은 군인들이 팔에 팔을 겯고 겹겹이 늘어 서서 밀려 드는 파도를 가슴으로 막아내고 있는 덕분이였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물이 얼마간 기세가 꺾인 제방 안쪽으로부터 흙가마니가 쌓여 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흐름을 멈추지 못해서 던져 넣은 흙가마니가 그대로 물살에 떠밀려 제방밑으로 굴러 내리기도 하였다. 또하나 그렇게 굴러 내리기 직전의 흙가마니가 눈에 띄우자 그는 홰불방망이를 내던지며 무작정 뛰여 들어 덮쳐 잡았다. 잡기는 했으나 끌어 올리기에는 힘이 모자라 도리여 흙가마니에 끌려 가던중 누군가의 드센 팔이 도와주어 가까스로 끌어올릴수 있었다.

송철만국장이 현장에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군인들을 도와 흙가마니를 쌓다가 누군가 알려 주어 보니 언제 왔는지 국장이 제방우에 서 있었다. 상설은 이 태풍속에 그가 바다를 무사히 건너 온것이 우선 놀라왔다. 창황중에서도 역시 군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건 순간의 일이고 물에서 나와 마주서자 끝살부리쪽 형편부터 물었다. 송철만은 전지불로 파도가

물어 뜯는 제방 바깥면을 살피며 뭐라고 했는데 말이 바람에 삼키워 알아 들을수 없었다. 윤상설에게는 그가 《거긴 별일 없다》고 말한것으로 짐작되였다.

《여긴 안되겠소. 웃폭이 저렇게 가늘어 졌을 땐 밑도리도 적잖게 옯어 졌다는 소리요. 이젠 늦었소.》

제방이 통채로 붕괴되기전에 인원들이라도 철수해야 한다고 그는 력설하였다.

송철만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렇다 할 결심이 서지 않은듯 제방을 들이 받고 날아 와 얼굴에 휘뿌려 지는 물보라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며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밟아도 보고 전지불로 비쳐도 보고 넘어 들어 오는 물을 제압하느라고 오글복작거리는 절단구간도 살피고 하더니 마침내 무선통화기를 들어 102부대장을 찾았다.

부대장이 나오자 그는 기본언제공사장형편을 물었다. 윤상설이 듣건대 그쪽의 형편도 좋지는 못하였다. 여기처럼 급하지는 않다 해도 파도가 다져지지 못한 언제코숭이를 사정없이 잘라 가는데 없어 진 제방뚝이 벌써 10여메터나 된다는것이였다.

부대장의 정황보고가 끝나자 송철만은 함형부재장형편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그곳 기본언제공사장에서 두개 부대를 떼서 마대와 가마니를 있는껏 모아 가지고 20분이내로 부재장제방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아니,그럼 철수는 안하겠다는거요?》

송철만이 통화를 끝내기 바쁘게 상설은 얼굴에 들씌워 지는 물보라를 손바닥으로 훑어 던지며 따지고 들었다. 그런데 송철만의 표정이 의외로 사나와 졌다. 이제껏 그리도 의합이 잘되던 그들이건만 자연과의 이 피어린 전쟁에서 어찌 서로 목청을 높이지 않을수 있으랴.

《철수는 무슨놈의 철수를 한단 말이요? 죽는게 그렇게 무섭소?… 안되오. 철수하겠으면 혼자 하시오. 우린 죽더래도 이 제방과 함께 죽어야 할 사람들이요.》

물론 윤상설은 파도소리때문에 그말을 정확히 가려 듣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감정만은 명백히 알려서 맞받아 소리 질렀다.

《여보, 누가 제목숨이 아까워서 그러는줄 아오? 이 숱한 젊은이들》

일건의 바람이 파도를 날라다 두사람의 머리우에 들씌워 놓는 바람에 그는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 물투레를 불며 다시 입을 열려는데 이번에는 송철만의 가슴앞에 드리워 있는 무선통화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1번, 1번을 찾는다. … 1번이 어디 있는가? 1번…》

송철만이 대답했다.

《나 1번이다. 부재장제방에 있다. 무슨 일인가?》

《10번이다. 관리국상점에 화재가 발생했다. 린접한 후방창고들에 불이 옮겨 앉을 위험이 있다. 소방인원들이 필요하다.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

재앙은 홀로 다니기 싫어 한다. 언제나 쌍으로 오는 잔인한 불청객이다.

윤상설은 겹쳐 들이 닥치는 재난앞에서 정신이 얼떨떨해 졌다. 하면서도 이제야 송철만이 철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허나 그것은 때이른 단정이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을 꽉 앙다문채 잠시 눈을 감고 서 있던 그는 먹붓을 잘라 붙인것 같은 그 위엄스런 눈섭을 한번 꿈틀하더니 갑자기 사납게 소리 질렀다.

《지금 소방인원이 어디 있는가?… 보낼 사람이 없다! 상점은 버리고 후방창고들에 불이 이전되지 않게 하라! 알겠는가?》

《알겠다. 지시대로 하겠다.》

윤상설은 갑자기 목구멍이 바싹 말라 드는 감을 느꼈다. 그는 송철만에게 철수를 요구하는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공담에 지나지 않는가를 비로소 깨닫는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하지 않은들 이 바람, 이 파도속에 어떻게 제방을 견지한단 말인가. 제방의 운명은 이미 경각에 이른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듯 어디선가 또 뚝이 터진다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

18

쏘파 팔걸이에 기대 앉아 쪽잠에 드셨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잠결에 무릎이 선뜩한 감촉을 느끼며 눈을 뜨시였다. 보니 손에 쥐고 계시던 문건이 무릎우에 떨어 져 있었다. 문건을 접어 집무탁우에 올려 놓고 시계를 본 그이께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간데 저으기 놀라시였다. 기껏해야 두세시쯤 되였을것으로 짐작하셨는데 시간은 벌써 새벽 4시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하기는 그이께서도 시간, 특히 밤시간의 지루함을 몹시 느껴본적은 있으시였다. 7살때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뒤 엄마를 찾으며 울고 우는 어린 동생을 달래며 아버님을 기다려 잠 못 이루던 그 시절의 밤은 얼마나 길고 지루하였던가？！…

하지만 그때 이후로 두번 다시 시간의 더딤이나 적게 갔음을 모르고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숙명처럼 시간의 부족을 느끼시는 그이이시였다.

다시 집무를 보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바깥 바람을 좀 쐬려고 일어 나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문발을 걷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날카로운 휘파람소리와 함께 일진광풍이 창문을 떠밀고 들어 와 가슴에 꽉 안기는바람에 그이께서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시였다. 잘못하다가는 창유리를 깰수도 있어서 그이께서는 문고리를 단단히 잡으며 창턱에 바투 다가서 정원을 굽어 보시였다. 아래층들에 불이 켜져 있는 방은 없는듯 정원은 어둠속에 깊이 잠겨 있는데 울타리를 따라 소소리높이 자라 오른 백양나무들이 불어 치는 바람속에 태질을 하며 밤하늘을 쓸고 있었다.

바람세로 보아 서북풍이였다. 평양에서 이 정도로 불면 서해 해상이나 바다가에서는 태풍이 불기가 십상이였다. 그러자 엊저녁 책임서기가 무슨 태풍에 대한 말을 했다는데 생각이 미치였다. 서

둘러 창문을 닫고 집무탁으로 되돌아 오신 그이께서는 급히 송수화기를 들어 기상수문국에 일기상황을 알아 보시였다. 짐작하신대로 태풍이였다.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대만 수역을 거쳐 예견보다 2시간 앞서 간밤 10시경에 조선서해 해상에 당도한 《태풍 5호》는 옹근 다섯시간동안 25키로메터의 시속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한시간전부터 약해 지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돌려 총참모부를 찾으시였다. 총참모부에서 전화를 받은것은 제1부총참모장이였다. 전화상으로나마 오래간만에 만나 보는터였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느때처럼 그의 건강상태며 가족들의 안부부터 물을 짬이 없었다.

《… 지금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피해가 없었습니까?》

송수화기에서 1부총참모장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리였다.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피해가 좀 있습니다. 가물막이공사장에서는 어제 조립한 철배가 하나 넘어 지고 기본언제가 거의 20메터나 줄어 들었습니다. 류실된 흙량이 줄잡아 한 3～4만립방이 잘되는것 같습니다.》

류실된 흙량이 3～4만립방메터이면 적은 량이 아니였다.

《함형부재장은 어떻습니까?》

《제일 큰 위험은 거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부재장제방뚝이 순수 감탕뚝이다보니 파도에 웃폭이 다 깎여 나가고 터지기도 많이 한것을 군인들이 몸으로 성을 쌓으면서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내심 놀라시였다. 파도에 웃폭이 다 깎인 감탕제방을 군인들이 몸으로 막아 냈다면 정황이 대단히 위급했다는 소리였다.

《그래 지금은 어떻답니까?》

《이젠 바람과 파도도 좀 숙어 들고 그만하면 방비대책도 세워졌습니다. 급한 고비는 넘긴것 같습니다.》

불과 달포전에 나가 본 갑문건설장이여서 그이께서는 1부총참

모장의 말이 죄다 실감으로 느껴지시였다. 그러느라니 군인들이 온밤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인명사고가 없었는지, 그것이 못내 걱정되시였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건설관리국 군인상점이 불탔습니다.》

《화재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태풍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해독행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합니다.》

(해독행위?…)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오른손에 넘겨 쥐며 잠시 생각하시였다. 해독행위일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놈들이 군인상점에 불을 질러 무엇을 얻자고 했겠는가.

《사고원인을 빨리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철만국장동무가 그 사고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는데 너무 걱정말라고 하시오. 상점이 불 탄건 불 탄거고 중요한건 갑문건설입니다. 태풍피해를 속히 수습하고 전번에 방향을 준대로 가물막이에 중심을 두고 와짝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1부총참모장과의 전화를 끝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수산부와 해운부 그리고 농업위원회를 차례로 찾으시여 태풍피해정형을 알아 보시였다. 수산부나 해운부에서는 선박들이 제때에 대피해서 별일 없었지만 농업위원회의 대답은 그렇지 못했다. 벼랭상모가 한창 자라 오르는 서해안지대 농촌들에서 간밤 태풍으로 모판에 씌웠던 비닐박막들을 많이 잃었는데 피해를 그중 많이 본것은 평북도의 간석지농장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를 돌려 정무원총리를 찾으시였다. 총리는 집에 있었는데 그도 역시 잠을 깨여 태풍피해정형을 알아 보던 중이였다.

《…나도 그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고 문제라면 바람이 벼랭상모판의 비닐박막을 벗겨 간것인데… 빨리 대책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위원회에 박막예비가 좀 있습니다. 그걸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의 말이였다.

《예비가 있으면 빨리 공급해 줍시다. 그러나 철도를 리용한

다든가 도에서 타 가라고 하면 늦어 질수 있으니 자동차로 매 협동농장까지 실어다 주어야 합니다. 정무원수송대 차들이 요새 무얼 합니까?》

《수송대 차들은 지금 다 태천과 북부철길에 나가 세멘트집중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되겠구만.》

《…》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집시다. 인민무력부에 일임하는것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비닐박막수송문제를 그렇게 스스로 맡아 안으신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화제를 돌려 물으시였다.

《하바롭스크에선 무슨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까?》

쏘련의 하바롭스크에서는 씨비리에서의 채벌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림업대표단과 쏘련 림업성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제 텔렉스가 오긴 했는데… 쏘련사람들이 종전 립장을 그냥 고집하면서 새로운 조건부까지 들고 나온답니다.》

《새로운 조건부라는건?》

《우리 벌목로동자들의 상주기간을 배로 늘이고 2년 주기로 채벌기계를 갱신하라는겁니다. 자기네것을 사서…》

그것은 로골적인 내정간섭이고 강권으로 돈을 벌자는 속심이였다.

《쏘련 림업성이 안기부 돈낚시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만. 아예 발가벗고 나오는걸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전후부터 시작된 씨비리에서의 벌목은 두 나라 정부간 협약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여왔다. 그런데 작년 그러께부터 쏘련측은 론리가 맞지도 않는 국제목재시장에서의 가격변화를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분배할당량의 조절을 요구하여 나섰다.

다시 말하여 채벌한 통나무의 더 많은 몫을 자기들이 먹어야겠다는것이였다. 물론 이것은 부당한 요구였다. 그리고 그 부당한 요구의 리면에는 쏘련 림업성의 몇몇 실권자들을 매수한

남조선 안기부의 검은 돈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내정문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태여 내막을 파 헤치지 않았고 요구도 일정하게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쏘련 림업성측은 최근 또다시 8대 2라는 엄청난 분배몫을 요구하였다. 즉 채벌한 목재량의 《8》을 자기들이 가지겠다는것이였다. 거기에 우리 벌목로동자들의 상주기간을 늘이라, 채벌기계를 갱신하라고까지 하니 이것은 돈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어 버린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었다.

《쏘련 림업성에서 그렇게 나오면 통나무문제가 어려워 질것 같은데 정무원에서는 무슨 대책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일동지의 물으심이였다. 총리는 얼마간 시간을 끌고서야 대답하였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직 이렇다 할 방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수령님께서 쏘련에 한번 갔다오셔야 해결되겠는지… 회담이나 해서는 풀릴것 같지 않습니다.》

말끝에 총리는 한숨을 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수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담결과가 나쁘면 아무래도 자신께서 한번 쏘련에 갔다와야 할것 같다고… 물론 수령님께서 갔다오시면 해결될것입니다. 하지만 수령님의 년세가 이젠 칠순을 넘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뜩 있으면서 년로한 수령님께서 그 힘든 걸음을 하시게 한다는건 도리가 아닙니다. 인민들이 알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무원에 다른 안이 없다면 이렇게 합시다.》 송수화기를 바꾸어 쥐며 그이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하바롭스크에는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더 이상 양보하지 말라고 통지해야겠습니다. 나라의 존엄을 통나무와 바꿀순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에 의거해서 건설을 벌려 나가도록 합시다. 통나무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내생산량으로는 탄광, 광산의 동발이나 충당할수 있지 건설부문에는 주기 바쁠것 같습니다.》

총리의 말이였다.

《그렇다면 대상건설을 자릅시다. 채취공업을 죽이면서 건설을 벌릴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포갑문건설은 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발을 좀 떼서라도…》

《남포갑문… 아니, 거기도 자릅시다. 거기서 통나무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함형부재생산인데 그건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총리와의 통화를 그렇게 끝낸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려다 말고 제창 전화를 돌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대장을 찾으시였다. 대장도 집에 있었다. 그이께서는 어려워질것으로 예견되는 통나무형편과 대상건설분을 자르지 않으면 안되는 리유 그리고 남포갑문건설도 례외로 될수 없다는데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고 맥을 놓아선 안됩니다. 전번 갑문건설장에 나가서 말했지만 중요한것은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통나무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이 없어도 남포갑문은 무조건 5년동안에 완공해야 한다, 이런 굳은 각오만 있으면 방도도 생기고 출로도 열립니다. 송철만동무에게 이런 점을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나무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회수리용할것은 없는가? 대용자재도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 갑문건설장에서 통나무를 제일 많이 쓰는데가 함형부재장인데 어쨌든 예비는 거기서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오진우의 힘 있는 대답과 함께 통화는 끝났다.

그때 창밖은 벌써 다 밝은 아침이였다.

수재와 화재를 어느쪽이 더 무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

은 물대로 사정 없고 불은 불대로 무자비한것이다. 하물며 그 두 재앙이 함께 온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랴!

날이 밝은 무렵, 감탕이 게발리고 푹 젖은 차림새 그대로 페허가 된 군인상점을 돌아 보고난 송철만은 생각했던것보다 사고현장이 너무 참혹한데 놀랐고 기가 막혔다. 간밤 후방부국장으로부터 화재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부재장제방이 하도 위급한 상태라 이런데 관심할 겨를도 없었다. 또 군상이 하나 불 타는것쯤은 별로 크게 생각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런것도 아니였다. 상점에는 수만명의 군인건설자들에게 팔아 주고 공급해야 할 3개월분의 각종 상품과 물자들이 있었다. 그 모든것이 죄다 불 타버리고 남은것이란 타다만 통나무트라스들과 군데군데 허물어 져 내리고 시꺼멓게 끄슬린 벽체들뿐이였다. 군상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남은것이 한가지 더 있었는데 상품목록과 판매대장이였다. 월말이라 실사준비를 하느라고 어느 판매원이 집에 가지고 들어 가서 재앙을 면했던 것이다.

더 돌아 볼 필요를 느끼지 않고 마당으로 나온 송철만은 군상책임자에게 손실액을 물었다. 상점책임자는 사십대의 둥글넙적한 녀인인데 한절반 얼이 빠져 퀭해 진 눈으로 페허가 된 상점을 멍하니 쳐다보다 말고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십… 아니 십이만원어칩니다.》

12만원어치나 불 태웠으면 손실이 적다고 볼수 없었다. 사고원인이 어떻게 밝혀 지는가 하는건 둘째치고 우선 국장으로서 자기부터 국가앞에 법적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이 난 원인은 뭐라고 추측되오?》

《창고예요. 창고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였지만 송철만은 다시 묻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활짝 밝았다. 그 이상 지체할 필요도 시간도 없었으므로 그는 화재현장을 떠나 국지휘부로 들어 갔다. 지휘부에 도착한 즉시 부대 직일관에게 1시간내로 부대장, 참모장이상 지휘관들을 부르라고 지시한 그는 방에 들어 서자 긴장이 탁 풀리며 젖은 옷을 갈

아 입을 기운조차 없어 문옆의 장의자에 주저앉았다. 간밤 태풍 속에 바다를 건너 온 이후로 잠은 고사하고 지금껏 단 한번 앉아보지조차 못한 그였다. 몸이 금시 물 먹은 솜처럼 풀리며 눈까풀이 천근무게로 느껴졌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주 곯아 떨어 질수도 있겠기에 싫은대로 옷을 갈아 입으려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문기척과 함께 부국장 황석전이 방에 들어 온것이 바로 이때였다. 무엇때문인지 그는 어지간히 흥분한 기색이였다.

《찾아 냈습니다.》

철만은 황석전의 밑도 끝도 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해 졌다.

《찾아 내다니?…》

《군상에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을 말입니다. 박선봉이라고… 해상부대 연공소대 중사인데…》

《아니 박선봉이가 불을 놓았단 말이요?》 철만은 부국장이 무슨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선봉이가 제입으로 식당고정근무를 서노라고 하던것이 불과 며칠전이였다.

《박선봉이를 아십니까?》

《아오. 한데 그가 어째서 군상에 불을 놓았다는거요?》

황석전은 사건경위를 설명하였다.

《…조명선이 용접기부하를 이겨 내지 못하고 창고안에서 녹아 끊어 졌지요. 그때 일어 난 불꽃이 피복류에 떨어져 서서히 타다가 태풍이 불자 불길이 확 일어 난것 같습니다.》

송철만은 부국장의 말이 납득되였다. 하지만 혹시 하는 생각으로 물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오? 자기의 실책으로 군상에 화재가 일어 났다는걸…》

《물론이지요.》

송철만의 눈앞에는 박선봉의 능청스러우면서도 쾌활한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찾아 와 장기를 두는 중에 중사로 강직된 사실을 고백하면서 잠수병으로 돌려 달라고 하던 일도 상기되였다. 그때 그의 부탁을 들어 주었더라면 오늘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후회를 금할수 없었다.

《하니까 박선봉이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오?… 고의적인 방화야 아니지 않소?》

《어쨌든 국가에 12만원의 손실을 주었으니 법적제재는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기는 달리 될수 없었다. 송철만은 옷을 갈아 입으려던 생각조차 까맣게 잊고 태풍이 가져 온 재난의 깊이를 들여다 보듯 고개를 떨구고 발부리만 멍하니 내려다 보았다.

강충일중장과 함께 오진우대장이 갑문건설장에 온것은 아침 7시경이였다.

제 3 편

1

모스크바－평양간 려객기 《EL－62》는 구름우 1만메터 상공에서 정상비행을 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를 떠난지도 이제는 거의 일곱시간, 려행에 지친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을 자고 자지 않는 사람들은 실내의 정숙을 깨칠세라 옆사람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미 본 신문과 화보들을 다시 뒤적거렸다. 그나마 싫증 난 사람들은 기창을 내다보며 나름의 명상에 잠겨 있는데 로베르 바넬은 바로 그 네번째부류에 속하는 승객이였다. 수리공학박사로서 빠리종합대학교수이고 국제수리학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당년 일흔두살의 로인이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퍼그나 젊고 정력도 왕성해 보였다. 객실중간쯤인 그의 옆좌석에 앉아 있는, 가을단풍인양 활활 불 타는 금발에 눈이 청옥처럼 푸른 미모의 처녀로 말하면 바넬의 손녀딸 옌니였다. 옌니는 할아버지의 존재는 아예 잊어 버린듯 비행기에 올라서 사귄 옆좌석의 젊은 인디아사람과 아까부터 영어로 줄곧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속에서 가끔 《**김일성**주석》, 《주체사상》, 《파고다(탑)》하는 말들이 들리는것으로 보아 이제 얼마후에 가닿게 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 같았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라면 바넬도 호기심이 없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끼여 들고 싶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싫어 할수 있다는 늙은이다운 소심성때문에 단념하고 시선을 기창에 준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군 하였다. 기창으로는 해빛을 받아 거의 원색으로 표백된 흰 구름이 가깝게 내려다 보였다. 창을 열고 풍덩 뛰여 내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늘의 경치였다.

《그럼 조선의 주체사상탑이 우리 빠리의 에펠탑보다 더 멋 있다는거예요？… 에펠탑은 인류를 현대문명에로 도약시킨 19세기의 총화와도 같은 탑이라는걸 알아야 해요.》

프랑스인다운 긍지를 가지고 하는 옌니의 말이였다.

《에펠탑이 19세기의 총화와 같다는 견해에는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주체사상탑에는 이 20세기를, 아니 인류의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가씨도 가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170메터의 높이를 가진 그 탑우에서는 깊은 밤에도 쉬임없이 불길이 타오르는데… 아, 그건 정말 황홀합니다.》

어조로 보아 인디아청년은 진정으로 조선의 주체사상탑에 매혹을 느끼고 있는것 같았다. 옌니가 물었다.

《탑우에서 타오르는건 무슨 불인가요？》

《등불이지요.》

《등불？》

옌니는 잘 리해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리해되지 않기는 바넬도 마찬가지였다. 나름의 판단으로 언젠가 쓰딸린그라드의 마마예브언덕 지하광실에서 본 영웅전사들의 묘지에서 타오르는 가스등불 비슷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말해야 리해하겠는지.》 제편에서 안타까와 하는 인디아청년의 말이였다.

《혹시 아가씨는 타고르의 시를 읽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가 유명한 성인이고 시인이라는건 알지만 시는 읽어 보지 못했어요.》 얼마간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한 옌니의 대답이였다.

《옳습니다. 타고르는 우리 인디아가 낳은 대성인이고 탁월한 시인입니다. 그의 문집속에 〈조선〉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 보겠습니까？》

옌니는 기꺼이 응낙하였다. 그러자 인디아청년은 벵갈사람 특유의 짓눌린 목소리로 조용조용 시를 읊었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시가 좋군요.》 옌니의 반응이였다. 《하니까 주체사상탑우에서 타오르는것이 타고르가 말한 그 등불이라는거죠?》

《아, 리해했군요. 옳습니다. 그 다시 켜진 등불이 주체사상의 홰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조선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20세기에 희망의 빛을 안겨 주는 〈북극성〉 같은 나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옌니는 한동안 잠잠해 있었다.

《듣고 보니 조선은 참 재미 있는 나라군요. 신비스러운데도 있고… 그런데 굽타씨는 어쩜 조선에 대해 그리도 잘 아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이라구… 이번까지 나는 다섯번째로 조선에 갑니다.》

《다섯번이면… 그럼 조선에서 현재 건설중에 있다는 남포갑문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군요?》

옌니의 물음에 굽타는 갑문건설은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잘은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 뭐랄가?… 한마디로 그것은 현대조선의 위력을 느낄수 있게 하는 대걸작품입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세기에 인류는 인공위성 다음으로 조선의 남포갑문을 또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하게 될것입니다.》

(？！…)

인디아청년의 말은 로베르 바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국제수리학협회 회원이고 오랜 벗인 스위스 수리공학자 스파크도 그렇게 말했었다. 쏘련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정복의 문을 열어 놓은것이 하나의 기적으로 된다면 조선사람들은 남포갑문을 건설하여 바다를 정복하는것으로써 금세기에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고… 그런데 스파크가 하던 말과 꼭 같은 말을 여기 조선으로 가는 1만메터 상공의 려객기안에서 그것도 평범한 인디아청년의 입에서 다시 듣게 되니 바넬로서는 놀라움

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 조선을 방문하기로 결심한것이 과히 헛된 결심은 아니란 말인가?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갑문건설때문에 조선을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물론 조선에서 최대규모의 갑문건설을 시도하여 착공까지 했다는 보도는 들은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개된 건설규모와 시공조건을 사실로 믿을수 없었다. 더우기 그런 대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한다는것은 세상을 한번 놀래워보려는 과장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선에서의 남포갑문건설보도에 대한 신문 《몽드》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도교도답게 신의 이름을 빌어 전면 부정한것은 바로 그러한 관념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러나 시간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만을 옳은것이라고 고집할수 없게 하였다. 조선의 남포갑문건설소식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로 떠오르면서 학계의 화제거리로 되였다. 그러던중 지난 8월에 있은 국제수리학협회 유럽지역 비정기회의에서는 가물막이가 끝나가는 조선의 남포갑문건설장에 학회의 명의로 대표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였다. 그 주창자가 다름아닌 스파크였다. 오랜 벗인가 하면 학술상의 론적이기도 한 스파크는 학회가 끝난 날 저녁 단둘이 만난 기회에 이런 충고까지 했었다.

《바넬,내 모임에서도 말했네만 과거의 눈으로 오늘의 아시아를 보지 말게. 확언하는바 거기서는 지금 문명에로의 거대한 진보가 이룩되고 있네. 조선의 남포갑문은 바로 그 한 실례지. 그런즉 지체 말고 결심하게. 대표단을 파견하는것이 어렵다면 개인자격으로라도 가보게. 혹시 알겠나? 자네의 〈도바횡단〉에 도움이 될 공법을 거기서 찾게 될런지…》

스파크가 말한 《도바횡단》이란 바넬이 구상완성한 바다밑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련결하는 도바해협횡단철도설계를 의미하였다. 바넬이 그 해저횡단턴넬설계를 완성한것은 벌써 여러해전이였다. 그러나 새롭고 확신 있는 시공방법을 찾지 못한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지상공론으로 남아 있었다.

바넬은 신중하지 않을수 없었다. 벗의 권고도 권고려니와 회

의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보아서도 조선의 남포갑문을 그이상 외면한다는것은 학자로서의 편협과 보수성을 드러내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하여 여러날 깊이 생각하던 끝에 그는 드디여 벗의 권고를 받아 들이기로 결심하였다. 대표단파견은 보다 심중한 문제이므로 자신이 먼저 현지를 밟아 보고 책정할 작정이였다.

조선을 방문함에 있어서 바넬은 외교적경로가 아닌 관광통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려행계획속에 텔레비죤방송국 촬영기자인 손녀딸 엔니를 끌어 넣었다. 그가 엔니를 려행계획에 포함시킨것은 사랑하는 손녀딸에게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주자는 목적과 함께 그의 촬영기술이 필요했기때문이였다. 이번 걸음에 그는 스파크가 그토록 높이 평가한 조선이란 나라의 이모저모와 건설중에 있는 남포갑문의 전모를 필림에 담아 올 예정이였다.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관광회사로부터 려권을 발급 받자 그들은 모스크바행기차에 올랐다.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를 바꾸어 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9시경이였다.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 객석을 둘러 본 바넬은 빈 자리가 없이 가득찬 승객의 대부분이 주로 아랍인들과 자기와 피부색이 같은 유럽사람들이라는데 놀랐다.

(… 나나 엔니의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만 이 많은 유럽사람들과 아랍인들은 무슨 일로 그 먼 극동의 나라로 가는 것인가？…) 바넬은 그들모두를 관광이나 기업거래상 필요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없었다. 기업인들이라고 볼수 없는것은 북조선의 경제력이 유럽이나 아랍나라들과 거래할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관념이 작용했기때문이고 관광객이라고 볼수 없는 근거는 지금이 피서의 계절이 아닌데다 관광지로서도 조선이 세상에 별로 알려 지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북조선으로 가는 리유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혼자의 생각으로 아무래도 의문을 풀길 없어 그는 엔니와 의논해 보았다. 하지만 엔니라고 그 리유를 알 까닭이 없어 풀길 없는 수수께끼로 치부해 버리려는 때에 승무제복차림의 어여쁜 안내원처녀가 객실

로 들어 왔다.

(옳지, 저 안내양을 통하면 알수 있을것이다. 려객기에는 승객들의 려권등록부가 있을테니까. …)

생각이 거기에 미친 바넬은 안내양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영어로 꼭 필요해서 그러니 려권등록본을 좀 볼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금시까지 상냥한 미소가 떠돌던 처녀의 표정이 갑자기 엄격해 지며 눈에 경계의 빛이 떠돌았다. 그런 경우를 예견못했던 바넬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려권등록본을 보여 달라고 했을뿐인데 안내원이 왜 저런 눈길로 보는것인가? 혹시 나를 려객기랍치를 기도하는 늙은 마피아로 판단한것이나 아닌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리만큼 안내원의 눈길은 날카로왔다.

《월츠 더 뢰즌 댓 이티ー 즈 니딛 투유?》

(《무엇때문에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채 안내원처녀가 정확한 영어발음으로 물었다.

《비코ー 즈…》(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하기엔 어쩐지 멋적은 생각이 들어 대답을 갑자르고 있는중에 엔니가 재빨리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처녀안내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 두사람을 의심쩍게 훑어 보더니 랭정하게 잘라 말했다.

《규정상 손님들에게 려권등록본을 보일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제 생각만 하다나니 그만…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덧붙여 엔니도 사죄했다. 그제야 안내원처녀는 의심을 풀며 상냥하게 당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는 조선에 가면 스스로 알게 될것이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다.

공연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톡톡히 망신만 당한 바넬은 이제 도착하여 모든것을 제눈으로 보고 확인하기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인디아젊은이가 아까부터 줄곧 조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껏 아무

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는 젊은이들을 방해하지 말자는 생각과 함께 그런 앵돌아진 심리의 작용도 있었다.

(그런데)하고 바넬은 처음의 생각으로 되돌아 갔다. (저 인디아청년이 스파크와 같이 조선의 남포갑문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극구 찬양하는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매스콤(선전)의 효과인가 아니면 그것이 진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기적창조물인가?…)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 과장된 선전의 효과로 얻어 진 화상 같아 보였다.

필경 그럴것이다. 구멍가게일수록 간판이 요란한 법이다. 게다가 오늘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범람하고 있는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기적,생물유전자를 하나 발견해도 기적,콤퓨터도 기적… 이렇게 흔해 빠진 기적의 세기에 조선에서라고 왜 그것을 만들어 내지 못한단 말인가!…

그는 이제 조선에 가서 보게 될 《기적》이 프랑스의 란스조수력발전소나 쏘련의 할바크발전소의 범위를 크게 넘지 못할것이라고 단정하였다. 큰 나라의 평범한것도 작은 나라에서는 신의 창조물처럼 외곡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북조선처럼 작고 경제력이 미약한 나라임에랴.

문득 객실안의 정숙을 깨치며 기내방송이 입을 열었다.

《손님 여러분,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려객기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착륙이 시작됩니다. 박띠를 조이고 내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띠를 조이고…》

조용하던 객실안이 갑자기 부산스러워 졌다. 그러는 사이에 려객기는 벌써 기수를 숙이며 구름속으로 내려 가고 있었다. 구름층이 엷어서 기창은 곧 밝아 졌다. 바넬은 천천히 박띠를 조이며 기창으로 대지를 내려다 보았다. 과연 조선은 산이 많은 나라였다. 높고 낮은 무수한 푸른 산발들이 파도쳐 간 저기 대지의 한끝에 한송이의 장미인양 도시의 둥근 자태가 꿈속에서처럼 나타났다. 평양이였다.

2

승용차는 강선을 지나 만경대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 오른 아침 여덟시반경이였다.

운전사옆 앞좌석등받이에 상체를 싣고 제빠듬하니 앉은 윤상설은 남포를 떠난이래 지금껏 해오던 가물막이마감공사에 대한 생각을 털어 버리고 앞창으로 멀리 9월의 높고 푸른 하늘을 내다보며 이 하루 평양에 들어 가 해야 할 일들을 두루 타산해 보았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 봐야 할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승용차 운행로선으로 보아 우선 철도부에 들려야 할것 같았다.

철도부에서는 이달에 생산해 주기로 되여 있는 60량의 세멘트운반용화차를 월말이 다 된 지금까지 절반밖에 넣어 주지 않고 있었다.

(… 그다음엔 설계연구소에 건너가 마감막이설계를 독촉해야겠다. 자재공급위원회에는 그다음 들리고…)

자재공급위원회에 가서는 싸움깨나 좀 해야 할것 같았다. 지금 건설장에서는 공화국창건 3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사회주의대건설의 실천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련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러한 비등된 열의와 로력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자재의 원만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재공급위원회에서는 말로는 남포갑문건설을 중시하며 최우선적으로 밀어 넣어 준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200개씩 주게 되여 있는 각종다이야를 이런 저런 구실로 자꾸 잘라 먹어서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격으로 받은 수보다 받지 못한 수자가 더 많은 형편이였다. 오늘은 책상을 두드리면서라도 기어이 받아 내지 않고서는 돌아 서지 않을 작정이였다.

(… 그러느라면 오전시간이 다 걸릴것이다. 오후에는 화학공

업부에 건너가 상반년도에 받지 못한 견인바줄용 비날론긴솜을 계획에 물려야 한다. 가만가만… 비날론긴솜보다 우선 중요한건 통나무다. 그러니 두번째는 국가계획위원회로 가야 한다. 화학공업부에는 그다음에 가고…)

하지만 그처럼 면밀히 짜놓은 계획이 정작 차가 시내에 들어 서 듯마듯 곧 헝클어 져 버렸다. 승용차가 평천다리를 건너 평양역쪽으로 막 내려 가는 때였다. 3선을 타고 뒤따라 오던 새파란 《벤즈》가 훌 앞서기에 무심히 건너다 보니 승용차뒤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다이야때문에 오늘 싸움깨나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이였다. 그래 상설은 운전사더러 《벤즈》를 바싹 따르라고 하였다. 만난김에 따라 가서라도 한가지 문제를 풀고 볼 심산이였다. 젊은 운전사는 자신이 있는지 히쭉 웃더니 속도를 놓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창건 35돐을 앞두고 벌써부터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평양역로타리를 돌아 곧추 **김일성**광장쪽으로 올라 가는 《벤즈》의 뒤꽁무니를 시선으로 붙잡은채 상설은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이 가야 할 곳을 점쳐 보았다. 1백화점쪽에서 꺾어 지면 정무원이고 옥류교를 건너 가면 로동행정부던가 동평양에 있는 어느 상사일것이다. 그러나 승용차는 1백화점에서도 종로에서도 방향을 꺾지 않고 곧장 모란봉쪽으로 올라 갔다. 그제야 그는 국가계획위원회로 갈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예견이 틀리지 않아서 결국 그는 국가계획위원회 정문앞에서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을 붙잡을수 있었다. 한때 동급에도 있었고 사업상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그는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자재공급위원회에선 계획분자재를 떼먹어도 목에 걸리지 않느냐고 낚시를 던졌다.

위원장은 대뜸 눈이 둥그래졌다.

《여보, 거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누가 무슨 계획분을 떼 먹었단 말이요?》

이쯤하면 낚시는 문셈이라고 보아 상설은 작년말에 지령을 받은 이후로 받지 못한 다이야수자를 달별로 렬거했다. 위원장은 그제야 깨도가 된듯 《오, 그것말이요?》하더니 최근 국제시장에서 생고무값이 갑자기 뛰여 올라 가는 바람에 무역계약들이 어떻게 튀

였다느니, 그통에 하성과 압록강다이야공장의 생산이 어찌어찌 되였다느니, 그래 비축했던것을 분배하면서 좀 떼기도 하고 잘라 먹기도 한다느니… 하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듣고 보니 리해되는바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사업이란 이런 때 리해를 보이면 닭 쫓던 개 울바자 쳐다 보는 격이 되고 만다. 게다가 위원장의 솔직하고 지어 사정하는것 같은 말속에는 갑문건설장에서 받지 못한 다이야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유야무야해 넘기려는 의도가 감추어 져 있었다. 야박한대로 까밝히고 후에라도 다 받아 낼수 있게 미리 못을 박아 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원장동무는 남포갑문건설장에 자동차가 몇댄지 압니까? 자그만치 500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기중기차니 적재차니 하는것까지 다 합치면 바퀴만 해도 4천 500개가 넘는데 한달에 120짝밖에 안주니 그걸 어느코에 바르라는가고 들이 댔다.

《아, 그러니 누가 있는걸 안주오. 당분간 좀 참고 기다리라지 않소?》

《그렇다면 참구 기다립시다. 그대신 위원장동무가 남포갑문건설기간을 그만치 연장시켜 주시오. 다이야는 못 받아도 좋으니 오늘 그 담보만은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는 촌보도 드티지 않고 바싹 들이 댔다. 할 말이 없는지 위원장은 한숨과 함께 타협책을 내놓았다. 다음달부턴 어떻게 하나 200짝씩 주도록 하겠으니 당분간은 좀 참아 달라는것이였다.

승패를 운명에 맡기며 마지막 주패장을 내미는것 같은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의 사정에 상설은 일순 마음이 약해 지는바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마감막이를 눈앞에 둔 때라 그에게도 더는 물러설 길이 없었다.

《그런즉 당장에는 안되겠다 그거지요?》

《…》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은 입이 쓴지 대답하지 않고 담배갑을 꺼내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린 이 실태를 당에 그대로 보고하고 필

요한 결론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후에 일이 복잡해 지거든 누굴 욕하지 말라고 오금을 박았다.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오늘 한번 부딪쳐 보고 종시 이발이 들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할 결심까지 하고 온 터였다. 그의 그런 내심이 짐작되였는지 위원장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풀썩풀썩 담배만 피우다 말고 쓰겁게 내뱉았다.

《됐소. 여보, 요구대로 줄테니 그 보고 드리는건 제발 그만두오. 세멘트가 걸려서 보고 드리고 강재에 또 뭐가 걸려서 보고 드리고 나중엔 다이야짝까지 걸렸다고 보고 드려서야 당에서 우리더러 뭐라겠소. 우린 또 뭘하는 인간들이구…》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상설은 내심 어리둥절한바가 없지 않았다. 허나 그 진정만은 조금도 의심되지 않아서 즉시 마음이 너누룩해 졌다.

《허허, 위원장동무가 인제야 옳게 생각하는것 같수다. 좀 늦기는 했어두. …》

그 말이 역스럽게 들렸던지 위원장은 못마땅한 눈길로 찔 흘겨보더니 등을 돌려 대고 계획위원회 정문안으로 들어 가 버렸다.

(고약한 령감 같으니, 아무래도 줄걸 더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되여서야 내놓는군!)

그만하면 마수걸이가 괜찮은 편이여서 기분이 흡족해 진 그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왔던김에 통나무전망이나 알아 보고 갈 작정으로 접수를 걸쳐 건재림업담당계획국으로 올라 갔다.

그가 막 국장실문고리를 쥐려는 때 복도끝에서 누군가 찾기에 보니 일을 다 보고 내려 갈 때나 만날 계획을 했던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였다. 무슨 일로 왔는지 위원장은 옆구리에 배가 불룩한 가죽가방과 함께 도면두루마리까지 끼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리 일찌기 여기 오셨습니까?》

인사를 겸해서 그렇게 물으며 상설은 위원장이 내미는 손을 잡았다.

《난 이것들때문에 왔소만(위원장은 옆구리에 낀 도면두루마리를 내밀었다.) 동무는?》

《올라 오긴 부, 위원회들에 〈빚 독촉〉을 하러 왔는데 통나무형편을 알아 볼가 해서 들렸습니다.》

위원장은 고개부터 저었다.

《통나무문제라면 알아 볼것두 없소.》

《〈씨비리〉에선 아직두 〈랭전〉입니까?》

대답대신 위원장은 저기 가서 앉자고 하며 그를 복도중간에 있는, 낡은 쏘파에 책상과 재털이가 갖추어 져 있는 홀로 데리고 갔다.

《씨비리쪽은 넘겨다 보지두 마오. 하바롭쓰크에서 하던 〈마라손회담〉은 종시 결렬되였소. 게다가 그 북극 〈곰〉들이 요샌 림지를 가지고 심술까지 부려서 통나무는 고사하고 개 칠 몽둥이 한대 못 나온다오. 림업대표부를 철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소.》

상설은 떡심이 풀려 말이 다 나가지 않았다. 재작년 언제부터인가 쏘련 림업성에서 이상한 조건부를 들고 나오면서 이미 체결한 정부간 계약수정을 꾀하고 있는 사정은 그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름의 판단으로 그것이 회담마당의 론의나 기껏해서 분배몫의 조절로 끝날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보니 형편이 여간 심각하지 않았다. 림업회담이 결렬되고 대표부철수문제까지 론의되는 형편이면 그 파동만으로도 통나무전망은 매우 어두운셈이였다.

《통나무는 그렇다 하고 마감막이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나왔소. 지금 심사중에 있소. 문제는 설계자가 공사기한을 너무 많이 잡은것인데 진통끝에 난산이라고 준비에 두달, 시공에 넉달을 본 여섯달내기구만.》

통나무때문에 가뜩이나 속이 답답하던 차에 마감막이설계가 여섯달짜리라는 소리에 상설은 그만 신경이 돋아 저도 모르게 성을 벌컥 냈다.

《아니, 년말까지 석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섯달짜리 설계가 나오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글쎄 그래서 문제라지 않소.》

《그건 문제일것도 없이 기각시켜야 합니다. 우린 그런 여섯달

내기를 접수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지지도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대로 가물막이를 올해중에 결속하자면 준비기간까지 합쳐 최소한 석달짜리는 돼야 합니다.》

《그에 대해선 심사자들도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말고 동무네 준비할거나 잘해놓소. 맞춤한 설계가 나오면 즉시 시작하게. …》

아직 다녀야 할 곳이 많고 더 앉아 있을 까닭도 없어 상설은 가야겠다며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눌러 던지고 일어 났다. 따라 일어 서던 위원장은 그제야 생각난듯 《참, 동무네 그 시공자료 묶은것 말이요. 백가지…》하고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그건 어쩌자고 묶은것이요?》

윤상설은 계단쪽으로 걸음을 내짚으며 심드렁한 어조로 대답했다.

《군인들이 건설속도에만 치중하면서 시공규정을 어기는 편향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좀 문제를 세우자고 장악했는데… 위원장동무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전번에 나갔을 때 거기 종합과장이 말해 주더구만. 그런 자료를 묶었는데 실태가 아주 나쁘다구. … 그래 달래 가지고 와서 요새 읽어 보았는데 대책을 세워두 빨리 세워야겠더구만.》

상설은 지난 주 위원장이 공사장에 나왔을 때 자기가 사리원역에 나가 있었고 또 종합과장이 자료와 관련해 무슨 말인가 했다는것을 비로소 상기하였다.

《제가 요새 경황이 없다 보니 그 문제는 감감 잊고 있었는데 인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은 세울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안에 대해 물었다. 상설은 종합된 자료를 송철만국장에게 넘겨 주어 자체투쟁을 벌리게 하던가 아니면 정식 당지도소조회의에 제기할 작정이라고 하였다.

《상대가 군인들인데 그렇게 앉아 입씨름이나 하는걸로 해결될가?》

《그러니 어쩝니까? 시공검사권을 내놓으라고 할순 없는게구…》

시공검사는 인민무력부가 자체로 하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내놓으라고 할수도 있지. … 좌우간 그 문제는 내

게 맡기오. 자료도 함께… 그건 내가 풀어 보겠소.》
《그래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그때문에 송철만동무와 릴가 봐 걱정이 많던참인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상설은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 놓은 심정이였다.
그가 위원장과 헤여져 국가계획위원회정문으로 나온것은 벌써 점심때가 다 된 11시 20분경이였다. 이제 어디 간대야 로상에서 점심시간이 되겠기에 그는 남은 일들을 오후에 보기로 하고 보통강구역에 있는 집으로 건너 갔다. 마침 집에는 안해가 밤근무를 서고 들어 와 있었다.
《애는 같이 안왔어요?》
등뒤로 운전사밖에 더 따라 들어 오는 사람이 없는것을 보고 돌아 서며 안해가 물었다.
《건호말이예요.》
《걔가 어떻게 오우? 군대가…》
《그래두 상관들한테 말을 좀 해서 데리구 올게지 혼자만 덜러덩…》
상설은 어이 없는중에도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안해의 심정이 리해되여 후에 형편을 봐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일이 바빠서 안된다고 하며 안방문턱을 넘어 섰다. 집에 와 본지 여러달 되여서 방안의 모든것들이 서먹하게 느껴 졌다.
《한데 이건 뭐이 이런것들이 이리 많소?》
양복상의에서 팔을 뽑다 말고 상설은 새장구니 꽃부채니 하는 것들에 색갈이 화사한 치마저고리까지 합쳐 웃목에 한무지,옷걸이와 재봉침밑에 각각 한무지씩 또 있는것이 눈에 띄여 물었다.
《이번 9.9절에 평양에서 100만명 군중시위를 한다는 소리 듣지 못했어요?》 안해의 되물음이였다.
《그야 들었지. 하니 시위용인가…》
《행사용이지 시위용은 무슨 시위용…》
그러면서 안해는 자랑이라도 하듯 이건 딸애거고 저건 셋째거고 하고 알려 주더니 재봉침밑에 있는것은 자기것이라고 하였는

데 거기에 연분홍치마저고리와 새장구가 있는것을 보고 상설은 그만 눈이 다 퀭해 졌다.

《아니, 당신이 저런걸 입고, 들고 행사에 나간단 말이요? 그 통나무 밑둥 같은 몸에… 보건부에 사람이 없어 이삭주이를 할 형편인가 보구만.》

말을 하고서야 그는 통나무 밑둥소리는 공연히 했다고 후회하였다. 아닐세라 안해는 벌써 눈덕이 댕댕해 져 가지고 달려 들었다.

《아니 령감, 건 또 무슨 소리요. 몸이 좀 났기로 내가 아무렴 통나무 밑둥 같단 말이요?》

절반 롱담이긴 해도 안해가 이쯤 나오면 이겨 내는 수가 없어서 상설은 제껵 《지면서 이기는》방법으로 넘어 갔다.

《아아, 됐소. 내가 요새 통나무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그만 실언을 했는데 어서 나가 밥이나 하오. 인차 가야 하니…》

실언했다는 말에 넘어 갔는지 아니면 인차 가야 한다는 소리에 주부로서의 의무를 깨달았는지 안해는 더 군소리없이 부엌칸으로 넘어 갔다. 그러나 인차 도루 문간에 나타나 가스곤로가 어디 잘못된것 같으니 좀 와서 봐달라고 하였다. 점심밥을 한그릇 얻어 먹자면 그쯤한 수고는 해야겠기에 방에 운전사만 남겨 놓고 일어 나 부엌으로 건너 가니 가스곤로가 고장났다는건 거짓말이고 할 소리가 있으니 불러 낸것이였다.

《애문제는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또 금년을 넘기겠어요? 이제 두고 보아요. 둘째나 일향이를 먼저 살린다는 소리가 나질 않나…》

전자자동화연구소 연구사인 둘째는 스물일곱살이고 재작년에 경공업대학을 졸업한 딸도 나이가 찼다.

《그러니 글쎄 어쩐단 말이요. 갑문을 다 건설하기전엔 절대루 안된다고 나자빠지는걸…》

아무때 론의해야 답답하고 골치 아픈 맏이의 결혼문제였다.

《혹시 무슨 다른 낌새는 보이지 않습디까?》

《다른 낌새라는건?》

《련애라두…》

상설은 코방귀를 뀌며 그 자식한테 그런 재간이나 있었으면 걱정

도 하지 않겠다고 시까슬렀다. 그러나 안해에게는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 애를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 하더니 갑문건설장 《2월17일과학자돌격대》에 있는 유정이라는 처녀가 전년에 무슨 일로 집에 왔었고 아들에게 제가 보던 교재를 넘겨 준 이후로 《선생님》이 되여 어떻게 아들의 학습을 방조(그것은 편지를 통해 알고 있었다.)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난 어쩐지 걔가 꼭 그 처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것 같아요. 처녀쪽은 어쩐지 다 몰라두. …》

듣고 보니 그럴상 싶기도 해서 상설은 처녀에 대해 물었다. 물론 안해의 평가는 좋았다. 인물이 고와, 교양이 있어… 게다가 과학자이기까지 하니 1등색시감이라는것이였다.

보지 못한 처녀건만 말만 듣고도 상설은 은연중 욕심이 당겼다.

《한데 과학자처녀가 군관한테 시집 오자고 할가?》

불안은 단지 그것이였다.

《군관이 어째서요?》

다 된 밥가마를 곤로에서 들어 내 삼발이우에 올려 놓으며 하는 안해의 반문이였다.

《과학자이기를 그만둬야 하니까 말이요.》

《그런건 다 일없어요. 둘이 눈만 맞으면…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이한테 시집 갔을라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의 결합은 그럴상 싶기도 하지만 군관인 아들과 과학자처녀와의 결합은 아무래도 힘들것 같았다.

3

참모부에서 주간총화모임이 끝난것은 날이 어두워 진 저녁 8시경이였다.

식사시간도 많이 지나 배가 고팠지만 윤건호는 아버지를 만나

려고 참모부를 나오자 곧장 정무원지휘부를 향해 걸었다. 이 저녁 그가 아버지를 만나려는 목적은 부재생산용통나무가 들어 오지 않는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다 똑똑히 알기 위해서였다. 총화모임을 결속하면서 군부대장이 한 말에 의하면 통나무전망이 매우 어두웠다. 군부대장은 분개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었다.

《…통나무가 들어 오지 않는건 전적으로 대국주의자들의 책동때문이요. 그자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통나무를 팔아 넘길 흉계를 꾸미고 있소. 때문에 우리는 그 너절한 대국주의자들의 상통을 쳐갈기는 심정으로 통나무발굴사업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한대, 두대 모아서라도 기어코 1기 마감부재를 생산해 내야 하오. 마감부재를 만들고 조립만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오. 어떻게 풀리는가? 그건 앞서 만든 부재에 깔았던 통나무를 회수해 쓸수 있기때문이요.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통나무발굴사업을 해야 하오. …》

하지만 윤건호는 상관의 말이 잘 납득되지 않았다. 납득이 안되였을뿐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반박했다.

(아니, 그렇게 통나무를 한두대씩 모아서 그 큰 수천톤짜리 함형부재를 어떻게 만들며 그런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이 거창한 갑문은 또 언제 건설한단 말입니까? …)

그가 아버지를 만나 보아야겠다고 생각한것은 그 다음이였다. 아버지에게 물어 보아 통나무가 해결 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라도 송철만국장을 쑤셔 끝살부리 가물막이공사장으로 넘어 가던가 하다못해 토언제공사장에라도 옮겨 앉을 심산이였다. 통나무가 들어 오지 않는 관계로 대대는 1기 마감부재생산준비를 해놓고도 벌써 한달가까이 제방보강작업이 아니면 통나무수집 같은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대로 어제까지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가질수 없게 되고 보니 그로서는 생각이 여간 복잡하지 않았다.

(…《용접공대대》라고 온 건설장에 소문을 내면서 타입장으로 진출했는데 타입작업은 변변히 해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

그가 대대를 용접공대대로 만들었으므로 3대대와 작업장을 바꾸어 달라고 제기했을 때 부대장은 펴그나 놀라는것이였다.

《아니 도무지 두달동안에 대대군인전체가 용접기술을 소유했단 말이요?》

《이 큰 갑문도 도무지 5년동안에 건설하는데 두달동안에 뭐 용접기술쯤이야 배우지 못하겠습니까?》

건호는 정치지도원 리종각의 발기에 따라 한개 중대씩 교대로 남포에 나가 용접기술을 배워 온 과정을 이야기했다.

《음, 그렇구만. 비슷해… 그게 바로 군대식이요!》

부대장은 비로소 리해되는 모양 여러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송수화기를 들어 국지휘부에 사실을 통보하였다. 소문은 그래서 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대대군인들이 다 용접기술을 소유하게 된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이 심히 무규률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여 처벌을 받을번한 일도 겪어 본 윤건호였다.

정무원지휘부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 서니 마침 아버지는 한무더기의 서류를 마주하고 앉아 어딘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게 앉거라. 어째 왔느냐?》

전화를 끝내고 그렇게 물으면서도 아버지는 몹시 바쁜 모양 만년필을 끼여 쥔 손으로 서류를 벌컥벌컥 뒤지며 무엇인가 찾고 있었다. 앉으면 이야기가 길어 지며 일에 방해를 줄가봐 건호는 선채로 함형부재용통나무가 들어 오지 않는 리유와 그 전망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전망이 나쁘다고 하며 씨비리에서 목재가 넘어 오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그럼 다른 해결방도는 없습니까?》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서류에 무슨 글을 써넣으며 하는 아버지의 말이였다.

《자강도나 량강도에 립지를 받아서 자체로 찍어다 쓰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제 그 역사를 하느니 기다려 보는게 나을것 같다.》

그만하면 알것은 알았고 아버지가 몹시 바빠하는것 같아서 건호는 돌아 가겠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그러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지 인차 《가만.》하며 도루 불러 세우는것이였다.

《게 좀 앉거라.》

건호는 별생각 없이 나들문결에 있는 걸상에 엉뎅이를 붙이고 앉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물음이 뜻밖이였다.

《여기 과학자돌격대에 있는 유정이란 처녀를 안다면서?》

《예, 한때 우리 대대 비편제 〈기술고문〉이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아니라는거냐?》

《지금은 가물막이공사장에 가 있습니다.》

유정이가 가물막이공사장으로 건너 간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고 건설력량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한 지난 4월 말이였다. 그때 과학자들의 력량도 일부 조절했는데 유정이의 경우에는 마감막이 수문제작그루빠에 속해 끝살부리로 건너 갔었다.
아버지는 잠시 무슨 생각인가 하더니 보다 신중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헤여질 때 무슨 약속을 한건 없느냐?》

《약속이라뇨?…》 건호는 아버지가 말하는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남았지만 짐짓 모르쇠를 하였다.

《이를테면 언약 같은걸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어머니는 그 처녀 유정이를 몹시 욕심나 한다. 너나 어머니가 좋다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다만 어떻게…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되겠느냐?…》

건호는 대답이 궁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그 동무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사업상관계를 넘어 다른 문제를 론해 본적이 없고… 더구나 그는 과학사업을 합니다.》

《과학사업을 하는 처녀라고 군관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니?》

《그건 그렇다 해도… 어쨌든 전 갑문을 다 건설한 다음에야 결혼을 해도 하겠습니다.》

건호는 아버지의 이마살이 찌프러 드는것을 보았다.

《언제는 조국통일이 되기 전에는 장가를 안간다더니 이젠 또 갑문건설… 너는 마치도 결혼을 무슨 기념의식때 내붙이는 장식물처럼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건 잘하는 생각이 못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니, 갑문도 건설하고 가정도 제때에 건설해야 한다구. … 명심해라. 그리구 처녀란 쟁취해야 한다.》

《…》

건호는 대답이 궁했다. 마침 그때 다행히 전화종이 울렸다. 어디서 온 전화인지 아버지는 대방과 대화는 대화대로 하면서 무엇을 찾느라고 바삐 서류무지를 뒤졌다.

그 기회에 건호는 슬며시 일어 나 방을 나오고 말았다.

그가 대대부에 들어 선것은 금방 취침나팔이 울린 10시 5분경이였다. 리종각은 원고를 쥐고서 벽에 기대 세운 9.9절경축 대형벽보에 붓글을 써넣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회의보고서는 물론 구호를 써붙인다거나 지어 벽보발간사업까지도 제가 직접 하지 남의 손에 맡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원래 그는 붓글씨를 잘 쓰지 못하던 사람인데 정치일군이 벽보도 제손으로 만들지 못해서야 무슨 자격이 있는가고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지금은 붓글뿐만아니라 그림까지 제법 그럴사하게 그려 넣는 수준이였다.

《통나무가 들어 온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벽보에 그냥 붓질을 하며 건늬는 리종각의 물음이였다.

《통나무가 다 뭐요. 림업회담이 파탄돼서 량강도에 벌목을 가는가 마는가 하는 형편인데…》

군모를 벗어 걸고 책상앞에 와 앉은 건호는 전투가방에서 사업노트를 꺼내며 군부대장이 하던 말과 아버지한테서 들은 소리를 두루 묶어 이야기해 주었다. 리종각은 잠잠해 듣더니 말했다.

《거, 그렇다면 대대장동무가 연구한 방법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내가 무슨 방법을 연구했게?》

윤건호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싶어 쳐다 보았다. 그런데 리종각은 오히려 제편에서 의아해 하는 표정이였다.

《아니 왜, 전번 언젠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통나무를 쓰지 않고 부통을 매달아 띄운다는…》

《허허허…》

비로소 생각나서 건호는 웃고 말았다. 웃을수밖에 없는것은 그

것이 어떤 방법이나 더우기 연구의 결과가 아닌, 부재생산을 못하는 것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답답한 김에 해본 소리기때문이였다.

《왜 웃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과학적발견이란 다 그렇게 우연히 별치 않은데서 나온답니다. 뉴톤이 사과나무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걸 보고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했다는걸 모릅니까? 세상에 유명한 광견병왁찐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만들어 냈답니다.》

《왜 그뿐이겠소. 런던에 있는 템스강밑으로 차굴을 뚫어 세계 최초의 지하철도를 건설한 영국사람 마크 부루넬은 벌레가 나무판자에 구멍을 뚫는것을 보고 유명한 〈실르공법〉을 착상했소.

하지만 그건 다 과학에 정통한 천재나 학자들에게 해당되는거구 우리 같은 군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소. 이자 말한 그 광견병왁찐을 만들어 낸 학자의 이름이 파스퇴르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오? 〈과학은 언제나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만 대문을 열어 준다.〉 말하자면 이게 준비되여 있어야 한단 말이요. 이게…》

건호는 손가락을 구부려 관자노리어방을 뚝뚝 두드렸다.

《그거야 대대장동무도 그만하면 준비했다고 봐야지요. 유정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리종각은 진지하고 정색한 표정이였다.

《웃기지 마오. 그렇게나 공부해 가지고 뭘 발견할수 있다면 세상에 과학자나 발명가 아닌 사람이 없겠소.》

더 론의한댔자 공담이나 같아서 그는 중대들을 돌아 볼 셈으로 자리에서 일어 났다. 리종각은 그제야 생각난듯 《참, 유정선생이 왔다 갔습니다.》 하고 뜻밖의 소식을 알리는것이였다.

《무슨 일로 건너 왔답데?》

말코지에서 군모를 벗기며 건호는 물었다.

《무슨 구조물설계때문에 왔노라던데… 밤중으로 일을 보구 래일 건너 갈 소리를 합디다.》

윤건호는 다른 말을 더 하지 않고 문간에서 군모를 벗겨 쓰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1중대병실쪽으로 걸으며 아버지한테 들리지 않았더라면 유정이를 만날수 있었을걸… 하고 아쉽게 생각했다.

유정이가 끌살부리로 조동된 이후 그들의 관계는 좀 소원해 졌다고 할가. 련계가 아주 끊어 진건 아니고 이런저런 기회와 리유로 여러번 만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만나서도 이야기는 언제나 실무적인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하였다. 어쩌다 우연히라도 이야기가 생활적인데로 뻗을라치면 그 녀자는 재빨리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놓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의 선택권은 언제나 그 녀자쪽에 있었다. 건호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을는지 알수 없었다. 기껏 생각하는것이 혹시 이 녀자는 모든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은 받아 들일수 없고 그럭저럭 관계나 유지하자는 립장에서 조절하는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자기편에서 주동적으로 관계를 끊는것이 옳았다. 이루어 지지 못할 사랑이 분명하다면 슬픈대로 제때에 포기하는편이 현명한 처사였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었다. 그럴만한 조건들을 우선 찾을수 없었고 더구나 그렇게 쉽사리 관계를 끊어 버리기에는 그 녀자의 존재가 이미 그의 가슴속에 너무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앞에 직일병을 세워 둔채 1중대는 벌써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었다. 2중대 역시 같았다. 전등을 환히 켜놓고 자지 않는것은 3중대뿐이였다. 들어 가 보니 무엇때문인지 온 중대가 량쪽 침대에 갈라 져 앉아 쌈싸우듯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왁작 떠들어 대느라고 대대장이 병실에 들어 선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지 않고 뭣들 하오?》

한마디 호령에 병실이 쥐죽은듯 조용해 지고 방금전의 떠들썩한 소음만 허공에서 감돌았다. 윤건호는 통로중간에 버티고 서서 병실에 들어 설 때 목소리가 제일 크던 분대장에게 자지 않고 떠드는 까닭을 물었다. 분대장은 대답하기 좀 난처한지 얼굴을 붉히며 뒤통수를 긁더니 떠듬떠듬 힘들게 입을 열었다.

《저… 사실… 통나무를 깔지 않고 함형부재를 만들수 있다길래… 론쟁을 좀…》

(통나무를 깔지 않다니？…)

하도 놀라운 소리고 어리둥절하여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듯 침대에 앉은 대원들을 이쪽저쪽 둘러 보았다. 대대장의 입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 질가봐 겁이 나는듯 슬며시 눈길을 떨구는가 하면 호기심에 찬 눈길로 대담하게 마주 보며 벌쭉 웃기도 하고… 눈길들은 각이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분대장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표정들이였다. 그러니 이들 병사들은 내가 다른 공사장으로 옮겨 앉을 궁리를 하며 다닐 때 벌써 새로운 부재생산방법을 모색하고 있은것이 아닌가.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것은 다른 문제로 치고 지휘관으로서 전사들보다 생각이 짧았다는것때문에 그는 일종의 자격지심을 느꼈다.

《통나무를 쓰지 않고 부재를 만드는 방법이라면 나도 좀 들어 봐야겠구만.》

윤건호가 그렇게 말하며 침대에 걸터 앉자 분대장은 그러면 그렇겠지 하는 뜻으로 히쭉 웃더니 목을 돌려 왕범이라는 대원을 불러 설명해 보라고 하였다. 이름에 비해서는 몸이 처녀처럼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곱살하게 생긴 전사가 내의바람으로 엉거주춤 일어 섰다.

《뭐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사의 말이였다. 《함형부재밑에다 떼목처럼 통나무를 까는건 부재를 다 만든 다음 물에 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야 그렇지. 초기뜰힘을 얻기 위해서지.》

전사가 말하려는 취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 리치는 파악하고 있는것 같아서 건호는 보충해 주었다.

《전 그 초기뜰힘을 꼭 통나무를 깔아야만 얻을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건 부재장에 물을 채우기전에 부재에다 부통같은걸 가뜩 매달아 해결할수도 있고… 그걸루 모자라면 배기중기를 끌어다 들어 준다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직승기를 동원해서 당겨 주면 된다고 봅니다.》

윤건호는 웃고 싶었지만 전사가 무안해 할가봐 그런체를 않고 물었다.

《그런데 부통을 매달고 배기중기나 직승기로 바닥에 들어 붙

은 수천톤의 부재를 꽤 들어 올릴수 있을가? 부재가 바닥에 부착되여서 초기뜰힘이 령인데. …》

불가능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왕범이라는 전사도 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대병실지붕에 씌운 방수지 같은걸 미리 깔아 주면 부재가 바닥에 들어 붙진 않는다고 봅니다.》

윤건호는 더 들어 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초기뜰힘이 령인것은 바닥에 방수지를 깔아 준다고 달라지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이 어린 전사가 부재생산을 못하는것이 안타까와 나름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전사였다.

《이제 보니 왕범이가 대단한 학자구만, 응? 아주 좋아! 바닥에 방수지를 깐다거나 펄루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건 방법이 좀 틀린것 같은데 연구를 더 심화시켜 보라구. 내 생각엔 통나무를 쓰지 않구 초기뜰힘을 어떻게 얻겠는가?… 어떻게 해야 부재가 저절로 뜨게 하겠는가… 문제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구 봐. 알겠나?》

전사가 알겠다고 하며 자리에 앉자 침대에서 일어 선 건호는 취침을 지시하고 병실을 나왔다.

그는 대대지휘부를 향해 오던 길을 되짚어 걸으며 왕범이가 하던 말이 생각나서 혼자 웃었다.

(… 부통을 가뜩 매단데다 직승기까지 동원시키구 바닥엔 방수지를 깔아 준단 말이지… 그보다도 바닥에 자갈을 두툼하게 깔고 그 우에 부재를 치면 어떻게 되는가?… 자갈이야 통나무못지 않게 바닥공간을 형성…) 그는 갑자기 우뚝 멈춰 섰다. 서서 눈앞의 어두운 공간을 응시하며 조심조심 생각의 실오리를 잡아 당겼다. 그래 바닥에 형성되는 공간은 통나무보다 클수가 있다. 그건 그대로 초기뜰힘으로 될것이다. 세멘트몰탈이 자갈사이로 슴배내리며 공간을 다 메워버리지 않을가?… 그럴것이다. 하지만 그건 왕범이의 방법대로 방수지를 깔아 차단시켜 주면 될것이다.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제기되는가? 통나무떼목의 도움이 없이 부재가 저절로 떠오를가? 뜰힘이 모자라지 않을가?… 하지만 그것은 부통을

달아 주면 충분히 해결될수 있을것 같았다.

(… 그렇다면 리종각의 말대로 이게 뭔가 되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게 바로 대중적지혜의 힘이란것인지 모른다!)

흉벽에 미쳐 오는 심장의 빠른 박동을 느끼며 그는 걸음을 내짚었다. 흥분에 떠밀려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의식하지 못하면서 돌진하듯 더 빨리 걸었다. 대대부에 들어선 그는 (리종각은 아직도 벽보와 씨름하고 있었다.) 백지를 꺼내 놓고 머리속의 생각을 종이우에 옮겨 보았다. 일정한 두께의 자갈알갱이들로 이루어 진 평면우에 방수지를 의미하는 굵은 덧선을 긋고 그 우에 함형부재를 일떠세웠다. 그러면서 부재벽에는 좁은 간격으로 빙 둘러 부통위치들을 표시하며 부재를 만들 때 부통을 매달 쇠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뜰힘의 크기는 물체가 류체에 잠기면서 밀어 낸 류체의 무게와 같다는 물리적법칙에 근거하여 대형 함형부재에 미치는 부력을 계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욕심뿐이고 계산이 잘되지 않아 포기하며 속으로 쓰겁게 중얼거렸다.

(이도 나지 않은 주제에 뼈다귀를 뜯자고 하니 될턱이 없지.)

그러나 중요한것은 계산보다도 착안자체가 리치에 맞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래일중으로 아버지부터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견해가 어떤가에 따라 유정이에게도 공개할 작정이였다.

4

승용차가 건설장어귀에 들어 서자 차에서 내린 송철만은 운전사에게 점심식사를 부탁해서 보내고는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금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공화국창건 35돐기념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연한 토색바탕우에서 서리빛이 흐르는 그의 장령복옷깃 금장에는 크고 거무스레한 별이 두개 박혀 있었다. 이번 공화

국창건 35돐을 계기로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 받은것이다. 송철만의 기억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군사칭호를 수여 받음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축하를 받던 일이 아직도 방금전의 일처럼 생생히 박혀 있었다.

《… 고금동서에 소년머슴이 중장으로 된 례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송철만동무를 처음인걸로 알고 싶습니다. 일을 잘하시오.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이 수령님의 은덕으로 마련된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축하의 말씀에 송철만은 솟구치는 격정을 터쳐 충성과 맹세의 말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신이 그이께 무슨 말씀을 올렸던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장중심구역이 가까와 옴에 따라 군인들의 왕래가 잦아 지고 시인들이 흔히 교향곡으로 묘사하는 건설장의 동음도 우렁차게 울려 왔다. 이전에 그는 하전사들이나 군관들의 인사를 받으면 누구와 하던 말을 그냥 하거나 생각에 그냥 잠긴채 대충 끄덕여 보이는것이 고작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새빨간 령장에 줄이 한개도 박혀 있지 않는 애숭이전사의 인사까지도 깍듯이 거수경례로 답례하였고 군사칭호가 올라간것때문에 놀라며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는 혼자 빙그레 웃기도 하였다.

작업이 한창 고조에 오른 때여서 토취장은 문자 그대로 움직임과 소음의 세계였다. 대발파로 흔들어 놓은 흙산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굴착기들이 번쩍거리는 이발을 땅에 박았다가는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자주》호 자동차에 실었다. 한바가지가 자그만치 한톤… 세바가지면 차는 떠나고 다른 차가 그 자리에 들어 선다. 개중에는 어째선지 이발이 삐죽삐죽 돋은 묵중한 바가지를 가볍게 달아 들고 공중에서 굳어 진 굴착기들도 있다. 차판마다 흙을 듬뿍듬뿍 싣고 토취장을 나가는가 하면 빈 차량을 끌고 들어 오는 내연기관차,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바삐 오가는 가소링차들, 륜전기재의 왕래속으로 무엇을 메였거나 지고 든채 바삐 걸어 가는 군인들, 사복차림의 기술일군들… 움직일수 있는 모든것이 다 움직이고 웅웅 거리면서 소리 지르는가 하면 지껄이고 고아댄다. 땅

조차 들들 떨며 바다쪽으로 움직여 가는것 같다. 움직이지 않는것은 오직 하나, 수송차배기가스가 포연처럼 자욱히 서린 희뿌연 오후의 하늘뿐이였다. 그 모든것을 단순히 보고 듣는다기보다 온 육신으로 느끼면서 걷던 송철만은 중량부재장으로 넘어 가는 언덕굽이에서 보초막 같은것을 짓고 있는 한무리의 군인들과 맞다들었다. 그중의 상관인 미장을 하던 대위가 황황히 흙손을 놓고 어깨띠를 추어 올리며 보고하려는것을 그만두게 한 송철만은 그들이 짓고 있는 건물의 용도를 물었다. 그런데 대위의 대답이 어처구니 없었다. 코구멍 같은 오두막을 지으면서 지원자숙소라는것이였다.

《이게 지원자숙소란 말이요?》

대위는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해 하더니 대대에 별난 지원자가 있어 그렇다면서 더듬더듬 사유를 설명하였는데 내용인즉 이러하였다.

지난 8월중순경의 일이였다. 한 사민녀성이 어디서 온 누구라는 소리도 없이 대대작업장에 슬며시 나타나 일을 하다가는 식사시간이 되면 또 그렇게 슬그머니 사라지군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계기로 남포갑문건설장에는 유명무명의 지원자들이 하도 많이 와서 대대군인들은 그저 그러루한 지원자로 여기며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차차 지내며 보니 그 녀자는 별난 녀자였다. 지원자라면 누구나 군인들과 섭쓸리지 못해서 안달아 하는데 그 녀자는 언제 봐야 아랍녀성들처럼 검은 옷에 검은 수건을 얼굴까지 푹 내리쓰고 늘 외따로 떨어 져 혼자 일하면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벙어리도 말을 시킨다》는 대대의 익살군들이 그 녀자의 입을 열게 하려고 별별 애를 다 썼지만 모두 헛물을 켜고 돌아 섰다. 그러던중 며칠전 한 군인이 한가지 비밀을 알아 냈다. 그 녀자가 낮에는 대대작업장에서 일하지만 밤에는 다른 작업장에 가서 일한다는것이였다.

《…게다가 집을 떠나 방랑하는 녀자처럼 잠은 비여 있는 굴착기운전실이나 공구창고같은데 들어 가 잔다질 않겠습니까. 그래 숙소를…》

《가만!》

철만은 문득 짚이는 생각이 있어서 대위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

녀자의 키며 생김새에 대해 물었다. 대위는 발부리를 내려다 보며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고개를 들었다.

《키는 보통이고 생김새는 얌전할사한 축인데 뭐랄가, 몹시 앓고난것처럼 얼굴에 피기가 없는게 꼭 무슨 고민을 하는 녀자 같습니다.》

예감과 맞아 떨어 지는 대답이여서 송철만은 가서 그 녀자를 데려 오라고 하였다.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들이 정체를 몰라하는 그 《별난 지원자》는 분명 박선봉의 안해였다. 그가 그 녀자를 만나본것도 바로 기념행사에 가기전인 전달 중순경이였다.

그날 송철만은 국전원회의 토론준비때문에 아침부터 지휘부에 앉아 있었다. 열시쯤 되여 정치부장 리응천이 웬 녀자를 데리고 들어 와 이 동무가 꼭 제일 높은 상관을 만나겠다니 만나주어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손님을 떼놓고 나가는것이였다. 새파란 하늘색양복차림에 가방끈을 모아 쥔, 몹시 앓고 난것처럼 얼굴빛이 창백한 스물댓안팎의 아련하게 생긴 녀자였다. 외관상 느낌으로 송철만은 대뜸 이 녀자가 건설장의 어느 군인과 정을 나누다가 실련 당하고 그때문에 찾아 왔을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건설자들이 수만을 헤아리고 대다수가 한창 사랑을 갈망하는 20대의 청춘들이라 그러루한 《실련》건들이 가끔 제기되였다. 그때문에 찾아 오는 녀자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병자들처럼 얼굴빛이 창백하고 눈에는 마음속의 고민이 씌여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앉혀 놓고 말을 시켜 보니 놀랍게도 그 녀자는 박선봉의 안해였다. 그에게 처가 있는줄을 몰랐거니와 알았더라도 이렇게 찾아 오리라고 생각 못해 본 철만은 반갑다고 할지 슬프다고 할지 알수 없었다. 그리고 더욱 알수 없는것은 그 녀자가 무슨 일로 남편이 죄를 짓고 법적제재까지 받은 이 갑문건설장에 왔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물론 그 까닭은 인차 밝혀 졌다. 그 녀자는 두가지 용건을 내놓았다. 보자기에 꽁꽁 싸가지고 온 현금 6천원을 갑문건설자금으로 받아 달라는것과 갑문건설이 끝나는 날까지 남편이 하던 일을 대신할수 있게 해달라는것이 그 녀자의 요구고 찾아 온 목적이였다. 철만은 그 녀자가 돈을 가져 온것이나 남편을 대신하여 갑문건설에 참가하려는 심정이 리해되였다. 리

해될뿐아니라 남편이 지은 죄를 제 손으로 씻고저 결연히 집을 떠나온 그 녀자의 굳센 정신력앞에 감심되는바조차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녀자의 요구는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 들이기 힘든것이였다. 돈문제로 말하면 국가에서 주는 자금도 미처 다 쓰지 못하는데다 최근에는 지원물자외엔 개인들이 내는 현금을 일체 받지 말데 대한 지시까지 떨어져서 이미 받은 지원자금을 본인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형편이였다. 남편을 대신하여 갑문건설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현금문제보다도 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군인이라면 몰라도 일개 사민녀자를 한두달도 아니고 갑문건설이 끝나는 날까지 군인들과 같이 일을 시킨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일도 일이지만 생활조건이 우선 걸리고 군대의 질서가 또한 그런 례외를 허락하지 않는것이였다. 그래 힘들게 리해시켜 돌려 보냈는데 짐작에 아마 집으로 가지 않고 지금껏 일하는것 같았다.

이윽고 대위가 문제의 《별난 지원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예상한대로 그 녀자는 박선봉의 안해였다. 산골인민학교 교원으로 가뜩이나 섬약하던 녀인이 그새 몸과 얼굴이 더 깎여 어린 소녀처럼 작고 가냘파 보였다. 그 정상이 하도 처량해서 철만은 동정의 말보다도 꾸중이 먼저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동무는…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좋다구 그만큼 말했는데 여태 여기 있었구만. 응?》

피할길 없는 정황앞에서 녀인은 용서라도 비는듯 몸을 더욱 옹송그리며 발부리만 망연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한참후 다시 얼굴을 들어 멀리 바다를 내다보는 그 녀자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원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국장동지는》 하고 그 녀자는 조용하나 설음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왜 그리도 제 마음을 몰라줍니까? 남편이 그런 몸인데 제가 무슨 낯으로 학생들앞에 나서며 어떻게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 보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저는 영원히 교단에 설 자격을 잃은 녀자입니다. 그리 아시고 제발 저를 쫓지 말아… 제손으로… 주인이 지은… 죄를… 씻게…》 마지막말은 끝내 맺지 못하

고 그 녀자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어 버렸다. 철만은 가슴이 쓰라렸다. 그는 이 녀자를 설복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기 힘들리라는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하기야 남편이 지은 죄를 제손으로 씻겠다고 집을 나선 녀자를 무슨 말로 설복하여 돌려 세울수 있으랴. 강제로 돌려 보낸다 해도 이 녀자는 다시 돌아 올것이며 돌아 오지 않는 경우라면 안고 갈것은 절망과 쓰라린 눈물과 비애밖엔 없을것이였다. 무엇때문에 이 죄 없는 녀인에게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겠는가. 남편이 지은 죄를 제 손으로 씻겠다는 그 애절한 소망을 들어 주진 못할망정 애써 막을 까닭이야 없지 않는가.

철만은 녀인을 건설장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을 시키더라도 지난 20여일간처럼 낮에는 여기서,밤에는 저기서 일하며 굴착기운전실이나 공구창고 같은데서 잠을 자라고 할수는 없었다. 젊은 녀인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우선 그 녀자의 연약한 육체가 그런 불편한 생활을 이겨내지 못할것이였다.

그는 대위에게 이제부터 녀인을 대대식당에서 취사근무를 시키되 굳이 신원을 캐묻는 일이 없도록 하며 숙소는 자기가 해결해 주겠으니 짓고 있는 오두막은 허물어 버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이제 들어 가면 윤상설에게 부탁하여 그 녀자를 가까운 어느 사민집이나 과학자돌격대 녀성합숙 같은데다 거처시켜 줄 작정이였다.

토취장에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떠난 송철만은 토언제기초로 넣는,각종 뿔부재생산을 담당한 중량부재장에 넘어 와 또 한가지 예상 못한 일과 맞다들었다. 벨트콘베아니,혼합기니,기중기니 하는 한창 움직이고 있어야 할 생산공정이 죄다 멎어 있는가 하면 군인들은 길게 늘어 서서 땅파기를 하고 있었다. 부재생산을 책임진 부대장이 황황히 군복단추를 채우며 달려왔다.

《동무네 지금 뭘하고 있소?》

될수록 누르느라고 했지만 어쩔수 없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는 랭담하게 물었다.

《배수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폭풍을 예견한듯 얼굴에 벌써 구름이 낀 부대장의 답답한 대답에 철만은 더구나 부아가 돋아서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였다.

《동무,왜 생산공정을 세워 놓고 도랑을 파는가? 그걸 말하란 말이요.》

《골재가 흙물에 잠겼다 나면 암만 씻어두 콩크리트강도를 보장 못한답니다. 그래 배수로를 째기 전에는 절대로 돌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누가 그럽데?》

부대장의 말꼬리를 빼앗으며 철만은 날카롭게 물었다.

《전권대표동지의 지십니다.》

하기는 다른 사람이 그런 지시를 할수가 없었다. 그는 윤상설의 지시를 잘못된것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공정을 세워 놓고 도랑파기를 시킨것은 잘한 처사라고 할수도 없었다. 중량부재생산의 중단은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언제공사를 중단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수 있기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생산만은 계속해야 하였다.

《도랑파기엔 일부 인원만 뗄구고 기본력량은 다 부재생산에 붙이시오.》

부대장에게 그렇게 지시한 철만은 곧장 국지휘부로 들어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정무원지휘부를 향해 걸었다.

5

그가 정무원지휘부로 들어 갔을 때 거기 종합분과사무실에서는 리영선부부장을 비롯한 몇명의 지휘부일군들이 양복차림의 웬 풍채 좋은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리영선의 소개로 통성을 한 일군은 중앙당 국제부 부부장이였다. 송철만은 윤상설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데 생각이

미쳤다. 종합분과장의 말이 지수재료수송이 걸려서 사리원역으로 나갔는데 오후에 들어 올 예견이라는것이였다.

송철만은 윤상설이 중량부재생산을 중지시킨 사실을 아는가고 물었다. 부부장은 알고 있었다.

《… 거기 부대장동무한테 몇번이나 강조했는데 알겠다 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아 아마 단호한 조치를 취한것 같습니다.》

《그건 서까래를 살리려다 들보를 썩이는 격이 아닙니까? 물론 기술지표는 보장해야지요. 우리 군인들이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재생산을 통채로 중단시킨건 잘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리영선이 당지도소조책임자인것만큼 윤상설에게 기술지표와 시공의 질에 대해서만 많이 떠들면서 공사속도에 관심이 적은 경향이 있다는것을 까밝히려다가 본인이 없는데서 뒤소리를 하는것 같아 그만두었다.

다른 말을 더 할 분위기가 아닌것 같아 송철만은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러나 리영선은 의견을 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붙잡아서 그는 주저앉지 않으면 안되였다.

《의견을 낼 문제라는건》 하고 좌석이 정돈되자 리영선은 말했다.

《외국인들한테 우리 건설장을 참관시킬수 있겠는가 하는건데… 국장동무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바여서 송철만은 일순 얼떠름하였다.

《외국인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별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유네스코관계자들 그리고 국제관개부문 회의차로 온 사람들도 있고 구성이 좀 다양합니다. 참 국제수리학협회 회장이란 량반도 있는데 갑문건설장을 보지 못하면 돌아 가지 않겠다고 뻗치니 야단입니다.》

국제부 부부장은 그렇게 말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듯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송철만은 외국인들을 참관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남포에서 들어 오는 40리 도로부터 수리해야 할것이다. 공사장들도 정리해야 한다. 품이 적지 않게 들것이다. 함형부재장처럼 통나무가 없어 작업을 중지한것은 또 어떻게 하는가? 왜 작업을 중지했는가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건설자재가 보장되지 않아 그런다고 대답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리고 그들 외국인들의 눈에 우리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과 낡은 수송차며 회칠도 못한 가설건물의 벽체며 방수지를 씌운 지붕들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되겠습니다.》

안되는 리유로 방금 생각해 본 참관에 불리하거나 체면에 손상이 갈수 있는 제조건들을 렬거하였다. 같은 의견인듯 리영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국제부 부부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다.

《국장동무는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 〈색안경〉만 꼈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그들속에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벗들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제부일군으로서는 될수록 참관을 성사시키자는 의도인것 같았다.

《물론 벗들도 있고 배우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여 준다는건 아무래도 재미 없을것 같습니다. 가물막이를 다 했나, 기본언제를 완성했나, 거기에 함형부재생산도 못하지… 정 요구한다면 래년에나 보입시다. 갑실이라도 좀 일어선 다음에…》

송철만이 그렇게 드팀없이 반대하는것을 보고 리영선은 손님을 돌아다 보며 결론조로 말했다.

《더 론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제부일군은 입이 쓴지 고개를 기우뚱하고 말없이 창밖의 하늘만 내다보더니 그냥 물러 가기엔 아무래도 안된듯 정무원 전권대표동무의 의견도 들어 봤으면 좋을것 같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에 대해서는 종합분과장이 반응했다.

《부위원장동무의 의견도 같습니다. 아마 전번 평양에 들어 갔다가 알고 온 모양인데 외국인들한테 건설장을 보여야 시비거리

나 줄뿐이지 리득 볼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손님은 한숨만 내쉬였을뿐 다른 말을 더 하지 못했다.
점심식사후 부국장으로부터 진행중의 공사형편을 료해하면서 송철만은 예견했던것보다 일자리가 크게 나지 않은것도 그렇고 부재생산용통나무를 비롯하여 건설자재보장이 시원치 못한것도 그렇고 불만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강충일부총참모장동무가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마감막이설계가 다 된것 같던데 내려 오지 않았소?》
《내려 왔습니다. 지금 윤상설부위원장이 검토하는중인데…뭐 설계자가 시공기간을 6개월로 예견했다는지…》
철만은 부국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아-니 년말까지 석달 되나마나한데 시공기한을 여섯달로 보면 뭘 어쩐다는거요?》
《그러기 말이요. 윤부위원장도 그때문에 걱정이 많은것 같습니다.》
설계자체가 6개월짜리인것도 문제지만 윤상설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그것은 해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갈수록 심산이라더니 나중엔 별게 다 애를 먹이는구만.…》
《애나 먹을 정도라면 참기라도 하겠는데 마감막이를 금년중에 결속하지 못하는게 문젭니다.》
부국장의 말이 송철만에게는 거슬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안되오. 마감막이는 금년중에 무조건 끝내야 하오.》
가물막이공사를 올해안으로 결속하는것은 지난 4월에 있은 현지지도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로서 년중에 마감막이를 하지 못한다는것은 앞으로 2년어간에 갑문을 완공하지 못한다는 소리나 같았다.
《그러니 설계가…》
부국장의 말허리를 동강내며 전화종이 자지러지게 울었다. 심중이 가볍지 못한탓에 철만은 약간 신경질적으로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진우대장이였다.

《뭘하오？》

《부국장동무와 사업을 토론하던중이였습니다.》

그는 머리속으로 무력부장의 이 갑작스러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할것인가를 추리해 보며 긴장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동무넨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소？》

《？！…》

대장의 밑도 끝도 없는 추궁에 철만은 일순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정신을 바싹 차렸다. 잘못한 일이라면 욕을 먹어야겠지만 억울한것이면 좀 변명도 해볼 작정이였다.

《동무네 건설규정 같은건 다 무시하고 시공을 망탕 해내뜨린다면서？… 틀려 먹었소. 시공을 망탕 하면 갑문이 뭐가 돼. 그게 어떤 건설이라구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해. 동무네가 일을 잘못하면 군대가 일을 잘못하는걸루 되구 당의 권위가 훼손된다는걸 왜 생각 못해？ 정말 한심하거든.…》

부장의 어조가 어찌나 엄한지 철만은 변명은 고사하고 숨소리도 온전히 내지 못했다. 뒤늦게야 이런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개준의 의지를 보이는것이 상책임을 깨닫고 급히 입을 열었다.

《부장동지, 다 제가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시공을 잘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하오. 남포갑문건설은 여느 건설과 다르지 않소. 수령님의 뜻에 따라 당에서 직접 관심하는 대상이 아니요. 그래서 건설도 우리 군인들한테 맡긴거구… 그러니 빨리도 하면서 기술규정도 어기지 말아야 해. 군대가 규정을 지킬줄 모르면 뭐가 되겠소.》

《알겠습니다. 전체 군인들을 그런 정신으로 교양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처음과는 판 다른, 무뚝뚝하기는 해도 인정이 느껴 지는 어조로 그럼 수고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철만은 돌개바람속에 들어 한바탕 휘둘리우고 난 기분이라 그냥 한본새로 굳어 져 있다가 부국장이 누구냐고 물어서야 송수화기를 놓으면서 《아바이》한테서 온 전화라고 하였다.

《〈아바이〉가 뭐랍니까?》

《우리가 건설규정을 무시하면서 시공을 망탕 해내뜨린다고 야단하누만.》

부국장은 눈이 덩둘해 졌다.

《〈아바이〉가 어디서 그런 보고를 받았을가요?》

《글쎄… 강령감이 무슨 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강령감이란 강충일중장을 보고 하는 소리였다.

황석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강중장이야 할 말이 있으면 우리한테 했지 뭣때문에 〈아바이〉한테다 하겠습니까? 그건 정무원지휘부에서 반영했을겁니다. 이제야 생각나는데 내 언젠가 얼빤하게 들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공규정을 위반한 자료들을 장악한다는… 그걸 올리뜨린게 분명합니다.》

철만은 여느때 같으면 부국장의 말을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밀어 붙였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으며 오히려 황석전의 판단이 아주 정확하여 의심할 나위조차 없는것으로 생각되였다. 이 량반들이 정녕 이런 좀스러운 방법으로 일할 작정인가?… 불쾌감을 금할수 없었다. 감정이 시키는대로면 당장 송수화기를 들어 윤상설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언자는것이 무엇이기에 남의 약점을 파내서 우에 올리뜨리는 놀음을 하는가, 두번다시 상종을 안하자고 이렇게 관계를 격화시키느냐고… 그러나 그런 감정을 눌렀다.

《사실은 그렇더라도 반영한 사람들을 욕할건 없소. 우리한테 결함이 있는 이상…》

《그건 그렇지만 마주 앉아서 풀수 있는 문제를 우에 들고 다니니 이거야 속심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시공검사권을 빼앗으려고 그런 놀음을 벌렸다고 봅니다.》

송철만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더 론의해 본댔자 감정이나 덧치기 쉬워서 오히려 반발하듯 《까짓것, 시공검사권을 달라면 넘겨 주기요. 그게 없다고 할 일을 못하겠소?》 하고 말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쥐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우린 아무 일도 못합니다.》

《됐소. 됐소. 그 문제엔 더 신경을 쓰지 말고 시공규정을 준수할데 대한 명령서나 만드오. 저녁때 볼수 있게…》

부국장은 알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공검사권을 넘겨 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다시 한번 못박는것을 잊지 않았다.

송철만은 며칠동안 우정 윤상설을 피했다. 맞다들기만 하면 감정이 폭발할것 같고 그 폭발로 비단섬에서의 인연까지도 포함해서 정상적이던 모든 생활과 사업이 파탄일로를 걷게 될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리성이 보다 우위에 서자 그는 고쳐 생각했다. 무엇때문에 이런 숨박곡질이 필요한가? 갑문을 생각해서라도 감정은 앞세우지 말자.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전체 군인건설자들을 대표한다.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군대를 믿고 갑문건설을 맡겨 주시였다. 그러니 내가 그 잘난 자존심이나 세우고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곧 당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바로 잡자 철만은 막 낭떠러지앞에서 멈추어 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6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를 비롯한 여러 정치위원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영사실에서 남포갑문 건설을 취급한 새로 만든 기록영화 《조국은 병사들의 위훈을 잊지 않으리》를 관람하고 계시였다. 피도를 향해 바다를 가르며 기운차게 뻗어 나가는 기본언제공사장이며 도시의 한 구역을 방불케 하는 함형부재생산전투장은 이미 지나갔다. 하여 지금 영사막으로는 바야흐로 마감단계에 이른 가물막이공사장의 전경과 근경, 파도 세찬 날바다에서 철배조립전투를 하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용한 모습을 담은 화면들이 흘러 가고 있다. 또 하나의 작은 섬과도 같은 대형철배가

예선에 끌려 서서히 침강위치에 접근한다. 입에 호각을 물고 손에 신호기발을 쥔 지휘관의 긴장된 표정,쇠장대며 바줄을 거머쥔채 철배우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연공들… 이윽고 수천톤의 거대한 철배가 서서히 물속에 몸을 잠근다. 철배우에서,제방과 예선우에서 군인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서 어쩔줄을 모른다. 침강이 성공한것이다. 그와 함께 화면도 끝나고 영사실이 밝아 졌다.

《영화를 력사문헌적의의가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먼저 뜬 꼬삐를 남포갑문건설자들에게 보내줍시다. 건설자들이 자신들의 로력투쟁모습을 화면으로 보면 감회가 새로울것이고 당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결의를 다질것입니다.》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그러한 실무적지시를 주고 자리를 일어 시사회참가자들을 향해 돌아 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몇몇 일군들을 짚어 착공이래 남포갑문건설장에 몇번 나가 보았는가를 알아 보시였다. 예상하신대로 대답들이 시원치 못하였다. 오진우의 경우는 다른 문제로 하고 기껏 많이 나가 본 사람이 세번,나머지 사람들은 겨우 한두번 정도였다. 그이께서 오늘 전례에 없던 기록영화시사회를 조직하신것은 바로 갑문건설에 대한 일군들의 이런 무관심을 깨뜨려 버리고 지원사업의 된 바람을 일구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금방 화면으로 본것처럼 그새 남포갑문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해수로는 3년이지만 현재 남포갑문건설이 도달한 수준은 초기에 전문가들이 7년이나 8년이 지난 후에야 볼수 있으리라던 실체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갑문건설자—군인들이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군들은 갑문건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건설을 시작한지 벌써 몇해되고 거기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까지 바쳐 가며 당이 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한두번 나가 보았다는것이 무슨 소립니까? 한두번을…》

애초에 그러실 생각은 아니였지만 일군들의 무관심이 너무 지나친것때문에 그이께서는 은연중 질책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인차 어조를 바꾸어 이제부터라도 갑문건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무관심했던 봉창을 해야겠다고 하시며 이미 생각해 두신바가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제부터 남포갑문건설장에 대한 참관, 지원사업을 당에서 직접 틀어 쥐고 내밀자고 합니다. 그런만큼 우선 동무들과 중앙기관 간부들부터 지원품을 마련해 가지고 건설장에 나가보도록 합시다.

평양에서 큰 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참가자들이 하루 이틀씩 나가 로력지원을 하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자들의 긍지와 사기도 높여 줄수 있고 참관자들은 자기 초소에 돌아 가 군인들처럼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게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만한 일이 아닙니까?》

비판을 받고 약간 주눅이 든듯 싶던 일군들은 그제야 얼굴이 밝아 져 술렁거렸다. 그러한 분위기를 누르며 오진우대장이 모두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마디 하였다.

《그건 참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긍지와 사기가 높아 져 좋아, 참관자들은 그들대로 배우는게 있어 좋아… 총을 한방 쏴서 새를 세마리나 잡는 격이라는게 그런걸 보구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대장의 구수한 익살에 장내에는 가벼운 웃음이 떠돌고 과연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갑문건설에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참관지원사업을 잘하리라는 결의도 표명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참관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시며 국제사업을 담당한 부부장에게 남포갑문건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향을 알아 보시였다. 부부장은 그러지 않아도 대사관들과 외국인방문객들속에서 갑문건설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는데 보여야 시비거리나 줄뿐 리득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또 자기들의 생각도 그러하므로 대답을 주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시비거리나 주고 리득은 없다… 그건 현지일군들의 견해입니까?》

《그렇습니다. 갑문이 어느 정도 체모를 갖추었다면 몰라도 가

물막이나 언제공사… 다 어수선한데다 군인들이 고생하는것밖엔 보일게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겠는가.… 그이께서는 현지일군들이 생각을 잘못한다고 보시였다.

《나는 그 동무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나는 외국인들에게 갑문건설장을, 그것도 지금 보여 주는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보여 주어야 하는가?》

그런 물음과 함께 앉으셨던 좌석 뒤쪽의 통로를 몇번 천천히 오가신 그이께서는 다시 좌석옆에 와 등받이를 짚으며 생각 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끔 완공된 갑문을 상상해 봅니다. 상상속에서 그것은 고요한 바다우에 그려 진 한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로도 보이고 어떤 때는 폭풍의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날뛰는 파도를 꾸짖는 거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먼 후날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눈으로 남포갑문을 보며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그들이 과연 자기들을 위해 이 거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우리들의 수고를 얼마나 알아 줄것인가?… 물론 수고야 인정해 주겠지만 다는 모를겝니다. 모르지요. 가물막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20리 언제가 어떤 난관속에서 한메터 한메터 전진하여 피도까지 갔는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남포갑문이란 물우에 드러난 갑실이나 언제웃도리가 전부인걸로 알고 그보다 몇갑절 더 많은 부분이 빙산처럼 바다밑에 잠겨 있으며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수고가 잠들어 있다는것을 모를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갑문을 다 건설한 다음 외국인들이 와서 본댔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 어떤 의지를 발휘하며 얼마나 거대한 인류적재부를 창조했는지를 그들이 다 알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백사람 천사람이 밤을 새우며 설명해 준들…》

오진우대장의 말이였다.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보이자는겁니다. 백문이 불

여일견이라고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어떤 헌신성을 발휘하여 어떻게 갑문을 건설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외국인들이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갑문이 완공된 다음에 와 봐도 조선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를 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너무 외곬으로만 문제를 본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을 활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참관시키겠습니다.》

부부장의 말이였다.

《그렇게 합시다. 후손들에게 알려 주는 문제는 내가 맡겠습니다. 나는 남포갑문이 완공되면 거기에 기념비를 잘 만들어 세울 결심입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오늘을 말해 줄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념비를 말입니다.》

영사실을 나와 집무실로 가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가 따라와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여 걸음을 늦추며 쾌히 응하시였다.

《남포갑문에 나가 있는 윤상설이라는 동무 말입니다. 그 동무가 틀렸습니다.》

무엇때문인지 다소 감정이 느껴 지는 오진우의 의견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날카로운 군사문제가 아닌데 우선 안심하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틀렸으면 바로 잡읍시다. 하지만 리유야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리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진우는 마침 옆에 있는 복도창턱에 가방을 놓더니 한쪽 귀를 묶은 꽤 두툼한 타자본을 꺼냈다. 받아서 표제를 읽어 보시니 남포갑문건설에서 나타난 편향자료였다. 그이께서는 표지를 넘기고 첫페지의 내용과 그뒤로는 몇곳을 선택하여 읽어 보시였다. 표제 그대로 다 군인건설자들이 시공을 설쳤거나 기술규정을 위반한 생생한 자료들이였다.

《그런데 이게 왜 윤상설동무가 틀리는 리유로 됩니까?》

《그 자료를 바로 그 사람이 만들었기때문입니다.》하고 오진

우는 론리를 세웠다.

《우리 군인들이 전문가가 못되니 잘못하는 일도 더러 있기는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거기서 문제를 세워서 같이 바로 잡는게 옳지 이렇게 자료를 묶어 우에 올려뜨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일이 잘 안되는걸 다 우리 송철만중장한테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료의 마감에다 시공검사권문제를 매달아 놓은걸 봐도 그렇고 (시공검사권문제는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첨부한것이였다.) 어쨌든 그 사람을 가만 두었다간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낼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력부장이 시공결함자료때문에 신경을 쓰는 까닭이 리해되시였다.

《하지만 윤상설동무가 이런 자료를 묶은건 누구에게 책임을 넘겨 씌우자는 목적보다도 편향을 바로 잡고 시공의 질을 보장하자는 의도에 보다 가깝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 아시건대 윤상설부위원장은 책임을 제가 지면 졌지 결코 남에게 넘겨 씌울 사람이 아니였다.

《물론 제가 문제를 너무 극단으로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20년안을 주장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자료를 묶었을 땐 문제를 달리 봐야지 않습니까?》

그것은 갑문건설에 대한 자기의 낡은 견해들에 갖다 맞추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미였다.

《허 허 허…》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의 선입견을 어이 없는 웃음으로 덮으시고 이어 정색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런 억측은 하지 맙시다. 윤상설동무는 내가 잘 압니다. 그는 그렇게 속이 삐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없는 문서라면 어떻게 부장동무의 손에 들어 갔습니까? 우리한테 왔으면 몰라라…》

《건설위원회 위원장동무가 가져 왔습디다. 실태를 알구 단단히 문제를 세워 달라 해서 보니 글쎄 그런 결함보따리가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어 진 일의 전모가 기본상 알리는것 같으시였다.

《그래 문제는 세웠습니까?》

《예, 강충일동무더러 대책안을 만들게 하고 송철만국장을 좀 닦아 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시공의 질 문제가 다시 론의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단단히 신발을 신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두고 가시오. 나도 좀 봐야겠습니다.》

오진우를 바래우고 집무실로 들어 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시공결함자료부터 읽으시였다. 읽고 얻어 진 결론은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속도에만 치중하면서 시공규정을 위반하는 현상이 농후하며 윤상설부위원장이 문제를 제때에 옳게 포착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시공검사권을 정무원지휘부에 넘기자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는 동의할수 없으시였다. 리유는 오진우가 우려하는것처럼 통제권이 정무원지휘부에 넘어 간다고 해서 건설속도가 떠진다거나 더우기 갑문건설이 누구의 주견에 의해 좌우될수 있기때문이 아니라 검사권 박탈이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성과 량심을 믿지 않는것으로 된다는데 있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이께서는 그들 군인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량심에 대해서는 의심할수 없으시였다. 그렇다. 통제의 권능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나 량심은 대신하지 못하는것이다.

문제는 윤상설부위원장이 왜 송철만국장의 사업상 약점으로도 될수 있는 이런 결함자료를 묶었는가 하는것인데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현재 그들 두사람은 서로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하는것 같았다. 호흡이 잘된다면 시공상결함 같은것은 그리 큰 문제로도 되지 않을것이며 애당초 이런 문서장자체가 생겨 나지 않았을것이였다. (… 그들의 관계가 과연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버성겨 졌는가?…)

그이께서는 결코 그것을 믿을수 없으시였다. 그들의 오랜 우정과 진실한 동지관계를 믿고 있는 그이이시기에 그들사이가 일

에까지 큰 지장을 준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였다.

집무실의 고요를 깨치며 전화종이 울렸다. 수령님께서 걸어 오신 전화였다.

《… 당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하고 수령님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당보를 봐도 그렇고 텔레비죤이나 소리방송을 들어 봐도 요새는 주로 철도나 천을 많이 생산하자는 소리뿐이지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를 비롯하여 4대 건설과업을 제기한 6기 4차전원회의결정관철문제는 별로 떠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4차전원회의가 내세운 4대 건설과업은 그 하나하나가 다 후대들에게 물려 줄 만년재부이고 현실적의의도 큰만큼 다문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수록 좋다고 하시며 이렇게 뒤를 이으시였다.

《…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군들에게 이걸 하라면 저걸 줴버리고 저걸 하라면 이걸 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천발전소건설만 봐도 상반년까지는 아주 잘 나갔는데 오늘 실태자료를 받아 보니 하반년에 넘어 와서부터는 건설속도가 급격히 떨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태천의 경우엔 많이 앞서 나간 관계로 아직 크게 문제시할것은 못된다고 해도 이런 하강추세는 제때에 대책을 취해야지 내쳐 두면 나중엔 산에서 굴러 내리는 바위돌처럼 멈춰세우기 힘들어 집니다.》

《…》

통화는 끝났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을 생각마저 잊으신채 집무탁앞의 공간을 묵묵히 응시하며 자책에 잠기시였다. 수령님의 지적이 옳으시였다. 돌이켜 보면 확실히 요새 당보를 비롯한 선전물들은 대체로 지난 6월에 있은 당 제6기 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대해서만 많이 떠들지 4대과업관철문제는 뒤전에 멀리 밀어 놓은 느낌이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매양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면 시기시기 제기되는 당면과업들에 묻혀 보다 장기적인 전망목표들은 그 의의와 중요성을 상실하고 구경에는 줴버리는

결과까지도 빚어 내기 쉬웠다. 리해되지 않는 점은 태천발전소건설이 왜 하반년에 넘어 와 속도가 떠지는가 하는것이였다. 원인을 공사조건이 나빠졌다거나 건설자재가 잘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볼수는 없으시였다. 태천발전소 같은 중요대상건설에 그런 이상이 생겼다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벌써 보고가 들어 왔을것이였다.

그러나 여태 아무런 보고도 들어 오지 않은것을 보면 원인이 다른데 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혹시 그건 윤상설부위원장을 남포갑문건설에 돌려 놓은 결과는 아닌가?… 단정할수는 없다 해도 발전소를 여러개의 건설기업소가 달라붙어 건설하는 조건에서 통일적인 지휘를 맡아보던 사람이 빠지고 보면 그것도 원인으로 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교환을 불러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찾으시였다. 전화가 련결되자 그이께서는 곧바로 태천발전소건설이 하반년에 들어 와 하강추세를 보이는 까닭을 물으시였다.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질문이여서 좀 얼떨떨한지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인파악이 똑똑치 못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넘겨 짚으시며 자신의 짐작을 내놓으시였다.

《혹시 윤상설동무를 남포갑문에 돌려 놓았기때문은 아닙니까?》

《그때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아마… 태천에서 기술자들을 뽑아 남포에 내보낸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립니까? 태천발전소건설자들이 남포갑문건설장에 나가 있단 말입니까?》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여서 그이께서는 내심 놀라시며 언제부터 몇명이나 나왔는가고 물으시였다.

위원장은 5월초에 50명이 먼저 나오고 후에 더해서 거의 백명가량 나와 있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이 없는 속에서 사태의 진상이 기본상 리해되는것 같으시였다. 100명의 기술자가 남포갑문건설장에 나와 있다고 보면 태천에서는 알속을 뽑히운 격이라 부진현상이 일어 나지 않을수 없었다.

(이 동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갑문만 건설하고 발전소는 아예 희생시킬 잡도린가?…)

그이께서는 전화를 끊고 책임서기의 방으로 건너 가시였다. 책임서기는 책상에 문건들을 쌓아 놓은 채 쏘파에 앉아 무엇인가 읽고 있었다.

《남포갑문건설장에 갔다 와야겠소.》

그이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에 책임서기는 눈이 둥그래졌다.

《이제말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시계를 보시였다. 아직 초저녁인줄로 아셨는데 시간은 벌써 밤 10시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면서 빈손으로 간다는게 좀 미안하구만.》

《뭘 들고 가자면… 제가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푼푼히 준비하오. 나도 한가지 내겠으니…》

그이께서 내기로 작정하신것은 음색이 매우 독특하여 소중히 여기시던 집무실 록음기였다.

그러나 정작 떠나시자니 이래저래 걸리는 일들이 많았다. 예견되여 있던 몇몇 일군들과의 면담시간도 다시 정하고 이 밤중으로 수령님께 보고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문건들도 종합하여 타자에 넘기고… 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손수 차를 운전하여 책임서기와 함께 갑문건설장에 도착하신것은 밤이 어지간히 깊은 11시 30분경이였다.

기슭이 활등처럼 뭍으로 휘여 들어 온 거기 바다가에서는 불야성을 이룬 함형부재장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약간 높이 보이고 기본언제 공사장은 멀리로 내려다 보였다. 사방에 야외등이 총총히 걸려있고 용접광이 무시로 번뜩이며 어둠을 찢는 함형부재장은 한창 건설중에 있는 도시와 흡사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를 대고 그은듯 바다로 곧추 뻗어 나간 언제공사장은 가로등이 명멸하고 생활이 끓는 수도의 밤거리를 련상시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모든것을 인상속에 깊이 새기시며 주변에 뒹구는 넙적한 돌을 하나 골라 자리 잡

고 앉으시였다. 송철만중장을 비롯한 현지의 세 일군도 제각기 돌들을 안아다 얼마쯤 사이를 띄워 그이앞에 마주 앉았다.

《우선 한가지 물읍시다. 태천발전소 건설장에서 온 기술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음이 의외인지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중에 윤상설부위원장이 가물막이마감공사준비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마감공사준비는 자체로 하면 안됩니까?》

《꼭 안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가물막이마감공사는 워낙 까다로와서 준비부터 경험과 기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은 기능과 경험이 없어서 안된다는 소린데… 국장동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송철만은 발부리를 내려다 보며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이 준비된듯 고개를 들었다.

《태천동무들 덕분에 그새 마감공사준비를 많이 진척시켰습니다. 기술자들이 역시 다릅니다. 그 동무들만 있으면 마감공사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은데 따져 보면 역시 태천기술자들이 없이는 안되겠다는 소리였다.

《그렇다― 그럼 문제를 이렇게 세워 봅시다. 만일 태천기술자들이 애당초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들을 초청해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답해 보라는 뜻으로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 보시였다. 그러나 모두 말문이 막힌듯 덤덤히 앉아만 있는중에 윤상설부위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태천에서 무슨 문제라도…》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렇다고, 바로 태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며 상반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발전소건설이 하반년에 넘어 와 급격히 전진속도가 떨어 지는 사실과 그때문에 수령님께서 심려하신데 대해 말씀하시고 원인은 기술자들을 뽑아 낸데 있다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부위원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리해한듯 낯색이 컴컴해

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송철만국장과 리영선의 얼굴에도 깊은 자책이 어렸다.

《나는 동무들이 이렇게 일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태천에서 사람들을 뽑아 올 때 동무들은 무슨 생각들을 했습니까? 발전소를 하나 희생시켜서라도 갑문만 건설하면 된다, 이런 립장이였습니까?》

《…》

《…》

《자, 말들을 해보시오. 부위원장동무, 동무야 태천발전소가 6기 4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4대과업중의 하나고 그것이 나라의 동력문제를 푸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였는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어떻든 태천에서 기술자들을 뽑아 온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몇명 뽑아 왔는가가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송철만동무가 특히 잘못했습니다. 동무는 누가 그러자고 해도 군인답게 자존심을 세우고 매사를 제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했어야 옳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리영선부부장도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부부장의 잘못은 당지도소조책임자로서 주견을 잃고 송철만과 윤상설의 본위주의에 동조한데 있었다.

《… 우리는 동무들이 생각하는것처럼 태천을 희생시키면서 갑문을 건설할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태천도 남포갑문도 다같이 중요하며 어느 한쪽도 놓을수 없는 경제전략상의 요충들입니다.

나는 동무들도 이걸 모를수 없다고 보며 알아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이께서는 물음을 던져 놓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그 원인을 동무들에게 건설자로서의 군인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나왔을 때도 말했지만 당은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성을 믿고 이 건

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민군군인들이 당의 이 믿음에 반드시 실천으로 보답하리라는데 대하여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안까지 있다 보니 태천을 희생시켜서라도 남포갑문을 건설하면 된다는 자기 본위적론리가 나왔습니다.》

일을 잘못 처리한것도 문제지만 두번 다시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이께서는 그들 현지일군들이 범한 착오의 근원을 속속들이 파 헤쳐 놓으시였다.

세사람은 어둠속에서 묵묵히 발앞만 내려다 보며 숨도 쉬는것 같지 않았다. 그런 긴 침묵끝에 송철만국장이 잠기고 갈린 목소리로 자기 비판을 하였다.

《말씀을 듣고 보니… 다 저의 불찰입니다. 태천동무들을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 대신 군인건설자들의 열의와 대중적지혜를 불러 일으키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늘 말씀하시는 문제지만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백사를 다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선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져온 가방안에서 문제의 시공결함자료를 꺼내시였다.

《이게 뭔지 압니까?》하고 그이께서는 자료를 들어 송철만국장에게 내보이시였다.

《이건 갑문건설에서 발로된 시공자들의 결함자룝니다. 보면 알겠기에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자료가 만들어 졌는가 하는건데… 국장동무는 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까?》

《…》

송철만은 깔고 앉은 돌과 함께 굳어 진듯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못하는 심정이 리해되시여 구태여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였다.

《나는 정무원지휘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건설자들이 속도에만 치중하면서 시공의 질을 보장

하지 않은건 아주 잘못되였습니다. 실지 건설현장에는 자료보다 더 많은 결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무원지휘부는 그것을 이 문서장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리해는 됩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들이 이 문제를 마주 앉아 흉금을 터놓고 리해와 우의속에 심장으로 풀었더라면 더욱 좋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두 일군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심장의 융합이 잘되지 않고 어성버성한 관계에 대한 말없는 인정이였다.

《물론 일을 하느라면 때로 주장이 부딪치고 의견상이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무원칙한 융화나 타협보다 몇배 낫습니다.

그러나 철만동무, 상설동무, 동무들이야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비단섬을 건설하고 거기서 우정을 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는 동무들의 그 우정이 아직 식지 않았고 지금도 서로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왕 말이 났던 김에 솔직히 말합시다.

사실 우리는 윤상설동무를 갑문건설에 인입하면서 부위원장동무가 실력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비단섬을 함께 건설한 인연도 있어서 송철만동무의 좋은 방조자로 사업상 융합이 잘될것이라는 점을 또한 중시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의 그러한 의도를 알고 앞으로 사업에서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동안의 긴 침묵끝에 송철만중장이 일어 섰다.

《저의 잘못이 큽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공규정을 준수할데 대한 의견을 한두번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적만 중시하면서 시공의 질을 홀시했습니다.

저의 그러한 관점이 윤상설동무로 하여금 위반자료를 묶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뒤따라 윤상설부위원장도 일어 났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자신이 국장동무의 방조자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사업권위를 세우겠는가 하는데 적지 않게 신경을 썼고 많은 경우 일처리에서 독단을 부렸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제부터 국장동무의 좋은 방조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영선부부장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앞서 말한 두 사람의 잘못까지 다 자기 책임으로 걸어 안으면서 당지도소조의 권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일군들 호상간의 단합과 인간적뉴대를 강화하는데 많이 관심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이 그처럼 허심하고 성실한 자신들을 보여 주는데서 더 없는 기쁨과 크나큰 믿음을 느끼시며 모두 앉으라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그들이 앉기를 기다려 밝은 어조로 새로운 화제를 꺼내시였다.

《… 듣자니 여섯달짜리 마감공사설계가 나왔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얼마간 시간을 끈 후에 윤상설부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실은 지금 그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는 설계자들이 마감공사구간을 어디에 어떻게 정하고 의거한 공법이 어떤것이며 왜 시공이 여섯달 걸리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준비에 두달… 시공에 넉달…》 설명을 통해 그려지는 마감막이공사의 륜곽을 소요되는 시간과의 관계속에서 재삼 음미해보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여서 잘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동무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좀 모험을 하더라도 그 여섯달짜리 설계를 대담하게 한 두달짜리로 함축할수 없습니까?》

부위원장은 다소 놀라는 눈치로 무릎앞을 내려다 보며 생각에 잠겼다.

《… 여지라면 두달로 본 준비기간에 조금 있고 설계자들이 안전성을 많이 추구한 측면에서 얼마간 찾을수 있을것 같지만… 한두달로 압축한다는건 도저히…》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위원장의 대답에 다소 실망하며 물으시였다.

《그럼 부위원장동무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설계가 요구하는 대로 년말까지 준비나 슬슬 해두었다가 기본공사는 래년 봄에 하자는겁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이제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송철만이 서둘러 대답을 가로 막아 나섰다.

《그건 안됩니다. 마감막이공사는 무조건 금년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글쎄 방법이 있어야 년중에 해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중장도 말을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순 앞이 막막한 감을 느끼시였다. 과연 어쩔수 없는가?… 건설기자재의 부족이나 로력문제라면 다른 부문의 것을 좀 떼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급한 고비를 넘길수도 있겠지만 이건 설계상문제니 혁신적인 새 공법이 태여나기전에는 도저히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 자신마저 물러 서면 어차피 가물막이공사를 래년으로 끌고 넘어 가는 문제가 기정사실로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으시였다. 그것은 안될 일이다. 당이 자기의 결정을 관철하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 불가능이란 말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종종 체험한다는 어떤 령감의 계시 같은것을 느끼며 일군들을 둘러 보시였다.

《전년에 황해남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해주세멘트공장 하조장과 항을 련결하는 1.2키로구간에 고무벨트에 의한 콘베아수송선을 놓았습니다. 벨트공업에서 두번째라 하면 싫다한다는 도이칠란드도 고무벨트에 의한 수송선은 200메터짜리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생—3대혁명소조원들은 도이칠란드의 여섯배나 되는 1.2키로메터짜리 벨트수송선을 훌륭히 건설하여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 물론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애먹은것이 벨트의 량

끝을 련결하는 접착제가 없는것인데 3화수송연구소 과학자들이 연구에 달라 붙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실험을 끝내자면 최소한 3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이때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이 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과학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실험자료와 시약을 달라, 그러면 배합실험은 우리가 맡겠다.〉고 결의해 나섰습니다. 거기에 책임일군들까지 합세하였습니다. 그래 600여명의 건설자－ 소조원들이 일하면서 과학실험을 하게 되였는데 결국 두달만에 필요한 접착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시말하여 군중의 지혜가 3년이라는 시간을 2개월로 압축해 놓은것입니다.

나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마감막이문제를 풀어 보자는것입니다. 우선 갑문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들과 과학자들에게 그 6개월짜리설계를 토론에 붙입시다. 론제는 〈어떻게 하면 여섯달로 예견한 마감공사를 한두달에 해치울수 있겠는가?〉 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숱한 의견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누구나 한건씩 내는 원칙을 세울수도 있고… 그렇게 나온 의견을 모아 과학자들이 건건이 따져 보며 실용성여부에 따라 심화시킬건 심화시키고, 또 그러느라면 과학자들자신이 계발될수도 있고… 어쨌든 무슨 방법이 나올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막연한 생각입니까?》

일군들은 저마끔 생각에 깊이 잠겨 말들이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제는》하고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자신이 죽으나 사나 금년안에 마감공사를 하고야 만다는 결심을 가지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뭐라 하고 정황이 어떻게 변하든 동무들은 뻗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사들이 주저앉지 않고 방법도 나옵니다. 여기는 군인들이 일하는 건설장입니다.

군인정신만 살아 있으면 두려울것이 없고 만사가 다 풀립니다.》

그이께서 말씀을 끝내시자 송철만이 벌떡 일어 섰다. 앉으라고, 앉아서 이야기하자는데도 그는 그냥 선채로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청년인테리다운 기백으로 걸린 문제를 풀었다면 저희들은 군인정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중장의 결의에 이어 윤상설과 리영선이도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고 긍정을 표시하여 마감공사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락착되였다.

《… 이거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말잔치만 차렸구만. 자, 듭시다. 철만동무, 상설동무… 어서 드시오.》

그렇게 거듭 권하시며 두 일군앞에 마른 명태며 빵을 밀어 놓던 그이께서는 비로소 생각나시여 책임서기에게 왜 록음기를 꺼내놓지 않았는가, 이런 때 음악을 들으면 제격이니 어서 가져 오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책임서기의 말이 뜻밖이였다.

《록음기는 제가 다른걸 하나 구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록음기를 꺼내 놓지 않은것은 의도적이였다. 그이께서는 책임서기의 엉뚱한 계책에 웃음을 금치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구한건 나를 주고 가져 온건 내놓으시오. 이젠 어차피 진상이 드러나서 도루 가지고 가야 깍쟁이라는 소리밖에 더 들을게 없소.》

그래서야 책임서기는 힘들게 일어나 승용차에 가더니 록음기를 가져 왔다.

《이건 동무들한테 주자고 가져 왔습니다. 내가 쓰던건데 좀 구식이긴 해도 소리는 괜찮습니다. 일이 바쁘고 힘들 때는 음악을 들으면 피곤도 풀리고 힘도 나고… 여러 모로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카세트를 골라 끼우고 록음기단추를 눌러 발치에 내려 놓으시였다. 미구에 약간 가벼우면서도 깊은 서정과 폭을 안은 기악반주를 타고 부드러운 녀성중음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 언제나 안기여 정다웁고
우리 희망 넘치는곳

김정일동지께서는 음악세계에 잠기시다 말고 노래에 대해 해

설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시였다.

《이 노래는 최근에 창작형상한 〈평양은 나의 심장〉이라는 노래인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당을 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수도 평양에 대한 사랑과 결부시켜 잘 형상했다고 봅니다.》

절해고도 먼곳에 홀로 가도
이 가슴에 안고 가리
그리워 부르고 못잊어 부르는
향도성 빛나는곳
아 평양은 나의 심장

어느덧 노래는 3절로 넘어 갔다. 하지만 지금 일군들은 노래만 듣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아름다운 시어나 선률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뜨거운 격정이 강물처럼 사품치여 흐르고 있었다. 그이의 심장속 깊은곳에 시원을 둔 불같은 사랑—인정의 강이.…

《이젠 들어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두십니다.》

노래의 아름다운 선률을 음미하며 깊은 명상에 잠기시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임서기의 일깨움에 문득 현실로 돌아 오시였다.

두시면 밤도 깊었거니와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도 더 지체할수 없는 시간이므로 그이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며 일군들에게 제기할 문제들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시였다.

윤상설과 리영선은 제기할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송철만은 무슨 할 말이 있는듯 바재이는 눈치더니 《혹시 이런 문제는 풀어 주실수 없겠는지…》 하고 조심스러우나 약간 취기도 느껴지는 어조로 말하였다.

《지난 6월 건설장이 태풍피해를 입을 때 군인상점이 하나 불탔습니다. 손실액이 12만원인데 화재의 원인을 밝혀 보니 한 하사관의 실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시 총참모부에서 태풍피해정형과 발생한 화

재사고에 대해 보고 받던 기억이 떠오르시였다. 그런데 해독행위로 추측된다던 그 화재가 한 사관의 실수로 일어난것이라니 놀라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손실액이 12만원이면 그 군인은 법적처분을 받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야 할 말이 그리 가볍지 않은듯 중장은 앞에 모아 쥔 손을 주무르며 갑자르던 끝에 매우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 하사관에게 처가 있습니다.》

그는 사관의 처가 어떤 녀자며 왜 갑문건설장에 왔고 벌써 몇달째 남편이 지은 죄를 씻고자 어떻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뒤를 맺었다.

《… 힘들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그 하사관을 용서해줄수 없겠는지. …》

하도 뜻밖의 제기여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받다받다 이런 딱한 제기는 그야말로 처음 받아 보시는것이였다. 그이의 그런 난처한 심정을 대변하듯 여직껏 말없이 앉아 있던 리영선이 목소리를 눌러 가며 불만스럽게 말했다.

《아니 국장동문 무슨 그런 당치 않은 말을 합니까? 지은 죄가 분명하고 법이 처벌했으면 그뿐이지 용서는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부장의 말이 옳았다. 비록 본의는 아니라도 유죄가 인정되여 법적으로 판결된 이상 그것은 누가 용서를 하고말고 할 성질이 아니고 또 누가 감히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그래서 법이고 법을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것이다.

《국장동무의 심정은 리해됩니다. 그 군인의 안해되는 동무의 소행 역시 갸륵하고… 그러나 용서해 주는 문제는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문제라면 권고해 볼수도 있겠지만 법앞에서는 나도 지켜야 할 의무만을 지닌 한 공민입니다.》

남을 도와 주다가 본의아니게 죄를 지은 군인과 그의 불행한 안해를 생각하면 가슴아프고 동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그러나 당장에는 무슨 방도가 있어 보이질 않으시였다.
《좌우간 그 문제는 좀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법이야 사람을 교양하고 건져 주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무슨 방도가 있으면 거기에나 있지 달리는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
그이께서는 승용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상점복구정형을 알아 보시였다. 송철만은 상점건물은 본래보다 더 크게 지어 놓았는데 아직 상품을 충분히 채워 넣지 못했노라고 하였다.
《상품을 빨리 확보하여 건설자들이 생활상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7

윤건호는 전사들과 같이 작업장 정리를 하면서도 가끔 부두나 남포에서 들어 오는 길목을 살펴 보았다. 그러다 간혹 길우에 사복차림이나 머리수건이 나타나면 (유정이다!) 하고 서둘러 단정했다가는 실망하여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불군 하였다.
사람을 기다리는것이 가장 힘든 일중의 하나라는 말은 옳았다. 요새 그는 연구소로 들어 간 유정이를 기다리기에 그야말로 고역을 치르고 있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은 그가 어떤 계산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데 따라 통나무를 쓰지 않고 함형부재를 만드는 방법이 실천적으로 가능할수 있고 못할수도 있는 말하자면 착안의 운명이 결정되기때문이였다. 생활에서 우연과 필연은 종이 한장 차이로 나란히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가 아버지의 의견부터 들어 보려던 자신의 착안을 그 녀자에게 먼저 발설한것은 정말 우연이였다. 박왕범 전사의 도움으로 자갈공간에 의한 부재의 뜰힘조건을 발견한 다음날 아침 그는 대대를 제방 보수작업에 붙이자 아버지를 만나려고 정무원지휘부를 향해 떠났다. 그런데 정무원지휘부를 가

려면 어차피 거기를 지나치게 되는 《2월 17일과학자돌격대》본부앞에서 그는 전날 저녁 리종각이 하던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갑자기 유정이를 만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침 그때 풋낯을 아는 과학자돌격대원이 인사를 하기에 렴치 불구하고 부탁하였다. 토론할 문제가 제기되여 그러니 유정동무를 좀 찾아 달라고.…

유정은 5분도 채 안되여 손에 설계도면 두루마리를 쥐고 나타났다.

《어마, 대대장동무가 어떻게 여길 다…》

뜻밖인듯 짐짓 놀라는 그 녀자의 눈을 일별하며 건호는 말했다.

《왜, 난 여기 오면 안됩니까?》

《안될것 없지만 여기야 대대장동무가 스스로 그어 놓은 〈금단〉의 구역이 아니나요.》

그 녀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건호는 말문이 막혔다.

유정의 말이 옳았다. 벌써 2년씩이나 상종해오지만 그는 여직껏 단 한번도 그 녀자를 찾아 여기에 온적이 없었으며 와서는 안된다고 엄격히 자신을 단속하였다. 왜 그랬는가 하는것은 두가지 리유때문이였다. 자기가 찾아 다니므로 해서 유정의 신상에 어떤 추문을 붙여 줄수 있다는 우려가 한가지 리유고 다른 하나는 자존심때문이였다. 그가 지금 말하는걸 들어 보니 유정은 벌써 그의 그러한 내심을 오래전부터 빤히 들여다보고 있은것이 틀림 없었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에 쥔 종이두루마리를 만지작거리며 유정은 물었다.

《좀 방조 받을 일이 생겨서 왔는데 어디 가서 좀 앉지 않겠습니까?》

《그러자요.》

숙소뒤쪽의 밋밋한 공지에 그 녀자를 데리고 올라가 적당히 자리 잡고 앉은 그는 군복웃주머니에 접어 넣었던 간밤에 그려 본 도해를 땅바닥에 펴놓고 자신의 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유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설명을 들었다. 듣고는 몇가지 물은 다음 무릎우에 턱을 고인채 이슥히 도해를 내려다 보더니 주머니에서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 한참동안 무엇인가 열심히 계산

하였다. 건호는 모름지기 그 녀자가 지난 밤 자기가 고심하다가 끝내 풀지 못하고 단념한 뜰힘의 초기값이던가 부재밑에 생기는 공간의 크기를 계산할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른침을 삼켰다. 무엇이라고 할것인가?… 이윽고 계산을 다 한듯 유정은 수첩을 덮었다. 그러나 다시 한동안 주의깊이 도해를 내려다 보더니 《제 생각엔》하고 드디여 말했다.

《충분히 될것 같아요. 착상이 아주 단순한것 같지만 기발한데가 있어요. 리치상 모순도 없구요.》

《하니 동무는 지지한단 말입니까?》

객관적인 첫 평가가 어떨는지 몰라 은근히 가슴을 조이던 건호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지지라기보다… 어쨌든 될것 같아요. 통나무를 깔기보다 부력은 크지 못하겠지만 부재가 자체로 뜰수 있다는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서 유정은 착상이 아주 기발하다느니 이런 훌륭한 생각을 어떻게 해냈느냐느니 하고 감탄을 련발하였다.

윤건호는 그 녀자의 과분한 칭찬에 다소 어색한 감을 느끼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결정적인 고리는 전사들이 풀어 주었다고 사실을 이야기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럼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야 착안을 공법으로 전환시켜야죠.》

그러자면 모의실험과 계산으로 실천적가능성을 증명해야 하였다.

《계산할것들이 많겠지요?》

《많아요. 전자계산기로 밤낮 계산해도 며칠 잘 걸리겠어요. 하지만 계산은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연구소에 들어 가 해다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유정이가 무슨 명분으로 연구소에 들어 가 한주일씩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 녀자는 그건 걱정 말라고, 자기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내겠으니 그새 이편에서는 착상이나 더 심화시키라는것이였다.

(아, 이 녀자에게서 이런 헌신적인 방조뿐아니라 그 이상의것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착안에 대한 지지도 지지거니와 건호는 유정이가 이처럼 헌신적으로 나오니 그 감사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이튿날 유정은 늦잡아 닷새어간으로 돌아 온다며 장담하고 떠났다. 그런데 장담한 닷새가 곱으로 지나가고 벌써 열하루째 되는 오늘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속이 달지 않을수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왜 이토록 지체되는것일가? 혹시 나의 착안에서 어떤 모순점이라도 발견되여 계산이 오리무중에 빠졌거나 그걸 해명하느라고 여기저기 찾아 다니는건 아닐가? 그렇지 않으면 밤을 패며 일하다가 앓아 누웠던가… 어쨌든 오후 쉴참까지만 더 기다려 보자.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으면 정무원지휘부에 들어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알아 봐야 한다.)

그러나 오전시간이 다 가고 오후 쉴참인 3시경이 되도록 유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와서 그는 자신의 착안이던가 혹은 유정이의 신상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음을 의심치 않았다. 불안감이 더 많이 가는 쪽은 자기의 착안이였다.

결심한대로 세멘트수송차를 얻어 타고 정무원지휘부로 들어간 그는 종합분과 사무실에 들어 가(종합분과장과는 이미 구면이였다.) 전화기와 마주 앉았다. 밑에서 올리거는 전화여서 시간이 좀 걸릴줄 알았는데 온 나라의 관심속에 있는 갑문건설장이여선지 10분도 못되여 평양이 나오고 수리공학연구소와 련결되였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이였다. 소장이면 개별적연구사들의 행처까지 일일이 알수 없겠기에 건호는 유정이가 갑문건설장에서 연구소로 들어 간 리유부터 설명하며 미안한대로 전화를 바꾸어 줄수 없겠는가고 문의하였다. 소장은 쾌히 동의하더니 해당 부서에 알아 본 모양 한참 있다가 다시 하는 말이 유정이가 필요한 일을 끝내고 오후차로 갑문건설장으로 나갔다는것이였다. 건호는 재삼 확인했다.

《…오후차로 나온것이 틀림없습니까?》

《아마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연구소 소장의 대답이였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끝낸 건호는 시계를 보았다. 세시반이였다. 유정이가 보통강역에서 2시 20분엔가 출발하는 신의주발 남포행 렬차를 탔으면 지금 한창 오고 있을것이다.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는것인가?…

생각 같아서는 수송차를 잡아 타고 남포역에 나가 유정이를 직접 맞이하고 싶었지만 자칫 늦으면 렬차도착시간을 놓쳐 길이 어긋나기 쉬운 시간이였다.

종합과장이 들어 왔다. 그는 창문밑에 있는 자기자리에 가앉으며 물었다.

《아직 전화를 못했나?》

《전화는 했는데… 혹시 지휘부에 남포로 나가는 승용차가 없습니까?》

《왜 남포에 갈려구?》

《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럽니다.》

《그래? 그렇다면야 우정이라도 뛔야지.》

과장은 전화로 운수과를 찾더니 《47》호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일렀다. 얼마후 키가 작달막하고 레스링선수처럼 목대가 실한 젊은 고수머리가 문가에 나타났다. 발뒤축을 모아 붙이며 찾았는가고 묻는 품이 제대군인인것 같았다.

《이 군관동무와 같이 남포에 갔다 오라구. 알겠나?》

운전사는 힐끔 건호를 훑어 보고서야 차렷자세를 취하며 익살스럽게 임무를 접수했다.

그로부터 30분이 채 못되여 건호는 벌써 남포역 개찰구앞에 서있었다. 신의주발렬차가 도착하기 불과 몇분전이였다. 얼마후 렬차가 들어 오고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유정은 인차 나오지 않았다. 건호는 그가 혼잡속에 끼우기 싫어 사람들이 좀 설펴 진 다음에야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칠세라 긴장한 눈길로 개찰구를 살펴 보았다. 예견한대로 그는 맨나중에야 그것도 아주 천천히 개찰구로 걸어 나왔다.

(제길, 남은 기다릴래기 눈이 빠질 지경인데 영국녀왕처럼 걷는군 그래.)

한번 놀래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는 뒤로부터 그 녀자의 곁을 스쳐 지나며 가방끈을 나꿔채여 자기 어깨에 옮겨 걸었다.

《어마！》

가벼운 비명과 함께 유정은 황급히 몸에서 떨어 지는 가방을 움켜 잡았다. 그제야 건호는 씩—웃으며 걸음을 멈추고 돌아 섰다.

《돌아 오긴 오누만！》

말을 해놓고서야 건호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미안해요. 너무 늦어져서…》

유정은 지체된 리유를 설명했다. 리유란 다른것이 아니고 계산을 끝내고 모의실험까지 하다보니 예상외로 날자가 걸렸던것이다.

《아니, 모의실험까지 해보았소？》

건호는 그 녀자의 성실성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래도 해야 할거길래 들어 갔던 김에 저리 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글쎄 시험결과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대대장동무의 덕분으로 난 이번에 아예 〈영웅〉처럼 떠받들렸어요.》

건호는 기뻤다. 실험결과가 그렇게 좋다는것도 기뻤지만 그것이 유정이의 사심 없는 도움이 가져 온 결실이라는것이 더더욱 기뻤다.

그들은 승용차에 올랐다. 건호는 운전사옆좌석에 앉고 유정은 가방을 안은채 뒤좌석을 혼자 차지하고 앉았다. 차가 시내어귀를 벗어나 령남리쪽으로 빠지는 길에 들어 서자 건호는 몸을 돌리며 유정에게 물었다.

《그러니 이젠 어떻게 해야 하우？》

유정은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즉시 대답했다.

《이제야 뭐 별게 있나요？ 정식 공개하구 심사를 받아 봐야죠. 제 생각엔 아버님께 먼저 알려 드리는것도 나쁠것 같진 않아요. 최종결론이야 아무래도 아버님이 해야 할테니까요.》

건호는 유정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아버지와 부딪친다는것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단박에 부정이라도 당하면 공개심사도 받아 보지 못하고 일이 아주 싱겁게 끝날수도 있었다. 성미로 보아 아들의 착안이라고 하면 보

지부터 앓고 부정해 버릴지 모르는 아버지였다.

(그렇다. 아버지한테 들고가는건 아무래도 재미 없는 일이다.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송철만국장에게 보고하는 편이 더 빠르고 유리할수 있다.)

의향을 비쳐보니 유정이도 반대하지 않아서 일은 그렇게 추진시키기로 하였다.

8

아무리 바빠도 윤상설은 태천기술자들을 돌려 보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수 없다고 보아 《고문》으로 떨구어야 할 인원선발로부터 작업장인계인수며 기본성원들을 남포역에 나가 기차에 태워보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자신이 직접 뛰여 다니며 처리하였다. 그래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된것은 물론 가는 사람들에게도 퍼그나 좋은 인상을 주어 남포갑문이 끝나면 다시 태천으로 와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역두에서 그들을 바래우고 《갱생》에 앉아 건설장으로 돌아 오는 지금 그는 당면한 마감막이 문제로 하여 저으기 마음이 무거웠다.

(…**김정일**동지앞에서 자체로 해내겠노라고 결의는 했다. 과연 군인들이 마감막이를 빠른 시일에 순조롭게 해낼수 있을것인가?…)

당장에는 6개월짜리 마감막이 설계를 1개월짜리나 최소한 2개월짜리로 만드는것이 급선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방향을 주신대로 엊그제부터 6개월짜리 설계에 대한 군중심사를 시작했다. 어쨌든 무슨 새 공법이 나온다면 (그는 공개심사를 통해 군인들이 마감막이공사가 어떤것이라는것을 아는것만도 큰 성과라고 보았다.) 《2월 17일과학자돌격대》에서 나올것이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적으로 과학자들과 사업하는것이였다.

차는 벌써 령남리어귀를 가까이하고 있었다. 마주 오던 수송차행렬이 공사장에서 끌고 온 황토색먼지구름을 《갱생》에 들씌우

며 지나갔다. 그 먼지속을 빠져 나와 얼마쯤 더 달리니 도로수리작업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인원이 적지 않은데다 오늘따라 왜 갑자기 도로를 수리하는가 싶었다. 삽을 쥐고 서 있는 한 작달막한 군관옆에 차를 세우게 하고 리유를 알아 보니 군관의 대답이 뜻밖이였다. 외국사람들이 래일 건설장 참관을 온다는것이였다.

(아니, 벌써 참관을 조직했는가?)

김정일동지의 말씀에 따라 외국인들이 갑문건설장을 참관하게 되였다는 통지를 정무원에서 받은바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듯 빨리 조직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그였다. 정무원에서 무슨 새 지시가 내려온 모양인데 다문 며칠이라도 연기시키는 편이 옳을것 같아 그는 지휘부에 들어 서는 길로 사유를 알아 보았다.

《정무원이 아니라 당 국제부에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방문일정이 끝나 돌아 가야 할 외국인들도 많고… 두루 사정이 있어서 참관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리영선부부장의 말이였다. 이미 결론된 문제나 같아서 윤상설은 더 고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꺼내며 한마디 하였다.

《그 량반들이 제 바쁜 생각만 하고 이쪽에서 급할 생각은 해주지 않누만요.》

《대외관계상문제니 어찌겠습니까? 급한대로 보장해 줘야지.》

참관이 결정된 이상 누가 안내를 맡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리영선은 외국인참관자들이 여러가지 과학실무상의 질문을 제기할수 있는만큼 전문가인 윤상설이 맡아 주었으면 하는 의향이였다. 윤상설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참관자들속에 국제수리학협회 회장도 있다니 한번 상종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안내는 송철만에게 맡기는게 도리상 옳지 않겠는가. 누구누구 해도 갑문건설 초기부터 그처럼 속을 썩이며 고생한 사람이 없다. 건설과정에 대해 말해도 그가 제일 잘 알았다. 한마디로 이 마당에서 건설장을 대표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송철만중장이였다. 게다

가 또 얼마나 잘 생기고 인격자인가?… 상설은 외국인들앞에 그의 준수한 용모와 름름한 모습을 내세워 자랑하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의 그러한 생각에는 리영선부부장도 다른 의견이 없어 외국인들의 참관안내는 결국 송철만에게 맡기기로 락착되였다.

범이 제 소리를 하면 온다고 마침 그때 송철만중장이 기척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호기 있게 방에 들어 섰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그는 희색이 만면하여 대낮에 집안에 들어 박혀 공론들인가고 하며 손에 쥔 큼직한 종이봉투를 장탁우에 철썩 놓고 걸상을 끄당겨 앉았다. 그러자 리영선이 물었다.

《외국인들이 래일 건설장을 참관한다는 소릴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장동무가 좀 맡아 줘야 할것 같습니다.》

송철만의 눈에 당장 의혹이 내비쳤다.

《아니,그건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부부장동무나 여기 윤동무가 하면 되겠는데.…》

그 말에는 윤상설이 나섰다.

《무슨 소릴 하오? 군대가 갑문을 건설한다는걸 세상이 다 아는데 사민이 안내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송철만은 리치에 몰리는지 더 반박을 못하고 이마살을 찌프리고 입만 쩝쩝 다시더니 끝내 이렇게 접수하는것이였다.

《까짓. 그렇다면 한번 해보기요. 건설두 할라니 데리구 다니며 설명이야 못해 주겠소.》

윤상설은 그가 시끄러운 부담을 그렇듯 선선히 맡아 주는것이 고마왔지만 내색은 않고 그래도 준비는 좀 해야 할거라면서 몇가지 필요한 조언을 준 다음 화제를 돌렸다.

《현장에 다니며 보니까 군인들속에서 토론은 맹렬히 되는것 같던데… 뭐이 좀 나오는게 없소?》

그가 나오기를 바라는 무엇이란 마감막이를 앞당길수 있는 방안을 의미하였다. 송철만은 아직 토론단계이고 종합은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더니 그대신 이런게 나왔다고 하며 앞에 있던 종이봉

투를 밀어 놓았다.

《이게 뭔데?》

《통나무를 쓰지 않고 함형부재를 만드는 방법이요.》

윤상설은 그가 롱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전문가》인 까닭에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하는 소리일것이라고 넘겨 짚었다. 그러나 정작 봉투안의 도면을 꺼내 웃머리에 제법 각글씨로 단정히 써넣은 《자갈지반에 의한 함형부재시공도》라는 제명만 보고도 송철만의 말이 롱담이나 잘못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았다.

윤상설은 진지한 눈으로 새로운 부재시공방법과 그것을 담보하는 계산자료며 모의실험결과의 신빙성을 따져 보았다. 마침내 그는 착안이 매우 기발하며 통나무를 쓰지 않고도 능히 부재를 만들어 띄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하오. 뭐가 될것 같소!》

담배를 피우며 무슨 결론이 나올지 몰라 긴장해 있던 송철만의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여 났다.

《그러니 합격이라는 소리요?》

《거의 그런것 같소. 의문점이 몇가지 있지만 리치는 돼먹었소. 충분히 가능할것 같소.》

그러자 리영선부부장이 자기도 좀 보자고 하며 도면을 끄당겨갔다.

《그런데 이건 누가 이런 신통한걸 착안했소?》

상설은 과학자도 아닌 군인들속에 그런 인재가 있다는것이 정녕 놀랍게 생각되였다.

《알아 맞혀 보우. 누구겠는지… 윤동무도 잘 아는 친구요.》 송철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잘 아는 친구?)

윤상설은 건설장에 와서 이래저래 알게 된 군관들과 전사들의 얼굴을 두루두루 상기해 보았다. 그러나 일반 군인들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술일군들중에서도 이런 놀라운 공법을 착안해 낼만한 얼굴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송철만은 껄껄 웃더니 비웃는 어투로 말했다.

《이제보니 추리능력은 영 락제구만. 아, 잘 아는 군인이라면 왜 건호부터 생각질 못하오. 이젠 아들이 군관이라는것두 다 잊어 먹었소?》

《난 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 그 자식이 뭘 안다구 이런 걸 생각해 낸단 말이요. 대학공부를 중도에 줴버리고 군대에 나간 자식인데…》

《제 아들이라구 남의 대대장을 망탕 헐뜯지 마오. 누가 인정하건 말건 착안자는 어쨌든 윤건호이고 성공만 하면 영웅이요.》

송철만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건호가 새로운 부재생산방법을 착안하게 된 동기와 《2월17일과학자돌격대》의 어떤 녀성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기초계산도 하고 모의실험도 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윤상설에게는 그 설명이 아들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엷어지게 했다.

《그렇겠지!》

착안의 기본주인이 그 도움을 받았다는 녀성과학자일것이라는 추측이 떠올랐던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것이 바로 흠잡을데 없이 정확한 계산자료와 모의실험결과가 아닌가. 수준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복잡한 계산과 모의실험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착안자가 누구이며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착안이 아주 현실성이 있으며 통나무를 받지 않고도 능히 부재생산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있었다.

《그럼 이젠 이 방법대로 부재생산을 시작해도 되지 않소?》

송철만은 벌써 손이 근질거리는 모양이였다. 윤상설은 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전화기를 끌어 당겨 《2월17일과학자돌격대》 책임자를 찾았다. 책임자가 나오자 돌격대에 녀성과학자가 몇명이나 되는가고 물었다. 저쪽의 대답이 녀성과학자라면 수리공학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사가 한명 있는데 이름은 유정이라고 하였다.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소?》

《원래는 끌살부리에 건너 가 있었는데 요새 출장도 갔다 왔고 당분간 일이 있어서 여기 떨궈 두었습니다.》

《그럼 그 동무를 지금 나한테 좀 보내주.》

유정은 10분도 채 안되여 한창 마감막이에 대해 론의하는 장소에 나타났다. 상설은 처녀가 방에 들어 서며 인사할 때부터 사업상한계를 넘어 선 눈으로 관찰하였다. 마음은 어쩐지 몰라도 생김새도 그렇고 겉보기에는 (안해의 눈으로 봐도) 며느리감으로 욕심을 낼만도 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상가까이로 불렀다.

《이걸 동무가 착안했나?》

그 녀자가 책상옆에 다가서기를 기다려 상설은 부재시공도를 내보였다.

《아닙니다. 그건…》

어째선지 처녀는 당사자의 이름을 내놓기 저어 하며 아래입술을 감쳐 물었다. 그러자 송철만이 끼여 들었다.

《그건 건호가 착안한거라지 않소. 그렇지?》

유정은 그렇다고 하며 다시 입술을 감쳐 물었다. 버릇인것 같았다. 윤상설은 시공도우에 계산서묶음과 모의실험자료들을 올려놓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이건 누구 솜씨요?》

《그건…》 처녀는 얼굴을 붉히는것으로 그것이 자기의 솜씨임을 인정하였다.

《그렇다.… 그럼 우리는 이 계산자료와 모의실험결과를 믿고 함형부재생산을 시작하기로 하겠소. 하지만 부재가 뜨지 않는 경우 세멘트 수천톤과 강재 8백톤을 거저 내버리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소?》

유정은 대답을 못하였다. 수집음에 상기되였던 얼굴이 창백해지는걸 보니 부재가 뜨지 않는다는 소리에 가슴이 떨리는 모양이였다. 그러한 처녀에게 리영선이 일없다고,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으니 동무는 과학자로서 그저 량심대로 자기의 견해만 말하면 된다고 고무해 주었다.

유정은 책상우의 계산서며 모의실험자료를 이윽히 내려다 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전 책임을 생각하며 계산이나 실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저도 대대장동무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처녀는 도고한 자세로 말했다. 상설은 자기가 너무 야박스레 책임만 따지는것 같아 다른 말을 더 하지 않고 유정이더러 돌아 가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녀가 막 문고리를 쥐려고 하는 순간 송철만이 《가만.》 하고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다. 문고리를 쥐려던 손을 거두며 처녀가 돌아 섰다. 철만은 최면술에라도 걸린듯 그 검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한동안 처녀를 쏘아 보기만 하다가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윤건호대대장을 어떻게 알게 되였소?》

대답에 앞서 처녀는 볼에 엷은 홍조를 띄워 올리며 입술을 감쳐 물었다.

《전 얼마전까지 그 대대에서 〈기술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송철만은 얼핏 윤상설이와 눈을 맞추고 나서 다시 물었다.

《하니 지금은 〈기술고문〉이 아니요?》

《예.》

《그렇다. 몇살이요?》

《…》

《애인이 있소?》

《…》

송철만의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기도 해서 리영선이 또 중간에 끼여 들었다.

《원… 처녀한테 그렇게 따지면 뭣이라 하겠습니까.》

《아니. 거기 말 못할건 뭐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데. …》

《있으면 어쩌구 없으면 어쩐다는겁니까?》

《어쩔게 있습니까? 있으면 좋구 없으면 좋은 총각을 하나 소개해 주자는거지. 군관을…》

더 들어 낼수 없었던지 처녀가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송철만은 뒤말을 하지 못하고 한바탕 껄껄 웃었다. 웃고 나서는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듯 흥분해서 말했다.

《여보 됐소. 저렇게 잘나고 똑똑한 과학자처녀를 후려 낸걸 보면 건호란놈이 여간내기가 아니요.》

윤상설은 일전에 아들이 하던 말을 상기하며 고개를 저었다.

《후리기야 제까짓게 뭘 후렸겠소. 가다오다 우연히 알게 되여 도움이나 좀 받았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그도 아들이 좋은 처녀와 사귀였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짬이 생기는대로 둘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9

백여명의 각국 외교관들과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대표들속에 섞여 평양에서 출발할 때만해도 로베르 바넬은 남포갑문건설장에 가서 자신이 그 무엇인가를 보고 놀랄수 있다고는 예상도 못했었다. 경험에 의한 짐작으로 그저 한창 준비공사단계에 있는 어수선한 갑문건설장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을뿐이였다. 그러나 정작 현지에 도착하여 시야에 펼쳐 진 건설장전경만 가지고도 그는 은연중 놀라고 자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참관에 앞서 손님들은 지도앞에서 건설을 책임진 중장으로부터 건설규모와 공사조건, 진행중의 건설실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문점에 대한 약간의 질의응답이 있은데 이어 참관이 시작되였다. 손님들이 처음 안내된 곳은 멀리 바다우에 떠 있는 섬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는 기본언제공사장이였다. 통역으로부터 현재 5,100메터까지 전진한 제방끝단의 수심이 평균 20메터를 넘고 조수차가 얼마라는것을 들은 바넬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세계의 자랑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데서 린색한 정치가로 소문난 드골대통령조차 개통식때 경탄을 금치 못한 란스조수력발전소건설은 여기에 비하면 어린 처녀애들의 소꿉놀이였다고 말해도 과

언이 아니였다.

《옌니, 이 언제 전경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공사장면모, … 저 트럭, 기관차, 저기 저 화차전복기… 참, 저 트럭에 실은 부재부터 찍어야 한다.》

바넬은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다 촬영대상으로 생각되면서 손녀가 미처 찍지 못할가봐 조바심을 쳤다. 옌니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촬영기를 돌렸다. 손님들은 건설의 방대함과 건설조건의 어려움과 이미 진행한 공사와 전망을 두고 놀라움과 경탄의 말들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바넬은 아무런 감정도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손녀에게 많이 찍을것만 요구하면서 랭정한 눈으로 상황을 비교하고 관찰하였다. 란스조수력발전소는 유럽대륙에서 조수차가 가장 심한 강하구에 건설되였다. 그런데 조선사람들은 이 갑문을 강하구에 건설하는것이 아니라 바다를 막아 건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가 정말 바다가 옳긴 옳은가? 강하구는 아닐가?… 그것을 확인해 볼 목적으로 그는 제방아래로 내려 가 손바닥에 물을 떠 맛을 보았다. 물이 짰다. 강물이 짤수는 없으니 바다가 틀림없었다.

《할아버지—》

옌니가 불러서 허리를 펴며 올려다 보니 참관로정을 바꾸려는 모양 제방우의 동행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두번째로 안내되여 간 곳은 함형부재장이였다. 함형부재장에서 한시간가량 지체한 손님일행은 다시 배편을 리용하여 끝살부리로 건너 갔다.

바넬은 눈앞에 펼쳐 진 현실앞에서 놀랐다기보다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 선것 같은 황홀감을 느꼈다. 유럽의 해안에서라면 보기 힘든 전혀 오염되지 않은 맑은 수면, 밑도리를 물속에 잠그고 수면우에 총총히 늘어 선 거대한 철정통의 무리, 강상류로부터 예선에 끌려 운반되여 오는 작은 섬 같은 정통묶음(안내자는 그것을 철배라고 하였지만) 견인고리에 철시판을 달아 높이 든 기중기선과 각종 크기의 운반선들의 부절한 움직임… 바넬은 그 모든것을 어느것 하나 빼놓지 말고 죄다 필림에 담을것을 손녀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기 가물막이공사장에 와서도 잊지 않고 슬그머니 기슭에 내려 가 《물맛보기》를 하였다.

《소금을 좀 두어야지 않을가요?》

그것은 그가 물맛을 보고 올라 오자 통역을 통해 던진 송철만 중장의 물음이였다. 처음 바넬은 말뜻을 리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인차 그것이 이른바 《아이로니》임을 알고 다소 열적어 하면서도 프랑스인다운 기지를 발휘하였다.

《아, 감사합니다. 간이 맞습니다.》

재미 없는 일은 바로 그때 발생했다. 엔니의 촬영기에 필림이 떨어 졌던것이다.

《아니 얘, 그게 무슨 소리냐? 찍어야 할것들이 아직 많은데 벌써 필림이 떨어 지면 어쩐다는거냐?》

《이건 할아버지 탓이예요. 아침에 떠날 때 제가 예비로 더 가지고 가자니까 할아버지가 한통이면 넉넉할거라구 하시잖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상상을 넘는 놀라운 건설장을 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후회해야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문제는 해결책을 찾는것이였다. 그는 통역을 통해 안내자인 중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직승기를 불러 줄것을 요청하면서 직승기사용료는 자신이 부담하리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중장은 시끄럽게 생각하는 눈치는 아니였으나 딱해 하는 인상이였다.

《당신들은 예비필림을 가지고 올걸 그랬습니다.》

중장의 점잖은 비난이였다.

《그랬어야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건설규모가 이토록 방대하고 찍을 대상이 이처럼 많을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중장은 리해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해 본후 통역에게 무엇인가 설명하였다. 이어 통역이 어딘가를 뛰여 가더니 한참만에 웬 중좌와 함께 나타났다. 중좌의 어깨에는 촬영기가 놓여 있었다. 몇마디 대화를 주고 받은 중장은 바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중좌동무는 우리 군대의 기록영화촬영가인데 당신들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중좌는 금방 바꾸어 넣고 몇카트 찍지 않았다면서 자기 촬영

기의 필림을 뽑아 엔니에게 주었다.

엔니는 받으면서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사례하였다. 그러나 중좌가 프랑스처녀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고 덤덤해 있자 통역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중좌동무, 이 녀성이 동무가 조선사람이고 군인이기때문에 키스를 해드리지 못하는게 유감이라고 합니다.》

《허허, 그렇소? 그럼 답례해야겠구만.》

중좌는 히쭉 웃으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입술에 세웠다 떼서 프랑스처녀에게 내보였다. 재미 있는 젊은이였다.

이 자그마한 《사건》을 계기로 바넬은 안내자인 중장을 류다른 친근감으로 대하게 되였고 어떤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그래 참관일정이 다 끝나 령남리로 건너 가는 배우에서 그는 중장에게 제의하였다.

《중장각하,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 나도 당신과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넬은 중장이 선선히 응해 주는것이 기뻤다. 그는 란간을 짚고 서서 좀전에 참관한 가물막이공사장을 바라보다말고 고개를 돌리며 그에게 경력을 말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바넬의 견해에 의하면 매 인간의 경력은 지적기준의 척도고 인격형성의 주되는 요인이였다.

다행히도 중장은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경력은 아주 단순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나는 어려서 량친을 잃고 아홉살때부터 지주집머슴을 살았습니다. 당신들식으로 말하면 농장주의 장원에서 노예로동을 했다고 할지. … 그러나 조국이 일제의 기반에서 광복된 후에는 보안간부학교(군사학교입니다.)에 추천되여 군관으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군사대학을 마치고 체계적으로 부대들을 거쳐 련합부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던중 이 갑문을 건설하면서 국장으로 조동되였습니다.》

위엄스런 용모도 그렇고 경력마저 무관답게 단순명백하다고 생각하며 바넬은 엎음갚음으로 자기 경력을 이야기하였다.

《나의 조부는 나뽈레옹황제의 시종무관이였습니다. 부친 역시 군인으로서 한때 프랑스국방성 부상까지 지낸바 있고 모친은 부르봉왕가의 먼 후손으로 아주 자애로운분이였습니다.》

그런 명문가에서 태여 난 바넬은 어린시절을 리옹에 있는 외가에서 보내고 종합대학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류학하였다. 류학 후 빠리에 돌아 와 철근콩크리트건축의 개척자인 페레 안구스터(프랑스현대건축의 대표자이기도 하다.)의 문하에서 2년간 배웠다. 그후 모교인 빠리종합대학교수로 되였으며 다년간 세계과학자련맹프랑스상주대표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국제수리학협회 회장일뿐아니라 프랑스과학원 원사로서 2년전에는 도바해협해저횡단철도설계로 유럽건축계의 최우수상인 로마상을 수상 받은바 있었다. 한마디로 그의 출신과 경력은 화려하였다.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넬더러 행복한 사람이라고,좋은 가문에서 태여 나 학문도 많이 쌓고 명예도 가졌으니 더 바랄것이 없겠다고 했다.

그러나 바넬은 《아닙니다.》 하고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수리공학자로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오늘 건설중의 남포갑문을 보고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오히려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행복자입니다. 이 갑문이 완공되면 당신의 이름은 온 세상이 알게 될것입니다.》

중장은 웃었다.

《내가 무얼 했다고 이름을 세상이 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 갑문건설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갑문을 건설해도 그들은 수자로만 명기될뿐 력사에 남는것은 지도자입니다. 그건 나뽈레옹을 패전시킨 보로지노전투에 수십만대군이 참전했지만 결국 로씨야의 꾸뚜조브장군이 승리했다고 력사에 기록되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드디여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말하는 뜻이 리해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식으로 력사를 기록한다면 내가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 남포갑문건설과 관련하여 력사에 남아야 할분은 바로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김정일**？…》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현지의 전투지휘관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이 남포갑문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이의 구상과 의도와 지도에 의하여 건설되고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도 그분이 대단히 박식하고 세련된 정치가이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갑문건설까지 직접 지휘하고 계시는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력사에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기록해야지요. 당신들의 남포갑문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입니다. 나는 한생을 수리공학에 바쳐 온 사람으로서 우리 지구에 이처럼 훌륭한 갑문이 건설되고 있는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본래 기적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확실히 당신들은 기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광고하는 그 5년간에 이 갑문을 완공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찬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령남리부두에 당도하였다.

10

국제부에서 올라 온 문건들중에는 남포갑문건설장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향자료도 있었다. 아직 전망을 확신할수 없는 형편에서 가뜩이나 반신반의의 기분이 많은 외국사람들에게 건설과정을 보여주어야 시비거리나 줄수 있다는 해당 부문일군들의 우려를 물리치고 참관을 조직하신바 있는 까닭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류다른 관심으로 반향자료부터 펼치시였다.

《정말 놀랍다. 역시 당신들, 조선사람들은 통이 크고 용감한 사람들이다. 나는 조선에 와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하였지만 이 남포갑문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이런 공사를 하지 못할것이다. 남포갑문과 같은 이런 대건설은 용감한 조선사람들만이 할수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단 단장인 로므니아대사의 말이였다. 다음에 있는것은 현재 조선방문중에 있는 에짜도르국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였다.

《남포갑문은 조선에서 건설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희망과 힘을 안겨 주는 대건설입니다. 당신들의 모범을 따라 인류는 이와 같은 거창한 대공사를 자신들도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이 건설장은 조선인민이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 관개수리부문 실무일군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바다를 막아 큰 갑문을 건설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와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다 건설되면 륙지에서는 만리장성이 제일 길고 바다에서는 남포갑문이 제일 길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나는 이 갑문이 완공되면 바다에 가로 누운 룡마와 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분한 김에 이런 즉흥시를 한수 읊었다고 한다.

태고에 한번 깨여 나
바다는 다시 잠들지 않았네
허나 여기 잠드는 바다 있나니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용감한 아들들
바다를 잠재우네

뛰르끼예신문 《밀리에뜨》 책임주필의 말도 인상적이였다.

《30여년간 기자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굳어 진 하나의 관점이 있다. 그것은 군대란 력사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말살하는 존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다르다. 나는 군대가 이렇게 자연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것을 처음 보았다. 이것은 갑문건설이라기보다 인간의 행복과 자연의 안녕을 위한 〈평화의 전쟁〉이다. 나는 자신의 철학적신념을 바꾸어야 할것 같다.》

대부분 그러루한 놀라움과 경탄으로 가득찬 반향자료였다. 개

중에는 조선의 경제적위력과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은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방대하고 어려운 건설공사를 과연 5년동안에 해낼수 있는지?…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어느 한 나라의 대사가 조선에서 남포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하면 조선식속담 그대로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그가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에 대해 관심하시였다. 그러나 리해되는 일로 마감페지에 이르도록 대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감페지에서 기억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뜻밖의 이름을 보게 되시였다.

… 로베르 바넬, 국제수리학협회… 바넬, 바넬… 이 이름이 어떻게 기억속에 새겨 졌는가? 오 그렇지! 인간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던 사람…

《당신들 조선사람들은 대단한 갑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나 세계에 이렇게 큰 갑문을 건설한 나라가 없습니다. 완공만 하면(금세기안으로 말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창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한생을 수리공학에 바친 사람으로 우리 지구에 이런 거대한 갑문이 건설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커다란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한때 유럽의 일부 수리학자들속에서 베링해협을 막아 아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을 련결시키자는 론의가 있었는데 지구의 생태환경이 변화되는것은 다른 문제로 하고라도 무슨 힘으로 그것을 막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불가능이 확인되여 유야무야되고 말았지만 조선사람들이라면 막아 낼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를 맺고 있었다.

《… 그러나 한가지 리해되지 않는 점은 당신들이 왜 갑문을 5년동안에 완공한다고 광고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갑문을 건설하면서 무엇때문에 그런 허위를 광고합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5년 광고는 떼시오. 5년동안에는 안됩니다. 신에게 청탁한다 해도 이런 거대한 갑문을 5년동안에는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금세기안으로라면 가능할지

도 모르겠지만. …》

김정일동지께서는 쓰거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짐작컨대 이 로베르 바넬이란 사람은 그만하면 남을 칭찬하는데 그리 린색하지 않고 편견은 없는 사람인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남의 건설계획을 장사군들의 상품광고처럼 여기며 떼라 말라 훈시하는데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신에게 청탁해도 5년안으로는 안된다? 금세기안으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국제수리학계를 이런 사람이 지도한다는 생각에 그이께서는 수리공학분야의 현실태가 짐작되면서 그 발전전망이 저으기 우려되시였다.

아르키메데스에 의한 양수원리의 발견과 고대에짚트인들의 관개체계를 조상으로 본다해도 수리공학은 인류과학의 다른 분야에 비길수 없으리만큼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긴 력사를 가지고 있는 수리공학 그중에서도 갑문건설은 전세기 1869년에 레셉스끼에 의해 수에즈운하가 건설되고 역시 전세기에 시작하여 현세기초에 완공을 본 빠나마운하 이후로 크게 이룩해 놓은것이 없었다. 있다고 해야 프랑스의 란스조수력발전소요,두나이강 1,2호갑문이요 하는 정도로서 다른 과학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비기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수리공학의 이러한 부진을 설명하자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로베르 바넬처럼 기적은 신만이 창조할수 있다고 보며 인간이 이룩할수 있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계를 지도하고 있는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을것이라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과학분야의 눈부신 발전속도에 비해 뒤떨어 지고 있는 수리공학의 빠른 진보를 위해서라도 남포갑문을 반드시 5년동안에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표지에 달필로 이렇게 써넣으시였다.

국제수리학협회 회장 로베르 바넬을 남포갑문준공식에 명예손님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자옆에 수표를 주어 밀어 놓으시였다.

책임서기가 집무실에 들어 선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는 가지고 들어 온 문건들을 그이의 집무탁우에 분류해 놓고 문의하였다.

《경공업위원회 위원장동무와 시제품전시회를 보아 주기로 약속하신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 있는것 같소. 그래 준비됐다오?》

《인민문화궁전에 준비했답니다.》

《거기면 가까와서 좋구만.》

그이께서는 오후에 보자고 하시였다. 그러나 책임서기는 오후에는 안될것 같다고 하였다. 예견되여 있는 사업들이 많았던것이다.

《그럼 래일 오후로 계획합시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젠데 더 늦어 져서는 안되겠소.》

계획한대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튿날 오후 경공업시제품전시회장인 인민문화궁전으로 나가시였다.

경공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부의 책임일군들과 경공업위원회산하 중요 공장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들이 그이를 맞이하였다. 시제품들은 궁전 1층의 넓고 긴 홀에 전기제품, 가정용품, 피복 및 신발류… 등 순서로 진렬되여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이 모자라게 펼쳐 진 진렬장을 둘러 보시며 재작년엔가 본 전시회에 비해 제품의 가지수가 그새 대단히 많이 늘어 나고 질도 높아 졌음을 느끼시였다. 그것은 그만큼 나라의 경공업생산수준이 제고되고 인민생활도 향상되였다는 산 증거로 매우 기쁜 일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시제품들을 돌아 보시였다. 녀성부총리인 경공업위원회 위원장이 그이께 필요한 설명을 해드리였다. 원색의 붉고 푸른 수지제품과 늄제품들이 번쩍거리는 부엌세간진렬장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런 제품들을 다량생산해 내보내라고, 우리 녀성들이 몹시 좋아 할것이라고 하시며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불러 원료보장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발매대앞에서도 걸음을 멈추시였다. 뒤축이 높고 날씬하게 생긴 녀자구두를 손에 쥔 그이께서는 구두코와 바닥을 눌러 보신 다음 놓고 허리를 굽혀 안쪽구석에 있는, 여러가지 색갈의 가죽오리를 엮어

서 만든 알락달락한 어린이신발을 집으시였다. 만들기도 잘 만들었지만 장난감처럼 작고 깜찍해서 그이께서는 부지중 미소를 지으시였다.

《요런건 금방 걸음마를 타는 젖떼기들이나 신겠구만?》

부총리는 그렇다고, 두살, 세살짜리들이 신는건데 성인구두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로 만들어서 원가는 령인셈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공짜라는 소린데 값은 얼마나 예견하고 있습니까?》

《아직 가격제정위원회와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공장에서는 1원 80전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눅어서도 좋다고 하시며 제품설계와 생산조직을 잘하면 이런 공짜를 많이 얻을수 있으므로 장려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다음 진렬대에는 섬유제품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각종 천으로부터 남녀어른들의 기성복과 내의류, 어린이들의 색동옷과 뜨개제품들, 여러가지 색갈의 모포와 이불, 각종 수건류들, 수백가지가 넘는 그 많은 섬유제품들과 잇달아 진렬한 생활필수품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일전에 송철만중장이 본의 아니게 화재사고를 저지른 한 군인의 사면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점에 아직 상품을 다 채워 넣지 못했다고 하던 말을 상기하시였다. 그리고 오늘 이 제품전시회에 참가한 경공업부문일군들에게 지원을 호소하면 문제가 풀릴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얼핏 드시였다.

전시된 제품들을 다 보는데 근 두시간이 걸렸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 져서 책임서기가 초조해 하는것을 개의치 않고 휴계실로 자리를 옮기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앞에서 전시품들을 보신 소감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제품을 내놓은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빨리 다량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문제, 품종을 더 확대하고 일반제품의 질을 수출품수준으로 끌어 올릴데 대한 문제… 등 당면하게 경공업부문 일군들이 관심을 돌려야 할 일련의 문제들을 강조하신 다음 한가지 호소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시며 화제를 돌리시였다.

《나는 얼마전 남포갑문건설장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이런 사실

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한 군인의 본의 아닌 실수로 군인상점이 불탄 사실과 상점건물은 원상으로 복구되였지만 아직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군인건설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하여 자상히 이야기하시였다.

《… 물론 현재로서 사고를 친 그 군인의 문제는 달리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점에 상품이 부족하여 건설자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상 불편 같은건 동무들이 지원해 풀어 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치며 부총리가 입을 열었다.

《그 문젠 저희들이 맡아 풀겠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토론해서 산하 공장들에 지표를 얼마씩 떨구어 주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표를 떨구어 준다는건 결국 내려 먹이는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증산과제로…》

그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그건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한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공장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의 계획규률을 어기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그때 건너편 벽밑의 쏘파에 앉아 무엇인가 수첩장에 부지런히 쓰고 있던 키가 작고 오달지게 생긴 녀성이 일어 섰다. 강서편직공장 지배인이였다.

《저의 공장에서 재생실로 짠 2천장의 세면수건과 면양말 5천컬레를 내겠습니다. 아까 지도자동지께서 순천가죽구두공장에서 내놓은 가죽오리로 만든 어린이신발을 공짜라고 하셨지만 저희공장의 재생실로 짠 세수수건과 면양말도 원가가 들지 않는 제품입니다.》

바라시던것이 바로 그러한 예비생산품이여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내심 기쁨을 금치 못하며 말씀하시였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무. 내가 바라는 도움은 바로 그런것입

니다.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그러자 박천견직공장 지배인을 비롯한 여러 지배인들이 겨끔내기로 일어 나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엇무엇을 어떤 식으로 증산하여 언제까지 얼마만큼씩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평양방직공장 지배인과 함흥모방직공장 지배인이 내겠다는 품종은 각기 10여가지에 수십만원어치나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커다란 기쁨속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 나시였다.

《지배인동무들! 나는 동무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무들이 이렇게 도와 주니 본의 아닌 실수로 화재사고를 저지른 그 군인의 운명도 달리 처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이의 머리속에 금시 떠오른 생각으로서 상기 지원품들을 배상조건으로 친다면 법적으로 처리된 그 군인을 다시 자기 초소로 돌려 보낼수도 있을것 같으시였다.

11

가물막이마감공사를 년중에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군중속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었다. 때문에 윤상설은 6개월짜리 마감공사시공설계에 대한 군중심사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하는 사업을 자신이 직접 주관하였다. 그러나 30여명의 과학자돌격대원들을 인입하여 벌써 일주일째 진행하고 있는 심사의견 검토과정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다. 각 단위에서 초보적으로 검토, 선출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라 온 의견서는 수만장이나 되였는데 대부분이 군인들의것이였다. 어디서 났는지 제법 청사지에 생각을 설계로 옮겼는가 하면 군인수첩에서 떼낸 종이나 전투속보용지뒤등에 연필로 또박또박 써넣은것도 있었다. 그렇게 백이나 천이 다 규격도 내용도 각각인 인간지혜

의 전시장과도 같은 그 의견서들을 보느라면 재미도 있고 어이도 없고 기막힌 나머지 한바탕 웃음을 터치게 되는것도 있었다. 어제는 돌격대대장이 이걸 좀 보라면서 들고 왔길래 보니 계단식으로 고도를 취한 다섯대의 직승기가 각각 두개씩 묶은 원통형부재를 마감공사구간에 폭탄처럼 투하하는 장면이 그려 져 있었는데 뒤장의 설명서에는 이런 《훈시》까지 씌여 있었다.

《과학자선생님들, 왜 이런 대담하고 현대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합니까? 지반이 감탕인 조건에서 직승기를 리용하여 조금때 이렇게 떨구면 원통부재가 감탕속에 푹푹 박히면서 마감막이가 단번에 될게 아닙니까? 병사의 명예를 걸고 장담하는데 가물막이를 금년중에 끝내자면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자선생님들의 금후활동을 주시할것입니다. 건투를 바라면서.》

《허허허, 이건 의견서라기보다 경고장 같구만. 금후활동을 주시하겠다?… 허허허.》

그러한 엉터리의견서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고심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의견서들이였다. 개중에는 그 착상이 아주 기발하고 엉뚱하여 놀라움을 자아내는것들도 없지 않았는데 원리상 공법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없거나 실천적으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기각시키기는 하지만 개개의 의견서에 박혀있는 씨알들이 아까와—과학자돌격대 책임자에게 단 한장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건사해 두도록 지시하였다. 6개월짜리 마감공사설계심사에는 갑문건설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들도 전원 참가하였다. 그들이 제출한 의견서는 윤상설이 직접 검토하였다. 그에게는 그래도 어떤 묘안이 나온다면 틀림없이 그들 과학자들의 머리속에서 나올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의견서검토도 직접 맡아 나섰는데 아직 걸어 쥔것이 없어 그는 요새 몹시 초조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만사를 제쳐 놓고 아침부터 《2월17일과학자돌격대》 참모장의 방에서 앞상을 차지하고 앉아 수십건의 심사의견서를 검토했지만 점심시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소득을 얻지 못한

그였다. 이제는 머리도 무겁고 한두건 더 보고는 그만두자고 생각하며 손에 잡히는대로 펼쳐 본 의견서가 뜻밖에도 유정의것이여서 그는 혹시 하는 기대속에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다.

…심사에 제출된 설계에서 시공기간이 6개월로 길어 진 주되는 원인은 공사의 안전성을 많이 추구한 결과 최종막이구간(60메터)을 필요이상 넓게 잡고 (넓은만큼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게 되며 그것은 곧 시간과 정비례된다.) 공법을 소극적인것으로 선택한데 있다. 따라서 상기 결함을 극복하고 공사기한을 좁히는것과 함께 수문에 의한 단번막이공법을 선택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수문으로는 함형부재를 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함형부재수문에 의한 단번막이？…)

최종막이를 수문으로 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은 일부 있었지만 함형부재를 수문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본것은 유정이가 처음이여서 그는 흥미가 없지 않았다. 별지로 첨부된 그의 의도는 한마디로 최종막이구간을 45메터로 좁히고 대형함형부재를 만들어서 침강시키는 방법으로 최종막이를 결속하는것인데 시공기간은 2개월이면 충분하였다. 착상이 아주 엉뚱한가 하면 대담하기도 해서 당사자를 불렀다. 유정은 웬일인가 싶은지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니 이내 불러 온 까닭을 짐작한듯 몸가짐이 긴장해 졌다.

《어서 앉으라구. 의견서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오라했는데 유정인 이래저래 함형부재와 인연이 깊군 그래,응？》

아들과 련결된 지난번 일을 념두에 두며 상설은 너그러운 어조로 말했다.

《건설장에 와서 배웠다는게 그것밖엔 없다보니…》

부끄러운듯 처녀는 말꼬리를 삼키며 고개를 숙이였다.

《수리공학전문가가 함형부재만 잘 알아도 큰 재산이지. 그러니 이런 대담한 의견도 내놓은게구.》

그렇게 고무적인 말을 해주며 그는 처녀가 내놓은 시공방법의

착안경위를 물었다. 경위는 극히 단순했다. 끌살부리에서 16해상부대 군인들이 하는 철배침강조립을 보고 거기에 철배대신 함형부재를 대입한것이였다.

그런데 바로 그 대입에 문제점이 있었다.

즉 가물막이언제를 구성하고 있는 철원통부재와 콩크리트함형부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련결시키겠는가 하는것을 해결하지 못한것이였다.

유정은 아래입술만 지그시 감쳐 물뿐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게 난문제입니다. 부재수문과 제방을 잇는것이…》

과학자돌격대 참모장의 말이였다. 상설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순대콩크리트〉로 안될가?》

그가 말하는 《순대콩크리트》란 가물막이공사장에서 철배알통과 알통사이에 늘어 뜨린 수십메터의 순대처럼 긴 자루속에 세멘트혼합물을 떨구어 짬을 메우는 방법이다. 이것 역시 병사들의 창안품이였다. 그러고보면 결국 그들은 이래저래 군대식사고방식에 떠밀리우고 있는 셈이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돌격대참모장에 의해 부정되였다. 한쪽이 철통이고 한쪽이 함형부재인 조건에서 《순대콩크리트》로는 부착도 어렵고 안정성을 담보할수 없었던것이다. 결국 착안을 과학자돌격대에서 더 연구해 볼데 대한 의견을 주는것으로 락착되였다.

유정이가 돌아 간 뒤 담배에 불을 붙인 윤상설은 돌격대참모장에게 처녀의 나이를 물어 보았다. 참모장은 스물일곱인가 된다고 분명치는 않은 대답을 하더니 짚이는 생각이 있는 모양 되묻는것이였다.

《집에 총각이 있는가 봅니다?》

《한놈 있소. 서른두살이나 처먹은 놈이…》

아들의 혼사문제를 생각하면 그는 매양 신경부터 돋아서 저절로 말이 곱지 않게 나가는것이였다.

《서른둘이면 이젠 치워야겠습니다.》

《치우기는 치워야겠는데 처녀가 마땅한게 없어 그러지 않소.》
아들의 괴벽때문에 어쩌지 못한다는 소리는 집안의 허물 같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둘러 댔다.
《이자 그 처녀 어떻습니까?》
《글쎄… 겉 보긴 괜찮은것 같은데 속은 어떤지.…》
《속이야 더 곱지요. 교양이 있구 성격도 원만하구… 과학자로선 모르겠지만 며느리감으로선 나무랄데 없는 처녀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나거든 말하라는것이였다. 제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욕심은 나오. 헌데 연구사처녀가 군관한테 시집 가자고 할가?》
윤상설은 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돌격대참모장도 그것은 예견못했던지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아들이 군관입니까?》
《대대장노릇을 하오. 소좌구.…》
《소좌에 대대장… 일 없습니다. 연구사처녀가 군관한테 시집 가면 코가 삐뚤어 진답디까? 사실 녀자의 천직이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집안살림을 잘하는게지 연구사업은 아니지요.》
《그런 락후한 소리는 하지 마오. 녀자라구 왜 연구사업을 못하겠소?》
그런 소리는 귀담지 않고 참모장은 제가 나서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것처럼 자신만만해 하였다.
《그럼 한번 다리를 놓아 보오.》
오후에도 그는 의견서검토를 계속하였다. 처음 맞다들린것은 역시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인 함박사의 심사의견서였다. 그런데 박사의 견해나 제기한 마감공사방법이 점심전에 본 유정이의 방식과 매우 류사한가 하면 근본적으로 차이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류사한것은 둘 다 최종막이 구간을 좁히면서 수문으로 일거에 결속한다는 점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유정이가 수문으로 함형부재를 예견한 반면에 함박사는 일정한 높이(표고 3－5M)의 수문턱을 조성한 상태에서 정통을 여러개 묶어 수문으로 리용할 계획이였다. 다시 말하여 함박사의 방법은 유정이의 난점이던 량쪽

수문과 제방의 련결을 용이케 하고 수문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시공기한도 더 단축할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상설의 시선을 끈것은 함박사가 마지막에 참고표를 지르고 써넣은 사항이였다.

그 사항에서 박사는 해상돌격대 연공들의 사심 없는 의견이 마감공사공법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다.

박사의 겸손성에 대한 존경도 존경이지만 윤상설은 군인들의 대중적지혜에 대한 감동을 더 금할수가 없었다.

그는 흥분으로 가슴이 후둑후둑 뛰는것을 느끼며 급히 웃주머니에서 전자수산기를 꺼내놓고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산해보았다.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마감막이에 필요한 시간이 줄잡아 20일을 넘지 않았다. 혹시 흥분한 김에 잘못 계산하지 않았는가 싶어 다시 계산해 보았으나 같은 답이 도출되였다. 그는 기쁨을 금할수 없어 주먹으로 장탁을 쾅！ 내리치며 흥분하여 웨쳤다.

《됐소！ 먹었소！ 바로 이게요！ 마감공사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오！》

그는 놀라 안경너머로 눈이 둥그래 쳐다보는 돌격대참모장에게 함박사의 착상과 공법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돌격대참모장도 착상의 실천적가능성과 의의를 인정하며 기뻐 하였다.

《다 모이라고 하오.》

그는 함박사의 착상을 공개토론에 붙여 보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저리 마감공사공법으로 눌러 놓을 심산이였다.

윤상설은 흥분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함박사가 대중적지혜에 의거했기에 좋은 안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워 졌다.

하기는 이 몇해째 군인들도 악전고투하면서 기술실무적으로 훨씬 성장했다.

그들은 실천속에서 수리공학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이 전문가들에게 주는 암시나 착상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바다를 대적한 힘겨운 싸움에서 눈물 겨운 희생도 있고 참기 어려운 육체

적고통을 이겨 내면서 어쨌든 승리의 날로 달려 가고 있었다.

(그렇다. 대중적영웅주의! 대중의 지혜!…)

바로 그것을 오늘처럼 깊이 느끼지 못한 까닭에 갑문건설기한을 그렇듯 늦잡았던것이며 5년계획을 놀라와 하며 자신심을 못 가졌던것이다.

이윽고 전체 과학자돌격대원들이 회의실이기도 한 식당칸으로 모였다.

무슨 일때문인지 몰라 웅성거리는중에 윤상설은 아무런 설명없이 배식구와 퇴식구사이의 벽 웃쪽에 걸려 있는 너비가 2메터가량 되고 높이가 1메터쯤 되는 흑판앞에 함박사를 불러 내여 그가 완성한 마감공사공법을 설명케 하였다. 그리고 박사가 설명을 끝내자 의견들을 제기해 보라고 하였다.

《기탄없이들 말하시오. 아니면 아니라던가, 좋다면 더 합리적으로 변경시킬수는 없겠는가?…》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누구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때는 의도적으로 선코를 떼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는 유정이를 불러 세워 견해를 내놓게 하였다. 처녀는 자기의 착안에서 난점이던 문제를 함박사가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충분히 리해한듯 수문턱의 조성과 새로운 수문의 합리성을 론증하더니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어조로 많이 배웠다고 하며 앉았다. 이어 몇사람이 의문되는 점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함박사가 필요한 설명을 하였다. 론의는 그 다음부터 활발하게 벌어 졌다. 공법이 너무 대담하여 불안을 느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년중에 마감공사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그 이상 합리적인 공법이 없을것이라는 견해가 보다 우세하였다.

그만하면 론의가 충분히 되였다고 보아 윤상설은 협의를 끝내려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한 젊은 연구사가 일어 나더니 자신이 검토한 군인들속에서 나온 안들중에 함박사의 방법과 원리가 같으면서도 시공기일을 좀 더 앞당길수 있는 착상이 있으므로 론의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래 요구가 수락되고 연구사가 흑판앞에 나와 본인을 대신하여 설명을 하게 되였는데 그가 말한대로 착

상이 함박사의 방법과 원리에서 같은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더 발전시킨 측면도 있었다. 그것은 물때에 맞추어서 마감공사구간의 언제를 세단계로 꺾어 전진시키는 방법이였는데 약점은 수문턱을 예견하지 못한것이였다. 그러나 그대신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간으로서 움직여야 할 물동량이 매우 적은것이 또한 우점이였다. 다시 론의가 벌어졌다. 이번 론의는 아까와는 달리 함박사의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옳은가 아니면 군인들속에서 나온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옳은가 하는 측면에서 론쟁적성격을 띠게 되였다. 근 한시간 가까이 벌어 진 론의는 결국 두 착상을 합쳐 하나의 방법으로 만드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로 견해가 모아 졌다. 그렇게 되면 시공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최소한 일주일이내에 마감공사를 결속할수 있었다.

(허허,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도 있는가? 여섯달짜리 설계를 일주일로 압축해 버리다니… 결국은 군인건설자들이 바로 수리공학박사가 아닌가!…)

윤상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여섯달짜리 설계를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의 공개심의에 붙여 해결방도를 찾으라고 가르치심을 주시던 일이 상기되였다. 사실 그는 그때 가물막이를 년중에 끝내자면 다른 해결방도가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마감공사공법과 같은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모든것이 다 그이께서 예견하신 그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런 가르치심을 주시지 않았던들 마감공사를 한주일동안에 해낼수 있는 이런 놀라운 방도는 나오지 못하였을것이였다!)

×

식사시간이여서 참모들이 식당에 간 조용한 짬에 송철만은 방에 앉아 인편에 보내온 안해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아들

경호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였다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있어 입대하는 아들을 바래 주면 좋겠지만 자기가 다 잘해 떠나 보내겠으니 안심하라는것, 일전에 보낸 약들을 잊지 말고 제때에 복약하는지 모르겠다는것, 경호가 군대에 나가는 조건에서 경옥이가 오빠를 대신하여 이제부터는 장작도 패고 구멍탄도 찍고 남자가 할 일을 다 제가 도맡는다고 어른스러운 소리를 한다는 등 남편에게 집걱정을 시키지 않으려는 안해의 다심한 마음 쓰임이 력력히 느껴 지는 내용들로 일관되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눈길을 창문가에 주었다. 만나본지 퍼그나 오래서 안해도 그립고 군복을 입은 아들이며 이제는 제법 처녀꼴이 잡혔을 딸도 몹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인차 그런 사사로운 생각을 털어 버리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빼람에서 종이를 꺼내놓고 회답을 쓰기 시작하였다.

경호 보아라

축하한다!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네가 군대에 입대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정말 기쁜 일이다. 남자란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 조국보위는 단순히 공민적의무이기전에 사나이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대학이라고 할수 있다. 이 대학에서 사나이는 조국애와 용맹과 투쟁의 학문을 배우며 우리 시대인간들의 가치, 인생의 의의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체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네가 잘 알리라 생각된다. 더우기 너는 아버지가 지난날 머슴이였다는것을 잊지 말며 어느분들의 사랑의 손길아래 우리 집안의 오늘의 영광과 행복이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또 한사람의 군인이 난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네가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군사복무를 잘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경호야, 군대에 입대하는 너를 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주기 바란다. 너도 이제는 군인이다. 너와 나는 다같이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그러니 우리 서로 군인

들로서 크게 생각하자.

거기까지 쓰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것 같아 그는 고개를 들며 《예.》했다. 이어 문이 열리며 들어 와 거수경례를 붙이는 사람은 뜻밖에도 얼마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하해 같은 은총을 입어 건설장으로 다시 돌아 온 박선봉이였다. 본의 아닌 과실로 그새 커다란 인생고초를 겪은 뒤에 재생의 기쁨까지 체험한 그에게서는 이전의 경박하고 싱겁둥이 같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 볼수 없었다. 몸가짐이 자못 진중하고 의젓해 졌는가 하면 눈가에 엄숙한 기운까지 돌아서 전혀 딴 사람으로 환생한것 같았다. 하기는 정치적생명을 잃어 버리고 영영 죽으나 다름 없던 사람이다.

철만은 그가 건설장으로 돌아 오던 날의 일을 잊을수 없었다. 정치부장과 함께 차에서 내린 그는 그래도 군인임을 잊지 않고 거수경례를 붙이며 정보로 걸어 왔다. 그것이 더욱 가슴을 울려서 철만은 마주 달려 나가 와락 끌어 안았다. 아마도 그러한 포옹은 그의 일생에서 처음 있은 일일것이다. 철만은 말없이 전사의 잔등을 마구 어루 쓸다가는 두손으로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을 떠받들어 들여다 보고 그러다가는 또 와락 끌어 안았다.

《울지 말라구… 저기 안해도 보는데. …》

그렇게 말하는 철만의 목소리도 떨리고 눈에서 물기가 번뜩이였다.

《예… 울지 않겠습니다. 저는… 울지 않습니다. 중장동지도… 울지…》

터져 나오는 울음때문에 선봉은 종시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 두 군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철만은 병사를 걸상에 앉히고 물었다.

《처는 어떻게 했나?》

박선봉은 낯이 불그레 해졌다.

《가지 않겠답니다. 건설장에 정도 들었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덕에 조금이래두 보답해야겠답니다.》

어조로 보아 그도 안해와 생각이 같은것 같았다.

《그렇다면 애써 보낼 필요가 없지. 둬두라구. 갑문을 다 건

설한 다음 둘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좀 멋 있겠나? 아마 고향사람들이 영웅처럼 맞이할거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그렇게 하라면서 철만은 박선봉이 뭔가 말할듯 말듯한 기색인것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 신중한 기색으로 이윽히 무릎만 내려다 보고 앉아 있던 그는 한참 지나서야 그것도 매우 갑자르면서 자기를 잠수병으로 돌려 달라고 제기하였다.

《잠수병?…》 그는 병사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결심이 인차 서지 않았다.

《연공이 어째서 잠수병이 되겠다는건가? 갑문건설에선 다같이 중요한 직무인데…》

《갈구 같지만 전 어쨌든 잠수병이 돼야겠습니다.》

《그건 어째서?》

박선봉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진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전에는 어리석은 공명심때문에 잠수병이 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인간이겠습니까. 저는 잠수병인 동무한테서 마감공사와 함께 함형부재조립이 시작되면 수중작업이 결정적으로 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잠수병이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철만은 리해되는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선봉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마감공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며칠후부터 령남리에서 1기함형부재를 띄워 바다에 내다 조립을 시작하게 되면 수중작업이 배로 늘어 나는 폭이였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도란 잠수병들의 열의에 의거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잠수병이 되자고 결심했단 말이지… 한데 잠수기술은 정말 있나? 잠수작업이란 연공작업과는 또 달라서 욕망만 가지고는 안되는거야?》

박선봉은 그건 자기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어 달

라고 하였다. 잠수기술이 그리 높지는 못하지만 차례진 과업은 능히 해낼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렇다면 구태여 돌려 주지 않을 까닭도 없어서 철만은 제창 송수화기를 들어 16해상돌격대장 정대철을 찾았다. 그러나 정대철은 공사현장에 나가서 없고 전화를 받는것은 참모장이였다. 참모장에게 연공중대의 박선봉이를 잠수병으로 조동시키는것이 좋겠다고 지시 겸 권고를 하고 송수화기를 놓았다.

《자, 이러면 되겠나?》

박선봉은 벌떡 일어 서서 거수경례를 붙였다.

《고맙습니다, 국장동지!》

《일을 잘하라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덕을 잊지 말구…》

《명심하겠습니다.》

병사가 돌아 가자 철만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몇줄 쓰지 못하고 또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언제 건너왔는지 윤상설이 문기척도 없이 방에 들어 섰던것이다.

《방안에 들어 앉아 여태 무얼 하우?》

전에 없던 말투로 빈정거리며 그는 손바투 있는 걸상을 당겨 앉았다. 철만은 안해한테서 아들의 입대소식이 와서 회답을 쓰던중이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럼 집에 갔다 와야지 않겠소?》

《지금 어디 그럴 형편이 되오?》

《하기는 그렇소. 이런것까지 나왔으니…》

윤상설은 희색이 만면하여 앞에 놓았던 큼직한 종이봉투를 손바닥으로 철썩 내리쳤다.

《이게 뭔지 아우?》

《?…》

《모를테지. 마감공사설계요. 일주일짜리… 끝내 나오고야 말았소.》

《뭐 일주일짜리?…》

송철만은 얼결에 벌떡 일어 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차 《가만, 좀 가만 있소. 내 이 편지를 마저 쓰구 보기요.》하며 도로 주

저앉아 앞서 쓰던 문장과 관계없이 급히 이렇게 써넣었다.
《바쁜 일이 제기되여 더 쓰지 못하니 리해해 다오. 부디 군사복무를 잘하기 바란다. 아버지.》
그는 련락병을 불러 편지를 봉해 오늘중으로 붙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큰 짐을 벗어 던진듯 가벼운 마음으로 윤상설이와 마주 앉았다.

12

래일은 《아빠트》들이 이사 가는 날이다. 부재장 수문을 드디여 터치고 1기에 생산한 부재들을 띄워 바다로 끌어 내가는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함형부재생산자들은 저녁식사후 각 대대별로 군무자총회를 진행하였다.
윤건호소좌의 구분대에서 군무자총회가 끝난것은 날이 벌써 한밤중처럼 캄캄해 진 여덟시반경이였다. 결의모임뒤끝이라 건호는 이전 같으면 흥분한 김에 대대를 이끌고 작업장으로 달려 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저녁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래일 첫 새벽부터 긴장한 전투를 벌려야 하는 조건에서 그는 중대장들에게 오늘밤에는 일체 다른 사업을 조직하지 말고 취침시간에 관계없이 전사들을 일찍 재우라고 지시하였다. 중대장들을 돌려 보내고 전화로 부대참모부에 군무자총회정형을 보고한 그는 습관대로 공부를 하려고 교재를 펼쳐 놓았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도무지 교재에 정신을 집중할수 없었다. 군무자총회를 하면서 흥분된 감정이 채 가라앉지 않은탓이였다. 이럴 때는 차라리 래일의 큰일을 앞두고 일찍 자고 새벽에 깨여 나는 편이 좋다고 보아 그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정작 자려니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눈앞으로 자신의 착안에 의해 통나무를 쓰지 않고 만든 함형부재의 웅장한 자태가 솟아 오르는가 하면 그것을 만들던 나날의 일들이 머리속으로 강물처럼 흘러 가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은 래일 수문

을 터쳐 부재장에 물을 채우면 과연 부재가 떠오르겠는가 하는 불안으로 바뀌면서 마음속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래일의 전투를 위해서는 자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신을 강박하며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니 이번에는 오려 낸 사진인양 유정이의 아름다운 얼굴이 삼삼히 떠올랐다. 비로소 그는 이 하루 자신이 몹시 그 녀자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왜 그토록 기다리며 만나려고 했던지는 지금도 꼭 집어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저 까닭없이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기다렸던것이다. 유정이가 이런 내 심정을 알고 있을가? 모르겠지. 모르니 오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지금 유정이가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았다. 자고 있을가? 아니, 그가 언젠가 말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게으른 녀자여서 새벽잠이 많다고, 그때문에 어머니한테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끝내 고치지 못했노라고… 그러니 지금쯤 소설책을 읽던가 제3외국어로 독습한다는 도이췰란드어원서를 번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3외국어… 나도 대학시절에는 제2외국어로 도이췰란드어를 선택할 계획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제3외국어라… 그래 유정이는 지금 제3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 나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을것이다. 하기야 외국어를 세개씩이나 알고 있는 녀자에게 이 윤건호 같은거야 무얼로 보이겠는가?… 그런데 이 멍청이는 온종일 기다렸지… 바보 같으니… 바— 보—…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잠결에 기상나팔소리를 들은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 방안에는 어둠과 정적만 무겁게 드리워 있을뿐이였다. 저절로 깬걸 보면 많이 잤을것 같은데 팔목시계의 야광판은 겨우 밤 열한시 어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는듯 비닐박막을 유리 삼아 댄 창문이 벌거덕거리고 인발관을 잘라 만든 마당가의 철봉대며 평행봉대가 겨끔내기로 부—웅—부—웅— 퉁소를 불었다. 함형부재를 띄우는 날에 바람이 부는것은 좋지 않았다. 부재가 바람에 밀리면서 고정삭을 끊고 서로 부딪쳐 파손될 위험성이 있었다. 만일 단 한개의 부재라도 그렇게 파손되면 손실이 막대할뿐아니라 2기함형부재생산에 큰 난관이 조성될것이였다.

그는 일어 나 전등을 켜고 군복을 주어 입었다. 낮에 연공들이 와서 부재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지만 안심되지 않아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볼 작정이였다. 차림새를 다하자 그는 침대머리말에 놓아 두었던 손전지를 찾아 들고 침실을 나섰다. 정작 밖에 나와보니 생각했던것보다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았다. 그래도 이왕 결심한 일이고 불안감을 버릴수 없어 그는 전지불로 앞을 비쳐 가며 부재장으로 내려 갔다.

작업을 하지 않는데다 래일 수문을 터치는것과 관련하여 기자재들을 다 철수한 까닭에 드넓은 부재장안에는 각기 네귀에 사선으로 고정삭을 드리운 부재들만 괴괴한 정적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건호는 엊그제 양생이 끝난, 자신의 착안으로 통나무를 쓰지 않고 만들어 진 마감부재의 고정상태부터 한바퀴 돌며 살피고 이어 다른 부재들을 차례차례 확인하며 천천히 광량만입구에 있는 수문쪽으로 내려 갔다. 부재장 중간쯤에 이르러 6호부재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다음번 부재로 건너 가던 그는 저만치 앞에서 마주 오는 전지불을 보고 놀라 우뚝 멈춰 서며 자신의 전지불을 껐다.

(누군가? 누가 이 밤중에 부재장에 나와 있는가?…)

그는 움직이지 않고 전지불의 움직임을 살펴 보았다. 살펴 본 결과 저쪽 전지불의 주인도 함형부재의 고정상태를 검열하고 있음을 알게 되였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는 전지불을 켜며 걸음을 내짚었다. 저쪽에서는 그제야 이쪽을 알아 본듯 멈춰 서서 마주 전지불을 비치였다. 불빛이 그리 밝지 못하였다. 그에 비하면 자기의 전지가 압도적으로 밝아서 건호는 저쪽보다 먼저 상대방을 알아볼수 있었다. 둥그런 전지불빛속에 포착된것은 뜻밖에도 유정이였다. 그 녀자는 군복처럼 만든 밤색누비솜옷에 목에는 검은 털목도리를 감아 한쪽가닥을 가슴앞에 드리우고 있었다. 건호는 별안간 심장의 박동이 빨라 지는것을 느끼며 태연히 그 녀자의 전지불앞에 다가섰다. 그제야 처녀는 이쪽을 알아 보고 《어마!》 놀라더니 반기듯 물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나왔어요?》

《동무는?》

뻔히 알면서도 건호는 그 녀자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 싶어 우정 모르쇠를 했다.

《바람이 불길래… 혹시나 해서…》

《나도 그래 나왔소. 어쩐지 잠도 오지 않고…》

말을 해놓고야 건호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소린 하지 말았어야 옳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초조감을 드러내 보인 격이였다. 유정의 질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불안한가부죠?》

《좀… 그렇구만.》

《저도 좀… 하지만 다 잘될거예요. 아무렴 대대장동무의 아버님이 안될 일을 승인하셨겠어요.》

언제 보나 아버지에 대한 그 녀자의 신뢰는 두터웠다. 고마운 일이였다.

유정이가 수문쪽에서 부재고정상태를 훑으며 올라 왔기때문에 더 돌아 볼 필요가 없어 그들은 귀로에 올랐다. 바람은 아까나 별반 다름없이 불었다. 밤하늘에 드문드문 널린 엷은 구름장들은 래일의 날씨를 가늠할수 없게 하였다. 제발 바람이 불지 말아 다오.

두 사람은 피차 어색한 감정을 느끼며 앞서가는 희고 둥그런 불빛만 부지런히 밟았다. 상종을 시작한지 이미 두해가 넘지만 이렇게 밤길을 걸어 보기는 처음인 그들이였다. 건호는 자기쪽에서 먼저 화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알수 없었다. 더구나 함형부재에 대한 불안이 겹쳐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침묵이 더 길어 지면 끝내 아무 말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쫓겨 떠오르는대로 물었다.

《춥지 않소?》

《저야 이렇게 솜옷을 든든히 입은걸요. 오히려 대대장동무가 춥겠어요.》

피복착용규정에 따라 그는 아직도 여름군복을 입고 있었다.

《우린 단련되여 일없소. 피복규정도 그렇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건호는 자신의 미련에 화가 났다. 바보 같으니. 차라리 함형부재에 대한 걱정이라도

할게지. 여름군복을 입은 주제에 솜옷 입은 사람더러 춥지 않은가고 묻다니… 그리고 너는 위선자다. 네가 온종일,그렇다. 그렇게 바삐 지내면서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 녀자를 안타깝게 기다린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이냐? 그것은 못 견디게 그리웠고 만나서 마음속에 가득찬 사랑의 감정을 쏟아 놓기를 바라서가 아니였더냐?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거냐? 홑옷을 입은 주제에 솜옷을 입은 사람더러 춥지 않느냐구? 게다가 단련되여 일 없다고?… 피복규정?… 그것은 이성의 신비앞에 쫓기여 어디엔가 숨어 있던 사나이로서의 자존심이 터치는 분노였다. 그는 유정이를 기다리며 만나보고 싶었던것이 무엇때문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것 같았다. 그래,그렇다. 바로 그때문이였다.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내가 얼마나 이 녀자를 오래동안 열렬히 사랑해 왔는가? 이제 나는 그가 없는 미래의 생활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의 애매한 관계를 끝장낼 때가 되였다. 내가 적게 참았는가? 안된다. 이제는 결판을 지어야 한다. 그것도 이제 말이다.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바로 이 밤에… 고요한 달빛도 없고 밤어둠의 아늑한 품도 없는 이런 밤이 군인의 사랑에는 더 좋을지도 모른다.

건호는 심장이 흉벽을 걷어 차며 온몸의 피가 머리로 달려 올라가는 느낌을 체험하였다. 그는 단숨을 흑 들이그으며 갑자기 처녀의 앞길을 막아 섰다.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란 처녀는 《어마!》 하며 한걸음 뒤로 물러 섰다. 물러 선 그 한발자국을 자기의것으로 만들며 그는 황황 불타는 열띤 눈으로 처녀의 공포어린 눈을 마주 보았다.

《유정이,그 손… 손목을 좀 잡아도 일없겠소?》

그에게는 처녀의 손목이 사랑의 징표고 언어였다. 처녀가 손목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을 의미하였고 주지 않는다면 거절하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과연 어느쪽이겠는가?…

유정은 마주 보던 눈길을 천천히 떨구더니 고개를 외로 비틀어 어딘가 저만치 어둠속을 바라보았다. 까딱 않고 한참동안 그

렇게 서있다 말고 엷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리며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다.

《걷자요. 걸으면서 이야기하자요.》

순간 건호는 가슴이 선뜩하면서 전신의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머리로 달려 올라 가던 피가 도로 발아래로 사라져 버리는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를 가다듬고 최후의 《공격》으로 넘어 갔다.

《그러니… 안된다는거요?》

《동무두 참… 이렇게 갑자기… 어서 가자요. 가면서… 저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건호는 할말이 없었다. 자신이 너무 갑자기 들이댔으며 그때문에 처녀 자신도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전지에서 비쳐 나간 창백한 불빛이 저만치 앞에서 허둥거리며 어둠과 싸우고 있다.

《저 같은 보잘것 없는 녀자를 리해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대해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요.》하고 유정은 드디여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푹 가라앉고 어조에서는 랭담한 기운조차 풍기였다.

《허지만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 전 아직 대대장동무의 요구에 응할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여 있지 못해요. 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긴장된 나머지 목이 타는것을 느끼며 건호는 마른침을 꿀떡 삼켰다.

《그… 생각을… 언제까지 다 할수 있소?》

《그걸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당장 말할수 있겠어요. 대대장동무는 군관이니 아무나 사랑해도 일없겠지만 전, 저에게는 전공사업이 있어요. 녀자라고 결혼이나 가정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예요. 전 동무가 이 점을 리해해 주었으면 해요.》

이미 예감하고 있은것으로 건호는 그 녀자의 말이 달리 표현된 거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 이건 거절을 의미한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 내놓고 사랑할수 없다고야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는 분했다. 마음속으로 아끼며 근 두해나 사랑해 온 녀자한테

서 이런 거절을 당하다니. …

《용서하시오. 내가 주제 넘은 인간이였소.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 바라오. 과학사업에서도 성공하고…》

그는 이것으로 유정이라는 녀자와의 관계는 깨끗이 끝났다고 단정하였다. 실패한 사랑은 애수를 자아내던가 아니면 고통이나 적의로 변한다는 말은 옳았다. 이제 와서 그에게는 그 녀자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것 자체가 하나의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생각되였다. 그는 거친 숨을 들이그으며 갑자기 걸음을 크게 내짚어 씨엉씨엉 혼자 돌진하듯 걸어 갔다. 걸으며 만일 그 녀자가 찾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처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 난것이며 그것을 도화선으로 다시 폭발을 준비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어설픈 기대를 가져 보았다. 하지만 유정은 부르지 않았고 따라 오지도 않았다. 점점 벌어 지는 그들 두사람사이로 바람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길게 누워 있었다.

×

《이게 어떻게 된거요. 정치지도원동무? 저 부재가 왜 꿈쩍도 하지 않소. …》

《가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오.》

《젠장, 조급해 한다구?》

건호는 팔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벌써 얼마나 갔는지 아오? 30분이요, 30분…》

《글쎄 조급해 말라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떠오르지 않는 14호부재를 내려다 보는 리종각의 눈에도 초조감이 짙게 어려 있었다.

초조하지 않을수 없었다.

준첩선이 파헤친 부재장수문으로 밀물이 들어 와 하나하나가 그대로 한동의 아빠트와 맞먹는 13개의 함형부재들을 차례로 띄워 올린지도 벌써 30분… 그러나 윤건호의 착안에 의해 통나무를 쓰지 않고 만든 마지막 14호부재만은 아직도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먼저 떠오른 13개의 부재들은 고삐를 잡힌 사나운 황소마냥 제가끔 네귀를 바줄에 걸매인채 흥뗙이며 진정을 못하였다.

하지만 문제의 14호부재는 밑굽을 부재장바닥에 떡 붙이고 앉아 떠오를 기맥조차 보이지 않는것이다. 순간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 지는 초조속에 또 10분이 보람없이 지나갔다.

《실패요. 떠오를 잡도리가 아니요.》

간밤 전혀 자지 못한탓에 눈에 피발이 선 건호는 끝내 초조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제먼저 실패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리종각은 여전히 침착하였다. 《실패는 왜 실패요. 통나무를 타지 않았으니 늦게 떠오르는게지. …》

통나무를 쓰지 않은 조건에서 다른 부재들보다 떠오르는 시간이 좀 늦을수 있다는것은 미리 예견도 하고 모의실험과정에 확인도 하였다.

그렇더라도 너무 오랬다.

부력이 최대값을 가지는 만조에도 뜨지 않는다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였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었다. 하다면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무엇을 예견하지 못하고 무엇을 잘못 타산했는가?… 혹시 내가 전혀 불가능한 착안을 한것은 아닐가? 그럴수는 없다. 유정이가 직접 계산과 실험으로 가능성을 증명했고 송철만국장은 물론 아버지까지도 지지한 문제가 아닌가?… 건호는 목구멍이 말라드는 감을 느끼며 마른침을 삼켰다. 입안이 말라 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47분, 13호부재가 떠오른 때로부터 벌써 한시간 하고 15분이 더 지난셈이다. 허나 14호부재는 여전히 떠오를 념을 않고 있었다.

불현듯 수문쪽에서 길고 짧은 호각소리가 엇바뀌면서 《영차! 여엉—차!》하고 힘을 쓰는 군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1호부재를 수문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바줄로 끌어 당기는 소리였다. 건호는 아버지나 송철만국장이 지금 거기에서 1호부재의 수문통과를 지휘하고 있지만 신경은 여기 14호부재에 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통나무를 쓰지 않고 만든 부재가 어떻게 뜨는지 봐야겠다고 아침부터 줄곧 여기 있다가 몇몇 과학실무일군들

만 남겨 놓고 내려 간지 얼마 안되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떨어 진 과학자들속에는 유정이도 끼여 있었다. 그러나 그 녀자는 간밤에 있은 상서롭지 못한 일때문인지 자기네 사람들과만 섞여 돌아 가면서 우정 피하는 눈치였다. 여느때라면 그것이 대단히 신경을 자극하는 일로 되였겠지만 지금 건호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잠겨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자기의 14호부재(그는 그것을 자기의 부재라고 생각하였다.)에만 가 있었다. 과연 뜨겠는가 뜨지 않겠는가?… 끝내 뜨지 않는 경우 문제는 매우 엄중하게 설것이다. 세멘트 수천톤과 강재 수백톤을 거저 내버리며 2기생산을 위해서는 부재자체를 폭파시켜 버릴수밖에 없었다.

그런뒤에는 법적책임이 뒤따를것이고… 14호부재에는 그렇게 그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등뒤로 다가와 왼켠 두세발자국쯤 떨어진곳에서 멈춰 섰다. 연한 분내가 바람에 언뜻 풍겨 왔다. 건호는 옆에 온것이 유정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그냥 피발선 눈으로 부재만 주시하였다. 유정이쪽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수문쪽에서는 또 호각소리가 울리고 《영차,영차》 힘을 쓰는 수백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어찌될것 같아요?》

유정의 물음이였다. 목소리에 역시 불안과 초조감이 짙게 배여있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알겠소.》

건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끝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불안과 초조감을 넘어 그 녀자의 어조에서는 절망에 가까운 공포가 울리고 있었다. 건호는 화가 났다. 감정이 시키는대로 거칠게 쏘아 붙였다.

《왜,책임질가봐 두렵소?》

《…》

《걱정하지 마시오. 동무한테는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테니…》

말에 감정을 싣기는 했지만 만일 법적추궁을 받게 된다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혼자 걸머 질 각오가 되여 있는 그였다. 유정

은 잠자코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반응하였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으면 량해하세요. 하지만… 군인이라고 사람을 너무 깔보진 말아요. 저도 피가 뜨겁기는 마찬가지구 심장이 돌로 만들어 지진 않았어요.》

감정이 그대로라면 건호는 이렇게 웨치고 싶었다.

《동무! 그렇게 피가 뜨겁구 그렇게 심장이 돌이 아니여서 남의 진정도 받아 들일줄 모르오?》하고.…

바람소리속에서 일시 조용한가 싶던 수문쪽에서 불현듯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아마도 1호부재가 수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바다로 나간 모양이였다. 이제 부재는 수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예선에 끌려 바다로 나가 5,700메터계선에 이른 기본언제끝에 당도하게 될것이다. 보지는 못해도 건호는 그 모든것을 상상으로 그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1호부재가 수문을 빠지면서 흔들어 놓은 물살이 제법 파도를 일으키면서 발아래 제방에 당도한 그때 지금껏 아무 기척 없던 14호부재가 움씰하며 알릴듯말듯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저쪽에서 누군가 《뜬다아—》 하고 웨쳤다. 리종각의 목소리였다.

건호도 그것을 확실히 보았으며 벌써부터 고동치는 심장의 거센 박동을 느꼈다. 유정이도 부재의 변화를 감촉한듯 《어마!》 하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찰나,부재는 다시 한번 움씰 몸을 떨더니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비스듬히 누우며 젖어 번들거리는 벽체를 물우로 드러냈다. 서슬에 수면이 크게 흔들거리고 팽팽히 켕기웠던 팔뚝 같은 고정삭이 툭 끊어 져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철썩 떨어 졌다. 일이 제대로 될라면 이때 건호는 끊어 진 고정삭에 관심을 돌렸어야 했다. 그러나 흥분한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였다. 그는 틀어 쥔 두주먹을 들먹거리며 넉없이 소리쳤다.

《뜬다!… 뜬다!… 뜬—다!…》

《그래요! 떠요! 떠요!》

《대대장동무,유정동무》 리종각의 웨침소리.…

유정은 흥분하여 어쩔줄을 몰라 하다가 연구사들이 몰켜 서 있

는 동뚝우로 달려 올라 갔다. 반대로 윤건호는 수문쪽으로 내달렸다. 달리며 정신없이 만신의 힘을 다해 웨치고 또 웨쳤다.

《떴—다—아.… 부재가 떴—다！… 14호가 떠—올랐다—아！…》

웨침만으로는 모자라 그는 군모를 벗어 쥐고 머리우에 높이 들어 휘둘렀다. 거기에 또 고함을 합쳤다.

《떴—다—아！ 14호가 떴—다—아！…》

도중에 그는 제방뚝우에 멈춰 서 있는 현장방송차를 만났다. 그는 무작정 방송차에 뛰여 올라 방송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국장동지！… 떴습니다！ 14호부재가 떴습니다！ 14… 14…》

그는 숨이 막혀 말을 계속할수 없었다. 심장이 금시 목구멍으로 튀여 나오는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14호부재가 아주 재미 없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천톤의 거대한 무게로 떠오르면서 이미 두귀의 고정삭을 끊은 부재는 그새 나머지 두귀의 바줄마저 당겨 끊어 버리고 지금은 요동하는 물결과 함께 천천히 빙빙 돌며 점차 13호부재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고삐를 끌고 들판을 헤매며 적수를 찾아 가는 받개질 잘하는 싸움군황소를 방불케 하였다.

《14호가 위험하다！》 누군가의 웨침소리.…

유정이를 비롯하여 현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사태의 위험성을 제때에 알아 차리기는 했지만 한퉁구리가 1톤이상 되는 팔뚝처럼 실한 바줄을 부재에 다시 건다는것이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이제는 두 부재사이의 거리가 5～6메터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수천톤의 거창한 부재가 물속에서 부딪치는 경우 두 부재는 파괴되기 마련이였다. 《어마！ 저걸 어쩌나… 저걸 어째.…》

두두룩한 가슴앞의 옷섶을 움켜 쥔 유정은 어쩔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다.

수문쪽에서 군인들의 무리가 달려 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재가 떴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는것이지 위험을 알고 오는것은 아니여서 움직임이 안타깝도록 굼떴다. 그러는 사이에 두 부재사이의

거리는 3～4메터정도로 가까와졌다.

림박한 위험을 비로소 느낀듯 13호부재도 불안스럽게 기우뚱거렸다. 그에 따라 수면이 요동하고 위험은 더욱 커갔다.

윤건호소좌와 그의 대대군인들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당도한것이 바로 그때쯤이였다. 부재의 이동상태를 보고 사태의 위험성을 즉시 판단한 건호는 군모부터 벗어 내치고 익숙된 빠른 동작으로 군관혁띠를 풀었다.

그의 결심을 알아 차린 리종각이 팔을 움켜 잡았다. 《대대장동무,헤염은 나를 당하지 못하오. 내가 들어 가겠소. 대대장동무는 여기서 지휘하시오.》

《이걸 놓소. 내가 들어 가야 하오. 지휘는 동무가 하오.》

그래도 팔을 놓지 않는 리종각의 손을 뿌리치며 그는 큰소리로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대대,나의 명령을 들으라. 부재가 충돌한다. 1중대는 고정삭을,기타는 나를 따라 앞으롯!》

그는 멀지 않은곳에 쌓여 있는 휘틀 번침대로 쓰던 통나무무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군복상의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손에 걸리는대로 통나무를 한대 안고 제방밑에 내려 가 물에 뛰여 들었다.

이어 돌격전에 나선 군인들이 그렇게 통나무와 함께 물에 뛰여들어 철벅거리며 그새 퍼그나 가까와 진 두 부재사이로 헤염쳐 들어 갔다.

한편 제방우에서는 수문쪽에 내려 가 있다가 그제야 올라 온 송철만국장이 손에 확성기를 쥐고 다급히 무슨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나무를 떠미느라고 철벅거리는 물소리때문에 건호는 국장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 들을수 없었다.

알아 듣는대야 달리 어쩔수 없는 정황이기도 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14호부재의 저쪽모서리는 벌써 13호부재의 허리를 노리며 바투 다가들고 있었다. 건호는 바로 그 지점을 목표로 필사적으로 통나무를 떠밀었다. 뒤쪽에서 누군가 너무 깊이 들어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리종각의 목소리가 분명하였다. 그러나 건호는 그냥 헤염쳐 나가며 고개만 돌리고 맞받아 소리쳤다.

《내 걱정은 말고 대원들을 살피라. …》

철벅거리는 물소리때문에 못 들었는지 리종각은 반응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두 부재는 더더욱 가깝게 접근하여 열려 있는 벽사이의 공간이 병실복도처럼 좁아 지였다. 그제야 건호는 자기가 부재짬에 너무 깊이 들어 왔음을 깨달으며 전진을 멈추었다. 그는 바삐 통나무를 돌려 두 벽체사이에 가로 뻗치며 뒤따라 오는 대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소리쳤다. 두 부재사이에 통나무를 가로질러넣으면 두 부재가 직접 부딪치지 않고 통나무들의 완충작용으로 힘이 분산되면서 충돌이 보다 약해 질것을 타산하였다. 일은 뜻대로 되여 주는것 같았다. 물결을 타고 기우뚱거리며 눈앞에 다가온 14호부재는 그가 가로 질러 댄 통나무를 곧추 13호부재벽에 떠밀어다 붙였다. 쿠—궁 하는 둔중한 음향과 함께 두 부재가 거대한 몸을 부르르 떠는 순간 건호는 성공을 예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때이른 속단이였다. 그는 자신이 가슴으로 누르고 있는 통나무가 힘을 받으며 활등처럼 휘여 오르는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바로 그 찰나에 통나무허리가 꺾이면서 그를 3～4메터나 되는 높이로 뿌려 올렸다. 뿌리우는 순간 건호는 고막을 치는 우지끈소리와 함께 가슴밑이 선뜩한 느낌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마감으로 더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본능적인 동작으로 두손을 모아 가슴을 움켜 쥔채 부러 진 통나무우에 모로 떨어져 내렸다.

1중대가 끊어진 고정삭을 찾아 당기기 시작한것이 바로 그 순간이였다.

13

왼손으로 허리를 눌러 짚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벽에 걸린 조국의 지도앞에 서 계시였다. 광활한 아시아대륙을 짊어 진채 서해를 걷어 차고 일본렬도를 짓밟으며 금시 태평양으로 뛰여 나갈것 같은 조국땅… 바야흐로 또 한해가 저물어 가

는 이 시각 지도우에서 조국땅 방방곡곡을 헤아려 보시는 그이의 눈앞으로 생동하는 산 현실인양 한해동안에 마련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렷이 떠오른다. 그렇다. 이해에도 조국은 거대한 변혁과 진보를 이룩하였다.

먼먼 북변의 새별군과 무산으로부터 서해곡창 연백벌에 이르기까지 이해에도 조국땅우에는 얼마나 많은 재부가 이룩된것인가.

완공된 큼직큼직한 대상만 꼽아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1돐을 계기로 4월 13일에 봉화갑문을 준공하였다. 7월에는 대동강발전소가 조업하고 9월에는 검덕에서 제3선광장이 완공되고 평양에는 《충성의 다리》가 일떠섰다.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한 기본건설대상들에서 이룩한 성과도 결코 작다고는 볼수 없었다.

국토를 넓히고 나라의 면모를 개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을 맡아나선 간석지건설자들은 대계도간석지와 룡매도간석지를 비롯한 간석지건설장들에서 물막이제방공사와 함께 개간된 간석지들의 내부망건설을 적극 다그쳐 서해바다 100여개의 섬들을 륙지와 련결시키고 수만정보의 간석지를 풍년대지로 전변시켰다. 대상건설인가 하면 자연개조사업이기도 한 발전소건설도 례외가 아니였다.

새로운 수력자원개발방식의 본보기로 일떠서고 있는 태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으로 수십리구간의 물길굴뚫기공사와 언제공사, 시설물공사 등 전반적건설이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졌다. 그러나 매사가 다 락관적이기만 한것은 아니였다.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스러운 대상들도 있었다. 지금 그이의 시선이 머무른, 서해변의 남포지구와 은률군을 련결하는 갑문건설이 바로 그러하였다. 남포갑문건설을 시작한지도 이제는 벌써 3년, 그 3년동안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는 물론 대단한것이였다.

그러나 이미 해놓은 일이 제아무리 많다 해도 앞으로 해야 할 공사과제는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하였다. 가물막이의 완성은 물론 후속공사들인 가물막이언제안에 있는 천만립방의 물푸기, 수백만립방의 감탕을 쳐내고 다시 20여만립방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갑실기초굴착, 무넘이언제를 포함한 3개의 갑실공사, 대형회전다리를

비롯한 운영설비조립, 대형함형부재에 의한 기본언제마감막이…남은 2년동안에 그 모든 공사과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지금은 전적으로 가물막이에 달려 있었다. 남포갑문건설에서 가물막이공사가 돌파구로 되는 리유는 바로 그때문이였다. 그러나 년말이 달포밖에 남지 않은 (바다가 얼어 붙지 않아 실제로 공사를 할수 있는 기간은 한달 되나마나하였다.) 지금까지도 가물막이는 완성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후 전망까지도 매우 어둡게 한다.

(그렇다. 남포갑문건설에서는 아직도 최후의 돌파구를 뚫지 못하고 있다!)

집무탁앞으로 걸어 가신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들어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찾으시였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것은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의 서기였다.

《위원장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어제아침에 남포갑문건설장으로 나갔는데 아직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돌려 인민무력부장을 찾으시였다. 그러나 방이 비여 련계를 가지지 못하고 총참모장을 찾았다.

총참모장은 무력부장이 남포갑문건설장에 나가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급히 올려 달라던 보고를 지금 전달하려던 참이였다고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갑문건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 말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시며 다우쳐 물으시였다. 총참모장은 전신보고를 받다 보니 아직 사고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남포갑문건설장에서 보내온 전문을 그대로 읽었다.

총참모부 앞

함형부재장에서 사고 발생, 16명의 인원 부상, 그중 3명 생명위급. 구급치료대책 요함.

11월 21일 11시 54분

극히 압축된 짧은 전문이여서 사고의 원인은 알수 없었지만 16명

의 인원이 부상을 입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셋이나 된다면 작은 사고가 아니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급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래 구급대책은 세웠습니까?》

《군의국장이 치료조와 같이 내려 갔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총참모장은 방금전이라고 하였다.

《알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그이께서는 책임서기를 불러 즉시 남포갑문건설장에 갔다와야겠다고 하시였다.

인민군전사－군인건설자들을 만나야 했고 현지일군들의 정신적타격도 헤아려 보셔야 했다.

김정일동지께서 승용차로 남포갑문건설장에 도착하신것은 오후 해가 벌써 서쪽으로 기운 3시 50분경이였다. 그이께서는 부상당한 군인들부터 만나보실 계획이여서 건설관리국군의소로 곧장 들어 가자고 하시였다. 인민무력부장이나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리영선부부장도 거기에 있기가 쉬웠다. 그러나 정작 가보니 군의소에는 부상자들도 일군들도 다 없었다. 중좌인 군의소 직일관의 말이 부상자들은 이미 남포시병원으로 후송되고 인민무력부장일행의 승용차들은 언제공사장쪽으로 내려 갔는데 혹시 정무원지휘부에 가있을지도 모른다는것이였다. 중좌의 추측은 옳았다. 차를 돌려 정무원지휘부로 내려 가니 인민무력부장과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거기 윤상설부위원장의 방에 있었다. 물론 송철만국장도 앉아 있었다. 예견한 그대로 모두 낯색이 무겁고 의기소침해진 그들 매일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탁에 마주앉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시였다. 송철만국장이 구체적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니 부재의 충돌을 자기희생적으로 막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숱한 군인들이…》

함형부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곧 자신의 불찰로 생각하는듯 송철만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경위는 그렇고… 몸을 다친 군인들은 어떤 상태에서 후송되였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리영선이 대답했다.

《경상자들은 의식도 회복하고 크게 문제될것 같지 않은데 대대장을 포함하여 세명은 매우 위급한 상태로 실려 갔습니다.》

그 말에 무력부장이 보충하였다.

《특히 위급한건 대대장인가 봅니다. 통나무가 부러지면서 가슴을 때려 흉곽이 상한데다 골절된 갈비뼈가 심장을 다친것 같습니다.》

상태가 그 정도면 대대장의 생명은 구원하기 어려울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용감하고 헌신적인 군인을 잃는다는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손실이였다. 아직 살아 있는지 몰라도 가능한껏 손을 써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전화기 가까이에 서 있는 리영선에게 지급으로 평양을 찾게 하시였다. 부부장이 전화를 거는 사이에 그이께서는 담배갑을 꺼내 모두에게 일일이 권하시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담배를 받는 윤상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얼굴도 컴컴하게 질리고 눈빛이 어두웠다. 발생한 사고때문이기는 하겠지만 한생 별의별 일을 다 겪어 보았을 사람치고는 다소 의외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부위원장의 아들이 이 건설장에 있고 대대장이였다는데 생각이 미치시였다. 그렇다면 지금 사경에 처했다는 그 용감한 대대장이 그의 아들이였는가?… 필경 그런것 같다고 생각되는 순간 평양이 나와 송수화기를 넘겨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보건부장을 찾으시였다. 보건부장과의 통화는 인차 이루어 졌다. 먼저 남포갑문건설장에서 군인들이 부상을 입은 경위와 상태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신 그이께서는 유능한 외과의사들로 강력한 치료대를 무어 빨리 남포시인민병원에 내려 보낼데 대해 지시하시였다.

《…나는 부장동무가 치료대와 같이 내려 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 대대장을 꼭 살려 내야 합니다. 치료와 관련하여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지체 말고 나한테 알리시오.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명심하시오. 나는 그 대대장과 부상 당한 열여섯명의 군인들중 어느 한명이라도 잘못되는 경우…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보건부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통화를 끝내고 송수화기를 놓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먼 배경으로 철판묶음을 달아 올린 기중기팔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창가에 시선을 주며 다소 흥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남포갑문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은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수천톤짜리 함형부재가 충돌하는것을 막자고 그렇게 한몸을 내던질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쟁시기에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것과 다름 없는 소행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번 일은 사고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왜 사고입니까? 사고라는 말은 사실과 맞지도 않으며 그것이 사고로 된다면 그 대대장동무를 비롯한 우리 군인들의 영웅적소행에 흠집이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일은 사고가 아니라 예견 못한 하나의 비상한 전투정황입니다. 그런 정황에서 그 대대장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갑자기 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났다. 윤상설이 손바닥에 얼굴을 눌러 붙인채 울음을 참느라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리영선이 《부위원장동무.》하고 가볍게 나무라며 그이께 말씀 드리였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대장이 부위원장동무 아들입니다.》

《나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을 일으켜 윤상설의 등뒤로 다가가시였다.

그리고 손을 들어 들먹거리는 그의 어깨를 어루쓸며 갈린 목소리로 위로하시였다.

《그는 영웅입니다. 장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기뻐서… 기뻐서 그럽니다. 변변치 못한 녀석을 그토록 높이 내세워 주시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억센 심장을 가진 영웅이 그리 쉽게 죽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 눈물겨운 분위기를 돌려 세우려고 무력부장이 헌헌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을 놓소, 부위원장. 내 우리 군의국장한테 단단히 일렀소. 한사람이라도 죽으면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구… 게다가 보건부장까지 내려 온다니 죽은 사람도 살려 놓을게요.》

무력부장의 말에 방안의 무겁던 분위기는 얼마간 가셔 지는듯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였다. 일군들이 그이를 바래우러 나왔다.

승용차에 다가서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전사들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워 진 마음을 어쩔수 없으신듯 승용차너머로 바다쪽을 바라 보다가 뒤돌아 서시더니

《부위원장동무, 국장동무.》 하고 부르시였다.

《부상 당한 전사들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손이라도 한번 쥐여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포병원에 같이 가봅시다.》

그이께서는 송철만과 윤상설이더러 자신의 차에 오르도록 권하시고 나서 친히 운전석에 오르시였다.

이윽고 승용차는 남포병원을 향해 질주해 갔다.

14

오전 9시경.

쏟아 지는 진눈을 맞으며 40메터가 넘는 긴 팔을 하늘로 내뻗친 130톤기중기선이 두척의 200마력예선에 끌리워 대동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기중기선에는 선원들외에도 해상돌격대장 정대철과 그의 수하에 있는 연공, 잠수병들이 10여명이나 타고 있었는

데 그들은 모두 갑판에 떨쳐 나와 삿대며 널판자며 쇠망치따위로 배전에 달라붙는 얼음장을 떼버리느라고 역사질이였다.

어제밤 서해지구는 중국 산동반도를 휩쓴 태풍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몹시 불었다. 날이 밝아서야 알게 되였는데 마감막이를 위해 전날 남포조선소에서 운반해다 부통에 실은채로 고정시켜 놓았던 최종막이수문이 바람에 밀려 어디론가 떠가버렸다. 소동이 일어 났다. 작업선들은 물론 련락정과 고무뽀트들까지 총 동원하여 금산포와 남포, 은률쪽 대안들을 훑으며 찾던중에 남포시당을 통해 행방불명된 수문이 대보리근방에 밀려 올라가 강기슭에 뒤집혀 져 있다는 련락이 왔다. 기중기선은 지금 그것을 건지러 가는 길이였다.

솜동복우에 병사용외투를 덧입은 정대철은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깊이 찌른채 선수쪽 갑판우를 뚜벅뚜벅 오고가며 목적지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두루 생각해 보았다.

(… 강기슭에 뒤집혀 져 있다면 보나마나 밤새 꽉 얼어 붙었을테니 우선 얼음까기부터 해야 할것이다. 오늘 같은 날은 위험하므로 잠수작업은 될수록 피해야 한다. 쇠바줄로 수문밑둥을 걸어 당기느라면 견인고리를 찾던가 바로 세울수도 있을것이다. 발전선과 양수기를 제창 가지고 오는걸 그러지 않았는가?)

그때 기중기선을 끌고 있는 오른쪽 예선이 문득 뚜— 하고 목쉰 고동을 울렸다. 왼쪽 예선도 같은 소리로 그에 화답하였다. 이어 두 배는 약속이나 한듯 기관을 끄고 서서히 전진을 멈추었다.

대보리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웬일인가 싶어 정대철은 선장실을 올려다 보았다. 선장은 머리가 희끗희끗 센 60전후의 몸이 다부진 사람인데 벌써 다랍쁘를 밟으며 갑판으로 내려 오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게 안 보이우다?》

선장의 수염 더부룩한 턱이 가리키는 기중기팔을 올려다 보고서야 정대철은 재미 없는 정황에 맞다들었음을 직감하였다. 진눈까비가 어지럽게 쏟아 지는 거기 전방의 희뿌연 공간속에 강을 가로 질러 건너간 여러줄의 고압송전선이 보였다. 한선에 수만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 송전선인데 진눈이 달라붙으면서 한껏 늘어 나금시 강물에 닿을것처럼 무겁게 드리워 져 있었다.

《날을 잘못 고른것 같수다.》

앞에 있는 두척의 예선보다도 더 멀리 뻗어 나간 기중기팔끝을 올려다 보며 하는 선장의 말이였다. 정대철은 여러모로 송전선의 높이를 가늠해 보았지만 닿을것 같기도 하고 닿지 않을것 같기도 하고 잘 알수 없었다. 그러나 송전선을 늘일 때 이런 경우를 타산하지 않을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전진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응하지 않았다.

《안되우다. 설사 닿진 않는다 해도 안정한계를 벗어 나 류전이라도 되는 날엔 세 배에 산 목숨이 하나두 남지 않수다.》

세 배가 다 쇠바줄로 련결되여 있으니 류전이 가져 올 후과는 그렇게 처참할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선장은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부시럭거리며 솜옷주머니에서 마라초쌈지를 꺼내 한대 말아 붙이고야 입을 열었다.

《별수 없을것 같수다. 돌아 갔다가 이 눈이 멎구 고압선이 좀 들린 다음에 와야지. …》

정대철은 선장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었다. 바다가 얼어 붙기 전에 마감막이를 결속하려고 온 끌살부리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판에 그렇게 늘쩡거린다는것도 말이 안되거니와 위험하다고 먼발치에 서서 쳐다보다가 되돌아 간다는것이 우선 배짱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합시다. 내 보기에도 복판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저기 은률쪽은 선이 좀 들렸습니다. 그러니 배를 저쪽 대안에 바싹 붙여가지고 통과하면 일 없을것 같습니다.》

《그쪽은 물밑에 암초들이 많수다.》

선장의 말이였다.

《암초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백메터만 극복하면 됩니다. 그 백메터를 극복할 자신마저 없다면 선장동무, 미안합니다만 배를 우리 군인들한테 맡기고 선원들을 데리고 내리시오. 우린 그저 돌아 갈수 없습니다.》

선장이 끝내 응하지 않는 경우 정대철은 실지로 그렇게 할 작정이였다. 그러나 선장의 얼굴은 벌써 노여움으로 이그러졌다.

《여보시우, 군대라구 사민들을 너무 업수 보지 마슈. 사민은 가슴에서 피가 안 뛰구 맹물이 뛰는줄 아시오?》

《내 말이 지나쳤다면 량해하시오. 그러나…》

《됐수다.》

선장은 담배꽁초를 끼워 쥔 손으로 가슴앞 허공을 뻑 내리긋고는 영필이라는 젊은 선원을 불러 두 예선의 선장들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무뽀트가 내려 지고 두 선장이 실려 와 은률쪽 기슭으로 통과할데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협동신호들을 약속하였다.

드디여 배들은 전진을 시작하였다.

기중기선 선장과 함께 선수갑판 바로 기중기팔밑에 두발을 벌려짚고 선 정대철은 긴장한 눈길로 전방을 감시하였다. 은률쪽 기슭이 가까와짐에 따라 강수면에 거의 닿을것 같던 고압선이 떠오르며 공간을 드러냈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마 암초도 없을것이다.)

불행은 바로 그때 찾아 왔다. 이제는 예선들과 기중기팔끝이 고압선밑에 거의 당도했을것이라고 생각할무렵 갑자기 발밑에서 어떤 둔한 물체가 드—윽 하고 배밑창을 긁었다. 동시에 배가 흠칫 몸을 떨며 멎어 섰다.

《암초에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다른것일수 없다는것이 명백했지만 정대철은 얼결에 그렇게 물었다.

《부딪쳤으면 좋겠는데 올라 앉은것 같수다.》

배가 암초우에 올라 앉았다는것이 어떤것인지는 정대철이도 모르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모재비로 뒤집히거나 더 나쁘기는 허리가 뭉텅 부러져 나가는수도 있다. 다행히 작업선은 그런 형편에까지엔 이르지 않고 배머리가 암초우에 조금 올라 앉았을 뿐이였다. 그러나 그 조금 올라 앉은 기중기선을 내려 앉히는데 근 두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돌아 갈수밖에 없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해 졌다. 그때껏 선미쪽에서 얼음 밀어 내기를 하던 박선봉이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다면서 정대철에게 만나줄것을 요청해 온것이 바로 그때쯤이였다.

《말하시오. 뭔지…》 정대철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병사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대좌동지, 제가 저 기중기팔끝에 올라 가겠습니다.》

얼음장과 씨름하느라고 솜옷앞섶이며 무릎이 화락하게 젖은 박선봉의 엉뚱한 제의였다.

정대철은 의아한 눈으로 병사를 쳐다보았다.

《거긴 왜 올라 가?》

《이건 제가 연공을 할 때 얻은 경험인데… 고압선이 저렇게 처져 내리긴 했지만 밑에서 올려다 보기와 다릅니다. 그리고 기중기팔끝에 올라 가 직접 수평으로 보면 배가 통과할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정대철은 병사의 제의가 좀 모험적이기는 해도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묻는 의미에서 선장을 쳐다보았다.

선장은 멀리 눈 내리는 희뿌연 하늘가로 사라진듯 싶은 기중기팔끝을 이윽히 올려다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대철은 그것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며 박선봉을 돌아다 보았다.

《아주 좋은 생각이요. 팔끝에 올라가 수기신호로 배를 지휘하면 될것 같소. 하지만 동무는 안돼.》

《왜 저는 안됩니까?》

《글쎄 안돼. 연공들도 있는데 동무야 잠수병이 아닌가?》

정대철은 고압선이 팔끝에 닿지 않는다 해도 선장의 말대로 고압선이 안전한계를 넘어 류전되는 경우를 생각했다. 류전이 약하여 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해도 진눈을 맞으며 기중기팔끝에 올라 간 사람은 위험할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총을 입어 잃어 버렸던 생을 금방 되찾고 첫 임무수행의 길에 나선 병사를 그런 위험속에 내맡길수 없었다. 그러나 박선봉은 자기도 한때 연공이였으며 자신이 생각해 낸 일이

기때문에 제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중에 그는 눈부리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울먹거리며 이런 말까지 하였다.

《대좌동지, 대좌동진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막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다른 동무들보다 백배로 일을 더 해야 하고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일도 저는 해내야 합니다. 대좌동지,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전의 사고꾸러기 박선봉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 새로 태여난 박선봉입니다.》

정대철은 병사의 절절한 요구를 더 막을수 없었다.

《좋아, 그럼 올라 가라구. 하지만 반드시 무사히 내려 와야 해?》

《고맙습니다, 대좌동지!》

박선봉의 목소리는 감동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기중기팔로 올라 가려니 이번에는 연공들이 막아 나섰다. 그들은 자기들이 있으면서 잠수병에게 연공작업을 맡긴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제마끔 제가 올라 가야 한다고 우기며 옥신각신하였다. 정대철이 그러는 병사들을 설복하다 못해 성까지 내서야 겨우 진정시키고 박선봉을 기중기팔에 오를수 있게 하였다.

기중기팔에 사다리가 따로 없는 조건에서 지그자그로 널직널직 붙어 있는 산형강을 짚으며 배가 동요하는데 따라 그냥 흔들거리는 60도 이상 되는 경사를 올라 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게다가 내리는 진눈까비에 젖고 얼어서 여간 미끄럽지 않았다. 아차 실수에 허연 얼음장들이 둥둥 떠도는 수십길 강물에 곤두박힐수 있었다. 그런대로 물에 떨어 지면 별문제이지만 얼음장우에 떨어 지게 되면 살아 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선봉은 그러한 위험이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여 오르는데만 전심하였다.

높이 오를수록 바람세가 더 사나와 졌다. 짐작에 이제 겨우 절반거리나 돌파했음직한데 벌써 팔다리에 맥이 없으면서 등골로 땀이 줄줄 흘러 내렸다. 한순간 그는 힘을 주었던 오른발이 쭐 미끌면서 하마트면 떨어 질번 했다. 눈앞에 있는 가름대를 날쌔게 끌어 안았기에 망정이지 떨어 졌기가 십상이였다. 그는 가름대를 붙안은채 공포로 뛰노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얼마간 쉬였다. 그리고

다시 배밀이로 전진을 시작하자 하나하나의 쇠가름대를 넘을적마다 수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두—울… 세—에—엣…》

그렇게 쉰한개를 세고서야 드디여 기중기팔끝에 도달할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큰 위험은 아직도 앞에 있었다. 꼭대기에 올라 오며 점차 좁아 진 가름대사이에 의지하고 선 그는 등뒤 혁띠에 꽂았던 수기를 뽑아 손바닥처럼 작게 느껴 지는 배들을 내려다 보며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이윽고 배들이 전진을 시작하였다. 극히 미속이였다. 선봉은 긴장한 눈길로 전방을 감시하였다.

점차 굵어 지며 서서히 다가오는 네갈래의 희끄무레한 고압선… 이제는 거의 팔뚝만큼 굵어 보인다. 그런데 왜 선들이 높아 지질 않는가. 거리가 줄어 들면 좀 더 높아 보여야 할것이 아닌가? 이 상태로는 팔이 걸릴수 있다. 정지신호를 보내야 한다. 개판이군!… 하지만 그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신호기발을 쳐들려는 순간에 고압선이 눈높이에서 조금 올라 가는 감을 느꼈던것이다. 그렇구나! 조금 더… 사이 뜬다. 그는 그 공간이 몇메터 되겠는가를 가늠해 보았다. 4메터?… 아니 칠팔메터는 된다. 아니다. 5메터정도밖엔 안된다!… 그러는 사이에 송전선은 눈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이제는 고압선에서 잉— 하고 전류 흐르는 소리마저 들렸다. 정지신호를 보내도 때가 늦었다. 배가 기관을 멈춘다 해도 타력으로 선에 가닿을것이다. 그 다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답하듯 윙— 하고 고압선이 더 크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실려 팔뚝같이 굵은 고압선이 곧추 그의 이마를 겨누고 달려 왔다. 아, 내가 또 무슨 사고를 저질렀는가?…

선봉은 이제 불과 몇초후면 머리우에 떨어 질 벼락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예감한 삼사초가 훨씬 지났는데도 벼락은 떨어 지지 않고 조용하였다. 들리는것은 명주필을 째는것 같은 앙칼진 바람소리와 웅— 웅— 하는 고압선의 울음뿐이였다.

눈을 떴으나 고압선은 보이지 않았다. 얼결에 몸을 돌리니 고압선은 벌써 저만치 뒤쪽에 가있었다. 그러니 통과했단 말인가? 정말 닿지 않고 무사히 지나왔단 말인가?… 선봉은 약속된 신호조차 잊어 버리고 멍— 하니 멀어 져 가는 송전선만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15

성원이 백오십명을 넘는 과학자돌격대에서 혼자 녀성인 관계로 유정은 사랑도 많이 받지만 그대신 출장이 잦았다. 오늘 그가 출장으로 받은 과업은 연구소에 들어 가 가물막이제방안에서 물을 퍼낸 조건을 가상하여 밀물때의 최대수압이 조립된 철배의 매알통에 미치는 값을 콤퓨터로 구해 오는것이였다. 마감공사가 눈앞에 박두함에 따라 요새 연구사들속에서는 일시 잦아 들었던 가물막이제방안의 수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론의에 올랐다. 유지되던 수압균형이 파괴되면서 밀물에 제방이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새삼스러운 론의가 아니고 이제 와서 공사를 달리 진행할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않지만 그래도 돌격대지휘부에서는 다시한번 과학적계산으로 그 안정성을 확인할 결심이였다. 유정은 과업을 선선히 접수했다. 임무가 중요한것은 딴 문제로 하고 이전 같으면 출장이 잦은것이 싫어서도 좀 피탈질을 해보았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군인들속에서 오래 일하면서 임무접수와 집행에 대한 그들의 무조건적인 정신을 배웠다고 할지, 어쨌든 그는 요새 자신이 비로소 참다운 사회성원으로 성숙하고 신상에 부닥쳐 오는 크고작은 개개의 일들에 대한 중요함과 책임감을 새삼스럽게 느끼는것 같았다.

돌격대참모장의 방을 나와 식당에서 점심부터 먹은 그는 숙소에 돌아 와 출장준비를 하였다. 자습하는 외국어원서며 사전과 갈아 입을 옷가지들을 넣으니 가방이 벌써 배가 불러 화장통을 넣

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 화장품은 평양에 들어 가 사서 쓸 셈으로 쟈크를 채우고 일어 나 세면을 한 다음 간단히 화장이나 하려고 거울앞에 나섰다. 거울을 들여다 보며 수건으로 무심히 얼굴의 물기를 닦아 내던 그는 갑자기 《어마.》 하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해빛에 가무스레하게 탄 량쪽 눈귀에 가는 실주름이 잡힌것을 발견했던것이다. 그럴수가 없다고 애써 부정하며 그는 바삐 수건을 놓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량눈귀를 비벼 보았다. 그래도 주름살은 없어 지지 않고 눈을 약간 쪼프리면 골이 더욱 깊어 지고 그 옆으로 보면 주름살이 또 박히였다.… 원 세상에, 벌써 주름살이 생기다니… 스스로 어이 없는 생각을 금치 못하며 가는 한숨을 내쉰 그는 화장통에서 살결물병을 꺼내들고 마개를 비틀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을 쌓은 녀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유정은 지금까지 얼굴치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성에 눈 뜬 대학시절은 그 시절대로 학업에 바빴고 졸업후 연구소에 배치된 뒤로는 연구과제에 쫓기다 보니 맵시 같은데 신경을 써볼 겨를이 없었다. 다행스러운것은 부모님덕분에 그리 밉지 않은 용모와 맑고 흰 살결을 가진것이라고 할지, 거기에 고뿔도 모르는 건강체라 세면만 해도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은것처럼 보여서 때로 오해를 사거나 동무들의 시샘을 받기가 일쑤였다. 그렇던 얼굴이 여기 갑문건설장에 와서 볕에 타고 바다바람에 좀 거칠어 졌다 싶었는데 어느새 눈귀에 주름살이 박힌것이다. 하기는 이젠 스물여섯살, 설을 쇠면 또 한살을 먹는다. 중학시절의 동무들속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수두룩하고 대학동창들도 거의 다 결혼하였다. 그런 까닭에 어머니 또한 편지마다 걱정이고 채근이다. 어쩔셈이냐? 누가 사랑하여 일생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사람이 그리도 없느냐? 연구사를 그만두더라도 금년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못한다.…

합성수지연구로 40대에 학사가 된 어머니는 딸이 성장함에 따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이렇게 교양했었다. 너를 사랑해 준다고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사랑의 감정과 좋은 사람이

라는 개념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 감정으로 결심하지 말어라, 아침에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은 저녁에 평가하는것이 좋다, 서둘러 한 결혼앞에는 흔히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명심해라 등등…

그러던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계률을 어기면서 독촉하게쯤 되였으니 왜 눈귀에 주름살인들 생기지 않으랴!

아무리 건설장이라도 이제부터는 화장도 좀 하고 몸을 가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크림이니 향분이니 눈섭연필이니 하는것들을 쥐고 놓고 하는 그의 눈앞으로 윤건호대대장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유정은 이번 출장길에 소좌를 만나볼 결심이였다. 그가 오늘 돌격대참모장이 주는 출장임무를 기꺼이 접수한 리면에는 그러한 계획도 감추어 져 있었다.

(그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불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좌를 비롯한 3명의 중상자들이 남포시병원에서 1차수술을 받고 평양으로 후송된것은 한달전이였다. 후송될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의 생명은 구원하기 힘든것으로 설명되였다. 그러나 수술결과가 대단히 좋아서 생명의 위험이 멀리 떠난것은 물론 2차수술만 성공하면 원상회복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였다. 비록 멀리 떨어 져 있고 풍문으로 한쪼각씩 전해 져 오는 소식일망정 유정은 비상한 관심속에 윤건호소좌의 그러한 수술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군인의 몸으로 건설장에서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여 손목을 잡으려던 사나이… 하늘에 엷은 구름장들이 널려 있고 바람 불던 그 밤을 유정은 잊을수 없었다. 더욱 잊을수 없는것은 충돌직전의 함형부재를 구원하기 위해 군관혁띠를 풀어내치면서 대대군인들에게 자신을 따를것을 명령하며 통나무를 안고 바다에 뛰여 들던 소좌의 거인 같은 모습이였다. 그 억센 사나이가 지금은 침대에 누워 두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정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그에게는 부재충돌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것도, 그때문에 소좌와 대대군인들이 바다에 뛰여 들어 부재를 구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였던것도 다 자신의 불찰, 사랑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때문에 일어 난 결과

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지금 유정은 왜 그날 자신이 소좌앞에서 손을 움츠리였던지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었다. 다음에는 눈을 뜬 리성의 요구였으니 자신의 리상인 과학사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이였다. 군관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과학사업을 그만둔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좌는 지금 육체적고통과 함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쓰라림도 겪고 있을것이다. 어쩌면 그 쓰라림이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왜 그를 사랑하면 안된단 말인가? 과학자라고 군관을 사랑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사랑의 력사속에는 한 녀성을 위해 왕위를 버린 사나이들도 있다고 한다. 참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먼 례를 들것도 없다.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 온 영예전상자들을 위해, 군사복무과정에 몸을 다치고 돌아 온 사나이들을 위해 고이 간직해 온 순결한 사랑을 바친 녀성들이 이 나라에는 얼마나 많고많은가? 그런 녀성들에게 나름의 꿈과 아름다운 인생계획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악으로 될것이다. 그래 그들이라고 왜 아름다운 꿈을 꾸지 않았고 결혼한 뒤에도 처녀시절처럼 아무 구애됨이 없이 이루고 싶던 인생계획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꿈과 계획을 사랑과 바꾸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동정심의 발로?… 아니면 녀성본능의 리기조차 넘어 선 자기희생으로?… 아니, 아니다. 그렇게 풀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스러운 조국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친 용감한 사나이들—영웅들에 대한 우리 녀성들의 매혹에 기초한 하나의 아름답고 비상한 사랑으로 설명해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는 왜 그들처럼 사랑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 갑문건설도 총포성 없는 전장이고 바다의 전역이라고 한다. 그 전장에서 부딪치는 수천톤짜리 부재사이에 몸을 던진 영웅을 사랑하는것이 그래 연구사업보다 못하단 말인가?…

생각이 깊어 감에 따라 유정은 스스로 격렬한 감정에 불 타올랐다. 그는 어째선지 자신이 윤건호소좌를 사랑하는것이 이제는 응당한 일로까지 생각되였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쿵쿵 땅 울리는 소

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며 능금이가 뛰여 들어 왔다.

《뭘해요, 언니？》

상념속에 깊이 빠져 있던 탓에 유정은 제때에 대답을 못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신을 마구 벗어 던진 능금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려고 뛰여 왔노라면서 활발한 성미 그대로 그리 작지 않은 궁둥이를 침대에 쿵― 내던졌다. 그러나 인차 유정이 가방을 꾸려 놓은걸 보고는 눈이 덩둘해 졌다.

《어마나, 또 출장 가요？》

유정이 그렇다고 하자 처녀는 당장 토라진 목소리로 《으―음.》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혼자 있기가 싫다는 소리였다.

《그래 기쁜 소식이라는건 뭐냐？》

《싫어, 안 대줄래.》

그는 뾰로통해서 침대밑에 드리운 발까지 굴렀다. 유정은 웃지 않을수 없었다.

《넌 그저 심술쟁이총각으로 태여나야 꼭 알맞을걸 그랬어.》

그제야 능금의 얼굴에 웃음이 피여 났다.

《언니, 그 함형부재사이에 뛰여든 대대장 있지요？ 윤건호소좌… 그 소좌동지에게 영웅칭호를 준대요.》

《그건 누가 그래？》

《군대건설국장동지가 우리 종합과장동지한테 말하는걸 들었어요. …》

유정은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송철만중장이 말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아, 영웅… 그 동무가 영웅이 되면…

유정은 영웅메달을 가슴에 단 윤건호를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옆에 자기 아닌 어떤 다른 처녀를 세워 보았다. 상상속의 처녀건만 행복에 겨운지 방그레 미소를 짓는다. 순간 유정은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안돼！ 그건 안돼！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어. …)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그는 자신의 희고 연연한, 아직 그 어떤 사나이에게도 준적이 없는 깨끗한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16

가물막이마감전투를 하루 앞둔 12월 13일 아침 건설관리국지휘부는 공사에 참가하는 전체 부대, 구분대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다.

1) 가물막이마감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안건으로 대대, 독립중대들은 오늘(13일)중으로 군무자총회를 진행할것. (보고는 해당 단위에 부과된 전투과업으로 대신하며 결의토론후 맹세문을 채택할것.)

2) 각급 지휘관들은 17시전으로 자기 단위의 작업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할것이며 18시까지 결과를 보고할것.

3) 일과시간에 관계없이 취침시간을 20시로 앞당기며 20시 이후 일체 다른 사업을 조직하지 말것.

…

상기 지시에 따라 박선봉상사(그는 엊그제 상사로 승급하였었다.)가 속한 16해상돌격대 제5잠수편대에서도 군무자총회를 진행하고 저녁 8시가 되자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무렵 박선봉은 령남리로 건너 가는 련락선우에 앉아있었다.

안해한테 가는 길이였다. 요즘 그는 사는 멋이 있었다. 전번 태풍에 행방불명된 수문을 건지러 가면서 보여 준 용감한 소행때문에 온 부대가 떠들고 부대장으로부터 직접 상사의 군사칭호를 수여 받은 그였다.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군무자총회 주석단에 앉는 영예를 지녔고 선참 불 같은 결의토론도 하였었다. 거기에서 환기되고 더욱 상승된 감정이라고 할지… 이 저녁 그는 이상하게도 안해를 몹시 만나고 싶었다.

정상적이라고 할수 없는 환경에서의 부부생활이라 언제나 그

리움속에 살기 마련이지만 이 저녁 그가 안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평소에 느끼던 그런 단순한 욕망의 연장이 아니였다. 보다 몇갑절 더 강렬한, 만일 오늘밤 안해를 만나지 못하면 래일부터 시작되는 마감막이공사전투도 원만히 치르어 낼것 같지 못한 위구와 조바심까지 포함된 그런 류다른 감정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이윽고 배가 령남리부두에 도착하였다.

미리 갑판에 나와 있다가 선체가 잔교에 채 닿기도전에 뛰여 내린 선봉은 함형부재장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다. 안해 귀금은 지금도 거기 함형부재생산을 담당한 대대의 식당에서 취사근무를 돕고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늘 같은 은총을 입어 건설장으로 돌아 온 초기 그는 안해를 고향으로 돌려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귀금은 돌아 가려고 하지 않았다. 갑문건설이 끝난 다음에 자기와 같이 돌아 가겠다는것이였다. 그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에 미력하게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선봉은 그럼 이왕이면 끝살부리로 건너 오라고 하였다. 안해는 그것도 거절하였다. 자기도 건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지만 이젠 대대군인들에게 정도 들었고 어려운 때 일껏 보살펴 준 사람들을 저버린다는것이 도리에 어긋나는것 같아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는것이였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옳은 소리여서 선봉은 안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저만치 어둠속에 무리 지어 앉은 대대병실들이 보이자 그는 안해가 아직도 식당에 있겠는지 불안스러워 졌다. 없으면 숙소까지 5리길을 더 걸어야 하는것이다. 걷는것은 힘들것이 없지만 그만큼 안해를 만나는 시간이 적어 지는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귀금은 식당에 있었다. 전달을 받고 취사복차림으로 문밖에 나온 그는 어마지두 놀라며 물었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아무리 안해앞이라도 보고 싶어 왔다고 하자니 어쩐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선봉은 돌격대지휘부에 일이 있어 왔던 길에 들렸노라 둘러댔다.

《아직 할 일이 많소？》

《이젠 다 했어요. 제 얼른 차비하고 나오겠으니 조금 기다려요.》
얼른 한다던 차비가 10분도 썩 지나서야 안해는 외투차림에 목도리를 바삐 둘러 감으며 나왔다. 그러한 안해를 보며 선봉은 속으로 시까슬렀다.
(…사민이길 다행이지 군대복무를 했으면 굼뜨다고 밤낮 분대장한테 욕을 먹겠군!…)
식당마당을 빠져 나온 그들은 바다쪽으로 내려 갔다. 밤을 모르는 건설장이라 어디 가나 사람을 만나기 십상이여서 마음 편히 걸으며 밀회를 할수 있는 곳은 그래도 바다가밖에 없었다. 눈이 오려는지 오늘밤 따라 별로 날이 푸근하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좋았다.
《춥지 않으세요?》
《난 일 없소. 동무가 춥겠소.》
《저도 일 없어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집에서 편지 온건 없소?》
《접때 오곤 아직…》
왼쪽으로 점점 멀어 지는 함형부재장에서는 호각소리며 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려 왔다. 1기에 생산한 부재를 다 조립하고 지금 2기생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간것이였다.
《마감공사를 한다더니요?》
《래일부터 시작이요.》
그들은 바투 붙어 걸으며 조용조용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마감공사가 그렇게 힘들다면요?》
《힘들다기보다 중요하지. 갑문건설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봤으면 좋겠어요. 마감공사라는걸 어떻게 하는지…》
《그러기 내가 뭐랍데. 우리한테 건너 오라구.…》
선봉은 마감공사도 볼만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볼만한 일들이 벌어 질것이라고 하면서 가물막이공사가 끝난 이후의 공정들을 아는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 이제라도 건너 오라고.
안해는 한숨을 쉬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 하지만 이젠 안돼요.》
선봉은 안해더러 대대군인들과 헤여지기가 그렇게도 힘든가고 하였다. 그러나 귀금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것이였다.
《그럼 뭐가 문제요?》
귀금은 또 한숨을 내불였다. 그리고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다 말고 문득 자기는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 가야 할것 같다는것이였다.
가라고 할 때는 못간다고 뻗치던게 언젠데 이제 와서 제편에서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 가겠다니 놀라울수밖에 없었다.
《몸이 좀… 이상해 졌어요.》
《몸이 왜 이상해 져?》
선봉은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그로서는 달리 추측할수 없었다.
《아프긴… 그저… 전… 애기를…》
안해의 선언에 선봉은 한순간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차 기쁨으로 타올랐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 아니문…》
아! … 선봉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수 없는 비상한 환희에 휩싸여 버렸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자고 오늘 안해가 그리도 못 견디게 만나보고 싶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이젠 아버지로 된단 말인가? …)
그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안해란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스러운 존재인가? 나를 재생시키고 나의 분신일 새 생명을 또 키워 내고 있는 안해… 선봉은 북받쳐 오르는 사랑의 감정에 몸을 말기며 갑자기 안해의 두 어깨를 끌어 안았다. 안해의 묵직한 젖가슴이 심장을 압박하며 숨 가쁘게 밀착되여 온다. 안해는 작고 가냘픈 몸을 그의 육체에 녹여 붙인다. 하지만 선봉은 그 연약한 녀인의 몸에 자신의 커다란 육신이 녹아 사라지는것처럼 의식되였다.

한편 그 시각 끌살부리 현장지휘부에서는 윤상설부위원장과 송철만국장이 장탁우에 마감공사작전도를 놓고 마주 앉아 래일의

전투와 관련한 심중한 론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론의가 시작된것은 이미 세시간전이여서 쌀을 담으면 한되박이나 들 큼직한 유리재털이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고 두사람 다 어지간히 지친 인상들이였다.

《나보기엔 암만해두 이 어방이 미타해 보이는데… 공사를 한주일쯤 늦구지 않겠소? 무슨 사달이 난다면 분명 여기서 나지 다른데선 날것 같지 않구만.》

왼편 손바닥에 무거운 머리를 받고 앉아 시공도를 들여다 보던 윤상설은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수 없어 이미 론의권밖으로 밀려난 문제를 또 꺼들었다. 그가 우려하는 《이 어방》이란 마감공사구간의 량쪽 감탕지대였다. 전투가 벌어 져 일단 수문을 닫으면 단 며칠사이 그우에 수만립방의 모래와 돌이 실리게 되는데 지반이 감탕층이라 그 무게에 눌려 량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엔 그야말로 난사였다. 지반과 함께 수문이 요동하고 거기에 조수의 힘이 가해 지면 무슨 일이 일어 날지 알수 없었다.

물론 그것을 예견하여 부풀어 오를수 있는 량쪽 감탕구역에 지난 두달동안 수천립방의 막돌을 투석하여 눌러 주기는 했지만 공사기일이 박두한 관계로 불안한 구석을 남겼던것이다. 그러나 송철만에게는 그의 우려가 납득되지 않았다. 그는 벌써 이마에 신경질을 내붙이고 있었다.

《아니, 그 정말 답답하구만. 날이 밝으면 당장 공사를 시작할판에 이제 와서 한주일을 늦춰선 뭐 어쩌자는거요? 안되오, 사달도 나지 않거니와 설사 난다 해도 공사는 계획대로 내밀어야 하오. 물러날 작정은 아예 하지부터 않는게 좋소.》

《허허허…》

상설은 웃을수밖에 없었다. 만사를 땅크처럼 냅다 미는것으로만 해결하려는 그의 성미도 우스운데가 있지만 미련한 곰이야기가 떠올랐던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송철만은 지릅떠보며 웃는 까닭을 따져 물었다.

상설은 동문서답으로 곰이란 놈을 어떻게 잡는지 아는가고 물었다. 송철만은 대수롭지 않게 총으로 쏘아 잡지 어떻게 잡겠는

가고 대꾸하며 담배불을 갈아 붙였다.

《군대니까 그저 총밖엔 모르는군. …

곰이 다니는 길목에 큼직한 바위돌을 둥둥 매달아 놓는단 말이요. 그럼 곰이란놈이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다가 대가리로 그걸 받을게 아니겠소. 아프거던. … 밸이 난김에 한발 물러 섰다가 좀 세게 받아 보지. 그래도 골만 아프고 바위돌은 그냥 매달려 있단 말이요. 곰이란놈은 그만 악이 나서 이번엔 더 많이 물러섰다가 죽을 내기로 내받소. 그러다가 골이 터져 죽는단 말이요. 아까운 총알을 없앨게 있소?》

그제서야 송철만은 깨도가 된듯 눈을 지릅떴다.

《그럼 내가 그 미련한 곰이나 갈다는거요?》

《다른게 뭐이요? 사달이 나도 공사는 내밀어야 한다. … 여보, 그 사달이라는게 어떤겐지나 알구 그러오? 만일 사달이 나면 내나 당신이나 다 목을 내놓아야 하오. 그 책임이 어떤것인줄 알기나 하오?… 문제가 이렇게 서는데 공사를 며칠 늦구는걸 가지구 왜 그리 신경을 쓰오.》

《왜 신경을 쓰는가?》 송철만은 그렇게 전제하고는 담배를 연거퍼 몇모금 빨았다. 《그건 이래서요. 이달 24일경에 우리 인민군 당전원회의가 있소. 나는 그 회의에서 토론할 과업을 받았소. 왜 많고많은 사람들중에 하필 나를 토론시키겠소?》

《그야 가물막이를 끝냈다는 소리를 듣자는거겠지. 당신도 그 말을 하고 싶을게구.》

송철만은 입을 꾹 다물고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러한 욕심도 없지는 않소. 하지만 나는 군인이요.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는 그런 연단에 나설 자격이 없소. 군인의 존엄이란 명령을 수행한 거기에 있소. 알겠소?》

상설은 공감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도 같은 립장일것이였다.

《젠장, 그렇거든 한번 밀어 보기요. 백가지 조건을 다 맞추면서야 어느 하가에 갑문을 건설하겠소!》

《흠, 이제야 비단섬때의 윤상설이 비슷하군.》

송철만은 드넓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진정 기뻤다. 그칠줄 모르는 장마비를 맞으며 비단섬제방을 쌓던 17년전 8월로 되돌아간 심정이였다.

17

날이 밝았다.

이날아침 끝살부리에는 기다리던 명절아침과도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명절치고도 류다른 명절, 기쁨과 흥분, 긴장과 초조감이 한데 뒤엉킨 그런 의미심장한 날이였다. 소문이 어떻게 나갔는지 마감공사를 보겠다고 날이 밝자부터 남포와 은률쪽에서 사람들이 밀려 들기 시작하였다. 그 수가 해가 떠오른 아홉시경에는 벌써 수천을 헤아려 공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토취장 뒤산과 피도 그리고 기본언제코숭이가 인총으로 붐비였다. 또 그때 평양에서 많은 관계부문 일군들과 출판보도계의 기자, 촬영가들까지 내려와 가물막이공사장은 마치도 중대한 국가행사를 치르는 수도의 광장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외관상의 그러한 명절행사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송철만중장을 비롯한 책임일군들과 매 군인건설자들의 얼굴에는 한껏 긴장이 어리고 맡은바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들이 무거웠다.

정각 10시,

가슴우에 쌍안경과 무선통화기를 드리우고 제방끝에 선 송철만은 드넓은 공사장일경을 한눈으로 살펴 본 후 손에 쥔 신호권총을 어깨우로 높이 추켜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메마르고 둔한 발사음이 쌀쌀한 대기를 흔드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총구를 빠져 나간 선홍색불덩이가 하늘로 날아 올라 곡선을 그리며 피도 저쪽으로 사라졌다. 이 력사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사방에서 사진기가 번쩍거리고 촬영기들이 분주히 돌아 갔다.

신호에 맨먼저 반응한것은 수문조립을 맡은 800마력예선과 건

설장의 거인인 130톤배기중기였다. 기관의 웅글은 동음과 함께 부통에서 리탈된 수십톤의 강철수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마침내 필요한 높이까지 떠오른 수문은 기중기팔끝에 배치된 두 명의 연공들에 의해 공간속에서 횡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침강위치를 정해야 하는것이다. 이어 해상지휘선에서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언 대기를 물어 찢으며 길게 울리고 수기신호가 바삐 교환되였다. 침강위치를 정했으므로 이동을 끝내고 수문을 내리우라는 소리였다. 신호에 따라 수문은 침강지점을 향해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 왔다. 이제 중요한것은 수문의 량모서리가 제방턱에 걸리지 않고 곧바로 제자리에 내려 앉아 침강시간을 많이 얻는것이다.

리용할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30분,실패하면 다시 여섯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수문은 실수없이 끊어 진 두제방사이에 무사히 내려 앉았다. 숨을 죽이고 그 모든것을 살피고 있던 송철만은 무선통화기를 들어 해상지휘선을 찾았다. 해상돌격대장 정대철이 응답하자 그는 수문이 물밑에서 감탕지반에 박아놓은 원통들과 제대로 접합되였는가를 확인시켰다. 곧 접합되였다는 신호가 왔다. 그러자 송철만은 즉시 수중에서의 용접을 지시하였다. 옆에서 함께 작업공정을 살피고 있던 윤상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13분이 걸렸소.》

이미 여러번 진행한 모의훈련때는 지금까지의 공정이 15분안에 들어 본적이 없는데 13분이면 출발이 괜찮은 셈이였다.

《용접이 어떨지 모르겠소. 수중용접이 돼서…》

《한사람이 7메터정도씩 하면 되니 잘하면 거기서도 몇분가량 얻어 낼수 있을거요.》

윤상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수중용접을 위해 배당된 시간이 아직 몇분 잘 남아 있는데 해상지휘선의 정대철이로부터 벌써 완료보고가 들어 왔다.

《좋다! 잠수병들을 빨리 철수시키라!》

송철만은 무선통화기의 파장을 돌리고 5수송부대장과 17기계화부대장,투석선지령장을 같이 불러 모래와 자갈을 싣고 대기중

에 있던 수송차들과 예선들에 발동을 지시했다. 미구에 조용하던 공사장이 음향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끝을 토취장에 둔 수송차행렬에서는 시퍼런 대기가스가 서려 올라 상공을 뿌옇게 물들였다. 뒤따라 잠수병들의 철수가 보고되고 공사는 두번째단계인,마감공사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수문속채움과 량익측언제와의 련결작업으로 넘어갔다.

수송차의 맨 선두에 서 있던 16대의 《자주》호가 뒤걸음질하여 넘치게 실었던 혼석을 24메터높이의 수문철통안에 쏟아 붓고 적재함을 내릴새도 없이 달려 나간데 이어 전체 수송차행렬이 전진을 시작하였다. 적재함에서 연해연방 쏟아 져 내린 모래자갈들이 폭포처럼 수문철통속으로 떨어 져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가물막이제방안쪽에서는 17기계화돌격대의 300마력 대형불도젤들이 이미 날라다 쌓아 두었던 버럭무지를 허물어 밀어다가 수문안쪽의 옆채움을 시작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토취장으로부터 목도를 메고 질통을 진 수천명의 군인들의 대오가 달려왔다. 소랭이에 혼석을 담아 이거나 가슴에 붙안은 군관가족들과 지원자들,학생들의 물결이 군인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채움작업은 바다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투석선들은 셋 혹은 네척씩 예선에 끌려 수문바깥쪽으로 바투 붙어 지나가며 막돌을 투하하였다. 그때마다 갈라 진 배 밑창에서 시뻘건 흙물기둥이 겨끔내기로 솟구쳐 올랐다. 수면을 들부시며 물기둥이 내려앉을제면 또 다른 몇개의 물기둥이 일시에 하늘을 치받으며 올리솟는다. 거품을 일구며 부글부글 끓어 번지는 바다,나팔소리,북소리,바람을 안고 펄럭이는 붉은기발,방송차방송원이 목메게 부르짖는 격동적인 호소,호각소리,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고동구호들… 그런속에서 시간은 흘러 점심때도 지나고 어느덧 오후 세시경이 되였으나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잊고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지 꼭 여섯시간이 되는 때였다.

《물이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지휘선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 온 리영선부부장의 불안이 다소 풍기는 말이였다. 송철만국장이 그의 말을 받았다.

《물이 들어 와도 이젠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윤상설은 송철만의 장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달은 언제나 예상 못한 방향에서 나는 법이다. 그러니 한순간이라도 방심은 금물이였다. 긴장, 흥분, 시간과 함께 더욱 고조되는 전투적열의…

그런 벅찬 분위기속에서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채움작업은 밤을 이어 이튿날에도 계속되였다. 밀물과 썰물이 그 사이에 몇번 교차되였지만 조금때라 수위도 그리 높지 않고 닷새째되는 날 오전에는 벌써 속채움이 끝난 수문으로 사람들이 건너 다닐수 있게 되였다. 수문구간의 옆채움도 적잖게 되여 버럭이 벌써 철통밑굽을 감싸며 허리까지 올라왔다. 하여 마감공사는 바야흐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책임일군들로부터 평범한 군인건설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그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일은 바로 그무렵에 일어 났다. 이제는 하루 전투도 대체로 끝났다고 보아 기자들과 기록영화촬영가들은 물론 책임일군들과 채움작업을 하던 구분대들마저 철수한 저녁 다섯시경, 수문옆에 있는 제방 정통들이 갑자기 우직거리면서 안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대사리때여서 가물막이 바깥의 높아진 수위에 제방이 이겨내지 못한것이였다.

이 엄중한 사태를 맨먼저 발견한것은 작업장직일을 서던 한 애어린 전사와 역시 잠수정직일을 서다가 심심한 김에 낮동안 채움작업이 얼마나 진척되였는가를 보자고 제방우에 올라 왔던 잠수병 박선봉이였다. 정황이 매우 위급한데다 당황한 선봉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뒤늦게야 정신이 들어 소리쳤다. 《여, 뭘해? 빨리 지휘부에 알리라!》 그제야 전사도 펄쩍 놀라 천방지축 공사지휘부쪽으로 뛰여 갔다. 선봉은 추위와 공포감에 우들우들 떨면서 제방의 변화를 감시하였다.

알통들이 수압에 밀리여 우직거리던 소리는 미구에 용접부위들이 찢기는 아츠러운 소리로 바뀌였다. 박선봉은 속이 바질바질 타기 시작했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터갈라 진 제방정통과 수문사이로는 벌써 물이 흘러 들며 옆채움을 한 흙과 돌들을 뭉청뭉청 뜯어 삼키

고 있었다. 선봉이 보기에 그러한 상태로는 제방이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갈것 같았다. (아니? 저거…저거 벌써 터진것이 아닌가!) 어디선가 또 용접부위 트는 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왔다. 그의 머리속에 130톤기중기선이 떠오른것이 바로 그때였다. 바쁜 경황속에서 기중기로 넘어지는 정통을 물어 당기면 시간을 얻을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치듯 하였다.

기중기선은 마침 수문바깥 멀지 않은 곳에 정박하고 있었다.

《여! 기중기, 기중기!》

선봉은 제방끝에 나가 기중기선을 내려다 보며 힘껏 소리쳐 불렀다. 그리고 응답이 오자 조성된 위급한 사태와 기중기의 필요성을 팔시늉과 목소리로 력설했다. 배에서는 정황의 긴박감을 리해한것 같았다. 기관에 인차 발동을 걸더니 기중기팔을 돌려 권양고리를 드리워 주었다.

연공의 경험이 있어서 쇠바줄을 길게 당겨 정통을 휘감아 고리에 거는것은 가히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기중기가 쇠바줄을 잡아 당기기 시작하자 새로운 문제거리가 생겨났다. 밀물때라 수위가 높아지는데 따라 기중기선도 같이 떠오르면서 정통에 감겨 진 쇠바줄이 미끄러 져 올라 오고 있었던것이다. 그렇게 미끄러 져 올라오다가 아주 벗겨 지는 날엔 반충으로 정통이 단번에 넘어질수도 있었다.

(아, 이 일을 어찌단 말인가? 왜 사람들은 오지 않는가?…)

선봉은 안타까와 어쩔줄 모르며 현장지휘부쪽을 바라보았다. 허나 지휘부쪽에서는 어떻게 된셈인지 아직 기척도 없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있을수도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도 미끄러 져 올라오는 쇠바줄을 눌러 멈춰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통이 넘어 져 제방이 터지면 마감공사가 수포로 돌아 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령을 관철하지 못한다. 그는 쇠바줄쪽을 무섭게 쏘아 보았다.

(안된다! 내가 있으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안된다!)

쇠바줄에 온 공사장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는 쇠장대든가 통나무를 찾아 뛰여 다녔다. 그러다 엶채움

을 하는 수송차들이 후진하며 제방아래로 바퀴가 떨어 지는것을 방지하려고 하차위치에 가로 놓은 통나무를 발견하자 무작정 둘러 멨다. 그는 통나무를 지레대 삼아 련결고리턱에 끼워 놓고 (련결고리는 이미 끊어지고 고리턱만 남아 있었다.) 반대쪽끝에 매달려 쇠바줄을 눌렀다. 쇠바줄은 일시 멈춰 서는것 같더니 이내 통나무를 곧추 밀어 세우며 다시 올라 왔다. 차라리 통나무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나을것 같아 그는 통나무와 정통사이에 뛰여 들어 발로 쇠알통을 뻗디디고 만신의 힘을 다해 잔등으로 통나무를 떠밀었다. 그제야 벗겨 지며 올라 오는 쇠바줄을 저지시킬수 있었다. 문제는 오래 그렇게 뻗치고 있을수 없는것이였다. 벌써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그는 몸을 비틀어 량어깨로 뻗쳤다. 여전히 도움의 손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쇠바줄이 벗겨지면 마감막이가 실패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령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책임의식이 강렬히 솟구쳐 올랐다.

(그래, 뛰여 나가선 안된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 …) 그는 무의식중에라도 자신이 뛰여 나갈것 같아 왼손 가까이에 있는 쇠바줄에 팔을 휘감아 짜—악 거머쥐였다. …

한편 그 시각 끝살부리에서는 직일전사의 련락을 받은 국정치부 방송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울음 섞인 방송원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다.

《언제가 넘어 간다. 동지들! 지금 가물막이공사장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최종막이수문옆에 있는 정통이 넘어진다. 물이 제방안으로 밀려 들고 있다.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동지들에게 알린다. 가물막이제방이 위험에 처하였다. 제방이 터지고 있다. 빨리 현장으로 나가야겠다. 빨리… 현장으로…》

공사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송철만은 송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제3수송대참모부에서 중대장이상급 지휘관들과 골재운반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수문까지 닫은 상태에서 가물막이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제방을 얼마나 빨리 확장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수재료와 버럭운반에 귀착되는 문제였다. 그런데 불과 보름전에 20여대의 《자주》호 자동차를

보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대는 응당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문제를 풀자고 이 저녁 부대에 나와 협의회를 조직한 송철만이였다.

《이게 무슨 소리요？》

자동차수리와 관련한 수송대참모장의 설명을 듣고 있던 철만은 무엇인가 중대소식을 전하는것 같은 방송원의 분명치 않은 목소리에 비로소 관심하며 좌중을 둘러 보았다.

《무슨 제방이 어떻다는 소리 같은데…》

부대장의 자신없이 하는 말이였다.

《옳소, 제방소리요.》

불길한 소식을 예고하듯 전화종이 다급히 울렸다. 수송대장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인차 현장지휘처 종합참모라면서 송수화기를 넘겨 주었다.

《나요. 뭣때문이요？》

《국장동지, 빨리 들어 와야겠습니다. 제방이 터집니다. 수문 바로 옆인데… 지금 130톤기중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잠수병이 한명 잘못되였습니다.》

《잘못되다니, 죽었소？》

《그렇습니다. 박선봉이라구…》

이게 무슨 소린가? 선봉이가 죽다니…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 졌단 말인가？… 송철만은 으드득 어금이를 씹었다.

그는 송화기를 놓고 급히 일어 서며 수송대장에게 비상소집을 명령했다. 그리고는 방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 공사현장으로 내달렸다.

자연발생적이기는 해도 현장에서는 벌써 제방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토취장으로부터 버럭을 담은 목도를 멨거나 질통을 진채 헐떡거리며 달려 가고 달려 오는 군인들과 지원자들, 소랭이를 이고 들고 흙을 줄줄 흘리며 정신없이 내닫는 녀인들… 개중에는 취사장에서 곧장 뛰여 나온 위생복차림에 위생모를 쓴 취사병들도 보였다. 붐비는 인파에 길이 막혀 전진을 못하고 서서 다급히 경적만 울리는 수송차들… 그런 복잡속을 뚫고 수문쪽으로 나가

던 철만은 도중에 마주 달려 오는 윤상설을 만났다.

《어딜 가오?》

《불도젤… 300마력불도젤이 있어야겠소. 쇠바줄이 벗어 지오. 눌러 줘야 하오.》

쇠바줄이 벗어 진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불도젤은 왜 또 있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철만은 그냥 걸으면서 무선통화기로 17기계화돌격대장을 찾아 필요한 지시를 주고는 윤상설에게 제방이 터진 원인을 따져 물었다.

《얼음… 얼음때문이요. 옆채움이 아직 약한데 오늘 따라 얼음이 3메터두께로 밀려 들어 제방을 떠밀었소.》

그러는 사이에 두사람은 문제의 마감공사구간에 당도하였다. 기중기팔에서 뻗어 나온 한오리 쇠바줄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기울어 진 제방을 보는 순간 철만은 등골로 줄달음쳐 내리는 오한을 느꼈다. 그는 원통부재 웃도리를 휘감고 130톤기중기팔로 건너간,지금 군인들이 달라 붙어 복닥거리며 쇠장대며 통나무로 눌러주고 있는 쇠바줄을 발로 밟아 보았다. 얼마나 많은 짐을 받았는지 팔뚝처럼 실한 쇠바줄이 핑— 핑 울기만 할뿐 탄성이 전혀 없었다. 윤상설은 속으로 쇠바줄이 정통뒤에서 빠져 나온 어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 그 젊은이가 글쎄 저기 저 짬에 들어 가 있지 않겠소. 아마 그가 그러지 않았던들 정통은 벌써 자빠진지도 오랬을거요.》

그것은 희생된 박선봉이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선봉이 어디 있소?》

《잠수병들이 편대에 날라 들여 갔소.》

철만은 선봉이한테 달려 가고 싶었다. 하나 그것은 제방이 무사히 구원된 다음의 일이다. 제방이 터져 가물막이가 실패하면 안된다. 박선봉의 희생이 헛된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바로 그때문에만도 제방을 반드시 구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조성된 정황이 즉시 판단되자 철만은 우선 해상작업을 하는 예선들을 소환하여 130톤기중기선과 함께 기울어 진 정통들을 걸어

당기는 대책을 세웠다. 한편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여 혼란속에 진행되는 제방구조작업을 가능한껏 조직화하면서 지휘체계를 세우려고 애썼다. 노력한 보람은 밤 10시가 넘어 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여 차츰 혼란이 가셔 지고 명령과 지시가 통하게 되였다. 그러느라니 벌써 목이 쉬여 말을 제대로 할수 없었고 혈압이 올라서 뒤목이 뻣뻣해 왔다. 그런데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엊그제부터 뜨끔거리기 시작한, 그래 최종막이가 끝나는 차제로 병원에 가 보려고 계획하던 허리의 부상처가 급속히 재미 없는 징조를 나타내는것이였다. 시간이 갈수록 동통의 주기가 잦아지고 거기에 아픔도 더해서 이제는 참는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방금 또 한차례 그런 동통을 참느라고 한바탕 모지름을 쓰며 식은 땀까지 흘린 그는 아픔이 좀 덜리기 바쁘게 고무뽀트를 불러 타고 바다우에 떴다. 위험한 사태를 초보적으로 변경시키려면 수문옆을 파며 넓어 지는 물곬부터 시급히 막아야 하였다. 그러나 흙가마니며 혼석포대를 집어 넣고 또 집어 넣어도 물곬은 막히지 않았다. 수송차가 실어다 떨군 뿔부재를 사오십개 삼키고야 물흐름은 좀 기세를 늦추었다. 거기에 막돌을 담은 쇠광주리를 던져 넣고 그우에 또 흙포대를 덮씌웠다. 그래도 물은 그냥 제방밑을 파먹는다. 짜장— 짱— 용접부위가 찢기는 아츠러운 소리도 그치지 않았다. 빨리 썰물이 져야겠는데 전에는 너무 짧아서 그리도 안타깝던 정조시간이 오늘은 왜 이리도 긴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썰물이 시작되고 용접부위가 트는 소리도 좀 뜨음해졌다. 급한 목은 넘겼다고 보아 고무뽀트를 기슭에 내다 붙이게 하고 내린 그는 또 아프기 시작하는 허리의 부상처를 왼손으로 눌러 잡은채 제방경사면을 따라 올라 갔다. 이번의 동통은 식은 땀을 흘리며 견뎌 낸 아까의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게 심하였다. 금시 허리가 끊어 지는것 같고 그것을 참자니 이마에서 진땀이 뿌질뿌질 내돋았다. 그러나 주저앉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사려물고 그냥 얼어서 미끌거리는 경사지를 톺아 올라갔다. 아픔이 차차 물러 가면서 걸음도 가벼워 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동안의 일이였다. 한순간 그는 어떤 보이지 않는 드센 몽둥이가 척추를 후려 치는것 같은 강한 아픔에 신음소

리를 지르며 앞으로 푹 꼬꾸라 졌다. 마감으로 의식한것은 육체가 천길나락으로 떨어 져 내리는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였다.

제방우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 지고 있을 때 수문 바깥쪽 130톤기중기선 옆에 떠있는 제5잠수편대 잠수정에서는 소대장이 기울어진 알통밑의 물구멍막이를 내려 가 소식이 끊어 진 두 잠수병을 다급히 찾고 있었다.

《…동수！… 영찬이！… 응답하라！… 왜 응답이 없는가？… 응답하라！ 영찬이… 동수동무… 왜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나 두 잠수병은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그들보다 한시간 먼저 잠수하여 수문밑을 깎아 내는 물곬을 메우던 장풍산중사의 작업조가 기진맥진한 몸으로 잠수정에 올라 온것은 바로 그무렵이였다. 서 있을 맥도 없어 갑판에 퍼더버리고 앉은채로 뽐프공들의 방조를 받아 목에 걸었던 연추며 잠수투구를 벗은 장풍산은 두 잠수병의 실종을 알자 거들어 주는 뽐프공들에게 다시 잠수투구를 씌워 달라고 하였다. 구조잠수를 내려 가려는것이였다. 소대장은 자기가 내려 가겠으니 잠수정에 남아 대신 지휘를 맡아 달라고 했다. 풍산은 양보하지 않았다. 지휘는 소대장이 해야 한다고, 물밑은 자기가 잘 아니 걱정말라면서 끝내 투구를 쓰고 연추를 목에 걸자 잠수정을 떠났다. 마감공사구간이라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아서 바닥에는 인차 내려 설수 있었다. 제방우에서 끊임 없이 쏟아져 내리는 버럭이 거기 바다밑에서는 흙탕으로 변하여 안경에 시누런 종이를 붙인것처럼 한치앞도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정신을 바싹 도사리고 손더듬 발더듬을 하여 조심조심 수문쪽으로 다가갔다. 수문주변의 바닥은 지반을 보호하기 위해 떨군 막돌과 막돌을 담은 쇠광주리와 뿔부재들이 버럭과 혼탕되여 발을 옮겨 놓기조차 힘들었다. 게다가 들물 때여서 수문밑을 통해 제방안쪽으로 흘러드는 물살이 여간 세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여 물살에 말려 들면 살아 나기가 힘들었다. 지금 련계가 끊어 져 소대장이 애타게 찾고있는 두 잠수병도 이 물살에 말려 들었기 쉬웠다. 예견한 그대로였다. 둘중 누군지는 몰라라 물구멍에 빨려 들어 간 동무를 가까스로 끌어 내서 올려 보낸 그는 다른 한명을 찾기 시작했다. 바위와 뿔부재를 무수히 에돌

고 쇠광주리도 수태 타고 넘으며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차차 몸이 얼어 들고 힘이 진해 팔다리가 말을 잘 들어 주지 않았다. 언뜻 바줄같은것이 발목에 걸리는것 같아 허리를 굽혀 만져 보니 공기호스였다. 풍산은 기뻤다. 드디여 찾아 낸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물곬에 깊이 빨려들어 간것이 문제였다. 손에 잡히는것이 발이여서 당겨 보니 끌려 나오지 않았다. 물살이 너무 센데다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 힘이 모자랐다. 어떻게 할것인가?… 안타까움속에서 그는 문득 자기 잠수복에 달려 있는 공기호스를 리용하면 되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저했다. 그것은 모험치고도 아주 위태로운 모험이였다. 동무를 구원하려다가 자신이 죽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차 주저하는 자신을 책망하였다. 너는 무슨 그런 너절한 생각을 하는거냐?… 그는 자기의 공기호스를 등뒤로부터 끌어 당겨 그것으로 동무의 두발목을 모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몇걸음 물러 나 감탕속에 반나마 박힌 뿔부재를 뻗디디고 끌어 당겼다. 끌려 왔다. 됐구나!… 그는 앞에까지 끌려 온 동무의 발목에서 자신의 생명삭을 풀어 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그는 늘어 진 자기 잠수복의 공기호스가 물구멍으로 빨려 들어 가면서 날카로운 바위모서리에 베여 지는것을 몰랐다. 갑자기 숨이 가빠 올랐다. 이거 왜 이러는가, 왜 이리 숨이 막힐가? 아!… 그는 손으로 가슴앞의 잠수복을 헛되이 쥐여 뜯었다. 몇번 그러다가 숨막히는 고통을 마감으로 느끼며 앞에 있는 뿔부재사이에 천천히 어푸러졌다. …

18

밤 12시경이 되자 꽉 밀려 들어 제방을 포위하고 있던 얼음장들이 우적거리며 움직일 기미를 보였다. 썰물이 시작된것이였다. 얼마나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간인가.

그것으로 윤상설은 가장 위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였다.

물이 다시 들어 와 수위가 높아 지기까지 최소한 아홉시간은 얻은 셈이고 그 아홉시간동안이면 제방을 일정하게 보강할수 있을것이였다. 이런 때 송철만국장이 현장에 없는것이 아쉬웠다. 있었으면 퍼그나 기뻐하련만 그는 지금 군의소에 가 있다. 수문 건너 제방밑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것을 군인들이 발견하여 군의소에 업어갔던것이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여섯시간도 채 안된 새벽 다섯시경, 전혀 뜻밖의 새로운 정황이 또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조립된 원통부재들이 자리가 불편한듯 우직거리며 움직이는 기미가 보였다. 뒤이어 수문을 중심으로 한창 확장중에 있는 마감막이구간이 내려 앉으며 안쪽으로 휘여 들기 시작하였다.

혼잡속에 그것을 발견한것은 윤상설이였다. 그도 처음에는 제방이 내려 앉으며 휜다는것을 믿을수 없었다. 그러나 탐측병들을 불러 측심기로 관측한 결과 제방이 아래로 근 1메터 내려 앉고 횡으로는 벌써 1.6메터 이동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다시 말하여 제방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제방이 통채로 나가넘어 질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정황으로서 원인은 딴데 있지 않았다. 마감막이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밤에 그가 우려한, 마감막이구간에 갑자기 많은 짐이 실린 관계로 감탕지반이 밀리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새로 조성된 이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제방확장전투를 일시 중지하고 리영선과 윤상설을 비롯한 현지책임일군들 그리고 제방이 터진다는 보고를 받고 간밤 평양에서 급히 내려 온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온 관계부문 전문가들, 강충일부총참모장을 비롯한 인민무력부 군사건설부서의 군관, 장령들이 이 협의를 위해 방송차앞에 모였다. 정황이 정황인것만큼 누구도 선뜻 견해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를 깨고 당지도소조책임자인 리영선이 선코를 뗐다. 그의 의견은 제방이 류동하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조건에서 인명과 기재에 우선 관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라기보다 론제를 제시한데 불과하였다. 그것을 좀 더 명백히 하자는 뜻에선지 강충일중장이 물었다.

《그건 공사를 중지하고 인원들과 기재를 철수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강충일중장이 아니라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했다. 어조가 급했다.

《옳소. 1차적으로는 인원과 기재부터 철수해야 하오. 그리구 될수록 피해를 줄이자면 선손을 써서 수문을 터쳐 버려야 할것 같소. 폭파로 말이요. 폭파해서 한구간을 터치면 전반적인 제방은 구원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거요.》

위원장은 강충일중장을 돌아 보며 빨리 철수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나 중장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왼손으로 허리를 눌러 잡은채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응대도 없었다.

한편 윤상설은 위원장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다.

(만약 이자리에 송철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것인가. 그렇지, 그는 단연 그 안을 부정할것이다.)

《아니 위원장동무, 수문을 폭파해 버리자는 소리가 그렇게도 쉽게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막은 수문이라구… 안됩니다. 폭파하면 가뜩이나 무른 지반을 더 흔들어 놓아 붕괴만 앞당길뿐입니다.》

《그럼 동무는 어쩌자는거요? 제방이 류동하는데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겠소?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하지 않겠소.》

마주 보는 위원장의 눈길도 자못 거칠었다.

《나도 구경만 하자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폭파는 못합니다. 우선 인원과 기재들은 철수하고… 어쨌든 결과는 두고 봐야 합니다.》

《결과는 무슨 결과? 붕괴되는걸?》

《왜 제방이 꼭 붕괴된다고만 생각합니까? 붕괴! 붕괴! 이 말만은 제발 그만 두십시오. 밀리다가 멎어 설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상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을 납득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면박당하기나 쉽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달리는 말할수가 없

었다.

아닐세라 위원장의 얼굴에 어처구니없어 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여보, 부위원장동무.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그렇게 밀리다가 멎을것이면 인원이나 기재는 왜 철수하오? 그냥.》

《가만, 제가 좀 말합시다.》 하고 리영선이 듣다 못해 위원장의 말을 중도에서 꺾으며 끼여 들었다.

《이거 왜들 이럽니까? 흥분하지 말고 토론들을 합시다. 토론들을…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리영선의 충고가 옳았다. 감정마찰로 시간을 끌기엔 정황이 너무도 긴박하고 심각하였다. 위원장도 그것을 깨달은듯 윤상설에게는 더 다른 말을 않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강충일중장에게 물었다.

《그래 어쩔 작정이요? 부총참모장동무는…》

《나는 윤부위원장동무와 생각이 같습니다. 수문을 폭파한다는건 마감막이가 한정없이 뒤로 밀린다는,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는 소린데 그걸 어떻게?… 제방이 당장 붕괴되면 몰라도 지금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결심이 느껴 지는 강경한 어조였다. 중장이 건드리지 않은 측면을 리영선이 찍어 물었다.

《하니, 부총참모장동무도 인원과 기재철수에는 동의한다는거겠습니다?》

중장이 그렇다고 하자 리영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수문을 터치는가 마는가 하는데서는 일부 상치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원과 기재를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같아서 강충일중장이 철수를 명령하려고 방송차 마이크를 쥐고 나섰다.

《전체 군인들에게 알린다. 현장에 나와 있는 전체 인원들에게 알린다. 제방이 위험에 처하였다. 제방이 류동하고 있다. 각급 지휘관들은 인원과 기재들을 빨리 철수시키고 차후지시를 기다리라. 수송차와 불도젤들도 빨리 철수하라. 제방기슭에 정박한 배들과 작업선들은 대피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신속히 행동하라!》

하지만 제방우에, 혹은 경사면과 그 아래기슭에 한벌 덮이다싶

이한 수천명 군인들속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수송차며 불도젤들 지어 해상작업선들까지도 까딱 반응이 없어 온 건설장에 진한 액체마냥 정적이 무겁게 흘렀다.

이 어찌된 일인가? 혹시 파도소리에 삼키워 중장의 목소리가 모두의 귀에까지 미치지 못했는가? 그러나 멀리면 몰라라 저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야 왜 듣지 못한단 말인가?… 윤상설이 그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강충일중장은 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였다. 군인들은 그래도 움직일념을 하지 않았다.

《왜들 움직이지 않는가? 어서 철수하라. 시간이 없다. 제방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붕괴되면 인명피해가 나고 수습하지 못한다.

지휘관동무들, 빨리 기재를 철수하고 대원들을 대피시키라. 시간이 없다. 빨리…》

정적… 그러나 인차 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일부 집단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미구에 그것은 전체에 파급되여 마침내 온 공사장이 소음과 움직임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어 갔다. 수천의 군인들이 움직이고 시퍼런 배기가스를 뿜으며 수송차와 불도젤들이 으르렁거리고 바다에서는 작업선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철수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붕괴에 직면한 제방을 구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것을 윤상설은 얼마후에야 알았다.

질통과 목도에 버럭을 가득 담아 메고 진 대렬이 달려 간다. 짧은 경적을 다급히 울리며 수송차들이 줄지어 드나든다. 움직임은 바다에도 있다. 기중기선들은 철시판을 달아 올리고 잠수정에서는 잠수병들이 두터운 얼음장들이 떠도는 바다에 몸을 잠근다. 꺼져 내리며 류동하는 수문밑에 바싹 다가와 막돌을 쏟는 투석선들, 하늘을 찌르며 길길이 솟구쳐 오르는 시뻘건 물기둥… 윤상설은 넋없는 눈으로 그 모든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저들에게 철수를 명령한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들은 살아도 제방과 함께 살고 죽어도 이 제방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결심을 누가 어떤 명령으로 꺾을수 있겠는가? 없다. 저

들은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죽으라면 서슴없이 죽을 사람들이지만 그 길에서 돌려 세울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나 보아 성미와 생김은 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소박하고 평범하기만 하던 전사들과 군관들… 이 시각 윤상설에게는 그들 개개 군인들이 모두 죽음을 초월한 거인으로 생각되였다.

그때 현장 지휘처 천막에서 나온 군관이 방송차쪽으로 달려 오며 리영선을 찾았다.

《왜 그럽니까?》 리영선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전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19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리영선부부장으로부터 공사장에 조성된 정황을 들어 보시였다. 듣기에도 정황은 매우 위급하고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동무들은 무얼 어떻게 하는것이 대책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를 론의하고 있었습니다.》

리영선은 론의된 인원과 기재철수 문제며 수문을 터치자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수문을 터친다는건 마감막이가 실패했다는 소리나 같은데 모두의 의견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윤상설동무는 폭파해선 안된다는 주장이고 강충일중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철만중장의 견해를 물으시였다. 그런데 부부장의 대답이 뜻밖이였다. 국장이 현장에 없고 군의소에 가 있다는것이였다. 국장이 군의소에 가 있다니?… 그이께서 아시건대 송철만은 의지가 강철같고 완강하기로 소문난 참다운 군인이였다. 그런 사람이 가물막이제방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때 공사

장을 떠나 군의소에 가 있다는것은 몸상태가 여간 나쁘지 않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정확히 이야기하시오. 지금 그 동무의 병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병이라기보다는… 부상처가 도진것 같습니다. 제방밑에 쓰러진걸 군인들이 발견하여 군의소에 업어 갔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알수 없으시여 눈길을 돌려 어두운 창문만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늦게야 말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송철만동무에 대한 치료대책은 내가 세우겠으니 윤상설동무와 전화를 바꾸시오.》

《제, 윤상설… 전화받습니다.》

전류를 타고 들려 오는 부위원장의 꽉 잠긴 목소리에서는 긴장을 넘어 비장감마저 풍기는듯싶었다. 하기야 갑문건설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운명적인 시각에 왜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 같아서는 아들의 회복정도를 알려 주고 좀 생활적인 이야기로 마음의 긴장도 풀어 주고 싶으셨지만 그럴 경황이 못되여 곧바로 물으시였다.

《듣자니 부위원장동무는 수문을 터치지 말고 두고보자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제방이 움직이면서 붕괴되지는 않으리란 담보가 있습니까?》

윤상설은 매우 힘들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이게다 할 담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문은 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저는 군인동무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제방이 붕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것입니다. 송철만국장동무도 저와 같은 의견일거라고 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실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시였다. 제방이 움직이며 붕괴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었다. 그대신 군인건설자들이 결코 붕괴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송철만국장에 대한 믿음이 울리지 않는가! 언제나 빈틈없이 실무

적인 수완을 가진 윤상설의 말이고 보면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지없이 대견하고 믿음이 갔다. 그렇다. 부위원장이 말한것처럼 이 마당에서 수문을 폭파하는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그것은 우리의 배짱에도 맞지 않으며 스스로 5년건설계획을 포기하는것이나 다름 없다.

《좋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드디여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부위원장동무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수문은 닫아 둡시다. 그러나 만약을 생각하여 인원과 기재들은 철수해야 합니다. 제방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는 그것과 군인들의 생명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붕괴에 대처할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제기할 문제들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하라고 하시였다.

윤상설은 또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걸리는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그럴짬이 있겠는지. 자주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윤상설의 심정이 리해되시였다. 짐작컨대 그는 불안과 위구에 쫓기며 정신적의지를 찾고 있었다. 건설분야의 《백전로장》이라고 하는 그가 이럴진대 다른 사람들의 경우야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한시간에 한번씩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전화를 끊지 않겠으니 직통전화로 알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리시오.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습니다. 아무때건 하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영선을 다시 전화기앞으로 부르시였다. 그리고 송철만국장이 현장에 없는 조건에서 군인들의 생명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돌릴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런데 부부장은 뜻밖의 가슴 아픈 고백을 하였다. 자신이 미처 관심하지 못하여 벌써 두명의

군인이 잘못되였다는것이였다.

《… 둘 다 잠수병들인데 한동무는 박선봉이라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아시는…》

《박선봉이면… 언젠가 화재사고를 내고 문제섰던 그 군인말입니까?》

《예, 바로 그 동무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리영선은 전사의 희생과정을 이야기하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비감에 잠겨계시다가 혼자 소리처럼 조용히 그러나 격정이 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훌륭한 동무를 잃었습니다. … 믿음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

그이께서는 잘못된 다른 한명의 잠수병에 대해서도 물으시였다.

《… 이름은 장풍산입니다. 건설초기부터 잠수초소장으로 일도 많이 하고 아주 성실한 동무였는데… 위험에 처한 두 동무를 구원하고… 그만…》

보고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지 리영선은 목소리를 떨더니 끝내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아픈 가슴을 달랠길이 없으시였다. 아,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지닌 우리의 전사들인가.

《… 둘다 영웅들입니다. 이제… 공화국영웅칭호를 내신합시다. 그리고 그 박선봉이라는 동무에게는 안해가 있었는데… 그 동무에게는 나의 명의로 위문인사를 전해 주시오.》

그것으로 통화는 끝났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동안 무거운 생각에 잠겨 일손을 잡지 못하고 일어나 집무탁앞을 거니시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움직이는 붕괴직전의 가물막이제방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댄 박선봉전사며 위험에 처한 동무들을 구원하고 숨진 잠수초소장 그리고 흙가마니를 지고 이고 바삐 뛰여다니는 수천명 군인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방불히 보이는것 같으시였다. 그 군상우에 한몸을 던져 제방을 구원하고 전우들을 살려낸 박선봉전사와 성실한 잠수초소장의 영웅적형상이 조

각상처럼 새겨 진다. 아니 빛을 뿌린다. 아깝게도 생은 짧았으나 영웅으로 빛나게 산 전사들… 조국의 아들들… 이제 그들에게는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될것이다! 그들, 영웅들의 부모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을 교육교양한 선생님들과 지휘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것인가. 과연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기에 그런 영웅들을 키워 조국에 바쳐준것인가!… 만일 그럴수만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것이 지금 그이의 심정이시였다.

기억의 갈피속에는 박선봉전사의 안해도 있었다. 새파란 나이에 외로운 몸이 된 녀성의 장래가 저으기 걱정되시였다. 위문의 인사 한마디로는 그 녀성의 가슴에 차고 넘칠 슬픔을 다 가셔줄수 없을것이다. 그이께서는 희생된 전사의 안해되는 녀성을 당에서 직접 보살피며 훌륭한 녀성일군으로 키우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며 한시간후에 종이 울리도록 탁상시계를 조절해 놓으시였다.

의식을 되찾은 송철만의 시야에 맨먼저 들어 온것은 갓을 쓴 전등에 매달린 군의소 구급실천정이였다. 그는 몽롱한 의식속에 오래동안 그 흰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차차 정신이 선명해 지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여기가 어딘가? 공사장 어디에 저런 흰 천정이 있는가? 그리고 이 냄새… 이건 소독약냄새다. 그럼 내가 지금 군의소에 와 있는가? 무엇때문에 군의소에 와 있는가?… 그는 일어 나려고 몸을 움직거려 보았다. 그러나 몸이 의지를 배반하여 전혀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이건 또 왜 이런가? 젠장… 그는 자신의 무기력에 화를 내며 일어 나려고 다시 몸을 뒤틀었다. 순간 척추가 부서지는것 같은 아픔이 전신을 휩쓸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대기중에 있던 군의가 황급히 달려 와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면 대단히 나쁘다고 주의를 주었다. 철만은 가타부타 대꾸하지 않고 있다가 허리의 아픔이 얼마간 물러 가자 자신이 군의소에 오게 된 경위를 물었다. 군의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어서야 그는 간밤에 겪은 일들, 수문열을 파고 들던 물곬을 막기 위한

간고한 전투며 박선봉의 죽음이며 제방우로 올라 가는 도중 모진 아픔에 시달리던 일들을 상기할수 있었다. 그는 제방이 걱정스러웠다. 어느 순간에 넘어 갈지 모르는 제방이였는데 리유불문하고 그런 책임적인 시각에 자기 위치를 리탈하여 군의소에 와 누웠다는 자체가 참을수 없는 일이였다.

《군의소장을 오라 하오.》

그는 군의소장에게 정황의 절박성을 설명해 주고 담가에 누워서라도 현장으로 나갈 결심이였다. 그러나 들어 온것은 군의소장이 아니라 정치부장 리응천이였다.

《정신이 좀 듭니까?》

침대앞에 와서 허리를 굽히며 하는 리응천의 말이였다.

《제방… 제방이 어떻게 되였소?》

《제방은… 좀 움직이지만… 아직 별일 없습니다.》

어째선지 리응천은 말을 더듬었다.

《제방이 움직인다는것은 무슨 소리요?》

송철만이 그렇게 따져 물어서야 리응천은 실수를 깨달은듯 황황히 그건 별게 아니라고, 그저 축심이 얼마간 변동되였을뿐 움직임은 없다고 정정하였다. 그러나 송철만은 리응천의 말에서 벌써 모순을 느꼈다. 자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무엇인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있었다.

《군의소장을 불러 주오.》

군의소장이 들어 오자 그는 담가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담가에 누워서라도 공사장으로 나갈 작정이였다. 키가 크고 상좌인 군의소장은 펄쩍 뛰였다.

《안됩니다. 국장동지, 지금 병세가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그는 허리의 총상부위에 어떤 위험한 증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척추에 영향을 미쳐 하반신마비가 어떻게 왔는가를 루루이 설명하면서 절대적인 안정을 호소하였다.

리응천이도 가만 있지 않았다.

《국장동무, 군의소장동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동무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방금전에도 전화를 걸어 오셨는데 국장동무가 의식을 회복했는가, 못했으면 어떤 상태이며 구급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고 물으시면서 이제부터 한시간에 한번씩 전화를 하겠으니 그때마다 제방실태와 함께 국장동무의 병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

뜨고 있으면 눈물이라도 보일것 같아 철만은 스르르 눈을 감아 버렸다. 그러나 감격은 몇순간이고 그는 보다 크게 자책감을 느꼈다. 경각에 이른 공사장실태만으로도 심려가 크실 그이께서 자기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렇다. 그이께서 더는 걱정을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기어이 공사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눈을 떠 군의소장을 올려다 보며 낮으나 엄격하게 말했다.

《명령이요. 10분내로 담가를 준비하고 인원들도 선발해 오시오.》

그래도 군의소장이 응하지 않자 철만은 눈에 노기를 띄워 올리며 꾸짖었다.

《동무,내 말이 들리지 않소? 5분이내로 담가와 인원들을 불러오시오. 이건 명령이요.》

군의소장은 몸을 움직여 구원을 바라는 눈길로 정치부장을 바라보았다. 리응천은 왼팔을 허리뒤로 꺾어 올린채 생각에 잠겨 이윽히 발부리만 내려다 보고 섰더니 송철만의 심정을 리해한듯 고개를 들었다.

《담가를 가져 오고 군의소장동무가 직접 동행하시오.》

그로부터 30분도 채 안되여 잔등밑에 이불을 접어 고이고 담가우에 비스듬히 누운 송철만은 벌써 가물막이제방우에 나가 있었다.

새벽 3시경이였다. 공사장은 문자 그대로 백병전이 벌어진 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채 연소되지 않은 시퍼런 배기가스를 뿜어 던지며 토취장을 떠나 마감공사구간에 와서 흙을 쏟고 돌아 서는 수송차들,불과 몇분사이에 산처럼 쌓이는 흙을 제방끝으로 밀어 가느라고 용을 쓰는 불도젤들,그사이로 목도 아니면 질통을 진채 헐

떡거리며 달려 오고 달려 가는 군인들과 지원자들, 제방 량쪽으로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흙사태, 뿔부재며 막돌을 담은 쇠광주리, 투석선들이 배창을 가르며 터져 올리는 물기둥… 그 모든것을 한눈에 살펴 본 송철만은 지휘관들을 부르려고 가슴우에 놓여 있는 대공전화기에 천천히 손을 가져 갔다. …

오늘은 12월 24일 마감공사를 시작한지 꼭 열흘째되는 날이다.

윤상설은 날이 어뜩 밝자 간밤 또 얼마나 제방이 이동했는가를 알아 보려고 탐측수들이 측심기를 버텨 놓고 주야 감시하고 있는 피도쪽 제방으로 건너 갔다. 엇저녁까지의 관측기록은 제방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난 6일간 하루에 1.5메터, 도합 9메터를 이동한 폭이였다.

측심기앞에서는 마침 탐측수가 렌즈안경에 눈을 붙이고 제방을 관찰하고 있었다.

상설은 탐측수가 렌즈에서 눈을 떼기를 기다려 밤사이의 감시결과를 물었다. 목이 쉬고 입술이 헤져서 말이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 탐측수의 대답이 뜻밖이였다. 밤사이 변동이 거의 없다는것이였다.

《무슨 소릴 하오. 왜 변동이 없겠소?》

변동하지 않았으면 그이상 좋은 일이 없었지만 지난 한주일간 줄곧 변동에 습관된 탓으로 그는 오히려 탐측수의 말을 믿을수 없었다. 탐측수는 딱한 표정을 지으며 감시기록부를 펼쳐 보였다.

기록된 감시결과 역시 밤사이에 전혀 이동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방이 멈춰 선것인가?… 그는 부정맥이 오는것처럼 불시로 심장이 흉벽을 치받으며 후두둑— 경련하는것을 느꼈다. 그래도 선뜻 믿어 지지 않아 그는 어깨로 탐측수를 떠밀며 성급히 측심안경에 눈을 붙였다.

여러날 잠을 자지 못해 피발이 서고 모래알이 들어 간것처럼 깔깔한 눈앞으로 수문건너 원방에 서 있는 표척과 제방축선이 하나로 겹쳐 져 바투 다가왔다. 그것은 어제저녁 이후로 제방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는 부정할수 없는 증거였다.

(분명해. 틀림 없어. 원 이렇게 멈춰 서는걸…)

그는 하도 기쁜김에 측심기주위를 몇번인지 모르게 돌았다.

늦게야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주먹을 부르쥐고 건너편 제방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찌된 판인지 송철만의 담가도 리영선부부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물어도 모두 본지 한참 되여서 행처를 모르겠다는 소리뿐이였다. 한 군관이 국장이 현장지휘소 천막안에 있다고 해서 들어 가보니 송철만은 거기 난로옆에서 담가에 누운채로 주사를 맞고 있었다. 걷어 올린 팔을 군의에게 내맡긴 그는 눈을 감고 죽은듯이 누워 있었다. 담가에 누워 전투를 지휘하며 옹근 한주일을 제방우에서 떠나지 않은 그였다. 담가옆에 다가선 윤상설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중장을 내려다 보았다. 병고에 시달려 반쪽이 된 얼굴, 푹 꺼져 우멍해 진 눈확, 얼고 터갈리다 못해 시허옇게 헤진 보기 처참한 입술… 그중에서도 류달리 눈을 찌르는것은 그의 때 이른 백발이였다. 마감막이를 시작하기전만 해도 흰오리를 찾아 볼수 없던 검은 머리가 열흘어간에 그렇게 세여 버린것이다. 하기야 병마와 싸우며 지난 열흘간 얼마나 큰 경난을 치러 온 사람인가?…

군의가 팔에서 주사바늘을 뽑았으나 송철만은 그냥 눈을 감은채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천막 뒤로 300마력 대형불도젤이 와르릉 거리며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한본새로 눈을 뜨지 않았다.

다른 일 같으면 좀 쉬라고 내버려 두고 나왔겠지만 제방이 멈춰선 지금 상설은 그럴수 없었다.

《여보 송동무, 간밤에 제방이 움직이지 않았소. 분명 멈춰 선것 같소.》

들었는지 말았는지 송철만은 잠자듯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더니 눈을 감은채로 그건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무슨 소린 무슨 소리겠소. 제방이 멈춰 섰단 소리지. 여보, 밤새 제방이 움직이지 않았소.》

송철만은 그래서야 눈을 번쩍 떴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상설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이 열흘간 처음으로 빙그레 웃

었다. 그제야 짐작이 가는지 송철만은 급히 담가병들을 불렀다. 구석의 장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네명의 군인들이 재빨리 달려 와 각기 자기 위치를 차지하자 담가는 나섰다.

그들이 감시초소에 도착했을 때 마침 거기에는 리영선부부장도 와 있었다. 그는 벌써 관측결과를 알고 있은듯 저으기 흥분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루밤 두번의 사리물이 들어 왔는데도 편차가 없으면 이젠 류동이 끝난걸로 봐야지 않습니까?》

상설은 고개를 끄덕여 동감부터 표시하였다.

그리고 제방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앉은것 같다고 익살스럽게 덧붙였다.

송철만은 리영선과 윤상설이 옆에서 부축여 주어서야 측심기앞에 담가를 바싹 붙이고 렌즈를 들여다 볼수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증이 날 정도로 오래동안 렌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따금 감시기록부를 뒤져 보기도 하였다. 이윽고 렌즈에서 눈을 뗀 그는 측심기너머로 새벽운무속에 뚜렷이 떠오르는 제방과 제방을 뒤덮고 작업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승리요.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소! 빨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이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하오.》

그들은 서둘러 현장지휘소 천막으로 건너 갔다. 그런데 정작 전화기를 둘러 싸고서자 누가 보고 드리겠는가 하는 문제때문에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였다. 상설은 리영선부부장더러 어서 송수화기를 들라고 했다. 그러나 리영선은 그래도 송철만국장이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닙니다. 이건 윤동무가 보고해야 합니다. 상설동무 말이라야 그이께서 더 믿으십니다.》

송철만의 말이 고맙기는 해도 윤상설은 받아 들일수 없었다.

《무슨 소리를 하우? 안되오. 부부장동무 말이 옳소. 보곤 송동무가 올려야 하오.》

그러면서 그는 송수화기를 들어 송철만의 손에 쥐여 주고 무

작정 군용전화기의 발전자를 돌려 놓았다. 더 사양한댔자 보람이 없음을 깨달은듯 송철만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 줄것을 요구하였다. 윤상설과 리영선이 량쪽에서 부축여 조심히 일으켜 세워 주었다. 그런 상태에서 철만은 가슴을 쭉 펴며 온 정신을 귀에 모았다.

정적… 예견했던것보다 좀 늦게 들리는 딸—깍소리에 이은 전류의 흐름…

《**김정일**입니다.》

어딘가 좀 지친듯한 그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송철만은 자기 흥분에 인차 그것을 망각하며 전신에 힘을 주었다.

《중장 송철만 보고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방이 멈춰섰습니다. 간밤에 밀물이 두번이나 들어 왔지만 제방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상설동무와 리영선부부장동무가 제방이 이젠 더는 움직이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송철만은 이제 **김정일**동지의 기쁨에 넘친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그이께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수화기에서 들리는것은 여울목을 지나가는 강물마냥 쏴— 전류 흐르는 소리뿐이였다. 그러는 시간이 1분도 넘고 2분가량 지나자 철만은 나름으로 그이께서 전화도중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겨 자리를 뜨신 모양이라고 짐작하였다. 윤상설은 참지 못하겠는지 눈짓으로 왜냐고 물었다. 그래 철만은 아무 말씀도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벼운 인기척과 함께 수화기에서 **김정일**동지의 밝은 목소리가 울린것은 바로 그때였다.

《…미안합니다. 그래 제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냥 밀립니까?》

송철만은 목구멍에서 갑자기 뜨거운것이 울컥 치미는것을 간신히 참으며 성급히 대답 올렸다.

《아닙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밤새 밀물이 두번이나 있었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방이 멈춰 섰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윤상설동무와 리영선부부장동무는 제방이 이젠 제자리에 들어 앉아서 해일이 밀려 와도 끄떡 없을게라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전 제방감시초소를 떠나 여기 현장지휘소로 오면서 그들 두사람이 확신에 넘쳐 한 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탕한 웃음을 터치시였다.

《윤상설동무와 리영선동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틀림 없다는 소립니다. 남포갑문은 이젠 먹어 놓은 떡이나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모두 자지 못하고 몹시 지쳤을것입니다. 앓는 동무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감공사에 동원된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전체 지원자동무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 주기 바랍니다.

송철만동무와 윤상설, 리영선동무들에게는 별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송철만은 아직도 친애하는 그이의 힘차고 정겨운 음성이 귀전을 두드리는듯 싶어 그냥 송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나 볼을 타고 내리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는 송철만을 바라보는 리영선과 윤상설의 볼에서도 해빛을 받은 아침이슬인양 눈물이 번쩍거렸다.

20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해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저녁이였다.

제야의 종이 울리려면 아직 멀었지만 유정은 능금이와 함께 구석에서 책상을 끌어다 두 침대사이에 놓고 상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송편과 절편이 무드기 담긴 비닐소랭이를 가운데 놓고 그 둘레에 돼지고기볶음이며 훈제한 통닭이며 김치며 하는것들을 적당히

배치하였다. 이제 그들은 가물막이공사의 성공을 축하하고 슬픔속에 있는 귀금이도 위로하는 겸사 송년회를 《성대하게》 벌릴 작정이였다.

귀금은 아직도 부대식당에서 돌아 오지 않았다. 그가 본래의 취사근무를 다시 시작한것은 일주일전이였다. 남편의 비보를 듣고 까무라쳐 쓰러졌던 그를 일으켜 세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위문의 인사였다. 리영선부부장으로부터 남편의 영웅적소행에 대한 그이의 높은 평가와 위문의 말씀을 전달 받은 그는 슬픔에 감격까지 겹쳐 더더욱 몸부림치며 목 놓아 울었다. 그러나 일단 눈물을 거두고 분연히 일어 나자 더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귀금이를 부축하고 유정이도 그 장례식에 참가했었다. 그로서는 난생처음 당해 보는 군인들의 장례식이였다. 관우에 정히 놓여 있던 군모… 바람 부는 산언덕에서 울리던 조총소리… 그 조총소리가 지금도 귀전에서 울리는것만 같다.

귀금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온종일 죽은듯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꺼질듯한 한숨속에 가끔 소리없이 흐느끼기도 하였다. 그 긴긴 겨울밤 한숨과 눈물속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알랴!… 하지만 이튿날 날이 밝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는 다시 윤건호소좌의 대대에 나가 이전처럼 일을 시작하였다.

귀금은 그렇게 굳세고 사랑스러운 녀자였다.…

이윽고 음식을 다 차리자 유정은 능금이더러 고뿌를 세개 가져오게 하고 자신은 침대밑에서 맥주병을 꺼내 상에 올려 놓았다. 그것은 오늘밤 귀금이가 슬픔을 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해와 작별하도록 하자고 돌격대 후방책임자에게 부탁하여 마련한것이였다. 그러나 능금이는 병을 보더니 대뜸 눈이 둥그래지며 놀랐다.

《어마나, 맥주를 마실래요?》

《마시자꾸나. 오늘 같은 날 마시지 않음 언제 마셔 보겠니. 맥주는 청량음료에 속한다니까 별일 없을거야.》

《그러다 취하면 어떻게 해요?》
능금이는 녀자가 맥주를 마신다는것이 무슨 큰 사변처럼 생각되는 모양이다. 아버지가 술이나 맥주 같은걸 전혀 마시지 않다 보니 유정이도 걱정스럽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호실의 맏언니답게 제법 호기를 부려 보았다.
《취하면 뭐 어때? 우리끼린데 춤이랑 추면서 한바탕 즐겁게 놀아 보자꾸나 뭘.》
《원 언니두, 취하면 혀가 꼬부라 지구 발이 어디를 짚는지도 모른다는데… 어쨌든 언닌 요새 좀 달라 졌어요.》
《달라 졌겠지.》 김치사발이 중심에 놓이지 않은것 같아 바로잡으며 유정은 자신의 변화를 기꺼이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건설장에서 달라 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니, 목석이지. … 나는 내가 요새야 바로 어른이 되고 생활을 알게 되는것 같다.》
귀금은 11시가 다 되였는데도 들어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능금이가 데리러 가고 유정은 솜옷을 어깨에 걸친 채 홀로 방안을 거닐며 윤건호대대장에 대해 생각하였다. 보고 싶었다. 그럴수만 있다면 이 밤중에라도 달려 가 만나보아야 그리움을 덜수 있을것 같았다.
언젠가 봉희는 첫사랑때를 추억하면서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고 싶은 욕망의 나날이였다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유정은 봉희의 고백을 솔직한 점은 있지만 사랑의 첫시절에 대한 총화로선 너무 빈약하고 지어 천박하다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봉희가 겪은것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부인할수 없었으며 그것을 《천박》한 감정이라고는 더욱 말할수 없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는 지난번 출장길에 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목을 주던 그 잊을수 없는 순간을 부끄러운 마음속에 상기하였다. 가물막이제방안에서 물을 퍼낸 조건을 가상하여 제방에 미치는 수압관계를 계

산해 올데 대한 과업을 받고 평양에 들어 간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그는 윤건호대대장에게 면회 가는 문제는 맡은 과업을 수행한 다음의 일로 예견하였다. 수술을 받은지 그리 오래지 않은 조건에서 아직 면회가 허락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과업부터 수행하는것이 옳을것 같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연구소에 나가 오전내 전자계산기를 다루어 보고는 그를 만나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래 오후에는 아예 일을 그만두고 시내에 나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인민무력부병원으로 찾아 갔다. 그런데 병원정문앞에서 그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군대병원은 다른줄 알았는데 사회병원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만 환자를 만날수 있다는것이였다. 일요일까지는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다. 그 사흘동안을 어떻게 기다리랴 싶어 그는 상등병인 정문보초병에게 사정해 보았다. 그러나 보초병은 얌전스런 생김새와는 달리 아주 무뚝뚝하게 안된다고 딱 잘라 매며 두말 못하게 하는것이였다. 유정은 건설장에서 군인들이 군대에선 상등병이 지키는 보초소를 통과하기가 제일 힘들고 군사칭호가 높은 상관일수록 규정을 따지지 않는다고 롱담삼아 해주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이 어린 상등병에게 빌붙느니 차라리 높은 상관을 만나 사정하는것이 옳겠다고 보아 그는 병원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보초장이 나와 신분증을 요구하고 사유를 묻고 (유정은 갑문건설장에서 무슨 부탁을 가지고 온듯이 묘사했다.) 전화가 걸리고 하던 끝에 마침내 원장의 방에 들어 갈수 있게 되였다. 원장은 몸이 틀지고 안경을 낀 반백의 장령이였다. 유정의 면회요청을 듣고 장령은 어이 없는지 한참동안 책상너머로 쳐다만 보더니 물었다.

《그래 그 대대장을 동무가 꼭 만나야 할 리유는 무어요?》

유정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하면 애써 만든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대담성을 발휘했다.

《저는 그 동무와… 약혼…》

유정은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자신이 이런 부끄러운 말도 서슴없이 할수 있는 뻔뻔스러운 녀자가 되였다는것이 진정 놀랍

게 생각되였다.

원장은 아무 반응없이 한동안 잠잠해 있더니 천천히 송수화기를 들어 입원실을 찾았다. 그리고 전화가 련결되자 담당군의를 불러 환자의 상태며 면회의 가능성여부에 대해 문의한후 면회를 시켜도 일없는 모양 약혼녀가 가면 만나게 해주라고 하며 송수화기를 놓았다.

《자, 이러면 되겠소?》

《고맙습니다, 원장동지!》

유정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사례하였다.

입원실문앞에서 그를 맞이해 준것은 량볼이 익은 도마도처럼 새빨갛고 위생복우로 내놓인 군복깃에 상등병령장을 단 담당간호원이였다. 오늘은 어찌된 셈인지 가는 곳마다에서 상등병과만 맞다 들린다고 생각하며 유정은 소좌의 호실을 물었다. 그런데 간호원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여 나왔다.

《호실은 11호실이지만… 환자동지가 면회를 하지 않겠답니다.》

이런 경우를 예견 못한 관계로 유정은 일순 어리둥절하였다.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왜 면회를 하지 않겠대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나고 싶지 않으니 돌아 가 달랍니다.》

유정은 어이 없었다. 이런 거절을 당하자고 병원 원장까지 만나면서 애써 찾아 온것은 아니였다. 그는 이것이 달포전의 그 잊을수 없는 밤에 손목을 주지 않은데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른 리유란 있을수 없었다. 남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 놓고는 오히려 제편에서 물을 끼얹고 있지 않는가.

그는 간호원에게 어디서 무슨 오해가 생긴것 같으니 들어 가도 별일 없을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간호원은 문을 딱 막고 서서 안된다고, 환자가 싫다는 면회를 억지로 하면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것이였다. 역시 상등병이였다. 유정은 그만 화가 나서 어성을 높였다.

《이봐요 간호원동무, 동무는 원장선생님의 지시도 집행하지 않아요?》

《?…》

원장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간호원은 금시 눈이 둥그래졌다. 이제는 주도권이 자기쪽에 있다는것이 명백해 지자 유정은 전화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으로 한번 압력을 가했다. 그것으로 사태는 완전히 뒤집혀서 그는 오늘 벌써 두번째로 상등병이 지켜 선 문을 통과하여 11호실(독방이였다.)에 들어 설수 있었다.

유정은 아픈 마음으로 이불을 덮은채 눈을 감고 반듯이 누워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달포사이에 수술을 두번씩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힘겨웠으랴. …

《갔소?》

여전히 눈을 감은 윤건호의 물음, 아마도 방에 들어 온것을 간호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유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꾸는 곱지 않게 했다.

《가지 않았으면 어쩌겠어요?》

정적… 윤건호는 감은 눈을 애써 뜨려고 하지 않았다.

《언젠 손목을 안준다고 패뜩하더니 이젠 원쑤치부를 하세요?》

《그건… 실수였소.》 고통을 씹어 삼키는것 같은 윤건호의 대답이였다.

《실수면 용서를 빌어야죠. 그럴 용기가 있어요?》

《있소.》

《거짓말 말아요.》

유정은 갑자기 보이지 않는 불길이 전신을 휩싸는것 같은 느낌을 체험하였다. 그 불속에 몸과 넋을 맡기며 무너지듯 침대앞에 주저앉은 그는 이불밑에 손을 넣어 사나이의 크고 무거운 손을 더듬어 쥐였다. 그 손을 끌어다 자기의 손목우에 놓아 주며 화끈 달아 오른 얼굴로 지그시 눌렀다. 억센 집게에 물리운듯 사나이의 뜨거운 손이 손목을 서서히 조인다. 그 손을 통해 전달되여 오는것은 온기가 아니라 그대로 불이였다. …

능금이와 귀금이는 11시 반도 넘어서야 눈사람처럼 되여 가지고 방에 들어 섰다. 그들이 눈을 털고 옷을 벗어 건 다음 상에 둘러 앉자 유정은 식탁우에 덮었던 보자기를 벗겼다. 이런 좌석을 예견 못했던 귀금은 잠시 얼떠름했다가 슬픔이 어린 아련한 눈길로 식탁을 내려다 보았다. 그런 속에서 고뿌에 맥주가 부어 지고 마침내 세 녀인은 들고 일어 섰다.

《갑문건설이 하루빨리 잘되길 바래서…》

능금이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세 녀자는 잠시 숭엄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우리모두의 건강과 두 언니의 행복… 행복…》

능금은 갑자기 뒤말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전등은 여전히 밝건만 방안의 분위기는 즉시 어두워 지는것 같았다. 능금이도 그것을 깨달은듯 낯색이 약간 창백해 지더니 불현듯 고개를 떨구며 흑― 하고 흐느꼈다. 이런 경우를 예견 못했던 유정은 당황하여 어쨌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그는 얼른 귀금이를 쳐다보았다. 그래도 오히려 태연한것은 귀금이였다. 그는 슬픔이 얼어 붙은 창백한 표정으로 쥐고 있는 잔만 이윽히 내려다 볼뿐 아무런 감정변화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의 그런 강인한 모습에서 힘을 얻어 유정은 자신부터 수습하여 가볍게 능금이를 나무람했다. 능금이도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며 인차 눈물을 닦았다. 그제야 귀금은 얼굴을 들었다.

《고마와요, 언니 그리고 능금이… 평생토록 오늘을 잊지 않겠어요.》

슬픔을 누른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고뿌를 들어 입에 가져 갔다. 그와 함께 유정이도 마시고 능금이도 마셨다. 난생처음 마셔 보는 음료여서 그들 세 녀인은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진저리를 쳤다. 그러나 쓰거움이 무사히 목구멍을 넘어 가고 내부로부터 벌써 어떤 반응이 느껴 지자 그들은 저마끔 손바닥으로 가슴을 매만지며 서로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웃기 시작하였다. 눈물이 글썽하도록 한바탕 웃고나서 그들은 빈고뿌에 다시 맥주를 부었다. 바로 그때 고성기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

리기 시작하였다. 순간 모두 입을 다물고 경건한 마음으로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엉… 더엉… 더－엉…

머나먼 우주의 한끝에서 울려 와 심혼의 문을 두드리는것 같은 그 웅장우아한 종소리를 눈을 감고 하나, 둘… 세면서 그들 세 녀인은 마음속으로 기원하였다.

(어서 오시라, 새해 1984년이여. 우리모두에게 부디 기쁨과 행복만을 약속해 다오. 희망의 새해여! …)

고였던 눈물이 넘쳐 나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 내렸다. 귀금이와 능금이도 울었다.

갑문건설의 네번째 해는 그렇게 밝아 왔다.

21

드넓은 호수로 변한 가물막이제방안의 물을 다 퍼내기까지는 옹근 두달이 걸렸다. 어마어마한 대형양수기 15대가 상하류제방을 빙 둘러 싸고 온 겨울 밤낮없이 물을 퍼냈다. 제일 추운 정이월에는 하루밤 자고 나면 양수기아구리옆에 얼음산이 생기고 그것을 폭파해 버리면 이튿날 아침 또 생겨 났다. 물이 주는데 따라 제방안쪽에 층층이 매달렸던 얼음장들이 한낮이면 해빛에 녹아 철썩철썩 물에 떨어 지며 파도를 일으키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그동안 제방뚝이 터진다고 소동이 일어 난적도 두번이나 있었다.

제방안의 물면이 낮아 지는데 따라 대사리때 수압이 높아 지면서 강철원통들이 사방에서 찡— 찡— 울며 피도쪽에서 바닥이 드러나는대로 감탕파기를 시작했던 만여명의 군인들과 숱한 기계수단들을 철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론쟁을 벌린것도 몇번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이제는 지나간 일로 되였다. 수수억년 물속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태양아래 자기의 몸을 드러낸

제방안에서는 지금 만여명의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오글복작거리며 갑실기초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단계에서 제일 어렵고 앞선 작업과제는 기초굴착이다. 그때문에 두 건설지휘부는 총 력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것이다.

제방우에서 내려다 보면 감탕바닥에 있는 사람이 장난감인형처럼 작게 보인다. 그들모두는 물푸기가 끝난 마지막날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어찌 그 장쾌한 아침을 잊을수 있으랴. 한방의 신호총성과 함께 겨우내 물을 토하던 양수기들이 여분의 물을 푸기 위해 한대만 남고 모두 멈춰 섰다. 순간 지켜보던 만여명의 군인들과 지원자들속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 올랐다. 우렁찬 만세소리는 25메터의 아득한 높이로 5리에 걸쳐 총총히 둘러 선 강철제방에 부딪쳐 공명되고 메아리치며 한동안 제방안을 감돌다가 마침내 회오리마냥 여운을 끌며 하늘가로 사라졌다. 물이 쩌 꾸득꾸득해 지려면 아직 며칠 걸려야 했지만 누가 조직했는지 질벅거리는 감탕판에서는 벌써 축구경기가 벌어 졌다. 하기는 누구의 조직이랄것도 없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봄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가물막이제방안의 물푸기가 끝나면 축구경기를 벌려 놓고 제방이 터질가봐 겁나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구경시키는게 좋겠다고 하셨으니 그이의 말씀을 집행하는 셈이였다. 공이 아니라 물에 푹 젖은 감탕덩이를 차굴리는것이 무슨 축구랴, 차라리 투구라고 하는편이 더 비슷할것 같았다. 그래도 응원자들은 와— 와— 소리치고 선수들은 제법 머리받기도 하며 공격에 열을 올렸다. 한편에서는 300년 묵은 항아리 같은 소라를 파냈다고 환성을 올리는가 하면 고기잡이에 열을 올렸다. 다른쪽에서는 직경이 1메터나 되여 껍질에 한개 중대의 밥을 담을수 있는 조개를 주었다고 왁자지껄 떠들어 댔다. 오백살짜리 바다거부기를 붙들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붙들릴 당시 거부기가 살려 달라는듯 처량한 눈길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뚤렁뚤렁 떨구더라는지… 허나 그것 역시 이제는 추억으로 되였다.

배가 부두에 들어 서기 바쁘게 윤상설은 잔교를 내려 현장지휘부쪽으로 올라 갔다. 여전한 작업복차림에 모자를 쓰지 않아 희

숙희숙한 머리가 바람에 나붓기는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홀아비》 살림살이가 들어 있는 커다란 멜가방이 걸려 있었다. 송철만국장이 부재중이기때문에 그는 오늘부터 끝살부리공사지휘부에 틀고 앉을 작정이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내부사업을 종합하는 소좌가 혼자 앉아 어딘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배낭을 맡기고 밖에 나선 그는 혼합장건설이며 건설용수배관조립정형을 두루 살피면서 갑실기초굴착장으로 내려 갔다. 피도가 멀지 않은 (하기는 이젠 섬도 아니다.) 상류제방 중간쯤에 이른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무량한 감개속에 기초굴착작업을 하는 공사장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봄바람을 안고 힘차게 나붓기는 붉은기발과 각종 구호판들이 우선 눈에 띄운다. 개중에는 돌격대명칭 아니면 지원 나온 단위의 이름을 새긴 대폭의 기발들도 많다. 굴착기며 불도젤이며 수송차들은 아직 땅이 걸마른 끝살부리와 피도쪽 변두리에서만 맴돌고 있다. 가운데는 푹푹 빠지는 수렁창이여서 기계수단이 들어 갈수 없는것이다. 두대의 대형양수기가 밤낮없이 그냥 물을 퍼내는 거기 바닥 깊은 곳에서는 지금 만여명의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오글복작거리며 질통으로 혹은 들것으로 감탕을 파나르고 있다. 기계가 들어 가지 못하니 그런 인해전술밖에 통하지 않는것이다. 사방에서 방송차가 힘찬 선동과 음악으로 전투원들을 로력적성과와 위훈에로 부르고 있다. 시랑송도 들린다. 취주악대도 수십개나 된다.

나팔소리, 북소리가 방송차에서 울려 나오는 선동과 합쳐 져서 어느 하나도 온전히 가려 들을수 없다. 허나 가려 듣지 못해도 좋다, 다같이 심장을 두드리며 로력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힘찬것이거니…

상설은 팔다리에 힘이 솟구치면서 땀이라도 한바탕 뽑고싶은 생각이 들어 바닥으로 내려 갔다.

질통을 얻어 지기가 수월치 않았다. 하전사들이나 지원자들한테 좀 교대하자고 들었다가 거절당하고 픗낯을 아는 어느 부대장한테서 그것도 빼앗다싶이 해서야 겨우 얻어 질수 있었다. 일단 질통

을 지거나 들것을 들면 걸을수 없다. 짐을 졌건 부렸건 모두 단숨을 뿜으며 드달려 다닌다. 그런속에 섞여 상설은 같이 달려 다녔다. 그런데 나이탓인지 세행보를 하고나니 벌써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땀으로 미역을 감은것처럼 되여 버렸다. 그런대로 한행보 더 하고 돌아 와서는 부대장에게 질통을 빼앗겼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 서있는 방송차에서 주위의 모든 소리를 짓누르며 시랑송이 시작되였다.

나는 어제날의 기관총소대장
울부짖는 포연탄우 헤치며
불 타는 락동강을 건너 온
50년대의 전쟁로병

허나 내 지금 여기 갑문건설장에서
다시 불 타는 락동강을 보고있나니

목소리만 듣고도 상설은 랑송자가 다름아닌 시인 김시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가물막이공사를 하던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안해와 함께 현지에 나와 자신이 쓴 시로 군인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였고 그 과정에 면목도 익혔다. 시인은 아들 건호의 대대에 이름을 등록한 명예돌격대원이기도 하였다. 그는 시인을 만나보고 싶어 방송차가 서 있는 둔덕으로 올라 갔다. 시랑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은 바로 그대들
바다를 막아 기적을 창조하는
그래서 조국이 더없이 사랑하는
그대들 병사들이다!
그렇다, 병사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의 위훈을 잊지 않으리니
쓰자, 새기자 여기 바다밑에

조국을 위한 당을 위한 수령님을 위한
영웅들의 서사시를!

박수와 함성… 어디서 났는지 꽃다발에 꽃목걸이를 들고 방송차를 향해 달려가는 군인들도 있었다. 면내의바람으로 질통을 진채 서서 듣던 병사들, 지원자들, 굴착기와 수송차운전칸에서 머리만 내놓고 귀기울이던 운전사들의 얼굴에 격정과 함께 미소가 어린다. 하기는 자신들을 시인으로 불러 주었으니 왜 기쁘지 않으랴.

윤상설이 언덕에 올라 섰을 때 시인은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밀차에서 승용차에 옮겨 타고 있었다.

《아, 전권대표동무!》

시인쪽에서 먼저 이 편을 알아 보고 반색을 지으며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의 불편한 몸을 헤아려 바삐 다가가 손을 잡자 시인은 그러지 않아도 만나보고 가려던 참이라고 하였다.

《나를 말입니까?》

상설은 그가 자기를 애써 만나야 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나 짚이는것이 없었다.

《대대장동무가 전주 금요일날부터 지팽이를 버렸습니다. 군의들의 말을 들어 보니 그는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군사복무를 계속할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아들 건호에 대한 소리였다.

《아니, 그애를 만나보고 왔습니까?》

《나의 상관이 아닙니까.》

하기는 그렇다. 아들의 대대 명예대원이니…

《고맙습니다. 그런 수고까지 해주어…》

시인이 탄 승용차가 밋밋한 경사지길을 따라 하류쪽 제방우로 올라 가는것을 바래우고 섰던 상설은 그만 자기 눈을 의심하며 놀라 굳어 졌다. 놀랄수밖에 없었다. 금방 시인의 승용차가 에돌아 올라간 거기 제방우에 송철만국장이 앉아 있었던것이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평양에 가 입원하

고 있는 사람이…)

그는 반달음을 놓아 제방우로 올라 갔다. 그러나 가까이 접근하여 송철만이 담가우에 앉아 있음을 알게 되자 저도 모르게 우뚝 멎어 섰다. 장령외투를 어깨에 걸친채 담가우에 비스듬히 절반 눕고 절반 앉은 그는 대공전화로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승용차와 함께 위생복차림의 군의와 간호원이 치료가방을 열어 놓고 대기하고 있다. 이윽고 필요한 지시를 다 준듯 송철만은 대공전화기를 놓고 다시 쌍안경을 들어 눈에 가져 갔다. 그리고 오래 공사장을 내려다 보았다.

상설은 불현듯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병고에 시달리는 몸인데다 옆모습으로 올려다 보이는 탓에 송철만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진것 같았다. 하얀 귀밑머리가 유난히 눈에 띄운다. 채양우에 시누런 금줄이 건너 간 장령모와 금장의 크고 검은 별만 아니라면 그는 촌늙은이 진배없을것이다. 그러나 군의와 간호원의 감시를 받으며 비록 담가우에 앉아 있을망정 그의 몸에서는 군인의 당당한 위엄이 풍기고 있다. 지금 쌍안경을 들어 공사장을 내려다 보는 그의 모습은 흡사 천군만마를 거느린 전설속의 옛 장수가 전장을 굽어 살피는 기상이다. 하기야 왜 전설이기만 한가. 갑문건설도 하나의 큰 전역이고 송철만이 그 현지사령관이거니…

상설은 걸음을 내짚었다. 걸으면서 송철만이를 갑문건설국장으로 앉힌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그보다도 오늘의 승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갑문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긴데서 이룩된것이라고 봐야 한다. 군대가 아니였으면 누가 건설을 오늘처럼 해제꼈겠는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이제 2년후이면 완공된 갑문이 그 웅자를 세상에 드러내놓게 되리라는것을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세해전, 아직은 상상속에 존재하며 앞길에 어려움만 첩첩히 가로놓여 있던 그때 벌써 **김정일**동지께서 혜안으로 그려보신 조국의 새로운 재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크나큰 선물이였다.

종 장

1

…승용차는 대안을 지나 남포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왼쪽 차창옆으로 옮겨 앉으시였다. 유리를 내리고 차창턱에 팔굽을 놓으신 그이께서는 불어 드는 신선한 새벽바람을 맞으시며 강변에 눈길을 주시였다. 해가 뜨지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여서 강건너 은률쪽의 산발들은 그늘속에 우중충하게 보이고 그 아래 수면우에는 명주필 같은 새벽안개가 강변을 따라 길게 누워있다. 밤고기잡이를 한것 같은 나루배 하나가 꿈속을 가듯 안개를 헤치며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오른다. 미술가라면 화판에 옮길 욕심도 낼 강반의 그 아늑한 풍경을 좀 더 보는가 싶었는데 홀연 둔덕이 다가 와 그 모든것을 지워 버리고 차는 산밑에 뚫린 동굴속으로 들어 갔다. 이내 동굴을 빠져 나왔으나 강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도로를 따라 점차 낮아 지는 산허리에 점점이 널린 연분홍진달래가 시야에 들어 왔다. 수줍은듯 다박솔옆에 홀로 피였는가 하면 바위너럭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봄을 속삭이는것 같은 진달래의 그 은근한 아름다움을 감상하시던 그이께서는 부지중 (봄, 얼마나 기다리던 계절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뇌이시였다.

누가 봄을 원치 않으랴. 이 봄은 **김정일**동지께서도 몹시 기다리신 봄이였다. 그이께서 이해 1986년 봄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신것은 이 봄에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도모하는데서 극히 필수불가결한 남포갑문의 준공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기때문이였다.

20년이 걸리기전에는 (그것도 최소한이였다.) 절대로 안된다던 갑문, 어느 외국사람이 금세기안으로 건설해도 기적이라던, 또 누

군가는 5년동안에 건설하면 조선속담대로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며 두고보자던 그 남포갑문이 꼭 5년만에 완공되여 바야흐로 준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기는 이젠 남포갑문이 아니라 서해갑문이다.

그렇게 명명하자고 건의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얼마전 친히 비문까지 써 내려 보내주시였다.

하지만 준공식을 하자면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마감고비에 이른 가물막이해체작업을 빨리 끝내고 갑실로 들어 오는 배길을 열어야 하며 역시 마지막단계에 이른 남포와 은률을 련결하는 철길부설과 갑실우에 놓이는 회전다리를 조립시운전해야 하였다. 할 일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준공식을 하자면 여러가지 기념비와 탑들도 세워야 하였다. 그 과업은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이 현지에서 맡아 수행하고있는데 실형초안이 완성되였으므로 보아 달라는 보고가 어제저녁에야 들어 왔다. 이 아침 그이께서 남포로 나가시는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차는 벌써 남포시내를 통과하여 바다기슭을 달리고 있었다. 이제는 거대한 인공호수로 변한, 갈매기들이 한가로이 날아 드는 멀리 바다 저쪽으로 갑문의 전경이 신기루마냥 우렷이 떠오른다.

무량한 감개속에 만시름을 잊고 그것을 부감하는사이에 차는 어느덧 문주기념비공사가 한창인 서해갑문 령남리쪽 입구에 당도하였다. 기념비건립과 준공식준비를 위해 현지에 나와있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현지의 두 건설지휘부 책임일군들 그리고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다.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과정에 그이께서는 송철만중장의 손을 류달리 오래 쥐고 계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의 은빛머리칼을 바라보시였다. 갑문건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새까맣던 머리가 이렇게 세였겠는가.

《…나는 나이많은 사람들이 젊게 보이겠다고 머리에 물을 들이는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장동무는 머리에 물을 들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의 집안래력이 원래…》

변명이 스스로도 어색하게 생각되는지 송철만은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집안래력은 그렇더라도 준공식에는 검은 머리로 참가해야 합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수령님을 안내해 드리는 소임은 아무래도 중장동무와 윤상설동무가 맡아야겠는데 이렇게 머리가 흰걸 보고 수령님께서 가슴아파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제야 중장은 더 어쩌지 못하고 수긍하였다.

준비된 사판과 형성도안을 보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콩크리트타입만 해놓고 화강암을 입히지 않은, 발대목에 둘러싸여 륜곽만 알리는 문주탑신을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가며 바라보시였다. 그런 다음에야 공사현장을 거쳐 형성도안앞에 다가서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시였다.

《위치도 좋고 갑문의 위용에 맞게 탑의 크기와 형태도 잘 설정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주가 너무 껑충해서 좀 싱겁기도 하고 그 아래 조각군상이 눌리우는 감이 있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일제히 문주쪽대기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시선이 다시 화강암으로 륜곽만 쳐놓은 조각군상에 내려 와 과연 그렇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은듯 모두 고개를 끄덕이였다. 작업복차림의 한 창작가가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문주기념탑이라는데만 의의를 부여하다보니 기본을 놓친것 같습니다. 문주를 한 50센치가량 낮추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주와 군상과의 거리관계를 가늠해 보시였다.

《옳습니다. 반메터정도 낮추면 비슷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주기념비라도 탑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조각군상입니다. 문주도 날뛰는 파도를 밟고선 용감한 군인건설자들의 군상을 부각시키는 조건으로 되여야 합니다.》

유래비와 문주기념탑은 더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며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기하고 있던 배편으로 일군들과 함께 끝살부리로 건너 가시였다.

은률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건립하는 송관문주기념탑은 령남

문주탑과 형식이 좀 다르게,두개의 탑이 각기 갑문건설자들의 간고한 로력투쟁모습을 부각한 화강석조각군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송관문주기념비를 조각군상으로 일관시킨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령남문주탑과 달라서도 좋지만 이 갑문과 함께 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되여 더욱 좋습니다. 후대들은 현세기 80년대에 우리 군인들이 당의 령도밑에 이 거대한 갑문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다 모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지 투쟁모습을 이렇게 화강암에 새겨 놓으면 그들도 알게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듬지 않은 파도 사나운 바다를 형상한 기단우에 륜곽만을 쳐놓은 조각군상을 이슥토록 올려다 보시였다.

《…군상이라고 해서 개별적인물들의 형상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매 인물들을 뚜렷한 개성과 과제를 명백히 가진 산 인간으로 형상해야 합니다. 창작가들이 저 매 인물들의 원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잠수병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제방을 구원한 박선봉영웅을 원형으로 삼아야 하며 신호기발을 펼쳐 쥐고 대원들을 돌격에로 부르는 저 지휘관은 충돌직전의 함형부재사이에 몸을 던진 그 영웅대대장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웅들때문에 이 서해갑문이 5년동안에 건설될수 있었고 그들은 다 갑문과 함께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 질 영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이의 격동적인 말씀에 수행한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송관문주기념탑에는 더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그이께서는 다시 피도로 건너 가시였다. 피도에는 등대탑과 수령님의 친필비가 건립되고 있었다. 워낙 명필이신 수령님의 친필을 화강석통돌에 쪼아 새긴 비는 벌써 다 완성되여 지금 한창 주변정리를 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글자획들이 살아 움직이는것처

럼 힘찬 수령님의 친필비문을 읽어 보시였다.

서해갑문은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룩한 위대한 창조물이다.
갑문건설자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김 일 성 1986. 5. 22

이제는 등대탑만 보면 되였다. 등대탑은 섬의 둔덕우 정점에 건설되고 있었다. 올라가는 길이 변변치 않은데다 어지간히 가파로와서 걱정하는 일군들도 있었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의치 않고 앞장서 걸으며 가물막이해체작업과 회전다리조립을 비롯한 전반적 준공식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료해결과 이미 계획한대로 6월중순에 충분히 준공식을 할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으시였다.

《…그건 그렇고…》하고 그이께서는 바위돌들이 삐죽삐죽 솟은 울퉁불퉁한 산비탈을 골라 짚으며 화제를 돌리시였다.

《준공식을 하자면 수훈식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장내신을 한창 하는데… 영웅을 좀 많이 내려고 합니다.》

송철만중장의 대답이였다.

《많이 내야지… 5년동안 이 서해전역에서 〈건설전쟁〉을 했는데 영웅이 적을수 없습니다. 그래 예견되는 대상자가 대략 몇이나 됩니까?》

《암만 줄잡아도 한 사오십명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것 같은지 중장은 말꼬리를 삼키며 열적은 표정까지 지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중장이 많다고 생각하는 수자가 너무 적어서 놀랍기까지 하시였다.

《아니, 왜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사오십이면 너무 적습니다. 내가 보고받은 영웅적사실만 해도 그보다 많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의 주인공들은 다 영웅입니다. 서해갑문에서는 100명의 영웅이 나와도 좋고 그이상 나와도 일없습니다. 서해갑문건설자들은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송철만은 그제야 심장이 커지는지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한 백명을 기준으로 더 내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꼭 백이라고 기준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따져 보아 대상이 되면 다 영웅칭호를 주어야 합니다. 한껏 욕심을 부리시오. 욕심을… 영웅이 많이 났다는건 그만큼 조국이 부강해 지고 인민의 행복이 커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갑문건설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도 영웅이 많이 배출될것으로 보시였다. 그런데 윤상설부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니 도무지 오륙명을 예견하고 있었다.

《아니, 동무들은 왜 그리 옹색하게 판을 폈습니까?… 더 찾아 보시오. 과학자,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영웅이 고작 대여섯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군인건설자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겠지만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한데서 2년반은 과학자들이 얻어낸 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훈장뿐아니라 명예칭호와 과학상 같은것도 많이 수여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판을 다시 펴보겠습니다. 한껏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사이에 일행은 섬 등마루에 올라 섰다. 곧추 세워 놓은 닻모양의 등대탑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닻을 모방한 착상도 묘하지만 시공도 잘해서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세공품을 련상케 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화려한것은 발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갑문이였다. 무넘이와 보조무넘이 수문언제를 거느린 세개의 크고작은 갑실, 조화롭게 배치된 원추형의 조종탑들, 피도에 한끝을 두고 휘우듬히 굽어 멀리 남포쪽으로 사라진 기본언제, 언제안에 가득찬 하늘이며 태양이 내려 와 잠긴 대동강의 푸른물…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섯해전 어느 봄날, 갑문건설위치를 정해 주러 나오셨던 수령님께서 이제 갑문을 건설하고 제방안에 27억톤의 물을 저수하면 대단한 물부자가 될것이라고 하시던 말씀을 상기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조국은 드디여 물부자로 된것이다. 얼마나 기쁘시랴. 수령님께서…

《우리가 수령님의 생전에 이 갑문을 완공한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미진된 일들을 빨리 결속하고 수령님을 모셔야겠습니다.》

준공식은 그후 6월 24일 오전에 거행되였다.

2

하늘도 지상의 경사를 아는가 싶었다. 전날 오후부터 흐리기 시작하여 간밤 자정에 비까지 한바탕 쏟은 하늘이 아침 여덟시경이 되자 씻은듯이 개이고 해가 떠올랐다.

그무렵 갑문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이미 령남문주탑입구로부터 20리 제방길 좌우에 총총히 늘어서기도 하고 준공행사가 거기서 진행될 1호갑실앞에 운집하여 이제나 저제나 수령님께서 오실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모두의 얼굴에서는 당이 준 과업, 세계적인 대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해제끼고 준공의 날을 맞는 기쁨과 긍지가 흘러 넘쳤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뵙게 되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환히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시각이 왔다. 정각 아홉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그리고 친선방문중에 있는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일행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고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는 가운데 송철만중장으로부터 완공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1호갑실앞에 늘여진 붉은천을 끊어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서해갑문의 준공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또다시 환영곡이 울리고 하늘땅을 진감하는 환호성속에 경축의 꽃보라인양 수천개의 고무풍선들이 하늘로 떠올라 갔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그리고 외국손님들과 함께 갑문시설들을 돌아 보시였다. 보시는 과정에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만년대계의 갑

문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당의 권위와 조국의 위력을 빛내인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세네갈대통령은 갑문의 웅대함과 그 리용전망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흥분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준공식에 초대받아 나오면서도 이런 대규모의 갑문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창조물입니다. 2천톤으로부터 5만톤급 대형짐배 통과능력과 수십억립방메터의 물을 저장할 능력을 가진 이 갑문은 조선인민에게 모든 면에서 커다란 진보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의 진심으로 되는 높은 평가와 고무적인 말에 사의를 표하고 긍지 높은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갑문은 우리 당의 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하나에서 백까지 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떠 세운 명실공히 주체적인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갑문을 5년동안에 건설했습니다. 강도 아니고 조수차가 심한 날바다를 막아 이런 대갑문을 단 5년동안에 건설한다는것이 리론적으로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군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실천해 냈습니다.

대통령각하도 말씀했듯이 이 갑문은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세네갈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수령님의 말씀에 리해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물어 왔다.

《그런데 주석각하, 각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컨대…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런 기적을 이룩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이라고 할 어떤 묘방이 따로 없기도 하거니와 한마디로 규정짓기엔 폭이 너무 넓은 질문이여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좀 해보시고서야 대답을 주시였다.

《대통령각하의 물음에 적중한 대답을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비결이나 묘방을 가지고 갑문을 건설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말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김정일**조직비서의 명언인데 그가 바로 이 서해갑문건설을 총 지휘했습니다. 나는 그저 붉은 테프만 끊었을뿐이고 건설은 그가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5년이라는 비상히 높은 건설목표를 제시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돌보는 바쁜속에서도 인민군대와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갑문건설전투를 오늘의 승리에로 이끈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력을 감회깊게 회고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 내가 체험한데 의하면 평화적건설은 전쟁에 못지 않게 힘든 싸움입니다. 전쟁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생사의 싸움〉이라면 평화적건설은 나라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창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해갑문건설을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고 했고 **김정일**동지는 군대를 령솔하여 그 건설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승리에는 표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건설자들에게는 영웅칭호를 비롯하여 많은 표창이 차례질것입니다.

그럼 **김정일**동지에게는 어떤 표창을 주어야 하겠는가? 나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다 그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최고의 표창으로 될것입니다. 그는 군사에도 건설에도 다 준비되여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미래는 밝고 창창합니다.》

통역을 통해 수령님의 말씀에 접한 구척장신의 대통령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석각하, 나는 각하가 부럽습니다.

김정일각하와 같은 훌륭한 후계자를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갑문도 척척 건설할수 있으니 주석각하야말로 진정 행복한 분이십니다.》

《대통령각하의 말이 옳습니다. 사실 나는 국가주석으로서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 인민은 좋은 인민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동무들처럼 (수령님께서는 안내를 맡은 송철만중장과 윤상설부위원장을 가리키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이 많습니다. 이 동무들은 **김정일**조직비서의 지도밑에 갑문을 직접 건설한 현지일군들인데 당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수 있는 실천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준비된 일군들이 무수합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며 이 갑문을 건설하고보니 국토건설에 대한 평생소원을 다 푼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생의 큰 소원이 다 풀려 진정으로 행복하신듯 수령님께서는 해빛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 시각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 계시였다. 묘한 일치라고 할지, 지금 그이께서 보시는 문건은 중앙인민위원회 상훈부에서 올려 온 서해갑문건설자들을 표창할데 대한 정령초안이였다. 서해갑문의 위용은 문건만 보고도 알수 있었다.

김일성훈장　　3명
공화국영웅　　3명
…
로력영웅　　94명
…
명예칭호　　16명
…
과학상　　2명

낯익은 이름들이 많았다. 영웅칭호를 받게 된 사람들속에는 송철만중장과 윤상설부위원장의 이름도 있었다. 이번까지 영웅칭호를 받으면 송철만은 2중로력영웅이다. 윤상설의 경우는 대대장인 아들까지 영웅이 되니 한집안에 영웅이 둘 나는셈이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라에도 집안에도 온통 영웅풍년이 들었으니…

문건을 비준하여 밀어 놓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를 일어 창가에 다가가 창문을 열어 제끼시였다. 초여름의 일광아래 신록이 짙어 가는 정원숲에서 새들이 우짖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소소리높이 자란 백양나무우듬지사이로 트인 먼 서쪽하늘가를 이

옥토록 바라보시였다. 서해갑문은 그 하늘아래에 있었다. 지금 거기서는 준공식이 진행되고 있을것이다. 하기는 벌써 끝났을지도 모른다.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그이의 눈앞에는 며칠전 준공식준비정형을 알아 보려고 나가신 길에 다시 피도정점에 올라 부감한 갑문전경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보신 인상으로 등대탑을 하늘에서 떨어 져 박힌 닻이라면 세개의 갑실과 무넘이언제, 꾹대기가 둥그런 모자를 쓴것 같은 원추형의 조종탑, 좌우에 바다와 호수를 낀채 멀리 남포쪽으로 사라져 간 기본언제… 그 모든것이 아름답게 조화된 서해갑문은 금방 진수한 한척의 거대한 함선이였다.

이제 배는 대양을 향해 떠날것이다. 이 20세기의 기슭을 떠나 21세기라는 희망의 대양으로… 광대무변한 그 미지의 바다를 그이께서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는것 같으시였다.